

#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 시작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 책에 사용된 한글성경 번역본은 ‘개역한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따로 표기했습니다.

## 서 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적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알고 ‘하나님의 사역’과 같은 말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은 더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모두 흐리멍덩하게 믿는 것도 당연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사람에게 너무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서 한참 멀어지게 됐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간단한 개념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으로, 짙은 종교적 색채를 띤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함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재자로 믿는 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체험하여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종종 하나님을 믿는 일을 아주 쉽고 가볍게 본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의미를 잃었으며, 마지막까지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도 글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텅 빈 도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실체가 없고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지켜 달라고 하느님(원문: 上帝)에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차분히 하고 생각해 보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함의가 고작 더 많은 은혜를 얻는 것에만 국한되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사람’은 동일 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가장 측량하기 어렵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지도 말씀하지도 않는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헛수고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간파’했다는 사람들은 다 무능한 자, 교만하고 무지한 자라고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규정할 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실로 개미보다 작은 존재거늘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입만 열면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러저러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허황된 말을 늘어놓는 자 아니겠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전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과 대등해질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계책을 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할 일이다. 사람은 마땅히 순종해야지, 이런저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람은 그저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이상, 자신의 관념을 하나님이 사역하는 데 참고해 달라며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패괴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의도적으로 극력 대적하는 것은 더 안 될 일이다. 이런 사람은 적그리스도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논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상,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이상, 진리의 도를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길을 찾아야지, 목을 뺏뺏이 하고 하나님과 대립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했다. 너는 이 말을 못 받아들일 수도,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일단 너의 천연적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만이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진정으로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구하는 데에 있어 연쟁을 벌인다고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차분히 하고 구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역을 했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온 이 일을 가리킨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말을 아주 싫어할 수도 있고, 이 말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어쨌든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남을 갈망하는 사람 모두가 이 사실을 마주하고, 또한 신중하게 알아보기를 바란다. 가장 좋은 것은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일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진리는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해야 할 사역을 가져오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것이며, 성육신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주고, 생명을 베풀고, 길을 가리켜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지 않은 육신이라면 분명히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그가 나타내는 성품과 말씀으로 확인해야 한다. 바깥 말해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혹은 참도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그의 본질로 판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인지 아닌지의 핵심은 그 본질(사역, 말씀, 성품 등 훨씬 다양한 측면)에 있지, 겉모습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겉모습을 살피느라 그 본질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무지몽매한 것이다. 겉모습은 본질을 결정할 수 없다. 더구나 하나님이 한 사역이 사람의 관념에 부합할 리도 없다. 예수의 겉모습이 바로 사람의 관념에 어긋나는 모습 아니더냐? 예수의 용모와 차림새는 예수의 진짜 신분을 설명할 수 없지 않더냐? 당시 바리새인이 예수를 대적한 것도 예수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겉모습만 봤기 때문 아니더냐? 나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찾는 모든 형제자매가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대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하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어떻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지 정신 차리고 고민해 보길 바란다. 이는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책무다. 우리는 뜬구름 잡는 허황된 말에 빠지지 말고 영의 눈을 밝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사역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면을 봐야 한다. 늘 모든 것을 잊고 온종일 봉 뜬 채, 하늘의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예수가 갑자기 너희 가운데로 내려와 이제껏 그를 안 적도 만나 본 적도 없고, 그의 뜻대로 행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가 주길 바라서는 안 된다. 좀 더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거라!

너는 이 책을 펼칠 때 연구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 네가 어떤 태도를 가졌든 이 책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다 읽어 보길 바란다. 이 말씀들을 다 읽고 나면 네 태도가 바뀔지도 모른다. 그것은 네 마음가짐과 깨닫는 정도에 달렸다. 하지만 이 점은 알아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없고, 사람의 말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고, 성육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말씀들을 읽고 난 다음 이것을 사람이 얻은 깨우침이라고만 인정할 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가 너무 무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사람이 얻은 깨우침과 같을 수 있겠느냐?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열고, 전 인류를 인도하고, 비밀을 밝히는 말씀이자 사람에게 새 시대에서 나아갈 방향을 알려 주는 말씀이다. 사람이 얻은 깨우침은 그저 간단한 실행이나 인식에 지나지 않아 전 인류를 새 시대로 인도할 수 없으며, 하나님 자신의 비밀도 밝힐 수 없다.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고,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사람에게에는 사람의 본질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성령의 깨우침으로 보고 사도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한 말씀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사람의 잘못이다. 어찌 되었든 너는 높은 것을 낮다고, 깊은 것을 얕다고 말하며 옳고 그른 것을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진리임을 분명히 알면서 일부러 반박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올바른 입장에서 문제를 살펴봐야 하고,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새 사역과 새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 도태될 것이다.

예수는 여호와와의 사역 이후에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였다. 그의 사역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사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이 율법시대를 끝내고 행한 새 시대의 사역이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역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은 다음 시대의 사역을 계속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경영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낡은 시대가 지나가면 새로운 시대로 대체해야 하고, 옛 사역이 끝나면 새 사역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이어 가야 한다. 이번 성육신은 예수의 사역을 이은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이다. 물론, 이번 성육신 역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의 뒤를 잇는 세 번째 단계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새 사역을 펼칠 때마다 늘 새로운 시작이 있고, 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방식, 하나님의 사역 장소, 하나님의 이름에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생긴다. 이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새 시대 사역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대적하든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고, 항상 전 인류를 인도하여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수는 인간 세상에 와서 율법시대를 끝내고 은혜시대를 열었다. 말세에 하나님은 다시 성육신하였으며, 이번 성육신은 은혜시대를 끝내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를 열었다. 두 번째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나라시대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직접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뿐, 사람의 패괴 성품을 다 벗기지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려면 예수가 속죄 제물이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벗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후 다시 성육신하여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인도했다. 그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얻고, 진정으로 빛 속에서 살며, 진리와 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은혜시대에만 머무르면 패괴 성품을 영원히 벗어 버릴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고유 성품을 알 수도 없다. 늘 풍성한 은혜 속에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생명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 이런 신앙은 너무도 가련하다. 네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성육신 하나님이 하나님나라시대에 행한 사역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나면, 너는 오랜 소망이 드디어 실현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또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발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역의 지혜를 알게 되었다고 느낄 것이며, 하나님이 이토록 실제적이고, 이토록 전능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것이다. 또한 이전 사람이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느낄 것이며, 이때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네가 이전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사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죄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 진리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 전능자의 이름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더 많고 더 높은 진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인생을 얻을 수 있고, 이전 사람이 못 봤던 이상(異象)을 볼 수 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계 1:12~16) 이 이상이 바로 하나님이 지닌 모든 성품의 발현이며, 또한 이 모든 성품의 발현이 바로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의 발현이다. 계속되는 형벌과 심판 속에서 인자는 음성을 발하여 말씀하는 방식으로 고유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형벌과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인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 모습이 바로 요한이 본 인자의 진실한 모습이다(물론 하나님나라시대의 하나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를 전혀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사람이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 성품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의 본래 모습을 사람 앞에 나타낸다. 다시 말해, 인자의 고유 성품을 알게 된 사람은 인자의 본래 모습을 본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해서 사람이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나라시대의 하나님 사역을 하나하나 체험한 후에는 요한이 말한 촛대 사이의 인자의 모습, 즉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은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것 같더라”라는 말의 진정한 함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이처럼 많은 말씀을 한 이 평범한 육신이 확실히 두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확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최고의 행운아라고 진정으로 느낄 것이다. 너는 이런 축복을 받고 싶지 않느냐?

## 목 차

1.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제1편 .....	13
2.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제2편 .....	14
3.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제3편 .....	15
4.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제5편 .....	16
5.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제15편.....	17
6.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제88편.....	19
7.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제103편.....	22
8.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4편 .....	26
9.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5편 .....	28
10.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6편.....	31
11.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8편.....	34
12.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10편.....	37
13. 하나님나라의 추가 .....	40
14.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12편 .....	42
15. 백성들아! 환호하라! .....	45
16.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26편 .....	46
17.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29편.....	49
18.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	52
19. 파괴된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다 .....	53
20. 반드시 없애야 할 종교적 섬김 .....	55
21.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	58
22. 온전케 된 사람에 대한 약속 .....	60
23. 악인은 반드시 징벌받을 것이다 .....	64
24.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	67
25.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것에 관하여 .....	71
26. 새 시대의 계명 .....	72
27. 천년하나님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	76
28. 실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	79
29.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 .....	83

30.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상상처럼 그렇게 간단한가?.....	88
31.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 .....	91
32.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리다 —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전 우주로 퍼져 나갈 것을 예언하다 .....	94
33. 성육신 하나님과 쓰임 받는 사람의 본질적 차이 .....	97
34.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종교 의식이 아닌 실재를 중요시해야 한다.....	102
35. 하나님의 현재 사역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104
36.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알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	108
37.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온전케 한다 .....	117
38.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진다.....	121
39. 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	127
40.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룬다 .....	135
41. 온전케 될 사람은 모두 연단을 겪어야 한다 .....	144
42.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알 수 있다.....	156
43. 하나님을 사랑해야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	161
44. “천년하나님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를 간략하게 논하다.....	169
45.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	172
46.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 간 과정 .....	178
47.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 것이다.....	187
48.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	194
49.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 .....	199
50. 너는 살아난 사람인가?.....	204
51.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적이 된다 .....	207
52.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212
53. 사역 이상 1 .....	217
54. 사역 이상 2 .....	221
55. 사역 이상 3 .....	228
56. 성육신의 비밀 1 .....	242
57. 성육신의 비밀 2 .....	254
58. 성육신의 비밀 3 .....	258
59. 성육신의 비밀 4 .....	265

60. 두 번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해지다 .....	278
61.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285
62. 정복 사역의 실상 1.....	295
63. 정복 사역의 실상 3 .....	304
64. 정복 사역의 실상 4 .....	311
65. 너는 앞으로의 사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	316
66. 너희는 ‘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	317
67. ‘하나님’에 대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	319
68.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	324
69. ‘믿음’에 대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	328
70. 낙엽이 뿌리로 돌아갈 때 네가 행한 모든 악행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334
71. 육에 속한 자는 누구도 그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없다.....	338
72. ‘구주’는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돌아왔다 .....	343
73.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도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이다.....	347
74. 율법시대의 사역 .....	350
75. 구속시대 사역의 실상 .....	354
76. 너는 온 인류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한다.....	358
77. 호칭과 신분에 관하여 .....	371
78. 지위의 복을 내려놓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385
79. 하나님을 ‘관념’으로 규정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겠는가?.....	392
80.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	396
81. 성육신 하나님의 직분과 사람의 본분의 구별 .....	403
82.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	411
83. 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	415
84.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 .....	429
85. 3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446
86. 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	459
87.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질 .....	475
88.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	486
89.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501

90. 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508
91.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	524
92. 네가 예수의 영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을 새롭게 바꾼 후이다....	538
93.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542
9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	545
95. 너는 마땅히 그리스도와 합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548
96.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552
97. 그리스도는 진리로 심판의 사역을 한다 .....	555
98.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큰 일을 하였다는 것을 .....	559
99. 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줄 수 있다.....	563
100. 너는 종착지를 위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해야 한다.....	567
101.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나? .....	571
102. 종착지에 관하여 .....	574
103. 훈언 3칙.....	577
104. 과오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580
105.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584
106. 땅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588
107. 매우 심각한 문제 — 배반 1.....	593
108. 매우 심각한 문제 — 배반 2.....	596
109. 너희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숙고해야 한다.....	599
110. 하나님은 사람 생명의 근원이다.....	603
111. 전능자의 탄식.....	607
112.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	609
113. 하나님은 전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	613
114.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이다.....	617
115.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다.....	625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제1편

찬미가 시온에 다다르고, 하나님의 거처가 나타났도다. 영광의 성호는 만백성이 찬양하며,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도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머리, 말세의 그리스도, 그는 빛나는 태양이요, 온 우주의 위엄 넘치는 광활한 시온산에 솟아올랐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우리는 당신을 향해 환호하고, 춤을 추며 노래하나이다. 당신은 진실로 우리의 구속주이며, 우주의 큰 왕이시나이다! 당신은 이기는 자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셨나이다. 만백성이 반드시 이 산으로 모이고,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리이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참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모든 영광, 찬양, 권병을 보좌로 돌리겠나이다! 보좌에서 생명 샘이 흘러나와 만백성에게 공급하고 양육해 주니, 생명은 날마다 변화하고, 새로운 빛과 계시가 우리를 따르며, 시시각각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나이다. 체험 중에 참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타나고 옳은 사람 안에 나타나나이다. 우리는 복이 차고 넘치나이다! 매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범사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권을 잡도록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빛 비춤을 받을 것이리이다. 매일의 삶, 행동, 언사, 마음, 생각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니 언제든 분별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인해 주니 안에 숨겨진 것들이 줄줄이 드러나나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나이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폭로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매 순간을 살며, 그 앞에서 심판을 체험하나이다. 우리 몸의 구석구석은 여전히 사탄에게 점령되어 있으니 오늘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할 것이나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점유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결사전을 벌여야 할 것이나이다.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권을 잡을 수 있나이다.

지금 성령이 우리의 구석구석을 향해 돌격하며 쟁탈전을 벌이고 있도다! 우리가 기꺼이 스스로를 버리고, 하나님과 협력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수시로 빛을 비추어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고, 사탄이 점령했던 것을 되찾아 와 하루속히 우리를 온전케 하리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며 성도들 모두와 함께 건축하면, 하나님나라로 인도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리라.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제2편

빌라델비아 교회가 모습을 갖추었도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한 것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굳게 믿으며 영적 길을 가옵니다. 유일하신 참하나님이 성육신하셨으며, 그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머리이시라. 이는 성령이 인치신 것이요, 증거가 확실한 영원불변의 사실이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오늘날 당신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셨나이다. 소경을 눈 뜨게 하시고, 앓은뱅이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쳐 주셨나이다. 당신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는 영계의 비밀을 보게 되었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관통되어 사탄이 패괴시킨 인성에서 구원되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크나큰 역사와 긍휼이 나이다. 우리가 바로 당신의 증인이 나이다!

당신은 오랫동안 묵묵히 계시며 자신을 낮추고 감추셨나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인생의 온갖 고초,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나이다. 인간 세상의 고통을 맛보고 시대에 버린 바 되셨나이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거름 더미에서 구원하사 오른손으로 받쳐 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만드셨나이다. 당신께서 수고를 마다 않으시고, 당신의 심혈과 대가를 성도들에게 다 쏟으셨나이다. 우리가 바로 당신의 심혈이요, 대가이 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의 자비와 긍휼, 당신의 공의와 위엄, 그리고 당신의 거룩하심과 겸손하심으로 인해, 만민이 세세토록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리이다.

오늘날 당신께서 교회들, 즉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셨사오며, 당신의 6천 년 경륜이 실현되었나이다. 성도들은 당신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영 안이 서로 통하고 서로 사랑하며, 샘의 근원에 연결되나이다.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 교회의 모든 더러운 물을 씻어 없애사 당신의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셨나이다. 실제의 참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며,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알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리이다. 언제나 당신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며,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기울이고, 당신의 뜻이 우리에게서 막힘없이 이뤄지게 하리이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장점을 배워 각자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나이다. 언제나 영적으로 행하면 성령의 빛 비춤과 깨우침이 함께하나이다. 진리를 깨달으면 즉시 실천하며, 새로운 빛을 따르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리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며, 하나님이 권세를 잡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자기 생각, 자기 관념과 견해, 세상의 짐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리이다.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이 왕권을 잡으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초월하게 되며, 세상을 이기며, 영은 자유롭게 날며 해방받았나이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결과로다. 우리 어찌 춤추며 찬양하지 않겠나이까, 어찌 찬미와 새 노래를 바치지 않겠나이까.

찬미의 방식은 실로 많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며, 묵상하고 되새기고 기도를 올리며, 찬미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도다. 이러한 찬미에는 누림이 있고 기쁨 부음이 있으며, 찬미하면 능력이 있게 되며, 사명감과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나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며, 서로 조화롭게 섬기며 하나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리이다. 하루빨리 거룩한 영체가 되어 사탄을 짓밟고 사탄의 운명을 끝내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타났도다.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제3편

승리의 왕이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 그는 구속을 이루었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영광 가운데 나타났다. 만유가 모두 그의 손에 있다. 그는 신성한 지혜와 능력으로 시온을 세우고 견고하게 했다. 그는 그의 위엄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만국과 만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생물,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 하나님은 필히 심판할 것이고, 그들에게 진노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낼 것이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심판할 것이다. 진노의 불은 반드시 그들의 극악무도한 죄를 태워 버릴 것이고, 재앙이 필히 그들에게 수시로 닥칠 것이다. 그들은 도망치기 어렵고 숨을 곳도 없을 것이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승리한 아들은 반드시 시온에 남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만민이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필 것이며, 찬미의 소리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한 참하나님은 이미 나타났다! 영 안에서 확신을 갖고 바짝 따르며, 더는 주저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라. 세상의 결말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올바른 교회 생활과 주변의 사람, 일, 사물이 우리의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루속히 접자! 몽롱한 눈빛을 하루속히 거두자! 우리의 발걸음이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입과 혀를 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자. 더 이상 자기의 이해득실을 위해 논쟁하지 말자.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던 마음을 버려라!

남편, 자녀에 대한 미련도 버려라! 자기 주장과 편견을 버려라! 깨어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영 안에서 앙망하고 앙망하며, 하나님이 권세를 잡게 해야 한다. 절대 롯의 아내가 되지 마라. 버려진다는 것은 얼마나 가련한 일이냐! 얼마나 가련한 일이냐! 깨어나라!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제5편

강산은 쉽게 바뀌고, 물의 흐름은 방향이 있으며, 사람의 생명은 하늘과 땅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며 대대로 영원히 존재한다! 만사와 만물이 다 그의 손안에 있고, 사탄은 그의 발아래에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미리 예정한 선택으로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구속주다. 영원한 부활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인연을 맺게 되고, 그와 대면하고 그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심혈을 기울인 하나님의 사심 없는 헌신이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세월 속에서 모진 풍상을 겪었다. 수많은 인생의 고통, 핍박, 환난이 닥쳤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비방당하고 정부에 모함당했지만, 하나님의 믿음과 의지는 약해지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영,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생명도 돌보지 않는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양육한다. 우리가 아무리 우매하고 상대하기 힘들지라도 그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옛 성품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장자들을 위해 그는 침식도 잊은 채 밤낮으로 일한다. 술한 밤낮을 보내고 술한 폭염과 혹한을 견디며 그는 시온에서 한결같이 지키며 바라보고 있다.

세상도 가정도 직장도 기꺼이 전부 버렸다. 세속의 즐거움은 그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안으로 치고 들어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들춰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탄복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서 수시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행한 것이든 뒤에서 행한 것이든 그는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타산하고 계획한 것일지라도 그의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이다.

그의 앞에 앉아 있으면 영적으로 즐겁고 편하고 편안하지만, 늘 내면이 텅 비고 하나님께 실로 죄스럽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한 적도 없고 해내기 힘든 놀라운 일이다. 성령이 확증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유일한 참하나님이다! 이는 확실한 사실이다! 우리 이 무리의 사람들은 실로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침륜에 빠져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계의 비밀을 보여 주셨나이다. 하나님나라의 미래는 무한하게 밝으며,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으니 깨어 있어 기다려라.

전쟁의 불길이 휘날리고 초연(硝煙)이 자욱하다. 날씨가 따듯해지고 기후가 변하니 한 차례 역병이 만연할 것이다. 사람은 살길을 찾기 어려우니 그 앞에 놓인 것은 죽음뿐이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이지요! 당신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지자 피난처시나이다. 우리는 모두 당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오니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리이다. 이는 당신의 신성한 보호이자 보살핌이나이다.

우리 모두 소리 높여 노래하고 찬미하는데, 찬미 소리가 온 시온에 메아리친다!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름다운 종착지를 예비해 놓았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제15편

‘하나님의 현현’이 이미 많은 교회에서 나타났다. 이는 그 영이 발하는 음성이자 말씀이라. 그는 맹렬한 불이요, 위엄을 지니고 심판을 시행한다. 그는 인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도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 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도다!

인자가 증거되었고, 하나님 자신이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니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눈부시게 빛나는데, 누가 대적하는 눈빛을 보이겠느냐? 대적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것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든, 말한 것이든, 행동으로 저지른 것이든 공활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전부 나의 심판이다! 제대로 먹고 마시지 않고 함부로 방해하며 나의 건축을 허무는 것을 내가 용인하겠느냐? 그런 사람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을 것이다! 더 심각해지면 불길이 너를 태워 죽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체로 나타난다. 그에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와 살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그는 우주 세계를 초월하고 셋째 하늘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만유를 다스린다! 우주 만유가 모두

내 손 안에 있으니 내가 있으라 하면 생기고, 정해지라 하면 정해진다. 사탄은 나의 발아래, 무저갱 속에 있을 뿐이다! 내가 음성을 발하면 천지가 없어지고 무(無)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뀔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나는 세상을 이겼고, 모든 악한 자들을 이겼다. 여기에 앉아 너희에게 하는 말을 귀 있는 자는 모두 들어야 할 것이며, 살아 있는 자는 모두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날이 곧 끝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갈 것이며, 모든 것이 다 ‘권토중래’하리라. 명심하여라! 기억해야 한다! 대충 넘어가선 안 될 것이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에게 충고하겠다. 뛰어다니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여라! 깨어나라! 뉘우치면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이미 너희 가운데 현현했고, 내 음성이 이미 나타났다. 너희 앞에 나타난 내 음성은 매일 너희를 마주하고, 매일 새로워진다. 너는 나를 보았고, 나 또한 너를 보았다. 나는 시시각각 너를 향해 말하며, 너와 얼굴을 마주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거부하고 나를 알지 못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나 너희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다! 망설이고 주저한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사탄에게 눈이 가려져 내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가련하냐! 이 얼마나 가련하냐!

내 보좌 앞의 일곱 영은 온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 나는 내 사자들을 통해 교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공의로운 자요, 신실한 자며,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이란 곧 나의 말이 내 아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니 귀 있는 자는 모두 들어야 한다! 살아 있는 자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의심하지 말고 먹고 마시기만 하여라.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진심으로 내 얼굴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빛과 깨우침, 깨달음이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새로우리라. 내 말이 시시각각 너에게 나타나 영의 눈을 열어 주면, 너는 영계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피난처에 들어가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기근과 온역이 너를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고, 맹수와 독충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몸이 공개적으로 나타났고, 거룩한 영체가 나타났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다! 세상과 육체가 모두 변모하고, 산에 올라 변형된 모습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깨끗하고 빛난 옷을 입었으며,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세상과 만유는 그의 발등상이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 선 검이 나오고,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도다. 하나님나라의 길은 밝고 무한하며, 영광의 빛이 발하는도다. 산과 강이 기뻐하며, 일월성신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맞춰 돌며 6천 년 경륜을 마치고 개선한 유일무이한 참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다! 모두 환호하며 춤추고 있다!

환호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았도다! 노래하라! 전능자의 승리의 깃발이 위엄 있고 웅장한 시온산에 높이 솟아올랐도다! 열국이 환호하고 만민이 노래하며, 시온산이 기쁘게 웃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다. 또 날마다 얼굴을 마주해 말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그가 마련하고 공급하며, 삶,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에 그의 영광이 빛난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가 인도해 주나, 마음에 패역을 품는 자에게는 즉시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지내고 생활하며, 그와 함께 살고 동행하고 누리며 함께 영광과 축복을 얻는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고 하나님나라에 거하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 얼마나 감미로운가! 날마다 얼굴을 마주하고, 날마다 이야기하며, 늘 대화하고, 매일 새로운 깨우침과 깨달음이 있다. 영의 눈을 뜨니 모든 것이 보이고, 영적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거룩한 삶은 실로 여유롭다. 멈추지 말고 빨리 뛰어가라.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라. 더 놀라운 삶이 눈앞에 있다. 달콤함을 맛보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안으로 쫓아 들어가라. 만유가 망라되어 진실로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부족한 것은 전부 다 채워졌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협력하여라. 이 안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바뀐다. 삶을 초월하게 되고 어떤 사람과 일, 사물도 우리를 간섭할 수 없다.

초월하였다! 초월하였다! 참으로 초월하였다! 하나님의 초월적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홀가분하다! 세상과 세속을 초월하고,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 정에 연연하지 않으며, 질병과 환경의 제약을 초월하니 사탄이 감히 방해하지 못한다. 모든 재난을 초월하는 것, 이는 하나님이 왕권을 잡게 하는 것이다! 사탄을 짓밟고 교회를 위해 굳게 서서 증거하고, 사탄의 추악한 몰골을 철저히 폭로한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되며 영광의 몸이 나타났다. 이는 들림 받은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제88편

사람은 내가 발걸음을 얼마나 빨리 할지 상상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세상을 창조한 후부터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은 줄곧 앞을 향해 나아왔고, 나의 사역 또한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다. 온 우주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사람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 모두가 내가 하는 사역이자 나의 계획이며, 더 나아가서는 아무도 알거나 깨닫지 못하는 나의 경영이다. 너희는 내가 직접 너희에게 알려 주거나 얼굴을 맞대고 직접 얘기해 주어야 조금 깨닫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경륜의 청사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바로 나의 큰 능력이자 놀라운 행사이며, 그 누구도 이를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아무도 절대 바꾸지 못한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나에 대한 인식이 조금도 없으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흘러나올 뿐이다! 스스로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며 만족하지 말라. 명심해라! 아직도 멀었다! 너희는 나의 전체 경륜 중의 일부를 단편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귀담아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의 말을 따르면 반드시 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는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공의이며, 더 나아가 나의 위엄, 진노, 형벌이다. 즉, 나는 사람의 생각, 견해, 일거일동,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나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며 수심에 잠긴다. 내가 너를 억울하게 하기라도 했다는 말이나? 너는 큰 붉은 용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서 짐짓 좋은 사람인 척하는구나! 나의 장자 행세를 하려 들다니! 나에게 눈이 없는 것 같으냐? 내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의 아들뿐만 아니라 큰 붉은 용의 자손인 너희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모든 것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모르겠느냐? 완벽하게 알고 있다! 내가 스스로를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자신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나는 모든 사람의 상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행하고 말해야 할지 모를 것 같으냐? 오지랖 넓게 걱정하지 말라. 내 손이 너를 칠까 하노라. 그러면 너만 손해다. 나의 행정 법령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알겠느냐? 위의 내용은 내 행정 법령의 일부이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준 날 이후에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대로 갚아 줄 것이다. 예전에는 너희가 몰랐기에 넘어간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나의 행정 법령을 반포하겠다(행정 법령은 반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형벌을 내림).

나는 말한 대로 하며, 모든 것은 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를 의심하는 자는 필히 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즉시 화근을 제거하고 응어리진 마음을 풀 것이다(이로써 쳐 죽임을 당한 자는 내 나라의 백성일 리가 만무하며, 사탄의 후손임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증명됨).

장자인 사람은 오지랖 넓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나의 경륜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가는 곳마다 나를 아름답게 증거해야 하고,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잠시라도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아들과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항상 장자로서 모두의 앞에 서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야지, 남에게 굽신대서는 안 된다.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장자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직책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자신을 바치고 맡은 일을 완수해야 한다.

앞으로 온 우주 세계에서 아들과 백성들을 목양하는 일을 장자들에게 맡겨 완성하게 할 것이다. 이를 마음과 뜻을 다해 완수하지 못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형벌을 가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공의이다. 나는 장자도 쉽사리 넘어가거나 용서하지 않는다.

아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한 명의 장자에게라도 조롱하거나 욕설을 한다면, 나는 반드시 무거운 형벌을 내릴 것이다. 장자는 나를 대변하므로 그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는 나의 행정 법령에서 가장 엄격한 조항이다. 아들과 백성들 중에 나의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나는 나의 장자로 하여금 자신의 뜻에 따라 나의 공의를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나를 가볍게 대하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과 나의 외적인 일만 중시하며, 나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조금씩 멀리할 것이다. 이는 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나를 위한 봉사를 마친 사람은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아니면 내가 너를 손볼지도 모른다(이 조항은 추가 사항임).

오늘부터 모든 장자가 철장(鐵杖)을 들고 나의 권병을 시행하여 만국 만민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만국 만민 가운데서 다니고, 만국 만민 가운데서 나의 심판, 공의, 위엄을 시행할 것이다. 나의 경륜이 완성되고 나의 모든 장자가 나와 함께 다스리므로 아들과 백성들은 나에게 경외심을 품고, 영원토록 나를 찬미하고, 나에게 환호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는 내 행정 법령의 일부이며, 앞으로는 사역의 진행 단계에 따라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위의 행정 법령을 통해 너희는 내 사역의 발걸음과 진행 단계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보아야 한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다.

나는 일찌감치 사탄에게 심판을 시작했다. 나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장자가 나와 함께 영광을 얻었으므로 나는 세상과 사탄에게 속하는 모든 것들에게 나의 공의와 위엄을 보여 주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고, 사탄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나와 이야기를 나눌 자격이 없기 때문임).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 왔을 뿐이다. 나의 사역이 한 단계 한 단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의 뜻이 온 땅에서 막힘없이 통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완전히 멸망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나는 모든 장자로 하여금 사탄에게 나의 행정 법령을 시행하게 했다. 사탄에게 나의 진노가 임했음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광도 보여 주었다(나의 모든 장자가 사탄에게 치욕을 안겨 줄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증거임을 보여 준 것). 나는 사탄을 직접 벌하는 대신 나의 모든 장자를 통해 공의를 시행하고 위엄을 보여 주었다. 사탄이 과거에 나의 아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유린했으므로 오늘날 사탄이 자기 역할을 다 한 뒤에는 그것을 처리할 권한을 장성한 장자에게 맡긴다.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극심한 혼란은 사탄이 힘없이 무너졌음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사람 간의 싸움,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나는 과거에는 단계별로 조금씩 사탄에게 치욕을 안기고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사탄을 완전히 소멸시킬 때 나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도 이뤄질 것이다(곧 임할 복을 말함). 나는 실재의 하나님 자신이니 규례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 각기 다른 내 경륜에 따라 말을 하므로 과거에 했던 말이 오늘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라! 나는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며, 나에게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초월적이며 완전히 해방된다. 내가 했던 지난날의 말들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어찌면 뒤쳐졌을 수도 있고 없어졌을 수도 있다(그러나 나의 행정 법령은 한 번 반포되면 영원히 바뀌지 않음). 이것이 내 경륜의 절차이다. 날마다 새로운 빛과 계시를 줄 것이니 너희는 규례를 고집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계획이다. 나는 매일 너희에게 빛을 계시해 줄 것이며, 우주 세계에 나의 음성을 발할 것이다. 알겠느냐? 이는 너의 직책이며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니, 한시라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는 나의 검증에서 통과한 사람을 끝까지 쓸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므로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이것이 나의 전능이다.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제103편

우레와 같은 음성이 온 땅을 진동시키며 귀를 찢을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으며, 사람은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일부는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멸망당하고, 일부는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유례없는 광경이다. 귀를 기울여 들어 보니 계속되는 우렛소리 속에서 애곡 소리도 들려온다. 그 소리는 음부와 지옥에서 오는 것으로, 나의

심판을 받은 패역한 자식들의 통곡 소리이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실행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내 엄한 심판과 진노의 저주를 받았다. 나의 음성이 바로 심판이고 진노이다. 그러니 누구에게든 사정을 봐주는 일이 없고 누구든 가차 없이 대할 것이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 자신이며, 진노와 불사름, 정결함, 그리고 파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숨김도, 감정도 없이 전부 공개하며 공의롭고 공평무사하다. 나의 장자들이 이미 나와 함께 보좌에 올라 만국 만민을 다스리므로 불공정한 일들과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철저히 조사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드러낼 것이다. 나의 심판이 이미 남김없이 드러났고, 모두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에 맞지 않는 자를 무저갱에 내던져 그 속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하고, 불사름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공의이자 정직이다. 이는 아무도 바꿔 놓을 수 없으며, 반드시 내 것에 따라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말쑥은 말쑥이고 사실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내 말을 소홀히 하고 있다. 참으로 눈이 멀었구나! 내가 신실한 하나님 자신임을 모르는 것이냐? 내 말은 사실과 병행한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 아니더냐? 사람은 아예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오직 깨우침을 얻은 자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사람은 내 말을 보기만 해도 놀라 혼비백산하며 사방으로 흩어져 숨는데, 하물며 내 심판이 임할 때는 어떻겠느냐? 나는 만물 창조, 세상 파멸 그리고 장자들을 만드는 것 모두 말 한 마디로 이룬다. 나의 말은 그 자체가 권병이고 심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나, 이 사람이 바로 심판이고 위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바꿔 놓을 수 없다. 이는 내 행정 법령의 일면이자, 내가 사람을 심판하는 방식이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이 다 내 손안에서 주관되며, 내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어떤 사람도, 사물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며, 전부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이뤄진다. 사람은 관념적으로 모두 나,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영이 음성을 발할 때면 전부 반신반의하며, 전혀 나의 전능을 알지 못하고 게다가 나를 모함하기까지 한다. 내가 알려 주마! 내 말에 의혹을 품고 내 말을 성의 없이 대하는 자는 모두 멸망될 대상이며, 영원히 침륜에 빠질 자이다. 이를 통해 장자들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의 사역 방식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오직 말로 모든 것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전능이다. 누구도 내 말에서 그 근원이나 목적을 찾지 못한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오직 내 인도에 따라 행동하고, 내 공의에 따라 내 뜻에 맞게 모든 일을 하여 나의 집을 공의롭고 평안하게 하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존재하게 해야 한다.

나의 심판이 모든 이에게 임하고, 나의 행정 법령이 모든 이에게 미치며, 나의 말과 본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날 때가 바로 나의 영이 크게 역사할 때이다(바로 이때, 복을

받을지 화를 입을지가 분명히 가려짐). 나의 말이 나오면 나는 누가 복을 받을 자인지, 누가 화를 입을 자인지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해서 한눈에 알 수 있다(내 인성에 입각해 하는 말이다. 그러니 이는 나의 예정·선택과 모순되지 않는다.). 나는 산천 만물과 온 우주 세상을 두루 누비며 구석구석 감찰하고 깨끗이 정리할 것이다. 따라서 불결한 곳이나 음란한 땅들은 전부 내 말에 의해 무(無)로 돌아가고 깨끗이 불살라질 것이다. 나에게는 그 무엇도 문제 될 것이 없다. 만약 지금이 내가 세상을 멸하기로 예정한 때라면 나는 말 한 마디로 온 세상을 삼켜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므로 반드시 모든 것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래야 내 계획이 어긋나지 않고, 내 경영이 방해받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치에 맞는지 알고 있다. 나에게는 나의 지혜와 나만의 계획이 있으니 사람은 조금이라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내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은 내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일이다. 여기에서 내 행정 법령의 엄함과 원칙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하나는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모든 자를 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노를 지니고 내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모든 자를 저주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내 행정 법령의 집행 원칙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집행하며,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통해 나의 공의와 위엄, 진노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땅과 세상에 속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불사를 것이다. 나의 말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고, 또한 밝혀진 비밀도 있다. 그러므로 관념과 사유로는 사람이 영원히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반드시 관념과 사유를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 경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해야만 나의 장자들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려는 일을 이룰 수 있다.

세상의 재난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내 집에서는 대재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사람은 몸을 숨길 곳도 없고, 어찌할 도리도 없다. 지금은 과도 단계이므로 어떤 사람도 자신이 다음에 어디에서 지내야 할지 모른다. 나의 심판이 임한 후에야 명확해질 것이다. 명심해라! 이는 내 사역의 절차이자 내가 사역하는 방식이다. 나는 모든 장자들을 하나하나 위로하고 단계에 따라 발탁하겠지만, 봉사자들은 하나하나 도태시키고 버릴 것이다. 이는 내 경륜의 한 부분이다. 모든 봉사자가 드러나면 따라서 나의 장자들도 드러날 것이다(이것은 내게 있어 지극히 쉬운 일이다. 내 말을 들은 후, 모든 봉사자가 내 말의 심판과 위협하에 점차 물러날 것이므로 남아 있는 자들은 자연히 나의 장자들인 것이다. 이는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사람의 의지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일도 아니라 나의

영이 친히 하는 사역이다.). 이것은 머지않은 미래의 일이다. 내가 최근 단계에서 행한 일과 말을 통해 너희는 마땅히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지, 내 말은 왜 이리도 변화막측한지,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나의 장자들에게 위로와 긍휼, 자비의 어조로 말하지만(내가 언제나 그들을 깨우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예정했기에 절대로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장자들 외의 모든 사람에게는 엄한 심판과 위협, 공갈이다. 그들은 늘 간담이 서늘할 것이며, 언제나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에 이르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다(다시 말해, 내가 세상을 멸할 때, 이 사람들은 무저갱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내 심판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심판이자 형벌이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드러낼 것이다. 이는 내 사역의 절차이다. 이제 내가 예전에 그런 말들을 한 의도를 이해하겠느냐? 내게는 응하지 않은 일도 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응한 일이라고 해서 꼭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나에게서는 나의 지혜가 있고, 나의 사역 방식이 있으므로 사람은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한다. 이 단계 사역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면(내게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드러내는 것), 나는 다음 단계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뜻은 막힘없이 형통하며, 나의 경륜은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고 어떤 사물도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전부 한쪽으로 물러나라! 그리고 큰 붉은 용의 자손들은 들으라! 내가 시온에서 세상에 성육신한 것은 나의 장자들을 얻고 너희의 아버지를 모욕하기 위함이며(큰 붉은 용의 자손들을 가리켜 하는 말), 내 장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그들을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함부로 날뛰 생각을 하지 말라. 나는 나의 장자들을 시켜 너희를 응징할 것이다. 지난날, 내 아들은 괴롭힘과 핍박을 받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권세를 잡았으니, 내 아들은 반드시 내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 더는 괴롭힘도, 핍박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불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공의이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증오하는 자를 증오한다’는 말의 참뜻이다. 내가 공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은 썩 물러가라. 더는 뻔뻔한 얼굴로 내 집에서 밥 빌어먹을 생각 말고 하루빨리 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네 얼굴을 보지 않도록 말이다. 무저갱이야말로 너희의 종착지이자 발붙일 곳이다. 내 집에는 너희의 자리가 없다. 너희는 우마, 또는 내가 쓰는 도구이니 쓰지 않을 때는 불 속에 던져 태워 버릴 것이다. 이는 나의 행정 법령이므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내 사역 방식과 나의 공의와 위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나의 장자들이 나와 함께 왕권을 잡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4편

내 앞에서 나를 섬기는 백성들은 모두 과거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나에 대한 사랑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는 않았느냐? 나를 향한 충성심이 순수했느냐? 나에 대한 인식이 참되었느냐? 너의 마음에 나의 자리가 얼마나 되느냐? 완전하였느냐? 내 말이 너희에게서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나를 속이지 말라! 이런 것들을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오늘날 내가 구원의 음성을 발할 때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조금 더 커졌느냐? 나에 대한 충성심이 조금은 더 순결해졌느냐? 나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느냐? 과거의 찬미가 오늘날 너희의 인식에 탄탄한 기초가 되었느냐? 나의 영이 너희 안에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나의 음성이 너희의 정곡을 정확히 찔렀느냐? 너희는 정말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느냐? 진정으로 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나의 이런 질문을 듣고도 깨닫는 바가 없다면 이것은 네가 한몫 챙길 기회만 엿보고 머릿수만 채우는 사람으로, 반드시 내가 예정한 시간에 도태되어 두 번째로 무저갱에 떨어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경고의 말이다. 이것을 흘려듣는 자는 누구든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일정한 때가 되면 그에게 재난이 닥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내가 또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분명히 짚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창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내 말을 거역하여 회복의 흐름에서 버림받고 도태되었다. 결국 육체가 사라지고, 영체는 음부에 떨어져 지금까지도 중벌을 받고 있다. 많은 이들이 내 말에 순종하였으나 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어겼다. 그래서 나의 발길에 차인 뒤 사탄의 권세 아래로 떨어져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오늘날 나를 직접 대적하는 자는 모두 내 말의 외면에만 순종할 뿐 내 말의 본질은 거역하고 있다.). 또 많은 자들이 내가 과거에 했던 말만 듣고 늘 과거의 ‘폐물’을 끌어안고 지키면서 현재의 ‘토산품’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인간은 사탄에게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천고의 죄인이 되고 나의 원수가 되었다. 이들은 나를 직접 대적하는 자이며, 나의 진노가 극에 달할 때 심판받을 대상이다.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눈먼 상태로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부패되고 마비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시체들 가운데 있다. 그들은 나에게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눈먼 상태’라고 말한 것이다.). 내가 실례를 하나 들 테니 참고하여 교훈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바울을 언급하면 너희는 그의 과거가 생각날 것이고, 그에 관한 부정확하고 실제에 맞지 않는 일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교육을 받고 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나의 예정으로 내가 갖추게 한 자질을 갖추었다. 그는 열아홉 살부터

생명에 관한 여러 서적들을 읽고 연구했다. 그래서 내가 자세히 말할 필요 없이 바울은 그의 자질로 인해, 그리고 나의 깨우침과 빛 비춤으로 인해 영적인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고 나의 뜻을 찾을 줄도 알았다. 물론 이것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였다. 하지만 옥에 티라면, 그는 타고난 재능 때문에 늘 큰소리쳤다는 점이다. 그의 패역으로 인해 어떤 것은 직접 천사장을 대변했다. 그러므로 내가 처음 성육신했을 때 그는 온 힘을 다해 나를 대적했다. 그는 나의 말을 알지 못한 자로, 그의 마음속에서 나의 자리는 이미 사라졌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그런 까닭에 직접 나의 신성에 대적하여 내게 맞고 결국 엎드려 죄를 자백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의 장점을 이용한 뒤, 즉 그가 나를 위해 한동안 사역한 후 그의 고질병이 또 재발했다. 비록 그가 나의 말을 직접 거역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내적인 인도와 깨우침은 거역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했던 일들이 모두 헛수고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말한 영광의 면류관은 공허한 말이 되고 혼자만의 상상이 되었다. 그가 지금도 나에게 결박당한 채 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예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듯이, 누구든 나(육신을 입은 나뿐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말과 나의 영, 즉 나의 신성임)를 대적하는 자는 육체에서 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나의 영이 너를 떠날 때 너는 일락천장하여 곧장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비록 육체는 땅에 있지만, 정신병자처럼 이성을 잃게 되어 즉시 자신이 죽은 사람처럼 느껴질 것이다. 심지어 육체를 당장 없애 달라고 내게 애원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너희처럼 영이 있는 많은 사람이 깊이 체험했을 것이므로 내가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 내가 정상 인성으로 사역할 때, 많은 사람이 이미 나의 진노와 위엄과 ‘겨룬’ 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지혜와 성품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다. 오늘 내가 신성으로 직접 말하고 일해도 여전히 나의 진노와 심판을 직접 보게 될 사람들이 일부 있다. 게다가 심판 시대에 하는 두 번째 주된 사역은 모든 백성이 내가 육신으로 하는 행사를 직접 알게 하는 것이고, 너희 모든 사람이 나의 성품을 직접 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육신에 있는 까닭에 나 역시 너희의 연약함을 이해한다. 나는 너희가 자신의 영, 혼, 육을 장난감으로 삼아 함부로 사탄에게 ‘바치지’ 않길 바라며, 자기가 가진 것들을 어린애 장난처럼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길 바란다. 이런 것들이 너희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말로 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느냐? 나의 진실한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너희는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나에 대한 인식과 내 말을 누리고 나를 아는 것을 너희 일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삼고 싶으냐? 진정으로 자신의 앞날을 위하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스스로를 양처럼 여겨 내가 마음대로 죽이고 끌고 다니도록 맡길 수 있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나에게 열납되고 내 약속을 받은 자라고 다 복을 받은 자이겠느냐? 나의 이 말에서 너희는 뭔가를 깨달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시련을 준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나의 지배를 따르고, 시련 속에서 나의 뜻을 찾고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감동적인 말이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반대로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아름답게 증거하고 모든 면에서 실제에 깊이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면, 네가 너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리고 너를 내게 맡겨 쓰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내가 요구하는 실체가 아니란 말이나? 누가 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가 내 말을 오해하거나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나의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더는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진입하여 내 말의 본질을 깨닫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가 내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겠다’고 세운 뜻과 같이, 더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 생각하지 말고 내 말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을 알기를 바란다. 나의 집에서 굳게 선 모든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내가 땅에서 하는 마지막 사역을 위해 자신의 가장 훌륭한 것을 바쳐야 한다. 너는 진정으로 이렇게 실천하기를 원하느냐?

1992년 2월 23일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5편

내 영이 발한 음성이 곧 내 모든 성품의 발현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에 대해 모르거나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직접 대적하는 것이다. 너희는 정말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정력을 쏟는지를 너희는 정말 알고 있느냐? 내 앞에서 행한 모든 행위를 정말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내 백성이라고 하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사리는 더더욱 분별할 줄 모른다! 이런 자는 언젠가 내 집에서 도태될 것이다! 고참티를 내며 자신이 ‘나를 굳게 증거했다’고 여기지 말라! 그것이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이더냐? 속셈과 목적이 전혀 없었다면, 너는 벌써 ‘다른 길을 찾아 떠났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가 모르겠느냐? 오늘날 모든 것은 ‘실행의 실제’에 진입할 것이다. 더 이상 너를 이전처럼 입만 놀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은 나의 집에서 밥술이나 얻어먹었으며, 오늘날 그들이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내 말이 엄격했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목적도 없이 함부로 말한다고 여기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또 모든 것을 지배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땅에서 나의 구원을 베풀었다. 나는 은밀한 곳에서 모든 사람의 언행 하나하나를 살펴보지 않을 때가 없으므로 사람에게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 은밀한 곳은 나의 처소이고, 온 궁창은 나의 침상이다. 나는 위엄과 공의와 심판으로 무장하였기에 사탄의 세력은 내게 미치지 못한다. 내 말에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너희는 물에 빠진 병아리처럼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또 막 놀란 아기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너희의 영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은밀한 곳을 나의 처소라고 하겠느냐? 너는 내 말에 담긴 깊은 뜻을 아느냐?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나를 알겠느냐? 어느 누가 나를 자기 부모 알듯 알겠느냐? 내가 나의 처소에서 안식하며 자세히 살펴보니 땅의 사람은 하나같이 바빴다. 저마다 자신의 운명과 앞날을 위해 ‘세상을 누비고’,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녔다’. 그러나 내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 남은 힘을 바치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니와 이들은 숨 쉴 기운조차 없었다. 나는 전에 사람을 만들었고, 또 환난에 빠진 자들을 여러 번 구원해 주었지만, 사람이란 자들은 모두 배은망덕했고, 그 누구도 나의 완전한 구원을 헤아리지 못했다.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세월과 세기(世紀)를 거쳐 오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얼마나 많은 지혜를 나타냈는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은 정신병자와 같이 우둔하고 무감각해졌으며, 어떤 때는 심지어 숲속의 짐승처럼 마구 소란을 피워 대며 나의 일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 나는 이미 여러 번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죽을죄로 정했다. 그러나 나의 경륜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고집하고 있는 옛것들을 내 손안에서 드러내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사역 절차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집안에서 태어난 너희를 또 한 번 구원했다.

내가 계획한 사역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시도 멈춘 적이 없다. 이미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들어섰고 너희를 나의 나라로 데려와 나의 백성이 되게 한 이상, 나는 너희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겠다. 즉, 나의 이 시기의 헌법을 너희에게 반포하겠다.

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는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즉, 시련 속에서 굳게 서야 한다. 나를 기만하고 내게 숨기면서 내 뒤에서 떳떳하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일률적으로 출교시켜 나의 집과 격리시키고, 나의 처분을 기다리게 할 것이다. 이전에 나에게 충성하지도, 공경하지도 않은 자와 오늘날 또 나서서 공개적으로 나를 판단하는 자 역시 나의 집 밖으로 출교시킬 것이다. 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항상 나의 부담을 생각하고 내 말을 깨닫기 위해 추구해야 한다. 나는 그런 사람만 깨우쳐 줄

것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나의 깨우침과 인도하에 살게 되고, 형벌 또한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나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앞날만 중시하는 자들, 즉 모든 행위가 내 마음을 만족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밥 빌어먹기’ 위함인 ‘비렁뱅이’ 같은 부류들은 내가 절대 쓰지 않을 것이다. 그자들은 천성적으로 나의 부담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성도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그자들의 머리는 ‘영양’실조에 걸렸으므로 집으로 돌아가 ‘보양’해야 한다. 나는 그런 자를 쓰지 않는다. 나의 백성들은 저마다 반드시 나에 대해 알아 가는 것을 자기 본연의 사역으로 여겨 끝까지 해 나가야 하고, 먹고 입고 자듯이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는 나에 대한 인식이 밥 먹듯이 ‘익숙’하고, 식은 죽 먹듯이 전혀 힘들지 않은 정도가 되어야 한다. 내가 한 말은 한 마디 한 마디 확신을 가지고 철저히 이해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나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나를 직접 대적하는 자이다. 나의 말을 먹지도 않고, 인식하려 노력하지도 않는 자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이니 직접 내 집 문밖으로 쫓그리 내칠 것이다. 전에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알짜이기 때문이다. 백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내 말에서 나를 알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나머지 사람들을 도태시킬지라도 그 한 명만을 집중적으로 깨우쳐 주고 빛을 비취 줄 것이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나를 나타내고 살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밀(날알이 딱 차지 않았을지라도)을 원하지 가라지(날알이 딱 차고 사람들이 흠족해할지라도)는 원하지 않는다.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태만하기만 한 그런 자는 내 이름을 계속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자발적으로 떠나야 한다. 나는 그런 자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백성에 대한 요구는 잠시 이 몇 가지만 말하겠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다시 제재할 것이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 자신이고,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뜯구름 잡는 말일 뿐이다.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안다면 감히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나의 말에서 계속 나를 알아 갈 것이다. 어느 수준에 이르러 참으로 나의 행사를 보게 되면 그때서야 나를 지혜요 혹은 기묘자라 말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나에 대한 너희의 인식은 너무나 얕다. 역대로 수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를 섬기면서 나의 행사를 보고 나에 대해 확실히 적지 않게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종일관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품었고, 대적하려는 마음은 감히 조금도 가지지 못했다. 그것은 나의 자취를 찾는 일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의 인도가 없으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랜 세월 체험을 하고 나서야 나에 대한 인식을 부분적으로 종합하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지혜이고 기묘자이며 모사라

하였고, 나의 말이 좌우에 날 선 검 같다 하였으며, 나의 행사가 크고 놀랍고 기이하다고 하였다. 또한 내가 위엄을 두르고 있고, 나의 지혜가 궁창보다 높다는 등등의 깨달음을 말하였다. 오늘날 너희는 그들이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앵무새처럼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한다. 나는 나에 대한 너희의 얕은 인식과 ‘낮은 학력’을 감안해서 너희에 대한 형벌을 어느 정도 면해 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자신이 행한 것이 이미 나의 뜻에 합당하므로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여긴다. 또한 내가 성육신한 후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해 전혀 가타부타 말이 없었으므로 형벌도 받지 않았다고 여긴다. 또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일’을 여가 시간에 하는 일로 삼을 뿐, 자신이 이행해야 할 본분으로 마음속에 담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간을 소모하든지 아니면 할 일 없이 빈둥댄다. 너희의 자격과 경험은 물론, 이성과 식견도 부족하다는 점을 봐주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나의 형벌 속에서 멸망되거나 파멸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땅의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계속 관용을 베풀 것이다. 너희는 이 점을 다소라도 알고 있어야 하며, 더 이상 계속 사리 분별을 못 해서 안 된다.

1992년 2월 25일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6편

영 안의 일에 세심해야 하고, 내 말을 중시해야 하며, 진정으로 나의 영과 사람, 그리고 나의 말과 사람을 분리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나를 만족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만유 위에 서서 온 우주의 모습을 살핀 적이 있다. 또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다니며 인간 세상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해 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정으로 나를 알지 못했고, 내가 다닐 때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참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오늘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다. 나는 창세 이래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일을 할 것이고, 역대로 사람이 들은 적이 없는 말을 할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육신을 입은 나를 알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경영 절차이지만, 사람은 오히려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내가 분명하게 말했지만 사람은 여전히 정신이 흐린 탓에 분명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설마 이것이 사람의 비천한 면이 아니란 말이나?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에게 보완해 주려는 부분이 아니냐? 오랜 세월, 나는 사람에게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 오랜 세월, 성육신한 나를 직접 접한 자일지라도, 내가 신성으로 직접 발한 음성을 들은 적은 없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것은 역대로 나에 대한 사람의 사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너희에게 측량하기 어려운 수많은 기묘한 사역을 행했고 적지 않은 말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내 앞에서 직접 나를 대적한다. 너에게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들어 주겠다.

날마다 막연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뜻과 생명의 느낌을 찾고 있지만, 내 말이 임하면 태도가 변한다. 나의 말과 영을 온전한 하나로 여기면서도 사람을 오히려 ‘견어차 버리고’, 그런 말은 내 영이 지배하여 한 것이지 나란 사람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의 말은 어느 정도 믿지만, 내가 입은 육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정도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연구하며 “왜 그분은 그렇게 일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일까? 그럴 리 없어! 내가 보기에 그분은 나와 별 차이가 없는 데다가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니까.”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너희 중에 앞에서 말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점유되지 않은 자가 누구냐? 너는 그것을 자신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차지하고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더욱이 주관적으로 노력하려 하지 않고, 내가 친히 나서서 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구하지 않고도 쉽게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것은 내가 너희를 훈계하려고 하는 허황된 말이 아니다. 네가 또 다른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 수 있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얘기할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그러고는 곧바로 그가 하나님을 세 번 부인한 일, 사탄을 위해 일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한 일,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일 등을 떠올린다. 지금 나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를 알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 결말이 어땠는지에 중점을 두어 너희에게 얘기하겠다. 베드로는 좋은 자질을 갖췄지만, 바울과는 상황이 달랐다. 그의 부모는 나를 핍박했고, 사탄에게 점령된 악마에 속했다. 그렇기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전도했다고는 할 수 없다. 베드로는 총명하고 타고난 자질이 좋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장성한 후에는 부모의 ‘원수’가 되었다. 이는 베드로가 끊임없이 나를 알고자 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로 인해 부모와 등지게 되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 먼저 천지 만물이 모두 전능자의 수중에 있고, 또한 모든 긍정적인 사물은 사탄의 ‘가공’을 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자 직접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부모의 부정적인 면으로 인해 나의 자비와 긍휼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를 찾으려는 마음이 더욱 불타올랐다. 그는 내 말을 먹고 마시는 것을 중시했고, 더욱이 내 뜻을 찾는 것을 중시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늘 신중했기에 영은 언제나 민감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뜻에 부합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실패의 사슬에 매이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평소에 지난날 실패했던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어 자신을 다그치는 것을 중시했다. 그는 또한 역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는 것을 중시했다. 그런 까닭에 부정적인 면을 통해, 더 중요하게는 긍정적인 면을 통해 더 빨리 성장하였으며, 나아가 내 앞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고 의식주마저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나를 만족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내 풍요로움을 누렸음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나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주었는지 모른다. 물론 베드로 또한 그 시련 속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다. 베드로는 수백 번의 시련을 겪으면서 단 한 번도 믿음을 잃거나 나에 대해 실망한 적이 없었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고 말했을 때에도, 그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실행 원칙에 따라 실제적으로 나를 사랑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그가 나를 사랑할지라도 칭찬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를 사탄의 손에 내버릴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하지만 육신에 실제로 임하지는 않는 이러한 말씀의 시련 속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나에게 기도했다. ‘하나님, 천지 만물 중에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일이 전능자의 손에 있지 않겠나이까? 당신이 저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제 마음은 당신의 긍휼로 매우 기쁘나이다. 당신이 저를 심판하실 때, 저는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행사가 얼마나 심오한지 더욱 느끼나이다. 이는 당신께 권병과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이나이다. 제 육체는 고통받지만, 영은 위로를 받나이다. 제가 어찌 당신의 지혜와 행사를 찬미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당신을 알고 난 후에 저를 죽게 한다 해도 어찌 기꺼이 원하지 않겠나이까? 전능자시여! 당신은 정말 저에게 보이기 싫어하시나이까? 제가 정말 당신의 심판을 받을 자격이 없나이까? 혹시 저에게 당신이 보고 싶지 않으신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나이까?’ 베드로는 그런 시련 속에서 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나에게 쓰임 받는 것으로(나에게 심판받아 사람들이 나의 위엄과 진노를 볼 수 있을지라도)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고, 시련으로 고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베드로는 내 앞에서 보인 충성심과 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모범과 본보기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본받아야 할 바가 아니냐?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며 베드로의 행적을 얘기하는지 너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너희는 마땅히 이것을 너희의 행동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나를 아는 사람이 몇 안 되지만, 나는 이로 인해 사람에게 노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내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왔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나의 관용을 빌미로 자신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는 마땅히 베드로를 통해 어느 정도 나를 알고 추구해야 하며, 베드로의 모든 행적을 통해 지난날을 뛰어넘는 계시를 얻어 사람들이 도달한 적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온 우주의 궁창에서, 그리고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 땅의 만물과 하늘의 만물이 모두 나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설마 너희는 방관자가 되어 사탄 세력의 부추김을 받기 원한단 말이나? 사탄은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시시각각 집어삼키고 언제나 흥포하게 날뛰며 마지막 발악을 한다. 너희는 이때 사탄의 간계에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냐? 마지막 사역이 완성될 때, 자신의 인생을 망치길 원하는 것이냐? 설마 너희는 아직도 내가 다시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나를 알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실행의 중요성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내가 말로 너희에게 직접 계시했으니, 나는 너희가 나의 인도에 순종하여,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뭔가를 소망하거나 계획하지 않기를 바란다.

1992년 2월 27일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8편

나의 계시가 절정에 이를 때, 그리고 나의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를 때, 즉 모든 백성이 드러나고 온전케 될 때, 나는 우주 세계의 곳곳을 누비며 나의 뜻에 맞고 내가 쓰기에 합당한 사람을 시시각각 찾는다. 누가 일어나 나와 협력할 수 있느냐? 나에 대한 사람의 사랑은 진실로 너무 작고, 나에 대한 믿음 또한 초라할 정도로 보잘것없다. 내가 직접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겨냥해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세상일을 모두 아는 듯 허풍을 떨고 호언장담을 하며 공리공론을 늘어놓을 것이다. 과거에 내 앞에서 ‘충성’을 다한 자, 오늘날 내 앞에서 ‘굳게 선’ 자, 그들 중 어느 누가 감히 큰소리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자신의 앞날을 위해 ‘몰래 기뻐하지’ 않겠느냐? 내가 직접 폭로하지 않아도 사람은 이미 몸 둘 바를 몰라 하고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방식을 바꿔 말한다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사람은 더욱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가 구제 불능이라고 여길 것이며, 모두가 ‘소극적’에 단단히 결박될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실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나라의 예포가 본격적으로 울린다. 즉, 사람이 말하는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나라의 생활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즉 내가 신성으로

직접 일할 때(머리의 ‘가공’을 거치지 않는 것을 말함), 모든 사람은 정신없이 바빠진다. 마치 다시 소생한 듯, 꿈에서 막 깨어난 듯하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런 형편에 처했으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예전에 나는 교회 건축에 대해 많은 말을 했고 또한 많은 비밀을 밝혔으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끝나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나라 건축은 그와 다르다. 영계의 교전이 막바지에 이를 때, 나는 비로소 땅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즉, 사람이 모두 떠나려고 할 때, 나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또 새로운 사역을 일으킨다. 하나님나라 건축과 교회 건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교회 건축은 신성의 지배를 받는 인성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사람의 옛 성품을 다루고, 사람의 추태를 드러내며, 사람의 본질을 폭로해 그 기초에서 자신을 알게 함으로써 진심으로 탄복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하나님나라 건축은 신성으로 직접 일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말을 아는 것을 기초로 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육신에 거하는 나를 알게 함으로써 전 인류가 막연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끝내고,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늘의 하나님’의 지위를 끝내는 것이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육신을 통해 나의 행사를 알게 함으로써 내가 땅에 거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다.

하나님나라 건축은 직접 영계를 향한다. 즉, 영계의 교전 상황이 곧바로 백성들 가운데서 드러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모든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다.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직접 영계가 드러나고 영계의 생활을 접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위해 충성하기 시작할 때, 다음 부분 사역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을 전부 바쳐야 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나는 없던 일로 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나의 계획에서 시종일관 내 뒤를 따르고 있다. 사탄은 나의 지혜의 부각물로서 내 원래 계획을 교란하기 위해 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사탄의 간계에 굴복할 수 있겠느냐? 하늘과 땅 가운데의 어느 누가 나를 위해 힘쓰는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 설마 사탄의 간계라고 예외겠느냐? 이것이 바로 내 지혜의 교점이고, 내 행사의 기묘한 점이며, 나의 전체 경륜의 실행 원칙이다. 하나님나라 건축 시대에도 나는 사탄의 간계를 회피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것이다. 나는 우주 만물 가운데서 사탄의 모든 행위를 골라 나의 부각물이 되게 하였다. 이것이 나의 지혜가 아니냐? 바로 내 사역의 기묘한 점이 아니냐? 하나님나라시대에 들어갈 때, 하늘 위아래의 만물이 다 크게 변하고 경축하며 환희에 차 있는데, 너희도 그러지 않겠느냐? 누구의 마음인들 꿀처럼 달지 않겠느냐? 누구의 마음인들 기쁨이 넘치지 않겠느냐? 누구의 몸인들 흥겨워 춤추지 않겠느냐? 누구의 입인들 찬미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한 말에서 내 말의 목적과 근원을 알겠느냐?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것저것 끝없이 이야기한다고 여겨 그 근원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세심하게 묵상해 보면 내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아라. 어느 말이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냐? 어느 말이 네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더냐? 또 어느 말이 영계의 실제 상황을 소개한 것이 아니더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이 밀도 끝도 없으며, 설명도 해석도 부족하다고 여긴다. 설마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말이 그렇게 추상적이더냐? 너희는 나의 말에 진심으로 순종하였느냐? 나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느냐? 나의 말을 장난감으로 여기지는 않았느냐? 나의 말을 자신의 옷으로 삼아 너의 추태를 가리지는 않았느냐? 이 아득한 세상에서 어느 누가 직접 나의 검열을 받아들였느냐? 어느 누가 직접 내 영의 말을 들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모색하며 찾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난 속에서 간구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양망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묶여 있느냐? 하지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 곳을 몰라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 속에서 나를 배반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은망덕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탄의 간계 때문에 충성하고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누가 욥이냐? 누가 베드로냐? 내가 왜 여러 번 욥을 언급하고 베드로를 언급했겠느냐? 너희에 대한 나의 희망을 너희는 느낀 적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베드로는 내 앞에서 오랜 세월 충성을 다하면서도 입에 불평을 담은 적이 없었고, 원망의 마음을 품은 적도 없었다. 욥도 그에게 미치지 못했고, 역대와 성도들 또한 베드로보다 훨씬 뒤떨어졌다. 베드로는 나를 알기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간계를 부릴 때에도 나를 알려고 했다. 그리하여 그의 오랜 섬김이 다 나의 뜻에 부합하였고, 그로 인해 사탄에게 이용당한 적이 없었다. 그는 욥의 믿음을 본받았으나 욥의 단점도 파악하였다. 욥은 믿음이 컸지만, 영계의 일에서는 인식이 부족하여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많이 했다. 이는 그의 인식이 얕아 완벽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언제나 영적인 느낌을 찾는 것과 영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간계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역대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듯이, 사람이 나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세심하게 살피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너에게 나를 위해 겉으로 얼마를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모두 부차적인 일이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면, 네가 말하는 믿음과 사랑, 충성심은 전부 환상이고 물거품이다. 너는 분명 내 앞에서 큰소리치지만,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또다시 사탄의 올무에 빠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침륜의 자식이 될 것이고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말에 냉담하다면 의심할 것도 없이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네가 영계의 문을 통해 그 안에서 나의 형벌을 받는 각양각색의 영들을 보는 것도 좋겠다. 어느 누가 나의 말에 냉담하지 않고, 소극적이지 않았으며, 또 나의 말을 거부하지 않았더냐? 어느 누가 나의 말을 조소하고 비아냥거리지 않았더냐? 어느 누가 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지 않았더냐? 어느 누가 나의 말을 자신의 ‘호신용 무기’로 삼아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았더냐? 그들은 나의 말에서 나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말을 ‘이용’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을 뿐이다.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대적한 것이 아니더냐? 내 말은 누구냐? 내 영은 누구냐? 나는 너희에게 이런 질문을 몇 번이나 했다. 그런데 너희는 더 높은 차원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적이 있더냐? 진실한 체험이 있었느냐?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겠다.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실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내 형벌의 대상이 될 것이며, 사탄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1992년 2월 29일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10편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는 어쨌든 지난 시대와 다르다. 이 시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없으며, 내가 땅에 임하여 친히 사역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이를 수도 없는 것이다.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 교회 건축만 있었을 뿐, 하나님나라 건축에 대해서는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친히 언급했다 할지라도 누가 그 본질을 알겠느냐? 나는 지난날 세상에 임하여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했지만, 성육신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나라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 내가 입은 육신은 본격적으로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나라 왕이 본격적으로 하나님나라에서 왕권을 잡은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임한 것에는 문자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도 있다. 이것이 ‘실행의 실제’ 한 측면의 의의이다. 사람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본 적이 없고, 나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그러나 보았다고 한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겠느냐? 내 말을 들었다고 한들 또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자비와 긍휼 아래 있다. 하지만 또 모두가 나의 심판과 시련 가운데도 있다. 사람이 극도로 파괴되었을지라도 나는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다. 사람이 모두 내 보좌 앞으로 돌아와 복종했을지라도 나는 사람에게 형벌을 내렸다. 내가 준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흑암 속에서 헤매며 광명을 찾고 있더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련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더냐? 욕에게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가 ‘자신의 활로’를 찾지 않은 적이 있더냐? 백성들이 시련 속에서 굳게 설지라도 입으로만 떠들지 않고 마음으로 믿은 자가 있더냐? 전부 마음에 의혹을 품은 채 입으로만 믿지 않았더냐? 사람 중에 시련 속에서 굳게 서거나 진정으로 순종한 자는 없었다. 내가 얼굴을 가려 이 세상을 보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보았더라면 모든 사람이 내 불사름의 눈빛에 쓰러졌을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나라의 예포가 울릴 때는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릴 때’이다. 그 소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궁창을 뒤흔들고,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하나님나라의 축가가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울려 퍼지면, 내가 큰 붉은 용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의 나라를 세웠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나의 나라가 땅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세계 각국을 두루 누비며 아들들과 백성들을 목양할 것이다. 이것 역시 다음 단계 사역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큰 붉은 용이 파리를 튼 곳에 친히 임하여 그것과 ‘겨룬다’. 모든 사람이 육신을 통해 나를 알고 나의 행사를 볼 때, 큰 붉은 용의 소굴 역시 그에 따라 잿더미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내 나라의 백성들이 큰 붉은 용을 뼈에 사무치게 증오하는 이상 일거수일투족으로 내 마음을 만족케 함으로써 큰 붉은 용을 수치스럽게 해야 한다. 너희는 진정 큰 붉은 용이 증오스럽다고 여기느냐? 큰 붉은 용이 ‘하나님나라 왕’의 원수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진정 나를 아름답게 증거할 자신이 있느냐? 큰 붉은 용을 물리칠 자신이 있느냐? 이것은 너희에 대한 나의 요구이다. 너희는 이 정도 수준에만 이르면 된다. 할 수 있겠느냐? 이 수준에 이를 자신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나 내가 친히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왜 친히 전장에 왔다고 했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 사람은 모두 내 말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측면에서 ‘삐딱하게 바라보기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했느냐? 그렇게 해서 나를 알게 되었느냐? 솔직히 말해, 땅에서 내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말의 함의를 순수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땅에서 전례 없는 일을 시작해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참된 형상’이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관념’이 사람 마음을 지배하던 시대를 끝낸다.

오늘날, 나는 큰 붉은 용의 나라에 강림했을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마주했으며, 이에 온 궁창이 흔들리고 있다. 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내린 재난 속에서 살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온갖 ‘재난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 이는 내가 사역하는 방식으로, 의심할 바 없이 사람에게 대한 구원이자 사람에게

베푸는 일종의 사랑이다. 나는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알게 하고 보게 함으로써 오랜 세월 보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이다. 내가 왜 세상을 창조했겠느냐? 왜 파괴된 인류를 전부 멸하지 않았겠느냐? 왜 인류는 모두 재난 속에 있겠느냐? 왜 내가 친히 육신을 입었겠느냐? 내가 나의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사람은 쓴맛뿐만 아니라 단맛도 보았다. 세상 사람 중 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는 자가 있느냐? 내가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세상에서 풍족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백성의 지위를 주어야만 축복이겠느냐? 백성이 아니라 봉사자라 해도 너희는 내 축복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내 말의 근원을 짚어 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사람은 내가 준 칭호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봉사자’란 칭호로 인해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성’이란 칭호로 인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지 모른다. 그 누구도 나를 속이지 말라. 내 눈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 너희 중에 그 누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완전히 순종하느냐? 하나님나라의 예포가 울리지 않았다면, 너희가 정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나는 일찍이 예정해 놓았다.

많은 사람이 내 얼굴빛 속에서 내 불사름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이 내 격려에 분발하여 바짝 따라간다. 사탄의 세력이 내 백성을 공격할 때 나는 저지했고, 사탄이 음모로 내 백성의 삶을 파괴할 때 나는 그것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쫓아냈다. 온갖 악령들이 땅에서 시시각각 안식할 곳을 찾고 있고, 삼킬 자의 시체를 찾고 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반드시 나의 보호와 보살핌 아래에 있어야 한다. 절대 방종하지 마라! 절대 제멋대로 행하지 마라! 마땅히 내 집에서 충성을 바쳐야 한다. 충성심이 있어야만 마귀의 간계에 반격할 수 있다. 더는 예전처럼 내 앞뒤에서 서로 다르게 행해선 안 된다. 그러면 구제 불능이 된다. 내가 이런 말을 적게 했느냐? 누누이 타일러도 사람의 옛 성품이 고쳐지지 않기에 누차 일깨워 주는 것이다. 지겹다고 하지 마라! 전부 너희의 운명을 생각해 말하는 것이다! 사탄은 불결하고 더러운 곳을 원한다. 구제 불능이 될수록,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할수록 온갖 더러운 귀신이 기회를 틈타 침입한다. 그 지경에 이르면 너희의 충성심은 조금도 실제적이지 않은 허튼소리가 될 것이다. 또한 너희의 ‘의지’도 더러운 귀신에게 삼켜져 ‘패역’이 되고 사탄의 ‘간계’로 변질돼 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일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 전혀 신중히 대하지 않는다. 나는 네 지난 행실을 기억하지 않는다. 설마 그래서 내가 또다시 ‘기억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어 주길 기다리는 것이냐? 사람이 나에게 대항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사람의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절제하며 방종하지 말라고 할 뿐이다. 이것조차 못 하겠단 말이나? 많은 사람이 내가 더 많은 비밀을 열어 주어 ‘눈 호강’을 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한들 또 어찌겠느냐? 설마 그렇다고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더해지기라도 하겠느냐? 그렇다고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겠느냐? 나는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사람에 대해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지도 않는다. 사람이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아무렇게나 사람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지 않는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누명을 씌운 적이 있더냐? 너희를 과소평가한 적이 있더냐? 너희의 실제 사정에 맞지 않게 너희를 감찰한 적이 있더냐?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진심으로 탄복시키지 않은 적이 있더냐? 내가 한 말이 너희의 심금을 울리지 않은 적이 있더냐? 내 말을 볼 때 무저갱에 떨어질까 봐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더냐? 내 말로 인해 시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더냐? 나의 말에는 권병이 있지만, 나는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다. 사람의 실제 사정을 감안하여 내 말의 뜻을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타낸다. 실제로 그 누가 내 말에서 나의 전능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누가 내 말의 정금(正金)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토록 많은 말을 했건만, 내 말을 소중히 여긴 자가 있더냐?

1992년 3월 3일

## 하나님나라의 축하

모든 백성들이 나를 향해 환호하며 찬양하고 있다. 모든 입이 나를 유일한 참하나님이라 부르고, 만인이 눈을 들어 나의 행사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임했고, 나의 본체는 풍부하고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어느 누가 기뻐하지 않으랴? 어느 누가 즐겁게 춤추지 않으랴? 시온아!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를 향해 경축하라!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널리 전파하라! 땅끝의 만물아! 어서 깨끗이 씻고 나를 위해 제사를 올려라! 하늘의 별들아! 어서 제자리로 돌아가 궁창에서 내 큰 능력을 나타내라! 내가 귀를 기울여 땅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 보니 노랫소리에 나에 대한 경애심이 넘쳐흐른다! 내가 만물이 소생하는 날에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하자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새들이 일제히 지저귀며, 만물이 기쁨으로 들끓는다!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나라의 예포 소리에 무너지고, 하나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축하에 부서져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리!

땅의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감히 일어나서 대적할 수 있으랴? 나는 땅에 내려올 때 불사름과 진노를 가지고 임했으며, 모든 재난을 가지고 임했다. 세상 나라는 나의 나라가

되었도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물결치고 일렁이며, 하늘 아래에서는 호수와 강물이 세차게 출렁이며 감동적인 무곡을 연주하고 있다. 동굴에서 지내던 짐승이 모습을 드러내고, 꿈속에 잠들어 있던 만백성은 나로 인해 눈을 떴으며, 만민이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도래하였다!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나에게 바친다!

아름다운 이 순간, 가슴 벅찬 이 순간  
천상천하에 찬미하지 않는 사람이 없네, 어느 누가 이에 감격하지 않으랴?  
어느 누가 유쾌하지 않으랴? 이 광경에 어느 누가 눈물 흘리지 않으랴?  
하늘은 더 이상 원래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하늘이 되었고  
땅은 더 이상 예전의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 되었네.  
큰비가 지나간 뒤에 더러웠던 옛 세상이 바뀌고 있네.  
산도 변하고... 물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만물도 변하고 있네....  
침묵하던 산아! 일어나 나를 위해 신명 나게 춤을 추어라!  
멈추었던 물아! 다시 흐르라!  
꿈속의 사람들아! 떨쳐 일어나 속히 뒤쫓으라!  
나는 이미 왔고... 왕이 되었도다....  
모두가 직접 나의 얼굴을 보고 직접 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나라의 삶을 체험하고 있네....  
이 얼마나 달콤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잊을 수 없으리.... 잊을 수 없으리....

내 진노의 불길 속에서 큰 붉은 용이 몸부림치고  
나의 위엄 있는 심판 속에서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네.  
나의 엄한 말에 사람은 죄책감으로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사람은 나를 비웃었고  
항상 자신을 자랑하며 늘 나를 거역했네.  
지금의 광경을 보아라, 누가 눈물 흘리지 않으랴? 누가 자책하지 않으랴?  
온 우주와 세상에 울음소리 가득하고...  
환호 소리 가득하며... 웃음소리 가득하네....  
더없이 즐겁고... 더없이 즐겁네....

가랑비가 보슬보슬... 함박눈이 펄펄...  
 모두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며... 기쁘게 웃는 사람이 있고...  
 흐느끼는 사람도 있으며... 환호하는 사람도 있네....  
 모두가 쟁그리 잊은 듯... 빗줄기가 그치지 않는 봄인지,  
 꽃이 만발하는 여름인지, 창고 가득 풍작을 거둔 가을인지,  
 뽕뽕 얼어붙은 겨울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네....  
 하늘에는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땅에는 바닷물이 넘실대고 있네.  
 아들과 백성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천사는 일하고... 목양하고 있으며...  
 땅의 사람들은 바쁘게 보내고, 땅에 있는 것들은 늘어가고 있네.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12편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는 바로 내가 음성을 발하기 시작할 때이다. 번개가 번쩍이면 온 하늘이 환해지고 모든 별들이 변화한다. 전 인류가 말끔하게 정리된 듯하다. 동방에서 비치는 이 빗줄기에 모든 사람의 본모습이 드러난다. 그들은 눈이 부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의 추악한 물골을 어떻게 숨겨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내 빛으로부터 도망쳐서 산속 동굴 안으로 피난 가는 동물 같지만, 그 어떤 존재도 내 빛 속에서 말살된 적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놀라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며, 바라보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내 빛의 도래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동시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모순된 심리다. 자책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 강을 이루고 급류에 휩쓸려 순식간에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나의 날이 또 한 번 전 인류에게 다가왔고, 또 한 번 인류를 불러 깨워 새로운 시작을 열어 줬다. 내 심장이 요동치고 있다. 내 심장의 박동에 따라 산도 흥겹게 뛰고 물도 즐겁게 춤추며, 파도는 바위에 부딪쳐 물보라를 일으킨다. 내 마음을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모든 불결한 것들을 내 눈앞에서 잿더미로 만들고, 모든 패역한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큰 붉은 용이 거하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전 우주 아래에서 새로운 사역을 펼쳤다. 머지않아 땅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나라로 인해 영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이미 이겼고,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왔기 때문이다. 큰 붉은 용이 갖가지 계략으로 나의 계획을 망치고 내가 땅에서 행하는 사역을 없애려 하지만, 내가 그것의 간계 때문에 낙담할 리 있겠느냐? 내가 그것의 위협에 놀라 자신감을 잃을 리 있겠느냐? 천지

만물 중 내 손으로 주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물며 부각물인 그 큰 붉은 용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것 역시 내 손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성육신으로 인간 세상에 오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도에 따라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고, 이후의 길이 어디로 향할지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오직 전능자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이 길의 끝까지 갈 수 있고, 오직 동방번개의 인도를 받아야만 내 나라의 문에 들어설 수 있다. 지금껏 내 모습을 본 사람이 없고 동방의 번개를 본 사람도 없는데, 하물며 보좌에서 발한 음성을 들은 이가 있겠느냐? 사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본체를 직접 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오늘날 내가 세상에 왔기에 사람은 나를 볼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사람은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다. 내 얼굴을 보고 내 음성만 들었을 뿐, 내 뜻은 깨닫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사람은 모두 그렇다. 백성 중의 한 사람으로서, 너희는 내 얼굴을 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지 않느냐? 나를 알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느냐?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고, 사람들 가운데서 산다. 내가 성육신으로 인간 세상에 온 목적이 단지 사람에게 내 육신을 보여 주려는 것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나는 내가 입은 육신을 통해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입은 육신을 통해 큰 붉은 용을 물리치며 그것의 소굴을 멸할 것이다.

땅에 있는 사람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지만 나에게서는 손금 보듯 흰하다.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다의 모래알만큼 많지만 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밝은 빛을 좇는 사람들일 뿐이다. 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도, 낮게 평가하지도 않고 사람의 속성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며, 이로써 내가 사람을 택하는 목적을 이룬다. 산속에 수많은 맹수가 있지만 내 앞에서는 모두 양처럼 순하고, 바닷속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함이 깃들어 있지만 나에게서는 땅 위의 만물처럼 모두 흰히 드러나 있다. 또 하늘에는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경지가 있지만 나는 그 경지에서 곳곳을 다닌다. 사람은 빛 속에서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어둠의 세계에서 나를 보았다. 오늘날 너희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느냐? 나는 큰 붉은 용의 광폭함이 극에 달했을 때, 육신에서의 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큰 붉은 용이 처음으로 본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의 이름을 증거했다. 내가 인간 세상의 길을 다닐 때 그 어떤 사물도 사람도 놀라서 깐 적이 없다. 그렇기에 내가 성육신으로 인간 세상에 왔을 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내가 육신으로 사역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제야 깨어났다. 귀청을 때리는 나의 음성에 놀라 꿈속에서 깨어난 것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시작했다. 백성들

가운데서 나는 또 한 번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다. 땅에서의 내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상, 이른바 ‘백성’들은 내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자들이 아니며, 나는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서 일부를 택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나는 백성들에게 성육신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백성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나의 행정 법령이 엄격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도태될 위험이 있다. 온 힘을 다해 자아를 다루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에게 버림받는 대상이 되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바울처럼 직접 나의 형벌을 받을 것이며,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말에서 뭔가 짐작한 게 있느냐? 나는 계속 교회를 정결케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깨끗게 할 것이다. 나는 온전히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전을,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을 더 오색찬란하게, 티끌 하나 없게 할 것이다. 너희는 저마다 내 앞에서 지난날의 행동을 되돌아보아야 하며, 또 지금 나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킬 굳은 각오를 품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 오랜 세월 사람은 줄곧 나를 기만했고 나를 나그네 취급 했다. 사람은 수없이 나를 ‘집 문’ 밖에 세워 두었고, 수없이 내 앞에 서 있으면서도 나를 외면했다. 또 사람들 가운데서 수없이 나를 저버렸고, 마귀 앞에서 수없이 나를 부인했으며, 입놀림으로 수없이 나를 공격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연약한 점’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의 패역을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병든 사람에게 좋은 약을 주어 불치병을 고쳐 주고 그들이 건강을 회복해 나를 알 수 있게 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사람의 생존을 위한 것 아니더냐? 사람에게 살 기회를 준 것 아니더냐? 나는 인간 세상에 여러 번 왔지만, 사람은 내가 친히 인간 세상에 임했다고 해서 나를 상대해 주지는 않았다. 그저 제각각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자신의 활로를 찾을 뿐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길이 내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안배하고 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 중 누가 감히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 누가 경솔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묵묵히 나의 일을 할 따름이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내가 성육신한 이 일로 혼비백산하여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내가 자신을 낮추고 감추었기 때문에 사람이 재앙을 면하고, 다행히 나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이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이 쉬이 온 것이 아니니 너희는 내일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1992년 3월 8일

## 백성들아! 환호하라!

사람은 나의 빛 속에서 다시 광명을 보고, 나의 말 속에서 누릴 것을 얻는다. 나는 동방에서 왔고 동방에서 빛을 발한다. 내가 영광의 빛을 발할 때 만국이 밝게 비추고, 모든 것이 비취어 어둠에 남겨지는 것이라곤 없다. 하나님나라에서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더없이 행복하다. 물은 백성들의 행복한 삶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산들은 백성들과 함께 나의 풍성함을 누린다. 모든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분발하며, 나의 나라에서 충성을 다한다. 하나님나라에서는 더 이상 패역과 대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하늘과 땅은 서로 의지하고, 사람과 나는 서로에게 애뜻하며, 오손도손 정답게 살면서 서로에게 기댄다.... 이때 나는 본격적으로 하늘에서의 삶을 시작한다. 사탄의 방해는 자취를 감추었고,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나의 선민은 온 우주 아래 나의 영광의 빛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삶이 아닌 백성과 하나님 간의 삶이다. 모든 이가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인간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다 오늘날 나의 빛 속에서 살게 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어찌 이 아름다운 순간을 쉬이 흘려보낼 수 있으랴? 백성들아! 어서 마음속의 그 노래를 부르며 나를 위해 신나게 춤추어라! 어서 그 참된 마음을 나에게 바치라! 어서 나를 위해 신명나게 북을 치며 연주하라! 나는 온 우주 위에서 기쁨을 드러낸다! 나는 백성들 가운데서 내 영광의 얼굴을 보인다! 나는 크게 외칠 것이다! 나는 온 우주를 초월할 것이다! 나는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 되었다! 나는 백성 가운데서 높임을 받았다! 나는 푸른 하늘 위를 거닐고, 백성들은 나와 함께한다. 나는 백성들 가운데서 다니고, 나의 백성은 나를 옹위한다! 백성들의 마음은 즐겁기 그지없고, 힘찬 노랫소리는 온 우주를 뒤흔들고 하늘에 울려 퍼진다! 온 우주 아래를 뒤덮던 짙은 안개가 자취를 감추었고, 진흙이 사라졌으며, 더 이상 더러운 물이 흐르지 않는다! 온 우주의 성결한 백성들아! 사열하는 내 앞에서 원래의 모습을 드러냈구나. 온몸에 더러움을 잔뜩 묻힌 사람이 아니라 백옥같이 흰 성결한 자이니 모두가 나의 사랑이고 기쁨이다! 만물이 생기를 되찾고, 모든 성결한 자가 다시 하늘 위에서 나를 섬기며, 나의 따스한 품에 안긴다. 이들은 더 이상 슬피 울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바치고, 내 집으로 돌아와 고국에서 영원토록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어찌 슬픔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찌 눈물 짓겠느냐! 어찌 육체가 있을 수 있겠느냐! 땅은 사라져도 하늘은 영원하다. 나는 만민에게 나타나고, 만민은 나를 찬미한다. 이런 삶과 아름다운 모습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나라의 삶이라.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26편

누가 내 집에 편안히 거한 적이 있었더냐? 누가 나를 위해 굳게 선 적이 있었더냐? 누가 나로 인해 고난받은 적이 있었더냐? 누가 내 앞에서 약속을 한 적이 있었더냐? 오늘날까지 나를 따르면서 차갑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왜 사람은 모두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이냐? 왜 세상은 나를 저버린 것이냐? 왜 사람은 모두 나를 싫어하는 것이냐? 왜 세상에는 따뜻함이 없는 것이냐? 나는 시온에서 하늘의 따뜻함을 느끼고, 하늘의 복을 누린 바 있다. 또한 나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고통을 맛보고,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본 적이 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나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다. 나는 사람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나를 위해 무언가를 보태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단지 내 계획을 따르고, 나를 거역하지 않으며, 나를 욕되게 하는 표가 되지 않고, 나를 힘 있게 증거하기를 바랄 뿐이다. 사람 중에는 나를 위해 아름답게 증거하고,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방법과 행위가 어찌 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의 마음에 들고 나의 뜻에 맞을 수 있겠느냐? 땅에 있는 산과 물, 화초와 나무 중 그 어느 것 하나 내 손의 행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고, 나의 이름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은 내가 요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냐? 사람의 비천함 때문이란 말이냐? 내가 사람을 ‘높여 주었기’ 때문이란 말이냐? 내가 사람에게 너무 잔인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왜 사람은 늘 나의 요구를 ‘두려워’하느냐? 오늘날 하나님나라의 백성들은 왜 나의 음성만 듣고 나의 얼굴은 보려 하지 않는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말을 보기만 하고 내 영과 맞춰 보지 않는 것이냐? 왜 나를 하늘과 땅으로 갈라놓는 것이냐?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있는 내가 아니란 말이냐? 하늘의 나는 땅에 올 수 없단 말이냐? 땅의 나는 하늘로 올라갈 자격이 없다는 말이냐? 마치 땅에 있는 나는 비천한 존재이고 하늘에 있는 나는 존귀한 존재인 듯하고, 땅과 하늘 사이에는 언제나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가 존재하는 듯하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모르는 듯하며, 나의 말에 음성만 있고 뜻은 없는 것처럼 줄곧 나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사람은 모두 내 말에 노력을 쏟으며, 나의 겉모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오히려 내 말에 의해 격추되어 다시 일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내가 사람의 믿음을 검증했을 때 진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지 못하고 꾀꾀 숨겨 ‘열어 보이지’ 않았다. 마치 내가 ‘심장’을 앗아가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읊조차 시련 속에서 굳게 서지 못했고, 역경 속에서 향기를

풍기지 못했다. 사람은 꽃피는 봄날에나 푸르름을 내비칠 뿐,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도 푸르름을 유지한 적은 없었다. 사람의 분량은 뼈만 앙상할 정도로 보잘것없어 내 기대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본보기가 될 만한 이가 없다. 사람은 서로 별반 차이가 없고 똑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람은 나의 행사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나의 형벌이 모든 이에게 임할 때에야 ‘자신도 모르게’ 나의 행사를 알게 된다.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사람에게 강요를 하지 않아도 사람은 모두 나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나의 행사를 보게 된다. 이는 나의 계획이고, 내 행사가 나타나는 부분이며,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나라에서는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땅의 모습이 변함에 따라 땅의 경계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땅이 갈라질 때, 땅이 합쳐질 때가 곧 내가 열국을 산산조각 낼 때임을 예언한 바 있다. 그때 나는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전 우주를 다시 나눌 것이다. 이로써 온 우주를 바로잡고, 옛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이는 나의 계획이고, 나의 행사이다. 열국 백성이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때, 나는 즉시 하늘의 모든 풍요로움을 세상에 베풀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더없이 풍요로워지게 할 것이다. 옛 세상이 존재할 때, 나는 열국에 크게 진노하고 온 우주에 공개할 행정 법령을 반포할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내가 온 우주를 향해 말을 할 때 모든 이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즉, 온 우주 아래에서 행한 나의 모든 행사를 보는 것이다. 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다시 말해 사람의 행위로 내게 맞서는 자는 나의 형벌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나는 하늘의 못별을 모두 새롭게 바꿀 것이다. 나로 인해 해와 달도 새롭게 바뀌어 더 이상 예전의 하늘이 아닐 것이며, 땅의 만물도 새롭게 바뀔 것이다. 이는 나의 말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온 우주 아래의 열국을 다시 나누고, 나의 나라로 바뀌, 땅에 있는 나라를 영원히 소멸시키고 나를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또한 땅에 있는 나라는 모두 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온 우주 아래에 있는 사람 중 마귀에 속하는 자는 모두 멸망당할 것이며, 사탄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나의 불사름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즉, 현재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종교계는 내가 만민을 형벌할 때 각각 다른 정도로 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고, 나의 행사로 말미암아 정복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흰 구름을 탄 거룩한 자’가 이미 왔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에 맞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모두 멸망할 것이나 땅에서의 행위가 나와 관련이 없는 자는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땅에 존재하고, 아들들과 백성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만국 만민에게

나타나고, 땅에서 친히 음성을 발할 것이며, 나의 대업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이 이를 직접 목도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깊어짐에 따라 나는 또한 온 우주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만물이 나의 말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사람도 원래의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은 서서히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종족’에게로 돌아간다. 나는 이에 크게 기뻐한다. 나를 방해하는 것이 없으므로 어느새 나의 대업은 이루어지고 만물도 어느새 모두 변하였다. 나는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나누어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을 분류하였다. 나의 경륜이 끝나려 할 때, 나는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모든 것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완전히 변화시켜 모든 것이 나의 계획 안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 때가 되었도다! 내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곧 완성될 것이다. 더러운 옛 세상아! 너는 반드시 나의 말에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것이다! 만물들아! 나의 말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주재자’를 얻으리라! 흠 없이 거룩한 새 세상아! 반드시 나의 영광으로 다시 소생할 것이다! 시온산아!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내가 이기고 돌아왔노라! 내가 만물 가운데서 온 땅을 살펴보니 땅의 사람은 다시 새 삶을 시작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내 백성들아! 어찌 나의 빛 속에서 부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나의 인도 아래에서 기뻐 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땅은 기뻐 환호하고, 물은 즐거움에 크게 웃는도다! 부활한 이스라엘아! 어찌 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눈물을 보였었느냐? 누가 애곡했었느냐? 지난날의 이스라엘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세상 위에 우뚝 섰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섰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반드시 내 백성으로 인해 생존의 근본을 얻게 될 것이다! 가증스러운 애굽아! 아직도 나를 대적하는 것이냐? 어찌 나의 긍휼을 틈타 내가 주는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찌 나의 형벌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토록 나에게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을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모든 소행을 쉬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온 땅을 감찰할 것이며, 공의, 위엄, 진노, 형벌로 세상의 동쪽에 나타나 만민에게 나타날 것이다!

1992년 3월 29일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제29편

만물이 소생할 때 나는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나날을 보냈다. 이때서야 사람은 나의 친근함을 조금 느꼈다. 사람과 나의 왕래가 점차 빈번해지면서 사람은 나의 소유와 어여움을 조금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나를 조금 알게 되었다.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고개를 들고 바라보자 사람은 모두 나를 보았다. 하지만 재앙이 인간 세상에 닥치자 사람은 갑자기 긴장감에 휩싸이고, 나의 형상은 그 마음속에서 사라진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재앙’의 도래에 놀라 당황해하며 나의 당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인간 세상에 온 지 오래되었지만, 사람은 계속 알아차리지 못했고, 계속 나를 알지 못했다. 오늘날 내가 친히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내 앞으로 와 내게서 무언가를 얻으라고 알려 줬지만, 사람은 여전히 나를 멀리 피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를 전혀 모른다. 내가 우주 땅끝을 두루 밟을 때 사람은 반성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은 내 앞에 와서 엎드려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내가 영광받는 날이요, 내가 돌아오는 날이요, 또한 내가 떠나가는 날이다. 오늘날 나는 전 인류 가운데서 나의 사역을 펼쳤고, 온 우주에서 본격적으로 내 경륜의 마지막 부분을 전개했다. 만약 또다시 경솔하게 구는 자가 있다면 언제든 ‘무자비한 형벌’ 속에 떨어질 것이다. 이는 내가 몰인정해서가 아니라 내 경륜의 단계가 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계획한 단계에 따라야 하며, 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내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내 움직임에 따라 움직였고, 나아가 전 우주 아래의 사람들까지도 나를 따라 분주했다. 전 우주 위아래는 ‘환희에 물들었고’, 사람은 나에 의해 움직였다. 그래서 큰 붉은 용마저도 나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갈팡질팡하다 나의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마음은 원하지 않으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 마지못해 ‘나의 지배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내 모든 계획 속에서 큰 붉은 용은 나의 부각물이 되었고, 나의 ‘원수’가 되었지만, 또 나의 ‘일꾼’이기도 하다. 이에 나는 늘 큰 붉은 용에 대한 ‘요구’를 늦추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성육신의 사역은 ‘그것의 집’에서 완성한다. 이렇게 하면 큰 붉은 용이 나를 위해 힘쓰게 하는 데 더 유리하며, 이로써 그것을 정복하여 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다. 내가 사역함과 동시에 모든 천사도 나와 같이 ‘결전’을 벌이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나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땅에 있는 사람이 천사처럼 내 앞으로 돌아와 순종하고, 내게 대적할 마음을 품지 않고, 나를 배반할 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전 우주 사역의 동태이다.

내가 인간 세상에 온 목적과 의의는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하여 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늘과 땅이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게 하여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게 하는 데 있다. 사람의 기능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내가 인류를 창조했을 때

사람에게 만물을 다 마련해 주었고, 그 후에 내 요구에 따라 내가 주는 ‘풍요로움’을 얻게 했다. 그러기에 나는 전 인류가 나의 인도에 따라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계획이었다. 전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사랑의 보호 속에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증오의 형벌 속에 사는지 모른다. 모든 사람이 내게 간구하지만, 여전히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사람은 실망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순리를 따르고, 더는 거역하지 않는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인류가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인생을 찾지 못했고, 여전히 세상의 불공평함, 쓸쓸함, 처참함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만약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이 계속 대자연을 끌어안고 ‘인생’의 맛을 자세히 음미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실정이 아니란 말이나? 이것이 내가 사람에게 발하는 구원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나? 왜 인류 가운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자는 없었느냐? 왜 항상 형벌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시련 속에서 나를 사랑하면서, 나의 보호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없는 것이냐? 나는 일찍이 여러 차례 인류에게 형벌을 ‘베풀었다’. 하지만 사람은 보기만 할 뿐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때에도 ‘연구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에게 임한 것이 무자비한 심판뿐인 것이다. 이것은 그저 내 사역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을 변화시켜 나를 사랑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나라에서만 아니라 전 우주 아래에서도 왕권을 잡고 있다. 나는 하나님나라의 왕이자 우주의 머리이다. 이제부터 나는 내 다음 단계 사역을 순조롭게 펼치기 위해 선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이방’에서의 내 사역을 시작하고, 전 우주에 나의 행정 법령을 공개할 것이다. 나는 형벌의 방식으로 이방에서 내 사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즉, ‘무력’으로 모든 이방인을 대할 것이다. 물론 이 사역은 선민 가운데서 하는 나의 사역과 함께 진행된다. 나의 백성이 땅에서 왕권을 잡을 때가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복되는 때이자 내가 안식하는 때다. 그때 비로소 나는 정복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다. 나는 거룩한 나라에는 나타나고, 더러운 땅에는 모습을 감춘다. 내게 정복되어 내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직접 나의 얼굴을 보고, 직접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는 말세에 태어난 자의 복이자 내가 정한 복으로,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다. 내 모든 사역은 전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어떤 사역도 갑자기 중단되거나 ‘독립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그렇지 않느냐? 과거의 사역이 오늘의 토대가 아니겠느냐? 과거의 말씀이 오늘날의 시작이 아니겠느냐? 과거의 단계가 오늘의 기원이 아니겠느냐? 내가 본격적으로 책을 펼칠 때가 바로 온 우주의 사람이 형벌을 받을 때이고, 온 천하의 사람이 시련을 받을 때이며, 내 사역이 절정에 이를 때이다. 이때 모든 사람은 빛이 없는 땅에서 살고,

또 환경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즉,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생활로, 역대 그 누구도 이런 생활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역사상 유례없는 사역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상황이고, 함축적인 뜻을 담고 있다. 나의 날이 이미 전 인류에게 다가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으니 누가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더러운 바벨론 성은 결국 종말의 날을 맞이했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는 사람과 다시 만났으며 하늘과 땅이 모두 새롭게 변화했다.

내가 만국 만민 앞에 나타날 때 하늘의 흰 구름이 일렁이며 나를 엄호한다. 땅 위의 모든 새가 지저귀며 나를 위해 기쁘게 춤추고 땅의 분위기를 띄운다. 그리하여 땅의 만물은 활력이 넘쳐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 내가 운무 속에 있을 때 사람은 나의 얼굴과 나의 두 눈을 어렴풋이 보았는데, 그때 약간 두려움을 느꼈다. 과거에 풍문으로 나에 대한 ‘역사 기록’을 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 그저 반신반의했다. 내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얼굴은 얼마나 큰지, 바다처럼 광활한지, 아니면 녹색 초원처럼 한없이 넓은지 아무도 몰랐다. 사람은 오늘날 운무 속에 있는 나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말로만 듣던 내가 ‘실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에 대해 약간의 호감을 느꼈다. 또, 내 ‘행적’ 때문에 나에 대해 약간 ‘감탄’했다. 하지만 사람은 구름 사이로 나의 일부를 봤을 뿐 여전히 나를 모른다. 이에 내가 팔을 내밀어 사람에게 보여 주자 사람은 또 놀라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내 손에 죽을까 매우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람은 ‘감탄’에 약간의 ‘경외’를 더했다. 사람은 주의하지 않을 때 나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몹시 두려워 두 눈을 크게 뜨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한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관찰’에 구속을 받지 않고 계속 내 손에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 내 모든 행사를 보고 나서야 사람은 내게 약간 호감을 느끼고, 점점 내 앞에 와서 나와 왕래한다. 나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공개할 때 사람은 나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때부터 나는 더는 사람으로부터 숨거나 감추지 않는다. 나는 온 우주 아래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육에 속한 자라면 나의 모든 행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나와 함께 아름다운 복을 누릴 것이다. 내가 돌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형벌에서 벗어나 영적인 고통도, 육적인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만민 가운데 공개적으로 나타나 왕권을 잡음으로써 온 우주 위아래에 시체 냄새가 사라지게 하고, 나의 맑은 향기로 전 세계를 채울 것이다. 나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깨어나고 있고, 땅의 모든 것이 준비를 마쳤으며, 더 이상 땅의 ‘생존’의 날은 없다. 내가 이미 왔기 때문이다!

1992년 4월 6일

##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체 무엇을 얻었느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얼마나 변화하였느냐? 너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과 육적인 평안을 위해서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육적인 평안이나 잠시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설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 최고조에 달해 더 이상 무언가를 구하지 않을 지경에 이른다 하더라도 네가 추구하는 그 ‘사랑’은 불순한 사랑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무료한 삶을 충실하게 하고,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자는 안락을 탐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랑은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고, 정신적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에 속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느냐? 너희 가운데 대다수의 사랑은 모두 앞에서 언급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기껏해야 현상 유지나 가능할 뿐, 영원불변할 수 없고,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릴 수도 없다. 이런 사랑은 피고 시든 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네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한 번 사랑한 후, 누군가 너를 앞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내 쓰러지고 말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후에 너의 생명 성품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너는 여전히 흑암 권세의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탄의 결박과 농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얻어지지 못하고, 결국 영과 혼과 몸이 여전히 사탄에게 속하게 된다. 이는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얻어지지 못한 자는 모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즉, 사탄에게 돌아가 유황불 못에 던져져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징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얻어진 자는 사탄을 저버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자로, 정식으로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나라 백성의 유래이다.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원하느냐? 너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느냐? 지금 너는 사탄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나라의 백성이냐?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테니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야심과 관념을 갖고 추구했으며, 자신의 소망을 위해 추구했었다. 이런 문제들은 일단 차치해 두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의 길을 찾는 것이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또한 사탄 권세의 결박에서 조금씩 벗어나, 하나님께 얻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실행의 길 말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흐리멍덩하게 믿으며 대세를 따른다. 그래서 줄곧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또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로부터 사람에게 어려움과 결점,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진정한 삶의 체험 속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정상 궤도에 진입한다는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평온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제하며, 사람의 부족한 점을 하나둘씩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한 점점 깊어지게 됨을 뜻한다. 이를 통해 너의 영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깨우침을 얻으며, 점점 더 간절히 사모하고, 진리에 진입하기를 추구하며, 날마다 새로운 빛 비춤과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된다. 또 이런 방식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조금씩 벗어나 생명이 점차 자라게 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정상 궤도에 진입한 사람이다. 너의 실제 체험을 살펴보고,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추구하는 길에 대해 생각해 보거라, 앞에서 말한 것들과 대조해 볼 때, 너는 정상 궤도에 진입한 사람이 맞느냐? 너는 어떤 일에서 사탄의 결박과 권세에서 벗어났느냐? 네가 아직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면 너와 사탄의 관계는 아직 단절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고 유일하며 순결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매우 깊다고 말하면서도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에 불순물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얻어져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 **폐괴된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다**

사람은 계속 흑암 권세의 그늘에 살고 있다.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사탄에게 가공된 성품은 점점 더 폐괴되고 있다. 사람은 늘 사탄의 폐괴 성품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독선적이고,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등 사탄에게 속하는 모든 성품을

반드시 벗어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의 사랑은 전부 불순물이 섞인 사랑이자 사탄의 사랑이기에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성령에게 직접 온전케 되고 책망받고 깨지고 훈계와 징계, 채찍질, 연단을 받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네 어떤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너는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요, 그릇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바로 천사장이다! 사람의 천성은 하나님을 직접 대변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 천성을 벗어 버린 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만족케 하며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거쳐야 사람이 살아 내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육으로 사는 자 중에 하나님을 직접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의 성품과 살아 내는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가 살아 내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만 할 수 있을 뿐, 그 사람의 성품 또한 하나님을 대변할 수는 없다.

사람의 성품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하나님이 정한 것이므로 긍정적인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성품은 또 사탄의 가공을 거쳤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성품이 다 사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한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 그런 성격이 있다며, 자신의 그런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어떤 사람이나? 사탄의 패괴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며, 성령을 모욕하는 자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은 그저 정복 사역일 뿐이다. 그렇기에 사람이 지닌 사탄의 수많은 패괴 성품이 아직 정결케 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그렇기에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형상, 즉 자신들이 좋다고 여기고 육적인 행위를 대표하는 것들을 살아 내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사탄을 대변하는 것일 뿐, 결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다. 설령 누군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땅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누리고, “하나님, 저는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도 부족하기만 합니다.”라는 말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정도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살아 내고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과 하나님은 본질이 다르기에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살아 낼 수 없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 내는 것 또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다.

사탄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지금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사탄의 발현이므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다. 사람이 바로 사탄의 화신이므로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할 수 없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의 성격을 통해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은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도구로 쓴 것뿐이다. 역대 선지자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직접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모두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 자발적으로 노력하며 협력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사물이란 무엇이나?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것은 다 긍정적인 사물이다. 하지만 사람의 성품은 모두 사탄의 가공을 거쳤으므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다. 오직 성육신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받는 의지, 공의, 순종 그리고 낮춤과 감춤만이 하나님을 직접 대변한다. 이것은 그가 죄짓는 본성을 지니지 않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사탄의 가공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단지 죄 있는 몸의 형상만 지녔을 뿐, 결코 죄를 대변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의 모든 행사, 일언일행,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이루기 전까지(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 포함) 모든 것이 직접 하나님을 대변한다. 예수의 예로 증명된 것이 있다. 바로 죄짓는 본성을 지닌 존재는 모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으며, 사람의 ‘죄’의 일면은 사탄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 사람에게 행해지는 성령의 역사 부분도 성령의 지배라고 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을 대표해 사역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을 놓고 말했을 때, 사람의 죄와 성품은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령이 사람에게 행한 역사를 보면,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했기에 사람이 진리를 살아 낼 수 있었다. 성령의 책망과 징계를 받은 뒤에 진리를 살아 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말하자면 성령이 역사한 요소만 있고 사람이 협력한 요소는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할 때, 너는 어떻게 전력으로 협력하며 너의 본분을 이행해야 하겠느냐?

## 반드시 없애야 할 종교적 섬김

하나님은 전 우주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를 섬길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을 예정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순조롭게 완수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그를 섬기게 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땅에서 사역하는 원칙은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까지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실제로 땅에 와서 사역하며, 사람과 접촉하여 사람이 그의 행사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한다. 오늘날 너희가 온 좋게 실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무한한 복이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높여 줌이다. 하나님이 그를 섬길 사람을 택하는 데는 언제나 원칙이 있다. 사람의 상상대로 열정만 있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늘날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로 성령 역사가 있어야 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패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란 불가능하다. 너의 성품이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성품은 여전히 사탄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너의 섬김은 선의에서 나온 것임을 말해 준다. 이는 사탄의 본성으로 섬기는 것이다. 너는 타고난 개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할 것이라고 여기며 완전히 자기 취향대로 사역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결국 너의 성품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채 도리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더욱 완고해지고 패괴 성품이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 내면에는 네 개성을 위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들과 네 성품대로 섬기면서 정리된 경험이 형성될 텐데, 이는 사람이 경험으로 얻게 되는 교훈이고, 또 사람의 처세술이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바리새인과 종교 관원에 속한다. 이런 사람들이 각성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반드시 말세에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른바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부류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개성에 따라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언제라도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 또 여러 해 동안 종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농락하고, 높은 자리에 서서 훈계하고 통제하며, 회개하거나 죄를 자백한 적도 지위의 복을 포기한 적도 없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야 말 것이다. 이런 자들은 관록과 경험을 내세워 거들먹거리는 바울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온전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섬김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늘 낡은 것과 고루한 고정 관념,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고수하는데, 이는 섬김에 크나큰 걸림돌이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네 일생은 이로 인해 망가질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뛰어다니고, 허리가 끊어질 만큼 고생하며, 심지어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칭찬은커녕 도리어 너를 가리켜 악을 행한 자라고 할 것이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종교 관념이 없고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으려 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온전케 할 것이니,

이런 사람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에게는 끝없는 풍부함과 무한한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그의 기묘한 사역과 보배로운 말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종교 관념이 있거나 관록을 내세우는 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는 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성령을 통해 온전케 될 기회도 얻을 수 없다. 사람에게 순종하려는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갈수록 패역해지고 간교해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 그를 진실로 사랑하고 새로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나이를 내세우며 거들먹거리는 종교 관원들은 완전히 제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원치 않는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느냐? 너는 자신의 취향대로 사역하며 섬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며 섬겼느냐? 이는 너 자신이 잘 알 것이다. 너는 종교 관원에 속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케 된 신생아에 속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께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 여러 해 동안 섬기면서 너의 생명에는 얼마나 큰 변화가 생겼느냐? 너는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과거의 낡은 종교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사람은 낡은 종교 관념 때문에 일생을 망치고, 사람이 종합해 낸 경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네가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생명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섬기는 모든 이를 온전케 하며, 쉽게 도태시키지 않는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여 이전의 종교적 행위와 규례를 버리고, 과거의 종교 관념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하는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낡은 것들을 고수하며 이를 보배로 여긴다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정말로 온전케 되고 싶다면 각오를 다지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한다. 이전에 행한 일이 옳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한 것일지라도 고수하지 말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이전에 행한 일이 분명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직접 행한 것일지라도 오늘은 절대 고수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요구이니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 하나님은 사역하고 말씀할 때 과거의 낡은 것들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으며, 지나간 일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이므로 자신이 이전에 말씀한 것일지라도 고수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사람은 언제나 이전의 것들을 고집하며 내려놓지 않고 억지로 공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네가 그렇게 한다면 말과 행동으로 방해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네 일생이 이 낡은 것들에 의해 망가지길 원하느냐? 이 낡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시라도 빨리 방향을 바꾸어 다시 시작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의 섬김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많은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제 하나님과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재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어느 정도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순종은 조건부 순종이자, 개인의 앞날을 전제로 한 순종이며,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대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그저 장래와 운명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다. 너의 그런 ‘믿음’은 자기 자신을 우롱하는 것이고, 자기 위안이며 자아도취다. 너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너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인해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구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리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실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약 네 본심이 정말 이러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높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만약 네 본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심지어 너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너의 말투가 부드럽고, 태도가 온화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의 일거수일투족과 표정이 적절하여 순종하는 자처럼 보이더라도, 너의 본심과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겉으로 양과 같이 순종하면서 마음속에는 악의를 품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이며, 직접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는다. 성령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들을 한 명씩 드러낼 것이다. 외식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께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처벌하고 해결할 것이니 누구도 걱정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하는 일을 꿰뚫어 보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으며, 의심하거나 판단하거나 연구하고 분석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의 빛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어제의 빛을 소중히 여기고 새 사역을 대적한다면, 이런 사람은 순전히 그릇된 놈이고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새로운 빛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그저 현 상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것들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사람 내면에 여러 가지 관념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을 만들어 냈으며, 이런 것들이 모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의 관념이자, 자신의 상상 속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네가 너의 상상 속 하나님을 기준으로 오늘날 실제로 사역하는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너의 믿음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아무리 많이 헌신해도, 설령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심지어 순교를 해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조금 베풀어 주어 잠시 누리게 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실천했다고 할 수 없다. 성령은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씩 도태시킬 것이다. 나이가 많은 적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모두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도태될 대상이다. 하나님에 대해 조금의 순종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스러움을 조금 느낄 뿐 성령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성령의 현재 사역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얻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통해, 생활 속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며,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만 누린다면, 순종, 경건함, 사랑과 인내는 모두 표면적인 것에 그칠 뿐 온전케 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 누린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한다. 설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해도 알팍한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에게 생명이 있거나 참된 인식이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연단할 때, 또는 사람에게 시련을 줄 때,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넘어진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쌓은 넓은 경험, 또는 성경을 원칙으로 한 각종 규례만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모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바라겠느냐? 이는 규례를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만족과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 만약 이런 것을 일컬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너는 애굽의 바로이고, 악을 행하는 자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의 이러한 섬김을 원하겠느냐? 너는 하루빨리 회개하고 네 주제를 좀 아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너에게 더 이로울 것이다. 방해나 교란을 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살림이나 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벌을 받지 않도록 말이다!

## 온전케 된 사람에 대한 약속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느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네가 이해한 것을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너에게 성령의 깨우침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다. 다만 작은 은혜를 받아 잠시 누릴 수 있을 뿐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서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평안과 즐거움에 만족하고, 재앙도 화도 없는 안락한 생활에 만족하며, 온 가족이 화목하게 같이 살며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 것에 만족한다. 또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긴다. 사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무 속된 생각이다. 설령 네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여 영적으로 큰 누림이 있고 아주 평안할지라도 네가 결국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전혀 말하지 못하고 전혀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고 마시든 영적인 평안과 즐거움만 느낄 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없이 달콤하여 아무리 누려도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전혀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살아 낼 수 없다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거나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 신앙이다. 이런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얻어질 수도 없다. 하나님께 얻어지는 사람은 모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얻는 것은 사람의 육체나 사람의 부속물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얻어지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말의 본질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육체는 모두 육에 속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얻어 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의 육체는 언젠가는 반드시 썩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 만일 사람의 육체를 얻어 사람의 육체만 이 흐름 속에 있게 한다면, 명목상으로는 사람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받아들여 사람의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람 내면에 만들어지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여 진리를 살아 내게 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이자,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베푸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1.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는다.
2.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다.
3.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빛 비춤 아래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는다.
4.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자격이 있고, 베드로와 같은 영광이 있다.
5. 세상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탄복하며 부러워한다.
6. 죽음의 모든 제약을 이겨 냄으로써 사탄에게 역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 점유되어 새롭고 활기찬 영 안에서 살면서 염증을 느끼지 않는다.

7. 하나님 영광의 날의 도래를 본 것처럼 일생 동안 언제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흥분과 감격을 품고 산다.

8.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얼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자와 같다.

9.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

10. 모습을 바꾸어 하나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가며 육체를 초월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이다. 너는 지금 무언가를 얻었느냐? 하나님은 너를 얼마만큼 온전케 하였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할 때 아무렇게나 온전케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고 또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뚜렷한 효과도 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모습을 바꾸는 일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현재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이다. 너희에게 임하는 모든 사람, 일과 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너희들 안에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고 많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추구해야 하고, 너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할수록,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일에서 하나님 말씀의 어떠함에 진입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하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저 죄를 짓지 않고 관념과 처세 철학, 사람의 뜻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내적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모든 일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만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도 온전케 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할 수 있다. 날마다 온전케 될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 얻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얼마 동안 체험하면 너는 크게 변화할 것인데,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지금은 자연스럽게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다. 또 사람이 가르쳐 줄 필요 없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너에게 깨우침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모든 일에서 깨우침을 얻게 되고, 모든 체험에서 세부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를 인도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온전케 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체험은 너무 단편적이고 적은 부분만 포함하기 때문에 사람을 매우 좁은 범위 안에 가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영적으로 필요한 영양이 많이

부족해진다. 너희는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서 체험할 줄 알아야 하고, 너희에게 임하는 모든 일에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너에게 어떤 일이 임할 때마다 너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이로움을 얻어야 하고,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찌 되었든 너는 하나님 편에 서서 문제를 보아야 하며, 사람의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연구해서는 안 된다(이것은 체험상의 편차다). 이 방법에 따라 체험한다면 너의 마음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빛 속에서 살면서, 실행할 때 쉽게 편차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앞날이 매우 밝다.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는 매우 많다. 다만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얻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너희는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며 많은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실행할 때마다 편차가 생기게 된다. 하나님은 너희 모두를 온전케 하기를 원한다.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인 지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만 국한되어 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육적인 평안을 얻기만 바랄 뿐 더 많고 더 높은 깨우침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아직도 늘 겉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사람의 사역, 사람의 섬김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순물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사람 내면의 본질과 사람의 뒤떨어진 사상을 볼 때 여전히 육적인 평안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조건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아직도 속되고 부패하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을 전혀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 믿는 것처럼 대충대충, 건성으로 대하며 그날그날 되는대로 살아갈 뿐이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고자 노력하여 더 많고 더 풍성한 것을 얻음으로써 오늘날 하나님 집에서 더 부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만일 네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자 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깨우침 받기를 추구하고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온전케 될 자격과 조건을 가질 수 있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너는 정말 모든 일을 참답게 대하는 사람이나? 너는 베드로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는 예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가 있느냐? 너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보았느냐? 네가 믿는 이는 진정 예수 맞느냐? 너는 지금의 실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에 거하는 지금의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았느냐?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가 행한 이적과 기사들이 공인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믿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너는 예수의 이름만 믿을 뿐 예수의 영은 결코 믿지 않는다. 너는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너무 유치하다. 너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 왔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는 네가 여러 해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밥’을 헛되이 먹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숭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찌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낮 뜨겁지 않으냐? 부끄럽지 않으냐?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면목이 있느냐? 너희는 내가 한 말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느냐?

## 악인은 반드시 징벌받을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의를 행하는 것인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감찰을 거쳤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일 처리 원칙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흠족게 할 수 있기에 의롭다 칭함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들이기에 의롭다 칭함 받는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의 보살핌과 보호, 그리고 온전케 함을 받아들여 그에게 얻어진 사람은 모두 의인이고, 그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현실적인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살아가 수 있으며,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사명으로, 너희 모두가 마땅히 해내야 하는 바이다. 관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규정하면서 그를 영원히 변치 않는 조각상인 양 완전히 성경 안에 국한하고 유한한 사역 가운데 고정해 놓는다면,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정죄했다는 의미이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고정화된 우상으로 여겼다. 하나님은 오직 메시아라고 불려야만 하고, 또 그렇게 불려야만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조각상(생명이 없는 존재)처럼 여기면서 섬기고 경배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의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리하여 죄 없는 예수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죄가 없지만, 사람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뿐더러 기어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고불변의 존재로 생각하며 성경 한 권에 기대어 하나님을 규정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경영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파악한 것처럼 말이다. 인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터무니없고 교만하며, 모두가 과장해서 떠벌리기를 좋아한다.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든, 내가 보기에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정죄하는 사람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을 전혀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왜 늘 못마땅해할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고정 관념이 너무 많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실제 사실에 완전히 어긋나고 천편일률적이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다. 잔혹한 인류야! 언제까지 그렇게 서로 암투를 벌이고 명리를 다투며 싸울 것이냐? 하나님은 많고 많은 말씀을 했지만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한 채 모두 가정과 자녀, 직업, 앞날, 지위, 허영, 재산, 먹고 입는 것, 육체를 생각하느라 급급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남을 억압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또 얼마나 많은 잔인한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정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른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여 의인이라 칭함 받을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나 의인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겠느냐?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의인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사실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의 옷차림새, 너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마음과 생각 하나하나를 낱알이 살펴보아라. 너희가 매일 꾸는 꿈조차도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 아니더냐? ‘의로움’이란 타인에게 재물을 베풀거나 남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흠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예수가 행한 모든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한 의로움이다. 롯이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를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그가 당시에 행한 일을 두고 의롭다 칭한 것뿐이지, 그를 의인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 롯은 하나님을 보았기에 자신의 두 딸을 두 천사와 바꾸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이전에 행한 일이 다 의로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회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아무리 잘 행하고, 겉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영화롭게 할지라도, 남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는 할지라도 의롭다고 칭함 받을 수 없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은 네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다. 오늘날에야 네가 정상 인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이 말한 의로움은 조금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의 행위는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증명하지 못한다.

이전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었을 때, 사람은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을 속였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온 지 오래되었건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고, 여전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하며 속이고 있다. 이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 뒤쳐진 것 아니겠느냐? 마치 유다처럼 말이다. 유다는 예수가 오기 전에 늘 거짓말을 하고 형제자매를 속였으며, 예수가 온 후에도 그 버릇을 못 고쳤다. 또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해 마지막에는 예수를 팔았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런 짓을 저지른 것 아니겠느냐?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도 유다처럼 될 것이고, 그로 인해 2천 년 전 은혜시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비극이 재현될 것이다. 믿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사실이다! 지금 대다수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말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그런 자들은 모두 유다의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다. 이는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네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나 사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썩은 물이 가득 고인 시궁창이다. 지금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너희는 내가 조금도 모를 거라고 여긴다. 오늘날 나의 영이 나를 위해 주관하고 증거하건만,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여기느냐? 너희 마음속 엉킨 수작과 꾀꾀이를 내가 전혀 모를 거라고 여기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느냐? 마음 내키는 대로 대해도 된다는 말이나? 이전에는 너희가 속박받을까 봐 줄곧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사람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채 끝없이 욕심을 부렸다. 너희가 서로 알아보아라. 나는 그 누구도 책망한 적이 거의 없고 그 누구도 쉽게 훈계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속셈과 관념을 분명히 알고 있다. 너는 하나님이 증거한 하나님 자신을 바보 멍청이라고 여기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를 완전히 눈먼 자라 하겠다! 나는 너를 폭로하지 않고 네가 어느 정도까지 파괴되는지 지켜보겠다. 너의 잔꾀가 너를 구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이 너를 구할지 지켜보겠다. 나는 지금 너를 정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보응하는지 보아라. 지금은 너와 잡담할 여유도 없고 너 하나로 인해 더 큰 사역을 그르치고 싶지도 않다. 너 같은 구더기는 하나님이 시간을 내서 상대할 가치도 없다. 네가 어느 정도까지 방자하게 굴지 지켜보겠다. 이런 사람은 털끝만큼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 받기를 바란다. 이것은 웃기는 일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너희 중 몇몇 일부는 정직하기에 나는 한결같이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에만 신경 쓸 뿐이다. 나는 지금 해야 할 일만 하고, 이후에는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 보응할 것이다. 내가 해야 할 말은 다 했다.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역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것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진실한지, 자신이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닌지 성찰해 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너희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진리들을 알아야 하는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어떤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배에 맡겨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한 모든 사역을 알 것인지와 관련된다.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에 절대복종하고, 어떠한 원망, 판단, 분석과 그 어떠한 연구도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이다. 마치 양처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죽음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모두는 90년대의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일말의 원망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래야만 90년대 베드로의 풍격으로 사는 것이다.

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과 권리가 주어진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버리는 등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종교 인사들은 성경을 받쳐 들고 곳곳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복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긴다.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신학교에서 심도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여러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 구절로 사람들을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빈곤 지역’의 사람들은 형제자매들을 위해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중보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긴다. 너희 중에 많은 이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형제자매들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별처럼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물며 턱없이 부족하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급히 알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고자 한다면 우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증오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또한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난 후에, 너희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먼저 진입하고, 먼저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진실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갖게 된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를 섬길 때 너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알고 더 분명히 이해하게 한다. 네가 이 실제에 진입할 때, 너의 체험은 더욱 깊어지고 더 실제적이 된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형제자매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한다. 이 효과에 도달한 후에야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있고, 또한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지기(知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일편단심 충성하는 자여야 한다. 사람 뒤에서 한 일이든 사람 앞에서 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설 수 있으며,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너는 항상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기인 것이다. 하나님의 지기가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중임을 맡고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담을 자신의 부담으로 생각하며, 전망과 득실을 따지지 않는다. 설사 아무런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기인 것이다. 하나님의 지기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급해하는 것을 급해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한다. 비록 육체는 고통스럽고 연약할지라도 그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런 사람을 통해 증거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을 수 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기가 될 때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게 되는 때이다.

예수가 하나님이 맡긴 일을 완수하고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 계산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너희가 가장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지기이자 하나님 자신이다(사실, 그는 하나님이 증거한 하나님 자신이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통해 한 가지 일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중심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당신의 뜻이라면 이루소서. 제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하소서. 사람이 연약하긴 하나 당신께서 어찌 그것까지 헤아리시나이까? 당신 손안의 재미와도 같은 사람이 어찌 당신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겠나이까? 저의 마음은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오니, 원컨대 당신의 뜻에 따라 제게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소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슴이 칼로 에는 듯 아프고 괴로웠으나 마음속에는 일말의 후회도 없었다. 그는 계속 어떤 큰 힘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곳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의 형상으로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수하고, 모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사망, 지옥과 음부는 그의 앞에서 위력을 잃고 그에게 패하였다. 그는 33년의 생애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당시 사역에 맞춰 하나님을 흡족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개인의 득과 실을 따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가 세례를 받은 뒤에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속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 완수하게 한 것이다. 그는 그 중임을 완수할 자격과 권리가 있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수많은 고통과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낙담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사랑하였기에 그 크고 중요한 임무를 그에게 맡겼던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오직 예수만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이 은혜시대에 행한 인류 구속 사역 실상의 일부이다.

너희도 만약 예수처럼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여 너희 육을 저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중책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이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너는 네가 하나님의 지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네가 하나님의 지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네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 네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 자신이냐? 너는 사탄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기고 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내 뒤에서 지위의 복을 탐하고, 먹는 것과 자는 것을 탐하며, 늘 육체가 편하지 못할까 걱정하기에 급급하다. 교회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공밥을 먹거나 나의 말로 형제자매를 훈계하고, 높은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속박한다. 이런 사람들은 말끝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떠들어 대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지기라고 한다. 이는 황당무계한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냐? 만약 네가 마음 자세는 바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지 못한다면, 너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마음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공짜로 밥을 먹고 항상 육적인 안락만을 탐하며, 하나님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도모한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 영의 감찰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늘 간교하게 형제자매들을 기만하고, 사람들 앞과 뒤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마치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를 훔쳐 먹고 포도원을 짓밟는 것과 같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자신의 생명과 교회에 대해 부담이 전혀 없는 네가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런 자를 누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너처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임무를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일을 그르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섬김을 행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너희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다.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처럼 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어려우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찌면 지금은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 됐든 네가 하나님을 기만하면 가차 없는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막 하나님을 섬기는 정상 궤도에 들어선 이 기회에, 마음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음으로 두 가지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너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는 자로 온전케 할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에 의해 진정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섬기고 싶다면, 너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예전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예전의 구태의연한 방법을 바꾸어, 네 안에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결국 유다와 같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것에 관하여

성령의 특별한 지시나 인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람은 전혀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섬김과 목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그의 사역을 위해 분주히 오가며 교회들을 목양하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통해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성령은 사람에게서 취할 만한 부분을 통해 사역하며, 또 그 사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든다. 사람은 이해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목양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쓴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당시 상황에 쓰기에 적합한 부분을 많이 찾아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단계 사역을 했다. 이 단계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성령이 쓸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사역한다. 성령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한편,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은 온전케 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성령의 역사에 협력하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선민을 이끌기 위해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킨 사람이자

인성으로 협력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성으로 협력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려는 사역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는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를 더 많이 충족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직접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임 받는 사람을 일으켜 이런 사역을 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매개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는 ‘통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집에 있는 어떤 일꾼이나 사도와는 다르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다른 일꾼이나 사도들과 사역의 본질, 그리고 쓰임 받는 배경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역의 본질과 쓰임 받는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킨 자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 예비한 사람이며, 하나님 자신의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이다. 그의 사역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신성으로 역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성으로 협력하는 사역이다. 반면, 다른 일꾼이나 사도의 사역은 그저 각 시기에 교회에 대한 다방면의 지시를 전달하고 실시하는 것이거나,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 일부 단순한 생명 공급 사역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일꾼들이나 사도들은 하나님께 지정된 자가 아니며, 또한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들은 모두 교회에서 선발된 자들로, 한동안의 배양과 훈련을 거쳐 쓰기에 합당한 사람은 쓰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진다. 이들은 모두 교회에서 선발된 자들이므로 일부는 리더가 된 후 실체가 드러났고, 또 어떤 이는 많은 악행을 저질러 결국 도태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어느 정도 자질과 인성을 갖춘 사람이며, 성령이 미리 예비하여 온전케 한 사람이다. 성령이 그를 완전히 인도하는 것은 물론, 특히 사역 면에서는 성령이 지배하고 주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을 인도하는 길에 오차가 생길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사역에 책임을 질 것이며, 언제나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새 시대의 계명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진리를 갖춰야 한다. 어떻게 하고 싶어 하든, 어떻게 하려고 하든 간구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 문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줄 모르고, 소극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치를 많이 알고 있지만 실재는 별로 없다. 이는 치우치고 그릇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듯 치우치고 그릇된 모습은 너희에게서 수없이 나타난다. 지금은 너희가 ‘봉사자’ 같은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다른 시련 연단마저 생각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한다. 너희가 실행해야 할 많은 것들은 너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으로서 다해야 할 많은 본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다. 성령이 해야 할 것은 성령이 하면 된다. 사람은 간섭할 수 없다.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은 성령과는 무관하게 사람이 지켜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사람이 해야 할 것이므로,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듯 마땅히 계명으로 삼아 지켜야 한다. 지금이 율법시대는 아닐지라도, 율법시대의 말씀과 유사한 수많은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성령의 감동에만 기대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제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을 대적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지켜야지 방자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말할 때는 분수를 지키고, 일을 하거나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의 안배에 따라야 한다. 마땅히 하나님의 증거를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어투와 그 말씀의 목적을 흉내 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대적해서도 안 된다.’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각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서나 특별히 율법과 유사한 수많은 규례를 정하여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이런 규례를 통해 사람의 성품을 통제해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찾아낸다. 예를 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구약시대의 말씀은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당시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을 어느 정도 통제함으로써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상징이기도 하였다. 지금이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례는 여전히 많으며, 지난날의 규례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더 적합한 실행법이 많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성령 역사와 관계되지 않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은혜시대에 율법시대의 수많은 규례들이 폐지된 까닭은 그런 율법들이 당시의 사역에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규례가 폐지된 후, 당시의 상황에 맞는 수많은 실행법이 정해졌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규례들이 되었다. 이 규례들은 오늘날의 하나님이 오자마자 폐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는 또한 오늘날의 사역에 알맞은 수많은 계명을 정했는데, 그것은 규례가 아니라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훗날에는 규례가 될 수도 있다. 종합하자면, 오늘날의 사역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너는 마땅히 지켜야 한다. 훗날에 어떻게 되든, 오늘날 하는 것은 오늘날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 지켜야 할 더욱 좋은 실행 방식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오늘날 지켜야 할 것을 마땅히 지켜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된다. 오늘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즉, 네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음탕하고 망령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온갖 감언이설로 눈앞의 하나님의 신임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반항과 대적은 물론, 반박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며, 악인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의 입과 혀를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해 준 범위를 벗어나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교만하게 말해 하나님께 혐오받지 않도록 너의 발걸음을 경계해야 한다. 남이 너를 비웃지 않고 마귀가 너를 조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전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오늘날 행하는 모든 사역에 순종해야 한다. 모른다 할지라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단지 구하면서 교제해야 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고유한 지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오직 사람의 위치에서 오늘날의 하나님을 섬겨야지,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의 자리에는 그 누구도 서서는 안 되며, 말하거나 행하거나 생각할 때는 모두 사람의 위치에 서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직책이니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일이니 그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장기간 음성을 발하여 말씀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보고 외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길 뿐 어느 누구도 실행을 중시하지 않았고, 지켜야 할 것도 지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너희들의 섬김이 아주 어렵고 번거로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전, 네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 버려지는 대상이다. 그런 것은 모두 성심성의껏 지켜야지, 족쇄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오로지 계명으로 삼아 지켜야 한다. 지금은 그 효과가 어떨지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쨌든 성령이 이렇게 하고 있으므로 거스르는 자는 그 누구든 징벌을 받을 것이다. 성령은 사사로운 감정이 없기에 네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 네가 오늘날 하나님을 거스른다면, 하나님은 너를 징벌할 것이다. 성령의 ‘관할 범위 내’에서 거스른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은 네가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착실하게 지켰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네가 오늘날의 하나님 계명을 거스른다면 그는 너를 징벌할 것이고 너를 죽을죄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데도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지켜야 한다! 앞으로는 각 교제와 각 분야, 각 나라와 각 교파도 모두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단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다! 이것은 성령이 지금 행하는 사역이므로 그 누구도 범해서는 안 된다. 큰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다 지켜야 한다. 그것은 부활하여 승천한 예수가 사람들에게 정한 계명이기 때문이다. ‘길 ... 7’에서 예수가 너를 의로운 자로 정할지, 죄인으로 정할지, 이것은 오늘날의 하나님에 대한 너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누구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율법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 왔지만, 은혜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그들을 열납하지 않았다. 네가 이 점을 꿰뚫어 본다면 선불리 죄짓지 않을 것이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과 맞서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맛이 어땠느냐? 달콤했느냐, 아니면 씹쓸했느냐?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니 시치미 뿔 필요 없다.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기분일지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대적한다. 그렇게 대적하고 나면 마음이 칼로 에는 것처럼 아프지 않더냐?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친다. 비록 네 몸은 요행히 죽음을 피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지느냐? 특히 하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일을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시험에 빠져들면서 뭐든 개의치 않게 된다. 죄악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올바르게 행한다면 온전케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솔하게 대한다면 너에게는 재앙뿐이다. 즉,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여 어느 순간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이다. 이런 계명은 사람마다 중요시해야 한다. 이를 범한다면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은 너를 정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너를 가만두지 않고 끝장을 보려 할 것이다. 이런데도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모두 실행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한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 천년하나님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서 이루는 사역이 무엇인지 보았느냐? 지난날 하나님이 말씀했듯, 천년하나님나라(역주: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인도하여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으로 지시하였으며, 하늘에서 양식과 물, 만나를 내려 사람들에게 누리게 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친히 먹고 마실 것을 내려 사람에게 누리게 하고, 친히 저주를 내려 사람을 형벌한다. 그러므로 각 단계의 사역을 전부 하나님이 친히 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사람은 사실이 임하기를, 또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자는 버림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점점 더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과 자양품을 내렸지만 그것을 아는 자 또한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다. 사람이 상상하는 천년하나님나라의 활기찬 광경 역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땅에서 왕권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땅에서 왕권을 잡는다는 말은 육신을 가리킨다. 육신이 아니라면 땅에 있을 리 없다. 그러므로 셋째 하늘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의 소망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 온 우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온 우주의 사역은 하나님이 발한 음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나 레이저로 하나님이 발한 음성을 받아들이고, 비행기나 배를 타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양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행사이다. 한 가지 명심해라! 앞으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일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온 우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현하러 오고, 땅의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의 사역을 모두 중단했으니, 사람은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예전에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식을 가지고 있던 요셉에게 가서 그를 경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굶주림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종교계 전반에는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 오직 오늘날의 하나님만이 생수의 원천이고 사람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베풀어 주기에 모두가 그에게 의탁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행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니 온 우주 위아래의 사람들이 모두 와서 보잘것없는 이 ‘사람’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 아니겠느냐? 언젠가는 환갑에 가까운 목사도 전보를 보내 생수의 원천을 찾고 구할 것이다.

연로한 육신을 끌고 와서 한때 자신들이 업신여기던 이 사람에게 경배할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것이다. 이것이 이적과 기사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 온 나라가 기쁨으로 들끓을 것이며,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얻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나라도, 그런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사람은 땅에서 나아갈 길이 있게 된다. 반면, 장사를 하든, 과학 연구를 하든, 교육이나 공업에 종사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있으면 온 세상을 두루 다닐 수 있고, 진리가 없으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 바로 이러하다. 하나님은 ‘길’(‘길’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킴)로써 온 우주 위아래를 통제하고, 인류를 다스리며 정복한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 방식에 더 큰 전환점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통제하므로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 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니,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이는 대세의 흐름이자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성령은 사람에게 이런 느낌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얻지 못한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자양분을 얻고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다. 사람이 아편을 하면 힘이 생기지만, 아편을 하지 않으면 계속 생각나고 온몸이 무력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날의 사람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힘이 생기고, 보지 않으면 온몸에 힘이 빠진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면 즉시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권세를 잡은 것이며, 하나님이 땅에서 왕이 된 증거이다.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싫증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떠나지 못한다. 사람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고, 아무리 패역해도 감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그 위력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 왕권을 잡을 때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사역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며, 그 누구도 말씀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집집마다 전파될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전 우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역을 전 우주로 확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확장해야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권병과 위력을 드러내는 날이 되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오늘날까지 한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땅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한 말씀으로 인해 모든 악인이 형벌을 받고 모든 의인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이적이나 기사도 나타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다.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 칭송할 것이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고 또 땅에서 사람이 생생하게 보게 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된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이 육신 되는’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은 육신에서 말씀하고(구약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발한 것과는 다름) 그것을 천년하나님나라시대(역주: 천년왕국시대)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실로 나타냄으로써 말씀과 사실이 조금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직접 보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성육신 된 크나큰 의의이다. 즉, 육신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영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되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는 말의 진정한 함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의 뜻을 말할 수 있고, 오직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만이 영을 대신하여 음성을 발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한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그의 말씀의 인도 아래에서 살아가며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은 그의 음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를 통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얻으려는 생각은 깨끗이 단념하는 것이 좋다. 이는 성육신한 하나님이 나타낸 권병으로서 모든 사람이 믿고 복종하게 한다. 아무리 권위 있는 전문가나 교계의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없다. 모두가 말씀 앞으로 돌아와 복종할 것이며, 누구도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정복하려 한다. 성육신 하나님의 육신이 아니라 친히 발한 음성으로 온 우주 위아래의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된 것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대단한 사역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면 모두 탄복을 금치 못하고,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질 것이다.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해 요란하게 떠들어 대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모두 입을 다물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이 땅에 왔다는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일찍이 정해 놓은 계획이기 때문이다. 사실, 굳이 내가 짚어 줄 필요도 없다. 천년하나님나라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왔다는 뜻이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마음, 생각과 함께한다는 의미이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이루려는 일이자 천년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광경이다. 이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계획이다. 즉 말씀이 땅에서 천 년 동안 나타나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나타내고,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류는 일단락을 짓게 된다.

## 실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실제 하나님에 대해 네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실제 하나님 자신을 구성하는 것은 영, 사람, 말씀이다. 이것이 실제 하나님의 진정한 함의이다. 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은 알지만, 영의 역사와 영이 육신에서 행한 것은 모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실제 하나님의 몸에서 행한 사역은 모른 채 영과 말씀만 중시하며 영 앞에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네가 실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알고 체험하며, 성령 역사의 법칙과 원칙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육신으로 사역하는지를 아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의 말씀이 영의 직접적인 선포임을 아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실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로 하나님이 인성과 신성으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접하는 영의 선포와 관련된다.

영의 선포는 어떤 면이 포함되어 있을까? 때로는 인성으로, 때로는 신성으로 사역하지만, 포괄적으로 말하면 모두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속에 있는 영에 근거한다. 영은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 하지만 그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인성으로 하는 사역과 신성을 통해 하는 사역, 두 부분으로 나뉜다. 너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즉, 다양한 상황에 따라 영의 사역 역시 다르다. 인성의 사역이 필요할 때는 영이 인성을 지배하여 사역하고, 신성의 사역이 필요할 때는 신성으로 직접 사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하고, 육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인성으로 사역할 수도 있고 신성으로 사역할 수도 있다. 인성 사역은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는 사람의 육체적 요구를 만족시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하나님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왔고,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접촉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신성 사역은 사람의 생명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이끌고,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영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음을 진실로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사람 생명의 성장은 주로 신성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성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성품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다. 거기에 인성의 사역, 즉 하나님이 인성으로 하는 목양, 붙들,

공급이 있어야 완전히 하나님 사역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오늘 언급한 실제 하나님은 인성으로 사역하기도 하고, 신성으로 사역하기도 한다. 실제 하나님의 나타남을 통해 정상적인 인성의 사역과 생활도 있고 완전한 신성의 사역도 있는,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연결되는 상태에 이른다. 또한 인성의 사역과 신성의 사역은 모두 말씀으로 이루어지므로 인성에서든 신성에서든 다 말씀한다. 인성으로 사역할 때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인간적인 언어는 대중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서 누구에게나 공급할 수 있고, 지식인이든 지식이 없는 자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 신성으로 사역할 때도 역시 말씀을 통해 하지만 신성 사역에는 공급이 가득하고 생명이 충만하며, 사람의 뜻이 섞여 있지 않고, 인성의 취향과 무관하고 인성의 제약이 없다. 또한 정상 인성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육신으로 사역하는 것은 같지만, 이는 영의 직접적인 선포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성 사역만 받아들인다면 한쪽 범위에만 국한되기에 오랜 시간 책망과 훈계, 징계를 거쳐야 약간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함께함이 없는 자는 고질병이 재발하게 된다. 이는 신성 사역을 통해 그 폐단과 결점을 보완함으로써 완전해지게 해야 한다. 장기간의 책망과 훈계가 필요 없이 긍정적인 면으로부터 공급하고, 말씀으로 모든 결점을 보완하고, 말씀으로 사람의 모든 내적 상태를 드러내고, 말씀으로 사람의 생활과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지배하여 사람의 속셈과 목적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 하나님이 하는 실제 사역이다. 그러므로 실제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의 인성 앞에서 순종하고, 신성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 영의 모든 사역과 말씀이 정상 인성을 통해, 그리고 성육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인성의 사역을 지배하고, 육신으로 신성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너는 하나님이 인성으로 하는 사역도 볼 수 있고, 완전한 신성으로 하는 사역도 볼 수 있다. 이것이 실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실제적 의의이다. 네가 이 점을 간파했다면 하나님의 각 부분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으니 신성의 사역을 지나치게 중시하지도, 인성의 사역을 지나치게 경시하지도 않을 것이요, 극단으로 가지도, 길을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실제 하나님의 함의는 신성의 사역과 영의 지배를 받는 인성의 사역을 육신을 통해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인성에서 하는 사역은 과정 단계가 있다. 먼저 인성 부분을 온전케 함으로써 인성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해 교회들을 공급하고 목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사역하는 정상적인 일면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성 사역의 원칙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인성 사역에 대해 쉽게 관념이 생기지 않는다. 어찌 됐든 하나님의 영은 틀릴 리 없고 모두 정확하다. 하나님은 실수할 리 없다. 신성의 사역은 인성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나타내는데,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신성으로 하는 사역 역시 정상적인 인성이 하는 것인지라 전혀 초자연적이지 않기에 마치 정상인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주로 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육신을 통해 하나님 영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실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앎은 너무 단편적이고, 성육신의 의의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육신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포하는 것이 참으로 많고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찌 됐든 하나님이 증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어떻게 사역하는지, 즉 어떤 원칙에 따라 인성에서는 어떻게 사역하고, 신성에서는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늘 네가 이 사람을 경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는 성육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최소한 알아야 할 점이다. 사람은 육신을 통해 영의 본질을 알게 되고, 영이 육신으로 하는 신성의 사역과 인성의 사역을 알게 되며, 육신에서 하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육신을 지배하는지, 어떻게 육신에서 그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 알게 된다. 바꿔 말해서, 육신을 통해 하늘에 계신 영을 알게 되고, 실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사람의 고정 관념 속의 막연한 하나님을 제거하고, 실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는 하나님 영의 신성 사역과 인성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계시와 목양을 받고 생명 성품이 변화된다. 이것이 영이 육신에 온 실제 함의인데, 주로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은 내면에 실제 하나님에 대해 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 성육신한 것,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 실제 하나님의 행사 등에 대해 과연 어떻게 인식하느냐? 지금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성육신한 것, 말씀이 육신에 온 것,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 이 몇 가지를 반드시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의 분량에 따라, 시대에 따라 너희는 생명 체험 속에서 차츰 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꿰뚫어 보고 뚜렷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을 통해 영의 사역 원칙을 파악하고 실제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된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을 얻는

것은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자 실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성육신의 실제적 의미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음을 보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얻어지고 하나님께 온전케 된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선포로 사람을 정복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생명을  
 사람의 내면에 만들어 넣어 사람을 그의 어떠함(인성의 어떠함이든 신성의 어떠함이든)과  
 그의 말씀의 본질로 채워서 그의 말씀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  
 주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부족함을 다루고, 사람의 패역 성품을 심판하고  
 드러내어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왔음을 알게 한다. 실제  
 하나님이 하려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모든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더러운 땅을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의 패괴 성품을 없애는 것이다. 실제 하나님께 얻어지는 가장 깊은  
 의미는 실제 하나님을 뜻대와 본보기로 삼아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따라 실행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게 간극 없이 그가 말씀한 대로 실행하고,  
 그가 요구한 것을 모두 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 얻어진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하나님이 네게 요구한 대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은 네게  
 생명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핵심은 네가 실제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네가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실제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하는 가장 큰 의미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생생하게 실제로  
 육신으로 나타나 육신으로 영의 사역을 하고 사람의 뜻대가 되는 것을 현실감 있게 보여  
 줌으로써 한 무리의 사람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에 온 주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무형의 영을 육신에 실체화하여 사람들이  
 만지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온전케 된 사람이야말로 그를 살아 낸  
 사람이요, 그에게 얻어진 사람이요, 그의 뜻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음성을  
 발하고 실제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행사를 그저 공허한 이론으로 전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실체가 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주로 하나님이 얻으려는 사람을 위해 뜻대를 세우고,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만지고, 볼 수 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다.

##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안다는 것은 주로 말세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주요 직분이 무엇인지, 그가 땅에 와서 행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하나님이 땅에 와서(말세를 가리킴) 본보기를 제시한 후 떠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본보기는 어떻게 제시하느냐? 바로 말씀으로 제시한다. 즉, 각지에서 사역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세에 하는 사역이다. 말씀만 함으로써 땅이 말씀의 세계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깨우침을 받아 영의 눈을 뜨고 이상(異象)을 환히 알게 한다. 말세에 성육신으로 땅에 온 하나님은 주로 말씀을 한다. 예수가 왔을 때에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율법시대를 끝내고 낡은 것들을 모두 폐하였다. 예수는 와서 율법시대를 끝내고 은혜시대를 열었다. 말세에는 성육신한 하나님이 와서 은혜시대를 끝냈다. 그는 와서 주로 말씀을 하며,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말씀으로 사람에게 빛 비춤과 깨우침을 줘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 버린다. 예수가 왔을 때에는 이 단계 사역을 행하지 않았다. 그는 와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하였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리할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예수가 와서 행한 사역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말세에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한편으로는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 사람 마음속에 더 이상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과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실제적이고 정상적으로 사역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실재를 알게 하고, 막연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이 한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것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세에 이루려는 사역이다.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사역은 초자연적이지 않으니 관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둘째, 성육신 하나님이 이번에 와서 주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는 이번에 와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 그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속량받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다. 예수가 이미 그 단계 사역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중복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와서 은혜시대를 끝내는 것은 은혜시대의 모든 관행을 폐하는 것이다. 실제

하나님은 와서 주로 그의 실재를 나타낸다. 예수는 와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주로 권능을 나타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으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또 약간의 예언으로 사람들이 믿고 복종하게 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고 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했다. 지금의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고,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는다. 예수가 왔을 때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일부를 대변했으며, 하나님이 이번에 온 것은 그가 이번 단계에 해야 할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중복 사역을 하지 않고, 그는 늘 새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보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일 뿐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주로 말씀을 통해 사람의 생명에 필요한 것을 모두 설명해 주고,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을 알려 주며,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 기묘함을 모두 나타내 보여 준다. 사람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고지상함을 보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을 보았으며, 하나님은 지고하지만 가장 작은 자로 자신을 낮추고 감춤 수 있음을 보았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영의 위치에서 직접 한 것이고, 어떤 말씀은 사람의 위치에서 직접 한 것이며, 또 어떤 말씀은 제3자의 위치에서 한 것이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모두 말씀을 통해 사람이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말세에 행하는 사역은 정상적이면서도 실제적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이 무리 사람들이 받는 시련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시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시련 속에 빠져드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예수 시대에는 사람에게 관념도 시련도 없었다. 예수가 행한 많은 일들이 사람의 관념에 부합했기에 사람은 모두 그를 따랐고, 그에 대한 관념도 없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받는 시련이 가장 크기에 이들을 모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환난이 바로 이 환난을 가리킨다.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믿음과 사랑, 고난받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모두 성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말세에 성육신한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본성과 본질, 그리고 행위와 태도에 근거해 말씀하고, 현재 사람이 진입해야 하는 것에 근거해 말씀한다. 이는 실제적이면서도 정상적이다. 하나님은 앞날의 일을 얘기하지 않고 지난날의 일도 돌아보지 않으며, 오늘날 진입하고 실행하며 깨달아야 할 것만 말씀한다. 오늘날 만약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칭 돌아온 예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악령이 가장한 것이고, 악령이 예수를 모방하여 행한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중복 사역을 하지 않는다. 예수의 그 단계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기에 그 뒤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했지만 결국에는 예수가 온 것처럼 말이다. 만약 메시아가 한 명 더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가 한 번 왔었는데 이번에 ‘예수’가 다시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 시대에 이름은 하나뿐이며, 모든 이름은 다 시대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항상 예수와 같아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가 행한 것과 똑같이 말세에도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중복된다. 그러면 예수의 사역은 의의도, 가치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한 단계 사역만 행한다. 하나님이 한 단계 사역을 마칠 때마다 악령이 곧이어 모방하고, 사탄이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하나님은 다시 방식을 바꾼다. 너희는 하나님이 한 단계 사역을 마치면 악령이 이를 모방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이 무엇 때문에 예수의 사역과 같지 않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며, 병을 고치지도 않겠느냐? 만약 예수가 율법시대와 똑같은 사역을 했다면, 그가 은혜시대의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겠느냐? 예수가 율법시대처럼 성전에 들어가고 안식일을 지켰다면, 그 누구도 그를 핍박하지 않고 옹호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겠느냐?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겠느냐? 말세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여전히 예수처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다면, 그것이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오직 말세에 다른 부분의 사역을 행하여 그의 경륜 중 일부를 대표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앎이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될 수 있다.

하나님은 말세에 와서 주로 말씀을 하는데, 영의 위치에서 말하고, 사람의 위치에서 말하고, 제3자의 위치에서도 말하는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씀한다. 일정한 기간마다 말씀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며, 말씀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관념을 돌려세우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없앤다. 하나님은 주로 이 사역을 한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오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적을 행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여 사람 관념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정상적임을 알게 하고, 사람 마음속의 예수 형상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이 사람을 점유하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내면에서 오래되면 우상에 속하게 된다. 예수가 와서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적과 기사를 어느 정도 행하고,

약간의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하나님의 일부를 대변했을 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을 대표하여 일부 사역만 행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묘하고 위대하여 측량할 수 없는 데다가 하나님은 한 시대에 일부 사역만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주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사람의 본성, 본질과 패괴 성품을 폭로하며, 사람의 종교 관념, 봉건적인 사상과 낡은 사상을 없애는 것이다. 사람의 지식, 문화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의 폭로를 통해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적과 기사가 아닌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 말씀으로 사람을 드러내고, 심판하며, 형벌하고, 온전케 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스러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한다. 율법시대에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모세를 인도하여 출애굽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간의 말씀을 했으며, 그때 하나님의 행사를 일부 나타냈다. 사람의 자질은 제한적이어서 어떻게 해도 전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사역했던 것이다. 은혜시대에 사람들은 또 하나님 행사의 일부를 보았다. 예수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뿐이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여 주면 사람은 거기까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 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그 정도 차원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 사역하여 사람의 앎을 더욱 깊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패괴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실재로 너의 종교 관념을 대체한다.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주로 “말씀이 육신 되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며,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을 이룬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굳게 설 수 없다. 하나님은 말세에 주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 사역을 이루는데, 이것은 하나님 경륜의 일부 사역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규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말세에 이 사역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앎이 어느 정도에서 그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든가, 소돔을 멸할 수 있다든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등등 이런 것들만 알 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만 이러한 앎을 얘기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어, 하나님을 자신의 관념으로 규정하지 않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 가는 유일하면서도 정확한 길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이적과 기사를 보기만 기다리고, 대재난이 언제 오는지만 기다린다. 그렇다면 네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나, 아니면 대재난이나? 대재난이 내릴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이미 늦었다. 하나님이 대재난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냐? 네가 믿는 것은 이적과 기사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나?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조롱당했을 때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냐? 네가 믿는 것은 이적과 기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본질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관점은 모두 바르지 않다! 율법시대에 여호와와 많은 말씀을 했는데 어떤 말씀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너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너희는 하나님이 말세에 주로 ‘말씀이 육신 된’ 이 사실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땅에서 실제로 사역하여 사람이 그를 알게 하고, 접하게 하며, 그의 실제 행사를 보게 한다. 또한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며, 이는 시대별로 구분된다는 것도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 준다. 이로부터 너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역과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사역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단계 사역에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지만 예수 시대에는 이적과 기사를 어느 정도 나타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사역이 달랐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없다거나,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논리가 아니냐?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지만 사역하는 시대가 다르기에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시대와 사역 절차가 다르기에 하나님이 나타내는 행사 역시 다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적과 기사나 권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시대에 행하는 실제 사역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앎이 생기며, 그러한 앎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번 단계 사역에서 주로 말씀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기다리지 말라. 볼 수가 없다! 네가 은혜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은혜시대에 태어났다면 이적과 기사를 볼 수 있었겠지만, 말세에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면만 볼 수 있을 뿐이다. 너는 말세에 초자연적인 예수를 보려고 하지 말라. 너는 단지 정상인과 똑같은 성육신한 실제 하나님만 볼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각기 다른 행사를 나타내고, 한 시대에 하나님 행사의 일부를 나타내며, 각 시대의 사역은 하나님 성품의 일부와 하나님 행사의 일부만 대변한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그가

나타내는 행사 또한 달라지지만,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고, 더욱 견실하고 진실하게 믿게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묘하고 위대하며 전능하여 측량할 수 없기에 그를 믿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면 너의 관점은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악령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사탄의 형상을 혼동한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사역과 말씀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행사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것이지, 그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나서야 그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앎으로써 그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떤 지혜로운 방식을 쓰며,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너는 비로소 하나님의 실재를 깨닫고 그의 성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혐오하는지, 그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혐오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앎으로써 무엇이 긍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앎으로써 생명이 성장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상상처럼 그렇게 간단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세 사역과 하나님이 계획하고 네게 행한 모든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높여 주심이자 구원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온 우주 사역의 중점을 이 사람들에게 두었다. 너희에게 모든 심혈을 다 쏟았으며, 온 우주의 영의 사역을 거두어 모두 너희에게 쏟아부었다. 그래서 너희가 행운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이스라엘, 즉 그의 선민에게서 너희에게로 옮겨 왔고, 그의 계획에 담긴 근본 취지를 너희를 통해 모두 드러낼 것이다. 따라서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다. 너희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란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 모두 이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지만 그 진정한 함의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세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큰

붉은 용이 파리를 틀고 있는 곳에서 그것의 잔혹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큰 붉은 용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따라서 이 말은 너희에게 이뤄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서 사역을 펼치므로 그의 모든 사역이 강력한 저지를 당하게 되며, 그의 말씀 중 많은 부분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데, 이 역시 ‘고난’의 한 요소이다.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의 땅에서 사역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한 단계의 사역을 행함으로써 그의 지혜와 기묘한 행사를 나타낸다. 또한, 그것을 기회로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받는 고난, 사람의 자질, 이 더러운 땅에 있는 사람의 모든 사탄 성품으로 인해 정결케 하고 정복하는 사역을 행하며, 이를 통해 영광을 얻고, 그의 행사를 증거하는 사람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는 의의이다. 즉,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 정복 사역을 하며,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다시 말해, 더러운 땅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더러운 땅에서 영광을 얻고, 더러운 땅의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가 했던 그 사역처럼, 그를 핍박하는 바리새인 가운데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바리새인들의 핍박과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는 조롱과 비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고, 영광을 얻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사역하는 곳, 그의 육신이 사역을 행하는 곳에서 영광을 얻으며, 그곳에서 그가 얻고자 하는 사람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 사역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경영이다.

몇천 년에 달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육신을 입고 행하는 사역은 두 부분이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세에 정복하고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사명을 너무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 너희 모두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어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사람이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한 부분은 너희에게서 드러난다. 하나님은 영광 중의 한 부분을 모두 너희에게 베풀어 이어받도록 하였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자 일찍이 정해 놓은 계획이다.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이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한 이 큰 사역을 다른 곳에서 했다면 일찌감치 큰 효과를 거두고, 모든 사람이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특히 ‘하느님(원문: 上帝)’을 믿고 받드는 서방의 선교사들은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예수가 그 단계의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 이 단계의 사역을 다른 곳에서는 완수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지하고 국가도 인정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지금 너희는 법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법의 제재를 받고 있다. 더 큰 난관은 사람들이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친척, 부모, 친구, 동료, 그 누구도 너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원하지 않을’ 때, 너희는 아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하는 의의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너희가 받은 것은 역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받은 것보다 많으며, 심지어는 모세와 베드로보다도 많다. 복은 하루 이틀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즉, 너희는 연단받은 사랑과 크나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한 수많은 진리를 갖추어야 한다. 정의를 바라보며, 굽히거나 흔들리지 말고, 죽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의지를 갖고, 생명 성품의 변화를 이루며, 패괴를 치유받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지배에 따르고, 원망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마땅히 도달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는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으니 너희에게 무언가를 받아 낼 것이고, 또 너희에게 합당한 요구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이치에 맞으며,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이 왜 그렇게 늘 높은 기준과 엄격한 요구를 갖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가 그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더러운 땅에서 극심한 해를 입은 이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매하고 식견이 없으며 비이성적인 많은 이에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더 이상 대적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은 이미 아무도 겪어 보지 못한 고통을 감내했고, 사람 대신 수없이 많은 굴욕을 당하였다. 그런데 더 내려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더러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더없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사람이 이를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지연될 것이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의 사역과 영광을 가장 중시한다. 따라서 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모든 대가를 불사한다.

이것이 바로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 부분의 영광을 얻어야만 비로소 그의 사역이 끝나게 된다. 하나님이 온 우주 아래에서 두 번째 부분의 영광을 얻는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그의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고, 그의 손길 역시 선민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의 영광도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계획 역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미 파괴되고 극도로 무감각해진 사람을 변화시키고, 창조된 후 사탄의 손을 거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담이나 하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빛이나 각종 동식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사탄에 의해 파괴된 것을 정결케 한 후 다시 얻어 그의 소유물, 나아가 그의 영광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듯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사탄을 저주하여 무저갱에 던져 버리는 사역도 아니다. 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으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그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그에게 속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번에 행하는 사역의 실상이므로 너희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일반적인 사역과 다르고, 그 기묘함과 지혜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번 사역은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파괴하는 것도 아니라 그가 창조한 만물을 변화시키고, 사탄에 의해 더럽혀진 만물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일을 펼친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담긴 모든 의의이다. 여기까지 보고도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으냐?

##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보편적 문제는 진리를 깨닫기는 하지만 실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분별력이 너무 부족한 까닭에 실생활 속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꿰뚫어 보지 못해 어떻게 실행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체험이 너무 얇고, 자질이 부족하며, 진리를 깨닫는 정도 또한 한계가 있어 실생활 속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줄 모르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생활은 생활일 뿐,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다. 사람은 다들 이렇게 여긴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얻어질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수 없다. 사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해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 개인의 뜻에 따라, 자신이 이전부터 갖고 있던 종교 관념에 따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 변화가 생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행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은 잘못된 관점을 고집하며 깨닫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저 종교의 오래된 규칙에 따라 믿고, 생활과 처세 부분에서는 완전히 자신의 처세 철학에 따라 행한다. 열 사람 중 아홉은 이렇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 별도의 계획을 세워 새사람이 되려는 자는 아주 드물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겨 대하지도, 실행하지도 않는다.

예수를 믿을 때의 일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금방 믿었던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있는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기량을 펼치며, 기존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만 더했을 뿐, 성품 변화는 전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전혀 커지지 않았다. 사람이 추구하는 바 역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여 믿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바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순종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게 진정한지 거짓인지 모르겠고, 믿는 등 마는 등 참답게 대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결국 어리벙벙하게 죽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나? 오늘 실제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상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저 복만 얻고자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깨우침과 개인의 추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며, 진심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생겨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네 사랑이 가장 참되어 아무도 그 사랑을 파괴하거나 방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은 정상 궤도에 진입했고,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너를 점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의 체험을 통해, 너의 대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너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러날 때면, 너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의 빛 속에서 살게 된다.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야 하나님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 개개인의 책무이다. 너희는 현재 모습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탄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마땅히 어디서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말하고 일할 때 하나님 집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병폐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생활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이다.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사람의 실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적잖게 기도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위는 매우 하찮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시련을 준다. 이는 사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인식하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모두 천사장의 후예가 되어 날이 갈수록 파괴될 것이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정결 과정을 거쳐 개인의 많은 속셈과 목적을 제거하게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전혀 쓸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해야 할 사역을 사람에게 전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스스로를 알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내면에 만들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사람들이 말하듯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네가 그저 인식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으며, 자신의 인식에만 머물러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뜻하고, 네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고 사람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너는 살아 내는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네가 그저 도리만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공허한 일일 뿐이다. 네가 여기서 더 나아가 실행하고 살아 내야만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인식을 말할 수 있지만 죽을 때는 오히려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신이 한평생 헛되이 살았다고, 부질없이 살았다고 한탄한다. 그저 도리만 알았을 뿐, 진리를 실행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줄 몰랐고, 외적으로 동분서주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다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진실로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왜 오늘의 기회에 자신이 좋아하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느냐? 왜 꼭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생전에 진리를 위해 고통받으려 하지 않고 진리를 얻으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설마 죽을 때 평생의 여한이라도 남기기 위해서란 말이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사실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면 수많은 일에서 진리를 실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줄곧 엉뚱한 데 마음이 쏠려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는 않고, 언제나 육체를 위해 분주히 뛰어다녀 결국에는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한다. 그리하여 고뇌와

어려움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괴롭힘이 아니겠느냐? 육체의 파괴가 아니겠느냐? 너는 그저 입만 놀리면서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뭔가 실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를 농락하지 마라.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나?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 명예와 이익을 다툼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리다 —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전 우주로 퍼져 나갈 것을 예언하다

나는 이방에서 사역을 확장하고, 전 우주 아래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나의 뜻은 별처럼 점점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깃들어 있으며, 모두가 나의 지배에 따라 내가 나누어 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때부터 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 모든 사람을 또 다른 세계로 인도했다.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뒤 내 원래 계획 중 다른 한 부분의 사역을 시작해 사람이 나를 더 깊이 알게 했다. 우주 전체의 모습을 바라보니 마침 내가 사역하기 좋은 때이기에 나는 분주히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의 새로운 사역을 행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므로 나는 새로운 사역을 가져와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했으며, 내가 도태시키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람을 버렸다. 큰 붉은 용 국가에서 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한 단계 사역을 하였다. 따라서 사람은 바람 속에서 흔들리다가 그 바람에 따라 소리 없이 날려 갔다. 이것이 내가 하는 ‘키질’이며, 내가 바라는 바이자 나의 계획이기도 하다.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 어느새 ‘악한 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서둘러 내쫓지 않고 적당한 때에 흩어지게 한다. 그때부터 나는 비로소 생명의 기원이 되었으며, 따라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게서 무화과 열매와 백합의 향기를 얻는다. 사탄이 사는 땅, 먼지에 속하는 땅에는 순금이 남아 있지 않고 오직 모래뿐이기에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이와 같은 사역을 했다. 너희는 내가 얻으려는 것은 제련된 순금이지, 모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악한 자가 어찌 내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여우가 나의 낙원에 기생하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것들을 쫓아내지만, 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모른다. 내가 이 기회에 그 악한 자들을 쫓아내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떠나가야 한다. 이것이 악한 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내게 봉사할 날이 올 것이다. 사람은 복을 얻으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몸을 돌려 영광의 얼굴을 ‘이방인’에게 나타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세계에서 살면서 스스로 심판하게 하는 한편,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사람이 모두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나의 사역을 확장한 뒤였다. 나는 사람에게 내 뜻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나의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사람이 나를 바짝 따라 나의 사역에 협력하고, 온 힘을 다해 내가 해야 할 사역을 함께 하게 했다.

사람에게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나 역시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나의 영광을 다른 세계로 옮겨 간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또 후회하면 ‘믿음’에 속한 더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보여 준다. 이것이 나의 사역 원칙이다. 영광은 가나안을 떠날 때도 있고 선민을 떠날 때도 있으며, 더욱이 온 땅을 떠날 때도 있다. 따라서 온 땅이 어두워져 빛을 잃고, 암흑으로 뒤덮여 가나안 땅에조차 태양이 비추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믿음을 잃는다. 하지만 모두들 가나안 땅의 향기에 미련이 남아 떠나지 못한다. 내가 새로운 하늘땅에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또 한 부분의 영광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칠혹같이 어두운 온 땅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나고 온 땅이 그 빛을 따르게 된다. 나는 온 땅의 사람으로 하여금 빛의 위력에 힘을 얻게 하고, 나의 영광이 더해지게 할 것이며, 내 영광이 다시 열방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미 인간 세상에 왔고, 이미 이스라엘에서의 내 영광을 동방으로 가져왔음을 알게 할 것이다. 나의 영광이 동방에서 나왔고, 은혜시대에서 오늘날로 옮겨져 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떠났고 또 이스라엘에서 동방으로 왔다. 동방의 빛이 점점 밝아 올 때 어두웠던 온 땅이 조금씩 밝아지면 사람은 그제야 내가 이스라엘이 아닌 동방에서 새롭게 떠올랐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강림’했다가 이스라엘을 떠난 내가 또다시 이스라엘에 ‘강생’할 수는 없다. 나의 사역은 전 우주를 이끌어 가는 것이고, 번개는 동방에서 나서 서방까지 번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동방에 강림하였고, 동방의 백성에게 가나안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온 땅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음성을 발하여 전 우주를 통제할 것이다. 이때 가나안을 제외한 온 땅은 광명이 없고, 사람은 모두 굶주림과 추위에 위협받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영광을 주었다가 거두어 갔다. 또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을 동방으로 데려왔으며, 모두에게 ‘빛’을 주어 다시 빛을 만나고, 빛과 사귀고, 더 이상 빛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했다. 나는 찾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빛을 보게 하고 이스라엘에서의 내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일찍이 흰 구름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왔음을 보게 하고, 뭉게뭉게 떠 있는 흰 구름과 주렁주렁 달려 있는 열매를 보게 할 것이며, 나아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유대인의 ‘선생’과 사람이 간절히 바라 왔던 메시아를 보게 하고, 역대 왕들에게 핍박받았던 나의 전모도 보게 할 것이다. 나는 전 우주의 사역을 행하고,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나의 모든 영광과 모든 행사를 말세의 사람에게 보여 줄 것이다. 또 내 모든 영광의 얼굴을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람들, 내가 흰 구름 타고 오기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과 나를 핍박하고 있는 전 인류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로써 내가 이미 영광을 동방으로 옮겨 왔으며, 유대에는 더 이상 영광이 남아 있지 않음을 알게 할 것이다. 말세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다!

나는 우주 전체에서 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동방에서 끊임없이 우레 같은 음성을 발하여 각 나라와 교파를 뒤흔들었으며, 나의 음성으로 사람을 오늘까지 이끌어 왔다. 나는 사람을 나의 음성으로 정복하여 모두를 이 흐름 속으로 빠지게 하며, 내 앞에 복종시킨다. 이는 내가 이미 온 땅에서 영광을 거두어 동방에서 새롭게 비추었기 때문이다. 누군들 내 영광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누군들 내가 돌아오기를 갈망하지 않겠느냐? 누군들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누군들 나의 사랑스러움을 그리워하지 않겠느냐? 누군들 빛을 따라오지 않겠느냐? 누군들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보지 않겠느냐? 또 누군들 ‘구속주’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누군들 위대한 능력자를 흠모하지 않겠느냐? 나의 음성은 온 땅에 전해질 것이다. 나는 선민을 향해 더 많은 음성을 발할 것인데, 큰 우레처럼 산천을 뒤흔들 것이다. 나는 온 우주와 인류를 향해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진귀한 보물로 귀히 여긴다. 번개가 동방에서 서방까지 번쩍인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말을 떠나기 아쉬워하고 측량하기 어려워하며, 또한 나의 말로 인해 기뻐한다. 모두 갓난아기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경축한다. 나는 음성을 발해 모든 사람을 내 앞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인류 가운데 들어가 모든 사람이 내게 와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나는 영광을 비춤으로써, 또 입으로 말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오게 하여, 번개가 동방에서 나타났고 또한 내가 동방의 ‘감람산’에 강림했고 땅에 왔음을, 나는 더 이상 ‘유대의 아들’이 아니라 동방의 번개임을 보여 줄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부활하여 사람을 떠났다가 다시 영광을 지니고 인간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만세 전에 사람들이 경배했던 자이고, 만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던 ‘아기’이며, 더욱이 영광으로 충만한 이 시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을 나의 보좌 앞으로 데려와 내 영광의 얼굴과 내 행사를 보여 주고, 내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이는 내 뜻의 전부이자 내 계획의 마지막이고 절정이며, 내 경영의 근본 취지이다. 바로 모든 나라가 예배하게 하고, 모든 입이 인정하게 하며, 만민이 신뢰하게 하고, 만민이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 성육신 하나님과 쓰임 받는 사람의 본질적 차이

하나님의 영은 땅에 임하여 찾고 또 찾으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 왔고, 하나님은 역대로 많은 사람을 사용해 그의 일을 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끝내 합당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을 통해 그의 사역을 이어 갔다. 결론적으로 전부 사람을 통해 일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사역을 멈춘 적이 없이 계속 사람에게 전개하였고, 오늘날까지 계속 사역해 왔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하고 그토록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현현한 적이 없고, 또한 형태와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실제 의의를 알게 하는 이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 현현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뼈와 살, 형태와 모양이 있는 모습을 갖추고 사람들 가운데 다니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숨었다 나타나기를 반복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깊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육신에만 거한다면 사역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육신으로는 일부분 사역을 하고,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해야 할 직분을 이행한다. 예수처럼 정상 인성으로 일부분 사역을 하며,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나면 육신을 벗어나 육신의 형상을 지니고 영계에서 사역하는 것이다. 너희는 ‘길 ... 5’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부탁을 완수하기를 구하라. 나머지는 너와 무관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이 말씀에서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땅에 임하여 신성의 사역만을 행한다. 이는 하늘의 영이 성육신 하나님에게 준 부탁이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은 곳곳에서 말씀하는 것뿐이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여러 위치에 서서 말씀을 하는데, 기본 목적과 사역 원칙은 사람에게 공급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사람 생활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주요 직분은 영을 대표해 말씀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육신으로 현현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진리를 선포할 뿐, 사람의 사역에 간섭하지 않는다. 즉, 인성 사역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람은 신성 사역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땅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역하면서 항상 사람을 통해 사역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하나님은 직접 신성의 위치에서 말씀하고, 영의 음성을 발하며, 영을 대표해 사역할 수 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통해 사역을 하는 것인데, 어째서 역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못했겠느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이 직접 육신으로 사역하고, 예수 역시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사역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양자는 하나님이라고 불린다. 그 차이는 무엇이겠느냐? 역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인 사유와 정상적인 이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람의 처세 원칙을 알고 있었다. 또한 정상인의 생각과 정상인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것들을 전부 갖추고 있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재능이 출중하고 천성적으로 총명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은사인 재능을 통해 그들에게 역사했다. 즉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발휘시켜, 그들의 장점을 이용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생각도, 사유도 없으며 사람의 뜻이 섞여 있지 않다. 심지어 정상인이 갖추고 있는 것도 결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처세 원칙조차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오늘날 땅에 임한 하나님이 바로 이렇다. 그의 사역과 말씀에는 사람의 뜻이 섞여 있지 않으며, 사람의 사유도 없다. 그는 직접 영의 원 뜻을 드러내고, 직접 하나님을 대표해 사역한다. 즉, 영이 직접 말씀하고 신성이 직접 사역하므로, 사람의 뜻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직접 신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의 사유나 생각이 없고, 사람의 처세 원칙도 모른다. 만약 신성의 사역만 있다면(하나님 자신만 사역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땅에서 전개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 온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몇 명의 사람들이 인성에서 하나님의 신성 사역에 협력하게 해야 한다. 즉, 인성 사역으로 신성 사역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신성의 사역을 직접 접할 수 없다. 예수와 몇몇 제자들처럼 말이다. 예수는 세상에 있을 때, 낡은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계명을 정했으며, 수많은 말씀을 했다. 그 사역들은 모두 신성으로 행한 것이었다. 반면 베드로, 바울, 요한 등이 후에 한 사역은 모두 예수가 한 말씀의 기초 위에서 행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 시대에 하나님은 시작 사역을 하여 은혜시대를 이끌기 시작하였다. 즉, 새 시대를 인도하고 옛 시대를 폐했으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반드시 신성 사역의 기초 위에서 사람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수는 땅에서 그가 해야 할 말씀을 다 하고 그의 사역을 완성한 후 사람들을 떠났다. 그 후에 사람의 모든 사역은 전부 그의 말씀을 원칙으로 하고, 그가 말씀한 진리에 따라 실행한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위해 사역한 사람들이었다. 만약 예수만 사역했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했어도 사람은 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신성으로 사역하기에 신성의 말씀만 할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이 깨닫도록 해석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뒤의 사도나 선지자들을 통해 이후의 사역을 보충해야 했던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갖고 있는 원칙은 바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통해 말씀하고 사역하여 신성 사역을 완성한 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몇 명, 또는 더 많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보충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통해 인성으로 양육하고 목양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진리 실체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신성의 사역만을 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몇 명의 사람들이 그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접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상인을 통해 이 사역이 완전해지게 하고, 많은 교회를 돌보고 목양하게 해야만 사람의 사유와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몇 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신성으로 하는 사역을 ‘번역’하여 풀어 주는 것이다. 즉, 신적 언어를 인간적인 언어로 바꿔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신성으로 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어쨌든 소수이고, 사람의 이해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사역할 때 이런 방식을 택한다. 신성의 사역만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접할 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통해 그 말씀들을 확실히 전달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하는 인성 사역만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역 또한 새로운 기점을 열지 못하고 그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며 옛것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해야 할 말씀과 사역을 육신에 거하는 단계에서 끝내고, 그 뒤에 사람들이 또 그의 말씀에 따라 사역하고 체험해야만 사람의 생명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 신성 사역은 하나님을 대변하지만, 인성 사역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즉, ‘성육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신성의 사역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신성 사역을 할 수 없다. 각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친히 말씀을 하여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사람을 새로운 기점으로 인도한다. 그의 말씀이 끝나면 하나님이 신성으로 하는 사역도 끝난 것이다. 그다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인도에 따라 생명 체험에 진입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단계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여 사람에게 새로운 기점을 열어 준다. 이때가 되면 육신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도 끝난다.

하나님은 땅에 와서 그의 정상 인성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다. 땅에 온 하나님은 정상 인성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인성에서 신성의 사역을 할 뿐이다. 하나님이 말하는 정상 인성이란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 인성과 다르다. 사람의 해석에 따르면, ‘정상 인성’은

아내와 남편, 자녀 등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것으로 정상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생각하는 ‘정상 인성’이란 정상인의 생각과 정상인의 생활이 있고, 정상인에게서 태어난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 ‘정상’의 범주에 사람들이 말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가 있는 것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상 인성’은 인성이 없고, 감정이 없다시피 하며, 마치 육신에 필요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정상인의 외형을 갖추고 정상인의 모습을 지녔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상인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완전히 갖추지 않았던 예수처럼 말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본질은 정상 인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꼭 갖추어야 하는 것들의 일부만 갖추는 것이다. 이는 정상인의 생활 법칙과 정상인의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 인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다. 혹자는 성육신 하나님께 아내와 자녀, 가정이 있어야 정상 인성을 갖춘 것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한다. 그렇다면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께 아내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남편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자녀가 있겠느냐? 이것은 황당무계한 논리가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돌 틈에서 튀어나오거나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며, 그 역시 정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게 부모와 형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성육신 하나님의 정상 인성에 당연히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다. 예수에게 부모와 형제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다 정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아내와 자녀가 있다면 그의 인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육신 하나님이 갖추어야 할 정상 인성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신성을 대표해 사역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아내와 자녀가 없었지만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그리고 정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신성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상인’이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만이 신성 사역을 할 조건을 갖추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가 있다면 그는 신성 사역을 할 수 없다. ‘사람’에게 필요한 정상 인성만 갖추었을 뿐,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 인성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흔히 사람의 인식과 판이하게 다르며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이번 단계 사역에는 사람의 관념을 일축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으며, 사람의 관념과 크게 다르다. 이 단계 사역은 전적으로 신성이 개입해 사역하고, 인성은 조연의 역할만 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땅에 와서 친히 자신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직접 말씀이 육신(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사람) 되어 자신의 사역을 한다. 또한, 이번에 성육신한 것을 기회로

사람에게 새 시대를 열어 주고, 하나님의 다음 단계 사역을 알려 주어 모든 사람이 그가 말씀한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육신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도 끝난 것이므로, 그는 사람을 떠나고 사람과 이별할 것이다. 더 이상 정상 인성을 가진 육신에 거하지 않고 사람을 떠나 다른 부분의 사역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땅에서의 사역을 계속 완성해 나갈 것이다. 단, 그것은 인성에서 행해진다.

성육신 하나님이 항상 사람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는 더 많은 사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육신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며, 육신을 벗어나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육신의 형상을 지니고 사역한다. 땅에 온 하나님은 정상인처럼 죽을 때의 모습이 되어야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역이 끝나면 사람을 떠난다. 그에게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없다. 그는 사람의 나이 계산법에 따라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 단계에 따라 육신의 생명을 끝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육신으로 온 하나님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나이가 차서 언젠가 육신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야 떠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사람의 상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그는 육신으로 와서 그가 해야 할 사역만 하지, 정상인의 삶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세상의 풍파를 겪는 등 정상인의 갖가지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은 것이고, 육신에 임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상인의 생활을 하지는 않고, 그저 하나님 경륜의 한 부분을 완성한 후에 사람을 떠날 뿐이다. 그가 육신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영은 육신의 정상 인성을 온전케 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에 신성으로 직접 사역하고,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하며, 그의 직분을 이행한다. 이것은 그의 육신의 수명과는 무관하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 단계 사역을 끝내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육신이 얼마나 유지될지, 땅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전부 영의 사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 인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예수는 육신에서 33년 반 동안 살았다. 육신의 수명만 보자면 죽을 수 없는 나이였고 떠나서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사역이 끝나자 육신도 거두어들이니, 육신은 영을 따라 사라진 것이다. 하나님은 육신에 있을 때 이러한 사역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해서 성육신의 인성은 주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땅에 온 이유는 정상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정상인의 삶을 산 후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정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신성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뜻도,

혈기도 섞여 있지 않으며, 사회성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사람의 사유나 관념은 물론 처세 철학과도 관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이자, 성육신의 실제 의의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주된 이유는 육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기 위해서이지, 다른 번잡한 과정은 없다. 그는 정상인의 체험을 갖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으로 해야 하는 사역에는 정상인의 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은 육신이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며, 나머지는 그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번잡한 과정을 겪지 않는다. 그의 사역이 끝나면 그가 성육신한 의의도 따라서 없어지게 된다. 이 단계의 사역이 끝나면 그가 육신으로 해야 할 사역이 끝나고 육신의 직분은 전부 이행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언제까지나 육신에 거하며 사역할 수는 없다. 그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해야 하므로 그때는 육신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해야 그의 사역이 전면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더 잘 전개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래의 계획에 따라 사역한다. 어떤 사역을 해야 하고, 어떤 사역을 끝냈는지, 그는 손금 보듯 훤히 꿰뚫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가 예정한 길로 인도하므로 아무도 도망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영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어쩌면 이후의 사역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하여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있는 영이 사람의 삶을 인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실재에 더 잘 진입하여 실제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를 사역이자, 그가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니, 너희는 여기에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봐야 할 것이다!

##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종교 의식이 아닌 실재를 중요시해야 한다

너에게는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행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행동함에 있어 규례가 아닌 원칙을 지키고,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려 하지 말고 진리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모든 행동은 규례가 아닌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이들은 형제자매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다른 꿈꿨이를 부린다. 이들이

종교 바리새인과 다를 바 있겠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들은 어떤 일에 맞닥뜨렸을 때 기꺼이 진리를 실천하며, 양심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모든 일을 지혜로이 해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칙 있게 일한다. 이런 자들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말로만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얘기하면서 온종일 울상을 짓고, 능청스럽게 불쌍한 척 연기를 하니 정말 못 봐줄 노릇이다! “왜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한마디도 못 하면서 말이다. 네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겉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 줘야 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무성의하게 말로만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은 모두 위선자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며, 성령의 감동이 없음에도 울음을 터뜨리려 한다. 이들은 종교 의식과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그것에 기대어 살아간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이나 슬픔의 눈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그릇된 자들이 발전성이 있겠느냐? 어떤 자는 겸손해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얌전한 척 말한다. 또 어떤 자는 순한 양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춰 아무 힘도 없는 양 행동한다.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정말 그렇단 말이나? 하나님나라의 백성들은 활발하고 자유로우며, 순수하게 마음을 열어 놓는다. 또한, 정직하고 사랑스러우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인격과 존엄성을 갖추어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기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새 신자들은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아 한동안 훈계와 깨뜨림을 받아야 한다. 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겉으로는 티 나지 않지만,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는 사람이다. 네가 매일 여기저기 복음만 전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데에만 급급해하면서 정작 자신은 규례와 도리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종교 인사에 속하며 외식하는 사람이다. 종교인들은 함께 모이면 “자매님, 요즘 어떠세요?”라고 묻곤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해 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릴 수가 없네요.”라고 따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몇 마디, 몇 자의 말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힌 더러운 것을 뱉어 내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장 혐오스럽고 극도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다. 그들의 본성은 모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실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 교제한다. 거기엔 솔직함만 있을 뿐 거짓도,

체면치레도, 꾸밈도 없고 세속적인 규율도 없다. 하지만 겉면의 열정이 많고 이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은 누가 찬송가를 부르면 춤추느라 밥술의 밥이 다 타 버린 것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함과 존귀함이 없고 너무나 경박하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실체가 없음을 보여 준다. 반대로 영적인 생명의 일을 교제할 때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말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가 죄스러워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애기를 입에 달고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표면적인 열의나 행동이 아닌, 실제에 진입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외적인 좋은 행위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욕을 의미한다. 외적인 행위는 제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의 성품만을 의미할 뿐, 생명을 의미할 수는 없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도 없다. 네가 하나님께 죄스럽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인 것이라 여기겠지만, 사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너는 자신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기호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성격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네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요, 너의 습관은 하나님이 혐오하여 버리는 것들이다. 하나님께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 않고 늘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보여 주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겠느냐? 겉으로만 행동을 취하는 것은 네가 누구보다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인 좋은 행위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나?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종교 인사이다! 외적인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다면, 가식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결국 도태될 것이다!

## 하나님의 현재 사역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큰 붉은 용을 수치스럽게 하는 데는 원칙과 조건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지 않으면 사탄을 수치스럽게 할 수 없다. 생명 성장을 통해 큰 붉은 용을 저버리고 철저히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 큰 붉은 용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자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큰

붉은 용을 더욱 증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진리를 더욱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 말씀 밖의 사람이며 종교인에 속한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가야겠느냐? 하나님의 현재 말씀과 사역을 바탕으로 알아 가야 한다. 치우쳐서도 그릇되어서도 안 된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각종 궤변은 전부 종교 관념에 속하며, 편파적이고 그릇된 이해이다. 종교 인사들은 예전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꼬집어내어 지금의 하나님 말씀과 맞춰 보는 것에 가장 능하다. 과거에 성령이 깨우쳐 준 것들을 고수하며 오늘날의 하나님을 섬기니, 방해하는 섬김과 낡은 실행이 되었고 완전히 종교 의식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고 참을성 있는 겉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의 인식을 오늘날에 적용해 실행한다면, 이런 인식은 종교 관념이며, 이런 실행은 외식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종교 관념이란 과거의 낡아 빠진 것(하나님의 과거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성령이 직접 깨우쳐 준 빛 포함)을 말하는데,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실행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며,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종교 관념에 속하는 것들이 사람 내면에서 제거되지 않는다면 사람의 섬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종교 관념이 있는 사람은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한 걸음 뒤쳐지게 되면 그 후로는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된다. 그런 종교 관념이 사람을 몹시 독선적이고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자신의 과거 말씀과 사역에 미련을 두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도태시키는데, 너는 고정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겠단 말이나? 하나님의 과거 말씀을 고수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과거의 빛을 고수하며 현재 성령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를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종교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종교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현재 말씀과 사역을 머리로 가늠할 필요 없이 바로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현재 사역이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 할지라도 과거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바로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전에 어떻게 했든 현재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너는 고정 관념을 내려놓은

사람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분석하거나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난날의 사역을 ‘잊어버린’ 것처럼 너 역시 ‘잊어버려야’ 한다. 현재는 현재이고 과거는 과거이다. 현재 하나님은 과거에 행한 사역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너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지 마라.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종교 관념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항상 새로운 진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이 생기면 그에 따라 시대에 뒤쳐진 낡은 사역이 있게 마련이다. 이 낡은 사역과 새로운 사역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한 단계씩 이어진다. 새로운 사역이 있으므로 낡은 것은 당연히 도태시켜야 한다. 일례로, 오랜 세월 사람의 실행과 관례적인 견해에 다년간의 경험과 교훈이 더해져 사람의 마음에는形形色색의 관념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의 본모습과 고유의 성품을 사람에게 전부 공개하지 않은 데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통 학설까지 더해져 사람의 관념은 더 쉽게 형성되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각종 고정 관념의 영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관념적 인식이 끊임없이 형성되고 발전되었으며, 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종교 인사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 관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대적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원수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새롭기에 규례를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다른 수준의 변화와 새로움을 낳는다. 이런 사역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의 발현이자 고유의 사역 원칙이고, 그의 경영을 완성하기 위한 일종의 사역 수단이다. 이렇게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 갈 수 없으며, 사탄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에는 규칙이 없는 듯하나 주기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이와 크게 다르다. 사람은 낡고 익숙한 규례와 제도를 고수할 뿐만 아니라, 낡으면 낡을수록 더 좋아한다. 아무리 두드려도 꿈적하지 않는 돌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머리로 어찌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그 많은 새 사역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사람은 모두 낡아 빠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백발이 성성한 하나님을 좋아할 뿐, 새로운 하나님은 싫어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서로 다른 ‘취향’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나아가 더 많은 갈등이 지금까지 남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6천 년 가까이 새로운 사역을 행한 오늘날, 이러한 갈등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이 완고하여 변하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의 행정 법령이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관료와 그 부인들은 여전히 낡아서 곰팡이가 핀 그 옛날 책과 신문들을 붙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경영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비록 적대적인 갈등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갈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대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붙잡고 놓지 못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사람의 ‘입장’이 아무리 굳건해도 하나님의 ‘발’은 언제나 움직이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스스로 패배하는 대상이며, 하나님은 모든 패장의 가장 큰 ‘원수’이자 패배했거나 패배하지 않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승자’이다.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점차적으로 많은 관념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람의 관념이 꼭 하나님에게서 온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맞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사역 외의 산물을 무더기로 만들어 낸다고 해서 칭찬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그는 사람의 고정 관념과 낡아 빠진 경건한 신앙에 극도로 반감을 품으며 그런 고정 관념이 생긴 날을 거들떠볼 마음도 없다. 하나님은 그런 관념들이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의 관념은 사람에게서 전염된 것으로, 그 발원지는 사람의 사고와 머리이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역의 원뜻은 본래 새롭고 살아 있는 것이지 낡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사람에게 지키도록 한 것은 시대별, 단계별로 나누어진 것이지 영원한 것이나 한 번 이루어지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을 죽게 하고 낡게 하는 마귀가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너희는 아직도 모르겠느냐? 네가 하나님에 대한 고정 관념을 잡고 놓지 못한다면, 이는 네 머리가 트이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에 일리가 없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뜻과 안 맞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네가 고정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네 순종이 턱없이 부족하고, 네가 피조물로서의 면모를 조금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다. 이 모두는 네가 초래한 것으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고통과 화근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그는 너에게 고정 관념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며, 네가 시대에 따라 새로워지고 변화하길 원한다. 그러나 너는 사리 분별을 못 한 채 연구나 분석에만 매달린다.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너의 패역한 마음이 너무 큰 것이다. 작디작은 일개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이 과거에 준 것들 중 극히 일부로 하나님을 공격하다니, 이것이 패역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자격이 아예 없으며, 자신의 그 아무 가치도 없는 썩어 문드러진 말과 글을

제멋대로 뽐낼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곰팡이가 핀 고정 관념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더 무가치하지 않겠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합당한 사람이자 종교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종교 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종교 관념을 내려놓고,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런 인식이 없다면 섬김이 방해가 되고 교란이 된다. 계속 고수한다면 하나님에 의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만 보더라도 많은 방식과 사역이 성경과 맞지 않고, 하나님이 예전에 행한 것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네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려면 먼저 종교 관념을 내려놓고, 자신의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는 예전의 방식과 다른 방식이 많이 있을 것이다. 네가 지금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추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네 안에 뿌리박힌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방식은 너의 종교 관념이 될 것이다. 반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네 안에 뿌리내렸다면 너는 진리를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네 생명이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 다시는 관념을 갖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관념이 없고 규례를 지키지도 않는다.

몇 가지 질문으로 너 자신을 경계하여라.

1. 네가 아는 것들이 너의 섬김에 교란이 되지는 않느냐?
2. 네 일상생활에 종교적인 관행이 얼마나 있느냐? 겉으로만 경건하다고 해서 그것이 네 생명의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겠느냐?
3. 너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종교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4. 기도할 때 종교 의식을 없앨 수 있느냐?
5. 너는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나?
6. 하나님에 대한 네 인식에는 종교 관념이 얼마나 있느냐?

##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알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백성이 되기를 추구하라고 한다.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너희에게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갈 것이니 앞으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해이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너에게서 긴박감을 찾아볼 수 없다면 너는 진취적이지 못하고 생각 없이 추구하는 사람임을 뜻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없다.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면 백성의 생활을 하게 된다. 너는 이 훈련을 받을 마음이 있느냐? 긴박감 있는 분위기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서 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련이 임할 때, 너는 어떻게 실행하겠느냐? 직면하게 될 갖가지 사실 앞에서 너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여태까지 생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제는 생명의 실체에 진입하는 것과 생명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해야 하는 것이다. 백성이라면 모두 생명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나라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생명 성품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나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하나님나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받아들일 것, 즉 하나님이 말세에 사역하면서 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것.
2.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갈 것.
3.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너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면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자유로운 경지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4. 하나님께 얻어질 것.
5.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될 것.

이 다섯 가지 사항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명이다. 나의 말은 모두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사명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나도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진정 이 다섯 가지 사명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추구하며, 하나님나라 백성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진입의 첫걸음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이 다섯 가지 사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다섯 가지를 다 행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며, 반드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는 것은 영 생활에 관련된다. 예전에는 영 생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면 정식으로 영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생활이 영 생활이겠느냐?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다른 것에 점령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현재 뜻을 찾아내고, 성령이 비추는 현재의 빛에 따라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생활이 바로 영 생활이다. 네가 만약 현재의 빛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 단절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초로 세워진다. 너는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는 성령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나? 성령의 현재의 빛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네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너는 분명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진취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기운이 나지 않고 늘 소극적인 상태에 있다. 지금 너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느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느냐? 소극적인 상태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기반으로 한 사람, 성령의 현재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기로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다.

성령의 흐름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극적인 상태를 벗어 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늘 대세를 따르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은 진취성이 없고 추구하는 기준도 매우 낮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또 어떤 이는 단지 양심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없다. 추구하는 기준이 높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잘 부합한다. 정상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백성이 되는 것이 참된 미래이고,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너희보다 복된 자는 아무도 없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겠느냐? 불신자들은 언제나 육과 사탄을 위해 살지만,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사람들만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너희 외에는 세상에 있는 누구도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택함과 높여 줌으로 말미암아,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참된 인생을 찾게 되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는 너희가 잘 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대 덕분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영적 눈을 열어 주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깨우쳐 주지 않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때 영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면에 힘이 넘치며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것이고, 너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다. 그럴 때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당신은 정녕 저희를 예정하고 택해 주셨군요. 저는 당신의 영광에 자부심을 느끼고, 당신의 백성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저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며, 저의 일생과 평생의 정력을 모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참된 순종의 마음이 생길 것이다. 너는 이런 체험이 있었느냐? 사람이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는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결코 사탄이나 육적인 것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높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얻어야겠다고,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죽어도 여한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내면에 힘이 넘쳐흐를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서 온 힘인지는 너도 모르겠지만, 마음에 무궁무진한 힘이 생겨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사랑받기에 너무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때, 너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다. 늘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의 생명에는 변화가 생긴다. 그런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얻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굳건한 편이다. 그런 사람은 또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가정이나 세상, 집, 미래 따위를 멀리 던져 버리고 평생의 정력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은 모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너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느냐? 너의 마음은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았느냐? 만약 네게 이러한 체험이 없고, 이런 기도도 없었다면, 그것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영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내면에 깊게 뿌리내렸음을 뜻한다. 혹자는 “제 기도는 당신의 말처럼 그 정도의 진정성이 있지도 않고, 저는 당신의 말처럼 그렇게 몹시 큰 감동을 받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간혹 묵상하거나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느껴지고, 마음도 하나님께 감동받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너의 전부가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다. 그때, 네 마음은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게 된다.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런 체험을 해 봤을 것이다. 다만 그 깊이가 다를 뿐이다. 어떤 이는 “저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사람의 교제만 들었을 뿐인데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음을 의미한다. 내면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제를 들으면 격려를 받는다. 만약 격려하는 말을 듣고도 마음에 전혀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음을 뜻한다. 또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는 그에게 의지가 없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무관하며, 그는 깨우침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모두 감동이 없는 사람이다. 즉,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인 것이다. 새로운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감동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다음은 보고 너 자신을 평가해 보아라.

1. 너는 성령의 현재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나?
2. 네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였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느냐?
3. 하나님의 말씀이 네 내면에 뿌리내렸느냐?
4. 네 실행은 하나님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냐?
5. 너는 성령의 현재 빛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느냐?
6. 네 마음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낡은 관념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현재 말씀이나?

너희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내면에 어떤 반응이 오느냐? 이렇게 오랜 세월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의 생명이 되었느냐? 과거의 패괴 성품이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근거해, 어떤 것을 생명이 있다고 하고, 어떤 것을 생명이 없다고 하는지 알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생명 진입을 추구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기를 추구하는 것이든, 모두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네가 교제하는 내용도, 진입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므로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오는 사람을 원한다. 과거에 네가 깨달은 것들이 아무리 순수하고 좋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앞으로 너의 진입에 큰 방해가 될 것이다. 성령의 현재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복 있는 사람이다. 만세와 만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랐지만, 오늘날까지 따라오지는 못했다. 그러니 이는 말세 사람들의 복이다. 성령의 현재 역사에 발맞추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좇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성령의 현재 역사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사역 안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큰 고난을 받으며 아무리 많은 길을 달렸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두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의 현재 말씀에서 벗어난 섬김은 전부 육적인 것과 관념에 속하는 섬김이다.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사람이 종교 관념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상상에 따라, 관념에 따라 섬길 뿐,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없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의 뜻에 맞는 섬김이지, 관념적이거나 육적인 섬김이 아니다.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관념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의 섬김은 방해이자 교란이고,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현재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현재 요구하는 대로 행하고, 또한 오늘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최신 말씀에 따라 진입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는 사람이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사람의 관념과 패역, 사람의 본성과 본질도 알 수 있다. 또 섬기는 과정에서 성품이 점차적으로 변화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며, 진정으로 참도를 찾은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 도태된 사람은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최신 사역에 등 돌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관념 속 하나님의 형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려졌다.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사역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역을 찾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볼 기회와 성령의 최신 인도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고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하는 자들은 모두 성령의 깨우침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얻을 수 있는지는 하나님의 선대에 달렸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추구하고 마음가짐에도 달렸다고 하는 것이다.

성령의 현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 예전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했는지에 상관없이 최신 사역을 얻은 사람은 모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반면, 오늘날 최신 사역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도태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며, 최신 사역을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사람이다. 어째서 정결한 처녀가 되라고 말하겠느냐? 그런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를 찾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낡은 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늘날 역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최신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한,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으므로 천상천하, 만세와 만대에 너희보다 복된 자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 그리고 하나님의 선대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높여 줌으로 인해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찌 소극적이 될 수 있겠느냐? 어찌 힘이 안 생길 수 있겠느냐?

오늘날, 네가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 채찍질, 연단은 물론, 하나님이 준 사명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벌을 받을 때도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너희에게 하는 사역과 베풀어 준 복, 그리고 너희에게 더해 준 모든 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종교인들은 너희와 비교가 안 된다. 비록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종교적 도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한 사역으로 인해 너희는 역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얻었다. 그래서 너희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더더욱 자신을 바쳐야 하며, 더더욱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높여 줌으로 인해 더 힘을 내야 하고, 분량을 예비하여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정해 준 자리에 굳게 서서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나라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얻어져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어야 한다. 너는 이러한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네게 이런 각오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 얻어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현재 말씀이 곧 성령 역사의 움직임이며, 성령이 일정 기간 사람들에게 늘 깨우쳐 주는 것이 곧 성령 역사의 동향이다. 현재 성령 역사의 동향은 무엇이나? 바로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현재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정상적인 영 생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영 생활에 들어가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먼저 마음을 전부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지난 말씀을 추구하거나 연구하거나 나아가 대조하지 말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기울여라. 만약 예전의 하나님 말씀이나 영적 서적, 혹은 다른 설교집을 보고 싶어 하고 성령의 현재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혐오한다. 성령의 현재 빛을 받고 싶다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기울여라.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여 하나님과 교제해라. 또 네가 어떤 기준에 이를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다져라.

3. 성령의 현재 역사를 바탕으로 진리에 깊이 진입하기를 추구해라. 과거의 낡은 논리와 도리를 고수하지 말라.

4.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해라.

5. 성령이 현재 가고 있는 길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해라.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구해야겠느냐? 그 핵심은 하나님의 현재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바탕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반드시 너를 감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바탕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없다. 너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대적하였으니 실로 죄스럽습니다. 제가 너무나 패역하여 늘 당신을 만족게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쓰고, 당신을 위해 죽기 원합니다. 저를 심판하고 형벌하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대적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보게 하십시오.” 네가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현재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너를 감동시키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려는 것에 따라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맡겨 주신 것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 원하오니 제가 백성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당신께서 항상 깨우쳐 주사 제가 모든 행동으로 사탄에게 수치를 주게 하시고, 제가 당신께 얻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는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모두 다음과 같은 체험을 해 봤을 것이다. 간혹 예배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 역사의 움직임이 절정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모든 사람의 힘을 불러일으키는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사람도 있고, 의지를 다지며 맹세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성령 역사로 얻은 성과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것이다. 과거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네가 계속 과거의 것을 고수한다면 성령은 네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중요성을 알겠느냐?

너희는 성령이 현재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앞에서 말한 몇 가지는 성령이 현재와 미래에 이루려는 것들이다. 즉, 성령이 가는 길로서, 사람이 마땅히 진입해야 하는 것이다. 생명 진입이 있으려면 최소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진리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요구한 목표를 향해 추구해야 한다. 너에게 이러한 힘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감동시켰고 또한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생명 진입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는 것이고, 그다음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를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겠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더 깊은 진리를 사모하고 찾으며 구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할 것이다. 현재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은 목표를 갖고 추구하고 기도하며, 목표를 두고 말씀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과 협력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고 자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며, 기도하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을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 협력하는 요소가 없고, 진입할 목표를 세워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협력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사람이 혼자 어찌겠어요?”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조금도 초자연적이지 않으며 정상적이다. 네가 자발적으로 찾고 구해야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 네가 추구하지도 진입하지도 않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마저 없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늘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너는 육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즉, 남편, 아내, 자녀, 돈이나 재물 등에 매이지 않고, 오직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자유로운 경지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

##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온전케 한다

지금 하나님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 바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확신을 갖는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들은 마음속에 참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며, 온전케 될 대상이자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도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은 온전케 될 수 없다. 늘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을 품으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자 사탄에게 속한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없다.

네가 온전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온전케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온 힘을 다해 진리를 추구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네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감찰을 받은 것이냐? 네 마음가짐이 옳으냐? 네 마음가짐이 옳다면 하나님은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네 마음가짐이 옳지 않다면 이는 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사랑하고 사탄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야 한다. 기도할 때 나, 이 사람은 네 눈앞에 없지만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네가 기도하는 대상은 나, 이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다. 네가 이 육신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네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네가 이 사람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이다. 너에게 이 사람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경외하라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이 곧 이 사람을 믿는 것이요, 이 사람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이다. 너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바로 네 눈앞에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향한 기도이다. 지금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다. 네가 하나님의 육신을 속일 순 있어도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감찰을 통과할 수 없는 일은 모두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마땅히 내던져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기도할 때든, 형제자매와 대화하고 교제할 때든,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 일을 처리할 때든 마땅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 네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마음가짐이 바르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한 일을 열납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진심을 다해 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감찰을 구해라.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가 결실을 볼 것이다. 예를 들어, 예배에서 기도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짓을 고하지 않고 네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면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하나님께 맹세해라.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맹세합니다. 당신의 영이 언제나 제 모든 행동을 감찰하고, 언제나 저를 돌보며 보호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행동이 당신 앞에서 굳게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배반한다면 제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저주하사 금세에도 내세에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십시오!” 너에게는 이렇게 맹세할 용기가 있느냐? 이렇게 맹세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용기가 부족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너희에게는 이러한 의지가 있느냐? 진실로 이런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맹세해야 한다. 이러한 의지를 갖추고 하나님께 맹세하면 하나님은 네가 품은 의지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네가 기도하고 실행한 것에 따라 네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정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를 온전케 하는 과정에 있다. 네가 진정으로 온전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야 한다. 만약 네가 대역무도한 일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하나님은 네가 맹세한 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때 네가 침륜되든 형벌을 받든 그것은 모두 네가 자초한 일이다.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대로 실천해야 한다. 맹세하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너는 침륜의 대상이다. 네가 말했으니 하나님은 네 맹세대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어떤 이는 기도를 마친 뒤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말한다. “큰일 났어! 이제는 방탕한 생활을 할 기회도, 나쁜 일을 할 기회도, 세상을 탐하고 연연해할 기회도 다 사라져 버렸다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세상과 죄를 사랑하고 있으니 앞으로 틀림없이 침륜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네가 한 일을 하나님의 영 앞에는 내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육신 앞에는 내놓을 수 없다면 이는 아직 하나님의 영의 감찰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더냐?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은 또 누구더냐? 그들은 하나가 아니더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은 사람이라며 둘을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겠느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냐? 성육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하나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실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너를 잘 대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를 잘 대해 주겠느냐? 네가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감찰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성육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다. 네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지 보아라. 네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네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너의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 모든 마음가짐과 반응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등의 영 생활, 나아가 협력하며 섬기는 일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실행해야 너의 생명이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감찰을 받는 과정은 사람이 정결케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수록 너는 더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방종함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살 수 있다. 또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수록 사탄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욕을 저버릴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감찰을 받는 것은 사람이 실행해야 할 길이라고 한다. 무슨 일을 하든,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더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 수 있다면 너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반역자다. 그는 내면에 너무 큰 야심을 품고 있고, 패역한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기 싫어한다. 이런 자들은 온전케 되기 어렵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먹고 마시거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관념에 부합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가장 극명한

패역과 대적이 아니겠느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파다. 하나님의 감찰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사람을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며 버리고 떠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떠날 것이다. 또한,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너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시험해 보아라! 오늘 내가 너에게 실행의 길을 알려 주었지만, 실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너에게 달렸다. 믿지 못하겠으면 실행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는지 지켜보아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은 너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상은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은 너에게 더 많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된다. 하나님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깨우침과 함께함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 너의 실제이자 생명 공급이 되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네게 하는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 하나님은 네게 축복을 내리고 네 소유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 너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며, 그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은혜를 베풀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내리거나 너의 가정에 평안을 줌 베풀어 주는 데 그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너의 실제로 삼아 하나님을 흠족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얻어 온전케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 추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은혜시대 사람이 추구하던 것들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 지금은 추구하는 기준이 더 높아져 더 실제적이고 높은 것, 사람의 내면이 필요로 하는 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역대에 사람들에게 지금과 같은 사역을 한 적이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이렇게 높은 요구를 한 적도 없다. 오늘날 너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 사람들에게 있음을 뜻한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길 원한다면 너는 이것을 중점 삼아 추구해라.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든, 헌신하든, 역할을 수행하든,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받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누군가 자신은 육적인 평안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할 뿐,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이나 생명 진입은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가장 눈먼 자다. 생명의 실재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내세의 영생과 금세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자도 가장 눈먼 자다. 그러므로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얻어지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일은 사람의 서로 다른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다. 사람은 생명이 자랄수록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 네가 한동안 추구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것은 성령이 너를 떠났다는 의미이다.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는 항상 추구하는 것이 있고 갈급한 마음이 있으며 결코 현 상태에 안주하지 않는다. 성령은 각 단계마다 역사할 때 너에게서 얻고자 하는 결실이 있다. 그러나 네가 현 상태에 안주하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면 성령은 바로 너를 떠날 것이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감찰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되겠느냐?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에 늘 허기를 느껴 항상 찾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한다면 성령은 늘 그런 사람에게 역사할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일수록 더 실제적인 것을 교제할 수 있고, 진리 추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생명이 더 빨리 자라며 더 풍부하게 체험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집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된다.

##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진다

성령 역사는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아진다. 내일의 계시는 오늘보다 더 높으며, 한 걸음씩 계단을 오르듯 언제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은 이런 사역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면 언제라도 도태될 수 있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 낡은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다. 새 시대에는 새 사역을 한다. 특히 사람을 온전케 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더 새로운 사역을 더 빠르게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어느 단계의 사역도 영원불변한 사역으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더 새롭고 더 높은 사역을 한다. 그의 사역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실제적이고, 행할수록 점점 더 사람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합하게 된다. 사람은 오직 이런 사역을 체험해야만 최종적인 성품 변화에 이를 수 있다. 생명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므로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 또한 점점 높아진다. 그래야만 사람이 온전케 되어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해진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은 한편으로는 사람의 관념을 깨서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더 높고 실제적인 경지에 진입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가장 높은 영역에 진입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본성이 패역하고 고의로 대적하는 사람들은 빠르고 거센 이 단계 사역에 의해 모두 도태될 것이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사역에서 너희는 모두 순종하기를 배우고 관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하며 발을 내디딜 때마다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세심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대한다면 반드시 성령께 버림받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을 체험하기 전에 사람에게서는 낡은 규례와 율례가 그야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리하여 모두가 이성을 잃었고, 득의양양해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원수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위험해진다. 네가 그저 간단한 사역과 말씀에만 순종하고 더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옛것을 지키는 사람이므로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시대마다 서로 다르다. 네가 이 기간의 사역에 잘 순종했더라도 다음 기간의 사역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거나 순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너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단계로 올 때 네가 따라왔다면 다음 단계로 갈 때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종일관 변함없이 순종해야 한다. 기분이 좋을 때만 순종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순종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네가 새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따라오지 못하고 과거의 견해를 고집한다면 너의 생명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을 통해 너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네가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면 성령은 반드시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성령은 내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므로 너희가 내 말대로 한다면 성령이 곧바로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다. 나는 새 빛을 너희에게 보여 주고 너희 모두를 현재의 빛 속으로 인도한다. 네가 현재의 빛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은 즉시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누군가 인정하지 못하고 “저는 당신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네게 이제 길이 없으며 메마르고 생명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빛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더욱이 교회에서도 역사하는데,

누구에게 역사할지는 알 수 없다. 지금 네게 역사한다면 너는 체험할 것이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역사한다면 너는 빨리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의 빛을 따를수록 생명은 더 자란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한 것이라면 너는 따라야 한다. 네가 체험하는 가운데 그의 체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 더 높은 것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실행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길이요, 생명이 성장하는 경로이다. 너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써 온전케 되는 길에 이를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할지 모르고, 어떤 사람과 일, 사물을 통해 너로 하여금 얻게 하고 깨달음을 갖게 할지도 모른다. 네가 이 정상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의 앞날이 어둡고 암담하다는 뜻이다. 네가 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면 모든 일에서 계시를 얻을 수 있다.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든 네가 그의 인식에 따라 체험한다면 그것은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또한 너는 그 체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남의 말을 흉내 내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이는 체험이 없는 사람이다. 반드시 다른 사람이 얻은 빛 비춤과 깨우침에서 실행의 길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뒤에 자신이 실제로 체험한 것과 깨달은 것을 말한다면 자신의 생명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체험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과를 배워 너의 생명이 자라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실행하면 가장 빨리 성장한다.

성령은 너의 실제 체험을 통해 너를 깨우쳐 주고, 또 너의 믿음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한다. 너는 진정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욕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극적이거나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에 순종하며, 앞에서 한 것이든 뒤에서 한 것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에서 진리를 실행한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온전케 된 사람이다. 앞서서와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간사한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고, 침륜의 자식이자 멸망의 자식이며,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 너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고 하나님 영의 감찰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성품 변화에 주력해야만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순종해야 하며, 아무 원망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제멋대로 판단하거나 단정 짓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란 어떤 것이겠느냐? 바로 너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너의 마음가짐이 옳기 때문에, 네가 한 일이 옳든 그르든 용감하게 내놓아 하나님께 보여 드리고 형제자매에게 보여 주며 하나님께 댕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속마음과 생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실천하고 진입한다면 네 생명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을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조차 할 수 없다면 믿고 안 믿고는 거론할 수도 없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네게 순종하고 너의 관념대로 따르게 한다면, 너는 가장 패역한 사람이며 불신파다. 이런 사람이 어찌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가장 패역한 사람은 일부러 하나님께 불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적그리스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 사역을 항상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며, 기꺼이 순종하거나 자신을 낮춘 적도 없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장 대단하다고 여기며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도’에 대해 가장 잘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보배’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오히려 그것을 가보로 삼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을 우러러보는 아둔한 이들을 가르친다. 교회에는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굴복을 모르는 영웅 세가’로, 대대로 하나님 집에 얹혀산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도’(리)를 얘기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 직책으로 삼고, 한 해 또 한 해,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어 가며 자신들의 신성불가침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누구도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누구도 감히 그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지 못한다. 하나님 집에서 ‘거물’이 된 그들은 시대마다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날뛰다. 이 악마의 무리가 연합하여 나의 사역을 허물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이런 산 귀신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게 절반만 순종하는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전력을 다해도 그중 일부만 얻고서 최종적으로 온전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시도하는 천사장의 후손들은 어떻겠느냐?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께 얻어질 희망이 없지 않겠느냐? 내가 와서 정복 사역을 하는 목적은 그저 정복을 위한 정복에 그치지 않는다. 나는 의와 불의를 드러내기

위해 정복하고, 사람에게 징벌을 내릴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정복하며, 또 악인을 정죄하기 위해 정복하고, 더욱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정복한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데, 온전케 된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는 사역이다. 하지만 패역한 행위로 가득한 자들은 모두 징벌받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 떨어져 영원히 저주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역대로 ‘위세와 무력에 굴복하지 않는 대단한 영웅 세가’의 사람들은 가장 비천하고 냉대받는 ‘나약하고 무능한 겁쟁이 세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야만 내 마음에 맺힌 한이 풀리게 된다. 말해 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생명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산물이 아니고, 성품 변화는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에는 실제적인 행동과 살아 남이 있어야 한다. 겉으로만 순종한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성품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표면적인 것에만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은 본래 같은 뜻이다. 하나님께만 순종할 뿐 하나님의 사역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아첨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어느 정도 얻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 새로운 사역 가운데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정받은 사람이고, 온전케 된 사람이며,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옳은 사람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반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위장하는 사람이고, 독사의 독을 지닌 사람이며, 누구보다 음험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그 못된 패거리의 추악한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더냐? 악인은 어쨌든 악인이므로 결국에는 그 징벌의 날을 피할 수 없고, 선한 사람은 어쨌든 선한 사람이므로 결국 사역이 끝날 때 전부 드러날 것이다.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악인은 없고, 악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의인도 없다. 내가 사람을 억울하게 할 수 있겠느냐?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새로운 진입이 있다. 언제나 새롭고 높은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단계마다 더 심화되어야 한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진입해야 하는 것이다. 네가 교제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또는 한 가지 일을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깨달음과 깨우침을 얻고, 낡은 규례 속에서 살지 않는다면, 뒤처짐 없이 항상 새로운 빛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바로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한다. 겉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높아지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있으므로 사람도 날마다 새로운 진입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한 만큼 이루므로 네가 따르지 못하면 뒤처진다. 기도가 깊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 없이 먹고 마셔야 하며, 더 깊은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고, 관념과 상상을 점차 줄여야 한다. 또 일을 판단하는 능력도 강화해야 하고, 어떤 일이 닥치든 생각과 주관을 가져야 하며, 영 안의 일들을 깨달음으로써 외부의 일을 꿰뚫어 보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네가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글귀와 도리만 말할 뿐 실체가 없고 실행의 길이 없으면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새 신자에게는 어찌어찌 말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새 신자에게도 실제 체험이 생기면 공급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네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적합하겠느냐? 새로운 깨우침이 없으면 사역할 수가 없다. 새로운 깨우침이 없는 사람은 모두 체험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경험이 없다. 생명을 공급하는 이 일에서 전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폐물이고 식충이다. 사실, 이런 사람은 사역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폐물이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도리어 교회에 불필요한 많은 번거로움을 더한다. 나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다시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빨리 교회에서 나가 줄 것을 청한다. 그들은 새로운 사역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념이 겹겹이 쌓여 있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는 곳마다 이간질하고 소극적인 말을 퍼뜨리며, 심지어는 교회에서 못된 짓을 하고 함부로 소란을 피워 분별없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이런 산 귀신, 악령은 교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회에서 썩 물러가라. 네가 오늘의 이러한 사역은 두렵지 않다 해도 내일의 공의로운 징벌까지 두렵지 않겠느냐? 교회에는 빌붙어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역을 무너뜨리려는 늑대들도 많다. 그들은 모두 악마의 우두머리가 보낸 마귀이며, 무지한 어린양들을 집어삼키려는 악한 늑대이다. 소위 ‘사람’이라는 이런 자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기생충이 되고 제물을 게걸스럽게 갇아먹는 좀 벌레가 될 것이다. 비열하고 무지하며 비루하고 비천한 이 구더기들은 언젠가 곧 징벌을 받을 것이다!

## 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대를 열고, 말씀으로 사역의 방식을 바꾸며, 말씀으로 전체 시대의 사역을 행한다. 이것이 말씀 시대에 하나님이 사역하는 원칙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각기 다른 위치에서 말씀함으로써 사람에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함을 보게 한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며 도태시키기 위한 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 시대에 말씀으로 사역하는 진정한 함의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고, 사람의 본질을 알며,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 시대에 행하려는 모든 사역을 이루는 한편, 사람을 드러내고 도태시키고 사람에게 시련을 준다. 사람은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게 된 것이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천지를 진동시키고, 사람의 마음과 고정 관념, 그리고 옛 성품을 변화시켰으며, 온 세상의 낡은 면모를 변화시켰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하며 사람을 구원한 분은 오직 오늘날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로부터 사람은 말씀의 인도 아래에서 살고, 말씀의 양육과 공급으로 살게 되었다. 또한 말씀의 세계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의 저주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이 말씀의 심판과 형벌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과 사역은 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옛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으며, 말씀으로 온 우주 사람을 인도하고 정복하고 구원하며,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옛 세상을 끝낸다. 이렇게 해야 전체 경륜의 모든 부분이 완성된다. 전체 하나님나라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사역의 성과를 거둔다. 이적이나 기사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사역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양분을 얻고 공급을 받으며, 인식을 얻고 진실한 체험을 하게 된다. 말씀 시대의 사람은 육체적 고통도 겪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누리기만 하면 되니 참으로 크나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무작정 찾을 필요도, 무작정 뛰어다닐 필요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공급을 받고, 그가 친히 행하는 사역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은 역대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이고, 얻을 수 없었던 축복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하기로 뜻을 정했다. 그가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든 그것은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영의 위치에서 말하면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행의 길을 찾지 못한다. 사람이 깨닫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역마다 성과도 서로 다르다. 또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말씀해야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 영의 위치에서만 음성을 발한다면 이 단계의 사역은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하는 말씀의 어조를 보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 현재 하나님의 사역은 새로운 방식에 들어섰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역 방식과 말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다시 말해, 사역 방식뿐만 아니라 시대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나라시대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이며, 천년하나님나라시대를 미리 체험하는 것이다. 천년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로, 다양한 말씀 방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각각 다른 위치에서 말씀하여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일단 천년하나님나라시대에 들어서면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시작할 것인데, 생명의 실체에 진입하게 하고 정상 궤도로 이끌어 준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사역 절차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고 심화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사역은 계속해서 바뀌고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사역이 아무리 변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도 진리와 생명을 떠나지는 않는다. 사역 방식의 변화는 사역의 형식과 말씀할 때의 위치가 바뀌는 것일 뿐, 결코 사역의 주된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말씀의 어조와 사역 방식의 변화는 모두 상응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일 뿐, 말씀의 어조가 달라진다고 해서 사역의 근본 취지나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 추구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이 현실적이겠느냐? 오직 생명을 추구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만이 현실적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현실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실제로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다. 이것이 참된 추구이다.

지금은 하나님나라시대로, 네가 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는지를 알려면 네가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들어갔는지, 하나님 말씀이 너의 생명 실체가 되었는지를 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결국에는 모두를 말씀의 세계에서 살게 하고, 각자에게 깨우침과 빛 비춤을 준다. 만약 네가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성으로 읽고

말씀에 흥미를 느끼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네 내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네가 말씀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을 것이고,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 시대의 출발점에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너희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일을 이루고자 한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고, 진리를 실행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삼고 실체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말씀을 실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역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되겠느냐? 현재 많은 이들이 하루 이틀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매우 답답해하며, 매일 말씀을 봐야 하고, 시간이 없으면 듣기라도 해야 한다고 한다. 성령은 사람에게 이런 느낌을 주고,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람을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네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어둠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답답해할 것이다. 이는 네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며, 성령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너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하루 이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며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이는 성령이 너를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내적 상태에 문제가 있고 말씀 시대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이니, 뒤쳐진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제어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좋다고 느껴지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행할 길을 잃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양식과 동력이 된 것이다. 예전에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한 바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사역을 이룰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서 이 사실을 이루고자 한다. 과거에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밥도 잘 먹고 일도 잘 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온전케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에게 생명과 광명, 그리고 실행할 길을 줄 수 있다. 특히 하나님나라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네가 하나님 말씀의 실체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므로 생명 추구에 있어 성급히 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며, 모든 사역에는 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예수가 성육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완성하는 데에도

33년 반이나 걸렸는데, 사람을 정결케 하고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사역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는 무엇보다 어려운 사역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상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의 말씀과 사역이 필요하다. 그러니 서둘러 결실을 맺으려 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후, 실제로 실행하여 인식과 식견, 분별력, 지혜를 키운다면 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보고 인식하며, 체험하고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할 것이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조금할 게 뭐 있느냐? 분량이 어느 정도 자라면 실행할 수 있다. 네댓 살 된 아이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효도하지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자신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실행할 수 있는 만큼 실행하되,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만 신경 쓰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일단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할 수 있을지 등은 상관하지도, 생각하지도 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다 보면 틀림없이 온전케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도 원칙이 있으니 무턱대고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네가 인식해야 할 것, 즉 이상(異象)에 관한 말씀을 찾아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실행해야 할 것, 즉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 하나는 인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입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즉 네가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어떤 것들을 실행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아는 것이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네가 말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평소 너희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화제로 삼아 자신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교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기만 하면 성령이 빛 비춤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세상을 만들려면 사람도 협력해야 한다. 네가 진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다. 네가 입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네게 빛 비춤을 줄 수 없다. 시간이 나면 잡담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삶을 채워야 경건한 신자라고 할 수 있다. 교제의 깊이가 얕아도 상관없다. 어떻게 처음부터 깊을 수 있겠느냐! 얕은 곳을 거쳐야 깊은 곳에 갈 수 있는 법이다. 훈련을 통해 너에게 있는 성령의 빛 비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등을 한동안 모색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협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원칙에는 인식에 관한 것과 진입에 관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인식에 관한 것일까? 이상에 관한 내용(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어느 시대에 들어섰는지, 혹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성육신이란 무엇인지 등등은 다 이상에 해당됨)이다. 어떤 것이 진입해야 할 길일까? 사람이 실행해야 하고 진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는 이 두 가지가 있으니, 이렇게 먹고 마시면 된다. 단, 이상에 관한 것들은 확실히 이해하고 난 후에는 자주 보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진입에 관한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는지, 욕을 버릴 수 있는지 등등의 내용은 다 실행이 필요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은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먹고 마실 줄 알고 핵심을 짚을 수 있으면 자유로운 교제가 가능하다. 즉, 어떤 문제를 내놓든 교제할 수 있고 실제적인 것을 짚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때 실제적인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해 핵심을 잡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모른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싫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싫증을 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느껴야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진입한 사람의 먹고 마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이라고 느낀다면, 또 사람에게 더없이 도움이 되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그 느낌은 성령이 준 것, 즉 성령의 감동이다. 그것은 너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싫증을 느껴 하나님의 말씀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런 사람은 실제에 진입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며, 온전케 되기를 바라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네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너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면했는지를 판단할 때 그 사람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실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의 실재로 사람을 가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네가 즐겨 본다면 깨우침을 얻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깨우침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깨우침을 준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도 깨우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보았겠느냐? 주마간산(走馬看山) 식으로 대충 보고 실제적인 것을 중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깨우침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케 할 리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실제도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실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쁘든 한가하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시련이 있든 없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존의 토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세끼 끼니 챙기듯 먹어야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얻어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겠느냐? 네가 지금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알든 그렇지 못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셔야 한다. 이것이 적극적인 진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뒤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행하고, 진입할 수 없는 것은 일단 내버려 두어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많겠지만, 2~3개월, 혹은 1년 정도 지나면 깨닫게 될 것이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은 하루 이틀 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많은 경우 보자마자 바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봐도 글자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한동안 체험하고 나면 그제야 그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을 하였으니, 네가 가능한 한 먹고 마시면 시나브로 이해하게 될 것이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성령의 깨우침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의 깨우침은 흔히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네가 갈급해하고 찾을 때, 성령이 너를 깨우쳐 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성령의 사역 원칙은 네가 먹고 마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다른 태도를 가지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실체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깨우침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자는 밥이나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요, 머릿수만 채우는 남곽 선생(南郭先生) 같은 사람이다.

너에게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되지 않았다면 실제 분량도 없는 것이므로 시련이 닥치면 너는 틀림없이 쓰러질 것이다. 그때면 네 진짜 분량이 드러날 것이다. 평소 실제에 진입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시련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서도 제대로 서지 못한다. 실제 분량이 있는 사람과 실제 분량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시련 속에서 굳게 서고 어떤 사람은 도망쳐 버리는 것이겠느냐? 그 분명한 차이는 실제 분량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은 시련이 닥쳐왔을 때 길을 잃는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왜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겠느냐? 그들이 진리를 알고, 그들에게 이상이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제 분량이자 생명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실행하지 않고, 참답게 대하지도 않는다. 참답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실행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되지 못한 사람은 실제 분량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너는 그 즉시 받아서 먹고 마셔야 한다. 얼마를 깨닫든 네가 가져야 할 관점은 먹고 마시고 인식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너의 분량이 얼마나 자랄 수 있을지는 상관치 말고 오로지 먹고 마시기만 해라. 이것은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 일이다. 너의 영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실행하는 실제에 진입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지, 다른 것을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이끄는 사람은 형제자매들을 이끌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알게 해야 한다. 이는 교회를 이끄는 사람의 책임이다. 나이가 많은 적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이 실제에 들어선다면 하나님나라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공급한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했는데,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진입한 것은 또 얼마나 되느냐?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말씀의 실제로 이끌지 못했다면, 이는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은 얕든, 얼마나 깨달음을 얻었든, 너는 먹고 마실 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해야 하며, 먹고 마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거나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체험하며 그의 말씀을 살아 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도 못하고 실제적인 것을 내놓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배를 불리는 것’에 불과하다. 사소한 간증과 쓸모없는 것, 외적인 것들만 말하고 실제적인 것이 조금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길을 전혀 찾지 못한 것이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셔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는 않고 하늘나라에 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최소한 갖춰야 할 것은 겉으로 보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는 것이다. 어찌 됐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앞으로는 각 나라 각 교파, 각 종교 각 분야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손에 하나님 말씀을 받들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할 것이므로 안팎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것이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안팎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온전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곧 천년하나님나라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사역을 이루고 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체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낼 수 있다. 네가 실제 체험을 내놓아야 다른 사람도 납득할 것이다. 네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낸 실체가 없다면 누구를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 실체를 살아 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았고, 네가 온전케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 앞으로 하나님은 각 종교와 각 교파에 더 많은 말씀을 할 것이다. 먼저 너희들 가운데서 말씀하여 너희들을 온전케 하고, 그다음에는 이방을 향해 음성을 발함으로써 그들을 정복할 것인데, 말씀으로 사람들을 탄복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폭로를 통해 사람은 패괴 성품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패역한 성품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권병을 띤 말씀으로 사람에게 사역하여 하나님의 빛 속에 사람을 정복한다. 하나님이 현시대에 하려고 하는 것과 사역의 전환점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으니, 네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한편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본인 또한 실제로 체험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실체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룬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과 사역은 모두 시대에 따라 다르다. 시대가 달라지면 하나님이 하는 말씀도 달라진다.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고, 같은 사역을 반복하지 않으며, 지나간 일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다. 또한, 그는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기에 날마다 새 말씀을 한다. 너는 오늘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책임이자 본분이다. 실행을 할 때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빛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양한 위치에서 말씀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전능을 나타낸다. 영의 위치에서 말씀하든,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하든, 또는 제삼자의 위치에서 말씀하든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다. 그가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관념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항상 같은 위치에서만 말씀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규정하도록 하나님이 놔두겠느냐? 그가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든 거기에는 그의 목적이 있다. 만일 하나님이 늘 영의 위치에서만 말씀을 한다면 네가 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때때로 제삼자의 위치에서 말씀하고 공급함으로써 네가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한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적합하다. 어쨌든 모두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니 의심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이라면,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든 여전히 하나님이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어떻게 사역하든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했어도 하나님은 그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본질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사역 방식을 통해 성과를 내고, 사람이 그를 더 잘 알게 한다. 그의 사역 방식은 하나하나 다 사람이 그를 알아 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든 그 목적은 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 있다. 어떨 때는 한 가지 사역

방식이 오랜 기간 계속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사람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니 의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 절차이므로 너희 모두 순종해야 한다.

지금은 실제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논하겠다. 천국에 가는 것도, 왕권을 잡는 것도 아닌, 오직 실제에 진입하기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논하겠다는 말이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참된 것이다. 왕권을 잡는 것에 대해 논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 데다 종교적 관념까지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가늠한다. 이렇게 많은 사역 방식을 체험하고도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적과 기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눈이 멀어도 단단히 먼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그가 하나님임을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오늘날 교회에는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가 하나님이 맞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에 그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그가 하나님 자신이기에 그를 믿는 것이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도망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순종해야 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너는 어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보았느냐? 네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호와가 참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설령 많은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람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 사람에게에는 진리가 없어 아무것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도망가려 한다. 도망가려면 서둘러 가라, 아무도 말리지 않으니! 한번 도망가 보아라, 갈 수 있는지 보자. 도망갔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를 지배한다. 너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체험해 보아라. 네 마음대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를 지배하므로 너는 떠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 법령이다!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번 해 보아라! 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라. 육체는 그대로 살아 있고 밥도 먹고 옷도 입을 수 있겠지만, 마음은 견딜 수 없이 괴롭고 정신적 압박감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큰 고통이다. 정신적으로 시달림과 학대를 받으면 사람은 견디지 못한다. 육체적인 고통은 참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 압박감으로 오랫동안 시달림을 받으면 전혀 견딜 수 없다. 지금 어떤 사람은 이적과

기사를 볼 수 없어 소극적이 되었지만, 아무리 소극적이 되더라도 감히 도망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가 아니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준다. 그는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늘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너를 달래지 않는다. 생명은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만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모두 바리새인이다! 지난날, 바리새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하나님을 가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람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편안함만 탐하고 즐기는 자들이다!

사람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록 부정적인 태도는 아니지만 의심의 태도를 갖고 있다. 부인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인정하지도 않는다. 만약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히 안다면 도망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실제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사실, 앞으로도 이적과 기사를 볼 생각은 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지만, 현 단계에서 네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겉으로 보이는 사실은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 안에 만들어질 수 있다. 천년하나님나라(역주: 천년왕국)에서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역이다. 이런 사역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시련 속에 빠지게 되며, 심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주로 말씀을 한다. 네가 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고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키고 체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번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주로 말씀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며, 특히 예수가 했던 사역은 하지 않는다. 둘 다 하나님이고 육신을 지녔지만 그들의 직분은 전혀 다르다. 예수 또한 땅에서 일부 사역을 행하고 말씀을 했다. 하지만 그가 완성한 사역은 주로 무엇이나? 십자가의 사역이었다. 죄 있는 육신의 형상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해 전 인류를 속량했다. 즉, 전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된 것이다. 그는 주로 이 사역을 이뤘으며, 궁극적으로 이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명확히 알려 주었다. 예수가 온 것은 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전 인류를 속량하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었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가져왔다. 그러므로 예수가 떠난 후에 사람들은 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십자가를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한다.”라고 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도록 다른 사역들도 하고 말씀도 했다. 하지만 그의 직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다. 3년

반 동안의 전도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비한 것이었다. 예수가 몇 차례 기도한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이었고, 정상인의 생활을 하며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생활한 것도 주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히 그에게 맡긴 것이다.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이룰까? 오늘날 하나님이 성육신한 이유는 주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들이 말씀의 책망과 연단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는 그의 말씀에서 공급을 받고 생명을 얻으며, 그의 사역과 행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를 형벌하고 연단하므로 네가 받는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실이 아닌, 말씀으로 사역한다. 말씀이 너에게 임한 뒤에야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여 고통을 받거나 달콤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실제로 이끌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온전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세에 행하는 사역은 주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이끈다는 것이다. 그는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행한다. 사실로 너를 형벌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고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으며, 그들은 육체적 형벌도 받지 않고, 고통도 별로 없다. 하지만 그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여 연단하면 너는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렇지 않더냐? ‘봉사자’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무저갱에 던졌다고 말씀했는데, 정말 무저갱에 떨어졌을까? 그저 말씀으로 사람을 연단시켰을 뿐인데, 사람은 무저갱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다. 너는 오직 그의 말씀에서 그의 어떠함을 볼 수 있고, 그의 말씀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볼 수 있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온 그는 다른 사역은 하지 않고 말씀만 한다. 그러므로 사실이 필요 없이 말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가 온 주요 목적은 이 사역을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말씀에서 그의 큰 능력과 지고지상함, 낮춤과 감춤을 보게 하며, 그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어떠함과 소유는 다 그의 말씀 안에 있고, 그의 지혜와 기묘함도 다 그의 말씀 안에 있다. 여기서 너는 하나님 말씀의 다양한 방식을 보게 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 행해진 하나님의 사역은 대부분이 사람에게 공급하거나 들춰내거나 책망하는 것이었다. 그는 쉽게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며, 설사 저주할지라도 말씀의 저주에 그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이 시대에서는 그가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적을 보려고 하지도 말라. 그래 봤자 소용없다! 그런 이적들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오늘날

성육신한 실제 하나님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 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그는 말씀으로 너를 온전케 하고, 말씀으로 너를 양육하며,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사실을 대체하여 그의 실재를 알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꿰뚫어 보았다면 쉽게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소극적인 것에는 신경 쓰지 말고 적극적인 것에만 신경 써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사실이 임하든 임하지 않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큰 이적이자 확실한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증거이자,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다. 이런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가 시작되자 하나님은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 말씀들은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생명이 성장한 때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의 패괴 성품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더 필요하다. 오직 말씀으로 하기만 하는 것도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말씀 시대라서 사람의 믿음과 의지, 협력이 필요하다. 말세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고 공급하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나야 사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말씀하는 기간에는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가 육신에 거하는 단계에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아닌 육신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사람이 육안으로 직접 하나님의 실재를 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의 사역이 끝나고, 땅에서 해야 할 말씀을 다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다. 그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직 땅에서 말씀을 할 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땅에서의 사역이 완성되면, 그때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땅에서 한 말씀은 한 면으로는 생명의 공급이고, 다른 한 면으로는 예언이다. 즉, 앞으로의 일과 해야 할 일과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예언한 것이다. 예수가 한 말씀에도 예언이 있다. 그는 생명을 공급하면서 예언도 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는 사실 간에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은 말과 사실이 병행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된 뒤에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사실은 말씀 뒤에 온다고 말할 뿐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말세에 이 땅에 온 것은 말씀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말씀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말씀만 하는 것이니, 다른 일은 그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은 먼저 이 말씀들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가 전 우주에서 영광을 받을 때는 그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해야 할 말씀도 다 했으며,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 되는

때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 땅에 와서 말씀의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의 말씀에서 그의 어떠함을 보게 하며, 그의 지혜와 모든 기묘한 행사를 보게 한다. 하나님나라시대에 하나님은 주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정복한다. 장차 하나님 말씀이 각 종교, 각 분야, 각 나라, 각 교파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이 권병과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한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마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 말씀은 율법시대에 한 말씀과 전혀 다르고, 은혜시대에 한 말씀과도 다르다. 은혜시대에는 말씀 사역을 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전 인류를 속량하는 것만 언급했다. 성경에서도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떤 고통들을 겪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것은 모두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나라시대에는 성육신 하나님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씀으로 정복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것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 사역을 한다.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것의 실제 의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는 말씀만 할 뿐, 사실이 임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것의 본질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의 것이자, ‘말씀’이 ‘육신’에 온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 되었도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 사역(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의 사역)을 이룰 것인데, 이는 전체 경륜의 마지막 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와서 그의 말씀을 다 육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오늘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 시대 사람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는지 등과 같이 마지막에 해야 할 사역들을 모두 분명히 말씀한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것의 실제 의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전에 반포한 행정 법령과 법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고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것인지 하는 말씀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말세에 주로 이 사역을 완성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며, 백성들과 아들들은 어떻게 나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애굽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한다. 앞으로 이 말씀들은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해야 할 일, 말세에 성육신 하나님이 해야 할 일, 수행해야 할 직분을 모두 말씀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이 말씀들은 모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것의 실제 의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적과 기사 보는 것을 중시하는 자들은 다 버림받을 것이고, 모두 온전케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도 사람은 이 사역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고, 이 경지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이적과 기사를 바란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함이나, 아니면 생명을 얻기 위함이나? 예수도 그 당시 수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중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그렇다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했는데도 네가 부인할 수 있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만 하므로, 네가 완전히 알지 못하면 제대로 설 수 없다. 너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아니면 그의 말씀의 실현 여부에 따라 믿는 것이냐? 너는 이적과 기사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오늘날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의 실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냐?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뒤에야 그를 믿으려 하느냐?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관념으로 하나님을 가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며, 늘 이적과 기사를 보고자 하는데, 이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 아니겠느냐? 네가 굳게 설 수 있는지는 실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다! 너에게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시련 속에서 더 굳게 설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이적과 기사에 눈을 돌릴수록 제대로 설 수 없고, 시련 속에서 쓰러지게 된다. 이적과 기사는 토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실제야말로 생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이를 성과도 알지 못한 채, 온종일 흐리멍덩하게 보내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만을 원하며, 그 후에야 제대로 믿으려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생명을 추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적과 기사를 바라는 것으로 여기고, 천국에 가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에 진입하기를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추구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적과 기사를 보는 것이냐? 천국에 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마땅히 종교적 믿음법을 없애야 한다.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을 추구하며, 이적과 기사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 하며, 육적인 안락함과 앞날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종교적 믿음법이다. 이런 믿음법은 막연한 신앙이다. 오늘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생명 실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를 알고 진실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피조물이 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존경스러움을 알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행하는 사역이 구원이요, 온전케 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로 육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고, 패괴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아래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육체를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의 온 마음을 얻고 너를 온전케 함으로써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하거나 육적인 것을 위하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는데, 그런 뒤에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목적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의 실제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실행하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른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 매사에 순종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네가 불평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베드로의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같은 베드로의 풍격을 갖게 되면, 이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이는 네가 하나님께 얻어졌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전 우주 아래에서 사역을 행한다. 그를 믿는 사람은 모두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셔야 한다. 하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해 왔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이적과 기사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구약 율법시대에 일부 말씀을 했고, 은혜시대에는 또 예수가 많은 말씀을 했다. 그 뒤에는 사도와 제자들이 예수가 선포한 계명에 따라 사람들이 실행하도록 이끌었으며, 예수가 한 말씀과 원칙들에 따라 체험하게 했다. 말세에 하나님은 주로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지, 이적과 기사로 사람을 억압하여 믿게 하거나 복종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 이적과 기사만 행한다면 하나님의 실재를 나타낼 수 없고 사람을 온전케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양한 뒤 사람이 순순히 순종케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사역하고 말씀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다양한 사역 방식으로 온전케 한다. 말씀으로 연단하든, 책망하고 훈계하든, 공급하든, 여러 위치에 서서 말씀하여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과 지혜, 기묘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한다. 말세에 하나님이 시대를 끝내려 할 때 사람이 온전케 되면 그때 사람은 이적과 기사를 볼 자격을 갖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순종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관념도 갖지 않을 것이다. 반면, 지금의 너는 패괴된 사람이므로 아직 순순히 순종하지 못한다. 그런 네가 이적과 기사를 볼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는 사람을 벌할 때이고, 세상을 바꿀 때이며, 시대를 끝낼 때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는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목적도 아니다. 사람들이 다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체까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느냐? 동방에서 얻는 한 무리의 이긴 자들은 대환난 속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전에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얻어진 이 사람들은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 온갖 연단을 겪고 나서야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막연하지 않고 실제적이다. 그들은 어떤 기적이나 기사도, 어떤 이적도 본 적이 없으며, 대단한 도리나 이치를 말할 수도 없고, 높은 깨달음을 말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실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더 분명히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세에 하는 사역은 실제적인 사역이다. 예수의 시대에 그는 사람을 온전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속량하러 온 것이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했다. 그가 온 목적은 주로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것이었으므로 이적을 행하는

것은 그의 직분 범주 내에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 이적과 기사들은 모두 사역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한 일이고 부가적인 것이었으므로 결코 시대 전체의 사역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구약 율법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역이므로 그는 절대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는다. 일단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실제적인 사역을 교란하게 되므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하고는 도리어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면, 사람이 진실로 믿는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람 안에는 종교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이 말세에 온 목적은 사람 내면의 모든 종교 관념과 초자연적인 것들을 없애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실재를 알게 하며,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워 버리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지금 네가 실재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보배로운 것이다! 진리는 모든 것을 압도한다. 지금 너는 진리를 얼마나 갖추었느냐?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이란 말이나? 악령도 이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 그럼 그것들 역시 하나님이란 말이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구하고 생명을 추구해야지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어야 한다.

## 온전케 될 사람은 모두 연단을 겪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를 실천하며 네 본분을 다 이행해야 하며, 그뿐만 아니라 네가 체험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책망, 징계, 심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줄만 알 뿐, 하나님이 언제 너를 징계하고 책망하는지 느끼지 못해서는 안 된다. 네가 이번 연단에서 바른 입장을 견지했더라도 거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과는 끝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일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상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 사람을 연단하면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 사람이 받는 연단이 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 반대로 받는 연단이 적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큰 능력도 더 적게 나타난다. 많은 연단을 받을수록, 큰 고난을 받을수록, 많은 시달림을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더 갖게 되며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다. 체험하는 과정에서, 너는 큰 연단과 고통을 받고 많은 책망과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고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책망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인식이 매우 얇은 관계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 그분을 누리게 하십니다.”라는 말밖에는 하지 못한다. 책망과 징계를 겪은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기묘할수록 더욱 가치와 의의가 있고, 네가 헤아릴 수 없고 너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수록 더욱 너를 정복하고 얻을 수 있으며 온전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람을 이렇게 연단하지 않고 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성과도, 의미도 없을 것이다. 예전에 하나님은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택하였고 또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세에 이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특별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에게 큰 사역을 행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순결해지며, 하나님이 큰 사역을 행할수록 사람이 그의 지혜를 더 잘 깨닫게 되고 그에 대한 인식도 깊어진다. 하나님의 6천 년 경륜은 말세에 끝나겠지만,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하면 끝이겠느냐?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의 어느 한 부분도 사람은 온전히 측량할 수가 없다. 네가 온전히 측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측량할 수 없고 네 관념에 크게 어긋난다. 네 관념에 어긋날수록 하나님의 사역이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네 관념에 부합하면 의미가 없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사역이 몹시 기묘하다고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기묘할수록 너는 더욱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행사가 아주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그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사역만을 행하여 사람을 정복하고 끝낸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이 지닌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 얼마간 연단을 받지만 이는 네 생명이 자라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너희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은 네가 연단을 조금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 너는 “하나님의 행사가 실로 기묘하구나!”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네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연단(봉사자 시련, 형벌시대)을 겪은 후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했다.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사를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하는 일은 참으로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사람이 소중히 여길 만하다는 의미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네가 전혀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한 사역이 가치가 있겠느냐? 나는 네 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정말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행사는 실로 기묘하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고 사랑스러우시다!”라는 말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한동안 체험을 한 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이 네게 한 사역을 통해 무언가를 얻었음을 말해 준다. 훗날 네가 외국에 나가 전도할 때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행사는 너무도 기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너의 이 말 속에 실제 체험이 들어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참된 증언이다. 또한 네가 하나님의 사역은 실로 지혜롭고, 너에게 한 사역이 너를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고 네 마음을 정복했으며, 그는 실로 사랑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를 사랑할 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것이 모두 증언이다. 힘 있게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말해 준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행사를 증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너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찾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증거야말로 참된 증거이다.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역이 아주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길 만하며, 하나님은 참으로 보배롭고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의 마음을 연단할 수도 있으며,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온전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매우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우러나온다면 그때는 너에게 증거가 있는 것이다. 네가 이 정도까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증거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멀었다. 연단 속에서 사람이 연약해지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연단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지혜롭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이 말의 실재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보배로운 것이고 너의 체험도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무엇을 추구해야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는지, 네가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지, 이것이 네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너는 그 사역에 대해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깨달았느냐? 얼마나 체험하고 얼마나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주든, 너를 책망하든 징계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너에게 자신의 행사와 사역을 행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너의 실제 체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느냐? 실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낼 수 있느냐? 실제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 너의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려면 너의 체험과 인식, 네가 치른 대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너에게 그런 의지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증거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기를 갈망하며, 너의 입으로 증거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해야 한다. 네가 정말로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 마지막에 복을 받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 너는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그를 만족케 할 것인지, 하나님의 기묘함과 지혜를 어떻게 증거하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추구해야 한다. 이런 것이 모두 지금 네가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단지 하나님께 온전케 된 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것으로는 부족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증거하고, 그의 요구를 실제적으로 충족시키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사역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고난을 받든, 눈물을 흘리든, 근심으로 슬퍼하든 모두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네가 지금 고난받고,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나? 오늘날 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복을 받거나 나중의 앞날과 운명을 위한 것이냐? 마음가짐과 동기, 추구하는 목표를 바로잡아야지, 너 자신의 뜻에 따라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는 복을 받기 위해, 왕 노릇하기 위해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흠족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온전케 되기를 추구한다면 너는 이 둘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전자를 택한다면 너는 아직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나는 나의 행사를 전 우주에 공개하고, 전 우주에서 왕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맡긴 일은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지, 왕이 되어 우주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우주 궁창에 가득 나타내 모든 이가 보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증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목적이 무엇이나?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겠느냐? 너에게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자신이 살아 낸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겠다는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너에게 이런 원동력이 있다면 그 어떤 소극적인 것, 수동적인 것, 육적인 나태함, 육적인 관념, 처세 철학, 패역한 성품, 감정 등도 모두 쉽게 버릴 수 있다.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사람이 연약해지거나 소극적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실행의 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하는 것은 다 정상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옅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옅이 비록 연약하여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지만, 그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지게 된 모든 것은 여호와가 베풀어 준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는 이도 여호와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어떤 시련을 겪든 그의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네가 체험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연단을 받든,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가 그렇게 사역함으로써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며, 또한 사람의 의지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할 때 사람은 그것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일에서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고, 네가 관념을 내려놓지 못할 때 너의 믿음이 필요하며, 네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모를 때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너는 이러한 주관을 갖고 굳게 서야 한다. 옅이 이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말씀했다. 다시 말해, 네가 믿음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네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지만, 네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너를 온전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네가 바라는 것을 베풀어 준다. 너에게 믿음이 없으면 온전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전능은 더더욱 볼 수 없다. 네가 실제 체험 중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나 네 안에서 너를 깨우쳐 주고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네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다. 네가 하나님께 희망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니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체험 속에서 그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을 수 있고, 그의 행사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단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연단이 없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 믿음이란 무엇이나? 바로 사람이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관념과 맞지 않아 이를 수

없을 때, 갖춰야 하는 참된 믿음과 진실한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믿음이다. 사람은 고난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고, 연단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라 연단도 온다. 이 둘은 갈라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언제나 생명을 추구하고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알고 진리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연단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계속 진리를 실행하여 그를 만족게 하고, 깊은 곳에서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지난날, 너에게 왕권을 잡게 할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를 사랑하고, 너에게 공개했을 때는 그를 추구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모습을 감추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고난이 임하니 하나님에게 실망했느냐? 그러므로 너는 언제든지 생명을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진실한 믿음이자 가장 참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다들 하나님 앞에서 각오를 다지며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너에게 임한 연단이 네 관념에 어긋나자 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냐? 너는 지난날 옳의 행적을 여러 번 보았다. 그것을 지금은 잊은 것이냐? 믿음 안에서만 참된 사랑이 생길 수 있다. 네가 연단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생기고, 실제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욕을 버리며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네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온전케 되려면 반드시 고난받겠다는 각오, 믿음, 인내, 순종 등 모든 것을 갖춰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슬픔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연단이 닥칠 때마다 너의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려면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줄만 알아서도 안 된다. 많은 것을 갖추어야만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이 될 수 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욕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모습을 감추었을 때 하나님을 따를 믿음을 갖고 예전의 사랑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고, 차라리 자기 육체를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시련이 닥쳤을 때 고통을 참으며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할지언정 하나님을 만족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과 믿음이다. 너의 실제 분량이 어떻든, 너는 우선 고난받겠다는 각오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육을 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하며, 자신이 고난받고 개인적인 이익에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고 또 스스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족게 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스스로 통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한다. 네가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온전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을 줄만 알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쓰는 것은 너를 연단하여 고통받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네게 하나님의 행사와 인생의 진정한 의의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며,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상 하나님의 형벌도 누려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모두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깨우쳐 준 것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심판한 것도 체험할 수 있다면, 너는 전면적으로 체험한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심판 사역도 하고 형벌 사역도 했으며 말씀으로 너를 책망한 적도 있지만, 너를 깨우쳐 주었고 빛을 비추어 주었으며, 네가 소극적이 되어 연약해졌을 때도 너를 염려하였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역을 통해 너에게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알게 한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난받는 것,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 또는 육체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우며 편안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모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가져야 할 목적이 아니다. 네가 이렇게 믿고 있다면 너의 관점은 바르지 않은 것이며, 너는 절대로 온전케 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묘함과 난측함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런 인식을 통해 네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요구와 소망, 관념을 없애야 한다. 이런 것을 없애야만 하나님이 요구한 조건을 갖추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만 생명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요구한 성품으로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격 없는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 그의 행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옳은 관점이자 네가 추구하는 목표여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보고,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서 행하는 기묘한 행사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실제 사역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제 체험을 통해 그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람에 대한 그의 뜻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네 안의 불결하고 불의한 것을 벗어 버리고 너의 옳지 못한 속셈을 버리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를 믿지 않는다면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왕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흐리멍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바로 열의가 생겨나고, 연단받는 것을 보면 바로 열의가 사라지는 이들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고, 수많은 종교 관념을 버리지 못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놓지 않고, 육적인 복이 내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너의 육과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한다면, 이는 전부 관점이 바르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육적인 이익만 추구할 뿐, 성품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종교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는 전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겠다는 마음과 자기를 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고, 성품이 변화될 수도 없다.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시련이 닥쳤을 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 지어 그 시련을 대했느냐? 소극적인 자세로 대했느냐, 아니면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주는 시련과 연단을 알려고 했느냐? 시련과 연단을 통해 무엇을 얻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이 더 커졌느냐? 너는 연단을 받을 때 육의 시련과 연관 지어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사역을 참답게 대할 수 있겠느냐? 육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방식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육의 시련을 통해 어떤 일깨움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는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려고 하느냐, 아니면 편안한 환경에서 육체를 만족시키고자 하느냐? 너는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진정 육을 위하지 않느냐?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고 있느냐? 너는 연단을 겪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형벌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기를 원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실로 증거하는 것이겠느냐? 실제 하나님이 너에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너는 어째서 늘 떠날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냐? 너희 중 많은 이가 자신을

위한 타산을 품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이것은 모두 패역이 아니냐?

연단 사역은 주로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며, 자기 앞날에 대해 아무런 소망도 갖지 않는 정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게 된다. 사람이 죽도록 힘든 지경에 이르러 죽음의 맛을 보기 전까지는 이 연단이 끝나지 않는다. 봉사자의 단계에서도 연단은 극한에 이르지 않았다. 욕은 극한의 연단을 받아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다. 사람은 반드시 그 수준까지 연단을 받아 희망도 의지할 곳도 전혀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연단이다. 봉사자일 때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계속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한다면, 이 길 끝에서 너는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욕의 시련을 겪는 동시에 베드로의 시련 또한 겪게 된다. 욕이 시련을 받을 때 굳게 서자 마지막에 여호와가 그에게 나타났다. 굳게 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생긴 것이다. 어째서 “나는 거룩한 나라에는 나타나지만 더러운 땅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했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네가 성결하게 되고 굳게 서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있는 것이지, 굳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는 것이다.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떠나거나 원망하고 굳게 서지 못해 사탄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만약 욕처럼 시련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저주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증오할 수는 있어도 절대 불평하지 않으며,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굳게 선 것이다. 네가 어느 정도로 연단을 받아도 욕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며, 관념도 갖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너에게는 수많은 관념과 선입견이 있고, 사심, 잡념, 사사로운 요구, 육적인 이익이 많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만나면 너 자신의 관념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므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많은 일이 닦혔을 때 너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아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알 수 있으며,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굳게 선 것이다. 만약 네 가정이 평안하고 육체적으로도 누릴 수 있으며 아무도 너를 핍박하지 않고 교회의 형제자매들 또한 너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를 연단할 수 있겠느냐? 연단 속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고, 너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닦쳐야만 너를 온전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많은 일을 역이용하고, 또 사탄의 수많은 행위, 참소, 교란과 미혹 등 다양한 모습을 통해 네가 사탄의 추악한 몰골을 똑똑히 보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을 분별하게 하고 나아가 사탄을 증오하고 저버리게 하는 것이다.

너는 많은 실패를 겪고 연약함을 수없이 체험했으며, 또 많은 경우에 소극적이 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이 주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실패하든, 연약해져서 넘어지든,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게 시련을 주는 것이지만 네가 알지 못하면 그것이 시험이 된다. 사람은 두 가지 상태를 알아야 한다. 하나는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전자는 성령의 빛 비춤을 받아 자신을 알고 증오하고 통회하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갖게 되고, 굳게 마음먹고 하나님을 흠족게 하려 한다. 반면 후자는 자신을 알기는 해도 소극적이고 연약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사탄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이 너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고 하나님께 큰 죄책감을 느끼며 앞으로는 보완하여 다시는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마시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련이다. 고통을 받은 후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빛을 비추어 주고 깨우쳐 주고 양육해 줄 것이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아예 자포자기하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이 닦친 것이다. 욥이 겪은 시련은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한 것이었고, 사탄이 욥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었다. 비록 하나님이 욥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욥에게 임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욥을 시험한 것이었지만 욥은 하나님 편에 섰다. 만약 욥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시험에 빠졌을 것이다. 사람은 일단 시험에 빠지면 위험해진다. 연단 겪는 것을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태가 좋지 못하면 사탄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네가 이상(異象)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면 사탄이 너를 참소하고 이상에 대해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지 않으면 온전케 될 수 없다. 너는 세부적으로 체험하며 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관념이나 많은 속셈이 생기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실행 방법이 있는지 등을 말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줄 안다면 분량이 있다는 의미다. 겉으로만 열정이 있다면 참된 분량이 아니므로 전혀 굳게 설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줄 알아야, 또 언제 어디서든 체험하고 곰곰이 생각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목양자들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다다른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이 체험할 줄 모르고, 일이 닥쳐도 처리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줄 모르고, 영 생활을 할 줄도 모른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너의 실생활에 적용시켜야 한다.

때로 하나님은 너에게 내면에 누림을 잃고, 하나님의 함께함이 없고 어둠에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일종의 연단이다. 또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다. 때로 네가 거역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기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징계하는 것이다. 성령 역사는 아주 세밀하다. 사람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아주 또렷하게 감찰하고 사람이 속으로 느끼게 한다. 네가 일을 할 때 한 번, 두 번 문제가 생기다 보면 성령 역사에 대해 차츰 알게 될 것이다. 여러 번의 징계를 통해 너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지 알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에 정확하게 반응하게 된다. 어떤 때는 네가 거역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징계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은 너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답게 대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깨우쳐 준다.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흐리멍덩하게 믿고 지나친 일을 많이 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뚜렷한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사명을 버리고 사업하러 떠나도 징계가 임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더 위험하다.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 성령의 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전케 되기도 어렵다. 많은 사람에게서 성령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은 연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따라가야 하며, 최소한 떠나지 않고 베드로의 0.1%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사용 가치가 없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며 베드로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들에게 징계하고 깨우쳐 주는 일을 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벗어 버릴 수 있게 한다. 이런 사람은 금은보석이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역을 했는데도 네가 여전히 모래나 돌이라면 너라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하는 사역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한데, 한 무리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한 일부 사람들을 도태시킬 것이다.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 분명 일부 불신파나 악인들이 도태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부 소수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때 모두 드러난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단계 한 단계 역사를 통해 드러나 도태될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은 모두 정복 사역에서 드러난 사람들이고, 온전케 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온전케 된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져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정복된 사람은 마음에서 우리나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사랑할 뿐이다. 정복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우리나오는 사랑이란 실제로 체험하여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 마음을 점유하면 사람은 자각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근간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된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네가 정복되기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룬다면 ‘봉사자’ 단계에서 사역이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루려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를 정복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보다 온전케 하는 사역, 도태시키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 그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또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데, 이 두 사역은 동시에 시작된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해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복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정복된 사실이다. 그러나 연단은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연단 없이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연단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한 무리 사람들을 얻는다. 예전에 말한 열 가지 복은 모두 온전케 되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고, 땅에서 형상을 바꾼다는 것은 모두 온전케 되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온전케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

##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알 수 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은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이 네게 행한 것을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는 모두 네가 배워야 할 공과이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람에게 행한 것과 보여 준 것은 모두 그를 사랑하게 하고 그를 진실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나아가 사람에게 행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난받게 하지 않았다면, 솔직히 말해 너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이 클수록 사람은 더욱 고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 의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더욱 의미하며, 사람은 마음으로 더욱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공과는 무엇으로 도달하게 되느냐? 만약 고난과 연단, 고통스러운 시련이 없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 긍휼만 베푸다면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한편으로는 시련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보잘것없고 비열하고 천박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한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더 잘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비록 고통이 너무 커서 이겨 내지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 극도의 비통에 빠질 때도 있지만, 체험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사역이 실로 사랑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토대로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생기게 된다.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만으로는 자신을 진정으로 인식할 수 없고, 사람의 본질은 더더욱 인식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거둬들인 심판과 연단을 통해야만 사람이 연단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연단과 심판을 토대로 이뤄진다고 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평안하거나 물질적 축복만 받았다면, 하나님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은혜의 사역을 하며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물질적 축복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은혜와 자비, 긍휼만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사람은 체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보았다. 그러나 한동안 체험한 후에는 그의 은혜와 자비, 긍휼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고, 사람의 내면에 있는 파괴된 것들을 들춰내지 못하며, 사람의 파괴 성품을 벗겨 버릴 수 없고, 사람의 사랑과 믿음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사역은 한 단계 사역일 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하느냐? 그의 공의 성품을 통해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공의, 진노, 위엄과 심판, 저주이며,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할 때 주로 심판의 방식을 택한다. 어떤 이는 어째서 심판과 저주를 통해야만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사람은 죽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건 정죄받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묻는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은 사람의 패역이고,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죄다. 비록 엄한 말씀으로 가차 없이 사람 내면의 것들을 전부 들춰내고, 사람 내면의 본질적인 것들을 전부 드러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심판의 방식을 통해 사람이 육의 본질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한다. 사람의 육은 죄에 속하고 사탄에게 속한다. 육은 패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 대상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해야 하며, 게다가 온갖 방법으로 연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미 사람의 육을 정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은 저주의 말씀에 속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람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이며, 이러한 드러냄을 통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통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너무 많은 빚을 져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때로는 성령이 내면에서 너를 징계하는데, 그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온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너에게 얼굴을 가리며, 너를 외면하고 너에게 역사하지도 않으며, 소리 없는 형벌로 너를 연단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역할 때 주로 그의 공의 성품을 나타낸다.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증거하겠느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의 성품이 바로 공의이자 진노, 형벌, 심판임을 증거한다. 즉,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구원한다. 하지만 그의 사랑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느냐? 심판과 위엄, 진노와 저주가 들어 있다. 지난날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했지만, 사람을 완전히 무저갱에 버리지지는 않았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믿음을 연단했다. 그는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했지 전부 사지로 몰아넣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육의 본질은 사탄에게 속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한 말씀대로 사실이 임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가 너를 저주하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게 하고, 네 육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가 너를 형벌하는 이유는 너를 각성시켜 네 내면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사람이 형편없고 자격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위엄, 진노는 모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과 너희에게 나타내는 공의 성품은 전부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람은 전통 관념에 근거해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고,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기는 하나, 너무 단편적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주요 방식이 아니다. 병에 걸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그 병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푼 은혜이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진리를 몰랐던 관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매우 많이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게 했고, 사람을 오늘날까지 인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내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다! 교회 건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봉사자’ 단계의 사역을 하여 사람을 무저갱 속으로 빠뜨렸다. 봉사자 그 당시의 말씀은 모두 저주의 말이었다. 너의 육을 저주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사탄의 패괴 성품을 저주했으며,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주했다. 그 단계 사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것은 위엄이었다. 곧이어 하나님은 또 형벌 사역을 했고, 죽음의 시련을 주었다. 사람은 그러한 사역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 심판과 형벌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도 보았다.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과 나타내는 성품은 전부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그는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사람의 분량에 따라 사람에게 공급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본래 모습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분량에 맞춰 조금씩 사람에게 공급해 주어 그에 대한 인식이 사람 내면에 점차 생겨나게 했다. 사람은 오늘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더없이 좋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봉사자 단계의 사역은 하나님이 창세 이래 행한 첫 번째 저주 사역으로, 사람을 저주하여 무저갱 속에 넣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 비로소 정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접할 수 있었다. 사람은 모두 봉사자의

시련을 통해 드러났고, 자신의 충성심이 형편없고, 분량이 너무도 보잘것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흡족게 하겠다는 것은 말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봉사자 단계 사역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했지만,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단계 사역이 몹시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사람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으며, 사람의 생명 성품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봉사자 단계 전에 사람은 생명 추구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사역한다는 것을 몰랐으며,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에게 시련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봉사자 단계의 사역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이 지극히 기묘하여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으며,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사람의 분량이 몹시 보잘것없고, 사람의 패역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당시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한 것은 한 가지 성과를 얻기 위함이었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그가 사람을 저주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저 말씀의 저주였을 뿐, 사실이 임한 적은 없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은 사람의 패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저주의 말씀 역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도, 저주도 전부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 내면의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연단을 주었고, 사람 내면의 부족한 것들은 그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온전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행한 각 단계의 사역은 엄한 말씀이든 심판과 형벌이든 할 것 없이 전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며, 너무나도 적절한 것이다. 하나님은 만세와 만대에 이런 사역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너희에게 이런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한 것이다. 너희는 내적으로 고통을 조금 겪었지만, 늘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번 단계 사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너희의 행복이다. 나중에 무엇을 얻게 되든 어쨌든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한 사역이 전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을 겪지 않아 늘 겉으로만 행하고, 겉으로만 열성적일 뿐, 성품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현재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방자하고 오만한 것들이 많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성품이 많이 안정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는 것 역시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당시에는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언젠가 네 성품이 변화했을 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한 사역이 지극히 지혜로웠다고 느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 거짓말이다. 그가 지금까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지, 저주하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은 밝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 너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날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로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너는 인생을 알고, 너의 육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오늘날의 하나님 사역이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진실로 깨닫게 될 것이다.

현재 많은 이들은 알지 못해, 고난받는 것이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정은 평안하지 않으며 하나님 역시 기뻐하지 않으니 앞날이 막막하다고 말이다. 어떤 이들은 몹시 괴로운 마음에 죽고 싶어 하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는 의지가 없고 나약하며 무능한 겁쟁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사람은 그를 사랑할수록 더 큰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된다. 네가 그를 사랑하면 갖가지 고난이 네게 임하겠지만,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주변 환경도 평화로울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주변의 많은 상황들이 늘 감당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분량으로 인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도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높아 사람이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연단을 받고, 또한 자신의 내면에 연약한 부분이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지 못하는 면이 많은 것으로 인해 연단을 받는다. 하지만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연단을 통해서만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가야 하며,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굳세고 힘 있게 증거하는 것이다. 사탄의 시험이 닥칠 때면 너는 “내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얻으셨다. 그러니 나는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만족케 해 드릴 것이다.”라고 말하여라. 네가 하나님을 만족케 할수록 하나님은 너를 더욱 축복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의지도 굳세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근심과 슬픔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실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이 위로를 받아 편안하고 든든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낼 수 있고, 네가 겪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며, 찬양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안배한

주변의 사람과 일, 사물이 모두 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든 네 뜻에 부합하지 않고 눈에 거슬릴 것이며,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압박을 느낄 것이며, 늘 하나님께 원망을 품으면서 자신이 겪는 고난이 너무 많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네가 네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기 위해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실행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흡족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흡족케 하기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식어도 너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 분량이다. 너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얼마나 큰지, 시련이 임했을 때 굳게 설 수 있는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연약해지지 않는지, 형제자매들이 너를 버려도 네 입장을 굳게 지킬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사실이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다. 다만 사람이 영의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해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스러움을 밝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너무나 작을 뿐이다. 너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 왔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너의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솔직히 말해, 너는 어쩔 수 없이 바른길로 끌려온 것이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과 크나큰 구원이 너를 바른길로 인도한 것이다. 사람은 고난과 연단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깨닫게 되며,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사람에게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묘한 사역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준비한 모든 고난의 연단을 더 많이 체험해야만 생명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

## 하나님을 사랑해야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자 한다면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하고 대가도 치러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깊은 공과로, 사람이 한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배우는 공과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기만 할 뿐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슴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어 봤자 헛일이다.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일생을 헛사는 것이요, 네 일생은 가장 미천한 일생이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만족케 한 적이 없다면, 네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헛수고 아니겠느냐? 바꿔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겉으로 무엇을 하려고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참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은 재미있어하지만, 진리 실행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슨 일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일에 부딪히든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일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닥쳐 고통을 겪어야 할 때, 너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욕은 가장 비천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방법을 찾고 네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네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서 특별히 너를 깨우칠 것이요, 네 마음도 위안을 얻을 것이다.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일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우선 자신을 내려놓고 욕을 가장 천한 것으로 여겨라. 네가 욕을 만족시킬수록 욕은 더 큰 욕심을 낼 것이다. 이번에 만족시키면 다음에 또 다른 요구를 하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은 욕을 더 사랑하게 된다. 욕은 항상 사치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어 늘 네가 만족시켜 주길 바라고 그 안에서 즐기길 바란다. 먹고 입거나 화를 내거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태함 등등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네가 욕을 만족시킬수록 욕의 욕망은 더 커지고, 나날이 방종해질 것이다. 그러다 어느 지경에 이르면 사람의 욕은 관념이 더 깊어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받들며, 하나님의 사역도 의심하게 된다. 네가 욕을 만족시킬수록 욕의 연약함은 더 많아져 늘 아무도 너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리 엄하십니까? 왜 언제나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지 않으시죠?”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이 욕을 지나치게 만족시키고 지나치게 사랑하면 자신을 망치게 된다.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욕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더없이 적절하고 좋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며, 네 패역을 저주하고 네 불의를 심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때로 하나님이 너를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환경을 조성해 단련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오게 해도 너는 늘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여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는 크게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몹시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네가 욕의 연약함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행한 것이

지나치다고 말한다면, 늘 고통스럽고 슬프다고 느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행한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모호해져 하나님이 사람의 연약함을 조금도 굽어살피지 않고, 사람의 고충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며, 언제나 너 자신이 외롭고 쓸쓸하고 대단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때면 너는 원망의 말을 쏟아 낼 것이다. 네가 이렇게 육의 연약함을 헤아릴수록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것이고, 결국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할 것이며, 네 내면은 패역한 것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육을 저버려야지, 헤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남편(아내), 자녀, 미래, 결혼, 가정 따위는 없어! 내 마음속엔 오직 하나님뿐이야. 나는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려야 해. 육을 만족시키면 안 돼.’ 너는 이런 의지를 가져야 한다. 늘 이런 의지를 갖고 진리를 실행하며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조금만 힘써 노력해도 해낼 수 있게 된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길에서 얼어붙은 뱀 한 마리를 보고 주워 품 안에 넣었더니 뱀이 깨어나 농부를 물어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람의 육은 뱀과 같아 본질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다. 네가 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을 때가 곧 목숨을 잃는 때이다. 육은 사탄에 속하는 것으로, 그 안에는 언제나 사치스러운 욕망이 들어 있어 항상 자신만 생각하고, 호강하길 원하며 안락한 생활을 탐내고, 초조해하지도 않은 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어느 지경까지 육을 만족시키다 보면 종국에는 육에 삼켜지고 만다. 다시 말해, 네가 이번에 육을 만족시켰다면 육은 다음에도 네가 만족시켜 주길 바란다. 육 안에는 늘 사치스러운 욕망과 새로운 요구가 있으며, 네가 육을 생각하는 기회를 틈타 육을 더욱 아끼며 육의 안락 속에서 살게 한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너 자신을 망칠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마지막에 어떤 결말일지는 육을 어떻게 저버리느냐에 달렸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또 너를 선택하고 예정했다 해도 네가 지금 하나님을 만족게 하려 하지 않고, 진리를 실행하려 하지 않으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육을 저버리려 하지 않아 결국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너는 극한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항상 육을 생각한다면, 너는 천천히 사탄에게 잠식될 것이고, 생명도 영적 감동도 없다가 언젠가 내면이 완전히 어두워질 것이다. 어둠 속에서 살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더 이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때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쓰라린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 겉으로 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고생할 필요도, 책을 많이 보거나 많이 뛰어다닐 필요도 없으며, 사치스러운 생각과 개인의 이익, 자신의 계획, 관념, 속셈과 같은 사람 내면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성품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 사역의 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겉으로 드러나는 비정상적인 인성, 사람의 생활 방식, 생활 습관, 풍습 및 외적인 행동과 사람의 열의 등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실행해 성품을 변화하게 하는 것은 주로 사람 내면의 마음가짐과 관념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네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만 다스리려 한다면 그건 쉬운 일이다. 예를 들어, 네가 즐기는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은 쉽게 해낼 수 있다. 하지만 내적인 관념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내려놓기가 힘들다. 여기에는 육을 저버리고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렇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진리를 실행하지 않을 때는 네 마음가짐이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일에 부딪히면 네 내면의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가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할 때,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내면에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을 가로막는 관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네가 자신의 마음가짐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을 때, 네 관념이나 마음가짐에 따라 행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입장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육을 저버렸다는 것을 증명한다. 육을 저버리려 할 때 네 내면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사탄은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고 육의 관념대로 육적인 이익을 지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사람 안에서 빛을 비추고 깨우쳐 줄 것이다. 그때는 네가 하나님을 따를지, 아니면 사탄을 따를지를 봐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를 실행하라 할 때는 주로 사람 내면의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의 생각과 관념을 다스리려는 것이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깨우침과 빛 비춤을 준다. 그래서 모든 일의 뒤에는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진리를 실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실천할 때마다 큰 싸움이 벌어진다. 사람의 육이 평온무사한 듯 보여도 사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생사를 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 차례 격렬한 싸움과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겨우 승패가 나뉘니 참으로 웃지도 울지도 못할 노릇이다. 사람의 내면에 잘못된 마음가짐이 많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많은 사역이 사람의 고정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때면 늘 이면에 큰 싸움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은 진리를 실행할 때 뒤에서 많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흡족게 하게 된다. 싸움이 있기에 사람은 고통받고 연단을 받는다. 이것이 진정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싸움이 임했을 때, 네가 참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다. 진리를 실행하면서 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진리를 실행할 때 사람 내면의 것이 모두 옳다면, 하나님께 온전케 될 필요가 없고, 싸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도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내면에 하나님이 쓰기에 부적합한 구석이 많이 있고, 육적인 패역 성품도 많기 때문에 육을 저버리는 공과를 더 깊이 배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받게 된다는 그 ‘고통’과 관련되어 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저는 당신을 만족게 해 드리길 원합니다. 온갖 고통을 끝까지 견뎌 당신의 마음을 흡족게 해 드리길 원합니다. 아무리 큰 좌절을 겪어도 저는 당신을 만족게 해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만족게 해 드릴 것입니다!’ 네가 이런 의지를 갖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굳게 설 수 있다. 진리를 실행할 때마다, 연단과 시련, 하나님의 사역이 임할 때마다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전부 검증이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실제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분주히 다니는 것 등도 얼마간 대가를 치르는 것이긴 하나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사람의 본분이자 응당 이행해야 할 책임이다. 하지만 사람 내면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외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든 모두 헛수고이다! 다시 말해, 내적 변화야말로 외적 고통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적 성품이 변화되고 진리를 실행했다면 외적으로 받은 고통 역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적 성품에 변화가 없다면 외적으로 받은 고통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녔다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받은 고통에 하나님의 확증이 없다면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너의 대가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네게 변화가 있는지에 달렸고, 네가 진리를 실행하고 자신의 속셈과 관념을 저버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했는지에 달렸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녔다 해도, 단 한 번도 자기 속셈을 저버린 적이 없고 외적인 행위와 외적인 열정만 추구하며 늘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통은 전부 허사가 된다. 어떤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말이 형제자매에게 도움이 안 되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내적으로 괴로울지언정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내면에서 싸움이 벌어지겠지만, 네가 고통을 참고 포기하길 원하고, 고통을 감내하여 하나님을 만족게 하길 원하며, 내적으로 고통받을지언정 육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흡족해할 것이다. 따라서 네 내면도 위안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치르는 대가로, 하나님은 이런 대가를 바란다. 네가 이렇게 실행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네가 아는 것이 아무리 많고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허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싸울 때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사탄에게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고, 그러면 굳게 선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은 겉으로 보면 마치 사람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 같고, 사람의 방해나 방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과 일의 뒤에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한 내기가 있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필요가 있다. 이는 욕이 시련을 받았을 때, 그 뒤에는 사탄이 하나님과 한 내기가 있었지만 욕에게 닥친 것은 사람의 행위요, 사람의 방해였던 것과 같다. 너희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뒤에는 사탄이 하나님과 한 내기가 있고, 싸움이 있다. 예를 들어, 네가 형제자매에게 편견이 생겨 어떤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자니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자니 내적으로 괴로울 때가 있다. 이때 내면에서 싸움이 시작된다. ‘말할까, 하지 말까?’ 이것이 바로 싸움이다. 그래서 일이 임할 때는 늘 싸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네 내면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너의 실제적인 협력과 네가 실제로 받는 고통을 통해 네게 역사한다. 결국 너는 내면에서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화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 역시 네가 하나님과 협력한 결과이다. 어떤 일을 하든 일정한 심혈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실제로 받는 고통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케 한다는 말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것은 공허한 구호를 외치는 것에 불과하다! 공허한 구호로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겠느냐? 사탄이 영계에서 하나님과 싸울 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야겠느냐? 일이 닥칠 때마다 네게는 그것이 큰 시련이자 하나님이 네 증거를 필요로 하는 때가 왔음을 알아야 한다. 겉으로 봤을 때 큰일이 아닌 것 같아도, 일단 그런 일이 닥치면 너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하기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자요, 진리도 생명도 없는 쪽정이임을 보여 줄 것이다! 일이 닥칠 때는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야 할 때이다. 지금 네게는 큰일이 닥치지 않아 별로 크게 증거한 것이 없겠지만, 일상의 사소한 부분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형제자매들이 탄복하고, 가족이 탄복하고, 주위 사람들이 탄복하게 해라. 언젠가 이방인이 와서 네 모든 행위에 탄복하며 하나님이 행한 것이 참으로 좋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면, 너 자신이 바로 증거가 될 것이다. 네게 식견이 없고 자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면, 너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자질이 가장 부족한 사람에게 행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탄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경지에 이르면 이들은 가장 기개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간증이다. 네가 큰 사역을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고정 관념을 내려놓지 못해도 너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실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해도 너는 자신의 실제 분량과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너는 가족들 사이에서,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 없는 것이다. 사탄 앞에서 증거하지 못하면 사탄은 너를 비웃고, 노리게 취급하고, 항상 너를 농락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큰 시련이 닥친다 해도 지금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앞으로의 시련이 아무리 클지라도,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굳게 서서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다면, 너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장차 어떤 큰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앞의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며, 그저 지금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너희는 뭔가 큰 사역을 할 수도 없지만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체험을 중요시하여 하나님을 만족게 하며, 강인하고 힘 있게 증거함으로써 사탄을 수치스럽게 해야 한다. 비록 육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겠지만 너는 하나님을 만족게 하고 사탄에게 수치를 안겨 주게 될 것이다. 네가 항상 이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네 앞에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러면 어느 날 큰 시련이 닥쳐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너는 굳게 설 수 있다. 너는 대가를 치렀으니 하나님은 네가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다. 네가 평소에 진리를 실행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앞으로의 시련에서 반드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가 우매하고, 분량이 작고, 자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은 네 마음가짐이 바른지 그른지에 달려 있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소한 일도 놓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을 만족게 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진심을 하나님께 바쳐라. 밝히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으로 와서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을 만족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혹여 형제자매가 너를 버리더라도 육적인 즐거움을 좇지 말고 하나님을 만족게 해라. 네가 늘 이렇게 실행한다면 큰 시련이 닥쳤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련은 사람의 어떤 내적 상태에 초점을 두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게 하지 못하는 사람 내면의 패역 성품에 초점을 둔다. 사람의 내면에는 수많은 불순물과 외식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시련으로 사람을 정결케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네가 지금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시련으로 온전케 될 것이다. 반면, 지금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없다면 앞으로의 시련은 네게 시험이 되어 너는 부지불식간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네 뜻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제 분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더 잘 만족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가고 싶다면, 지금 반드시 기초를 잘 다져야 하며, 매사에 진리를 실행해 하나님을 만족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네가 항상 이렇게 실행하면 내면에 토대가 생길 것이며,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더해 줄 것이다. 언젠가 정말 시련이 닥치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매우 슬프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비통함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은 한결같을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지금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어받는 자가 된다. 그러나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어느 날 시련이 닥쳤을 때 네 사랑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질 것이다. 그때 시련은 시험이 되고, 너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너에게 작은 시련이 왔을 때는 설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큰 시련이 닥쳤을 때도 설 수 있을 거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여기며 득의양양해한다. 하지만 그때 깊이 진입하지 않고 자기만족에 빠지면 위험해진다. 하나님이 지금은 더 큰 시련 사역을 하지 않아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시련을 주면 너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을 것이다. 네 분량이 너무 작아 큰 시련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발전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으면, 시련이 임할 때 쓰러지고 만다. 늘 자신의 분량이 작다는 것을 인지해야 발전이 있다. 시련이 닥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분량이 너무 작고, 의지가 너무 약하며, 실제적인 것이 너무 적고,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 가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다면, 시련 속에서 필히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련이 닥쳤을 때 네 관념에 맞지 않으면 설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곧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성품을 사람에게 나타내면 너의 육에 무엇을 가져다주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공의로운 성품을 사람에게 나타내면 사람의 육은 필연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고통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을 바칠 수도 없다.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한다면 필히 그의 모든 성품을 네게 나타낼 것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성품을 사람에게 나타낸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말세에 하나님은 그가 예정하고 택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고, 사람을 온전케 할 때 자신의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든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고,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을 완전히 바치고 싶다면, 반드시 많은 고통과 환경의 시달림을 겪어야 한다. 너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해야 결국 마지못해 하나님께 진심을 돌려 드릴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진실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고난과 연단 속에서 드러나며, 하나님이 사람의 사랑을 순결하게 만드는 것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천년하나님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를 간략하게 논하다

너희는 천년하나님나라(역주: 천년왕국)에 대한 이상(異象)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은 ‘천년하나님나라가 땅에서 천 년 동안 계속된다면, 교회에 있는 나이 많고 미혼인 사람들은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집에는 돈이 없는데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많은 생각에 잠긴다. 천년하나님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너희는 알고 있느냐? 사람들은 밝히 알지 못하다 보니 적지 않은 연단을 받았다. 사실, 천년하나님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도래하지 않았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단계에서 천년하나님나라는 그저 작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말씀한 ‘천년하나님나라’ 때에는 사람이 이미 온전케 된 상태다. 이전에, 사람들이 모두 거룩한 자같이 시님(원문: 秦國) 땅에 서게 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사람이 온전케 된 때, 즉 하나님이 말씀한 거룩한 자가 된 그때야말로 천년하나님나라가 도래한 때인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서, 정결케 할수록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더욱 온전케 된다. 네 내면의 더러운 성분과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성분, 육에 속한 것 모두가 제거되고 정결케 됐을 때,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거룩한 자)가 된다. 네가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는 천년하나님나라에 있게 된다. 지금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이다. 천년하나님나라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로 돌아오게 되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은 전화나 통신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활용하게 될 것이며, 너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모두 사람이 온전케 된 후의 일이다. 지금은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연단하며, 깨우쳐 주고 인도하는 때이다. 이때는 하나님나라시대이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단계이므로 천년하나님나라시대와는 아직 관련이 없다. 천년하나님나라시대는 사람이 이미

온전케 되어 사람 내면의 패괴 성품이 전부 정결케 된 때이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행한 모든 사역의 비밀을 전부 밝혀 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각 시대에 행한 사역과 매일 행한 사역, 그리고 사람 내면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이 영계에서 행한 사역, 영계의 움직임을 모두 사람에게 알려 줄 것이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말씀 시대이며, 지금은 작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사람이 온전케 되지 못하고 정결케 되지 못하면 땅에서 천 년 동안 살 수 없다. 육체는 필연적으로 썩기 마련이지만, 사람의 내면이 정결케 되고 사탄에게 속하는 육적인 것들이 없어지면 땅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너는 아직 꿰뚫어 볼 수 없다. 너희가 지금 체험하는 것은 땅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천년하나님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한 편의 예언에 속한다. 이는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과 비슷하며, 하나님이 이후의 일을 지금 예언한 것이다. 이후에 하나님이 할 말씀은 지금 하는 말씀과는 또 다르다. 이후에 하는 말씀은 시대를 인도하는 말씀이며, 지금 하는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하고, 연단하며, 책망하는 말씀이다. 이후의 말씀 시대는 지금의 말씀 시대와는 다르다. 지금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결국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람 내면의 더러움을 정결케 함으로써 사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하는 말씀과 이후에 하는 말씀은 서로 다르다. 하나님나라시대에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모든 훈련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며, 정결치 못한 것들은 전부 제거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는 사역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토대가 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며 사람의 내면에서 늘 깨우치고 인도해 주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서 책망하고 징계한다. 지금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되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공급한다. 너의 내면에 부족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깨우침을 얻는다. 이후에 하는 말씀은 전 우주의 사람을 인도한다. 지금은 오직 중국에서만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는 전 우주를 향해 하는 말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천년하나님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전 우주를 향해 음성을 발한다. 너는 하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 모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하는 말씀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비밀들을 알게 하거나 이적과 기사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방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천년하나님나라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천년하나님나라시대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날을 말한다. 유대에서

예수의 그 단계 사역이 완성된 후,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중국 대륙으로 옮겼다. 그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 너희에게 자신의 다른 한 부분 사역, 즉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며, 말씀으로 사람이 수많은 고통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받게 한다. 이 단계 사역에서 한 무리의 이기는 자들이 온전케 된다. 그가 한 무리의 이기는 자들을 온전케 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 낼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그를 만족케 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때, 그러니까 이 무리의 사람들을 온전케 했을 때가 바로 천년하나님나라시대이다.

예수는 땅에 와서 33년 반 동안 살았다. 그가 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였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의 일부를 얻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와서 자신을 낮추고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크나큰 고통도 견뎌 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그 모든 모욕과 비방, 그리고 크나큰 고통을 견디며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 사역을 이루었다. 그 단계 사역이 끝난 후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큰 영광을 얻은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서 하나님 영광의 일부만 얻었을 뿐이다. 예수는 온갖 고통을 견뎌고, 자신을 낮추고 감추었으며,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일부만 얻은 것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얻은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또 한 부분의 영광이 있다. 그것은 땅에 와서 실제적으로 사역하면서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 단계 사역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했지만, 그 단계의 사역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 단계에서 예수는 주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크나큰 고통을 견뎌 냈으며,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기꺼이 바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얻었고 사탄 앞에서 한 단계의 증거를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중국에 성육신하게 되었는지 알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얻은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수많은 정복 사역을 행하고 너희가 굳게 선다면 그의 이 단계 사역은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의 일부이며, 너희는 이것만 볼 뿐이다. 하지만 너희는 아직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지 못했고,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도 못했다. 너희는 아직 이 영광을 완전하게 보지 못했고, 그저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마음을 정복했다는 것만 보았을 뿐이다. 너희가 더 이상 그를 떠나지 못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보아야 할까?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에게서 이론 성과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실로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것을 보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많은 교회의 형제자매가 힘이 솟구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행한 사역의 위력이 지극히 크고 말씀의 위력도 비할 데 없으며, 말씀이 권병을 지니고 중국 대륙이라는 이 귀신의 성에서도 그의 사역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 사람은 연약하지만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보배롭게 여길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앞날과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부분의 영광을 모두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 하나님의 사역이 전부 완성되면, 중국 대륙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일단락된다. 즉,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사람들이 모두 온전케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두 번째 부분의 영광이 동방으로 옮겨졌지만,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사역을 동방에 가져왔다는 것은 그가 이미 동방에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하려고 하는 이상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중국에서 이 사역을 이룰 것이다. 그는 너희를 온전케 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지금 너희의 퇴로를 모두 막아 버렸다. 즉, 사람의 마음을 이미 정복한 것이다. 너는 가고 싶어도 가야 하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얻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이 아직 영광을 완전히 얻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아직 온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지만, 육체의 연약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부정적인 것들을 수없이 벗어 버리고, 또 앞으로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명 성품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은 만고불변의 이치이다. 특히 오늘날 성육신 하나님이 직접 사역하는 시대는 하나님을 알아 갈 좋은 기회다. 하나님을 만족케 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런 인식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지녀야 할

이상(異象)이자 토대이다. 사람에게 이런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고, 공허한 도리 속에서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 흐름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는 훗날 도태될 대상으로, 공밥을 먹는 사람이다. 네가 어느 단계의 사역을 체험하든 그에 따른 큰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새 사역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새 사역은 사람이 생각해 낼 수 없고 사람의 사고로 이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목자의 목양이나 이상에 대한 목자의 교제 없이는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이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새 사역도 이해하지 못하고, 새 사역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무(無)로 돌아가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확히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다. 이는 진리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할 점이자 하나님을 알아 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 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 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상을 아는 것은 성육신 하나님의 인성을 아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아는 것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 가는 첫걸음이며,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가장 깊게 믿을 때까지의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 가는 과정이자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네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 믿는 것이라면, 네 ‘믿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실체가 없고 순결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차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조금씩 성품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믿음도 점점 진실해진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토록 심혈을 기울여 두 번째로 육신을 입고 직접 사역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알고 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사역을 마칠 때 거둘 최종의 성과이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요구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증거를 위해서이며, 궁극적으로 인류가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 추구하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

\*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역) ‘하나님을 아는’ 이 단계 사역은

알아야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생기고, 참된 경외와 순종도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거나 경외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되지만, 어느 측면을 알든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마지막까지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고정 관념에 너무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은 사람이 알기 아주 어려우며,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나 행동 하나도 사람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꺼린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많은 사역을 했고, 사람의 관념이 치유받기 힘든 많은 말씀을 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사람들의 고충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자신의 사역을 멈춘 적이 없으며, 계속 사역하고 계속 말씀해 왔다. 수많은 ‘용사’가 쓰러졌지만 그는 계속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새 사역에 기꺼이 순종하는 한 무리 또 한 무리의 사람을 끊임없이 택하고 있다. 그는 쓰러진 ‘영웅호걸’을 전혀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반면, 그의 새 사역과 새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귀히 여긴다. 그런데 그의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느냐? 그는 왜 늘 사람을 도태시키기도 하고 택하기도 하겠느냐? 왜 항상 이런 방식을 택하겠느냐? 그가 사역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그로 인해 그에게 얻어지게 하는 데 있다. 그의 사역 원칙은 그의 현재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역하고, 과거 사역에는 순종하나 현재 사역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사역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태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공과는 하루 이틀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은 체험하고 고난받고 참되게 순종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없고, 또 단시간 내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모두 필요한 체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거나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사역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요소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고정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수록 사람은 그에 대해 더 새롭고 깊게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역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앎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율법시대에 한 것은 무엇이고, 은혜시대에 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한 것은 또 무엇인지, 이런 이상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게 된 후에야 예수에게 행해진 영의 많은 사역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의 체험으로는 완전하게 알 수 없나니 하나님을 알게 해 주는 하나님 사역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하니라.”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를 사도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했지, 그리스도로 여기지는 않았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를 때, 예수가 그에게 물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날 따르길 원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면 꼭 따를 것이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면 인정하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베드로의 말에서 그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자신을 책망하며 하나님을 위해 고통받았으나, 하나님의 사역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얼마 동안 체험한 후, 그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수많은 행사와 사랑스러움을 보았고, 예수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이 더없이 많다는 것을 보았다. 예수가 하는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었고, 예수가 하는 사역은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많은 지혜와 신성의 사역을 보았다. 베드로는 체험 속에서 자기 자신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든 행사를 중요시하고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수없이 발견했다. 즉,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행한 사역에는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있었고, 예수가 한 말씀과 행한 일, 교회들에 대한 목양, 그리고 예수가 한 사역은 일반인과 달랐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마땅히 배워야 할 많은 공과를 배우게 되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예수에게 평생 동안 충성하고 주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토대가 되었다. 베드로도 관념을 조금 가지고 있어 초기에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된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일이다. 예수는 떠날 즈음에 베드로에게, 자신이 와서 하려는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는 반드시 시대에 버림받을 것이고, 더러운 옛 시대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또한 자신이 온 것은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역을 마치면 자신의 직분도 끝나게 된다고 말이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괴로워했고, 예수와의 이별을 몹시 아쉬워했으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뒤에서 통곡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에게 물었다. “내 주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셨는데 가시면 또 언제 저희와 만나시리이까?” 베드로의 말 속에는 불순물이 있지 않느냐? 관념이 있지 않느냐? 베드로는 예수가 한 부분 사역을 완성하러 왔고, 예수가 떠난 후 영이 자신과 함께할 것이며,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늘에 올라갔어도 하나님의 영은 자신과 함께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 보낸 분이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있으니 그는 하나님 자신이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을 관찰하고 세심하게 체험하기만 하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게 된다. 바울은 무엇을 이상으로 여겼느냐? 예수가 바울에게 나타나자 바울이 물었다. “주여 뉘시오나이까?” 예수가 말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베드로는 예수가 부활한 후 40일 동안 나타난 것과 예수의 생전 가르침을 이상으로 여겨 끝까지 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생명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다. 네가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자신의 패괴 성품을 다스리는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얼마나 큰 구원이 있는지,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어떻게 보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체험이다. 네가 단순히 진리를 실행하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해서 생명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 생명의 진정한 함의와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근본 취지를 아직 모르는 것이다. 언젠가 너는 예배당에서, 오회파(懊悔派)에서, 생명파에서 경건한 사람을 수없이 만날 것이다. 그들의 기도에는 ‘이상’이 있고, 생명 추구에는 감동과 말씀의 인도가 있다. 또 그들은 많은 일에서 인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육체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너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들이 모두 옳게 행동하고 있고, 모두가 생명의 자연스러운 표출이지만 아쉽게도 믿는 이름이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관점 아니겠느냐? 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하겠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생명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이 어느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실재, 하나님이 하는 모든 단계의 사역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너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너의 그런 체험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예수 그 단계에는 어떻게 했고 이 단계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은혜시대에는 어떻게 했고 무슨 사역을 했는지, 이 단계에는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등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너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얼마 동안 체험해서 하나님이 행한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단계 사역의 절차를 알 수 있다면, 또 하나님 말씀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렇게 많은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확실하게 인식한다면, 마음을 놓고 대담하게 앞길을 추구할 수 있으며 걱정하지 않고 연단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봐야 한다. 바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사람을 연단하고 사람의 고정 관념을 돌려놓는다. 너희가 받은 고통과 너희가 겪은 연단, 내면에서 받은 책망, 체험한 깨우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하기 그지없으며,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 과거의 일을 알고 미래의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고통받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된다. 그때에야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온전케 되든, 연단을 받든 핵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자 오늘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상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모두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앎을 기반으로 생명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사람은 훈계와 연단을 겪을수록 힘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사역 절차가 많을수록 더 온전케 된다. 오늘날의 체험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단계 사역이 사람의 고정 관념에 상반되며, 모두 사람의 사유로는 이를 수 없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함에 있어, 모든 면이 사람의 고정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네가 연약할 때 음성을 발하고 말씀을 한다. 이렇게 해야 네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네 고정 관념을 깨 네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게 한다. 이렇게 해야 네가 패괴를 벗어 버릴 수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신성으로 사역하기도 하고 정상 인성으로 사역하기도 한다. 너는 하나님이 한 모든 사역을 부정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정상 인성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행하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며, 그가 아무리 정상적이라 해도 순종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 네게 실제 체험이 있어야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어떤 관념도 없이 끝까지 따를 수 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사역하며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또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그의 말씀은 너의 치명적인 약점을 찌를 수 있지만, 그는 또 자신의 위엄 있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네가 그를 증거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묘한 행사이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의 사고로는 이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육에 속한 사람에게 어떤 패괴가 있는지, 어떤 본질적인 것이 있는지를 드러내어 사람을 몹시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의

증거를 위한 것이다. 그가 사람의 패괴 성품을 심판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의 거스를 수 없는 공의 성품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낡은 인식에서 새로운 인식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그의 증거와 그의 경영을 위해, 그는 자신의 전부를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의 공개적인 현현으로 그를 알게 하고, 성품 변화를 이루며, 그를 힘 있게 증거하게 한다.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변화된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도 없다. 사람의 성품 변화는 사람이 이미 사탄의 속박과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 사역의 모델과 표본이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으며,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며 사람들에게 한 요구는 바로 그를 알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증거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사역을 알라는 것이요, 사람의 고정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그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그의 모든 사역과 사람을 정복하는 모든 행사를 증거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 증거야말로 정확하고 실제적이며, 사탄을 수치스럽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를 겪고 그를 알게 된 자를 통해 그를 증거하게 한다. 그는 사탄에 의해 패괴된 자를 통해 그를 증거하게 하고, 성품 변화로 그의 축복을 받은 자를 통해 그를 증거하게 한다. 그는 사람의 입에 발린 찬양을 바라지 않고, 그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부류가 그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성품이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의로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 간 과정

베드로는 예수와 접촉하면서 예수에게 사랑스러운 점과 본받을 점, 공급받을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함과 사랑스러운 점을 많이 발견했다. 그러나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다. 베드로는 20세부터 6년 동안 예수를 따랐는데, 그 기간 동안 줄곧 예수를 알지 못했다. 그저 예수에게 감복하여 따르기를 원했을 뿐이다. 예수는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날 따르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베드로는 “당신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면 꼭 따를 것이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면 인정하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라고 대답했다.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라는 분이 가장 큰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들은 바 있었다. 그는 늘 예수를 찾아가고 싶어 했고, 기회를 보아 예수를 만나길 원했다(당시에 성령이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으며,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으로 예수를 사모하고 앙망하게 되면서 언젠가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럼 예수는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게 되었을까? 예수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부른 것이지, “갈릴리 해변으로 가면 바요나 시몬이라는 자가 있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예수는 어떤 사람에게, 바요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역시 천국의 복음을 설파하고 다닌다는 것을,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크게 감동받았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는 곧바로 그 사람을 따라 갈릴리 해변으로 갔고,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은 후 바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를 때 예수에 대해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자신의 시각으로 판단했다. 그는 영에 대해 조금 인식이 있기는 했지만 분명히 알지는 못하였기에, “당신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면 꼭 따를 것이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면 인정하옵니다.”라는 말을 했다. 그는 예수가 행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명확히 알지도 못했다. 그는 한동안 예수를 따른 후 예수가 하는 사역과 말씀에 관심이 생겼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흥미가 생겼다. 베드로는 예수가 친근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하여 그와 접촉하고 함께하기를 원했으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공급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동안 예수가 한 일과 말씀, 행동, 표정 등 예수의 모든 생활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겼다. 그는 예수가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예수는 겉보기에 매우 평범한 인성을 지닌 것 같았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 관용이 넘쳤으며, 그가 행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은 모두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그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것을 얻었다. 그는 예수에게 위대한 외형이나 비상한 인성은 없어도 예사롭지 않은 특별한 기운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는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의 행동이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다는 점을 알았다. 예수가 행하는 일이 평범한 사람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와 접촉하면서 예수의 성격도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는 일을 행함에 있어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했으며, 과장하거나 축소시켜 말씀하지도 않았다. 일상에서도 평범하지만 사람들의 선망을 자아내는 그의 성격이 표출되었다. 예수는 언행이 솔직하고 대범하며 쾌활하고 침착했지만 사역할 때는 존엄을 잃지 않았다. 베드로가 본 예수는 때로는 말씀을 아끼고 때로는 유창하고 막힘없이 말씀했다. 때로는 아주 기뻐했는데, 그럴 때면 흰 비둘기처럼 기운차고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때로는 슬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럴 때면 온갖 고생을 겪은 어머니처럼 슬퍼하였다. 때로는 용맹한 전사가 적을 무찌르는 것처럼, 때로는 심지어 포효하는 사자처럼 분노하였다. 또 때로는 환히 웃었고 때로는 슬피 울며 기도하였다. 예수가 어떻게 생활하든 베드로는 그를 끝없이 존경하고 사랑했다. 베드로는 예수가 기뻐하는 모습에 즐거워했고, 예수가 우울해하는 모습에 비통해했으며, 예수가 노여워하는 모습에 전전긍긍했다. 예수의 긍휼과 용서, 사람에 대한 엄격한 요구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경외하고 사모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들은 전부 베드로가 예수와 여러 해를 함께 보내며 차츰 알게 된 것이었다.

베드로는 매우 이성적이며 총명함과 영민함을 타고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따르며 어리석은 일도 적지 않게 했다. 처음에 그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다. 그는 “모두가 당신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당신은 8살이 되어 철이 들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셨나이까?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아셨나이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나는 모르니라. 내가 지극히 평범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 나는 평범한 사람과 똑같으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은 정상인이시지 비범한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하는 사역은 내 아버지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나의 모습, 즉 나라는 사람과 이 육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대변할 수 있느니라. 비록 내가 영으로부터 왔으나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아버지께서는 나를 비범한 존재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느니라.”라고 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예수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 그 후 예수가 수많은 사역을 행하며 가르쳐 주고 붙들여 주고 목양해 주자 베드로는 비로소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예수는 30세가 되던 해에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에 대해 알려 주었다. 즉, 자신은 한 단계의 사역을 하러 왔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할 것이라고 알려 준 것이다. 또한 베드로에게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며, 부활한 후 사람들 앞에 40일 동안 나타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슬퍼했고, 언제나 그 일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와 더욱 가까워졌다. 한동안 체험한 후 베드로는 예수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임을 깨달았으며, 예수가 매우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이런 인식이 생기자 성령이 비로소 그의 내면에서 깨우쳐 주었다. 예수는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에게 물었다. “요한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모세이시나이다.” 예수가 다시 누가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 누가는 “당신은 가장 큰 선지자이시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예수가 다시 한 여인에게 물으니, 그 여인은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많은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선지자이시나이다. 누구도 당신보다 정확히 예언하지 못했고, 누구도 당신보다 많이 알지 못하나이다. 당신은 선지자이시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예수가

다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당신은 하늘에서 오셨으며 땅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나이다. 우리는 땅에 있고 당신께서도 우리와 함께 땅에 계시지만, 당신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며 결코 이 세상과 땅에 속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성령이 그의 체험을 통해 깨우쳐 주었기에 베드로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는 성령의 깨우침을 얻은 후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일에 더욱 감복하고 예수를 더욱 사랑스럽게 생각했으며, 예수와 헤어지기 아쉬워하였다. 그랬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한 후 베드로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자 몹시 기뻐 “주여! 부활하셨나이까!”라고 외치고 울면서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아 요리해 드렸다. 예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였음을 알았지만 그 안의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잡은 물고기로 요리를 해서 올리자 예수는 거절하지도 별다른 말씀을 하지도 않았으며, 자리에 앉아서 먹지도 않더니 홀연히 사라졌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깜짝 놀라 부활 이후의 예수가 부활 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주님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였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 단계의 사역을 마침으로써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끝났으며,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가 마신 쟁잔을 너도 마셔야 하느니라(이는 예수가 부활 후에 한 말임). 내가 간 길을 너도 가야 하느니라.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느니라.”라고 알려 준 바 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았다. 은혜시대에 성령 역사는 매우 은밀하여 베드로 역시 많은 고난을 겪었다. 때로는 정도가 심해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다. “하나님, 저에겐 목숨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제 목숨이 당신의 손에서는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당신께 바치길 원하옵니다. 인간은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고 인간의 사랑과 마음 역시 보잘것없지만, 당신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아시리라 믿나이다. 인간의 육체는 당신께 열납될 수 없지만 저의 마음은 열납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는 이런 기도를 올리며 격려받았다. 특히 “제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길 원하지만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지만 충성을 다해 당신을 만족게 해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위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제 이런 마음을 감찰하실 것이라 믿사옵니다.”라는 기도는 더욱 그러했다. 또한 그는 “저는 평생 그 무엇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제 바램을 하나님께서 열납하시기만을 바라옵나이다. 저는 주님과 그렇게 긴 시간 함께 지냈어도 사랑한 적이 없나이다. 이 점이 가장 죄스럽나이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했고,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나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님께 더욱 죄스러울 따름이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이런 면에서 “저는 진토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제게는 하나님께 바칠 충성스러운 마음밖에 없나이다.”라고 기도했다.

베드로에게는 절정에 이른 체험이 있었다. 그때 그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가 내면에서 여전히 그를 격려하며 그의 앞에 한 번 나타났다. 베드로가 몹시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낄 때, 예수는 그에게 알려 주었다. “너는 전에 나와 함께 땅에 있었고 나 역시 너와 함께 땅에 있었느니라. 우리는 예전에 함께 하늘에 있었지만 어쨌든 그곳은 영계에 속하느니라. 이제 나는 영계로 돌아갔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나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에 너 역시 땅에 속하지 않지만 너는 땅에서 네 역할을 다해야 하느니라. 너는 종이 되었으니 네 본분을 다해야 하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에 위안을 얻었다. 당시 그는 극도의 육체적 고통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너무나 후회스러웠던 그는 “저는 너무 패괴되어 하나님을 흠족게 할 수 없나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예수는 그의 앞에 나타나 “베드로야, 내 앞에서 세웠던 뜻을 잊었느냐? 내가 한 말들을 정말 잊었느냐? 예전에 나와 함께 세웠던 뜻을 잊었느냐?”라고 물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수는 그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땅에 속하지 않는다고 너에게 이미 알려 주었으니 너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 또한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니라’라고 했던 말을 잊은 것이냐?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사람과 하나님이 같은 세상에 있을 수는 없지만, 내게는 나의 일이, 네게는 너의 일이 있느니라. 네가 네 일을 마치는 날 우리는 분명 같은 경지에 있을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위안을 받고 마음이 놓였다. 그는 그 고통을 마땅히 받아야 하고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그는 깨우침을 받게 되었다. 예수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특별히 베드로 앞에 나타나 그를 깨우쳐 주고 인도하며, 그에게 수많은 사역을 행하였다. 베드로가 어떤 일 때문에 가장 후회했겠느냐? 예수가 그에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다(하지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다르다).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대답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 베드로는 예수가 한 그 말의 뜻을 알고 “주여! 저는 예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했으나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음을 시인하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예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땅에 거하는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지

앓는다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땅에 온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니라.”라고 말씀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는 예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했으나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나이다.”라고 한 이 말을 늘 후회하고 통곡했으며,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는 이 일로 더욱 후회하며 슬퍼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사역과 자신의 현재 분량을 생각하며 자주 예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후회하고 죄스러워했다. 이러한 일들은 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저의 가장 귀한 것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제게는 믿음과 사랑밖에 없나이다. 제 목숨과 육체는 보잘것없나이다. 제게는 오직 믿음과 사랑밖에 없나이다. 당신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제 믿음과 사랑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에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느니라. 너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니라.”라고 한 말씀에 특히 격려를 받았다. 후에 베드로가 매우 고통스러워하자 예수는 “베드로야, 잊었느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느니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먼저 갔을 뿐이니라. 너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니라. 이를 정말 잊었느냐? 내가 너에게 두 번 말했거늘 기억 못하는 것이냐?”라고 일깨워 주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잊지 않았나이다!”라고 답하니, 예수는 다시 이렇게 말씀했다. “전에 나와 하늘에서 즐거운 만남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한동안 함께했느니라. 너도 나를 그리워하고 나도 너를 그리워하느니라. 피조물이 내 눈에 보잘것없게 보일지라도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한 약속을 잊었느냐? 너는 땅에서 내가 맡긴 사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내가 맡긴 사명을 완수해야 하느니라. 언젠가 내가 반드시 너를 내 곁으로 데려올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더 큰 격려와 깨우침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당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하기만 하나이다! 당신이 제게 죽으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나이다. 제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시든, 당신의 이전 약속대로 이루시든 이루지 아니하시든, 당신께서 앞으로 어찌하시든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겠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가 지킨 것은 믿음이요, 진정한 사랑이었다.

어느 날 밤, 제자 몇 명과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고깃배를 타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 정말 유치한 질문을 던졌다. “주여!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문이 있어 당신께

여쭙보고 싶나이다.” 예수가 “무슨 질문인지 해 보아라!”라고 말하자, 그는 “율법시대의 사역은 당신이 하신 것이나이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이 아이는 너무 어리구나!’라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예수가 일부러 “그것은 내가 행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고 모세가 한 일이니라.”라고 대답하자, 베드로는 “아! 당신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군요.”라고 말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베드로는 속으로 ‘당신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오시더니 율법을 모두 폐하신 거였어요. 당신께서 하신 일이 아니어서 그렇군요.’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음도 ‘편안’해졌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는 베드로가 너무 어리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에는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도 말을 아끼며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한번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도 자리에 있었다. 예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오셔서 은혜시대에 구속 사역을 하시고, 전 인류를 속량하여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인류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는 결코 규례에 얽매이지 않느니라. 그분은 율법에서 나와 은혜시대로 나아가실 것이니라. 그분은 전 인류를 속량하고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나아가려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모르느니라. 그분은 본래 여호와로부터 오셨느니라. 모세가 행한 사역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것으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사역에 따라 율법을 세웠느니라.”라고 설교하였다. 예수는 이 말씀을 마친 후 다시 “은혜시대에 은혜시대 계명을 폐한 자들은 화를 입을지니라.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며, 반드시 불길이 그들에게 떨어질 날이 있으리라.”라고 덧붙였다. 당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간 느끼는 바가 있었다. 한동안 체험하는 중에, 예수가 베드로에게 목양하고 붙들어 주는 사역을 행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자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 그날 예수가 했던 설교를 떠올리고, 또 고깃배에서 예수께 던졌던 질문과 예수의 대답, 그리고 예수의 웃음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 후 성령이 깨우쳐 주자 그는 비로소 예수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베드로의 깨달음은 성령의 깨우침에서 비롯되었으나 과정이 있었다. 그의 질문과 예수의 설교, 후에 예수가 그에게 특별히 해 준 교제와 목양을 통해 그는 예수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고, 그것은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에 도움이 되었다. 예수는 왜 온전케 하는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했겠느냐?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다른 이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제자들 역시 예수를 따르며 많은 것들을 깨달았지만 그 깊이가 깊지 못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예수께 온전케 되는 표본이 되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오늘날 사람의 모든 깨달음과 생명 진입은 베드로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다 이 요구와 이 길에 따라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왜 지금 사람에게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겠느냐? 베드로가 겪은 것을 너희도 겪어야 하고, 베드로가 체험을 통해 얻은 성과가 너희에게도 나타나야 하며, 베드로가 겪은 고통을 너희도 반드시 겪어야 한다. 너희가 가는 길은 베드로가 간 길이며, 너희가 겪는 고통은 베드로가 겪은 고통이다. 너희가 영광을 얻고 진정한 인생을 살 때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이다. 길은 똑같으며 이 길에 따라 온전케 되겠지만 너희는 베드로보다 자질이 부족하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파괴된 정도 역시 다르며, 또한 유대는 유구한 고대 문화를 지닌 국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최선을 다해 자질을 높여야 한다.

베드로는 상당히 지혜로우며, 무슨 일을 하든 매우 예리했고 정직했다. 그는 많은 충격을 받았다. 14세 때는 사회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학업을 쌓는 한편 회당에 드나들었다. 그는 아주 열정적이었고 언제나 예배드리길 원했다. 당시는 은혜시대가 막 시작되었을 뿐, 예수가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하지는 않은 시점이었다. 베드로는 14세 때 종교 인사와 접촉하기 시작했고, 18세 때는 종교계의 고위 인사들과 접촉한 후 종교 내부의 혼란한 실정을 보게 되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종교계 고위층들이 교활하게 거짓을 일삼고 암투를 벌이는 짓에 극도로 염증을 느꼈다(당시에 성령이 그렇게 행했다. 그를 온전케 하려고 특별히 그를 감동시켰고, 특별한 사역을 행했다.). 그래서 18세 때 회당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부모가 그를 핍박하면서 신앙을 금지하자(그의 부모는 마귀, 불신파에 속했다) 결국 베드로는 집을 떠나 곳곳을 떠돌며 고기를 잡는 한편 전도를 했다. 그는 2년 동안 전도하며 많은 사람을 이끌었다. 이제 너는 베드로가 간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보아야 한다. 베드로가 간 길을 분명히 보았다면 지금의 사역을 확신하게 될 것이며, 불평을 터트리거나 소극적이 되지 않고 뭔가를 바라지도 않게 될 것이다. 너는 베드로의 그때 심정을 체험해야 한다. 그는 몹시 괴로워 죽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어도 좋은 미래나 복받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한, 그는 세상의 명예나 복, 부귀영화를 좇지 않았으며, 그저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즉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종종 예수께 기도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나이다. 비록 입으로는 당신을 믿는다고 떠들었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저는 그저 당신을 앙망하고 우러러보고 그리워했을 뿐 당신을 사랑하지도 진심으로 믿지도 않았나이다.” 그는 항상 기도하며 뜻을 세웠고, 언제나 예수의 말씀에 격려를 받으며 이를 동력으로 삼았다. 한동안 체험한 후, 예수가 베드로에게 시련을 주자 그는 예수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너무도 그립고 뵙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당신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나이다. 저를 빨리 데려가 주소서. 언제쯤에야 제가 필요하겠나이까? 언제쯤에야 저를 데려가시겠나이까? 언제쯤에야 당신의 얼굴을 다시 뵈 수 있나이까? 저는 더 이상 육체에 살길 원하지 않으며, 더 이상 패괴되지 않고 거역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제 모든 것을 당신께 전부 바치길 원하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나이다.” 그는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으나 예수가 그에게서 무엇을 온전케 하려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시련을 받고 극도로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서 말씀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온전케 하여 한 알의 열매로 만들 것이니라. 그것은 내가 온전케 한 후의 결정체로, 난 그것을 누릴 것이니라. 너는 정말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네게 하라는 일을 하였느냐? 내가 한 말을 살아 났느냐?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나를 사랑했으나 나를 살아 났느냐?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일을 떠올리며 불평을 멈추었다. 다시 기도할 때는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는 다시 기도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당신을 떠난 적이 있고, 당신도 저를 떠나신 적이 있나이다. 우리는 이별했던 때도 함께했을 때도 있지만 당신은 그 무엇보다 저를 사랑하셨나이다. 저는 여러 번 당신을 거역하고 여러 번 당신을 슬프게 했나이다. 이를 어찌 잊을 수 있겠나이까? 저는 당신이 제게 행하신 사역과 제게 맡기신 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당신께서 제게 행하신 사역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나이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는지는 당신께서 더 잘 아실 것이옵니다. 저를 당신의 지배에 맡기길 원하옵고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길 원하옵나이다.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만이 아시나이다. 사탄이 이렇게 저를 우롱하고, 저 역시 당신을 거역한 적이 있으나 당신께서는 그런 이유로 저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런 것들로 저를 대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사옵니다. 저는 제 일생을 당신께 바치길 원하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바람이나 계획도 없사옵니다. 오직 당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행하길 원할 뿐이옵니다. 저는 당신의 쓴잔을 마시고, 저 자신을 당신의 지배에 맡기길 원하나이다.”

너희는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 너희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느 날 시련이 임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너희가 베드로의 체험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너희가 베드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베드로 역시 진실한 믿음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정직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케 되었다. 너에게 정말로 베드로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너도 반드시 예수께 온전케 될 것이다.

##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본질은 종교적인 신앙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한다. 사람은 그저 로봇처럼 하나님을 따를 줄만 알 뿐, 하나님을 진실로 흠모하거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따를 뿐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고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사람은 그저 재난이 닥치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탄’할 뿐이다. 사람의 경외와 감탄에는 사랑이나 진실한 흠모는 조금도 들어 있지 않다. 사람은 다 체험 과정에서 진리의 구체적인 부분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밀들을 찾는다. 많은 사람이 그저 하나님을 따르면서 복을 받기 위해 기회만 노리고 있을 뿐,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생애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으며, 다 개인적인 타산과 추구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많은 사람이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진실한 믿음도 없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른다.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면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사랑할 하나님이라는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면은 그의 사역에서 드러난다. 사람은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그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고, 오직 실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면은 아주 많지만, 사람이 그와 실제로 접촉하지 않는다면 발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실제로 접촉할 수 없고, 하나님과

실제로 접촉하지 못하면 그의 사역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에 너무나 많은 거짓과 상상이 섞이게 된다.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사람의 상상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사람이 직접 본 것도,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땅에 올 때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 행사와 그의 사랑스러운 면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모든 성품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 몇천 배는 실제적이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사랑은 조금도 실제적이지 않으며 사람의 뜻으로 가득하다. 땅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사랑은 모두 실제적이다. 설령 그것이 아주 미미한 사랑일지라도 실제적이다. 하나님은 실제 사역을 통해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런 인식들을 통해 사람의 사랑을 얻는다. 베드로처럼 말이다. 그가 예수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에 대한 그의 충성심 역시 예수와의 접촉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친히 세상에 임하여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실재를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한다.

하나님은 실제와 임하는 사실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부를 온전케 하는 것은 인도하고 길을 여는 사역에 속한다. 다시 말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고, 이상(異象) 부분에 대한 인식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이런 것을 깨달음으로써 실제 실행에 길이 생기고 이상을 갖추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얻고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며, 많은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깨달은 뒤에는 즉시 실제에 진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게 된다. 하나님은 매사에 너를 인도하여 네게 실행할 길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는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이 모두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임을 보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고 진실로 체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실제에 깊이 들어가고 실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사랑이요 구원이며, 다 정결하지 않은 것을 벗어 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없는, 사람 안의 것을 연단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공급하는 한편, 실생활에서 환경을 마련해 주어 체험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신다면, 실제로 실행할 때 하나님의 많은 말씀으로 삶 속의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실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실생활에서 길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너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만 알 뿐, 조금도 분별할 줄 모르고 실행할 길도 전혀 없으며, 뭐가 뭔지 몰라 때로는 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것이라 착각하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아 생기는 결과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의 도움 없이 현실 속에서 모색하기만 하면 실행의 길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과 인도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모색하고 구하면서 실행해야 할 것을 발견하고 성령이 역사할 기회를 찾아 하나님과 진실하게 협력하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실생활에서 길이 생기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족게 하면 네 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축복하여 즐거움이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을 만족게 한 것이 아주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내면이 매우 밝아지며, 마음이 환하고도 편안해질 것이다. 또한 양심이 위안을 얻고 참소받지 않으며, 형제자매를 봐도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다고 하며, 이렇게 되어야 진실로 하나님을 누리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난을 받고 진리를 실행하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만약 네가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고만 말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참으로 많은 대가를 치렀으며 간곡하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면서 계속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고만 말한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일면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람은 실생활에서 진리를 실행함으로써 실제적인 것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고도 환해지고 내면이 매우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아주 사랑스럽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너는 자신이 치른 대가가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심혈을 기울인 뒤에는 내면이 특히 밝아져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다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는 것은 정결케 하기 위함이고, 시련을 주는 것은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네가 항상 이렇게 진리를 실행한다면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앞에서 수정처럼 투명하다고 느낄 것이다. 많은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면, 이 일도 저 일도 실행하기 쉽다고 느끼고, 이 일도 저 시험도 이겨 낼 수 있다고 느끼며, 모든 일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어 매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데,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이상(異象)이 있고 진리가 있으며 인식이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생활에서 진리를 실행해야 하고, 가슴 아파하며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만족케 하려는 마음과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또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가 그런 고통을 받고 난 뒤에는 성령 역사를 얻게 된다. 실생활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해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진리를 실행할수록 진리를 갖추게 되고, 진리를 실행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며, 진리를 실행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항상 이렇게 실행한다면 하나님은 네게 그의 사랑을 조금씩 보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실제 사역을 행하시는 지혜가 있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나이다. 더욱이 사람을 창조하고 구원하며 온전케 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 사람이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랑할 만한 면이 아주 많나이다.” 베드로는 예수에게 “당신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실 만한 것이 어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이겠나이까? 당신께서는 사랑스러운 면이 더 많이 있나이다. 실생활에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과 당신의 영이 제 안에서 감동시키고 저를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이런 것들은 더욱 사랑할 가치가 있나이다.”라고 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체험하려면, 실생활에서 모색하고 구해야 하며 기꺼이 육을 버리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의지 있는 사람이 되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나태하지 않고 육적인 즐거움을 탐하지 않으며,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번에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니, 다음번에는 힘을 좀 쓰더라도 하나님을 만족케 해야지, 육을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체험하는 과정에서 너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고, 성육신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실제로 접할 수 있게 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영은 실생활에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그의 사랑스러운 면을 보게 하고, 그의 징계와 채찍질, 그리고 축복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늘 이렇게 체험한다면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게 된다.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이 된다면, 너는 가책을 받고 자신을 뉘우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엔가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고 말하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기초가 생긴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사람은 흔히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정도까지 체험하지 못했다. 단지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요 날마다 너를 인도하니, 네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 된다고만 말할 뿐이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인식이 너무나 얕박하다. 많은 사람의 내면에는 아직 기초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심기만 했을 뿐, 아직 싹이 트지 않았고 열매는 더더욱 맺히지 않았다. 지금 너는 어느 정도까지 체험했느냐? 하나님이 떠밀어 이 정도까지 오게 한 지금에야 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다. 언젠가 어느 정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더러 가라고 해도 떠날 수 없을 것이고, 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느낄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아들딸, 가족, 부모, 그리고 육적인 즐거움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느낄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간 것과 같다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정도까지 체험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되고 네 생존의 토대가 되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된다. 네가 그 정도까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누린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요 너의 사랑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저는 이미 당신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저의 생명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지만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참된 분량이요 실제 생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떠밀려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가고 싶은 가기 싫든 다 가야 하기에 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한다. 너는 하나님이 곧 너의 생명이므로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두어 간다면 생명을 빼앗긴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곧 너의 생명이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느낄 정도까지 체험해야 한다. 그러면 너는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요 하나뿐인 순결한 사랑이다. 계속 체험해 어느 날 네 생명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기도하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잊고자 해도 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된 후에는 세상을 잊고 아내나 남편, 아들딸을 잊으라는 것은 괜찮아도 하나님을 잊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되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너의 참된

생명이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게 되면, 그 무엇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초월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앞에 두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책망과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네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실제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생명이 되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 아니겠느냐?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다! 하나님이 어느 단계까지 사역하여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하고, 형벌하거나 죽게 하겠다고 말해도 사람이 떠나가지 않게 된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정복된 것이다. 실제 체험 속에서 굳게 설 수 있고, 입장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정상 관계가 있다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실행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 즉, 사람이 살아 내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증거이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 네가 이 정도까지 체험했다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살아 내는 것이 있어 일거수일투족은 다른 사람의 탄복을 자아낸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겉면의 차림새는 평범하지만 매우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의 인도와 깨우침이 있다. 또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고 실재를 나눌 수 있으며 영적으로 섬기는 많은 일에 대해 알 수 있다. 대범하게 말하고, 단정하고 올바르며, 다툼을 벌이지도 방종하지도 않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하고 굳게 설 수 있다. 무슨 일을 처리하든 믿음직하고 침착하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리지만, 겉면의 행동이 중년처럼 성숙하고 진리가 있어 모두가 탄복한다. 이런 사람은 간증이 있으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까지 체험하면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외적인 성품도 안정된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지 않기에 굳게 서지 못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증거가 없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증오한다. 그가 예배 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살아 내는 것은 사탄이다. 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자 하나님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으며, 성령 역사가 전혀 없으므로 언행이 다 사탄을 대변한다. 네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주위 사람이나 일 그리고 사물에 늘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다면, 또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네 안에서 수시로 깨우쳐 줄 것이다. 교회에는 ‘감독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고 따라 배우며 모방한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죄를 혐오하지 않으며, 사탄에게 속하는 것들을 증오하지 않고 역겨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의 내면은 사탄의 것들로 가득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말하고 일할 때는 분수를 알아야 하며,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상심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고, 이전에 받은 고통과 이전에 실행한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며, 앞으로의 길에서 더욱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이상(異象)을 토대로 한 사람이고, 진보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며, 그가 살아 내는 것은 진리이고, 증거하는 것 또한 진리와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헌신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글귀와 상상으로 그를 사랑하게 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이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한다. 그의 사역과 말씀에서 그의 사랑스러움을 보게 한 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게 한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증거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가 선동해서가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면을 보았고, 하나님께 사람이 사랑할 만한 면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행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찬미가 우러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모의 마음이 우러나오며,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걱정이 일어나게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과 사모의 마음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또 감정적인 충동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증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하나님의 실재를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이고 실재가 있으며 실재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피동적인 것도,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역과 경영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살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을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증인이며,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기(知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랑할 만한 분이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온 힘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하를 두루 다녀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 사람들은 모두 땅에서 왕권을 잡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고, 언어와 피부색은 달라도 같은 삶의 의미를 갖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또 모두 똑같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고, 공통된 의지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하를 두루 다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전 우주를 횡단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 것이다.

##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영 안의 세세한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성령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탄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악령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것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일이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순종해야 할지 아니면 저버려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은 실제 실천 과정에서 늘 사람의 뜻에서 나온 많은 것들을 성령에게서 나왔다고 여기고, 악령에게서 온 것들을 성령에게서 온 것이라고 여긴다. 가끔은 성령이 안에서 인도하는 것임에도 그것이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일까 두려워 순종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성령의 깨우침이다. 그러므로 분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실제 체험 과정에서 체험을 할 수 없고, 체험 중에 분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악령은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무엇이 사람의 뜻에서 온 것이냐? 무엇이 성령의 인도와 깨우침에서 비롯된 것이냐? 성령이 사람에게 행하는 역사의 법칙을 찾아내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실제 체험 속에서 식견을 키우고 분별력을 갖출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탄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다. 또한, 순종하고 추구함에 있어 흐리멍덩하지 않으며,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 성령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하고 올바르게 깨우쳐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위안을 얻게 해 준다. 또한, 사람에게 믿음과 의지를 심어 주어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기를 추구할 수 있게 해 준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은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할 수 있으며, 수동적인 것도, 강제적인 것도 아닌 자발적인 태도로 진입할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요, 기꺼이 순종하며 자신을 낮춘다. 내적으로 고통스럽고 연약할지라도 협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며 순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람의 뜻도, 사람의 생각도, 나아가 사람의 기대나 속셈도 섞여 있지 않다. 성령 역사를 체험할 때 사람의 내면은 매우 성결해진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을 혐오하는 삶을 산다.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시키는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성을 갖춘 데다 평소에 진리를 추구하고 인성이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사람의 상태는 갈수록 좋아지고, 인간성은 갈수록 정상이 된다. 미련한 협력도 있겠지만 그것은 방해를 위한 것도,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닌,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다. 그래서 정상인의 생활 법칙에 따라 사람에게 역사하고, 정상인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에 맞춰 사람의 내면을 깨우치고 인도한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정상인의 필요에 맞춰 인도하고 깨우치며, 사람의 필요에 맞춰 공급하고, 사람의 결핍함과 부족함에 맞춰 적극적인 면에서 인도하고 깨우친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실생활에서 사람을 깨우치고 인도하기에 사람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만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이 적극적인 상태에 있고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격려를 받는다. 또한, 어떤 일을 마주하든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일에서 너는 하나님이 배우라는 공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소극적이거나 연약해지지 않고,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길 바라게 된다.

성령 역사는 어떤 효과를 내느냐? 네가 우매하든, 분별력이 없든, 성령이 역사하면

내면에는 믿음이 생긴다. 또한,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신의 사랑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협력하기를 원한다. 눈앞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놓여 있든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몰라도 소극적이거나 태만해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성령의 정상적인 역사에 속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해도 사람은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어떤 일을 이겨 내지 못할 때도 있다. 이것은 모두 성령의 일상적인 역사 단계에 속한다. 당시에는 이겨 내지 못해 연약해지고 불평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너의 소극적인 면이 너의 정상적인 체험을 막지는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너를 어떻게 공격하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기도할 때면 예전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일을 맞닥뜨리면 하나님을 만족게 하고 육을 저버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이런 힘은 그 사람에게 성령 역사가 있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성령 역사의 정상적인 상태이다.

사탄에게서 온 역사는 어떠하냐?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은 이상(異象)에 대해 모호해지고, 정상적인 인간성을 잃고, 일할 때 불순한 의도를 품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면에 늘 참소가 있고, 그러한 참소와 생각이 늘 내면을 교란하여 생명 성장에 제동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정상 상태로 살지 못하게 막는다. 다시 말해,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른다. 또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도망치고 싶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눈을 감지 못한다. 악령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정상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상이나 생명 진입의 길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로 인해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언제나 무언가에 방해받고 통제받아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의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가라앉는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탄 역사에서 비롯된 모습이다. 사탄의 역사로 인해 드러나는 모습은 입장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굳게 증거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사람,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탄이 방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정상 관계가 무너지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향상하고자 하지도 않게 된다. 뒷걸음치고, 소극적이 되고, 자신에게 관대해지며, 죄가 커져 가는 것을 방치하고, 죄를 증오하지도 않게 된다. 또한 제멋대로 굴고 하나님이 준 감동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날 위험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일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에서 비롯된 일인지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겠느냐? 사람의 상태가 정상이면 영

생활과 육적 생활이 정상이며, 이성도 정상적이고 질서 있게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체험한 일이나 얻게 된 인식은 성령의 감동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깨달음이나 얹은 인식을 얻는 것, 또는 어떤 일에서 충성하거나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있는 것은 모두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임).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매우 정상적이라 사람은 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역사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자질이 뛰어난 사람은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성령이 특별히 깨우쳐 주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는 이해가 느리지만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역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 성령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거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경역을 방해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교란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정도로 역사한다. 감동을 주거나 깨우침을 주며, 믿음과 힘을 준다. 또한 사람이 나태해지지 않고, 육적인 쾌락을 탐하지 않으며, 진리를 실천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이런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하도록 감동을 준다. 이러한 것은 전부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의 상태가 비정상일 때 성령은 버리고 떠난다. 사람 안에 있는 원망의 마음, 삐뚤어진 마음가짐, 나태하고 육체를 방종하며 진리를 배반하는 마음과 같은 이런 것은 전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의 상태가 비정상일 때, 내면이 어둠에 빠져 정상적인 이성을 잃어버리고, 성령께 버림받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탄이 사람에게 역사한다. 사람이 내적으로 계속 힘이 넘치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으면 보통 어떤 일이 임하든 그것은 다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사람을 마주치든 다 하나님의 안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너의 상태가 정상일 때, 그리고 성령이 크게 역사할 때, 사탄은 너를 흔들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기본으로 뒷받침되면 일체 모든 것이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옳지 못한 생각이 들더라도 충분히 그 생각을 따르지 않고 저버릴 수 있다. 이는 전부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상황에서 개입하느냐? 너의 상태가 비정상이고, 너에게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을 때, 내면이 메마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먹고 마셔도 별다른 깨우침이나 빛 비춤을 얻지 못할 때 사탄이 쉽게 내면에서 역사한다. 다시 말해, 성령이 떠나고 네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많은 일이 사탄의 시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할 때 동시에 사탄도 역사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교란한다. 하지만 이때

성령 역사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므로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은 모두 이를 이겨 낼 수 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를 이긴 것이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 내면에는 여전히 패괴 성품이 존재한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면 사람은 자신의 패역과 속셈, 불순물을 쉽게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후회하고 회개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패역과 패괴 성품은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점차 벗어 버릴 수 있다. 성령은 매우 정상적으로 역사하므로, 역사하는 동안에도 사람은 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연약해지기도 하며, 알 수 없는 많은 일을 겪는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뒷걸음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괴롭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매우 정상적이며, 조금도 초자연적이지 않다. 많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기만 하면 사람의 상태가 바뀌고 본질적인 것들도 벗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도 사람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분량 또한 전과 같다. 다만 성령의 빛 비춤과 깨우침이 있어서 적극적인 요소가 많아지고, 사람의 내적 상태가 정상으로 바뀌며, 변화가 빨라질 뿐이다. 사람이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주로 성령의 역사나 사탄의 역사다. 사람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인 체험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성품의 변화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에 있어 관건은 이러한 일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잘 체험할 수 있다.

성령 역사는 사람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게 하나 사탄 역사는 소극적이고 퇴보적이게 한다. 또한, 사탄 역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며, 본분을 이행하는 적극성도 없어지게 한다. 성령의 깨우침에서 온 것은 강요가 없이 매우 자연스럽다. 네가 순종하면 편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책이 든다. 성령의 깨우침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방해나 통제를 받지 않게 하며, 네게 자유를 주고, 일할 때 실행의 길을 열어 준다. 또한, 아무 제약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도록 한다. 반대로 사탄의 역사는 네가 하는 수많은 일을 방해한다. 기도하고 싶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 태만하게 하며, 교회 생활을 원치 않게 하고, 영 생활에서 멀어지게 한다. 성령의 역사는 너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며, 너의 정상적인 영 생활을 교란하지도 않는다. 많은 일이 당시에는 분별이 안 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마음이 어느 정도 밝아지고, 생각도 어느 정도 맑고 깨끗해지며,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느낌이 생기고, 내면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점차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전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일부 불분명한

것들은 당시에는 분별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 드러난 모습을 보고 다시 분별하면 된다. 어떤 일이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일이 성령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확실히 분별한 후에 체험에 들어가면 한쪽으로 쉽게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간혹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내면의 어떤 생각으로 소극적인 상태에서 나오게 될 때가 있다. 이는 네 상태가 나쁠 때도 어떤 생각은 성령에게서 비롯될 때가 있으며, 네가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때라고 해서 모든 생각이 다 사탄에게서 온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네가 언제 적극적인 상태로 바뀔 수 있겠느냐? 한동안 소극적인 상태로 있을 때 성령은 네게 온전케 될 기회와 감동을 주어 그 소극적인 상태에서 나와 정상적인 내적 상태에 진입하게 한다.

성령 역사란 무엇이고 사탄 역사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체험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나 체험에 비춰 보아라. 그렇게 하면 너의 체험에 원칙과 관련된 진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알면 자신의 실제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파악하면 사람과 일을 분별할 수 있으며, 힘들지 않게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바른 마음가짐과 기꺼이 구하고 실천하는 모습이다. 원칙과 관련된 이런 말씀은 네가 체험할 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갖추지 못했다면, 너의 체험은 사탄의 방해로 가득할 것이며, 어리석은 깨달음으로 가득할 것이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발걸음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사람이 다 알아야 하는 것이며, 사람의 체험 과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늘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자 교회를 교란하는 자이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전부 출교되고 도태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수치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언행이 불신자처럼 제멋대로이고 절제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며, 전형적인 악마이다. 교회에서 독설과 악담을 퍼뜨리는 자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이간질하며 당을 짓는 자는 마땅히 출교시켜야 하겠지만,

사역의 시대가 다르므로 그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도태될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람은 모두 파괴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저 성품이 파괴된 것에 그치는 데 반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들은 사탄의 파괴 성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성 자체가 이미 극도로 악독해진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언행에서만 사탄의 파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영락없는 사탄 마귀이다. 그들이 하는 짓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언젠가 모두 쫓겨날 것이다. 그런 사탄의 종들에게는 가차 없이 내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다 사탄과 손을 잡은 자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조심스럽고 신중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해야지, 자신의 성미대로 행하거나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도의 품위에 맞지 않는 일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도처에서 위세를 부리거나 거들먹거리며 다른 사람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장 패역한 행위이다. 집안에 가법이 있고 나라에도 국법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더욱 행정 법령이 있지 않겠느냐? 사람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행정 법령은 사람이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며, 사람을 치는 하나님이다. 설마 사람이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나?

교회마다 교회를 교란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다 사탄이 위장하여 하나님 집에 들어온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특히 외식에 능해서 내 앞에서는 더없이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히는데, 꼭 마치 능글맞은 개 같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만,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또 추한 모습을 드러낸다.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을 보면 공격하거나 배척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아첨하고 치켜세우며,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날뛴다. 거의 모든 교회에 다 이런 ‘불량배’와 ‘앞잡이’들이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그들은 함께 모여 몰래 못된 짓을 하고, 서로 눈짓하면서 아무도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독액이 많은 자가 ‘우두머리’가 되고, 신망이 두터운 자가 깃발을 날린다. 그들은 교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마구 날뛰면서 부정적인 것과 죽음을 퍼뜨리며, 아무도 감히 그들을 제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사탄의 성품으로 가득하다. 그들이 그렇게 교란을 하면 교회에는

죽음의 분위기가 드리운다. 교회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아 자신의 능력을 다하지 못하고, 반대로 교회를 교란하며 죽음의 기운을 퍼뜨리는 자들은 교회에서 마구 날뛰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른다. 그런 교회는 그야말로 사탄이 권세 잡고 마귀가 왕 노릇 하는 곳이다. 만약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왕들을 내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망가지고 말 것이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향후 마땅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조차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제거될 것이다. 만약 어떤 교회에 진리를 실행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교회를 철저히 차단해 다른 교회와의 왕래를 끊어 버려야 한다. 이것이 사망을 묻어 버리고 사탄을 내치는 것이다. 어떤 교회에 불량배들이 존재하고 또한 분별력이 전혀 없는 ‘작은 파리들’까지 따르고 있는 경우, 교회의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도 불량배들의 속박과 통제를 끊어 버리지 못한다면, 최종 결과는 그런 멍텅구리들도 다 도태되는 것이다. 작은 파리들은 큰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태시킬 것이다! 사탄에 속하는 자는 사탄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필히 진리를 구할 것이다. 이는 사람의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모조리 멸망하라!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네가 마귀라면 진리를 실행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진취적이지 않은 자는 늘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부정적이고 게을러지기를 바란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질투하며,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이들을 늘 미혹하려 한다. 그런 자들이 퍼뜨리는 것은 너를 타락시키고 뒷걸음치게 하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게 하고, 내면이 어두워지게 한다.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육을 사랑하게 하며, 자신과 타협하게 한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하는 자는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이다. 그런 자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진리를 행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까지 진리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 또 그는 죄를 사랑하고 자신을 증오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것과 진리를 갈망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런 자에게 미혹된 사람은 광명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빠져,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그는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진리 실행까지 방해하면서 분별없는 자들을 전부 자기

앞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그의 마음속 우상을 믿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사탄을 믿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네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우상임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네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은 모독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니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신물이 날 정도로 들었으니 더는 듣고 싶지 않다. 너희가 믿는 것은 모두 너희 마음속 우상이나 너희 가운데 있는 불량배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죽음의 말을 들으면 만면에 웃음꽃을 피우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자손이자 도태될 대상이다. 교회에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이 생기면 그들은 꼭 사탄의 편에 선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사탄의 종이라 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진리가 아닌 쪽에 서고, 비상시에 단 한 번도 진리의 편에 선 적이 없으며, 진리를 위해 일어나서 변론한 적도 없다. 그들에게 정녕 분별력이 없는 것이냐? 그들은 어째서 꼭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냐? 어째서 단 한 번도 진리를 위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냐? 정말 그들의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한 일이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니,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느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죄악을 좋아하는 사람임을 말해 주지 않느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충실한 후손임을 말해 주지 않느냐? 어째서 그들은 늘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과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냐? 그들의 언행과 표정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임을 충분히 증명한다. 그들이 사탄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이 자신을 위해 평생 분투하는 그 작은 마귀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전부 눈앞에 훤히 드러난 사실이 아니냐? 네가 진정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째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눈에 담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가 약간의 눈짓만 해도 즉시 따르는 것이냐? 이는 어떤 문제이냐? 나는 너에게 분별력이 있는지, 네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너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가 불량배인지 아니면 우두머리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너의 세력이 커 봤자 그것은 사탄의 힘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너의 명성이 높아 봤자 그것은 네 주변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일 뿐이다. 네가 지금까지 출교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은 출교 사역을 하는 때가 아니라 도태 사역을 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너를 출교시키는 것은 아직 급하지 않다. 너를 도태시키고 징벌할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누구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도태될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자 기꺼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있는 자 역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진정으로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간교한 짓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모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사탄의 종이자 사탄의 화신이다. 그런 사람은 몹시 악독하다. 분별력이 없으면서도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는 자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진리를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더 전형적인 사탄의 상징이자, 구제 불능이다. 그들도 물론 도태될 대상에 속한다. 하나님의 집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과 고의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남겨 두지 않는다. 단, 지금은 사람을 출교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마지막에 드러내고 도태시킬 것이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을 들이지 않겠다. 사탄이라면 진리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진리의 편에 설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도를 들을 자격도, 진리를 증거할 자격도 없다. 진리는 결코 그들을 향해 말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결말이 드러나기 전까지, 교회를 교란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유보하겠다. 사역이 끝날 때 그들을 하나하나 드러낸 후 도태시킬 것이다. 진리를 공급하는 기간에는 일단 그들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진리를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 준 후에는 사람을 도태시킬 것이다. 그때가 곧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때이다.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자신들의 잔꾀로 인해 악인의 손에 멸망할 것이고, 악인에게 속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지 않았으며 악인을 따르고 악인의 편에 서서 악인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악인들이 퍼뜨리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진리를 등지고 악인을 따라갔다. 진리를 행하지 않고 멸망의 가증한 짓을 하는 자들은 전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 중에는 ‘왕’ 행세를 하는 자가 있고 부화뇌동하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은 모두 같지 않느냐? 그들이 무슨 핑계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 무슨 핑계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악행이 그들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더냐? 그들의 패역이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더냐? 진리를 행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진리로 인해 구원받고 온전케 될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진리로 인해 자멸할 것이다. 이는 진리를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다. 나는 진리를 행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죄를 짓기 전에 되도록 빨리 교회를 떠나라고 권한다.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는 늦다. 특히 당을 짓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 교회의 불량배들은 더 빨리 떠나야 할 것이다. 사악한

이리의 본성을 지닌 자들은 바뀌지 않으니, 더 이상 형제자매들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교회를 떠나는 편이 낫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도록 말이다. 부화뇌동하는 자들도 지금 이 기회에 반성하고 악인과 함께 나갈 것인지, 남아서 성실히 따를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 한 번 더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나는 너희의 대답을 기다릴 것이다.

## 너는 살아난 사람인가?

패괴 성품을 벗어 버려 정상 인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야말로 온전케 된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네가 예언이나 비밀을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드러내고 살아 내는 것에 사람의 면모가 보이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창조된 후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죽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네가 변화되면 죽은 사람과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을 되살려 사람을 소생시킨다. 영이 소생하면 사람은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란 영이 없는 시체, 영이 이미 죽어 버린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영이 살아나면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룩한 자란 바로 살아난 사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음에도 사탄을 이긴 사람을 가리킨다. 중국의 선민들은 큰 붉은 용의 잔인무도한 박해와 기만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해를 입고, 살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을 깨우려면 사람의 본질적인 면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 조금씩 사람의 영을 불려일으켜야 한다. 언젠가 사람이 살아나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평탄 대로처럼 순탄해질 것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에 살아 내는 것에 짙은 죽음의 기운이 묻어난다. 사람에게에는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져 있고, 결핍된 것이 너무나 많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나 행동거지에서도 죽음이 묻어나며, 대부분 죽음을 살아 내고 있다. 지금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이 사역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 못했고, 너희 중에는 죽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방에 신속히 복음을 확장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으며, 산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은 사람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음의 그늘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을 해낼 수 있겠느냐?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사탄에게 점령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형벌을 겪지 않고서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산 사람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산 사람의 증거이지 죽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다. 그는 산 사람이 그를 위해 사역하기를 원하지 죽은 사람이 사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이며, 영 안이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한, 진리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들은 진리와 대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비천하고 비열하고 악독하고 야만적이고 교활하고 음험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 있어도 산송장으로, 숨만 쉬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흠족하게 할 수 없고, 나아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도 없다. 그저 하나님을 속이고 모독하고 배반할 뿐이다. 죽은 사람은 언제나 사탄의 본성을 드러내며 살아간다. 산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요구한 모든 진리를 실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으며, 진정으로 산 사람이 될 수 있다. 산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겪은 사람이다. 또한 자신을 바치며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평생 헌신하는 사람이다. 산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사탄에게 수치를 줄 수 있고, 산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진정한 사람이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살아 있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죽음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영이 없는 죽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으며, 사탄의 도구, 사탄의 포로로 전락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은 증거를 잃게 되었고, 유일하게 그의 숨결을 불어넣어 준 인류를 잃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신의 증거를 되찾고 직접 그의 손으로 만들었으나 사탄에게 끌려간 사람을 빼앗아 오려면, 사람을 부활시켜 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며, 모든 사람을 되찾아 그의 빛 속에서 살게 해야 한다. 죽은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며, 극도로 무감각해진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대적과 패역만 존재할 뿐 충성심은 찾아볼 수도 없다. 반면 산 사람은 영이 소생한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며, 진리와 간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의 성육신, 즉 하나님의 현현을 믿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이는 그 사람의 본성이 구제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실행하지 못한다. 진리를 전혀 살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의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는커녕 교회의 돈을 훔쳐 쓰고, 하나님 집의 밥을 공짜로 축낸다. 이런 사람은 모두 구제 불능의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만, 일부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깊이 패괴되어 죽은 사람, 구제 불능의 사람, 완전히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본성이 지나치게 악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소수의 사람들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거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복 사역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성품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실제적이면서도 정상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이 없었다면, 이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사탄과 죽음에 속했을 것이고, 여전히 죽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이들이 기꺼이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이다.

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덕에 하나님께 얻어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 때문에 하나님께 혐오받고 버림받아 그의 징벌과 저주 속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다. 사람은 스스로 구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아 빛 속에서 살게 되고, 또 자신의 간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징벌 속에 떨어진다. 사람은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갈망과 충성심 덕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공의롭기에 산 사람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려 영원히 죽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빛 속에 남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산 사람을 그의 나라에 데리고 가 그의 축복 안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하게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속으로 내친다. 죽은 사람은 멸망의 대상이며, 영원히 사탄에게 귀속되는 대상이다. 하나님은 절대 그 누구도 억울하게 대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어쩌면 너는 성육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확신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육신이 직접 사람의 결말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종착지를 안내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육신과 영이 본디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의 육신이 잘못된 일을 할 리 없고, 그의 영이 잘못된 일을 할 리는 더욱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마지막에 그는 한 명도 더하거나 빼는 일 없이 살아난 사람을 전부 그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나 살아나지 못한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의 동굴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적이 된다

사람은 수천 년의 패괴를 겪고 나서 모두 무감각하고 우둔해졌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가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歷史)는 모두 ‘사기(史記)’에 기록되었고, 심지어 사람의 패역한 행위는 사람 스스로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탄에 의해 너무 심하게 패괴되었고,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갈 곳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도 배반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배반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이성이 원래의 기능을 잃었고, 사람의 양심도 원래의 기능을 잃었다고 말한다. 내 눈에 보인 사람은 모두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자 독사다. 사람이 내 앞에서 얼마나 가련한 척을 하든 나는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흑과 백의 차이를 전혀 모르고,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성이 이렇게 무감각함에도 여전히 복을 받고 싶어 하고, 이렇게 비열한 인성을 가지고도 여전히 왕이 되어 권력을 잡고 싶어 한다. 이런 이성을 가지고 누구에게 왕 노릇을 하겠느냐? 이러한 인성으로 어떻게 보좌에 오를 수 있겠느냐? 정말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모두 제 주제도 모르는 소인배로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우선 거울을 찾아 자신의 추한 물골을 비춰 보아라. 네가 왕이 될 재목이냐? 너는 복받을 만한 오관을 가졌느냐? 성품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진리를 조금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아름다운 앞날을 생각하다니 참으로 망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토록 더러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심하게 사회에 물들었고, 봉건 예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등 학부’의 교육을 받았다. 뒤쳐진 사상, 부패한 도덕, 저열한 인생관, 비열한 처세 철학, 일말의 가치도 없는 삶, 저속한 풍속과 생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침해하고, 사람의 양심을 심하게 파괴하며, 사람의 양심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사람의 성품은 나날이 더 악랄해져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거나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찾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반면에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마음껏 쾌락을 찾아 즐기고, 진흙탕에서 마음껏 자신의 육체를 파괴시키고 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설령 진리를 듣더라도 실천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이미 나타난 것을 보아도 찾으려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이렇게 부패한 인류가 어떻게 빛 속에서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려면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사람의 사상, 본성, 정신 면모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의 성품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의 파괴된 성품의 근원은 사람이 이미 사탄에게 해를 입고 사탄에게 짓밟혀 사람의 사상, 도덕, 식견, 이성이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근본적인 것들이 이미 모두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하나님이 만든 원래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려면 우선 사람의 사상, 식견, 이성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진리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가장 심하게 파괴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인지 더더욱 모른다. 사람은 심하게 파괴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더 알지 못하고, 이성과 식견이 더 부족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근본적 원인은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사람은 양심이 무감각하고 도덕이 부패하고 사상이 진부하고 정신 면모가 뒤쳐지게 된 것이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파괴되기 전에는 본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했으며, 이성과 양심이 건전하고, 인성이 정상적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이후로 사람에게 원래 있었던 이성과 양심, 인성이 무감각해지고 전부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모두 잃게 된 것이다. 사람의 이성이 정상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성품도 짐승처럼 변해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 점점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직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대적하고 거역하기만 한다. 사람이 드러내는 성품은 곧 사람의 이성, 식견, 양심의 발현이다. 사람은 이성과 식견이 건전하지 못하고, 양심이 극도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이 된 것이다. 사람의 이성과 식견을 바꾸지 못하면 성품 변화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도 말할 나위가 못 된다. 사람은 이성이 건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정상적인 이성이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스러우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이고 양심적이며, 하나님에 대해 일편단심이고,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이성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후 하나님에 대해 관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졌으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게 되었다. 양심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인 줄 뻔히 알면서도 뒤에서 판단하며, 순종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요구하기만 한다. 이처럼 이성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의 비열한 행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패역한 행위를 통회하지도 못한다.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성이 조금은 회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성이 더 건전하지 못하다.

사람의 파괴 성품이 드러나는 근본 원인은 사람의 무감각한 양심, 악독한 본성과 건전하지 못한 이성에 있다. 사람의 양심과 이성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의 양심이 줄곧 무감각한 상태에 있고, 사람의 이성이 한 번도 건전했던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세에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문전 박대 하며, 하나님의 육신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육신이 비천하다고 여긴다. 사람에게 인간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이렇게 잔혹하게 대할 수 없고,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이렇게 악독하게 대할 수 없으며, 정말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육신 하나님께 이같이 ‘감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성육신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온 것을 욕하거나 하나님이 성육신한 사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어쩌면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나님이 온 것을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은 싫은 기색 없이 계속 자신의 사역을 한다. 사람이 그를 조금도 환영하지 않고, 그에게 계속 뭔가를 요구하더라도 말이다. 사람의 성품은 극도로 악독해졌고, 사람의 이성은 극도로 무감각해졌으며, 사람의 양심은 이미 악한 자에게 짓밟혀 원래 가지고 있던 양심은 진작에 사라져 버렸다.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준 이처럼 많은 생명과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준 진리로 인해 하나님을 혐오하고, 진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조차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서 ‘기름을 짜내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수십 배나 많은 이자를 달라고 요구한다. 사람은 이런 양심과 이성을 가졌으면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이 너무 많고 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고는 우유 두 그릇 값의 금화를 달라고 손을 내밀고, 내가 그의 집에서 하룻밤 묵으면 이보다 몇 배 넘는 숙박비를 요구한다. 너희는 이런 인성과 양심을 갖고도 생명을 얻으려 하느냐? 정말 비열한 소인배들이구나! 사람의 이런 인성과 양심 때문에 성육신 하나님은 기거할 곳 없이 곳곳을 떠돌게 된 것이다. 정말로 양심과 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육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설사 그가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그를 경배하고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이것은 이성이 건전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사람의 본분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조건을 내건다. 그런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조건만을 얘기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만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밥을 지어 주면 품값을 요구하고, 나를 위해 다리품을 팔면 수고비를 요구하며, 나를 위해 사역하면 사역비를 요구하고, 나에게 빨래를 해 주면 세탁비를 요구하며, 교회에 공급하는 일을 하면 몸보신 비용을 요구한다. 말하는 자는 강의료를 요구하고, 책을 배부하는 자는 책 배부 비용을 요구하며, 글을 쓰는 자는 원고료를 요구한다. 심지어 내게 책망받은 사람은 내게 보상금을 요구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은 명예 훼손 배상금을 요구하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혼수비와 청춘을 바친 대가를 요구한다. 또한 닭 잡은 사람, 요리를 만든 사람, 국을 끓인 사람 등 다 그에 따른 수고비를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너희의 고상하고도 위대한 인성이며, 너희의 그 따듯한 양심에서 비롯된 일이다. 너희의 이성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인성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지 않을 것이고,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에게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같은 인면수심의 무리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이고, 구원할 여지가 조금도 없는 이런 짐승들을 위해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등을 돌리는 날은 바로 너희가 죽는 날이고, 어둠이 너희에게 임하는 날이며, 광명이 너희를 버리는 날이다.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나는 너희처럼 짐승보다도 못한 무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일하는 데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 너희의 인성과 양심이 이러하니 나는 더 많은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무 양심이 없고, 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상하게 했으며, 너희의 비열한 행위는 나를 너무 역겹게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성과 양심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나는 이렇게 흉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날이 올 때, 나는 나를 크게 진노하게 했던 이 패역한 자식들에게 영원히 불사름의 불을 쏟을 것이고, 예전에 나를 욕하고 저버린 이 짐승들에게 영원히 징벌을 내릴 것이며,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지냈지만 나를 믿지 않고 모욕하고 배반한 그 패역한 자식들을

영원히 나의 분노의 불길로 태울 것이다. 나를 분노하게 한 모든 사람을 나의 징벌 속에 내던질 것이고, 나와 동등해지고 싶어 하며 나를 전혀 경배하지 않고 내게 순종한 적이 없는 짐승들에게 나의 모든 분노를 쏟을 것이며, 내 입에서 나온 말의 비밀과 나의 보살핌을 누리고 나에게서 물질적인 누림을 다투었던 짐승들을 나의 채찍으로 칠 것이다. 나는 내 지위를 빼앗으려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나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투는 자는 그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별 탈 없이 평안하고, 점점 더 큰 욕심을 내며 내게 요구하고 있지만, 분노의 날이 오면 더는 내게 요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가 마음껏 ‘누리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입으로 진흙을 씹게 할 것이고, 너희는 영원히 그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조만간 이 빛을 너희에게 모두 ‘되갚을’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가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비열한 인간들이 정말로 사치스러운 욕망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면 그래도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정이 있어서도, 사람이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가 있더냐? 이성이 건전하고 양심이 예민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가 있더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불사름 당한 이가 있더냐?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한 사람 중에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집 밖으로 쫓겨난 이가 있더냐?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살게 된 이가 있더냐?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중에 빈털터리가 된 이가 있더냐?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재물을 쓰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일생의 정력을 쓰려고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는 점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너희 같은 이런 인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설령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 너희는 자신이 인류 중의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인성이 가장 비천하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존칭’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를 늑대의 아비나 어미, 늑대의 자식이나 손자, 늑대의 후예, 늑대의 민족이라고 한다. 너희는 자기 신분을 알고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며, 스스로를 상등 인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인류 가운데 가장 악랄한 한 무리의 비인류이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모른단 말이나?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의 이성이 정상을 되찾지 못하고, 너희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늑대’라는 호칭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저주와 징벌의 날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너희는 출생이 비천하고, 본래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본래 한 무리 굶주린 늑대이고, 한 무더기 잡동사니나 쓰레기다. 내가 너희에게 사역하는 것은 너희처럼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거역한다면 나는 나의 사역을 그만둘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너희에게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무리의 사람들에게 옮겨 가서 사역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게 된다. 나는 나와 적이 되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마음에 합하길 원하느냐, 아니면 나와 적이 되길 원하느냐?

##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해야 할 것들이다. 현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사람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행사, 하나님의 모든 사역,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는 전체 종교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다. 언젠가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행한 모든 행사를 보고, 하나님의 어떠함과 소유를 알며, 또한 그의 풍성함, 지혜, 기묘함 그리고 사람에게 행한 모든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있다. 흔히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하고 매우 풍성하다고 말한다. 만유를 포함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나? 풍성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나? 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 왜 종교계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 마귀의 부류라고 하겠느냐? 그들이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다 눈먼 자들이라 하나님의 행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이라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며, 성령의 역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은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람의 패괴 성품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 원칙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歷史)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초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 온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외에 사람의 패괴 성품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이 정해 준 율례를 준수하는지에 따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했다. 예를 들면, 율법시대에는 여호와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간주되었다. 여호와와 제물을 흠쳐 먹는 자, 여호와가 중히 여기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돌에 맞아 죽을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는 자는 모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해당되었고, 여호와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로 간주되었다. 은혜시대에 이르러서는 달라졌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더욱 정확하고 실제적이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앙망하는지에 따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였다.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실제적이지 않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떻게 말씀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전무했고,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해서 믿든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으며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육신을 통해 행하는 행사를 보게 되었다. 그때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러나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진심으로 순종한 경우에는 정죄받지 않았고, 반대로 의도적으로 대적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이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음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셈과 행실에 근거하여 정죄한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정죄한다면 아무도 노한 하나님의 두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은 모두 그들의 불복으로 인해 징벌을 받는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허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 해 동안 체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고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며, 아무리 오랫동안 체험해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념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설사 방해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아주 많으며, 비록 그러한 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도,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지도 못하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얼간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므로 정죄받는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을 갖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 관념을 가지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나,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사역을 체험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진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비정상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므로 정죄받게 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람은 모두 쓸모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누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도태될 사람이다!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족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대예배당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외우지만,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깨닫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들은 모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인배이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세우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악마이며,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마왕이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걸림돌이다. 그들이 비록 ‘건강하고 튼튼할’지라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사람을 이끌어 가는 적그리스도임을 알겠느냐? 어찌 그들이 전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산 귀신임을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가장 비천한 자이며,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자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을 안다고 여기고, 또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멋대로 전하는 자는 가장 무지한 사람이다.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며,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체험이 확실히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증거가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위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 관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충고하겠다. 너희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있다면 계속해서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일찌감치 떠나라. 그러지 않으면 아주 위험할 것이다. 너희의 본성이 너무도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서는 충성심과 순종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공의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너희는 엉망진창인 상태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며,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능마저 발휘하지 못하며, 마땅히 갖추어야 할 충성심과 양심, 순종, 의지도 없고, 겪어야 할 고난을 회피하고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다. 좋은 점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으면서 너희가 무슨 낮썴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나?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차라리 빨리 눈을 감으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더 이상 심려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삶에 분투 목표도 없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간다. 사람임에도 일말의 양심도,

인격도, 신용도 없다. 이런데도 너희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돈을 욕심내며, 하나님의 제물을 먹는 것도 모자라 결국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 없이 대하고 일말의 양심도 없이 대하며, 하나님의 작은 요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데도 너희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밥을 먹고, 하나님의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쓸모없는 얼간이로 전락했다. 이것이 개보다도 못한 짐승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나? 동물 중에 너희보다 더 악독한 존재가 어디 있단 말이나?

높은 강단에 서서 사람을 가르치는 목사나 장로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사탄의 동맹이다. 그러나 높은 강단에 서지 않고도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는 하나님을 더 대적하지 않느냐? 더더욱 사탄과 결탁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아는 사람도 설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지 모른단 말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틀릴 리 없다. 다만 사람의 추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말종들은 목사나 장로보다 더 음흉하고 악랄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는 천태만상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이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다양하고 각양각색이다.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든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다 탕감해 준다. 사람이 진리를 구하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저지른 모든 일을 마음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함으로 인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 전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한 후에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사서(史書)’에 기록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어퍼함, 하나님의 지존 무상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정으로 알고, 옛 성품에 변화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적이 있지만, 네가 성육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네가 행해야 할 진리를 실천하고, 너의 본분을 이행하며, 네가 지켜야 할 규정을 지킨다면, 너는 패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족케 하려는 사람이자,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사람이다. 반대로 네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뉘우치는 마음이 없이 패역 행위를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협력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너와 같이 고집불통인 사람은 확실히 징별받을 대상이지 온전케 될 대상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너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남게 될 것이다. 네가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로 남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너 같은 사람을 용서하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본성을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결’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너는 일찌감치 떠나는 편이 낫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도록, 또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야만적인 행동을 하여 하나님께 육신이 제거되지 않도록 말이다. 너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결국에 화를 입게 된다면 얼마나 헛된 일이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따로 계획을 세울 것을 권하겠다. 뭘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꼭 이 길을 가야만 하겠느냐?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더냐? 굳이 이렇게 하나님과 맞설 이유가 있겠느냐?

## 사역 이상 1

요한은 예수를 위해 7년 동안 사역을 했고, 예수가 왔을 때는 이미 길을 닦아 놓은 상태였다. 그 전에는 곳곳에서 요한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며, 그가 전하는 복음은 유대 전역에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라고 불렀다. 당시 헤롯왕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감히 죽이지 못했다. 백성들 가운데서 명망이 높은 그를 죽였다가 백성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요한이 백성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의 기반이 다져지자 유대인들은 모두 그를 믿고 따랐다. 요한은 예수가 직분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를 위해 7년이나 길을 닦았으므로 가장 큰 선지자 중 하나인 것이다. 예수는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야 정식으로 사역하기 시작했다. 요한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길을 닦은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다. 예수 이전에 하나님이 성육신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까지의 선지자들 가운데 오직 요한만이 성육신한 하나님을 위해 길을 닦았고, 그렇게 요한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선지자가 되었다. 요한은 예수가 세례를 받기 7년 전부터 천국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다. 사람들은 그가 행한 사역이 훗날 예수가 행한 사역보다 더 크다고 여겼지만, 어쨌든 그는 선지자에 불과했다.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밖의 마을에서 사역하고 말을 했다. 이는 당연히 유대 백성, 특히 가난한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행한 것이다. 그는 상류 사회의 사람들과는 거의 접촉을

하지 않았다. 그저 유대 평민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위해 적합한 사람과 사역할 장소를 예비할 뿐이었다. 그렇게 길을 닦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곧바로 십자가의 길을 펼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사역할 때는 사람을 택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친히 나서서 사람이나 사역할 장소를 찾을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런 사역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며, 그 이전에 이미 적합한 사람이 와서 그를 위해 예비했다. 예수가 사역을 하기 전에 요한은 이미 그 사역을 끝내 놓았다. 성육신 하나님은 사역하러 와서 곧바로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정돈 사역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직분을 이행하러 온 것이며, 그 외의 일은 그와 전혀 관계가 없다. 요한은 성전과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끌어 내 예수가 사역할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왔다. 요한이 사역한 7년간, 즉 천국의 복음을 전파한 7년간 그가 행한 이적은 별로 많지 않다. 그의 사역은 길을 닦는 것으로, 예비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그 외의 사역과 예수가 해야 할 사역은 그와 전혀 무관했다. 요한은 단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이 새로운 사역을 하고 이전에 아무도 간 적이 없는 길을 개척하긴 했지만, 그는 단지 예수를 위해 길을 닦는 자, 준비 사역을 행하는 선지자에 불과했다. 요한은 결코 예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었다. 예수는 천국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요한이 예비해 놓은 길을 이어 갔지만, 예수의 사역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었으며, 그가 행한 사역은 요한의 사역보다 훨씬 컸다. 예수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예비할 리는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표하여 사역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이 사역한 기간이 얼마나 되든 요한은 선지자일 뿐이었고, 길을 닦는 자에 불과했다. 예수가 3년 동안 행한 사역은 요한이 행한 7년의 사역을 뛰어넘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사역의 본질이 달랐기 때문이다. 예수가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때였다. 그때, 요한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과 장소는 예수가 쓰기에 충분했으며, 예수가 3년간의 사역을 행하는 데도 전혀 모자람이 없었다. 그래서 요한이 사역을 마치자 예수는 곧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요한이 했던 말은 모두 폐해졌다. 요한이 행한 사역은 단지 과도기를 위한 것이었고, 그가 한 말은 잠시만 쓸모 있는 것이었지, 사람이 더 새롭게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도 초자연적인 사역이 아니며, 과정이 있었다. 모든 것은 사물의 정상 법칙에 따라 발전했다. 예수는 마지막 반년에 이르자 자신이 정말 그 사역을 행하러 왔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기도했던 것처럼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예수가 세례를 받은

후 직분을 이행한 기간은 3년 반이었고, 정식으로 사역한 것은 2년 반이었다. 처음 1년은 사탄의 참소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으며, 사람들의 시험도 있었다. 예수는 사역을 해 나가면서 많은 시험을 이겨 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최후의 반년이 다가오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 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다. 그제야 그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신분이 공개되었다. 그 후에 예수는 자신이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며, 자신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온 구세주임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었다. 그는 마지막 반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행하려는 사역을 공개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때였고, 그렇게 해야 할 사역이었다. 예수가 당시에 사역할 때, 일부 사역은 구약 성경이나 여호와와 율법시대 말씀, 모세의 율법에 근거했다. 그는 그런 것들을 통해 일부 사역을 행하였다. 당시 그는 회당에서 설교하고 가르쳤으며, 그를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을 구약 선지자의 예언으로 훈계하였고,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패역을 드러내고 그들을 정죄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가 행한 것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예수의 수많은 사역은 성경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예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말은 물론, 심지어는 성경 속 선지자의 예언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은 단지 속량하기 위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말씀을 하여 사람을 정복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으며, 그가 행하는 사역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도 십자가의 사역은 완성할 수 있었다. 그가 행한 사역은 말씀의 사역도, 인류를 정복하기 위한 사역도 아니라 인류를 속량하기 위한 사역이었다. 그는 그저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뿐, 인류에게 말씀의 원천이 되지는 않았다. 그는 이방의 사역, 즉 사람을 정복하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였다. 비록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사역했으며, 옛 선지자의 예언으로 바리새인들을 정죄했을지라도, 십자가의 사역은 충분히 완성할 수 있었다. 지금도 성경 속 옛 선지자의 예언을 바탕으로 사역한다면, 너희를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구약에는 너희 중국인들의 패역과 죄업은 물론, 너희의 그 죄악의 역사(歷史)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속 성경 속에서 맴돈다면, 너희는 영원히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인들의 유한한 역사(歷史)로는 너희가 악한지 선한지를 판단하거나 너희를 심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말해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歷史)에 따라 너희를 심판한다면, 너희가 지금처럼 따를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다루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번 단계의 사역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정복 사역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다른 말을 더 하여 너희를 정복할 것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은 성경 구약의 사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에 불과했다. 그는 그것으로 한 시대를 개척하고, 한 시대를 이끌었다. 그는 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라고 했겠느냐? 하지만 그가 행한 사역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이 실행한 율법이나 그들이 지켰던 계명과 다른 것이 수없이 많았다. 그는 율법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케 하러 왔기 때문이다. 완전케 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실제적인 것들이 포함된다. 그는 규례를 고수한 것이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행하고 더 융통성 있게 행하였다. 이스라엘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때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가 말했듯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왔으니 그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는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것이며, 율법을 바꾸기 위해 온 것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사역은 완전히 지금 상황에 맞춰 행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여호와가 율법시대에 했던 사역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초월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하고, 음란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아니더냐? 지금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계명에만 국한되지 않는,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명과 율법이지, 그것들을 폐한 것이 아니다.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이전 단계의 사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너희는 당시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것,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남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고,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으며, 죽은 것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는 것 같은 요구를 바탕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전 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행하는 동안, 비록 이전의 율법을 언급하지 않고 너희에게 새로운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이런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높아졌다. 폐해졌다는 것은 시대에 뒤쳐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부 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한다. 이전의 계명은 사람이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이미 사람의 어퍼함이 되었다. 예를 들어, 금주와 금연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을 바탕으로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과 너희의 분량, 그리고 지금 행하는 사역에 근거하여 다시 새로운 계명을 정하는 것이다. 새 시대의 계명을 반포하는 것은 옛 시대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기초로 더 높이 끌어올려 사람으로 하여금 더 완전하고 실제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데 국한되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하라고 한다면, 심지어 여호와가 정한 율법을 외우라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한계가 있는 몇 가지 계명을 지키거나 수많은 율법을 외운다고 해도 너희의 옛 성품은 여전히 깊이 뿌리박혀 있어 파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갈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간단한 몇 가지 계명이나 수많은 율법은 너희가 여호와와 행사를 깨닫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외우기만 해도 여호와와 행사를 볼 수 있었으며, 여호와께 일편단심으로 충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희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구약시대의 몇 가지 계명들은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바치게 하거나 너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너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 음부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행하는 정복 사역은 오로지 너희의 패역과 옛 성품만을 겨냥한다. 그렇기에 여호와와 예수의 타이르는 말씀은 오늘날의 이 엄한 심판의 말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엄한 말씀이 없다면 수천 년 동안 거역해 온 너희, ‘전문가들’을 정복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구약의 율법은 너희에게서 효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오늘날 심판의 위력은 당시 율법의 위력을 훨씬 뛰어넘었다. 너희에게는 간단한 율법의 제약보다 심판이 가장 적합하다. 너희는 시초의 인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패괴된 인류이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 오늘날 사람의 실제 상태와 자질, 그리고 실제 분량에 근거한 것으로,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너희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고 너희의 관념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말해 보아라. 계명이 규례더냐? 그것은 사람에게 대한 정상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너희에게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금연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규례더냐? 규례가 아니다! 그것은 정상 인성에 따라 요구한 것일 뿐이다. 그것은 규례가 아니며, 전 인류를 위해 규정한 것이다. 오늘날 정한 십여 개의 계명도 규례가 아니라 정상 인성이 있으려면 마땅히 갖춰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전 사람들이 갖추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지금에 와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에 규례에 속하지 않는다. 율법이 규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규례란 의식과 형식 또는 사람의 그릇된 실행법을 말한다. 또한 사람에게 무익한 각종 규정이고 사람에게 유익함도 의미도 없는 방법이다. 그런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규례이다. 그런 규례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 사역 이상 2

은혜시대에 전한 것은 회개의 복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복하고 온전케 하는 것만 말할 뿐,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한 명이 하나님을 믿으면 온 집안이 복을 받는다거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 지금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너무나 케케묵은 말이다. 예수가 당시에 행한 사역은 전 인류를 속량하는 것이었다.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를 믿기만 하면 속량받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조금씩 벗어 버려야 한다. 구원을 얻었다 함은 사람이 예수에게 온전히 얻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당시 예수가 했던 수많은 사역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예수가 한 수많은 말씀을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 그 당시 예수가 해석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가 떠나고 몇 년 후, 마태가 그를 족보에 올렸으며, 다른 사람들도 인의적인 많은 사역을 했다. 그때는 사람을 온전케 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사역을 하기 위해 천국의 복음을 가져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의 사역은 모두 끝났다. 반면, 이 단계의 정복 사역은 반드시 더 많이 말씀하고 더 많이 사역하며,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예수가 이전에 행한 사역이나 여호와가 행한 사역의 비밀을 모두 열어 모든 사람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이것은 말세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말세는 마무리하는 사역을 하고, 사역을 끝내는 시기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네가 여호와와 율법과 예수의 속량에 대해 명확히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은 주로 6천 년 경륜의 모든 사역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네가 6천 년 경륜의 모든 의의와 본질을 이해하고 예수가 행한 수많은 사역을 알게 할 것이며, 그가 한 수많은 말씀의 의도, 나아가 성경에 대한 네 맹목적인 숭배까지 모두 명확히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예수가 당시에 행한 것과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는 것들도 알게 할 것이며, 모든 진리와 생명과 길을 다 깨닫고 보게 할 것이다. 예수는 왜 그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떠났겠느냐? 그 단계의 사역은 마무리하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의 말씀도 끝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의 사역 또한 모두 끝났다. 그 단계의 사역은 반드시 할 말을 다 하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해야만 끝나는 이 단계의 사역과는 다르다. 예수는 그 단계의 사역에서 많은 말씀을 다 하지 않았고 밝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예수의 직분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떠났다. 그 단계 사역은 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으로, 이 단계의 사역과는 달랐다. 이 단계 사역은 주로 마무리를 하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며 모든 사역을 끝내는 것이다. 말씀을 끝까지 다 하지 않으면 사역을 끝낼 수 없다. 이 단계는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루기

때문이다. 지난날 예수가 행한 수많은 사역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조용히 떠났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 이해했으면서도 옳다고 여기고, 틀린 것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 이 단계에서는 사역을 철저히 끝내고 마무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알게 한다. 사람 내면의 관념과 속셈, 잘못된 이해 방법, 여호와와 사역과 예수의 사역에 대한 관념, 이방인에 대한 견해 등 치우치고 그릇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사람에게 인생의 바른길과 하나님이 행한 모든 사역, 그리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면 이 단계의 사역은 끝난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세상을 창조한 서막이었고, 이번 단계의 사역은 사역을 끝내는 종막이다. 시작은 이스라엘 선민들 가운데서 행하여 가장 성결한 곳에서 천지를 열었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더러운 나라에서 행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시대를 끝낸다. 첫 단계는 가장 밝은 곳에서 사역했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역하여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광명을 가져오며, 이 사람들을 모두 정복한다. 가장 더럽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정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참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탄복하게 함으로써 이 사실로 전 우주를 정복하는 사역을 행할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은 대표적인 의의가 있다. 이 시대의 사역이 완성되면 6천 년 경영 사역은 완전히 끝난다. 가장 어두운 곳의 사람들이 정복되었으니 그 외의 곳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하는 정복 사역만이 대표적 의의를 갖는다. 중국은 모든 흑암 세력을 대표하며, 중국인은 육체와 사탄, 그리고 혈기에 속한 모든 자를 대표한다. 중국인은 큰 붉은 용에 의해 가장 심하게 파괴된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는, 가장 천하고 더러운 인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모든 파괴된 인류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괜찮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의 관념은 모두 똑같다. 자질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 역시 대적할 것이다. 유대인이 왜 대적하고 거역했겠느냐? 바리새인은 또 왜 대적했겠느냐?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겠느냐? 당시 많은 제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뒤에도 사람은 왜 그를 믿지 않았겠느냐? 사람의 패역은 다 같은 것 아니겠느냐? 단지 중국인을 모델로 삼았을 뿐이다. 또한 정복한 후에는 본보기와 표본으로 세워 참고 대상이 되게 할 뿐이다. 어째서 늘 너희를 가리켜 내 경륜의 부속물이라고 하겠느냐? 사람의 파괴와 더러움, 불의, 대적, 패역 같은 것들이 중국인에게서 가장 전반적이고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자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삶과 사상이 뒤쳐졌으며, 생활 습관, 사회 환경, 출생 가정 전부 열악하고, 모든 것이 가장 뒤떨어졌다. 또 이들은 지위도 낮아서 이곳에서 사역하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시범 사역을 전면적으로 행하면 이후에 사역을 전개할 때 행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이 단계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이후의 사역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여 대업이 완벽히 이루어지면 온 우주를 정복하는 사역 또한 완전히 끝나게 된다. 사실 너희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온 우주의 사역이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 너희를 본보기와 표본으로 삼으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에게는 패역이면 패역, 대적이면 대적, 더러움이면 더러움, 불의면 불의가 다 있으며, 이들의 패역은 온 인류의 패역을 대표한다. 이들은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에 정복의 모델로 삼는 것이다. 물론 정복한 후에는 표본과 본보기가 될 것이다. 첫 단계 사역을 이스라엘에서 행한 것은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인은 가장 성결하고 파괴된 정도가 가장 얇은 인류였기에 그 지역에서 천지를 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인류의 조상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역의 발원지였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그들은 가장 성결했고, 모두 여호와를 경배했으므로 그들에게 사역하여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성경에는 두 시대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율법시대의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시대의 사역이다. 구약에는 여호와가 당시 이스라엘인에게 한 말씀과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예수가 유대에서 행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인들의 이름은 왜 거기에 없겠느냐? 그것은 처음 두 부분 사역을 모두 이스라엘에서 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인은 선민에 속하고 여호와의 사역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며, 파괴된 정도가 가장 얇은 인류였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으며, 제사장 옷을 입거나 제사장 화관을 쓰고서 늘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며, 또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역한 대상이었다. 그들은 온 인류의 표본이자 본보기에 속하며, 성결한 자와 의인의 표본이자 본보기에 속한다. 욥, 아브라함, 롯 또는 베드로, 디모데 등은 모두 이스라엘인으로, 가장 성결한 표본이자 본보기이다. 이스라엘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나라이며, 그곳에서 배출된 의인 역시 가장 많다. 그들에게 사역한 이유는 이후에 온 땅에서 인류를 더 잘 경영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행적’과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행한 의로움을 기록하여 은혜시대에 이스라엘인 이외 사람들의 표본과 본보기로 삼았고, 그들이 행한 것으로 수천 년의 사역을 오늘날까지 유지했다.

창세 이후 첫 단계 사역을 이스라엘에서 행했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땅에서 행한 사역의 발원지이자 근거지가 되었다. 예수는 온 유대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 그는 유대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혀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하는 동안 유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오늘날에는 사역을 중국으로 옮겨 왔지만, 이 범위 안에서만 행해질 것이다. 이 단계에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결코 사역을 따로 시작하지 않는다.

중국 밖으로 확장하는 것은 이후에 할 사역이다. 이번 단계의 사역은 예수가 행했던 사역을 이어서 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예수가 구속 사역을 했고, 이번에는 그것을 잇는 사역을 한다. 구속이 완성되었으므로 이번 단계에는 성령으로 잉태될 필요가 없다. 이번 사역은 이전 사역과 다르며, 중국은 더더욱 이스라엘과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가 구속 사역을 하자 사람은 모두 예수를 보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이방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지금 미국과 영국, 러시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중국은 왜 그렇지 않겠느냐? 중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를 가장 늦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많이 늦은 편이다. 이 마지막 사역을 중국이라는 이 땅에서 행하는 이유는 사역을 끝내기 위함이고, 또한 모든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여호와를 주라고 부른다. 지난날 그들은 여호와를 한 집안의 가장으로 여겼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대가족이 되어 모두 주 여호와를 경배했다. 여호와의 영은 수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말씀하거나 음성을 발하였고, 구름 기둥과 음성으로 그들의 생활을 인도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영이 직접 말씀하고 음성을 발하면서 사람을 인도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구름과 천둥소리였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생활을 인도했기에 오직 이스라엘인만이 여호와를 계속 경배해 온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만의 하나님이라 여겼는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어쨌든 여호와와 그들 가운데서 근 4천 년 가까이 사역했기 때문이다. 중국이라는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깊은 잠에 빠졌던 이 인간 말종들은 이제서야 천지 만물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복음이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봉건적이고 반동적인 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자신들의 조상인 부처를 등지는 대역무도한 인간 말종이라고 여긴다. 더욱이 많은 봉건적인 자들은 ‘중국인이 어떻게 서양인의 신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조상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늘날에 이르자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여호와가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잊었으며, 창조주라는 말은 일찌감치 뒷전으로 밀려났다. 사람들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더 믿었다. 즉, 대자연은 자연적으로 생겨났고, 인류가 누리는 맛 좋은 음식은 모두 대자연이 준 것이며, 사람의 생사존망에는 모두 법칙이 있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많은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과학이 인류를 주재할 수 있겠느냐? 무신론 정부가 집권하는 이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우며 저항도 극심하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지 않더냐?

예수가 와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의 사역을 여호와와 사역과 대조해 보고는 결국 맞지 않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왜 맞지 않는다고 여겼겠느냐? 하나는 예수가 새로운 사역을 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그에게 ‘죽보’를 써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에게 죽보를 써 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누가 감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느냐? 마태가 몇십 년 일찍 그를 위해 죽보를 써 주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큰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안 그렇겠느냐? 사람이 죽보를 보고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를 핍박할 수 없었을 텐데, 아쉽게도 죽보가 너무 늦게 써졌다. 그렇지 않느냐?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성경에는 두 단계의 사역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율법시대의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시대의 사역이다. 즉, 하나는 여호와와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사역이다. 대예언가가 오늘날의 사역을 미리 예언해 두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성경에 ‘말세 사역’이라는 부분을 추가해 두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랬다면 오늘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를 참으로 괴롭게 만들었구나! 이사야와 다니엘이 말세의 사역을 전부 예언해 두지 않은 것이 한스럽고, 신약의 그 사도들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죽보를 미리 나열해 두지 않은 것이 원망스럽다. 애석하구나! 너희가 곳곳에서 근거를 찾고 ‘말들의 파편’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맞는지를 알 방법이 없으니 난처하구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은밀히 역사한단 말이나? 수많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부인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를 어찌하겠느냐? 변함없이 따를 수도 없고 의심을 품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많은 ‘영악한 자들’이 ‘한번 시험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뒤따른다. 어렵구나! 지난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예언 능력이 있었다면 훨씬 쉽지 않았겠느냐? 당시 요한이 하나님나라 삶의 실상을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가 본 것은 이상(異象)이었을 뿐,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진실한 사역이 아니었다. 애석하구나! 이스라엘에서 잘 사역하던 하나님이 왜 중국으로 왔는지, 왜 굳이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직접 사역하면서 지내야 하는지 도통 영문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구나! 사람에게 미리 알려 주지도 않고 게다가 갑자기 형벌과 심판을 내리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처음으로 성육신했을 때, 사람에게 모든 실상을 미리 알려 주지 않아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만, 설마 그것을 잊은 것이겠느냐? 왜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알려 주지 않는 것이겠느냐? 지금 성경이 66권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말세 사역을 모두 예언한 책이 한 권 더 있었다면, 사람은 그걸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여호와, 이사야와 다윗마저도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의 때와 지금은 4천여 년이란 거리가 있다. 예수도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아주 조금만 언급했을 뿐, 완전하게 예언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사람은 충분한 근거를 얻지 못했다. 네가 이전의 사역을 오늘날로 가져와 대조한다면 어찌 맞출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행한 그 단계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오늘날로 가져와 봐야 서로 맞지도 않을뿐더러 맞출 방법도 없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다. 네 자질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이 다 부족한데, 네가 그들과 대조가 되겠느냐? 그들에게 닿을 수 있겠느냐? 지금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이며, 이전의 율법시대, 은혜시대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어쨌든 정해진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정해진 틀에 맞춘다고 도출해 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가 태어나고 29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그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너는 예수의 그 시절이 어떠했는지 알고 있느냐? 설마 그가 그런 시절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서른 살이 되었겠느냐? 너는 아는 것이 너무 없구나. 그러니 함부로 의견을 말하지 마라. 그것은 너에게 이로울 게 없다! 성경에는 예수가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 또 사복음서에는 예수가 행한 3년 반 동안의 사역만 기록되어 있다. 그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게 그 시절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처음에 그는 사역을 하지 않은 정상인이었을 뿐이다. 예수가 서른세 살까지 살았는데 청년 시절과 유년 시절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단번에 서른세 살 반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생각은 다 상상을 초월하고 실제적이지 않다! 물론 성육신한 하나님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성을 지니지만, 직접 사역할 때는 불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지닌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람은 오늘날의 사역과 심지어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까지 의심의 태도를 취한다. 두 차례의 성육신 사역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본질은 전혀 차이가 없다. 물론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본다면 그 차이는 클 것이다. 네가 어떻게 예수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예수의 정상 인성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가 오늘날 하나님의 인성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는 파악은커녕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하고 있다. 마태가 기록해 두지 않았더라면, 너는 예수의 인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예수 생애의 ‘행적’을 알려 주고, 그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 삶의 실상을 알려 주기라도 한다면, 너는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연약하실 리 없고, 정상 인성이란 것은 더더욱 없으실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젓거나 심지어는 고함도 지를 것이다. 너는 예수를 모르기에 나에 대해 관념을 갖게 된 것이다. 너는 예수가 너무

신비로워 전혀 육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결국 사실이다. 그 누구도 사실과 어긋나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나의 말은 추측도 예측도 아니며, 실상을 마주 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를 수 있고, 더욱이 지극히 낮은 곳에도 은밀히 거할 수 있다. 그는 네가 머릿속에서 그려 낸 분도 아니고, 누군가가 구상해 낸 개인의 하나님도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다.

### 사역 이상 3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이는 그가 하려는 사역과 관련이 있다. 은혜시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예수가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그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호와와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고,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사역을 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 그를 위해 사역했다. 구약 율법시대의 종결은 여호와와 이름을 위주로 하는 사역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닌 예수라 불렸으며,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위주로 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니 사람이 지금까지도 여호와와 말씀을 먹고 마시고, 율법시대의 사역을 적용하는 것은 규례에 얽매이고 낡은 것을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말세가 이미 도래했음은 너희도 알 것이다. 설마 예수가 다시 온다면 여전히 예수라고 불리겠느냐? 지난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왔을 때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라고 불렸다. 예수는 자신이 다시 올 것이며, 갔던 그대로 올 것이라고 했다. 예수는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너는 예수가 어떻게 갔는지 보았느냐?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갔다고 해서 설마 다시 흰 구름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오겠느냐? 그렇다면 계속 예수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가 재림할 때는 이미 시대가 바뀌어 있을 텐데, 그를 계속 예수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로만 불러야 한단 말이냐? 새 시대에는 더 이상 새 이름으로 불릴 수 없다는 것이냐? 한 ‘사람’의 형상과 특정한 이름 하나가 하나님의 전부가 된단 말이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 사역을 하고 새 이름으로 불린다. 시대가 다른데 어찌 같은 사역을 행하겠느냐? 그가 어찌 낡은 것을 지키겠느냐? ‘예수’란 구속 사역을 위해 취한 이름인데, 말세에 재림해서도 이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겠느냐? 또다시 구속 사역을 하겠느냐? 여호와와 예수는 하나인데도 왜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렸겠느냐? 사역한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더냐? 이름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에 시대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

이름으로 시대를 바꾸고, 이름으로 시대를 대변한다. 어떤 이름도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대변할 수는 없으며, 시대성을 띤 하나님의 성품만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역만 대변하면 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적합한 이름 하나를 택해 한 시대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든 모두 이름으로 시대를 대변했다. 은혜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으며, 예수는 이미 돌아왔다. 그런데 그를 어찌 또 예수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가 어찌 또 예수의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오겠느냐? 너는 예수가 단지 나사렛 사람의 모습일 뿐임을 잊었느냐? 너는 ‘예수’가 인류의 구속주일 뿐임을 잊었느냐? 그가 어떻게 정복하고 온전케 하는 말세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떠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가 어찌 흰 구름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와서 또다시 예수라고 불리겠느냐? 그가 정말 흰 구름을 타고 온다면,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리 있겠느냐? 세상의 그 누가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오직 ‘예수’ 자신만이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 말인즉,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고 영원히 바뀔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예수는 자신이 갔던 그대로 온다고 했다. 너는 그 말의 진의를 아느냐? 그가 너희에게 알려 주기라도 했단 말이냐? 너는 단지 그가 흰 구름을 타고 갔던 그대로 온다는 것만 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알 수 있느냐? 네가 정말 그것을 안다면 “말세에 인자가 올 때는 인자 자신도 모르고 천사들도, 하늘의 사자들도 모르며 모든 사람 또한 모르고 오직 아버지, 즉 영만 아시느니라”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인자 자신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알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다면, 그 말씀은 허사가 되지 않겠느냐? 예수는 당시에 어떻게 말했느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였다. 그날이 와도 인자조차 알지 못한다. 인자라 함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으로,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을 뜻한다. 인자도 알지 못하는 것을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예수는 떠난 그대로 올 것이지만 올 때는 자신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에게 미리 알려 주겠느냐? 그가 오는 것을 네가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황당한 소리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땅에 올 때마다 이름은 물론, 성별과 형상, 그리고 사역도 바꾼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이므로 같은 사역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이전에 왔을 때 예수라고 불렸다 해서 이번에도 그대로 예수라고 불리겠느냐? 이전에 왔을 때는 남성이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남성이겠느냐? 이전에 은혜시대의 십자가 사역을 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사람을 속량하여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겠느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그렇다면 같은 사역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언제나 새롭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은 영원불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또한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영원불변함을 뜻한다. 그의 이름과 사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의 본질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며, 이 사실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다. 너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영원불변하다면, 그의 6천 년 경륜이 끝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영원불변하다는 것만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언제나 새롭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의 사역이 영원불변하다면, 그가 인류를 오늘날까지 인도할 수 있었겠느냐? 그가 영원불변하다면 왜 두 시대의 사역을 했겠느냐? 그의 사역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해, 그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다 그의 고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적이 없었기에 사람은 그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자신의 성품을 조금씩 나타냈다. 그가 이렇게 사역한다고 해서 시대마다 성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바뀐다고 해서 그의 성품도 끊임없이 바뀌지는 않는다. 사역하는 시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한 성품을 전부 단계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내 그를 알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특정한 성품이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그의 성품 역시 조금씩 바뀐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한 특정 성품, 즉 자신의 어떠함을 사람에게 나타낼 때,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내지, 한 시대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다’는 말은 그의 사역을 두고 한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불변하다’는 말은 그의 고유한 소유와 어떠함을 두고 한 것이다. 어찌 됐든 너는 6천 년 사역을 어느 한곳에 고정해 두거나 케케묵은 말에 묶어 놓아서는 안 된다. 이는 사람의 어리석음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듯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의 사역은 한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도 사역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일 뿐 사탄이 될 수 없으며, 사탄은 영원히 사탄일 뿐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함, 공의, 그리고 위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은 영원불변하지만, 그의 사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심화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고, 새로운 사역을 하며, 피조물에게 그의 새로운 뜻과 성품을 보여 준다. 사람이 새 시대에 새로운

성품의 발현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아 놓지 않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 아니겠느냐? 가령 성육신한 하나님이 단지 남자라면, 사람은 그를 남자로 규정하고 남자의 하나님으로 대하지, 결코 여자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은 성별이니, 하나님은 남자들의 머리라고 여길 것이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는 불공평한 일이다.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은 모두 자신과 같은 남자뿐일 테고, 여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할 때 아담도 만들고 하와도 만들었다. 하나님은 아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남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말세에 하나님은 새로운 단계의 사역을 하여 더 많은 성품을 나타내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때의 공훈과 자비가 아니다. 새로운 사역을 하는 이상, 그 사역에는 새로운 성품을 나타낸다. 만약 영의 역사라면 성육신하지 않고 영이 직접 천둥소리로 말할 테니, 사람은 그를 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그의 성품을 알 수 있겠느냐? 영의 역사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 육신을 통해 그의 모든 성품을 발현해야만 사람이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형체를 지니고 진실로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사람이 그의 성품을 실제적으로 접하고 그의 소유와 어떠함을 접해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남자의 하나님이자 여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역을 완성하게 되고, 성육신의 모든 사역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같은 사역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지금이 말세인 만큼, 그는 말세의 사역을 하고, 말세에 자신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려고 한다. 말세라 함은 또 다른 시대를 말한다. 예수는 “그때가 되면 너희는 반드시 재앙을 겪을 것이며, 지진과 기근, 그리고 온역을 마주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것은 낡은 은혜시대가 아니라 또 다른 시대임을 말한다. 사람들이 말하듯, 하나님이 영원불변한 존재이고, 그의 성품은 영원히 공훈과 자비이며,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 누구든 다 구원하고 또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역에 끝이 있겠느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인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예수가 이미 은혜시대를 끝냈는데, 말세에 또다시 은혜시대의 사역을 행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는 예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번에 온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때처럼 공훈과 자비를 베푼다면, 시대를 끝낼 수 있겠느냐? 공훈과 자비의 하나님이 시대를 끝낼 수 있겠느냐?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사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형벌과 심판으로 나타나며,

온갖 불의를 드러내어 만민을 공개적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 이런 성품이라야 시대를 끝낼 수 있다. 말세가 되었으니 만물은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며, 각각의 성질에 따라 서로 다른 부류로 나눌 것이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를 드러내는 때이다. 사람이 형벌과 심판을 겪지 않는다면, 사람의 패역과 불의는 모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만물의 결말은 오직 형벌과 심판을 통해서만 오롯이 드러나고, 사람은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만 본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은 악한 자는 악한 자끼리, 선한 자는 선한 자끼리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다. 형벌과 심판을 통해 만물의 결말을 드러내어 상선별악하며, 그리하여 만인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게 한다. 이런 사역은 모두 공의로운 형벌과 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극도로 패괴되었고 사람의 패역은 너무나 심해서, 오직 형벌과 심판을 위주로 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만이 사람을 철저히 변화시키고 온전케 할 수 있으며 악을 드러낼 수 있다. 이로써 모든 불의한 자들을 강하게 징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품은 모두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 성품을 나타내고 공개하는 것은 모든 새 시대의 사역을 위한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결말을 드러내는 말세에도 여전히 끝없는 공홀과 자비를 베풀며 사랑해 주고, 공의로운 심판 없이 사랑하기만 하면서 관용을 베풀고 인내하고 죄를 사해 주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언제나 용서해 주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면, 전체 경영은 언제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성품으로 언제 사람들을 인류에게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하기만 하는 재판관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지르든 사랑해 주고, 그 누구든 아껴 주고 감싸 준다면, 공정한 판결은 언제 할 수 있겠느냐? 말세에는 오직 공의로운 심판만이 인류를 각기 부류대로 나눌 수 있고, 사람을 더 새로운 경지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과 형벌의 공의 성품으로 전체 시대를 끝내야 한다.

전체 경영에서 하나님이 행한 모든 사역은 매우 분명하다. 은혜시대는 은혜시대이고, 말세는 말세이듯,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말세의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불사름과 심판, 형벌, 진노, 그리고 파멸로 시대를 끝내야 한다. 말세라고 하면 마지막 시대를 가리킨다. 마지막이라면 시대를 끝내는 것 아니겠느냐? 시대를 끝내려면 반드시 형벌과 심판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대를 끝낼 수 있다. 예수는 사람이 계속 생존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더 잘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죄에서 구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계속 타락하여 음부나 지옥에서 살지 않게 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음부, 지옥에서 구원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 말세가 도래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멸절하고 인류를 완전히 멸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인류의 패역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공훈과 자비의 성품으로는 시대를 끝낼 수 없고, 6천 년 경륜을 완성할 수도 없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특별한 성품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사역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에는 시대마다 그 자신이 나타내는 진정한 성품이 있고, 그의 이름과 사역 모두 시대에 따라 바뀐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시대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인류를 인도하는 사역을 했고, 땅에서 첫 단계의 사역을 전개했다. 그 단계의 사역은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으며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땅에서 하나님이 사역할 근거지를 넓히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그 근거지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사역을 확장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서 외부로 사역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로 사람들은 점차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여호와가 천지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밖으로 사역을 확장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가 땅에서 사역한 첫 성지이다. 하나님이 땅에서 처음으로 사역한 곳은 이스라엘 전역이었고, 그것은 율법시대에 한 사역이었다. 은혜시대에 예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었고, 그의 소유와 어떠함은 바로 은혜와 자비, 공훈, 포용, 인내, 겸손, 사랑 그리고 관용이었다. 그가 와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한 이유는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성품은 공훈과 자비였다. 그는 자신의 공훈과 자비에 따라 반드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으며, 그것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인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은혜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자 공훈과 자비의 하나님이였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했고, 그의 사랑과 공훈, 그리고 구원이 모든 사람과 함께했다. 사람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해야만 평안과 희락을 누리고,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지극히 크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았다. 은혜시대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다시 말해, 은혜시대의 사역은 예수의 이름을 위주로 하는 사역이었다. 은혜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라고 불렸다.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역을 행했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의 사역은 끝이 났다. 이것이 예수가 한 모든 사역이다. 그러므로 율법시대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은혜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을 대표했으며, 말세에는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곧 전능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정복하고 얻으며, 마지막에는 시대를

끝낸다. 각 시대와 각 단계의 사역에서 다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다.

처음에 구약 율법시대의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과 비슷했다. 최초의 인류는 여호와가 처음 만든 인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 여호와가 인류,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땅에서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관(器官)은 만들어 주지 않은 것이다. 여호와가 직접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이를 직접 알 수 없다.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이런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뿐이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그를 경외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그를 경외하는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를 경외하는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 무엇을 바쳐야 그를 경외하는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사람은 여호와가 창조한 만물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법은 알고 있었지만,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피조물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인류를 아무도 이끌지 않고, 직접 인도해 주지도 않는다면, 인류는 영원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여호와는 인류,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총명과 지혜를 베풀어 주지는 않았다. 그들은 땅에서 생활했지만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인류를 창조하는 여호와의 사역은 전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반만 완성되었다. 여호와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뿐, 사람에게 그를 경외하고자 하는 충분한 의지는 주지 않았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만 알았지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식과 보편적인 법칙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7일간의 일을 완성했지만,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껍데기만 있었을 뿐, 사람으로서의 실체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사실만 알았지, 어떻게 그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야 하는지 몰랐다. 그러므로 인류가 생겨났음에도 여호와의 사역은 완성되지 않았다. 여호와는 또 인류를 그의 앞으로 철저히 인도하여 땅에서 무리 지어 살면서 그를 경외하게 하고, 그가 인도한 후에도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이 모두 끝나게 되는 것이었다. 즉, 여호와의 창세 사역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인류를 창조한 이상, 그들을 인도하여 땅에서 수천 년을 살게 하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게 해야 했다. 또한, 인류가 땅에서 정상적으로 그들의 모든 활동을 하게 해야 했다. 그렇게 되어야 여호와의 사역이 모두 끝나는 것이었다. 그는

인류를 창조한 후 바로 이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야곱 시기에 이르러서야 야곱의 열두 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구성되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여호와가 땅에서 정식으로 인도하는 인류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가 땅에서 역사하는 특정 장소가 되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땅에서 정식으로 역사하는 첫 무리로 정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사역의 발원지로 삼아 더 큰 사역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그에게서 난 땅의 사람이 모두 어떻게 그를 경외하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것은 이방의 족속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한 것은 이방의 족속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이 되었다. 그들은 여호와와 율법과 계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으며, 어떻게 여호와와 도를 경외해야 하는지도 가장 먼저 알았고, 또한 여호와와 도를 알게 된 인류의 조상이자 여호와께 선택받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이다. 은혜시대에 이르자 그는 더 이상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악으로 타락하자 그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책망의 말씀이 뒤따르고, 사람을 죄에서 철저히 구원하기에 이르렀다. 말세에는 사람이 지금의 이 지경까지 타락했으므로 심판과 형벌로 이 단계의 사역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 시대의 사역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가 하려는 사역, 그리고 서로 다른 형상을 통해 시대를 구분하고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은 그의 시대를 대표하고, 그의 각 시대 사역을 대표한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는 사역이 모두 똑같고 모두 동일한 이름으로 불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겠느냐? 하나님은 여호와로 불려야 하며 여호와로 불리는 존재만이 하나님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식할 것이다. 혹은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 이외의 다른 이름으로는 불릴 수 없으며, 예수 외에는 여호와나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길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니 예수라고 불려야 해.’라고 생각한다. 너의 이런 생각은 규례를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어떤 범위 내에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대마다 행한 사역과 불린 이름, 그리고 그가 지닌 형상과 그가 행한 각 단계의 사역은 지금까지 어떤 규례도 따르지 않고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이지만 예수이기도 하고 메시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의 사역이 단계적으로 바뀔에 따라 그의 이름도 변하지만, 어떤 이름도 그를 완전하게 대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불린 이름은 모두 그를 대표할 수 있고, 각 시대에 그가 행한 사역은 모두 그의 성품을 대변한다. 말세가 도래했는데도 네가 본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이고, 또한

예수의 모습으로 흰 구름을 타고 와서는 “너희는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 금식기도를 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되 제 목숨을 아끼듯이 사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며, 인내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행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너희가 이런 것을 행하면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며 예수가 이전에 했던 말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여전히 은혜시대의 사역이 아니겠느냐? 전하는 것도 여전히 은혜시대의 도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그것은 예수가 행한 사역이라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반복되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이 누릴 수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행한 사역이 지금 이 수준에 그칠 뿐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그의 능력은 그제 전부라 새 사역도 없고 능력도 다다랐다고 느낄 것이다. 2천 년 전에도 은혜시대였고, 2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은혜시대의 도를 전하면서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건가? 전에는 정말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사람을 포용하고 인내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 아실 뿐, 다른 건 하실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은혜시대에 국한하고,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만 여길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사역이 되풀이되겠느냐?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며,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은 너희의 상상이나 전해 들은 풍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오늘날에는 바리새인과 접촉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지도 않으므로 이를 아는 사람은 그를 따르는 너희밖에 없다. 그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가 은혜시대에 각처에서 공개적으로 전도한 것은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였고, 바리새인과 접촉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위해서였다. 그가 바리새인과 접촉하지 않았다면 권세를 잡은 자들은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가 어찌 정죄당할 수 있겠으며, 또 어찌 배반당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겠느냐? 그러므로 예전에 바리새인과 접촉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였으며, 오늘날 은밀하게 사역하는 것은 시험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다. 두 단계의 성육신 사역과 의의가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른데, 행하는 사역이 어찌 완전히 같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지닌 예수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해 전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라고만 불러야 하고 더 이상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야말로 모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의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대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많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만, 그중에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전부를 개괄할 수 없고,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대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많지만, 이 많은 이름조차도 그의 모든 성품을 전부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많아서 사람이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인류의 언어로 하나님을 개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류는 그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위대함, 존귀함, 기묘함, 측량할 수 없음, 지고지상함, 거룩함, 공의로움, 그리고 지혜로움 등 몇 안 되는 한정된 어휘로 개괄할 뿐이다. 참 많기도 하구나! 한정된 이 몇 개의 어휘로는 하나님의 성품 중 사람이 본 그 얼마 안 되는 부분조차 묘사해 낼 수 없다.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럽다!’와 같이 마음속의 걱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지어냈다. 오늘날에 이르러 이와 같은 언어 표현은 절정에 이르렀지만, 사람은 아직도 분명히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아주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또 어떤 이름도 없다. 하나님의 어떠함은 너무나 많은데, 사람의 언어는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단어 하나와 특정한 이름 하나가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고정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것처럼 위대하고 거룩한데, 너는 그가 시대에 따라 이름을 바꾸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친히 사역할 때, 시대에 부합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사역을 개괄하고, 시대적 의의를 지닌 특정한 이름으로 그의 해당 시대의 성품을 대변한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인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체험을 했거나 하나님을 직접 본 많은 사람은 특정한 이름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에 사람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한 듯하지만 모순도 심한 것 같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성품을 개괄할 수 없고, 그 어떤 이름으로도 그의 소유와 어떠함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누군가 나에게 “대체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알려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이름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개괄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따지고 드느냐? 이름 하나 때문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굳이 머리를 싸매 가며 궁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로도, 예수로도, 메시아로도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바로 ‘창조주’이다. 그때가 되면, 그가 땅에서 불렀던 이름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가 땅에서 하는 사역이 끝나면서 그의 이름도 함께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물이 모두 창조주의 권세 아래로 돌아왔는데, 그가 아주 적합하기는 해도 완전하지 않은

이름으로 불릴 필요가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따지고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러야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오직 예수로 불러야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다. 단지 사역을 하고 인류를 경영해야 했으므로 한두 개, 혹은 더 많은 이름을 취했을 뿐이다. 그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모두 자신의 마음대로 택하는 것 아니겠느냐? 피조물인 네가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수용 능력과 인류의 언어에 따라 불리지만, 사람이 이 이름을 개괄할 수는 없다. 너는 단지 “하늘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 자신으로서 참으로 지혜롭고 너무나 위대하시며, 더할 나위 없이 기묘하고 신비롭고 전능하십니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 더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다. 네가 알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이다. 그러한데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하나님 자신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말세가 와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역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그의 이름도 바뀌어야 한다.

전 우주 위아래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존재인데, 육신 하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모두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은 한 단계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육신의 형상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천이나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계가 없다. 당시에 예수가 왜 그의 형상을 남기지 않았겠느냐? 왜 사람들에게 그의 형상을 그려 영원히 전하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왜 사람들에게 예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맞지만, 사람의 모습이 어찌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의 특정한 육신에 내려온 것에 불과하다. 이는 그의 영이 육신에 임한 후 육신에서 영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영이 육신에서 발현하는 것이며, 영이 육신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육신이 행하는 사역은 오롯이 영을 대표한다. 육신은 사역을 위한 것이지만 육신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형상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목적과 의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가 성육신하는 목적은 단지 영이 역사하기에 적합한 거처를 찾아 육신의 사역을 하는 데 있으며, 또한 사람이 그의 행사를 보고 그의 성품을 깨달으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기묘한 사역을 알게 하는 데 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성품을 대표하고 그의 사역은 그의 신분을 대표한다. 하지만 그는 육신의 모습이 그의 형상을 대표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것은 사람의 관념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의 핵심은 바로 그의 이름과 사역, 성품, 그리고 그의 성별에 있으며, 이로써 그 시대의 경영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성육신한 모습은 단지 그 당시의 사역을 위한 것일 뿐 그의 경영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성육신한 하나님에게는 특정한

모습이 있어야 하기에, 그는 적합한 가정을 택하여 그의 모습을 결정한 것이다. 모습에 대표적인 의의가 있다면, 그와 비슷하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말인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니냐? 예수의 초상화는 사람들이 스스로 경배하려고 그렸다. 당시에 성령도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 초상화를 오늘날까지 전해 온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원뜻에 따른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지만, 사람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초상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므로 사람은 영원히 그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 개괄할 수 없다. 그저 그의 성품으로 그의 형상을 대신할 뿐이다. 그의 코와 입, 눈은 어떻게 생겼고, 머리카락은 어떠한지, 너는 이러한 것들을 개괄할 수 없다. 지난날 요한은 계시를 받아 인자의 형상을 보고서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느니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그가 묘사한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피조물의 형상이 아니다. 그가 본 것은 물질세계에 있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이상(異象)에 불과하다. 요한이 이상을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참으로 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형상은 피조물의 형상에 속하므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표할 수 없다. 여호와와 인류를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다. 이렇듯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했지만,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네가 인류의 언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개괄해 내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크며,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기묘하여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날 예수는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고 성령이 행하려는 대로 사역했지, 구약 율법시대나 여호와가 행한 사역에 따라 사역하지는 않았다. 예수가 와서 한 사역은 여호와와 율법을 따른 것도, 여호와가 정한 계명을 따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근원은 하나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은 예수라는 이름을 대변한 것이자 은혜시대를 대변한 것이었고,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여호와를 대변한 것이자 율법시대를 대변한 것이었다. 그들의 사역은 한 분의 영이 서로 다른 두 시대에 행한 사역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은 은혜시대만 대변하고,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구약 율법시대만 대변할 뿐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인도했고, 이스라엘 외의 족속들도 인도했다. 신약의 은혜시대에 예수가 행한 사역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며 시대를 이끈 것이었다. 만약 네가 예수는 여호와와 사역을 바탕으로 사역했을 뿐, 새로운 사역을

전개하지 않고 완전히 여호와와 말씀에 따라 행하였으며, 또한 여호와가 행한 사역과 이사야가 말한 예언에 따라 사역했다고 말한다면, 예수는 성육신이 아니다. 그가 그런 사역을 했다면, 그는 율법시대의 사도나 일꾼에 불과하다. 네가 말한 대로라면, 예수는 시대를 열 수 없고 다른 사역을 할 수도 없다. 이는 성령은 반드시 여호와를 위주로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호와가 아니라면 성령이 더 새로운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사람이 예수의 사역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예수는 여호와와 말씀과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사역을 했다고 여긴다면, 예수는 성육신 하나님이나, 아니면 선지자이나? 이런 논리대로라면 은혜시대는 존재하지도 않고, 예수를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가 행한 사역은 구약 율법시대만 대변할 뿐 은혜시대를 대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가 와서 새로운 사역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전개해야만,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사역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가 한 사역에 따라 하지 않고, 여호와와 낡은 규례대로 하지 않으며, 어떤 규례에도 맞추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새로운 사역을 해야만,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와서 스스로 시대를 열고 시대를 끝내지만, 사람은 시대를 여는 사역도 시대를 끝내는 사역도 행할 수 없다. 예수가 와서 여호와와 사역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는 사람일 뿐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예수는 와서 여호와와 사역을 끝냈고 여호와와 사역을 이었으며, 그 자신의 더 새로운 사역을 전개했다. 이는 새로운 시대임을 증명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증명한다. 그들은 전혀 다른 두 단계 사역을 했다. 한 단계의 사역은 성전 안에서 했고 다른 한 단계의 사역은 성전 밖에서 했다. 또한 한 단계의 사역에서는 율법으로 사람의 생활을 인도했고 다른 단계의 사역에서는 속죄 제물로 바쳐졌다. 전혀 다른 두 단계의 사역이 곧 구시대와 신시대의 구분이며, 틀림없는 두 시대이다! 그들이 사역한 장소와 내용, 그리고 목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두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약과 구약은 곧 신시대와 구시대를 가리킨다. 예수가 와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여호와와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성전 안에서의 여호와 사역이 이미 끝나 더 이상 그 사역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 하게 되면 되풀이되는 것이다. 오직 성전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사역을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절정에 달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성전에서 나오지 않고 사역했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히 성전의 바탕에 머물러 새로운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성전 안에서 사역하지도 않았고, 성전 밖에서 사역하면서 제자들을 인도하며 자유롭게 사역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와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또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의미했다. 그는 성전 밖의 사역을

하고자 했으며, 성전 밖의 더 새로운 사역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 그는 오자마자 구약시대에 여호와가 행했던 사역을 끝냈다. 비록 서로 다른 두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는 한 분의 영이 두 단계의 사역을 행한 것이며, 그 사역은 계속 이어진 것이었다. 이름과 사역의 내용이 다르기에 시대 역시 다르다. 여호와가 오면 여호와의 시대이고, 예수가 오면 예수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한 번 오게 되면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그 단계의 새로운 길이 하나의 이름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고, 그의 사역은 끊임없이 발전함을 의미한다. 역사(歷史)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끊임없이 발전한다. 6천 년 경륜을 끝내려면 반드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사역을 하고, 해마다 새로운 사역을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길과 새로운 기원뿐만 아니라 더 새로운 사역과 더 큰 사역을 개척해야 한다. 그에 따라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사역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새로운 사역을 한다. 낡은 것을 지킨 적이 없고 규례도 지키지 않지만, 그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을뿐더러 시시각각 행하고 있다. 너는 성령이 행하는 사역이 영원불변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여호와와는 왜 제사장에게 성전 안에서 그를 섬기라고 했겠느냐? 예수가 왔을 때, 사람은 그를 대제사장이라고도 하고, 다윗 집안의 사람이나 대제사장, 대군왕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예수는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느냐? 성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모두 하나님 자신이 행하는 사역 아니더냐? 사람의 상상대로라면 예수가 다시 와야 하고 말세에도 여전히 예수라고 불려야 한다. 또한 흰 구름을 타고 예수의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임해야 한다. 그러면 사역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겠느냐? 성령이 낡은 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모두 관념이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문자의 표면적 의미와 사람의 상상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성령 역사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 없고 그렇게 어리석거나 멍청할 리도 없다. 그의 사역은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람의 상상대로라면,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와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며, 너희가 흰 구름을 타고 와서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는 그를 보고, 그의 손에 난 못 자국까지 확인한 후에 그가 바로 예수임을 알아볼 것이다. 또 그는 다시 너희를 구원하여 능력이 매우 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고 흰 돌을 하나씩 준 다음 너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며, 천국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람의 관념이 아니냐? 말해 보아라.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대로 사역하겠느냐, 아니면 사람의 관념을 깨면서 사역하겠느냐? 사람의 관념은 모두 사탄에게서 온 것 아니냐? 사람은 모두 사탄에 의해 파괴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대로 행한다면 사탄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피조물과 같은 부류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피조물은 이미 사탄에 의해 이 지경까지 파괴되어 모두 사탄의 화신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탄의 방식에 따라 행한다면 사탄과 한패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관념대로 행하지도, 너의 상상대로 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흰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한 것은 그가 친히 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친히 한 말씀인 것은 맞지만, 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는 성령이 너에게 깨우쳐 주고 빛을 비취 준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느냐? 설마 성령이 너에게 그렇게 직접 지시했다는 말이나? 성령이 지시한 것이나, 아니면 네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나? 그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관념과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늠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가 한 말일지라도 네가 그 말을 모두 해석할 수 있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느냐? 네가 감히 그의 말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의 말도 감히 해석하지 못하면서 어찌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느냐? 예수가 높으냐, 아니면 이사야가 높으냐? 예수가 높다면, 왜 그가 한 그 말씀들을 모두 해석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너에게 미리 알려 줄 리 있겠느냐? 피조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늘의 사자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는데,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다.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3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다. 여호와부터 예수까지, 그리고 예수부터 이 단계의 사역까지 세 단계 사역이 이어져 오면서 하나의 완전한 경영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한 분의 영이 행한 사역이다. 창세 이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역하면서 인류를 경영하고 있다. 그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며, 시대를 펼치는 분이자 시대를 끝내는 분이다. 3단계 사역은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한 분의 영이 행한 것임에 틀림없다. 3단계 사역을 따로 갈라놓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지금 너는 첫 단계부터 지금까지 행한 사역이 의심할 바 없이 한 분의 하나님이 행한 것이고, 한 분의 영이 행한 사역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성육신의 비밀 1

은혜시대에 요한은 예수를 위해 길을 닦는 사역을 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할 수 없었으며, 그저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을 이행했을 뿐이다. 요한이 주의 선구자이기는 했지만 성령께 쓰임 받는 한 사람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예수가 세례를

받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에게 임했고, 그때부터 예수는 사역을 시작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행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그전에 그가 어떻게 믿었든, 연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모두 직분을 이행하기 전 정상 인성의 생활이었다. 예수가 세례를 받자(기름 부음을 받자) 바로 능력이 따랐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였으며, 그는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권능을 행하며 능력과 권병을 가졌던 것은 직접 하나님을 대표해 사역하고, 영을 대신해 사역하며, 영의 음성을 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요한은 성령께 쓰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하며 대표할 수도 없다. 요한이 하나님을 대표하려고 했다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에게 사람의 뜻이 많았을 수도 있고 치우친 점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직접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었다. 요한의 잘못과 그릇됨은 그 본인을 대변하지만 그가 사역한 부분은 성령을 대변한다. 그렇다고 그의 전부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설마 그의 치우침과 그릇됨까지도 하나님을 대변하겠느냐? 사람을 대변할 때 치우침과 그릇됨이 있는 것은 정상이지만, 하나님을 대변하는데도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 아니겠느냐? 성령은 함부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 사람들이 높이 받드는 자라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 그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없다. 성령은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요한의 경우도 성령이 증거한 사람이었고 예수의 길을 닦는 자라고 성령이 밝힌 사람이었다. 하지만 성령이 요한에게 행한 사역은 상당히 적절했다. 예수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위해 길만 닦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요한의 길 닦는 사역만 수호했으며, 그 외에 다른 일은 허락하지 않았다. 요한은 엘리야를 상징하며 길을 닦는 선지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런 사역은 성령이 수호했다. 요한의 길 닦는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은 모두 수호하였다. 하지만 요한이 하나님을 자처하며 자기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면 성령은 그를 징계했을 것이다. 요한이 한 사역이 아무리 크고 또 성령의 수호를 받았을지라도 그의 사역은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성령이 요한의 사역을 수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그에게 부여한 능력은 길을 닦는 데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역은 전혀 할 수 없었다. 그는 예수가 아니라 그저 길을 닦는 요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가 중요하기는 해도 사람이 하는 사역을 성령이 허락하는지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 지난날 요한은 아주 크게 증거되었고, 그가 한 사역도 매우 크지 않았더냐? 하지만 요한이 한

사역은 예수를 넘어설 수 없었다. 요한은 그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일 뿐 직접 하나님을 대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한 사역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가 길을 닦는 사역을 끝낸 뒤에는 성령이 더는 그의 증거를 수호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역이 그를 따르지도 않았으며, 그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떠났다.

악령이 들려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고 말았다. 그들이 대표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탄을 대표했고, 성령은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아무리 대단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외쳐 대도 그들은 피조물이며, 사탄에 속한 존재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외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굳이 외칠 필요가 있겠느냐? 높이 치켜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위나 어떤 존칭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가 하는 사역이 바로 그의 신분과 지위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세례를 받기 전에도 하나님 자신 아니었더냐? 성육신 하나님 아니었더냐? 설마 그가 증거된 후에야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었겠느냐? 그가 사역을 하기 전부터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있지 않았더냐? 네가 새 길을 열지 못하면 영을 대표할 수 없다. 영의 사역과 영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으며, 영이 하는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함, 난측함, 사람을 형벌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낼 수도 없다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자처해도 허울만 있을 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왔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그는 계속 사역을 행하며, 또한 영을 대표해 사역한다. 네가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주님이든 그리스도든 자매든 어떻게 불러도 괜찮다. 하지만 그가 하는 사역은 영의 사역이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대변한다. 그는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든 개의치 않는다. 사람이 그에게 붙인 호칭으로 그의 사역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를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이 보기에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고 영을 대표하는 존재이며 영이 인정하는 존재이다. 네가 새 시대의 길을 개척하지 못하고 옛 시대를 끝낼 수도 새 시대를 열 수도 없으며, 새 사역도 하지 못한다면, 너를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없다!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대표할 수는 없다. 비단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사역도 하나님을 직접 대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의 체험을 직접 하나님의 경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체험’은 ‘하나님의 경영’을 뜻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그가 자신의 경륜에 따라 하고자 하는 사역이며 커다란 경영과 관계된 일이다. 반면 사람이 하는 사역은 모두 개인의 체험을 공급하고 앞사람이 개척한 길을 이어 다른 체험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다른 형제자매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들이 공급하는 것은 다 개인의 체험이나 영적 인물의 영적 저술이다. 성령께 쓰임 받기는 하지만 그들의 사역은 6천 년 계획 중 큰 경영과 관계된 사역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 다른 각 단계에 성령이 세운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이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 뿐이다. 그들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 적합한 길을 예비하거나 하나님이 땅에서 행한 경영 사역의 한 부분을 이어 가는 것뿐이다. 그들은 경영 안에서 더 큰 사역을 할 수 없고, 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없으며, 더욱이 아무도 하나님의 옛 시대 사역을 끝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역은 피조물이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할 뿐, 하나님 자신이 직분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사역과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대를 여는 사역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며, 성령의 감동이나 깨우침을 받아서 하는 사역이다. 그들의 사역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길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길을 이끌어 주는 것이다.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의 경영과 관련이 없고 영의 사역을 대변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위트니스 리와 워치만 니가 한 사역은 모두 길을 인도하는 것으로, 새 길이든 옛길이든 모두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지방 교회를 회복시켰든 세웠든, 결국에는 다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행한 것은 전부 은혜시대에 예수와 다른 사도들이 다 하지 못했거나 심화시키지 못한 사역이었다. 그들의 사역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세례를 받고, 떡을 떼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 등은 모두 예수가 사역할 당시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을 회복하여 행한 것이었다. 그들의 사역은 다 성경을 지키고 성경에서 길을 찾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진전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 성경에서 새 길을 발견하고 더 훌륭하고 현실적인 실행 방법을 찾아낼 수만 있을 뿐, 하나님의 현재 뜻을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말세에 하나님이 하려는 더 새로운 사역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그들이 계속 옛길을 가며 새로워지지 않고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과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실행을 고수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과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니,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을 지켰다. 나아가 “자매는 설교할 수 없고 순종하는 사람만 될 수 있다”라는 전통 관념을 고집하였다. 그들의 그런 방식대로 계속 이끌어 간다면 성령은 영원히 새 사역을 할 수 없고 사람을 규례에서 해방시킬 수 없으며 사람을 자유롭고 아름다운 경지로 인도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를 바꾸는 이 단계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행하고 친히 말씀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지금 이 흐름 밖에 있는 성령 역사는 모두 정지되어 있고, 한때 성령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과 다르고, 그들의 신분이나 대표하는 대상도 다르다. 이는 성령이 하려는 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똑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도 몇몇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고 옛 시대의 사역들을 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새 시대에 나타내려는 성품과 뜻을 나타낼 수 없다. 그저 옛 시대의 사역을 폐하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대변하는 새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낡은 방식을 얼마나 폐하든, 또는 새로운 방식을 얼마나 가져오든, 그들은 사람을 대표하고 피조물을 대표할 뿐이다. 반면 하나님이 사역할 때는 공개적으로 옛 시대의 방식을 폐한다고 선포하지 않고 시대를 열 것이라고 직접 선포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자신이 하려는 사역을 행한다. 즉, 직접 자신이 가져온 사역을 선포하고, 자신이 본래 하려던 사역을 행하며, 자신의 어떠함과 성품을 나타낸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의 성품이 과거 시대와 다르고 그의 사역도 과거의 시대와 다른 것 같겠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그저 사역을 이어 가고 더 심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고 직접 새로운 사역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사람의 사역은 사고나 연구를 거쳐, 또는 다른 사람이 도출한 결론을 기반으로\* 인식을 심화하고 실행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는 사역의 본질은 ‘정해진 대로 착실히 따르고’, ‘새 신을 신고 옛길을 가는’ 것이다. 즉,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친히 개척한 길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다.

요한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처럼 약속으로 태어났다. 그는 예수를 위해 길을 닦았고 수많은 사역도 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에 속한다. 예수를 위해 길을 닦는 일만 했기 때문이다. 그도 매우 큰 일을 했다. 그가 앞에서 길을 잘 닦아 놓은 후에야 예수가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위해 봉사한 것에 해당하며, 그가 한 사역은 예수의 사역에 이바지한 것이다. 예수는 요한이 길을 닦아 놓은 후에 사역을 시작했으며 더 새롭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역을 했다. 요한은 시작 사역만 했고, 더 많은 새 사역은 전부 예수가 했다. 요한도 새로운 사역을 했지만, 그는 새 시대를 여는 자가 아니었다. 요한은 약속으로 태어난 자이고, 그의 이름 역시 사자가 지어 주었다. 당시에 누군가 그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를 따라 사가랴라고 하자고 했을 때, 그의

---

\* 다른 사람이 도출한 결론을 기반으로: (직역) 다른 사람의 기초에서

어머니는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지시했다. 예수 이름도 성령이 지시한 것이었다.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이 약속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고, 인자였다. 요한도 매우 큰 사역을 했는데 어째서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않았겠느냐? 예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단순히 요한은 예수를 위해 길을 닦는 자였기 때문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이겠느냐?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라고 외치며 천국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사역은 시작일 뿐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다. 반면 예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낡은 시대를 끝냈으며 구약 율법도 완전케 했다. 그는 요한보다 더 큰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했다. 요한은 길만 잘 닦아 놓았을 뿐이다. 비록 그 역시 큰 사역을 하고 많은 말을 했으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주는 데 그쳤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생명과 길 또는 더 깊은 진리를 얻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다. 요한은 큰 선지자(엘리아)다. 그는 예수의 사역을 위해 장소를 준비하고 적합한 사람들을 예비하였으며, 은혜시대의 길을 연 선구자였다. 정상인의 겉모습만 봐서는 결코 이런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 더구나 요한도 매우 큰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약속한 자였고, 성령이 그의 사역을 수호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사역을 통해 각자의 신분을 구별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의 겉모습으로는 사람의 본질을 구별할 수 없고, 사람 또한 무엇이 성령의 증거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과 예수의 사역이 다르고 사역의 성질 또한 같지 않으므로 이런 것을 통해 그가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수는 시작, 후속, 종결, 성취의 몇 단계 사역을 했지만 요한은 시작하는 사역만 했다. 예수는 처음에 회개의 도를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마지막에는 인류를 죄에서 속량함으로써 그의 전체 시대 사역을 완성했다. 예수는 또한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 이 점은 요한과 같다. 그러나 다른 점은 예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사람들에게 은혜시대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은혜시대에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것과 가야 하는 길은 전부 그의 입에서 나왔다. 또한 마지막에 그는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요한은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한 것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직접 하나님을 대표한 것이다. 사람은 약속으로 태어나고, 영으로부터 태어나고, 성령의 수호를 받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이런 설에 따르면 요한도 하나님이고, 모세, 아브라함, 다윗 등등도 모두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몹시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예수도 직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저 정상인으로서 성령이 하는 대로 따랐다. 그 당시 예수가 자신의 신분을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그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에 순종했다. 예수가 직분을 이행하기 전까지 성령은 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가 규례와 율법들을 폐한 것은 직분을 시작한 후의 사역이었으며, 그의 말씀에 권병이 가득하고 능력이 나타난 것도 그가 정식으로 직분을 시작한 뒤의 일이었다. 예수는 직분을 시작한 후에야 시대를 개척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 전에는 성령이 29년 동안 그의 몸에 은밀히 거했다. 그 29년간 예수는 그저 한 사람이었을 뿐, 하나님의 신분은 없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가 사역을 하고 직분을 이행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던 상관없이 그는 자기 계획에 따라 사역했다. 직접 하나님 자신을 대표해 사역한 것이다. 당시 예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당신은 가장 큰 선지자이고 우리의 훌륭한 의사이니이다”라고 대답했고, 또 어떤 이는 “당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니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온갖 대답이 다 나왔다. 그를 요한이나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자 예수가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분을 공개할 때도 베드로가 먼저 알았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는 세례를 받은 후, 사람들이 그의 신분을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한 사역은 하나님을 대변했다. 그는 그의 사역을 하기 위해 왔지, 자기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한 후로 예수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알게 되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때가 되자 사역을 시작했다. 네가 그에 대해 알든 모르든 예수는 계속 변함없이 사역을 했을 것이며, 설령 네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는 자신의 사역을 하고, 때가 되면 시작했을 것이다. 그는 사역을 하고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 왔다. 사람들에게 자기 육신을 알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온 것이다. 지금의 이 단계 사역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임을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은 네게 이상(異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단계 사역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거나 사역을 잘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사역을 지금의 사역과 맞추려 하나, 맞지 않자 이 단계 사역을 부인하려고 한다. 그것은 너무나 눈먼 것 아니겠느냐? 성경에 기록된 제한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대변할 수 없다. 4복음서를 모두 합쳐도 100장이 되지 않는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일, 베드로가

주를 세 번 부인한 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한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난 일, 금식에 관한 것, 기도에 관한 것, 아내를 버림에 관한 것, 예수의 출생, 예수의 족보, 예수가 제자들을 세운 것 등등 얼마 되지 않는 것들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사람은 이것을 보배로 여기고 지금의 사역과 대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평생 행한 사역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하나님이 그 사역들 외에는 다른 사역을 못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터무니없는 생각 아니겠느냐?

예수가 땅에 머문 시간은 33년 반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땅에서 33년 반을 살았다. 하지만 그중 직분을 이행한 기간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정상 인성의 생활을 했다. 예수도 처음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제사장의 성경 강의와 다른 이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역시 보고 들어서 알게 된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가 열두 살 때 회당에서 선생들에게 질문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옛 선지자의 예언,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 등등 많은 것들을 질문했다. 그는 그러한 것들을 몰랐고, 또 분명히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태어난 후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성격에 특별한 부분이 조금 있었을지라도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면서 그의 지혜도 점점 자랐는데, 정상 인성의 생활 과정을 거친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가 유년기와 청년기를 거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서른 살의 생활을 했으며, 사역을 마친 뒤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정상인의 생활 과정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또 그는 하나님이므로 밥을 먹지도 않고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않았으며, 사람들 또한 그를 쉽게 만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는 이상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그를 보기만 해도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사람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정상 인성의 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성인(聖人)이기 때문에 양치질이나 세수를 하지 않아도 깨끗할 거라고 여긴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관념 아니겠느냐? 성경에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의 인성 생활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정상 인성이 없었으며, 그가 서른 살 이전에 정상 인성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예수가 스물아홉 살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스물아홉 살 이전의 인성 생활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성경에 그 부분의 기록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다. 그 기간의 생활은 신성으로 사역하는 단계가 아니라 정상 인성의 생활이었으므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성령이 직접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직분을 이행해야 하는 날까지 정상인의 생활을 유지했을 뿐이다. 그는 성육신 하나님이었지만, 정상 인성이 성숙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생명 성장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기에 성경에는 이 성숙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예수가 세례를 받기 전의 기간은 은밀한 단계였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도 않았다. 예수가 세례를 받은 후에 행한 모든 사역이야말로 인류에 대한 속량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사역이다. 이 사역의 시작은 곧 은혜시대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즉, 그 사역은 은혜시대 사람들이 은혜시대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두 사실이다. 몇몇 일들의 기록에 작은 오차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일’은 완전히 사실이다. 다만 사람이 기록한 것에 오차가 있을 따름이다. “예수님은 평범한 정상 인성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실 수 있었나요?”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가 40일간 시험을 받은 것은 이적과 기사로, 정상인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40일간 시험받은 것은 성령 역사에 속하는데, 그에게 초자연적인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다고 해서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인간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성령이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가 이적을 나타내고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가 직분을 이행하기 전, 성경의 표현대로 성령이 그의 몸에 내려오기 전까지 예수는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초자연적인 면이 전혀 없었다. 성령이 그의 몸에 임했을 때부터, 즉 그가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초자연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는 정상 인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게다가 성육신 하나님께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역하므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모두 초자연적인 일이고,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또한 모두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가 행한 것과 말한 것은 사람이 알 수도, 닿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왔는데 초자연적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천국의 비밀을 땅으로 가져왔으니 사람이 깨달을 수도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기묘하고 지혜롭다. 이것이 모두 초자연적인 것 아니겠느냐? 하지만 너는 아무리 초자연적인 것이라도 전부 정상 인성에서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다 인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성육신이 아니다. 예수가 그때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은 모두 초자연적인 일이었다. 그들은 천사도 보고 사자도 보았으며, 또 여호와가 발하는 음성도 들었다. 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일 아니더냐? 물론 지금 어떤 악령도 초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 그것은 악령이 모방하는 것으로, 지금 성령이 하지 않는 역사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에 불과하다. 많은 자들이 이적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는 모두 악령이 하는 것이다. 지금 성령은 그런 사역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이 행한 것을 나중에 모방하는 것들이야말로 악령이다. 지난날 이스라엘에서 한 사역은 모두 초자연적인 사역이었다. 지금은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지금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거짓과 모방, 사탄의 방해에 속한다.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것은 모두 악령에 속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시대를 보아야 한다. 오늘날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초자연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너는 그가 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닿을 수도 없다. 사람은 그가 한 사역을 행할 수 없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저도 당신처럼 평범한데, 당신이 아는 것을 저는 왜 모를까요? 당신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은데 어떻게 제가 모르는 일을 알고 있나요?” 이는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 했던 사역을 아무도 모르고 성경 해석가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요?” 이러한 것도 다 초자연적인 일 아니겠느냐? 그는 기이한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무엇이든 알고 있으며, 전혀 힘들이지 않고 말씀을 하고 진리를 선포한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일 아니겠느냐? 그가 행하는 것은 육체가 도달할 수 있는 범주를 초월했으며, 육체의 사유로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고 사람의 두뇌와 이성으로는 전혀 생각해 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는 성경을 읽어 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했던 사역에 대해 알고 있고, 땅에 있어도 셋째 하늘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람은 ‘이것은 셋째 하늘의 말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다 정상인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일 아니냐? 지난날 예수가 40일간 금식한 것은 초자연적인 일 아니냐? 40일 동안 금식한 것이 다 초자연적인 일이고 다 악령에 속한다고 말한다면, 너는 예수를 정죄하는 것 아니겠느냐? 직분을 이행하기 전에 예수는 평범한 사람들과 같았고, 그도 학교에 다녔다.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 어떻게 글을 알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성육신하면 영이 육신에 은밀히 거하지만, 정상인으로서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고가 성숙하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후에라야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성이 성숙해져야 직분을 이행할 수 있다. 정상 인성이 성숙하지 못했거나 이성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직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예닐곱 살에 직분을 이행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왜 성육신하자마자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그의 육신이 가진 인성이 성숙되지 않았고 육신의 사고와 정상 인성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상 인성을 갖추고 정상 인성의 상식을 갖추어 육신에서의 사역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게 된 후에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사역을 담당할 정도가 되지 않았다면 계속

성장해야 한다. 예수가 일고여덟 살 때부터 사역하기 시작했다면 사람은 모두 그를 신동으로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어린애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누가 믿고 복종할 수 있었겠느냐? 일고여덟 살 아이가 강단에 서면 강대상보다도 키가 작을 텐데 설교를 할 수 있었겠느냐? 정상 인성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사역을 담당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역은 성숙되지 못한 인성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사역할 때도 원칙이 있다. 그는 반드시 정상 인성을 갖춘 전제하에서만 아버지를 위해 사역을 담당할 수 있고 아버지가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는 유년 시절에 오랜 옛날의 일들을 전혀 몰랐고, 회당에 있는 선생들에게 물어본 후에야 알게 되었다. 만약 예수가 말을 떼기 시작하자마자 사역하기 시작했다면 착오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잘못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에 그는 사역할 수 있게 된 뒤에야 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사역을 완전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 예수는 스물아홉 살이 되었을 때 상당히 성숙해져 있었으며, 그의 인성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했다.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영이 본격적으로 그에게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요한이 예수를 위해 길을 닦으며 7년 동안 예비해 놓은 후였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마친 후 투옥되었고 모든 짐은 예수가 짊어지게 되었다. 만약 예수가 스물한두 살에 그 사역을 했다면, 인성이 너무 부족한 데다가 막 청년기에 들어선 때라 모르는 일도 많아 방향을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는 요한이 일정 기간 사역을 한 후에 비로소 예수가 사역을 했다. 예수는 사역할 때 이미 중년이었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정상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의 성육신 하나님에게도 정상 인성이 있다. 비록 너희 중 나이 많은 자에 비해 성숙하지는 않지만 이런 인성으로도 충분히 사역을 담당할 수 있다. 지금의 사역이 예수 때와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다. 당시 예수는 왜 열두 사도를 택했겠느냐? 모두 그의 사역을 수호하고 그의 사역에 협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으로는 그 당시 그의 사역에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였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진행될 사역에 기초를 닦기 위해서였다. 예수가 당시 사역에 따라 열두 사도를 택한 것은 예수의 뜻이자 하나님 자신의 뜻이었다. 예수는 열두 사도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후에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곳곳에서 전도했다. 하지만 오늘날 너희들 가운데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하는 데는 많은 원칙이 있으며, 사람이 절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사람은 늘 자기 관념을 가지고 대조하거나 하나님께 지나친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식이 순전히 관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하는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그는 말씀이 육신 된 이상 육신을 초월하여 사역할 수 없고, 육신의 정상

인성으로 사역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가 물거품이 되고, 나아가 ‘말씀’이 육신 된 의의가 아예 없어진다. 더구나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오직 하늘의 아버지(영)만 알 뿐, 그 외에는 육신 본인조차 모르고 하늘의 사자도 모른다. 이렇듯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더없이 정상적이며, 또한 확실히 ‘도’가 육신 되고 ‘말씀’이 육신 된 것임을 더 잘 나타낸다. 그 육신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을 뜻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왜 시대를 여는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 합니까? 피조물은 대신할 수 없단 말입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함이다. 물론 새 시대를 여는 동시에 옛 시대도 끝낸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그가 직접 사역을 전개했으므로 옛 시대를 끝내는 것도 그가 직접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긴 증거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친히 사역을 할 때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새 사역이 시작되지 않으면 당연히 옛 사역도 끝나지 않는다. 옛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탄과 싸우는 사역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와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역을 해야만 사람이 완전히 사탄의 권세에서 나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작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영원히 낡은 시대에서 살게 되고 영원히 사탄의 낡은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이 시대를 한 번 이끌어 주면 사람은 어느 정도 해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이기면 그를 따르는 사람도 이긴다. 시대를 끝내는 일을 창조된 인류에게 맡긴다면 사람이나 사탄의 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배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사역이 사탄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 하나님이 친히 열어 놓은 시대에서 사람이 순종하고 따라야만 사탄이 완전히 굴복할 수 있다. 이것이 피조물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른 일은 할 필요 없이 오직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각자 본분을 지키고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를 대신할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조물의 사역에 개입하지도 않는다. 또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사탄을 물리치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시대를 열고 나면 더 이상 친히 인간 세상에 와서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사람은 본격적으로 새 시대로 들어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기 시작하고, 피조물의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 이는 모두 사역의 원칙이므로 누구도 어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직접 한다. 그는 사역을 전개하는 분이자

사역을 끝내는 분이며, 사역을 계획하는 분이자 사역을 경영하는 분이고 나아가 사역을 이루는 분이다. 성경에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씨를 뿌리는 자이자 곡식을 거두는 자이니라.’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그의 경영과 관계된 이 모든 사역은 그가 직접 행한다. 그는 6천 년 경륜의 주재자이며, 누구도 그의 사역을 대신하거나 그의 사역을 끝낼 수 없다.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을 창조한 이상 온 세상이 그의 빛 속에서 살도록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전체 시대를 끝내 자신의 모든 계획을 이룰 것이다!

## 성육신의 비밀 2

지난날, 예수는 유대에서 공개적으로 사역했지만, 지금 너희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과 말씀은 은밀하기에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너희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은 모두 폐쇄적이다. 이 말씀과 이 형벌, 심판은 너희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이들은 모른다. 이 사역은 모두 너희들 가운데서 행하는 것으로, 오직 너희에게만 열려 있고 이방인 중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 곧 온전케 될 것이지만 외부의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이 사역은 참으로 은밀하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밀히 감추어져 있지만,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나타내고 자유롭게 하지만, 이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지, 그 외의 이방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 중국에서, 너희 가운데서 하고 있는 사역이 철저히 폐쇄적인 것은 그들이 모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알게 된다면 정죄하고 핍박하기만 할 뿐, 믿지 않을 것이다. 큰 붉은 용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 가장 낙후된 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역을 공개한다면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이 단계의 사역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 사역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더 큰 위험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사역을 은밀하게 하지 않고 예수 때처럼 기세 높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았겠느냐? 그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가르쳤다면 나는 벌써 온몸이 으스러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사역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적과 기사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은 비밀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도 은혜시대의 예수처럼 사역한다면 이렇게 안정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은밀하게 사역하는 것은 너희에게도 유익하고 모든 사역에도 유익하다.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 즉 은밀한

사역이 끝날 때, 이 사역은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중국에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중국에 왔고 그의 사역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사람들은 중국이 오랫동안 쇠락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친히 사역하여 이기는 자들을 온전케 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가 친히 사역하는 동안 자신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뿐,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가 육신을 입은 이유는 한 단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지, 사람들에게 그의 형상을 보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반드시 그가 친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육신을 입고 사역해야 한다. 사역이 끝나면 그는 인간 세상을 떠난다. 앞으로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만민에게 나타내는 것은 그의 공의 성품과 모든 행사일 뿐, 그가 두 차례 성육신할 때 입은 육신의 형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그의 성품으로만 드러날 뿐, 성육신의 형상으로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입은 육신의 형상은 일부 한정된 사람들, 즉 육신으로 사역할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낸다. 그러므로 지금의 사역은 은밀한 사역이다. 이는 예수가 사역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났을 뿐 유대인 외에는 그 어떤 족속에게도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는 사역을 완성한 후 인간 세상에 머물지 않고 일찌감치 떠났고, 그 후에도 예수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역사했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끝나면 그는 인간 세상을 떠나며, 그 후에는 육신으로 있었던 동안 행한 것과 비슷한 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 후의 사역은 모두 성령이 직접 한다. 그 기간에 사람은 그가 육신으로 있었을 때의 형상을 보기가 어렵다. 그는 결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영원히 모습을 감춘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은 시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특정 시대, 특정 시간, 특정 국가, 특정 사람들 가운데서 행해진다. 그 사역은 오직 성육신한 기간의 사역만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시대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하는 모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한 개 시대에 행하는 사역만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형상이 만민에게 나타나는 일은 없다. 만민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모든 성품이지, 하나님이 두 차례 입은 육신의 형상이 아니다. 또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의 형상이 합해져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한 후에는 반드시 땅을 떠나야 한다. 성육신 하나님은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하러 온 것일 뿐 그의 형상을 사람에게 보여 주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두 차례 성육신을 통해 성육신한 의의를 완전케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본 적 없는 다른 어떤

죽속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는 두 번 다시 유대인에게 공의로운 해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감람산에 올라 만민에게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 본 것은 오직 예수가 유대에 있었을 때의 초상화뿐이다. 성육신한 예수의 사역은 이미 2천 년 전에 끝났으므로 그는 다시 유대인의 형상을 지니고 유대에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유대인의 형상으로 이방의 다른 어떤 죽속에게 나타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성육신한 예수의 형상은 요한이 보았던 ‘인자’의 형상이 아니라 유대인의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가 유대인의 형상을 지니고 이방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성육신’의 사역은 시대를 여는 사역이고 한정된 몇 년간의 사역이므로 하나님 영의 모든 사역을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예로, 예수의 유대인 형상은 유대에서 사역한 하나님의 형상만을 대표할 수 있고, 오직 십자가의 사역만 할 수 있었다. 예수는 육신에 거하는 동안 시대를 끝내고 인류를 멸하는 사역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사역을 끝낸 후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 사람에게 영원히 모습을 감추었다. 그때부터 이방의 충성스러운 신자들도 예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벽에 붙여 놓은 예수의 초상화만 보았는데, 그 초상화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앞에 나타난 형상이 아니라 사람이 그린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두 차례 성육신한 형상을 지니고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역은 사람들에게 그의 성품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시대의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나타낸 것이다. 그것은 그가 공개한 성품과 행한 사역으로 도달한 것이지 예수의 현현을 통해 이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공개할 때는 성육신의 형상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있는 성육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통해 공개한다는 뜻이다. 그가 한 사역으로 사람들에게 그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의 성품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성육신하여 행하려는 사역의 의의다.

두 차례 성육신의 사역이 끝나면 그는 이방의 각 죽속에게 그의 공의 성품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만민이 그의 형상을 보게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을 드러냄으로써 옛 시대 전체를 끝낼 것이다.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그리 큰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예수는 유대에서만 사역했고 오늘날에는 너희들 가운데서만 하는 것처럼) 육신의 사역에 범위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육신의 형상을 통해 짧게 사역할 뿐, 하나님이 입은 육신으로 영세의 사역을 하거나 이방의 만민에게 나타나는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유대에서만 하거나 너희들 가운데서만 하는 것처럼), 그 범위 안에서 행한

사역을 통해 다시 사역 영역을 확대한다. 물론 확장하는 사역은 그의 영이 직접 행하며, 그때는 그가 입은 육신의 사역이 아니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범위가 있는 것이지, 전 우주 아래의 구석구석을 두루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의 영은 육신으로 한 사역을 통해 그 후의 사역을 전개한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유한한 범위에서 하는 시작 사역이며, 그 후에는 그의 영이 그 사역을 이어 나갈 뿐만 아니라 범위를 확대해 역사한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하는 사역은 시대를 이끌어 가고 새 시대를 열며 또 옛 시대를 끝내는 것뿐이다. 땅에서 사람의 인생 여정을 걸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인간 세상의 온갖 고초를 몸소 체험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며, 친히 어떤 사람을 온전케 하거나 어떤 사람의 성장 과정을 직접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이 아니다. 그의 사역은 단지 새 시대를 시작하고 옛 시대를 끝내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 그 자신이 시대를 시작하고 시대를 끝내며, 친히 사역하는 방식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가 친히 행하는 모든 사역은 직접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다. 우선 육신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겨 모든 영광을 얻고, 2천 년 전체 사역의 ‘서막’을 연다. 그리하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길을 열어 주며 평안하고 기쁜 나날을 보내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땅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어쨌든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정상인의 일생을 살 수 없다. 즉, 지극히 평범한 정상인처럼 세상에 상주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는 정상인이 갖추고 있는 정상 인성 중 아주 작은 부분만으로 인성의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가 정상 인성을 가진 것은 단지 정상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지, 정상인처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의 정상적인 이성과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육신으로 먹고 입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정상 인성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그러니 그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정상 인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땅에 온 것은 ‘말씀’이 육신 된 것이다.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할 뿐이다. 즉, 육신이 하는 사역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다. 그가 바라는 것은 사람이 그의 육신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사람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다시 말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는 육신으로 사역을 할 뿐이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그의 육신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높이 받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사역하는 지혜와 그의 모든 권병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아주 뛰어난 인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선전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한다. 너희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도 그의 정상 인성을 널리 알리거나 증거하지 않고 그가 하고자 하는 사역만 하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의 인성과 어떠함을 선전하며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렇기에 너희는 성육신 하나님에게서 그가 지닌 신성의 어떠함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이끌 때 자신의 어떠함을 소개함으로써 탄복과 복종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을 이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이 행하는 사역(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만으로 사람을 정복한다. 그는 사람을 탄복하게 하거나 숭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경외심을 느끼거나 그를 측량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할 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탄복시킬 필요가 없다. 단지 네가 그의 성품을 보고 그를 경외할 수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며, 이는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새 시대를 열어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가 하는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 시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의 사역은 모두 인성이 정상적이고 사람을 탄복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 행하게 한다. 그래서 그는 은혜시대에 2천 년의 사역을 육신을 입고 있던 33년 중 3년 반 만에 끝냈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역할 때는 언제나 2천 년, 또는 전체 시대의 사역을 몇 년이라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끝낸다. 시간을 끌지 않고 날짜를 연장하지도 않는다. 그저 오랜 기간의 사역을 가장 짧은 몇 년 안에 단축해서 완성할 뿐이다. 그가 몸소 사역하는 것은 오직 새로운 길을 열고 새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 성육신의 비밀 3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은 무엇을 세우거나 어떤 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성육신할 때마다 한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고 새 시대를 열 뿐이다. 지금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들어섰으며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진입했다. 이 단계에 하는 것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또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만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부 사역을 완성할 뿐이다. 그가 행하는 것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사람을 만듦에 있어 어떤 성과를 낸 다음 땅을 떠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직분을 완수하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끝내는 것이다. 즉, 땅에서의 사역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영광을 얻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는 사역과 다르다. 하나님은 땅에 와서 사역할 때, 그의 직분을 이행하는 데만 신경 쓸 뿐 그 밖에 그의 직분과

무관한 일은 거의 간섭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는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할 뿐이며, 특히 사람이 해야 할 사역에는 더욱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는 그의 해당 시대와 그의 직분에 관련된 사역만 하며, 그 외의 일은 그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는 사람으로서의 상식을 더 많이 갖추지 않고, 사교적인 기술을 키우지도 않으며, 그 밖에 사람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갖추지 않는다. 그는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것들에 아무 관심도 없다. 오직 직분 내에 있는 사역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육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보이며, 더욱이 사람이 갖추어야 할 많은 것에 아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생활 상식이나 사람으로서의 처세 원칙 같은 것들은 그와 거의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너는 성육신 하나님에게서 비정상적인 면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는 인성을 통해 정상적인 인성 생활과 정상적인 이성을 유지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그 외의 것들은 갖추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외의 것들은 오직 사람(피조물)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직분을 이행할 뿐이다. 그는 전체 시대를 겨냥해 사역하는 것으로,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지역을 겨냥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상대로 사역한다. 이것이 그가 사역하는 방향이자 원칙이다.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 없고 절대 관여할 수도 없다. 성육신할 때마다 그 시대에 맞는 사역을 가져올 뿐, 사람들이 그를 더 많이 이해하고 알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20년, 30년, 40년, 심지어는 70~80년이나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는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도 전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할 수 없으며, 사람의 관념만 키우고 사람의 관념과 사상을 더 굳어지게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설마 너희는 “나는 정상인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정상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잊은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이 성육신한 목적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찌 피조물의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땅에 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땅에 온 것은 오직 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그가 땅에서 사역하는 시간은 짧다. 그가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육신을 훌륭한 교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땅에 온 자체가 ‘말씀’이 ‘육신’ 된 것이다. 단지 사람이 그가 하는 사역을 모르기에 그에게 강요할 뿐이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 된’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어떤 육신을 육성하여 그 육신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은 육성된 것이 아니라 ‘도’, ‘말씀’이 ‘육신’ 되어 지금 본격적으로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성육신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도 하지만, 모두가 머릿수만 채우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려는 사역, 나아가 그의 성육신의 의의와 본질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하는 말만 따라 할 뿐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육신이 네 상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오직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사역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다. 이는 사람의 기능과 크게 다르므로 양자를 같이 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사역을 하려면 오랜 시간 양성되고 온전케 된 후에야 쓰임 받을 수 있다. 또 매우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정상 인성의 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처세의 원칙과 법칙을 많이 알고 사람의 지혜와 윤리 지식도 많이 배워야 한다. 이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갖추는 필요가 없다. 그는 사람을 대표해 사역하거나 사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기 때문이다(물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 하며, 직분을 이행해야 할 때 사역하기 시작한다). 그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람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의 인성 안에는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아도 그의 사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는 직분을 이행해야 할 때 자신의 직분을 이행할 뿐이며,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한다. 사람이 그를 어떻게 알고 있든, 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의 사역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예수가 사역할 때도 그가 대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사역만을 해 나갔다. 그러한 것은 그가 해야 할 사역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는 처음에 사람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거나 알리지 않고 그저 자신을 따르게만 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낯춤이었으며, 또한 육신으로 와서 사역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알 방도가 없었고, 설령 사람이 알아본다 해도 그의 사역을 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가 성육신한 목적은 사람에게 그의 육신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하고 그의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해야 할 사역이 다 끝나면 사람들은 저절로 그의 신분과 지위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무언가를 크게 알리지도 않고 묵묵히 지낸다. 사람들이 어떠하든, 그를 어떻게 따르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직분을 이행하며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한다. 그의 사역은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다. 그가 사역을 끝낼 때가 되면, 사역은 반드시 끝나고 종결된다. 아무도 이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사람들은 그가 사역을 끝내고 떠난 뒤에야 그의 사역을 알게 되지만 그래도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그가 사역할 때의 뜻을 사람들이 완전히 알게 되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다시 말해, 성육신 하나님 시대의 사역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 부분은 성육신 하나님이 친히 사역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육신의 직분이 끝나면 다른 한 부분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에게 맡겨서 행하게 된다. 이때는 사람이 자신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 주었으므로 사람 스스로 가야 한다. 다시 말해, 성육신 하나님이 일부 사역을 한 뒤에 성령과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그 사역을 이어서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단계 사역에서 성육신 하나님이 주로 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가 무엇이며, 그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람의 실수이자 사람의 관념이며, 더욱이 사람의 패역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사람에게 자신의 육신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은 육신과 사람의 육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며, 사람의 분별력을 훈련시키기 위함도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큰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이 성육신한 본래 의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일부러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다. 그의 성육신은 언제나 불가피한 일이다. 사람의 상상과 달리, 더 큰 사역과 더 큰 경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온 것은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부러 땅에서 살피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가 이렇게 큰 중임을 짊어지고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사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육신은 부득이한 일로, 거기에는 모두 특별한 의의가 있다. 그저 사람에게 보여 주고 시야를 넓혀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는 절대로 쉽게 인간 세상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땅에 온 것은 그의 경영과 그의 더 큰 사역을 위해서이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이다. 또한 그는 시대를 대변하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왔다. 그것도 육신을 입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왔으며, 더욱이 전 인류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경영, 그리고 전 우주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 자신의 육신을 알게 하고 시야를 넓혀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성육신했다면 어째서 세계를 일주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주 쉬운 일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합당한 곳을 택해 머무르며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시작했다. 이 육신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그는 시대 전체를 대변하고 또 시대 전체의 사역을 전개했다. 그는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었다.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경영과 관계되는 큰일이고, 하나님이 땅에 와서 행하는 한 단계 사역의 의의이다. 지난날, 예수는 땅에 와서 일부 말씀과 사역만 했을 뿐, 사람의 생명이 어떤지는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끝낸 뒤에 떠났다. 오늘날도 내가 하려는 말을 다 하고 너희에게 알려 주어 너희가 모두 이해하게 되면 이 사역은 끝나게 된다. 너희의 생명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누군가 이 사역을 잇고, 이 말씀을 이어서 땅에서 사역해야 한다. 그때는 사람의 사역과 사람의 건축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사역하여 직분을 이행하고 한 단계 사역을 완성하는 시기일 뿐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사역과 다르다. 사람은 예배와 좌담회를 좋아하고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예배와 사람들의 회의를 제일 혐오한다. 하나님은 사람과 편하게 대화하고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매우 자유로우며, 너희 역시 자유롭게 해 준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예배하는 것을 가장 혐오하며, 규례와 같은 너희의 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다. 나는 규례를 가장 혐오한다. 그것은 사람을 감히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노래를 부르지도 못하게 제약하면서 오로지 너만 똑바로 바라보게 만든다. 나는 너희의 그런 예배 방식을 가장 혐오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혐오하는 것은 대예배다. 나는 너희들과 그렇게 모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그런 생활은 사람에게 구속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너희의 의식과 규례는 너무 많아서 너희더러 사람을 이끌라고 하면 규례 속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너희의 인도로 규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점점 종교적 색채가 짙어지고 사람의 관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하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하는데, 지치지도 않는다. 열흘이 넘도록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영이 자유로워지는 생활이 아니라 대예배이자 사람의 회이다. 모든 것이 회이다! 나는 너희의 사역자 모임, 대예배, 소예배를 모두 혐오하고 전혀 관심도 없다. 내 사역에는 원칙이 있다. 나는 예배에서 ‘설교’하고 싶지 않고, 대중 앞에서 무엇을 크게 선전하고 싶지도 않다. 너희를 불러 모아 며칠씩 ‘특별 예배’를 하는 것은 더더욱 바라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고지식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너희가 어떤 의식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염증이 나며, 너희의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는다. 너희가 그럴수록 나는 더 혐오감을 느낀다. 나는 너희의 그런 의식과 규례에 아무 관심도 없다. 너희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나는 다 혐오한다. 너희가 잘 계획하지 못했거나 너희가 너무 비천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그런 생활을 싫어하고 더욱이 그런 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하려는 사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지난날 예수는 사역할 때, 한 지역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성을 떠나 그들이 알아야 할 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예수는 보통 그렇게 사역했다.

예수가 대중 가운데서 사역한 것은 매우 드물다. 너희의 요구대로라면 성육신 하나님은 정상인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사역을 해야 하고, 앉을 때도 설 때도 걸어갈 때도 말을 해야 한다. 계속 사역만 해야 하고 ‘운행’을 멈추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무 유기’가 된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적인 요구더냐? 너희의 인격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내가 사역하는 것도 너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나의 직분을 이행하는데도 너에게 감시를 받아야 하느냐? 내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이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내가 잘 알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너에게는 내가 사역을 많이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의 사역은 끝났다. 4복음서에서 예수가 했던 말씀들을 보아라. 모두 적지 않더냐? 당시 예수가 회당에 들어가 설교할 때도 길어야 몇 분이면 끝났다. 그는 말씀을 마친 뒤 아무런 해석도 해 주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났다. 기껏해야 회당의 사람끼리 서로 의논했을 뿐이며, 이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고 그 외의 사역은 하지 않는다. 지금 많은 사람은 내가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은 말해야 한다면서 많은 말을 해주기를 바란다. 너희는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고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모두 눈이 멀었다! 모두 짐승이다! 사리를 모르는 것들이다! 너희는 관념이 너무 많다! 너희의 요구는 선을 넘었다! 너희는 인성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너희는 ‘강연자’나 ‘설교자’는 모두 하나님이고, 기꺼이 ‘말씀’을 공급해 주는 자는 모두 너희의 ‘친아비’라고 생각한다.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비범한 외모’를 가진 너희가 일말의 이성이라도 갖추고 있는지, 하늘해(원문: 天日)를 알고 있는지 말해 보아라! 너희 개개인이 모두 탐관오리 같은데 어떻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시비를 분명히 가릴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 하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자가 너희 중 몇이나 되느냐? 그것을 완전히 얻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을 누가 열어 준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계속 나에게 그 억지스러운 요구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낮 뜨겁지 않느냐? 내가 해 준 말이 아직도 적단 말이냐? 내가 한 사역이 아직도 적단 말이냐? 너희 중에 진정으로 내 말을 보물처럼 여기며 아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모두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기만한다! 너희의 작태가 너무도 비열하고 역겹구나! 나는 너희가 나에게 말씀과 사역을 바라는 것이 너희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눈 호강을 하고 시야나 넓혀 보려는 것임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적잖은 말을 해 주었으니 너희의 삶은 진작 변화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아직도 고질병이 도지고 있단 말이냐? 설마 누가 중간에서 내 말을 가로채 너희가 얻지 못했단 말이냐?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희 같은

인간 말종들에게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쓸모없다! 나는 그렇게 많은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너희는 그저 시야를 넓히거나 볼거리를 얻고자 할 뿐 생명을 얻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너희는 모두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 너희에게 묻겠다. 내가 너희를 마주하며 한 말을 너희는 얼마나 실행하였느냐? 너희의 행실은 전부 사람을 속이는 수법일 뿐이다! 나는 너희들 중 구경꾼 같은 자들을 혐오하고, 너희의 호기심에 심한 혐오감을 느낀다. 참도를 추구하거나 진리를 사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다 내가 혐오하는 대상이다!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는 것은 그저 호기심이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이다. 너희는 진리의 존재를 찾거나 생명의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길을 탐구하려는 마음이 없다. 너희에게는 이런 바람이 전혀 없으며, 너희는 ‘하나님’을 장난감 삼아 연구하고 감상할 뿐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은 아주 작지만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은 결코 작지 않다!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너희가 그저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한다면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너희는 생명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신을 우롱하지 마라! 호기심을 생명 추구의 근본으로 삼지 말고 또한 그것을, 내게 말해 달라고 요구하는 핑계로 삼지 마라. 이는 다 너희가 가장 잘 쓰는 수법이다! 다시 한번 너에게 묻겠다. 내가 너에게 진입하라고 한 것을 너는 얼마나 진입했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이해했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실천했느냐?

각 시대의 사역은 다 하나님이 직접 시작한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든 운동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특별 집회’를 열어 주는 것도 아니며, 어떤 단체를 설립해 주러 온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러 왔을 뿐이다. 그는 사역할 때 그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사람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인식하든 상관없이 그는 오직 자신의 사역을 할 뿐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세 단계의 사역이 있었다. 여호와 때부터 예수 때까지, 율법시대부터 은혜시대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특별 집회를 연 적이 없고, 인류 전체를 한 곳에 모아 놓고 ‘세계 사역 특별 집회’를 열어 자신의 사역을 확장한 적도 없다. 그는 그저 합당한 때 합당한 곳에서 전체 시대의 시작 사역을 하고, 이로써 시대를 열고 인류의 삶을 인도할 뿐이다. 특별 집회는 사람의 모임이고, 사람을 소집해 절기를 함께 보내는 것은 사람의 사역이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혐오하고, 특별 집회를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혐오한다. 이제 너는 성육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 성육신의 비밀 4

너희는 성경의 실상과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갖추지 못한 것들이다. 그들은 이런 것을 모른다. 네가 이 본질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면 그들은 너와 성경을 놓고 따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항상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그 말씀은 이루어졌나요?”라며 예언에 대해 꼬치꼬치 따지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성경을 따른다. 또한 그들은 성경의 글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성경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성경을 파헤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들이 성경을 파헤치며 네게 해석해 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라. “성경과 맞춰 보지 말고 먼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성령 역사인지 진리로 대조하고, 그 길이 옳은지 그른지 성령 역사로 검증합시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인간은 참견해선 안 됩니다. 성령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새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은 당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이다. 하나님 자신만이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성령만이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 또 하나님 자신만이 그 일곱 인을 떼어낼 수 있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도 저도 하나님이 아닌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감히 그 말씀을 해석하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와도, 요한이 와도, 엘리야가 와도 감히 그 말씀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다 어린양이 아니니까요. 오직 어린양만이 그 일곱 인을 떼어낼 수 있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그분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지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칭하는 짓을 저지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피조물은 그 누구도 감히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없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해석하지 말고 그 누구도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 역사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잖습니까. 저는 여호와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약간만 알 뿐 직접 체험해 본 적은 없어 조금밖에 나눌 수 없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해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작은 두루마리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린양만이

펼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양 말고 누가 또 펼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어린양이 아니고, 저 또한 감히 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망령되이 일컫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연구하거나 따지지 말고 성령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원칙이 무엇이고 본질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판단해 봅시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면, 특히 종교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성경에 대해 알아야 하고 성경의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네가 큰 방향을 잡은 뒤 그들과 성경의 죽은 글귀를 파헤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과 생명과 진리만을 말한다면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 제정한 율법,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준 원칙, 율법시대에 사역한 내용, 율법을 제정한 의의, 그리고 그가 행한 사역이 은혜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마지막 단계에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너희는 모두 알아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율법시대의 사역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은혜시대의 사역이며, 세 번째 단계는 말세의 사역이다. 너희는 이 몇 단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모두 알아야 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 3단계 사역이다. 각 단계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고, 6천 년 경륜 사역은 몇 단계에 걸쳐서 했는지, 이 몇 단계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이것들은 모두 중요한 문제이다. 각 시대의 사역은 대표성을 지닌다. 너희는 여호와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째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왜 그를 여호와라고 부르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은혜시대에 예수는 어떤 사역을 했으며 또 어떻게 사역했는지, 각 단계 사역과 각 시대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대표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율법시대에는 어떤 성품을 나타냈는지, 은혜시대에는 어떤 성품을 나타냈는지, 마지막 시대에는 또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너희가 알아야 할 본질적인 문제다. 6천 년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부 나타냈다. 은혜시대에만 나타낸 것이 아니고, 율법시대에만 나타낸 것도 아니며, 말세에만 나타낸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말세에 하는 사역은 심판, 진노, 형벌을 대변한다. 말세에 하는 사역은 율법시대의 사역을 대체할 수 없고, 은혜시대의 사역을 대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세 단계의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며, 한 분의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물론 그것은 시대를 나누어서 행한 사역이다. 말세에 하는 사역은 마무리 사역이고, 율법시대의 사역은 시작 사역이며, 은혜시대의 사역은 구속 사역이다. 6천 년 경륜이라는 이 사역의 이상(異象)은 아무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해 줄곧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말세에는 말씀 사역만으로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를 열었지만 그것이 모든 시대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말세는 그저 말세이고 하나님나라시대일 뿐, 은혜시대나

율법시대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다만 말세에 6천 년 경륜의 모든 사역을 너희에게 보여 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비밀을 여는 것이다. 이런 비밀은 어떤 사람도 열지 못한다. 사람은 성경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잘 이해해도 글귀를 아는 데 그칠 뿐이다. 성경을 보고 진리를 얼마간 깨닫거나 글귀를 조금 해석하고 유명한 장절을 파고들 수는 있겠지만 그 글귀 속에 담긴 뜻은 영원히 풀지 못한다. 사람이 본 것은 죽은 글귀이지, 여호와와 예수가 사역한 현장이 아니며, 또한 사람은 그 사역들의 비밀을 풀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6천 년 경륜의 비밀은 가장 신비롭고 은밀하며, 사람이 결코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 그가 직접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거나 풀어 주지 않는 한, 그런 것이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수수께끼’요, 영원히 닫혀 있는 비밀이 될 것이다. 종교계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 역시 오늘날 이렇게 알려 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 6천 년의 사역은 모든 선지자의 예언보다 더 신비로운, 창세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비밀이며, 역대의 선지자도 측량하지 못한 것이다. 이 비밀은 마지막 시대가 되어야 열리며, 이전에는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비밀을 알고 전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모든 종교계 인사들은 이 비밀에 정복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상이며,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 하지만 또 가장 모르는 것이다. 너희는 은혜시대에 살았으면서도 예수가 행한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다. 또한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째서 율법을 제정해야 했는지, 어째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지, 어째서 성전을 건축해야 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했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했다. 오늘날에야 이런 일들을 밝히게 된 것이다.

말세 사역은 3단계 사역 중 마지막 단계 사역이자 새 시대의 사역으로, 전체 경영 사역을 뜻하지는 않는다. 6천 년 경륜은 3단계 사역으로 나뉘는데, 어느 단계든 한 부분만 대변할 뿐, 세 시대의 사역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변할 수는 없다. 또 그가 율법시대의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의 하나님일 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호와는 사람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고 계명을 반포했으며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게 했다. 그가 한 사역은 율법시대만 대변한다. 그가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게만 하는 하나님, 성전에만 거하는 하나님, 제단 앞에만 있는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율법 아래의 사역은 한 시대밖에 대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시대의 사역만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거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하나님을 규정할 것이다. 만약 은혜시대의 사역을 하지 않고

율법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공홀과 자비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율법시대의 사역을 하지 않고 은혜시대의 사역만 했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속량하고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만 하는 분이라고, 그는 거룩하고 무고한 분이며,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분이라고만 알았을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 시대는 하나님의 성품 중 일부만을 대변한다. 율법시대를 대변하는 성품이 있고, 은혜시대를 대변하는 성품이 있으며, 이번 단계를 대변하는 또 다른 성품도 있다. 이 3단계 사역을 종합해야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나타나며, 사람은 3단계 사역을 알아야 비로소 전면적으로 알게 된다. 3단계 사역 중에 어느 한 단계도 빠져서는 안 된다. 너는 3단계 사역에 대해 알아야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율법시대의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구속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인류를 속량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전부 사람이 규정한 것이다. 은혜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속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 하나님은 주로 말씀 사역을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공홀히 여긴 적이 없이 형벌과 심판만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말세의 사역은 여호와가 했던 사역, 예수가 했던 사역, 그리고 사람이 알지 못했던 모든 비밀을 사람에게 밝혀 주고, 나아가 인류의 종착지와 결말을 드러내며, 인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구원 사역을 끝낸다. 말세 사역은 마무리하는 사역으로, 반드시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다 열어 분명히 깨닫고 완전히 알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각기 부류대로 나뉠 수 있다. 사람은 6천 년 경륜이 끝난 뒤에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알게 된다. 그것은 그의 경영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사역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성품은 도대체 무엇이나? 너는 하나님이 그저 말씀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렇게 규정짓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비밀을 밝히는 하나님이고 어린양이며, 일곱 인을 떼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꼭 그렇다고 규정짓지는 못한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된 육신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이 역시 틀렸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성육신해서 이적과 기사는 나타내지 않고 말씀만 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예수가 성육신하여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으니 하나님에 대해 가볍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6천 년 경륜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역이 지금에야 끝나게 되었다. 모든 사역을 사람에게 일일이 나타내고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뒤에야 사람은 그의 모든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을 알게 된다. 이번 단계 사역을 완성했을 때면, 사람이 알지 못했던 비밀이 모두 밝혀졌을 것이며, 사람이 알지 못했던 진리를 모두 알게 했을 것이고, 사람이 앞으로 가야

할 길과 인류의 종착지도 모두 알려 주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단계에 하려는 모든 사역이다.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도 십자가의 길이자 고난받는 길이지만, 실행하는 것과 오늘날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은 율법 아래 사람이나 은혜시대 사람들과 크게 다르다. 오늘날 사람에 대한 요구는 예전과 다르며, 율법시대 사람들에게 했던 요구와는 더더욱 다르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율법 아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요구했더냐? 그저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충분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도 일하지 않았고, 누구도 여호와의 율법을 어길 수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안식일이 되어도 평소처럼 일한다. 예배를 해야 하면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하면 기도하며, 조금도 통제받지 않는다. 은혜시대 사람들은 세례받고 금식하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발을 씻어야 했다. 지금은 이런 규례들을 모두 폐했고 사람에게 더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깊어지고 사람의 진입도 끊임없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예수가 안수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말씀을 다 했는데 안수를 해서 뭐 하겠느냐? 말씀으로 직접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때는 안수로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성령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사역의 성과를 거둔다. 너희에게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 주었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 바로 그의 뜻이고 그가 하려는 사역이다. 그가 한 말씀을 통해 그의 뜻을 알고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안수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실천하면 된다. 어떤 이는 “안수를 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받을 분깃이 있도록 안수로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이는 다 과거의 낡은 실행 방법이다.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성령은 무턱대고 역사하거나 규례에 맞추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역사한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새 사역이 동반된다. 모든 단계의 사역이 다 그렇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지금까지 중복된 적이 없다. 은혜시대에는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 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역을 적지 않게 행하였다. 오늘날에도 또 그렇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때는 성령이 그렇게 했다. 은혜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은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이 믿기만 하면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 누구든 지극히 선대했던 것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사역도 발전하여 형벌과 심판으로 사람의 패역과 사람 내면의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없앤다. 과거에는 속량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다. 사람이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베풀어 주어야만 사람을 죄에서 속량하고 은혜로 죄를 사해 줄 수 있었다. 이번 단계는 형벌과 심판, 말씀의 채찍질, 말씀의 징계와 폭로로 사람 내면의 불의한 것들을 드러낸 뒤 구원받게 하는, 속량보다 더 깊어진 사역이다. 은혜시대의 은혜는

이미 사람이 충분히 누렸고 체험했으므로 더 이상 누리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 사역은 시대에 뒤떨어졌기에 이제는 하지 않는다. 지금은 말씀의 심판으로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이 심판과 형벌, 연단을 받아 성품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모두 내가 한 이런 말 때문이 아니겠느냐? 모든 단계의 사역은 전 인류의 발전 상황과 시대에 따라 행한다. 이는 다 의미 있는 사역이며, 최종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다. 또 훗날 인류가 아름다운 종착지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사역은 말씀 사역이다. 사람은 말씀을 통해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은 변화는 은혜시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 얻은 변화보다 훨씬 크다. 은혜시대에 안수 기도를 하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지만 사람 안의 패괴 성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사람 안에 존재하는 사탄의 패괴 성품을 없애는 사역은 없었기에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죄짓는 본성은 그대로 남아 사람 안에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의 죄는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사함을 받은 것이지, 사람 안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죄성을 완전히 벗어 버리며, 죄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 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탄의 패괴된 옛 성품 안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사람을 사탄의 패괴 성품에서 완전히 구원해야 하며, 죄성을 완전히 벗겨 버리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하여 성품이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생명이 자라나는 길과 생명의 도,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을 알게 해야 하고, 그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성품의 변화를 받고 빛 비춤 아래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고,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게 하며,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죄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가 사역할 때, 예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여전히 막연하고 모호했다. 사람은 줄곧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여겼고, 대선지자이자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인자한 주님이라고 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고, 소경도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사탄의 패괴 성품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것을 어떻게 벗어 버려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 육체의 평안과 즐거움, 한 사람이 주를 믿으면 온 가족이 복을 받는 것, 병이 낫는 것과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 외에도 선행을 하고 경건한 겉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합격선에 들어선 신자였다. 그런 신자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생전에 생명의 도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죄를 짓고 자복하기만을 반복할 뿐, 성품이 변화되는 길은 없었다. 은혜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상태였다. 사람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그 단계 사역이 끝난 후에 또 한 단계의 심판과 형벌 사역이 있는 것이다. 이 단계에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결케 하고 사람이 실행할 길을 얻게 한다. 이 단계에서도 귀신을 쫓아낸다면 아무런 성과도, 의미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 죄성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그저 죄 사함을 받은 기초에만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속죄 제물을 통해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십자가 사역이 끝났고 하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 안에는 패괴 성품이 아직 존재한다.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인류를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번 사역은 말씀으로 사람의 패괴 성품을 들추어내어 사람이 적합한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은 이전 단계의 사역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도 더 크다. 지금은 말씀으로 직접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더 철저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성육신은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를 완전케 하였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확실히 완성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때 직접 영의 방식과 영의 신분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그의 영은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고 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영으로 직접 사람을 구원한다면 사람은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피조된 사람의 외형을 입지 않으면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아무도 여호와의 구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피조된 사람이 되어야만, 즉 그의 ‘도’를 그가 입으려는 육신에 채워야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도’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그래야만 사람이 직접 그의 도를 듣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그의 도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은 비로소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지극히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면, 사람은 모두 죽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없어 사탄에게 철저히 사로잡힐 것이다. 첫 번째 성육신은 죄에서 사람을 속량했다. 이는 예수의 육신으로 사람을 속량해 온 것, 즉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해 낸 것이다. 하지만 사람 안에는 여전히 사탄의 패괴 성품이 존재했다. 두 번째 성육신은 더 이상 속죄 제물이 되지 않고, 죄에서 속량해 온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한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완전히 정결케 되고, 성품이 변화됨으로써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완전히 성결해질 수 있다. 율법시대가 끝나고 은혜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했다. 말세에 하나님은 인류의 패역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사역을 하여 인류를 완전히 얻고 정결케 한 뒤에야 구원 사역을 끝내고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3단계 사역 중 두 차례만 성육신으로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이다. 3단계 사역 중 한 단계는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주는 사역이고, 나머지 두 단계는 구원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해야만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육신으로 살 수 있다. 그래야만 창조된 사람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도를 공급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직접 하늘에 간구하여 얻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모두 육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에 접근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입은 육신뿐이다. 사람은 이 육신을 통해야만 모든 진리와 도를 깨닫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성육신은 사람의 죄를 충분히 벗겨 버릴 수 있고 사람을 완전히 정결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모든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를 완전케 한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전부 끝나게 되었다. 그가 두 번째의 성육신 후에 또다시 세 번째로 성육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의 모든 경영이 끝났으며, 말세의 성육신을 통해 이미 그가 택한 사람들을 완전히 얻었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모두 각기 부류대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구원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고, 육신으로 되돌아와 사역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말세 사역에서 말씀의 위력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위력을 넘어섰으며, 말씀의 권병은 이적과 기사 권병을 능가하였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패괴 성품을 다 들추어냈다. 너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어도 말씀으로 들추어내면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심으로 탄복하게 된다. 이것이 말씀의 권병 아니겠느냐? 이는 모두 오늘날의 말씀 사역으로 얻은 성과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사람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할 수 없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을 완전히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병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그친다. 하지만 사람의 육은 여전히 사탄에게 속하며,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사탄의 패괴 성품이 남아 있다. 즉, 정결케 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죄에 속하고 더러움에 속한다. 오직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께 얻어지고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고 사람을 속량해 온 것은 그저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하나님께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정결케 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패괴된 사람이다.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더러움이 남아 있고 대적과 거역이 남아 있다. 다만 속량받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수 있다. 사람이 속량받기 전에 이미 사탄의 많은 독소가 사람 안에 심어져 있었다.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고, 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것은 그저 속량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비싼 값을 치르고 사람을 사 온 것이다. 하지만 사람 내면에 있는 독성은 제거되지 않았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심판하고 형벌하는 이번 단계의 사역으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럽고 파괴된 본질을 완전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주어진다. 오늘날 행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과 형벌, 연단으로 파괴를 벗겨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편이 낫다. 사실 이번 단계 사역은 정복 사역이자 두 번째 구원 사역이다. 사람은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통해 하나님께 얻어지는데, 이는 말씀으로 연단하고 심판하고 들춰내며,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 관념, 속셈 또는 개인적인 소망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은 속량되어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과오를 문제 삼지 않고 사람을 과오에 따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하지만 사람이 육으로 살며 죄를 떨쳐 버리지 못하면 계속 죄를 짓고 사탄의 파괴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사함을 받는 사람의 삶이다. 많은 사람이 낮에는 죄를 짓고 밤에는 죄를 자복한다. 이러면 속죄 제물이 사람에게 영원히 유효할지라도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 이는 구원 사역을 반만 완성한 것에 불과하다. 사람에게 여전히 파괴 성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이 모압의 후손임을 알게 되었을 때 원망했고,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았으며, 완전히 소극적으로 변했다. 이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에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한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탄의 파괴 성품 아니겠느냐? 너는 형벌받지 않았을 때 누구보다 높이 손을 들었다. 심지어 예수보다도 더 높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기(知己)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죽을지언정 사탄에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탄을 내치겠습니다! 큰 붉은 용을 저버리겠습니다! 큰 붉은 용을 철저히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크게 외쳤지만 결국 형벌 시대가 오자, 사람의 파괴 성품은 또 드러났다. 사람은 외치지도 않았고 의지도 없어졌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파괴로, 죄보다 더 깊고, 사탄이 사람 안에 심어 놓은,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들이다. 사람의 죄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본성을 사람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의 심판을 통해 성과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그때부터 차츰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이 예전에 그렇게 외친 것은 모두 원래 가지고 있는 패괴 성품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불순물이다. 오랜 심판과 형벌로 사람은 모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다 말씀으로 이룬 것 아니더냐? 너는 봉사자가 되기 전까지 크게 외치지 않았더냐?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게 됐어! 이 이름을 받아들인 자는 모두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거야! 누구나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있다고!” 하지만 봉사자의 시련을 주자 더 이상 외치지 않았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어디에 두시든 저는 당신이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외쳤다. “누가 내 바울이냐?”라는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그는 “제가 바울이 되겠습니다!”라고 했고, 또 “욥의 믿음이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욥의 믿음을 갖추겠습니다. 저에게 시련을 주십시오!”라고 했다. 하지만 봉사자의 시련이 닥치자 그 즉시 쓰러져 일어서지도 못할 뻔했다. 그 후 사람 마음속의 불순물도 차츰 줄어들었다. 이것은 모두 말씀으로 이룬 것 아니더냐?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체험한 것은 모두 말씀으로 이룬 성과다. 그것은 심지어 예수가 지난날 이적과 기사를 나타냄으로써 얻은 성과보다도 크다. 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말씀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병을 보았다. 이는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은 기적을 보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며, 말씀의 심판은 더더욱 하나님의 권병을 대변하고 전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람이 지금 도달한 것, 즉 지금 사람의 분량, 인식, 사랑, 충성심, 순종, 그리고 깨달음까지, 이 모든 것은 말씀의 심판으로 얻은 결실이다. 네가 충성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말씀을 통해 이룬 것이다. 이제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확실히 평범하지 않으며, 많은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비밀이고 또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순종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복종한 적이 없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승복하게 되어 더는 연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말씀 속에서 쓰러지고 말씀의 심판 아래 엎드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한다면, 사람은 모두 그 ‘음성’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속에 엎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사람을 폭로하지 않아도 모두 엎드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사람은 영원히 말씀의 심판으로 자신의 패괴를 깨달아 구원받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해야만 모든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 주어 귀 있는 자들이 다 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말씀이 성과를 내는 것이지, 영으로 나타나 사람을 ‘놀라 쓰러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실제적이면서도 비범한 사역을 통해야만 사람의 깊은 곳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옛 성품을 완전히 들추어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모두 성육신의 실제적인 사역이다. 실제로 말씀하고 실제로 심판함으로써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성과를 거둔다. 이것이야말로 성육신 하나님의 권병이자 성육신의 의의다. 이는 성육신 하나님의 권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즉, 말씀으로 얻은 사역 성과를 나타내고 영이 육신에 왔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방식을 통해 그의 권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비록 육신은 평범한 정상 인성을 지닌 외형이지만, 말씀으로 얻은 성과를 통해 그가 권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그가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 주며, 그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선포한 것임을 보여 준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가 하나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누구도 그를 범할 수 없고 그의 말씀의 심판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어떤 흑암 세력도 그의 권병을 능가할 수 없음을 알게 한다. 사람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말씀’으로 된 그의 육신과 그의 권병, 그리고 그의 말씀의 심판 때문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가져온 사역 또한 그가 지닌 권병이다. 성육신한 이유는 육신도 권병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여 사람이 보고 만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역은 모든 권병을 지닌 하나님의 영이 직접 행하는 사역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성과도 뚜렷하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실제로 말씀하고 사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신의 외형은 권병을 지니고 있지 않아 모두가 가까이할 수 있지만 그의 본질은 권병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그의 권병을 볼 수 없다. 사람은 그가 말씀하고 사역할 때도 그의 권병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는 그가 실제로 사역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 그의 이런 실제적인 사역은 모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비록 모든 사람이 그가 권병을 지니고 있음을 모르고, 거스를 수 없는 그의 일면과 그의 진노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는 은밀한 권병, 은밀한 진노, 공개적인 말씀을 통해 말씀의 성과를 거둔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어조와 말씀의 준엄함, 말씀의 모든 지혜로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모두 권병이 없는 듯한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것 역시 성육신의 또 다른 측면의 의의이다. 즉, 더 실제로 말씀하기 위함이고, 말씀의 실제로 사람에게서 성과를 얻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성육신을 통해 하지 않는다면 전혀 성과를 얻을 수 없고, 죄악된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는 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은 육에 속한 피조물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세계는 서로 다르며, 그 성질 또한 달라서 하나님의 영과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맞는 구석이 없고, ‘수교’가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사람이 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피조물이 되어 그의 원래의 사역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를 수도 있고 피조된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며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지극히 높이 올라 영이 될 수 없을뿐더러 지극히 낮추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역해야 한다. 첫 번째 성육신 때처럼 말이다. 오직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을 속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은 직접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비한 속죄 제물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 위아래를 몇 번 왕복해야지’, 사람을 하늘로 올려 보내 구원받게 할 수는 없다. 사람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사역을 친히 해야 했다. 매번의 성육신은 다 몹시 필요했던 것이다. 그중 한 단계라도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할 수 있었다면, 그는 수모를 감내하며 성육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의 사역은 말씀으로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수많은 비밀을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사역을 알게 된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깨우침을 얻고, 지금까지 사람이 풀지 못한 비밀을 알게 되며, 역대 선지자와 사도가 한 사역과 사역의 원칙을 알게 된다. 또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고, 사람의 거역과 대적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본질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과 모든 말씀을 통해 영의 사역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한 사역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성품도 알게 되었다. 네가 하나님의 6천 년 경영 사역을 알게 된 것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이다. 과거에 네게 어떤 관념이 있었는지 깨닫고 그것을 버리게 된 것 역시 말씀으로 인한 것 아니더냐? 예수의 사역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지만 이번 단계 사역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 것 역시 말씀으로 인한 것 아니더냐?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한 말씀은 역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한 사역을 능가한다. 선지자가 한 예언일지라도 이런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 선지자가 한 말은 예언에 불과하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당시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사역이 아니고,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주는 것도 아니며, 또

사람에게 진리를 베푸는 것도 비밀을 풀어 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베풀어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번 단계에서 한 말씀에는 예언도 있고 진리도 있지만, 그 말씀은 주로 사람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의 말씀은 선지자의 예언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번 단계의 사역은 예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첫 단계 사역은 여호와의 사역이었다. 그가 한 사역은 사람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는 것이었고, 땅에 사역의 발원지를 마련하기 위한 시작 사역이었다. 당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가르쳤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고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으므로 첫 단계 사역에서는 반드시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주어야 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알려 준 것은 인류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고,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일으켜 예언을 하게 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 예언을 했지만, 이는 그저 하나님 사역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 첫 단계 사역에서는 말씀이 육신 되지 않았으므로 선지자를 통해 각 나라와 족속을 효유했다. 예수가 사역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았다. 말세에 하는 이 단계의 말씀 사역은 역대에 행한 적이 없다. 비록 이사야, 다니엘, 요한이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들이 한 예언은 지금 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 그들의 말은 예언에 그쳤지만 지금 하는 말은 예언이 아니다. 내가 모든 말을 예언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한 말이 모두 내가 떠난 후에 일어날 일이라면,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말씀 사역은 예수 시대에 한 적이 없고, 율법시대에도 한 적이 없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한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말씀이지만 말씀에도 차이가 있다. 여호와가 한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더냐? 그는 사람이 땅에서 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었을 뿐, 그 말씀이 생명과 영적인 일에 관련되지는 않았다. 어째서 여호와가 말씀한 것을 각 지역에 효유했다고 하겠느냐? ‘효유’라는 두 글자는 분명히 알리고 직접 지시한다는 뜻이다. 여호와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그를 경외해야 하는지 직접 가르쳤을 뿐, 비유 같은 것도 없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한 사역은 사람을 책망하거나 징계한 것이 아니었고 심판하거나 형벌한 것도 아니었다. 여호와는 그저 인도하기만 했다. 여호와는 모세를 시켜 그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라고 일러 주면서 날마다 해 뜨기 전에 주워 담으라고 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두면 썩어 버리니 그날 먹을 양만 넉넉히 거두라고 했다. 여호와는 사람을 꾸짖거나 사람의 본성을 들추어내지 않았고, 사람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여호와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주었다. 그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아 단순히 기계적인 행동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와 율법을 반포해 백성들을 이끌어 주기만 한 것이다.

복음을 확장하여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역을 알고 또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려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한 각 단계 사역의 실상과 본질, 그리고 사역의 의의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네가 교제하는 것을 듣고 여호와와 사역과 예수의 사역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늘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이해하고, 세 단계 사역 간의 연계성과 차이점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사람들이 모두 듣고 난 뒤 세 단계 사역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전부 한 분의 영이 행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밖에도 그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사역했고, 사역 내용도 말씀도 다르지만, 사역의 원칙은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큰 이상이다.

## 두 번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해지다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에는 모두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예수는 예전에 왔을 때는 남성으로 왔었지만 이번에는 여성으로 왔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모두 그의 사역을 위해서이며, 하나님께는 성별의 구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육신을 취할 수 있고, 그 육신은 하나님을 대표한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면 모두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말이다. 설령 예수가 여자의 몸으로 왔더라도, 즉 당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닌 여자아이였어도 똑같이 그 단계의 사역을 완성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 단계의 사역은 남자가 하게 됐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사역은 어느 단계든 모두 의의가 있으며, 두 단계의 사역은 중복되지도, 서로 모순되지도 않는다. 예수는 사역할 당시에 독생자라고 불렸다. 독생자의 ‘자(子)’는 남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독생자라고 하지 않느냐? 사역의 필요에 따라 예수와 성별이 달라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는 성별의 구분이 없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으며, 그의 사역은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매우 자유롭지만, 모든 단계에 다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하나님은 두 번 성육신했는데, 두말할 필요 없이 말세에 성육신한 것이 마지막이며, 그는 자신의 모든 행사를 보여 주기 위해 왔다. 만약 이번 단계에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직접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여자가 아닌 남자일 것이라는 관념을 가질 것이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남자여야만 하고, 여자는 하나님으로 불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한 권병이 있으며, 그 권병은 남자만 담당할 수 있고 여자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지 남자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말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할 뿐, 여호와가 처음에 만들었던 남자와 여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여자는 마땅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하며,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율레이자 법도이다. 여호와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다만 인류(남자와 여자)가 여호와의 권세 아래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상규를 지키며 질서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남자와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는 땅에서 생활하는 모든 피조물에 해당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입은 육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어찌 피조물과 같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된 인류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창조된 인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별에 따른 규칙을 만든 것이다. 여호와는 태초에 사람을 만들면서 남자와 여자, 두 부류로 나누었다. 그러므로 그가 입은 육신 또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됐을 뿐이지, 그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으로 자신의 사역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의 두 차례 성육신 또한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의 생각대로 결정되었다. 즉, 패괴되지 않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두 번의 성육신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만약 당시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아담에게 여호와가 했던 말씀을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에 적용한다면, 예수 또한 마땅히 사모해야 할 아내를 사모해야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겠느냐? 또한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여자의 몸으로 성육신한 것이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것부터가 크나큰 잘못 아니겠느냐? 또한, 하나님이 여자의 몸으로 성육신한 것이 잘못이라면, 아내를 맞이하지도, 사모하지도 않은 예수 또한 사람의 말대로 오늘날의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니겠느냐? 여호와가 하와에게 한 말씀으로 오늘날 하나님이 성육신한 일을 평가한다면, 은혜시대에 성육신한 주 예수에 대해서도 여호와가 아담에게 한 말씀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예수를 뱀에게 유혹당한 적 없는 남자로 본다면,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을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로 보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불공평하다! 그런 평가는 너에게 이성이 없음을 뜻한다. 여호와가 두 차례 입은 육신의 성별은 뱀에게 유혹당한 적 없는 남자, 여자와 관련된다. 즉, 뱀의 유혹을 받지 않은 남자와 여자로 두 번 성육신한 것이다. 예수를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같은 남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와 ‘아담’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다. 둘은 성질이 전혀 다른 남자다. 예수가 남자라고 해서 그가 모든 여자의 머리일 뿐, 모든 남자의 머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는 모든 유대인(남자와 여자 포함)의 왕이 아니더냐? 그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여자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남자의 머리이며,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자 머리이다. 너는 어째서 예수의 성별을 여자의 머리라는 상징으로 규정하느냐? 그것은 모독이 아니겠느냐? 예수는 패괴되지 않은 남자이며, 그는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며 주님이다. 그가 어떻게 패괴된 아담과 같은 남성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예수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취한 육신이다. 네가 어찌 그를 아담의 남성성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도 모두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여호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의 남성성을 예수에게 더했을 리 있겠느냐? 오늘날의 성육신은 예수와 성별은 다르나 성질은 똑같은 성육신의 또 다른 사역이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너는 여자가 먼저 뱀에게 속아 넘어갔으니 하나님은 여자의 몸으로 성육신하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 여자는 가장 더러운 존재이자, 인류의 패괴를 초래한 기원이니, 하나님이 여자로 성육신할 리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 또한 “여자는 언제까지나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고, 직접 하나님을 대변할 수도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모독하겠느냐? 잘 모른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너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추태가 드러나지 않도록 말이다. 네가 무엇이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게 알려 주겠다. 지금까지 네가 보고 체험한 것으로는 내 경륜의 천분의 일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도 네가 그렇게 오만하게 굴 것이 뭐가 있느냐? 네가 가진 보잘것없는 재능과 인식은 예수가 행하는 사역에 1초도 이용될 수 없다! 너의 체험은 얼마나 되느냐? 여태까지 네가 본 것에 네가 평생 듣고 상상한 것을 더해도 내 한순간의 사역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흠잡을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네가 아무리 교만하게 굴어도 개미만도 못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네 배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은 개미 배 속에 들어 있는 것보다도 적다! 네가 체험이 많고 관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지껄여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체험과 관록 또한 다 내가 한 말에서 비롯된 것 아니더냐? 설마 그게 너의 성실과 근면의 대가라 생각하느냐? 너는 오늘날 나의 성육신을 보았기에 그렇게 풍부한 상상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관념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내가 성육신하지 않았더라면, 너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그렇게 많은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의 관념 또한 그로 인해 생긴 것 아니더냐? 만약 예수의 첫 번째 성육신이 없었다면, 성육신에 대해 네가 알거나 했겠느냐! 너는 첫 번째 성육신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방자하게 두 번째 성육신을 평가하는 것

아니더냐? 너는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지는 못할망정, 또 무엇을 따지는 것이냐? 네가 이 흐름에 들어와 성육신 하나님 앞에 온 이상 네가 연구하는 것을 그가 용납하겠느냐? 네가 네 집안의 가족사를 따져 보는 것은 상관없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가족사’를 따져 보고자 한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너는 눈이 먼 것이 아니냐? 화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 예수가 행한 그 단계의 사역만 끝내고 말세의 사역으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예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관념에 사로잡힐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뿐이기에,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임한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은 속죄 제물이 된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하나님을 위해 정사를 메고 전 인류를 구속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남성으로 온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라 칭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여기며, 심지어 어떤 이는 예수를 여호와와 아들이자 그의 독생자라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크게 자리 잡은 관념이 아니고 무엇이냐? 만약 마지막 시대에 이 단계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전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남자는 자신이 여자보다 높다고 생각할 것이고, 여자는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자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 늘 하나님의 성별이 남자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여자를 미워하며, 여자를 구원할 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호와에게 지음 받고 또 똑같이 패괴를 거친 여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여호와가 여자를, 즉 하와를 만든 것부터가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여자는 영영 멸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말세의 이 사역은 여자만이 아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자만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몸으로 성육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더더욱 어리석은 자이다!

지금 하는 사역은 은혜시대 사역이 앞으로 나아간 것이자, 전체적인 6천 년 경륜에 포함된 사역이 앞으로 발전한 것이다. 은혜시대는 끝났으나, 하나님의 사역은 앞으로 나아가며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 이 단계의 사역을 은혜시대와 율법시대의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오늘날의 사역은 은혜시대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율법시대 사역의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세 단계의 사역은 고리에 고리가 맞물리듯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단계 사역을 예수가 행한 사역의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느냐? 예수의 사역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이번 단계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앞 단계의 구속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발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금의 사역 또한 예전보다 더 발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단계의 사역은 율법시대의 기초 위에, 그리고 예수가 이룬 사역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한 단계씩 세워진 것이지, 이 단계 사역이 따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세 단계의 사역을 종합해야 비로소 6천 년 경륜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 단계의 사역은 은혜시대 사역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이 두 사역에 연관성이 없다면, 어째서 이 단계 사역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겠느냐? 어째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곧바로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사역을 하고 또한 이번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할 자격이 없다. 나는 예수와 하나이기에 친히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전부 앞 단계 사역의 기초 위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한 걸음씩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와 나는 같은 영에서 왔다. 육신은 서로 관련이 없지만 영은 하나이며, 사역의 내용과 담당하는 사역이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서로 다른 모습의 육신을 취한 이유는 시대가 다르고, 사역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직분이 다르기에 가져온 사역도 다르고, 사람에게 보여 주는 성품 역시 다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이 보고 깨닫는 것 역시 예전과 다르다. 이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차이이다. 두 육신은 성별도, 모습도 다르고, 같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며, 같은 시기에 태어난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이다. 둘의 육신은 어떤 혈연관계도, 육적인 관계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시기에 입은 육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둘 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둘은 같은 혈통도 아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는다(한 사람은 유대어를 쓰는 남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중국어만 쓰는 여자임). 이 때문에 둘은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각자 해야 할 사역을 하는 것이다. 둘은 하나의 영, 그러니까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으나, 육신의 겉모습은 닮은 부분이 전혀 없다. 똑같은 인성을 지녔을 뿐, 육신의 생김새나 출생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각자의 사역이나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들은 결국 하나의 영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그들을 분리시킬 수 없다. 둘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들의 영이 그들의 전 존재를 지배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역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육신은 같은 혈통이 아니다. 여호와와 영이 예수 영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의 영 또한 여호와 영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결국 하나의 영이다.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과 예수 역시 그 어떤 혈연관계도 없다. 그러나 둘의 근원은 하나이다. 이는 둘의 영이 원래부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는 공홀과 자비를 베푸는 사역을 할 수 있고, 공의로운 심판의 사역도, 사람을

형벌하거나 저주하는 사역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세상을 멸하고 악인을 징벌하는 사역 또한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직접 하는 것 아니더냐?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더냐? 그는 사람에게 올법과 계명을 반포할 수 있을뿐더러,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그들을 이끌어 성전과 제단을 쌓게 했으며, 모든 이스라엘인들을 그의 권세 아래에 두었다. 그의 권병으로 인해 그와 이스라엘인들은 땅에서 2천 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다. 이스라엘인들은 감히 거역하지 못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지켰다. 이는 모두 그의 권병과 전능으로 행한 사역이었다. 은혜시대에 이르러 예수가 와서 타락한 전 인류(이스라엘인에 국한되지 않음)를 속량했다. 그는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다. 사람의 눈에 비친 은혜시대의 예수는 자비로 가득했으며, 늘 사랑으로 사람을 대했다. 그는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죄에서 완전히 속량하기까지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즉, 그는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고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영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다. 그는 긍휼과 자비를 지니고 있었고, 인내할 줄 알았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었다. 예수를 따른 은혜시대의 사람들은 범사에 인내와 사랑을 강조하고, 계속 고난을 받았으며, 다른 이가 욕하고 때리고 돌로 쳐도 반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는 다르다. 이는 예수와 여호와가 비록 영은 하나지만, 행한 사역이 완전히 똑같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역은 시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것이었다. 인류의 땅에서의 생활을 펼쳤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한없이 파괴된 이방의 인류를 정복하고, 중국에 있는 하나님 선민만이 아닌, 전 우주와 전 인류를 이끄는 사역을 한다. 네가 보기에는 중국에서만 사역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역은 중국 밖에서도 확장되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왜 계속 참도를 찾겠느냐? 그것은 영이 일을 시작했고, 지금 하는 말은 전 우주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이미 받은 진행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큰일을 해 왔으며,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사역을 하고,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했다. 각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그의 각기 다른 성품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은 그가 하는 각기 다른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자 목자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사람에게 심판이자 형벌이며, 저주이기도 하다. 그는 사람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2천 년 동안 이끌어왔고, 파괴된 인류를 죄에서 속량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는 그를 알지 못하는 인류를 그의 권세 아래 정복하여 모든 사람이 완전히 순종하게 한다. 최종적으로 그는 전 우주의 사람들 속에 있는 불결하고 불의한 것들을 모조리 깨끗이

불사를 것이며, 그것을 통해 그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자, 지혜롭고 기묘하며 거룩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는 전 인류 가운데 악한 자들을 불사르고 심판하며 징벌할 것이다. 또 온전케 될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연단, 시련을 주면서도 위로해 주고 붙들어 주며 말씀으로 공급하고 책망하고 훈계할 것이다. 그리고 도태될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내리며 그에 따른 보응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더냐? 그는 어떤 사역이든 할 수 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면, 너는 하나님을 한참이나 과소평가한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전 인류를 속량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도 네가 그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생명수 강의 물을 마실 것이라는 등등의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네가 한 것이 무엇이더냐? 너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너는 그에 의해 속량되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은 예수 자신이 한 사역이었다. 너는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했느냐? 너는 겉으로만 경건해 보일 뿐, 그의 도를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그를 나타내는 것이더냐?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의 공의로운 성품의 전부를 보지 못했다면, 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으며, 천국의 문에 들어갈 자격 또한 없다.

하나님은 영이지만, 육신을 취할 수도 있다. 또한, 그는 영광의 몸이기도 하다.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인들, 즉 유대인들은 보았다. 그는 처음에 육신을 취하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다시 영광의 몸이 되었다. 그는 만유를 포함하는 영이며, 곳곳에서 사역할 수 있다. 그는 여호와일 수도 있고, 예수일 수도 있으며,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그는 공의이자 심판과 형벌이며, 저주이자 진노와 긍휼과 자비이다.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은 그를 대변한다.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으면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했다고 해서 그를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일 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느냐? 그가 정말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일 뿐이라면 어째서 말세에 또 시대를 끝내려고 하겠느냐? 또한, 왜 그렇게 많은 재난을 내리려 하겠느냐? 사람의 관념과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사람을 긍휼과 자비로 대해 모든 인류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게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는 어째서 마지막 때 지진, 온역, 기근 따위의 큰 재난을 내려 하나님을 원수 대하듯 하는 사악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겠느냐? 어째서 인류에게 그러한 재난이 임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는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며,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한다. 너는 그가 확실히 영이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 너는 그가 예수의 육신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너는 그가 영원히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예수가 성육신한 사실이 있는 뒤부터 사람은 하늘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이 있고 심지어는 영까지 있다고 여겼다. 사람은 전통적인 관념으로 하늘에는 이런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있다고 여겼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한 분의 하나님에게는 세 부분이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관념에 심각하게 사로잡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부분이다. 오직 이 세 부분이 합쳐져야만 하나님의 전부가 된다고 한다. 성부가 없으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고, 성자 또는 성령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관념적으로 성부나 성자는 단독으로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수 없고, 오직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합쳐져야만 하나님 자신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 여긴다. 지금까지도 모든 종교 신자, 나아가 너희 가운데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는 아무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 자신의 일에 대해 언제나 흐릿하기 때문이다. 관념적인 인식일지라도 너희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종교적 관념에 심하게 물들었고, 종교적 전통 관념을 너무 깊이 받아들여 매우 심각하게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 일에서도 전해 내려온 독소에 중독되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 사람의 전통 관념이자 그릇된 인식 방법이다. 수많은 세기(世紀)를 거쳐 오면서 사람은 모두 머릿속 관념으로 상상해 내고 또 사람 스스로 만들어 낸, 지금까지 본적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뜻’을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해석한 자들도 서로 위격이 다른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애매모호해하며, 분명하게 해석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구조’에 대해서 어리둥절해한다.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했다. 대부분 이치나 문자적으로는 통할 수 있었지만, 그 내포된 뜻을 완전히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온 좋게 하나님의 처소를 유람하면서 하나님의 침상에 도대체 어떤 물건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는 도대체 몇만 세대 또는 몇억 세대가 있는지, 하나님의 고유한 구조는 도대체 몇 부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 사람 또한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조사할 내용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부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고, 성자의 나이와 성령의 나이는 또 얼마나 되었는지, 그들은 각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분리되고 또 어떻게 일체가 되는지 등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이런 일들을 조사해 내지 못했기에 사람은 모두 ‘추측’만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열성적이고 경건한 모든 종교 신자에게 사실의 진상을 보고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유람한 다음 전 인류에게 ‘조사 보고’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에게 이런 관념이 있다고 해서 사람만 탓할 수는 없다. 성부인 여호와 자신이 인류를 창조할 때 성자 예수를 곁에 두지 않은 탓 아니겠느냐? 그들이 당시에 다 여호와라고 불렀다면 좋았을 것이다. 탓하려면 세상을 창조할 때 한순간의 실수로 성자와 성령을 곁에 불러 놓지 않고 혼자 사역한 여호와 하나님을 탓해야겠구나. 그들이 동시에 사역했다면 하나가 되지 않았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만 있고 은혜시대에 예수의 이름이 없었거나 여전히 여호와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인류에 의해 분리되는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물론, 이 모든 것에 있어 여호와만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탓하려면 수천 년 동안 줄곧 이렇게 역사하면서 여호와라 불리기도 하고 예수라 불리기도 하며 또 무슨 성령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여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게 한 성령을 탓해야 할 것이다. 성령 자신이 형체도 모양도 없이 역사하고, 더욱이 예수 같은 이름도 없으며,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이 그저 천둥 치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면, 이런 사역이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말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겠느냐? 사람의 관념은 쌓여서 산이 되고 또 모여서 바다가 되어 오늘날의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전에 여호와와 예수, 그리고 그들 사이의 성령, 이 세 분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는데, 오늘날 ‘전능자’ 한 분이 더 추가되고 그 역시 ‘하나님의 일부분’이라고 하니 그가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어느 위격에 해당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분인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석하는 데만 평생을 들여도 모자랄 판인데, 오늘날 한 분이 더 추가되어 ‘사위일체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네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형제자매들아! 너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날까지 믿어 왔느냐? 나는 정말 너희에게 탄복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만 해도 너희가 감당하기 버거울 텐데,

오늘날의 사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견실하게 믿을 수 있다니 말이다. 너희에게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도 않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너희는 정말 대단하구나! 사람 혼자서 ‘네분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개의치 않아 하다니 너희는 이것이 이적이라고 생각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큰 이적을 나타낼 줄은 정말 몰랐구나! 너희에게 알려 주겠는데, 사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주 위아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아버지도 아들도 없고, 더욱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용하는 도구가 성령이라는 이런 학설도 없다. 이것은 모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그릇된 논리이다! 하지만 이 그릇된 논리 또한 ‘근원’이 있고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다. 너희 인간들의 머리는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너희의 구상 역시 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합당하고 교묘하여, 심지어는 그 어떤 사탄도 깨부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아쉬운 것은 그것이 전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그릇된 논리라는 것이다! 너희는 사실의 진면목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저 추리와 상상만 하고 있다. 그리고는 일련의 이야기를 지어내어 사람들의 신뢰를 편취하고, 누구보다 어리석고 생각이 없으며 이성도 없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루어 그들이 너희의 위대하고 저명한 ‘전문가 학설’을 믿게 만들었다.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생명의 도이냐? 모두 허튼소리이다! 합당한 말이 하나도 없다! 오랜 세월 동안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 왔다. 심지어 너희는 한 세대 한 세대 지나며 더 세밀하게 나누다가 공개적으로 한 분의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누기에 이르렀다. 이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다시 합칠 수가 없게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너무 세밀하게 나누었기 때문이다! 내가 일찌감치 이 사역을 행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언제까지 미쳐 날뛰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나누어 가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너희의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뿌리를 찾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한발 늦게 왔더라면, 너희는 예수와 여호와, 이 ‘두 부자(父子)’를 이스라엘로 쫓아내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일부라고 일컬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지금은 말세다. 겨우 오늘날까지 기다려 내가 친히 이 단계 사역을 행하고 나서야 ‘하나님 자신’을 나누는 너희의 사역을 제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나눌수록 더 심해졌을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탄을 너희의 상 위에 놓고 섬겼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너희의 수법, 즉 ‘하나님’을 나누는 수법이다! 너희는 아직도 나누고 있느냐? 너희에게 묻겠다. 하나님은 도대체 몇 분이냐? 어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느냐? 너희가 온종일 기도하는 분은 첫째 하나님이냐, 둘째 하나님이냐, 아니면 셋째 하나님이냐? 너희가 온종일 믿고 있는 분은 도대체 어느 하나님이냐? 아버지이냐, 아니면 아들이냐? 아니면 영이냐? 말해 보아라. 너는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구나. 사실 너희가 믿는 것은 모두 너희의 ‘머리’이다! 너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예 없다. 너희 머릿속에 있는 것은 수많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말해 보아라. 그렇지 않느냐?

삼위일체설에 따라 세 단계 사역을 따져 보면, 세 분의 하나님이 행한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세 분인 것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너는 도대체 무엇이 삼위일체인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성부는 무엇이냐? 성자는 무엇이냐? 성령은 무엇이냐? 성부가 바로 여호와이냐? 성자가 바로 예수이냐? 성령은 또 무엇이냐? 아버지는 영 아니더냐? 아들의 본질 또한 영 아니더냐? 예수가 행한 사역은 성령이 행한 것 아니더냐? 당시 여호와가 행한 사역 또한 예수의 영과 같은 한 분의 영이 행한 것 아니더냐? 하나님께는 영이 몇이나 존재할 수 있겠느냐? 너의 주장대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면, 영이 세 분인 것이고, 영이 세 분이면 하나님도 세 분이 된다. 그렇게 되면 유일한 참하나님이 아닌데, 그러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이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고 또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것은 모두 너의 고정 관념 아니겠느냐? 성경에 ‘성령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위격 또한 오직 하나이며,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이다. 네가 말한 성부, 성자가 존재하는지와는 관계없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너희가 생각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 또한 모두 성령의 본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이 하나뿐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는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고, 만유를 초월할 수도 있다. 그의 영은 만유를 포함하는 영이기도 하고, 무소부재 하는 영이기도 하다. 그는 육신에 거할 수도 있고 동시에 전 우주의 위아래에 있을 수도 있다.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유일한 참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상,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니 그 누구도 제멋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영이 오직 하나이며 위격도 하나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네 말대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도 세 분 아니겠느냐? 성령은 성령대로 다르고, 성자는 성자대로 다르며, 성부 또한 성부대로 다르다면, 그들의 위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본질도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한 하나님의 각 부분이 되겠느냐? 성령은 영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성부는 더욱 영이다. 그는 인간 세상에 내려온 적도, 성육신한 적도 없으며 바로 사람 마음속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또한 필연적으로 영이다. 그렇다면 그 영은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겠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영과 성령의 관계겠느냐? 그들 두 영의 본질은 같겠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성령을 도구로 삼았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성자와 성령은 또 무슨 관계겠느냐? 영과 영의

관계겠느냐, 아니면 사람과 영의 관계겠느냐? 이것은 모두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일들이다! 그들의 영이 하나라면 세 위격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소유한 영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위격이 다르다면 강한 영도, 약한 영도 있을 수 있으며, 절대 영이 하나일 수 없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설은 가장 그릇된 말이다! 이런 말은 바로 하나님을 나눈 것이다. 세 조각으로 나뉜 하나님은 각각의 지위와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영이 하나이고 하나님이 한 분일 수 있겠느냐? 네가 말해 보아라.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는 성부이냐, 성자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어떤 사람은 그들이 함께 창조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인류를 속량한 것은 성령이냐, 성자이냐, 아니면 성부이냐? 어떤 사람은 성자가 인류를 속량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성자의 본질은 또 누구이냐?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 아니더냐? 육신이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피조된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말한 것이다. 너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모르느냐? 그의 내면은 성령이다. 네가 어떻게 말하든 그는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과 한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기 때문이다. 성자라는 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한 분의 영이 행한 사역이고, 하나님 자신이 행한 사역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행한 사역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이냐? 바로 성령 아니더냐? 예수에게 역사한 분은 성령 아니더냐? 성령(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행한 사역이 하나님 자신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지난날, 예수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단지 피조된 사람의 입장에 서서 부른 것이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영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육신을 입었고, 피조물의 외형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영일지라도 그의 겉모습은 여전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예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말하는 ‘인자’가 된 것이다. 인자라고 한 이상,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킨다(남자든 여자든, 결국엔 다 사람의 외형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너희가 처음에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된 사람의 입장에 서서 부른 것이다. 너희가 외웠던, 예수가 가르쳐 준 주기도문을 아직 기억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또 그 역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만큼, 너희와 평등한 위치에 서서 하늘의 하나님을 부른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상, 예수는 자신을 너희와 평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자 하나님이 땅에서 택한 사람(하나님의 아들)으로 여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 또한 너희가 피조물이기 때문 아니겠느냐? 예수가 땅에서 얼마나 큰 권병을 가졌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성령(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자이자 땅의 피조물

중 하나였다. 그는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단지 자신을 낮추고 순종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나님(하늘의 영)을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그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영의 아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다른 위치에 섰을 뿐이지 위격이 다른 것은 아니다. 위격이라는 그런 그릇된 논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육신의 제한을 받는 인자였으므로 영의 권병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그는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면서 세 번 기도한 것과 같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는 그저 유대인의 왕이자 인자, 그리스도였을 뿐, 영광의 몸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다 성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가 너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뒤부터 너희는 모두 ‘성자’가 된 것 아니겠느냐? 그래도 너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말해 보아라. 너희가 부르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를 가리킨다면 예수의 ‘아버지’는 또 너희에게 무엇이냐? 예수가 떠난 뒤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단지 예수가 육신으로 있었던 몇 년 동안만 적용될 뿐이며, 그 밖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의미한다. 어떤 때에도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론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천고에 보기 드문 그릇된 논리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또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류를 만들었다고 말씀한 만큼 ‘우리’는 둘 이상이고, ‘우리’라고 말씀한 만큼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위격’이 다를 것이라는 추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토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성부는 어떤 모습이나? 성자는 어떤 모습이나? 성령은 또 어떤 모습이나? 설마 세 형상으로 있다가 합쳐진 형상에 따라 오늘의 인류를 만들었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사람의 형상은 도대체 성부를 닮았느냐, 아니면 성자를 닮았느냐, 그도 아니면 성령을 닮았느냐? 도대체 어느 위격의 하나님을 닮았느냐? 사람의 이런 말은 결코 옳지 않고 통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 한 분을 여럿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는 세상 창조가 끝나 인류가 생긴 다음이었다. 세상을 창조할 때는 모세라는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모세가 성경을 쓸 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런데 그가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는 모세도 전혀 몰랐다. 구약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이 없고, 오로지 유일한 참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다는 내용만 있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고 해서 이름 하나가 위격 하나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위격이 있지 않겠느냐? 구약에 기록된 것은 여호와가 행한 사역이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율법시대에 행한 시작의 사역으로, 있으라 명하면 생기고, 세워지라 명하면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여호와와는 단 한 번도 그가 성부로 사역하러 왔다고 말한 적이 없고, 성자가 인류를 속량하러 올 것이라고 예언한 적도 없다. 예수가 있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전 인류를 속량하러 왔다고만 했지, 성자가 왔다고 말한 적은 없다. 시대가 다르고 하나님이 행할 사역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사역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하여 대표하는 신분 또한 달라진 것이다. 사람은 여호와가 예수의 아버지라고 여기지만, 예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이 없느니라. 나와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사람이 아들을 본 것은 바로 하늘의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라고 했다. 어떻게 말해도, 결국 아버지든 아들이든 모두 한 분의 영이고 위격의 구분이 없다. 그러나 사람이 말하면 복잡해지는데, 위격이 다르다고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관계라고도 한다. 사람이 위격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물질화하는 것 아니겠느냐? 또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는 것 역시 모두 사람의 상상이다. 조금의 참고할 가치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네가 그에게 하나님이 몇 분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의 유일한 참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네가 다시 그에게 성부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성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늘의 총책임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와와는 영이 아납니까?”라고 물으면 그는 영이라고 말할 것이다! 네가 다시 성자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성자는 당연히 예수라고 말할 것이다. “그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라고 물으면, 마리아에게서 났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본질 또한 영 아니냐? 그가 한 사역도 성령을 대변하지 않느냐? 여호와와는 영이고 예수의 본질 또한 영이다. 말세라는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영인데, 그들에게 또 무슨 위격의 차이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다른 위치에 서서 영의 사역을 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위격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그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의심할 바 없이 예수의 사역 또한 성령의 사역이었다. 여호와가 행한 제1단계 사역에서 그는 성육신하지도, 사람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으므로 사람은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높고 크든 그는 영이고, 처음에 사람을 만든 하나님 자신이며,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다. 그는 구름 속에서 사람에게 말했었지만 그저 영이었기에 그 누구도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다. 은혜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오고, 성육신으로 유대에 임해서야 사람은 처음으로 성육신한 그의 형상이 유대인의 형상임을 보게 되었지만, 여호와라는 느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다시 말해, 여호와와 영으로 친히 잉태되었으므로 강생한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 영의 화신이라는 말이다. 당시에 사람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예수 자신이 전용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이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또 성령과 분리될 수 있겠느냐? 예수는 예수이자 성자이고 성령은 성령이라면, 어떻게 하나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사역을 행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영과 하늘의 영, 그리고 여호와와 영은 모두 하나이다. 성령이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며 일곱 배 강화된 영이자 만유를 포함하는 영이라고도 불린다. 하나님의 영은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고 홍수로 세상을 멸할 수도 있으며, 전 인류를 속량할 수도 있고, 더욱이 전 인류를 정복하거나 멸할 수도 있다. 이 사역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이지, 그 어떤 위격의 신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영은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전능자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는 주이고, 그리스도이며, 또한 인자가 될 수도 있다. 그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으며, 전 우주 위에도 있고 만인 가운데에도 있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주관자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혼자 행했다. 하늘에서 행한 사역이든 육신으로 행한 사역이든 모두 그의 고유한 영이 행한 것이다. 하늘의 피조물이든 땅의 피조물이든 모두 그의 전능한 손에 지배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므로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다. 그는 하늘에서 영이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다. 그가 사람 가운데서 육신으로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자신이다. 그의 이름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며, 모든 것이 다 그의 영의 직접적인 선포이다. 십자가에 달려 전 인류를 속량한 것은 그의 영이 직접 역사한 것이고, 말세에 각 나라와 지역에 알리는 것 역시 그의 영이 직접 역사하는 것이다. 어느 때든 하나님은 오직 전능하고 유일한 참하나님, 만유를 포함하는 하나님 자신이라 불린다. 위격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설은 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총 6천 년이며, 사역이 서로 다른 관계로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대는 구약의 율법시대이고, 두 번째 시대는 은혜시대이며, 세 번째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속하는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이다. 각 시대에서 대표하는 신분은 모두 다른데, 그것은 다만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사역의 필요로 말미암은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인 율법시대의 사역은 이스라엘에서 행했다. 두 번째 단계인 구속 사역은 유대에서

완성했다. 당시 예수는 구속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생자가 되었다. 이것은 모두 사역의 필요로 인해 정해진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은 사역을 이방으로 확장한다. 그는 이방인을 정복하는 사역을 하여 그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 받게 할 것이다. 또한 사람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진입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모든 사역은 한 분의 영이 한다. 서는 위치는 다르지만, 사역의 성질과 원칙은 모두 같다. 너는 그들이 사역하는 원칙과 사역의 성질을 보고, 모든 사역은 한 분의 영이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성부는 성부이고, 성자는 성자이고, 성령은 성령이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합치겠느냐? 성부와 성령을 어떻게 하나로 합쳐야겠느냐? 원래 둘이었다면 어떻게 합치든 여전히 두 부분 아니겠느냐? 합친다는 말은 서로 다른 두 부분이 함께 모여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 아니더냐? 그러나 그들이 하나의 전체가 되기 전까지는 두 부분 아니겠느냐? 한 분의 영은 하나의 본질이므로 두 영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다. 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물질세계의 것과는 다르다. 사람은, 성부는 한 분의 영이고, 성자도 한 분의 영이며, 성령 또한 한 분의 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 영을 마치 세 잔의 물처럼 하나의 전체가 되게 합친다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이것은 순전히 그릇된 해석이다! 이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 아니겠느냐? 성부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겠느냐? 그들은 성질이 다른 세 부분 아니더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한다.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 것으로, 단지 다른 위치에 서서 그 자신을 증거하고 하늘에서 영의 위치에 서서 그가 입은 육신을 증거한 것에 불과하다. 예수는 그가 입은 육신이지 하늘에 있는 그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이해하겠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예수의 말씀은 그들의 영이 원래 하나임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느냐?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아래로 분리된 것 아니겠느냐? 사실은 여전히 하나이다. 어찌 됐든 이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 것이다. 시대의 다름과 사역의 필요성, 그리고 경륜 절차의 차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를 부르는 호칭 또한 달라졌다. 제1단계의 사역에서는 여호와라고만 부를 수 있었으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의 목자였다. 제2단계에서는 성육신 하나님을 주님, 또는 그리스도라고만 부를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하늘의 영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어떻게 독생자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성육신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단지 하늘과 땅에 있는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는 육신의 위치에 서서 기도했다. 그는 정상 인성을 가진 육신을 입었기에 육신의 위치에 서서 “나의 외형은 피조물이다. 나는 육신을 입고 땅에 왔으므로 하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는 육신의 위치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의 본분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성육신하여 마땅히 갖춰야 하는 것이었다. 그가 육신의 위치에서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대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단지 영이 입은 육신일 뿐, 본질은 여전히 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왜 기도하지?’라고 여길 수 있다. 그것은 단지 그가 성육신한 하나님,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지, 하늘에 있는 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성부와 성자,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고, 그 세 분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유일한 참하나님이라고 불린다고, 그러면 능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여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야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시지. 성자가 오셔서 기도했는데, 바로 그 영께 기도하신 거야.”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기도했다. 그것은 육신이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육신에 거하면 완벽하지 못하며 많은 연약함이 따르고, 육신으로 사역하면 많은 방해を受け게 된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세 번 기도했다. 세 번 기도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기도한 적이 있었다. 제자들과 함께할 때도 기도하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배 위에서도 기도했다. 또한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떡을 떼 때도 기도하고, 사람에게 축복할 때도 기도했다. 그가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가 기도한 대상은 영이었다. 그는 육신의 위치에 서서 영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그 단계 사역에서 예수는 성자로 보인 것이다. 그럼 이 단계에서는 왜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가 가져온 것은 말씀의 사역이고, 말씀의 형벌과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의 직분은 바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고,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넘겨질 일도 없으니, 곧바로 사역만 하면 된다. 지난날, 예수가 천국이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였다. 이번 단계에서는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그가 더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가 하는 것은 시대를 끝내는 사역이기에 더 이상은 새로운 시대가 없다. 그런데 다음 단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느냐?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말에는 모순되는 점이 수없이 많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사람의 관념이다. 만일 추궁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모두 옳다고 여길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말들은 모두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이를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다. 모두

불순물이 있으며, 사람의 뜻이 너무 많다. 이는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다. 그것은 모두 논리와 사유에서 나왔으며, 진리에 상반된다. 너의 논리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철저히 분석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행한 사역을 모두 분명하게 알 수 있겠느냐? 인간인 네가 한눈에 다 간파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꿰뚫고 있겠느냐? 네가 태초부터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느냐? 너는 뭐라고 설명을 하겠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느냐? 네가 무엇을 근거로 해석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나? 천지 만물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것이다. 네가 창조한 것도 아닌데 왜 멋대로 해석하느냐? 너는 아직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너무 피곤하지 않느냐? 네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닌 한 분의 하나님을 믿기를 바랄 뿐이다. 역시 가벼운 것이 좋다. 주의 짐은 가벼우니 말이다.

## 정복 사역의 실상 1

인류는 사탄에 의해 너무 심하게 파괴되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과 증거가 따랐지만 사람이 파괴되자 영광도 증거도 사라졌다.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복 사역을 하는 것은 모든 증거와 영광을 되찾아 오므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피조물 가운데 증거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 단계에 하려는 사역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인류를 정복하겠느냐? 이 단계의 말씀 사역을 통해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고, 폭로, 심판, 형벌과 무자비한 저주로 철저히 인정하게 한다. 또 사람의 패역을 폭로하고 사람의 대적을 심판하여 인류의 불의와 더러움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부각시킨다. 주로 이런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하게 한다. 말씀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정복하는 경로이다. 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말씀의 매와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과정이 바로 정복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겠느냐? 너는 이런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어떻게 정복될지는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오직 이런 말씀을 먹고 마신 것을 기초로 자신의 파괴와 더러움, 패역과 불의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 실행해야 하며, 또한 이상(異象)도 갖춰야 한다. 네가 어떤 선택도 없이 이런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정복된 것이며, 그것도 말씀으로 인해 정복된

것이다. 인류는 왜 증거를 잃었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인류를 정복하는 것은 인류가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늘 세상을 좇는다. 소망이나 미래에 대한 바람, 사치스러운 요구가 너무 많고, 늘 육에 신경 쓰며 육적인 것을 고려할 뿐, 하나님을 믿는 길을 찾으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 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데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고 한사코 사탄만 위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증거를 잃게 되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된 것이다. 인류를 정복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함이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다.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손꼽을 정도로 적다. 사람은 무엇보다 앞날을 걱정할 뿐 생명은 전혀 중요시하지 않는다. 거역하고 대적하고 뒤에서 판단하며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일단 차치할 것이며, 이 부류의 패역한 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중에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너는 빛 속에서 살면서도 빛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살게 되면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후회할 것이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어둠이 찾아오고 빛이 영영 사라질 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지금 네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직 현재의 사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 우주의 사역이 전개되면, 즉 지금 내가 한 이 말이 다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이 대성통곡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아니겠느냐? 진정으로 생명을 추구하여 온전케 된 사람은 모두 쓰임 받을 수 있다. 쓰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패역한 자식들은 모두 어둠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성령 역사가 조금도 없으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징벌 속에 떨어져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 단계 사역에서 네가 진리로 잘 무장하고 생명이 성장한다면 너는 쓰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잘 무장하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 사역에서 너를 쓰고 싶어도 쓰기에 적합하지 않을 테니, 그때 가서 무장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면 네가 어디 가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역 기회를 찾겠느냐? 네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직접 받겠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지도 않고 음성을 발하지도 않을 텐데, 지금 한 말씀만 보고서 어떻게 잘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후의 생활이 어찌 지금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때가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생고생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너는 복을 주어도 누릴 줄 모르고 복 가운데서 살면서도 복인 줄 모르니, 고생할 팔자인 것이다! 지금 어떤 이들은 대적하고, 어떤 이들은 거역하며, 어떤 이들은 이런 짓, 저런 짓을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너희가 저지른 그 짓거리들을 내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본질을 모를 리 있겠느냐? 구태여 계속 나와 맞설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너 자신을 위해 생명을 추구하고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더냐? 너는 너 자신을 위해 믿는 것 아니더냐? 지금 나는 그저 말로써 정복 사역을 할 뿐이다. 정복 사역이 끝나면 너의 결말도 드러날 텐데, 굳이 내가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의 정복 사역은 사람의 결말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다. 왜 지금의 형벌과 심판이 바로 마지막 날의 희고 큰 보좌 앞의 심판이라고 하겠느냐? 이것도 꿰뚫어 보지 못했느냐? 왜 마지막 단계 사역은 정복 사역이겠느냐? 바로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형벌과 심판의 정복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본모습을 드러낸 후 각기 부류대로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인류를 정복한다고 하기보다는 각 부류 사람들의 결말을 드러낸다고 하는 편이 낫다. 다시 말해, 사람의 죄를 심판함으로써 각 부류의 사람들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악한 자인지 의로운 자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정복 사역 다음은 상선벌악의 사역이다.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즉 철저히 정복된 사람은 전 우주로 확장하는 다음 단계 사역 가운데 놓일 것이고, 정복되지 않은 사람은 어둠 속에 놓여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되는데, 악인은 악으로 돌아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며, 의인은 선으로 돌아가 빛을 얻고 영원한 빛 속에서 살게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결말도 눈앞에 드러났다. 만물이 각기 부류대로 나뉠 것인데 사람이 어찌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은 만물의 결말이 가까이 왔을 때 드러나고, 또 전 우주의 정복 사역(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정복 사역 포함) 가운데서 드러난다. 모든 인류의 결말은 심판대 앞에서, 형벌 가운데서, 말세의 정복 사역 중에서 드러난다.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것은 사람이 원래 속했던 부류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은 한 부류, 즉, 남자와 여자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사람의 부류가 많지 않았다. 다만 사람이 수천 년간 파괴되면서 부류가 생겼을 뿐이다. 어떤 부류는 더러운 귀신의 권세 아래, 어떤 부류는 악귀의 권세 아래, 어떤 부류는 생명의 도를 추구하여 전능자의 권세 아래 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점점 부류가 생겼고, ‘사람’이라는 대가족이 각각의 부류대로 나뉘어 저마다 서로 다른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능자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패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공의로운 심판이 각 부류 사람의 진면목을 숨김없이 들춰내 모든 사람은 빛 속에서 본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때 사람은 이미 태초의 모습이 아니다. 사람의 조상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하늘해(원문: 天日)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의 내면은

사탄의 여러 가지 독소로 점철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적합한 종착지가 생겼고, 모두가 저마다 지닌 서로 다른 독소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되었다. 즉, 오늘날 정복된 후의 정도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것이다. 사람의 결말은 창세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한 부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통틀어 ‘인류’라고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았으며, 어둠이 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탄에 의해 파괴된 후에는 각종 사람, 즉 남자, 여자의 통칭인 ‘인류’라는 이 대가족에서 갈라져 나온 각종 사람이 온 땅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조상에게 이끌려 그들의 가장 오래된 조상인 남자와 여자(최초의 아담과 하와, 그들의 가장 오래된 시조), 그 인류를 떠나게 되었다. 그때, 여호와와의 인도를 받으며 땅에서 생활한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뿐이었다. 이스라엘 온 땅(최초의 대가족)에서 갈라져 나온 각 부류의 사람들은 여호와와의 인도를 잃게 되었다. 처음 난 인류는 인간 세상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조상을 따라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지금까지 살았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 오늘날까지 온갖 더러운 귀신과 악령에 의해 파괴되었건만 어찌 된 영문인지도 모른다. 오늘날에 이르러 심하게 파괴되고 중독된 사람들, 즉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그러니까 그들을 파괴시킨 더러운 귀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류의 적합한 종착지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구원받고 정복된 사람의 결말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최선을 다해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마비되어 구제 불능이 된 사람은 그들의 조상을 따라 사람을 형벌하는 무저갱에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 너의 결말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오늘에야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태초에 인류를 만들 때는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만 만들었고(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음), 사탄과 같은 부류의 인류는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잊었느냐? 만약 네가 처음부터 사탄의 후예였다면, 여호와가 사람을 만들 때 사탄과 같은 부류의 사람도 만들었다는 말이나? 그가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느냐? 그가 사람을 만든 것은 그의 증거를 위해서이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그가 일부러 사탄의 자손과 같은 부류를 만들어 자신을 대적하게 할 리 있겠느냐? 여호와가 그렇게 할 리 있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그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 중 일부를 가리켜 결국 사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네가 처음부터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이다. 설령 너를 구원한다고 해도 너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너를 사탄 부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너를 공의롭게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네가 구제 불능이기 때문이다. 일부러 너를 사탄의 화신으로 정한 다음 사탄에게 주어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복 사역의 실상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의 인식이 너무 단편적인 것이다! 마지막 때의 정복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람의 결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심판으로 사람의 타락을 들춰내고, 이를 통해 사람이 회개하고 분발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인생의 바른길을 추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무감각하고 우둔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고, 심판으로 사람 내면의 패역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인생의 바른길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런 패괴를 벗어 버리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삼켜질 구제 불능인 자다. 이것이 정복의 의의다. 정복은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또한 결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좋은 결말이든 나쁜 결말이든 다 정복 사역을 통해 드러난다. 사람이 구원받는지 저주받는지도 정복 사역에서 드러난다.

말세에는 정복을 통해 만물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한다. 정복은 말세의 사역이다. 즉, 각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말세의 사역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찌 각기 부류대로 나뉘 수 있겠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하는,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사역은 전 우주에서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사역의 시작이다. 이후에는 각 지역, 각 민족도 다 이 정복 사역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창조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될 것이고, 모두 심판대 앞으로 돌아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사물도 이 형벌과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한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부류에 따라 나뉜다. 만물의 결말이 가까이 왔고 온 천지가 끝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 생존이 끝나는 날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의 패역한 행위가 얼마나 오래가겠느냐? 너희의 마지막 날이 다 눈앞에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을 보지 못할 수 있겠느냐? 어찌 마지막에 선행에 대한 상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냐? 너는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여 저주받는 사람이냐? 너는 빛 속의 심판대 앞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어두운 음부에서 살고 있느냐? 네가 마지막에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는 너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행위와 너의 마음은 대체 어떠한가? 지금 내가 너를 정복함에 있어, 너의 행위가 악인지 선인지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는 나를 위해 얼마나 포기했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깊이 경배하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너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결말이 과연 어떠한지, 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대로 알려 주겠다. 나는 인류를 만들고 또 너를 만들었을 뿐, 너희를 사탄의 손아귀에 넘겨주지 않았고, 일부러 너희로 하여금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게 해서 나의 징벌을 받게 하지도 않았다. 그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모두 너희 자신의 마음이 너무 강퍽하고 너희의 행동이 너무 비열하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럼 너희의 결말 역시 너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의 결말은 너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네가 더 잘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지, 너에게 악을 행하라고 하는 것도, 일부러 너를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때가 되어 심하게 고통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그것은 전부 너의 죄 때문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 자신의 선이나 악은 너에게 가장 좋은 심판 아니겠느냐? 너의 결말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 아니겠느냐?

지금은 중국의 하나님 선민들에게 하는 사역을 통해 이 사람들의 패역한 성품을 모두 드러내고 추악한 모습을 다 들추어낸다. 이것을 배경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고, 그 후 전 우주를 정복하는 다음 단계 사역을 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함으로써 전 우주 사람들의 불의를 심판하는 것이다. 너희는 인류의 패역자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부각물이 되고 봉사하는 존재가 될 것이며, 따라오는 사람은 쓰임 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왜 부각물이라고 하겠느냐? 그것은 지금 사역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 너희의 상황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이고, 또 너희는 인류 중 패역자의 대표이자 전형이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너희를 정복하는 이 말씀들을 외국으로 가져가 외국 사람들을 정복할 텐데, 네가 얻지 못한다면 부각물에 속하지 않겠느냐? 전 인류의 패괴 성품, 사람의 패역한 행위, 사람의 이런 추한 모습과 면모가 다 오늘날 너희를 정복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각 나라와 각 교파의 사람들을 정복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본보기이고 선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러 너희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네가 제대로 추구하지 않아 구제 불능이 된다면 완전히 봉사만 하는 존재, 부각물이 아니겠느냐? 나는 예전에 나의 지혜는 사탄의 간계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왜 그 말을 했겠느냐? 그것이 지금 내가 말하고 사역하는 실상 아니겠느냐? 네가 따라오지 못해 온전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면, 부각물에 속하지 않겠느냐?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는 많은 고난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여 생명의 일에 대해 조금도 모르며, 형벌과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고 생명을 얻지도 못했다면, 공사를 점검할 때 불 같은 시련과 더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불이 닥치면 너는 송두리째 재가 될 것이다. 너에게 생명이 없고, 정금의 성분이 전혀 없으며, 예전의 패괴 성품이 변함없고, 부각물이 된다 해도 좋은 부각물이 될 수 없다면, 너를 도태시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정복 사역을 할 때 한 톨의 가치도 없고 생명도 없는 사람을 쓸 수 있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희는 노아와 소돔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구원 사역이 끝났을 때 네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 구원 사역이 모두 끝나면 더 이상 구원 사역을 하지 않고 악인을 징벌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한다. 너는 대적하고 거역하고, 알면서도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니, 무거운 형벌을 받을 대상 아니겠느냐? 오늘날 너에게 분명히 알려 주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나중에 재난이 닥칠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고 믿는다 한들 너무 늦은 것 아니겠느냐? 지금 너는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데도 원치 않는데,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형벌의 날까지 이럴 것이냐? 지금 나는 네 이전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고, 한번 또 한 번 너를 용서해 주며, 너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 본다. 지금 말하고 사역하는 이유는 너에게 아무런 악의도 없고 모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도 너는 진입하지 않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며, 은혜를 모른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그 징벌과 공의의 보응만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여호와가 베풀어 준 물이 솟아 나온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나, 여호와를 찬양했을뿐더러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욥이 산을 가득 채운 우양과 많은 가산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난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영광의 증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요한이 인자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말세의 이상(異象)을 보게 된 것은 더더욱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방의 백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나의 계시를 받고, 내가 이미 육신으로 돌아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도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나의 엄한 말에 매를 맞아도 위안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들 또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얻었다. 꼭 복만 얻은 것은 아니다. 다윗처럼 기쁨과 환희를 얻었을 수도 있고, 모세처럼 여호와가 베풀어 준 물을 얻었을 수도 있다. 욥과 같은 경우도 있다. 그는 믿음으로 인해 여호와가 베풀어 준 복도 얻었고, 재앙도 입었다. 하지만 복을 받든 화를 입든 다 복이 있는 일이다.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너는 이 정복 사역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늘날 너의 눈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행사는 더더욱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볼 수도 없고 더욱이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화와 재난, 모든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네가 오늘날 여호와의 행사를 볼 수 있었겠느냐? 오늘날 너는 믿음으로 인해 정복되었고, 또 정복됨으로 인해 여호와의 모든 행사를 믿게 되었다. 너는 믿음으로 인해 이런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너는 이런 형벌과 심판으로 인해 정복되고 온전케 된다. 오늘날의 이런

형벌과 심판이 없었다면 너의 믿음은 모두 부질없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한들 실체가 없는 텅 빈 글귀이기 때문이다. 네가 이런 정복 사역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순종하게 되어야만 너의 믿음이 진실하고 확실한 것이며,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것이다. ‘믿음’ 때문에 많은 심판이나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가장 참되고 가장 알차고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었다. 너는 심판 가운데서 비로소 피조물의 종착지를 알게 되었고, 창조주의 사랑스러움을 보게 되었다. 또 너는 이러한 정복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팔을 보게 되었으며, 인생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너는 이러한 정복 가운데서 인생의 바른길을 얻었고, ‘사람’의 참뜻도 깨닫게 되었다. 너는 이러한 정복 가운데서 전능자의 공의 성품과 아름다운 얼굴을 보게 되었으며, 사람의 근원과 전 인류의 ‘불후의 역사’도 알게 되었다. 너는 이러한 정복 가운데서 인류의 조상과 인류가 파괴된 기원을 알게 되었으며, 희락과 위안을 얻었다. 또한 끝없는 채찍질과 징계도 받았고, 창조주가 지음 받은 인류에게 하는 질책의 말씀도 듣게 되었다. 너는 이러한 정복 사역 가운데서 축복은 물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화도 입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한 것 아니더냐? 이런 것들을 얻음으로 인해 너의 믿음도 커지지 않았더냐? 네가 얻은 것이 매우 많지 않았더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도 직접 체험했다. 어찌면 너는 자신이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형벌이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형벌과 전능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를 만날 기회도 영영 놓치고, 또 인류의 기원도 영원히 알지 못하며, 인생의 의미도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설령 너의 육체가 멸망하고 영혼이 이탈한다고 해도 너는 창조주의 모든 행사를 알지 못할 것이고, 더욱이 창조주가 인류를 만든 후에 땅에서 이처럼 큰 사역을 했다는 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창조된 인류로서, 너는 그렇게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어둠 속에 떨어져 영원히 징벌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오늘날의 형벌과 심판을 떠난다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네가 오늘날의 심판을 떠난다고 해서 이 고난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 땅’을 떠나면 고통에 시달리거나 마귀에게 해를 입지 않겠느냐? 견디기 힘든 나날이 닥치지 않겠느냐? 오늘날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훗날의 고통을 영원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장차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네가 바라는 무릉도원이겠느냐?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면 훗날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기회와 축복을 네가 이후에 두 번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재앙이 임할 때 찾을 수 있겠느냐? 모든 인류가 안식에 들어갈 때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의 만족스러운 생활과 화목한 가정이 네 훗날의

영원한 종착지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만약 네게 진실한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인해 많은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피조물인 네가 마땅히 얻어야 할 몫이고, 또한 네가 본래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정복은 너의 믿음에도 가장 이롭고 너의 생명에도 가장 이롭다.

지금 너는 하나님이 정복된 사람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 온전케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당장 진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은 조금만 알면 된다. 일부 심오한 비밀의 말씀은 생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조금 보기만 하고 연구하지 마라.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에 대한 비밀 같은 것은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의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날 하나님은 또 어떤 사역을 하는지 등은 볼 필요가 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을 예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온전케 되어야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요구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실행에 관한 것이자 또한 알아야 할 점이다. 너는 이 말씀대로 추구하고 진입하면 된다. 하지만 너는 “인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만 년 동안 발전해 왔다.”라는 말을 보고 궁금증을 참지 못해 형제자매들과 모여서는 “하나님께서서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시간이 6천 년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왜 또 수만 년이라고 하시죠?”라며 연구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연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수만 년 동안 했든 수억 년 동안 했든 네가 연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피조물인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좀 보면 그만이니, 이상으로 삼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당장 무엇에 진입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여 깨달아야만 정복될 수 있다. 위의 말씀을 봤으면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은 몹시 애타며 급해하시는구나. 우리를 정복하고 영광과 증거를 얻으려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협력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그분께 완전히 정복되어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해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이다. 너희 모든 사람은 정복의 의의를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너희의 책임이다. 너희는 깨달아야 진입할 수 있고, 이 단계 사역에 인식을 갖게 되며,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순종할 수 없다.

### 정복 사역의 실상 3

정복 사역으로 얻으려는 성과는 주로 사람의 육이 거역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사상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의지를 다지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성격이나 육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정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의 사상, 의식, 이성, 즉 너의 모든 정신적 면모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복된 것이다. 순종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사상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 아무런 관념도 불순한 의도도 없어지고, 정상적인 사유를 가질 수 있다면, 다시 말해 오직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완전히 정복된 자이다. 많은 종교인이 평생 적지 않은 고난을 받았다. 그들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거나 십자가를 졌으며, 심지어는 죽기 전까지 고난을 받고 인내했다! 어떤 이는 죽는 날 아침까지도 금식했고, 평생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좋은 옷도 입지 않았으며, 고난받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들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거나 육을 버릴 수 있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그들의 정신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그들의 사상, 관념, 정신적 면모, 나아가 그들의 옛 성품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전통적 관념 속의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으려는 그들의 의지는 그들의 열정과 인성의 좋은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다. 무작정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고난만 받았을 뿐 전혀 분별할 줄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했다.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하거나 타인에게서 들었거나 혹은 글에서 찾아낸 전설 속의 하나님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풍부한 상상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았고,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을 담당하고자 했다. 그들의 섬김은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있는 자가 거의 없었다. 얼마나 고난을 달게 받았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섬김의 관점과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연단, 온전케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또 진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구주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구주에 대해서는 전설과 풍문만 들었을 뿐 구주를 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섬김은 소경이 제 아버지를 모시듯 두 눈을 감고 아무렇게나 섬긴 것에 불과했다. 그런 섬김이 최종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또 누가 칭찬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섬김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모두 인위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타고난 천성과 기호대로 섬겼는데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를 본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있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즉 늙어서야 깨달았다. 그러니 어떤 책망도 훈계도 받지 않고 인도자도 없는 소경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오늘날, 너희 많은 사람의 섬김도 소경의 섬김과 같지 않느냐? 심판을 받지 않고 책망 훈계를 받지 않으며 아무 변화도 없는 사람들은 모두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자들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너의 사상, 인생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변화가 없고 진정한 수확이 조금도 없다면, 너의 섬김은 영원히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이상(異象)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없다면 너는 정복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네가 따르는 것도 고난받으며 금식하는 사람들처럼 아무 가치가 없다! 그들이 행한 것은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평생 고난도 받고 감옥살이도 했으며, 언제나 참으며, 사랑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중시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당하고 버림받으며 슬한 고난을 받았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순종하기는 했지만 정복되지 않았고 정복된 증거도 없었다.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에게 존재하는 낡은 사상, 낡은 관념, 종교적인 행실, 인위적인 인식, 사람의 생각은 모두 다듬어지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내면에 새로운 깨달음이 조금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는 진실하고 정확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도 잘못 이해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예전에 네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이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오직 자기 관념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즉 하나님에 대해 새롭고 참된 인식이 없고,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과 고유한 성품에 대해 알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봉건 미신 사상에 좌우되고 여전히 사람의 상상과 관념에 머물러 있다면, 너는 정복되지 못한 것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한 많은 말은 모두 네가 인식해야 할 것들이다. 이런 인식으로 너를 이끌어 정확하고 더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려는 것이며, 또한 네가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내면의 낡은 관념과 진부한 인식 방법을 다듬으려는 것이다. 네가 제대로 먹고 마신다면 너의 인식 방법은 많이 바뀔 것이다. 또 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너의 관점은 바로잡힐 것이다. 네가 한 번 또 한 번의 형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의 낡은 사상이 점차 바뀔 것이고, 너의 낡은 사상이 철저히 바뀌면 그에 따라 너의 실행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너의 섬김도 점점 바로잡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네가 너의 삶을

바꾸고 인생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하나님에 대한 많은 관념을 바꿀 수 있다면, 너의 천성적인 것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함으로써 얻은 성과, 즉 사람의 변화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거나 인내하며 고난받아야 하는 것만 알고,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며, 더욱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면, 그렇게 실행해서 어떻게 변화가 생길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의 육을 단속하거나 허튼 생각을 하지 않도록 통제하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내 사역의 목적이 아니고, 지금 하려는 사역도 아니다. 너희는 지금 적극적인 면에서 인식을 갖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진리와 이상을 완비한 후에 실행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구하여 더 큰 빛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는 그런 분량에 도달하지 못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아야 하고, 너희의 본성, 본질, 너희의 진부한 삶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특히 과거 너희의 그릇된 실행과 인위적인 행실에 대해 알아야 한다. 너희가 변화하려면 먼저 사상부터 바뀌어야 한다. 먼저 너희의 사상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로운 사상이 너희의 언행과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너희 개개인에 대한 요구다. 맹목적으로 실행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마라. 마땅히 기초와 목표가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지, 또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지금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너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한다.

너희가 지금 진입해야 할 것은 너희의 삶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거의 낡은 관점들과 너희의 사상, 관념을 바꾸는 것이다. 너희의 삶 전체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너의 인식 방법이 바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담긴 진리에 대해 새롭게 깨달으며, 내면의 인식 방법이 향상되면, 네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길 것이다. 지금 사람이 행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실제적이다. 그것은 도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복 사역 중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이자,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변화이며, 사람이 정복된 후에 나타나는 성과이기도 하다. 너의 사상이 바뀌고, 정신 면모가 새로워지고, 너의 관념, 속셈, 과거의 논리적인 추리가 모두 뒤집히고, 네 안에 깊게 뿌리박힌 것들을 벗어던진 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면, 네가 말하는 증거가 높아지고 너의 모든 것이 진정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근본적인 것들이다. 또 이는 과거에 알지 못했고, 사람이 접할 수 없었던 것이며, 영의 진정한 역사이다.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너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오늘날 비춰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너는 모세, 베드로, 바울이나 성경에 대한 관점 혹은 견해를 전부 높이 받들었다. 지금 다시 너에게 성경을 높이 받들라고 하면 받들겠느냐? 너는 성경 속에 사람의 기록이 너무 많다는 것을,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두 단계 사역에 대한 사람의 기록이며 역사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인식 방법이 바뀐 것 아니겠느냐? 지금 다시 마태복음의 예수 족보에 대해 논한다면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의 족보라니요! 그것은 요셉의 족보이지 예수님의 족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한 너의 인식 방법, 즉 너의 견해는 달라졌고, 그것은 종교계 원로들의 인식보다도 높다. 누군가 그 족보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셉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걸 모르십니까? 예수님께 족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조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자손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육신은 마리아에게서 났으나 그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데, 그분께 족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땅에 계셨지만 인류에 속하지 않는데 어떻게 족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족보’를 분석해 그 실상을 속속들이 말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면 그는 아연실색할 것이다. 누군가 성경을 대조하면서 “옛날 예수님께는 족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하나님은 족보가 있습니까?”라고 물을 때, 네가 그에게 가장 실제적인 인식을 말해 줄 수 있다면, 너의 인식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사실, 예수는 요셉과 전혀 관계가 없고 아브라함과도 더욱 관계가 없다. 단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을 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도 아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역을 위해 한 단계의 성육신 사역을 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전 우주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하나님이다. 단지 이스라엘에서 먼저 한 단계 사역을 한 다음 이방의 사역을 시작했을 뿐이다. 하지만 사람은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끼워 넣고 다윗의 자손 중에 끼워 넣었다. 성경에는 마지막 날에 여호와와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말세에 하나님이 이방에서 사역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날 하나님이 유대에 성육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사역의 필요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에 성육신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왜냐하면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임). 이방에도 하나님의 선민이 있지 않더냐? 예수가 유대에서 사역을 끝낸 후에야 이방(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족속을 ‘이방’이라고

칭한다.)으로 사역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사실 이방에도 하나님의 선민이 있지만, 그때는 이방에서 역사하지 않았을 뿐이다. 사람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중요시하는 것은 앞의 두 단계 사역을 모두 이방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했기 때문이다. 이방에서의 사역은 오늘에야 시작되었으므로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지금 너는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이런 일들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견해를 가져야 하며, 지금의 하나님과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 모두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역대 성도들의 인식보다 높다. 네가 오늘날의 사역을 체험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친히 발한 음성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전 그대로 추구하며 조금도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특히 정복 사역을 이렇게 많이 체험하고도 최종적으로 너에게서 작은 변화조차 찾아볼 수 없다면, 너의 믿음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복 사역은 너에게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럼 너도 내쳐진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모든 정복 사역이 끝날 때, 너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만들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외의 어떤 민족 가운데서도 성육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너는 정복 사역에서 아무런 인식도 얻지 못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중국으로 옮겨 와 부득이하게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만 인정할 뿐이다. 네가 계속 그렇게 알고 있다면, 내가 한 사역이 너에게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고, 내가 한 말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다. 결국 너도 마태처럼 나에게 족보를 하나 써 주고 알맞은 ‘조상’과 정통 뿌리를 하나 찾아 준다면, 두 차례 성육신한 하나님께는 족보가 두 개나 있게 될 텐데, 그럼 큰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내게 족보를 찾아 주는 ‘마음씨 좋은 사람’인 너는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정복 사역을 이토록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오늘날 너를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며, 나아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자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인 동시에 애굽 사람의 하나님이요, 영국 사람의 하나님인 동시에 미국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의 하나님이며, 하늘에 있는 만물의 하나님인 동시에 땅에 있는 만물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든, 이방의 모든 족속이든 모두 한 분의 하나님 손에 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수천 년 동안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유대 땅에 태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또 큰 붉은 용이 파리를  
 틀고 있는 중국 땅에 강림했다. 그가 유대에서 태어났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지금은  
 너희 가운데 강림했으니 너희의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했었고,  
 유대 땅에 태어났었으며, 다시 또 이방에 태어났지만,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은 그가 만든  
 인류 전체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은 백배로 좋아하고 이방인은 천배로  
 미워하겠느냐? 이것은 모두 너희의 고정 관념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피조물 중에  
 누가 전능자의 손에 있지 않더냐? 오늘날 너희를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다윗 집안만이 하나님의 출생지가 될 수  
 있다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어느 민족도 하나님을 ‘탄생시킬’ 자격이 없으며, 더욱이  
 어떤 이방 민족도 여호와의 사역을 직접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완고한 자가 된 것 아니겠느냐? 계속 이스라엘만 주시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바로 너희 가운데 있으니 계속 하늘만 쳐다보지도 말고, 더 이상 하늘에 있는  
 너의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을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은 시간은 길지 않지만, 너의 관념은 적지 않다. 그리하여 너는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왕립’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더욱이  
 이렇게 더럽기 그지없는 너희가 친히 나타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이방에 친히 강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는  
 시내산이나 감람산에 강림하여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고, 이방인(이스라엘 외의  
 사람)은 모두 그가 미워하는 대상이므로 친히 그들에게 사역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던 관념이다. 오늘날 너희를 정복하는  
 것은 너희의 이런 관념을 깨뜨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친히  
 나타난 것을 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시내산도 아니고 감람산도 아닌, 과거에 인도한 적  
 없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두 단계 사역을 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과 모든 이방인에게는 이런 관념이 생겼다. 즉,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할 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은 너희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즉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의 모습을 지니고 유대인의 특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형상과 비슷하며, 우리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다.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이방인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의 속죄 제물이시다.’라고 생각한다. 그저 두 단계 사역을 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 족속에게는 이처럼 많은 관념이 생겼다.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방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백지상태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고, 그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들, 특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와 여호와가 행한 사역이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한 것임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지금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너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오늘날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더냐? 설마 이것이 꿈이란 말이나? 너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바로 너희 가운데 있지 않더냐? 너희는 아직도 이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 이제부터 정복된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선민 아니겠느냐? 지금 따르고 있는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 이외의 선민 아니겠느냐? 너희의 신분도 이스라엘 사람의 신분과 같아지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너희를 정복하는 것도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역 아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가 모두 그를 따르고 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그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어떠하든, 결국엔 순종하며 오늘날까지 따라왔다. 마지막에 이 단계 사역이 끝날 때야 사람은 철저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이 진정으로 정복된다. 지금은 그저 정복되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사역이 끝나면 사람은 철저히 정복될 것이다. 아직은 안 된다! 설령 사람이 모두 인정할지라도 완전히 정복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사람이 말씀만 보고 사실을 보지 못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사실, 즉 말씀이 이루어져야 사람을 철저히 정복할 수 있다. 지금 사람은 예전에 들어 본 적 없는 수많은 비밀을 듣고 정복되었지만, 모든 사람의 속마음은 사실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관망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때가 되어서야 완전히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사람은 모두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그 사실에 안심할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은 모두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탄복할 것이며, 마음에서 우러나 철저히 인정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바로 이렇다. 말씀이 일일이 이루어지고 사실이 임하고 또 누군가 화를 입는 것을 보아야만 마음에서 우러나 철저히 인정하게 된다. 너희는 유대인처럼 늘 이적과 기사를 보는 것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이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 너희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는 사실이 임하는 것도 보지 못한다.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온다든가, 구름 기둥 속에서 너희에게 말을 한다든가, 내가 너희 중의 누군가에게 귀신을 쫓아내 준다든가, 나의 음성이 너희 가운데서 우렛소리와 같이 울린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다. 너희는 항상 이런 사실을 보려고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품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 너희 앞에 와서 친히 이적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정복하려면 반드시 천지개벽과 같은 사역을 한 후에 ‘이적’도 추가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도 완전히 정복될 것이다.

## 정복 사역의 실상 4

온전케 되는 것이란 무엇이겠느냐? 정복되는 것이란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정복되고 싶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겠느냐? 온전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겠느냐? 정복하는 것과 온전케 하는 것은 모두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원래 모습을 되찾아 사탄의 패괴 성품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복하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기초적인 사역, 즉 사람을 만드는 첫 단계 사역이고,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두 번째 단계 사역이자 마무리하는 사역이다. 모든 사람은 정복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만들어질 수 없다. 네가 만들어질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를 알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그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를 증거할 수 없을뿐더러 그를 만족케 할 믿음은 더더욱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제일 먼저 정복 사역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정복하는 것이든, 온전케 하는 것이든 모두 사람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의 하나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단계 사역을 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정복된다’는 말이 듣기에 좋지는 않지만, 사실 정복하는 과정 역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네가 정복된다고 해도 네 패괴 성품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복 사역을 통해 자신의 비천한 인성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패역도 알게 된다. 비록 정복 사역의 짧은 시간 동안 너의 그것이 벗겨지거나

변화될 수는 없을지라도 네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케 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복하는 것과 온전케 하는 것은 모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사람이 가진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겨 냄으로써 사람이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복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첫 단계이자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첫 단계이며, 온전케 되는 것보다 낮은 단계의 사역일 뿐이다. 정복된 사람은 온전케 된 사람보다 생명 성품의 변화 정도가 훨씬 낮다. 정복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의 개념이 다른 이유는 사역 단계가 다르고, 사람에게 대한 요구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을 정복하는 요구 기준은 낮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요구 기준은 높다. 온전케 된 사람은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들은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의 결정체이자 완성품으로,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정복된 사람은 어떠하냐? 그들은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을 인정하며,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음을 인정할 뿐이다.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채찍질과 연단이 모두 사람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이다. 그들은 이제 막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고 인생을 조금 꿰뚫어 보게 되었지만 아직도 모호하다. 다시 말해, 이제 막 인성을 조금 갖추게 된 것이다. 이는 정복됨으로써 나타난 효과다. 사람이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면 옛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 생명이 부단히 자라 진리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며,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혐오하게 된다. 특히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분명한 인식이 생기면서 진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진리 추구를 목표로 삼는다. 또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으려 하고, 사람의 독선과 오만함, 방자함에 염증을 느끼며, 분수에 맞게 말하고, 일이 닥치면 분별력과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 충성심과 순종을 보이게 된다. 형벌과 심판을 겪을지라도 소극적이 되거나 연약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떠날 수 없다고 느끼며, 형벌과 심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평안함, 즐거움, 기복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한순간의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모두 온전케 된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이다. 사람이 정복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정복된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성육신이란 무엇이겠느냐? 그는 어떤 사역들을 행했겠느냐? 그가 사역을 하는 목적과 의의는 무엇이겠느냐? 그의 그 많은 사역을 체험하고, 그가 육신으로 행하는 행사를 체험하면서 네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정복된 사람이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육적인 즐거움을 떨쳐 내야 할 때 떨쳐 내지 않으며, 예전처럼 육적인 안락을 탐하고, 형제자매 사이에 선입견이 있어도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 가지 쉬운 실행에서도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면, 이는 네가 정복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면 네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해도 모두 헛된 것이다. 정복된 사람은 기본적인 변화와 진입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겪으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생긴다. 비록 더 깊고 세밀한 많은 진리의 실체에 완전히 진입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 속에서 너의 육적인 즐거움이나 개인의 지위 등과 같은 얕은 진리는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다 정복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과다. 정복된 사람에게는 성품 변화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옷차림이나 치장, 생활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바뀌며, 추구하는 목표도 명확해지고 의지도 높아진다. 정복되는 사역에서도 사람의 생명 성품은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변화의 정도가 얇고 기초적이며 온전케 된 후의 성품 변화와 추구하는 목표에 비해 훨씬 낮을 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정복 사역에서 성품에 변화가 전혀 없고 조금의 진리도 얻지 못한다면, 그런 인간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폐물이다! 정복되지 않은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다! 사람이 정복되기만을 추구한다면 설령 정복 사역에서 성품에 상응하는 변화가 나타날지라도 완전히 온전케 될 수는 없고, 처음에 얻은 진리도 잃게 될 것이다. 정복된 사람과 온전케 된 사람의 성품 변화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복되는 것은 기초적인 변화이자 토대이다. 이런 기본적인 변화조차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인식도 없다는 증거다. 이런 인식은 심판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심판은 정복 사역의 주된 사역 항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전케 되는 모든 사람은 정복되는 과정을 거친 자들이며, 그 과정이 없으면 온전케 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몰래 일을 저지르며, 그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겠느냐? 그의 말씀은 인정하지만 네가 해낼 수 있는 것조차 실행하지 않고 그의 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겠느냐? 너는 그를 인정하기는 하나, 그를 경계하는 마음만 있을 뿐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가 행한 사역을 보고,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미온적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런 사람은 정복되지 않은 사람이다. 정복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 높은 진리에 진입하지도, 미치지도 못할지언정 마음으로는 당길 원해야 한다. 깨달음이 유한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에도 범위와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 네가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정복 사역으로 인해 나타난 성과다. 가령 네가 “그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라고 말한다고 치자. 너에게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는 실제 행동이 있어야 한다. 교회를 이끄는 자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재물을 탐내 교회 돈으로 늘 자기 주머니를 채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며 사람이 경외할 만한 분이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비열한 짓까지 저지르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이냐? 네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냐? 너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나 양심에 찢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 특히,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인식한 일은 더더욱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너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너에게 잘해 준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느냐? 형제자매가 너를 혐오한다면 너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느냐? 네가 그를 인정한다면 이런 일이 생길 때 적절하게 행동하고 실제적으로 살아 낼 것이다. 실제 행동은 없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너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다! 너는 그를 믿고 인정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그를 믿는 것이냐? 너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느냐? 경외심이 있느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슬프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스럽다고 느끼지만 그 후에는 없었던 일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하겠느냐? 내가 언급한 내적 상태들, 예를 들어 자신이 대단하다고 자부하고, 무엇이든 빨리 깨닫는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업신여기고, 외모로 판단하고, 착한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 돈을 탐내는 등등 이런 사탄의 패괴 성품이 너에게서 일부 벗겨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네가 정복된 후에 보여야 할 모습이다.

너희에게 하는 정복 사역은 그 의미가 가장 깊다. 한편으로는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데, 이기는 자들을 온전케 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진 한 무리, 즉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과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한다. 사람에게 공훈과 자비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형벌과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역하면서 행한 모든 것은

전부 사랑일 뿐 미움은 전혀 없다. 네가 본 형벌과 심판도 사랑으로, 더 참되고 실제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이 사람을 인생의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사탄 앞에서 증거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복음 확장을 위해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다.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은 사람을 인생의 바른길로 인도하여 정상적인 인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생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헛되게 살아간다. 너는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이 살아갈 뿐 결코 정상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정복하는 가장 깊은 의의이다. 너희는 모두 모압의 후손이다. 너희에게 정복 사역을 하는 것은 커다란 구원이다. 너희는 모두 죄악이 넘치는 음란한 땅에 살고 있는, 음란하고 죄악된 사람이다.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형벌과 심판을 받았고, 이렇게 가장 깊은 구원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가 행하는 것은 모두 참된 사랑이며 악의는 없다. 그는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여 반성하게 하고, 이 크나큰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전력을 다해 사람을 구원한다. 그는 친히 만든 사람이 완전히 멸망하길 결코 원치 않는다. 그가 지금 또 너희 가운데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더욱 구원 아니겠느냐? 그가 너희를 미워한다면 이렇게 큰 사역을 하여 직접 너희를 인도하겠느냐? 굳이 이런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며 조금의 악의도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진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사람의 패역 때문에 반드시 심판으로 사람을 구원해야 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너희는 생활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며, 이 음란하고 죄악된 땅에서 살고 있으므로 음란하고 더러운 귀신에 속한다. 그는 너희가 더 타락하는 것이 안타깝고, 또 너희가 이렇게 더러운 땅에서 살면서 사탄에게 마구 짓밟히고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기에 오로지 이 무리 사람들을 얻고 철저히 구원하려고 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정복 사역을 하는 주된 목적이다. 바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는 것이 모두 사랑이고 구원임을 보지 못한 채, 그것은 그저 일종의 방식일 뿐이며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세계로 돌아가 고통과 고난을 겪어라! 이 흐름 속에서 이 심판과 크나큰 구원을 누리고, 인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모든 복과 사랑을 누리고 싶다면, 이 흐름 속에서 고분고분 정복 사역을 받아들이고 온전케 되어라. 너는 지금 심판으로 인해 약간의 고난과 연단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은 가치와 의의가 있다. 형벌과 심판은 사람에게 연단이고 무정한 폭로이며, 그것은 사람의 죄와 욕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의 욕을 정죄하여 멸하려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엄하게 폭로하는 것도 모두 너를 바른길로

이끌기 위함이다. 너희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직접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비뚤어진 길로 인도한 적은 없지 않더냐! 전부 네가 정상 인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며, 너의 정상 인성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각 단계 사역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바탕으로, 너의 연약함과 너의 실제 분량에 맞추어 행하지, 너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억지로 지우지는 않는다. 네가 지금은 꿰뚫어 보지 못하여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내가 너를 미워해 날마다 형벌하고 심판하고 꾸짖는 것 같겠지만, 네가 받는 형벌과 심판은 사실 너에 대한 사랑이고 크나큰 보호다. 이 단계 사역의 더 깊은 의의를 알지 못한다면 너는 이 사역을 체험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런 구원으로 위안을 얻어야지, 잘못된 생각에 빠져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겪었으면 너도 이 정복 사역의 의의를 분명하게 알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저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 너는 앞으로의 사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너는 시대적 의미가 있는 적합한 언어로 하나님이 각 시대에 나타낸 성품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느냐? 너는 너의 목양을 기다리고 있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가련하고 가난하고 경건한 그 종교 신자들에게 자신이 보고 체험한 것을 어떻게 알려 줄 것이냐? 너의 목양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어떤 ‘인물’일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짊어진 중책과 너에게 맡겨진 사명, 너의 책임을 너는 모두 알고 있느냐? 너의 역사적 사명감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떻게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이냐? 너는 주인 의식이 강렬하냐? 만물의 주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말로 생물과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이겠느냐? 너는 다음 단계 사역의 진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목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너의 임무가 무척 무겁지 않느냐?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먼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흑암 속에 떨어져 흐느끼고 있다.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밝은 빛이 문득 유성처럼 내려와 오랫동안 인간을 억압한 이 흑암 세력을 몰아내길 얼마나 갈망하고 있겠느냐? 간절히 기대하고 밤낮으로 생각하지만 누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심한 고난에 빠진 그 사람들은 빛이 가로지르는 날에도 여전히 흑암의 감옥에 갇힌 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언제쯤이면 더 이상 애곡하지 않겠느냐? 한 번도 안식을 취한 적이 없는 그 연약한 영들은 그렇게 참혹한 불행을 겪고 있다. 비정한 밧줄과 굳어 버린 역사(歷史)가 일찍이 그들을 그 속에 가둔 것이다. 그 흐느낌을 누가 들은 적이 있느냐? 그 근심하는 모습을

누가 본 적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손수 지은 무고한 인류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어쨌든 인류는 해를 입은 불행한 자들이다. 비록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기는 했지만 일찍이 악한 자에게 해를 입었음을 누가 알겠느냐? 설마 너는 자신이 그 피해자 중의 하나임을 잊은 것이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생존자들을 모두 힘써 구원해 오고 싶지 않느냐? 네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 사람을 자신의 골육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써 평범하지 않은 일생을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으로 의미 있는 일생을 살 의지와 믿음이 있느냐?

## 너희는 ‘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비록 사탄과 더러운 마귀에 의해 파괴되긴 했지만 이 파괴로 인해 지극히 큰 구원을 얻었다. 심지어 욥이 얻은 온 산에 가득한 우양과 막대한 재산보다 더 크고 욥이 시련을 겪은 후에 여호와를 보게 된 복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욥은 죽음의 시련을 겪고 나서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는 여호와가 폭풍 속에서 하는 말씀은 들었으나 여호와의 얼굴은 보지 못했고 여호와의 성품도 알지 못했다. 욥이 받은 것은 육체가 누리는 물질적인 재산과 온 땅에서 가장 아리따운 자녀들, 그리고 천사의 보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를 보지 못했고, 의롭다고 칭함 받기는 했으나 여호와의 성품은 알지 못했다. 반대로 오늘날의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잠시 빈곤하거나 외부 환경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가장 비천하지만 나의 지극히 큰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시종일관 감추어 왔던 나의 성품과 만세 전의 비밀을 보여 주었다. 게다가 이는 처음 보여 준 것으로, 미증유의 사역이다. 너희가 비록 욥에 훨씬 못 미치지만 너희가 받은 것과 본 것은 욥을 훨씬 능가한다. 너희가 비록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그런 고통은 욥의 시련과는 같지 않다. 이는 사람의 패역과 대적으로 인한 것이며, 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해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는 공의로운 심판이자 형벌이며 저주이다. 욥은 본래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은 의인으로, 그는 악을 행하지도, 여호와를 대적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마음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충성했다. 그는 의로움으로 인해 시련을 받았고, 여호와의 충실한 종이라는 이유로 불과 같은 시련을 겪었다. 오늘날의 사람은 더러움과 불의로 인해 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사람은 비록 욥과 같이 우양과 재산, 종, 자녀, 친구들을 잃는 고통을

겪지는 않으나 불의 연단과 불사름을 겪는다. 게다가 욥보다 심한 것은 이러한 시련이 사람이 연약하다고 하여 가벼워지거나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징벌이요, 심판이자 저주이며 무정한 불사름이다. 또한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할 ‘유업’으로, 사람이 받아 마땅한 몫이다. 이는 나의 공의로운 성품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공개된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이 얻은 것은 이미 오늘날 겪는 고통보다 훨씬 많다. 너희가 겪는 고통은 그저 어리석음으로 인해 겪는 좌절일 뿐이지만 그 고통에 비해 얻은 것은 백배나 된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정한 율법에 따르면 나를 대적하는 자와 공개적으로 판단하는 자, 그리고 내 도를 행하지 않고 겹도 없이 내게 망령된 제사를 지내는 자는 반드시 성전 안에서 떨어지는 불에 죽거나 선민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심지어 그의 가족과 자손 그리고 그와 관련이 있는 직계 친족까지도 나의 저주를 받아 내세에 자유를 얻지 못하며 내 종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또한 내게 쫓겨나 이방에서 떠돌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은 자신들이 행한 것에 비해 받는 고통이 이스라엘인이 받았던 징벌에 훨씬 못 미친다. 너희가 오늘날 겪는 고통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너희가 한 행동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다. 만약 이스라엘이었다면 너희는 영원한 죄인이 되었을 것이며, 일찌감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하늘의 불에 태워지는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얻은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받은 것과 누리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나? 나는 너희에게 나의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를 구속할 때의 내 인내심을 나타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은 인내의 사역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나의 경영을 위함이며 더 나아가 인류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욥은 비록 여호와의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의인이었을 뿐이다. 그는 그러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다. 오늘날 사람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도리어 ‘여호와’의 나타남을 저버리고 혐오하고 원망하며 비꼰다. 너희가 받은 것이 적으냐? 너희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큰 것이냐? 너희의 복이 마리아, 야고보보다도 크지 않으냐? 너희가 대적한 것이 적으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바가 너무 높고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나? 나는 나를 대적하는 이스라엘인에게 나의 진노를 쏟았을 뿐 너희에게는 쏟지 않았다. 너희가 받은 것은 단지 나의 무정한 심판과 폭로, 그리고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는 불의 연단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내게 대적하고 항변하며,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를 멀리하고 나를 부인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사람은 모세를 반대했던 고라와 다단 무리만도 못하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강박하고 본성은 너무도

완고하며 옛 성품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이 백주 대낮에 제 몸을 다 드러낸 음녀와도 같다고 말하고, 심지어 ‘차마 듣기 힘들 정도로’ 엄하게 말하여 사람의 본성을 백일하에 드러내도 사람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조금 아픈 척하기만 할 뿐이다. 그 순간이 지난 후에는 산짐승의 왕처럼 포악해지며 아무 지각도 없다. 이러한 성품으로 어찌 자신이 일찍이 읍보다 백배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어찌 자신이 누리는 복이 그 누구도 누린 전례가 없었던 복임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양심이 어찌 징벌과 함께 오는 이러한 복을 감지할 수 있겠느냐? 솔직히 말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은 단지 내 사역의 모범이 되고 내 모든 성품과 행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너희가 사탄의 해악을 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내가 하는 사역에 항상 반감을 갖고 고의적으로 적대시한다. 이러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진노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비록 너희 중에 내게 ‘순종하는’ 이들이 많지만 ‘고라 무리’와 같은 자들은 훨씬 더 많다. 나는 내 영광을 완전히 받고 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러한 자들을 깨끗이 태워 없앨 것이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더 이상 말로 사람을 형벌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역을 하기 전에 나를 대적했던 자들, 곧 내가 일찍이 도태시킨 ‘고라 무리’를 깨끗이 태워 없앨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내가 하늘에서 내린 ‘불길’과 진노만 보일 뿐 다시는 나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나는 각종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 주고, 각종 사람들을 분류하며, 각종 사람들의 패역한 행실도 모두 기록한 후 나의 사역을 마칠 것이다. 사람의 결말은 내가 땅에 있을 때 내린 판결에 따라 정해지고,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결말이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결말을 드러내게 하겠다! 내가 사람의 결말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넘길 수 있게 말이다.

## ‘하나님’에 대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됐으나 대부분 ‘하나님’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흐리멍덩하게 따를 뿐, 대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는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른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할 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큰 웃음거리 아니겠느냐?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천상의 비밀을 보고, 이제껏 이해하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지식’을 수없이 들었지만, 가장 알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수많은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어쩌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 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모르겠어요? 사람 얕잡아 보는 거

아니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사람은 지금 나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오늘날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한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문제도 그냥 흘려보내는데, 하물며 가장 복잡한 ‘하나님’ 같은 문제는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너는 마땅히 이 점을 알아야 한다. 네가 관심을 두지 않는 문제,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야말로 네가 가장 잘 알아야 할 문제이다. 너는 큰 흐름을 따르는 것만 알 뿐 네가 갖추어야 할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아느냐? 정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정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존엄성을 잃은 것 아니겠느냐? 오늘날 내가 하는 사역은 사람에게 인간의 본질과 나의 모든 행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는 경륜의 마무리이자 내 사역의 마지막 단계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인생의 모든 비밀을 미리 알려 주어 내게서 받아들이게 하려 한다. 이는 말세 시대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너희가 받아들인 적 없는 모든 생명 진리를 반드시 너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무도 부족하고, 갖춘 것이 몹시 적기 때문이다. 어둠이 닳았을 때 너희가 또다시 길을 잘못 들어 악한 자의 간계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해야 할 사역을 다 하고,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모두 전하여 사역을 끝내려 한다. 너희는 깨닫지 못한 도가 너무 많고 알지 못하는 일도 한없이 많다. 너희는 너무 무지하다. 나는 너희의 분량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에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 많다 해도 너희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적 없는 모든 진리를 알려 주고자 한다. 지금 너희의 분량으로 나를 위해 굳게 설 수 있을지를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너희를 얕보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모두 나의 정식 교육을 거치지 않은 우마 부류이며, 너희에게서 과연 어느 정도의 영광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많은 정력을 쏟아 너희에게 사역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요소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소극적인 요소도 손꼽을 정도로, 겨우 사탄에게 치욕을 주는 간증만 할 뿐이다. 나머지는 거의 다 사탄의 독소이니 내 눈에 너희는 구제 불능처럼 보인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 나는 너희의 갖가지 표정과 태도를 보고 나서야 너희의 진짜 분량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늘 너희를 염려한다. 사람이 혼자 살아간다면 정말 오늘보다 낮거나 오늘과 비슷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자신의 작은 분량이 걱정되지 않느냐? 너희는 정말 이스라엘 선민처럼 언제나 나에게 일편단심일 수 있느냐? 너희가 드러내는 것은 부모에게서 벗어나려는 어린애의 장난기가 아니라 주인의 채찍을 벗어나기 위해 분출하는 우마의 야성이다. 너희는 너희의 본성이 너희, 모든 사람의 약점이자 공통적인 병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유일한 당부는 절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굳게 서서 나를 증거하라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내 사역의 중심이다. 너희는 내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마리아가 꿈에서의 여호와와의 계시를 받아들인 것처럼 믿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결’이다. 너희는 나의 말을 가장 많이 들었으므로 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자들이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귀중한 재산을 주었고, 모든 것을 베풀었다. 너희의 지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지만 너희는 그들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얻었다. 그들은 나의 출현을 고대했으나 너희는 나와 함께 좋은 나날을 보내며 나의 풍성함을 누렸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는 무슨 자격으로 나와 다투고 재산을 쟁탈하려 하느냐? 너희가 얻은 것이 아직도 적단 말이나? 나는 너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주었지만 너희가 돌려준 것은 가슴 시린 슬픔과 걱정, 그리고 억누르기 힘든 울분이다. 나는 너희가 너무나 밋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다. 그래서 모든 분노를 참으며 너희에게 거듭 저항할 수밖에 없다. 나는 수천 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인류에게 항의한 적이 없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면서 나는 너희의 ‘기만책’만이 가장 유명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명성 높은 옛 ‘선조’가 너희에게 남겨 준 귀중한 유산 같다. 나는 이런 비인간적인 개돼지 부류를 실로 증오한다. 너희는 너무 양심이 없다! 너희의 인격은 너무도 저열하다! 너희의 마음은 너무나 강박하다! 나의 이런 말과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져갔다면 벌써 영광을 얻었겠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불가능하다. 너희에게는 무자비한 매장과 차가운 눈빛, 책임 전가만 있을 뿐이다. 너희의 감각은 지나치게 마비됐고 너무도 무가치하다!

너희는 나의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고, 내게 이로운 사역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가 깨닫지 못한 것을 모두 알려 주고, 너희에게 없는 모든 것을 내게서 얻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부족한 부분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해도 나는 계속 너희에게 내가 해야 할 사역을 하고, 내 마지막 공훈을 베풀어 줌으로써 너희가 내게서 이로움을 얻고, 너희에게 없는, 세상 사람이 본 적 없는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사역해도 나를 아는 자가 없기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 않았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 주고자 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본래 사람이 볼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는 영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세 단계 사역(창세·속량·궤멸)을 위해 나는 각각 다른 시기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공개적으로 나타난 적은 없음) 나의 사역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 온 것은 구속시대였다. 물론 그때는 유대 족속 가운데 왔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온 ‘하나님’을 처음 본 사람은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그 단계의 사역을 친히 한 까닭은 내가 입은 육신을 속죄 제물로 삼아 구속 사역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은혜시대의 유대인이었다. 이것이 내가 육신으로 행한 첫 번째 사역이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나는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한다. 그래서 똑같이 육신에서 목양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하는 두 번째 사역이다. 마지막 두 단계 사역에서 사람들이 접한 것은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영이 아니라 영이 육신으로 실체화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또 한 번 사람이 된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티가 전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사람이 본 하나님은 남성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기도 하니,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장 놀라워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오랫동안 이어진 낡은 믿음 방식은 예사롭지 않은 나의 거듭된 사역으로 깨어졌고, 사람은 놀라 어리둥절해졌다! ‘하나님’이란 성령, 그 영, 일곱 배로 강화된 영, 만유를 포함하는 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이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고 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또 남성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기도 한데, 같은 점은 둘 다 사람에게서 났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과 사람에게서 났으나 직접 영에서 왔다는 것이다. 같은 점은 성육신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맡았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한쪽은 구속 사역이고 한쪽은 정복 사역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은 같지만 한쪽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구속주이고, 한쪽은 진노와 심판이 가득한 공의의 하나님이다. 한쪽은 구속 사역을 펼친 사령관이고, 한쪽은 정복 사역을 이루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한쪽은 시작이고, 한쪽은 끝이다. 한쪽은 죄 없는 육신이고, 한쪽은 구속을 완성하고 이어지는 사역을 하는, 본래 죄에 속하지 않는 육신이다. 동일한 하나의 영이지만 각각 다른 육신에 거하고 다른 곳에서 태어났으며, 수천 년의 시간 차에도 하는 사역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며,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있다. 또한 둘 다 사람이지만 남자 아기이고, 또 여자 아기이다. 오랫동안 사람이 본 것은 영이었고, 사람이었고, 남자였으며, 또한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일이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나에 대해 늘 짐작하지 못했다. 내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또 존재하지 않는 꿈 같기도 하여 늘 나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네가 정말 간단한 말 한마디로 나를 요약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하나님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예수의 형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너의 글재주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성을 만들었을 뿐, 자신의 형상대로 여성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 말대로라면 여자는 다 내가 택한 대상이 아니며, 인류에 속하는 부류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지금 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영이나? 하나님은 정말 남자이나? 오직 예수만이 내가 하려는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중의 하나를 택해 나의 본질을 요약한다면 너는 너무나 무지한, 충성스러운 신자에 속할 것이다. 만일 내가 성육신 사역을 한 번만 한다면 너희가 나를 규정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내가 정말 나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접했던 것만으로 정말 나에 대해 확실히 요약할 수 있겠느냐? 내가 육신으로 행한 두 차례의 사역이 모두 같은 사역이라면 너희는 또 나에 대해 어떻게 보겠느냐? 나를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냐?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너희의 믿음은 아주 진실하지만 너희 중에 나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본 사실을 전부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생각해 보아라. 지금 너희 대다수는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좇고, 욕을 만족시키고, 욕을 탐하고 누리면서 진리는 얼마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본 것을 전부 증거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진정 나의 증인이 될 자신이 있느냐? 나중에 내가 오늘 본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없다면 너는 피조물의 기능을 잃은 것이다. 그러면 너라는 사람은 존재할 의미가 조금도 없고, 사람이 될 자격도 없다.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나는 너희에게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내가 지금 배운 것도, 얻은 것도 전혀 없는 연고로, 나의 사역을 확장해야 할 때 어리둥절해하며 말문을 못 열고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면, 너는 역사의 죄인 아니겠느냐? 그때가 되면 심히 후회하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은 한가하고 무료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할 사역을 위해 기초를 닦는 것이다. 절대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마땅히 내가 하는 사역이 길거리 개구쟁이가 아니라 내 아버지를 대표하여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대표하여 하는 것이며, 너희의 기능은 그저 따르고, 순종하고, 변화하고, 증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왜 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내 아버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 때부터 내게 너희를 예정해 주었다. 그가 너희를 예정한 것은 나의 사역을 위해서이고 또 그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로 인해 나를 믿고, 내 아버지의 예정으로 인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는 결코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증거하기 위해 내 아버지가 내게 준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도를 지키고, 너희에게 가르친 도와 말을 따라야 한다. 너희의 본분은 나의 도를 지키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는 본뜻도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너희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준, 나의 도를 지키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할 뿐 내게 속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옛 뱀의 부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증거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나의 도를 행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의 증거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나의 도를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별다른 가치가 없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너희를 내게 준 의미도 사라진다. 내가 변함없이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나의 도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경영하는 것은 내 본연의 사역이고, 나아가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창세 때 이미 정해 놓은 것이다. 사람은 내가 말세에 그들을 철저히 정복할 것이란 사실을 모르고, 또한 내가 인류 중의 패역자를 정복하는 것이 곧 사탄을 물리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날 내 원수가 나와 싸울 때, 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것의 아들딸, 집지기가 된 충실한 종을 정복할 것이라고 알려 준 바 있다. 정복의 원뜻은 상대를 물리쳐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표현법에 따르면 본래 상대를 철저히 물리치고 쳐부쉬 다시는 내게 반항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었지만,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는 정복이란 뜻으로 쓰인다. 너희는 내 본래의 뜻이 인류의 악한 자를 철저히 멸하고 쳐부쉬 다시는 나를 배반하지 못하게 하고, 내 사역을 방해하거나 어지럽힐 기운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정복이 된다. 하지만 그 내포된 의미가 어떠한 결론적으로 말해 내 사역은 인류를 쳐부수는 것이다. 인류가 내 경영의 부속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류는 내 원수요, 나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악한 자요, 내게 저주받은 악한 자의 후예요, 나를 배반한 천사장의 후손이요, 일찍이 내게 버림받고 나와 첨예하게 맞서는 악마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전 인류의 상공은 혼탁하고 어두워 맑은 느낌이 전혀 없으며, 인간 세상 또한 칠흑같이 캄캄해 거기서 살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고개를 들어도 햇빛을 볼 수 없다. 발밑의 길은 질퍽거리고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하며, 도처에 송장이 즐비하다. 어두컴컴한 구석에는 죽은 자의 백골이 가득하고, 음산한 모퉁이에는 온갖 귀신이 머물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처에 귀신들이 출몰한다. 더럽기 그지없는 온갖 짐승의 후손들이 서로 참혹하게 싸우고 죽이니, 그 소리가 간담을 서늘케 한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 이러한 ‘인간 낙원’ 가운데 어디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겠느냐? 사람은 또

어디에서 인생의 종착지를 찾겠느냐? 이미 오래전에 사탄에게 짓밟힌 인류는 본래 사탄의 형상을 연기하는 존재이며, 나아가 사탄의 화신이자 사탄을 위해 ‘힘 있는 간증’을 하는 증거물이다. 이런 인류, 이런 인간 말종, 이런 ‘패괴된 인류 족속’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내 영광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내 증거는 어디서부터 논하겠느냐? 나와 맞서며 인류를 패괴시킨 그 원수는 내가 창조한, 내 영광과 나를 살아 내는 모습이 충만했던 인류를 더럽히고 또 내 영광을 빼앗아 갔다. 그것이 사람에게 한 일이라고는 사탄의 추태로 가득한 독소와 선악과의 과즙을 채워 넣은 것뿐이었다. 태초에 나는 ‘인류’를 창조하였다.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만들었다. 아담에게는 형상이 있었고 생기와 활력이 넘쳤으며 더욱이 내 영광이 함께했다. 그날은 본래 내가 사람을 창조한 영광의 날이었다. 이어서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생겨났다’. 그녀 역시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나의 생기로 충만했고 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아담은 내 손에서 ‘난’ 존재로, 본래 내 형상을 대표한다. 그렇기에 ‘아담’이란 본디 나의 활기가 넘치고, 나의 영광이 가득하며, 형태도 모양도 있고, 영과 생기를 갖춘 나의 피조물이란 뜻이었다. 또한 내가 창조한, 유일하게 나를 대표할 수 있고 내 형상을 지니고 나의 생기를 받은, 영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뜻이었다. 한편, 하와는 내가 태초에 정해 놓았던, 두 번째로 지음 받은 생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와’란 내 영광을 이어 가고 나의 생기가 가득하며, 나아가 내 영광을 지닌 피조물이라는 의미이다. 하와는 본래 아담에게서 왔으므로 그녀에게도 내 형상이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내 형상대로 지음 받은 두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와’란 영이 있고 뼈와 살이 있는 산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류 중에 내 두 번째 증거이자 두 번째 형상이었다. 이들은 인류의 조상이면서 인류의 보배롭고 성결한 존재로, 본래 영이 있는 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악한 자가 인류 조상의 자손을 짓밟고 약탈했으며, 나아가 인간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어 이 ‘후손’들이 더 이상 내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더욱 혐오스러운 것은 그 악한 자가 사람을 패괴시키고 짓밟는 동시에 나의 영광과 증거, 내가 사람에게 준 생기, 내가 사람에게 불어넣은 숨결과 생명, 그리고 인간 세상의 내 모든 영광과 내가 인류에게 기울인 모든 심혈까지 무자비하게 빼앗아 갔다는 사실이다. 인류는 광명을 잃고, 내가 준 모든 것을 잃었으며, 내가 베풀어 준 영광을 버렸는데 어떻게 나를 피조물의 주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늘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또 땅에도 내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선조가 경외하던 하나님을 자신들의 창조주로 여길 수 있겠느냐? 뜻밖에도 이 가련한 ‘손자, 손녀들’은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준 영광과 형상, 증거, 나아가 인류가 생존하도록 베풀어 준 생명까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악한 자에게 ‘증여’하였다. 또한 그 악한 자의 존재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나의 이 모든 영광을 다 그것에게 주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말종’이라는 호칭의 유래 아니겠느냐? 이런 인류, 이런 악귀, 이런 산송장, 이런 사탄, 이런 원수에게 어떻게 나의 영광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영광은 물론이고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나의 증거와 이전에 인류에게 베풀었던, 원래 내게 속했던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올 것이다. 즉, 사람을 철저히 정복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가 지은 사람은 본래 내 형상과 영광을 지닌 성결한 사람으로, 사탄에게 속하지도 짓밟히지도 않았으며, 오롯이 나를 나타내는 존재로서 사탄의 독소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오로지 내 손으로 지은 사람이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본래 다른 것에 속하지 않은 성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게다가 나는 그런 사람을 나의 기쁨과 영광으로 여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파괴되고 오늘날 사탄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태초에 지은 그런 인류도 아니다. 나는 인간 세상의 내 영광을 빼앗아 올 것이므로 인류 가운데서 ‘요행히 살아남은 자들’을 철저히 정복함으로써 내가 사탄을 물리친 영광의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내 증거만을 나의 결정체로,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인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만 년 동안 발전해 왔다. 하지만 내가 지은 최초의 인류는 오래전에 타락하여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인류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비친 사람은 더 이상 인류라고 할 수 없으며, 사탄에게 잡혀간 인간 말종, 사탄이 거하고 입는, 썩은 산송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전혀 내 존재를 믿지 않으며 내가 온 것도 환영하지 않는다. 마지못해 내 요구에 응대하며 잠시 그것을 들어줄 뿐, 진심으로 나와 고락을 함께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나를 알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웃어 주며, 비위를 맞추는 내 사역을 알지 못하며, 지금의 내 뜻은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말하겠다. 그날이 오면, 나를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든 너희보다 덜 고난받을 것이다. 지금 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이 욥은커녕 유대 바리새인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불의 날이 오면, 너희의 날은 예수에게 질책받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심할 것이고,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의 족장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며, 불사름에 멸망한 소돔보다 더 심할 것이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여호와가 베풀어 준 물이 솟아 나온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나, 여호와를 찬양했을뿐더러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욥이 산을 가득 채운 우양과 많은 가산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난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영광의 증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요한이 인자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말세의 이상(異象)을 보게 된 것은 더더욱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방의 백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나의 계시를 받고, 내가 이미 육신으로 돌아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도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나의 엄한 말에 매를 맞아도 위안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들 또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나를 믿어 고난받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적이 있지 않더냐? 내 말 속에서 살지 않고 시련의 고통에서 도망친 자들은 모두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더냐? 그들은 여기저기 떨어지는 늦가을의 낙엽처럼 발붙일 곳도 없고, 내 위로의 말은 더더욱 듣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내 형벌과 연단이 없지만, 그들이 바로 천국 밖에서 떠돌고 길거리에서 유랑하는 거지들 아니겠느냐? 세상이 정말로 네 안식처겠느냐? 네가 나의 형벌을 피한다고 세상에서 진정 위안이 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느냐? 잠시의 누림으로 정녕 네 마음속의 감출 수 없는 공허함을 가릴 수 있겠느냐? 네가 가족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네 믿음이 너무 작기에 아직껏 삶의 낙을 찾지 못한 것이다. 너에게 권하노니, 육을 위해 평생을 무의미하고 바쁘게 보내면서 참기 어려운 온갖 고초를 겪느니 차라리 나를 위해 진심으로 반평생을 바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구태여 자신을 그렇게 아끼면서 내 형벌을 피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 일시적인 형벌을 피하기 위해 영원한 괴로움과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사람이 정말 내 모든 안배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나 또한 냉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나 여호와를 믿은 것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믿기를 바란다. 너희의 믿음이 도마보다 크다면 너희의 믿음 또한 내게 칭찬받을 것이다. 너희의 충성심에 나 또한 기뻐할 것이며, 너희의 날에도 반드시 내 영광이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과 악마를 믿었던 자들은 마음이 소돔 성의 백성처럼 강박하여 눈에는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들어가고 입에는 악마가 준 제물을 물게 될 것이다. 속임을 당한 마음은 세상을 차지한 그 악한 자에게 이미 점령되었고, 사람의 생각은 거의 다 고대의 악마에게 빼앗겨 버렸다. 그로 인해 인류의 믿음도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졌다. 내가 사역을 행해도 사람은 잠시 응대하거나 분석만 할 뿐 전혀 신경 쓰지도 못한다. 이는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사탄의 독소에 젖어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인류를 정복하는 이유는 사람이 내게 지음 받고 또한 내가 창조한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렸음에도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은 나를 마음에 두지 않고 삶의 짐으로 여기고 있다. 심지어 사람은 분명히 나를 보았으면서도 저버리고, 온갖 수단으로 나를 ‘물리치려고’ 한다. 사람은 내가 진지하게 대하거나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사람의 불의를 심판하고 형벌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은 이를 새롭게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싫증을 낸다. 그렇기에 내 사역은 나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인류를 쳐부숴 철저히 물리친 뒤, 나의 사자들, 나의 영광과 더불어 내 처소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행실이 이미 오래전에 내 마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내 사역도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악한 자가 빼앗아 간 영광을 되찾아 기쁜 마음으로 떠날 것이다. 그리고 더는 사람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인류가 계속 자신의 ‘삶’을 살면서 ‘안거낙업’하며, ‘자신의 농토를 경작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 영광을 악한 자의 손에서 완전히 빼앗아 올 것이다. 창세 때 사람에게 주었던 영광을 모조리 거두어 다시는 땅의 인류에게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이 내 영광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내 영광을 사탄의 모습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가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영광의 날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또한 내 형벌을 달갑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더욱이 나의 영광을 내게 돌려주려 하지도 않으며, 악한 자의 독소를 버리려 하지도 않는다. 사람은 나의 영광이 인류를 떠났을 때 인류가 얼마나 큰 어둠에 빠지게 될지 모르고, 나의 날이 전 인류에게 임했을 때 인류의 날이 노아의 날보다 훨씬 지내기 어려울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 여전히 이렇게 나를 기만하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다. 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캄캄했는지 모르고, 동이 틀 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는지 망각했기 때문이다. 해가 다시 숨고 어둠이 다가오면 사람은 다시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한 고난의 날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을 잊었느냐? 지금은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는 때이며, 또한 나와 더불어 영광의 날을 함께 보내는 때이다. 그러나 내 영광이 이 더러운 땅을 떠날 때, 사람은 어둠 속에서 슬피 울 것이다. 지금은 내가 사역하는 영광의 날이고, 또한 인류에게 고난을 면케 해 주는 날이다. 나는 사람과 함께 고난과 고통의 날을 보내지 않으며, 오직 인류를 철저히 정복하고 인류의 악한 자를 완전히 쳐부수기만 하기 때문이다.

## ‘믿음’에 대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사람에게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한 ‘믿음’밖에 없다.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왜 믿어야 하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사람은 아는 것이 너무 없고 부족함도 너무 많다. 그저 무지몽매하게 나를 믿을 뿐이다. 믿음이 무엇인지, 왜 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데도 ‘집요하게’ 나를 믿고 있다. 내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이처럼 어리석게 내게 간구하거나

아무렇게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지, 결코 내 사역으로 나를 달리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수많은 권능도 행했던 적이 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게 매우 ‘탄복’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나의 뛰어난 능력을 몹시 흠모하기도 했다. 당시 유대 백성은 내가 의술이 뛰어나고 범상치 않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나의 그 많은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앙모하고 나의 그 모든 능력을 참으로 부러워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행한 권능을 본 자들은 나를 가까이 따르기 시작했으며, 수천 명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병자를 고쳐 주는 것을 보기도 했다. 내가 그토록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음에도 사람은 나를 훌륭한 의사로만 생각했고, 내가 많은 말로 당시 사람들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나를 제자보다 뛰어난 스승으로만 생각했다. 오늘날 사람은 내가 행한 사역의 역사적 기록을 보았음에도, 그 성경 구절에서 나를 병 고쳐 주는 ‘대단한 의사’, 무지한 자들의 ‘스승’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 나를 ‘인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나의 ‘의술’을 뛰어넘고 심지어는 이미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되었지만, 의아하게도 그렇게 명망 높고 명성이 자자한 자들이 나를 보잘것없는 의사로 과소평가하고 있다. 내 행사가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고, 내 지혜가 높디높아 모든 ‘솔로몬의 자손’을 능가하지만 사람은 나를 그저 하찮은 의사라고 믿고, 또 사람을 가르치는 무명의 스승이라고 믿는다. 많은 사람이 그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그저 나의 능력을 빌어 자기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나를 믿는다. 또 많은 사람이 그저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그저 내게서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얻어 내기 위해 나를 믿는다. 많은 사람이 오직 이생을 무사히 보내고 내세에 무탈하기를 바라면서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천국의 복을 얻기 위해 나를 믿는다. 또 많은 사람이 내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나를 믿는다. 내가 사람에게 분노해 원래 사람에게 있던 기쁨과 평안을 거두어 가자 사람은 모두 의심하였다. 내가 천국의 복을 거두고 지옥의 고통을 주자 사람은 분노하였다. 사람이 내게 병을 고쳐 달라고 할 때 내가 모른 척하고 혐오하자, 사람은 내게서 멀리 떠나 더러운 무당을 찾아갔다. 사람이 내게서 얻어 낸 것을 내가 다 거두어 가자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나의 은혜가 매우 많기 때문이며, 나를 믿으면 이로운 점이 아주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유대 족속은 나의 은혜 때문에 나를 믿었고 곳곳에서 나를 따랐다. 그 무지하고 식견이 좁은 자들은 그저 내가 나타내는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 나를 따랐다. 그들은 나를 유대 족속 중 가장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로 여겼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 때, 의견이 분분했다. 그들은 나를 엘리야 또는 모세라고 하고 가장 오래된 선지자라고도 했으며, 또 최고의 의사라고도 했다. 나 스스로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했을 뿐, 나 외에는 누구도 나의 어떠함과 신분을 알지 못했다. 나 스스로 하늘은 본디 내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라고 말했을 뿐, 나 외에는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임을 알지 못했다. 또 나 스스로 내가 전 인류를 구속하고 속량하리라고 말했을 뿐, 나 외에는 누구도 내가 인류의 구속주임을 알지 못했다. 사람은 그저 나를 인자한 사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 내 모든 것을 전부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나 자신일 뿐, 사람은 모두 나를 알지 못했고,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다. 사람은 그저 이렇게 나를 믿고 있고, 또 이렇게 나를 기만하고 있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나를 믿지만 나를 증거하지 못한다. 또 내가 드러내기 전에 나를 증거하지도 못한다. 사람은 그저 내가 피조물을 능가하고 모든 거룩한 자들보다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내가 행하는 사역을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만 알 뿐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부터 현재의 사람들까지, 내 영광스러운 행사를 본 사람은 나에게 큰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증거하지는 못한다. 오직 내 아버지만이 나를 증거하고, 내 아버지만이 피조물 가운데서 내게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사람은 내가 창조주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은 그저 나에게 요구할 줄만 알 뿐, 내가 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를 알게 된 것은 내가 본래 무고하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고, 내가 많은 비밀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사람이 내게서 이로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창조주임을 믿는 이는 드물다. 그렇기에 사람은 왜 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나를 믿는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실제가 너무 적고 나를 증거할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참된 믿음이 너무 적고 얻은 것도 극히 적다. 그래서 너희가 ‘증거하는 것’도 몹시 적은 것이다. 게다가 너희들은 아는 것이 너무 적고 부족함이 너무 많아 ‘나의 행사를 증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너희의 의지가 강하기는 해도 진정 ‘하나님의 본질’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체험하고 본 것들은 역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너희가 그들의 말보다 더 훌륭하게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것들은 모세보다 많고 다윗을 뛰어넘는다. 또한 나는 너희의 증거가 모세를 뛰어넘고 너희의 말이 다윗보다 훌륭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백배를 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백배로 갚아야 한다. 인류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는 이는 나이며, 내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를 증거해야 하는 존재는 너희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준

본분이자, 너희가 마땅히 나를 위해 이행해야 할 본분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모든 영광을 주었고, 이스라엘 선민들도 얻지 못한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는 마땅히 나를 증거해야 하며, 나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쳐야 한다. 내게서 영광을 받는 자는 나를 증거해야 하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는 내가 일찍이 정해 놓은 것이다. 나의 영광을 받는 것은 너희의 복이며, 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의 본분이다. 너희가 그저 복 때문에 나를 믿는다면 나의 사역은 별 의미가 없어지며, 너희 역시 너희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은 나의 긍휼과 자비, 위대함뿐이었고, 유대인들이 본 것은 나의 인내와 구속뿐이었다. 그들은 내 영의 역사를 아주 조금밖에 보지 못했다. 심지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의 만분의 일에 불과하다. 너희가 본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보다 더 많다. 오늘 너희가 깨달은 진리는 그들보다 더 높으며, 오늘 너희가 본 것은 율법시대보다 더 많고 은혜시대를 뛰어넘는다. 또 너희가 체험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만 알고 여호와의 뒷모습만 보았기 때문이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의 구속만 알고 예수의 은혜만 받았으며 유대 족속의 형상을 지닌 예수를 본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는 ‘여호와의 영광’과 ‘예수의 구속’과 오늘날 내 모든 행사를 보았다. 또한 직접 내 영이 하는 말을 들었고, 나의 지혜를 느꼈으며, 나의 기묘함을 깨닫고, 나의 성품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내 경륜의 전부를 알려 주었다. 너희는 자비롭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을 보았고, 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 또한 내게 진노와 위엄이 가득함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진노를 쏟았던 내가 오늘날 그 진노를 너희에게 내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너희는 하늘의 내 비밀에 대해 이사야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내 사랑스러움과 존경스러움에 대해 역대 성도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나의 진리와 길과 생명뿐 아니라 요한보다도 더 큰 이상(異象)과 계시를 받았다. 너희는 더 많은 비밀을 깨달았고, 나의 본모습도 보았다. 너희는 나의 심판을 더 많이 받았고, 나의 공의 성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너희는 말세에 태어났지만 예전 것과 지난 것들을 깨닫고, 오늘날 내가 친히 행한 것까지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에 대한 내 요구는 과하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었고, 너희도 내게서 매우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역대 성도들을 향해 나를 증거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다.

원래는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했지만, 나는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며, 피조물의 입으로 나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게 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내 사역을 끝내는 데 있다.

너희는 너희가 왜 나를 믿는지 알아야 한다. 너희가 단지 나의 ‘제자’나 나의 ‘환자’, 혹은 천국의 성도가 되기 위해 나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또 그런 식으로 나를 따르는 것은 헛되이 힘을 소모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런 식으로 나를 믿는 것은 허송세월하고 청춘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괜한 헛수고를 한 것 아니겠느냐? 오래전에 유대인들을 떠난 나는 더 이상 사람의 의사가 아니고, 사람의 양약이 아니며, 사람의 마소가 되어 끌려다니거나 죽음 당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여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한다. 너는 내가 구속 사역을 했고 예수였던 적이 있지만, 영원히 예수일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전에는 여호와였으나 나중에는 예수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인류의 하나님이자 창조주이다. 하지만 나는 영원토록 예수일 수는 없고 영원토록 여호와일 수도 없다. 나는 예전에 사람들에게 의사로 여겨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단순히 인류의 의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네가 과거의 관점으로 나를 믿는다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제 병도 고쳐 주셨고, 또 사람들에게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돈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라며 아무리 나를 칭찬해도 나는 내 원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너는 나를 믿는 이상 오직 나의 영광을 얻고 나를 증거할 자격을 갖게 될 뿐 그 외에는 모두 부차적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너는 지금 왜 나를 믿어야 하는지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너는 내가 사역하는 목적과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너는 진정 너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너는 진정 나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네가 나를 믿기만 할 뿐, 네게서 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나의 증거를 볼 수 없다면, 너는 내가 일찍이 도태시킨 대상일 것이다. 더구나 뭐든 다 알고 있다는 자들은 내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고, 내 집에서는 걸림돌에 불과하다. 또한 내 사역에서 걸려 내야 할 가라지로서 아무 쓸모도 존재감도 없는, 오래전부터 내게 혐오받은 자다. 나를 전혀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나의 분노가 따를 것이고, 나의 채찍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그들을 악한 자의 손에 넘겼으므로 그들에게는 나의 축복이 조금도 없다. 형벌받는 날이 오면 그들은 어리석은 여자보다 더 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나는 내가 맡은 범위의 사역만을 하고 있는데, 모든 밭을 단으로 묶고 가라지도 그 속에 넣어 함께 묶고 있다. 이것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다. 내가 키질을 할 때 그 가라지들을 모두 걸러 낼 것이다. 그다음 알곡은 곳간에 넣고, 걸러진 가라지는 불 속에 넣어 재로 만들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은 모든 사람을 단으로 묶는

것, 즉 철저히 정복하는 것뿐이다. 그 후에 키질을 시작해 모든 이의 결말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어떻게 나를 만족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를 믿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의 충성심과 순종이며, 지금의 사랑과 증거이다. 설령 네가 지금은 무엇을 증거라고 하는지,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지 모를지라도 마땅히 너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한다. 너의 유일하고 보배로운 충성심과 순종을 내 손에 바쳐야 할 것이다. 내가 사탄을 물리친 증거는 사람의 충성심과 순종에 있고, 내가 사람을 완전히 정복한 증거 또한 사람의 충성심과 순종에 있음을 너는 알아야 한다. 나를 믿는 이상 너의 본무는 나를 증거하고, 내게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다음 단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너는 나를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너는 또 어떻게 내게 충성하고 순종할 것이냐? 너는 내가 하고 있는 기능에서 충성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뿌리치고 그만둘 것이냐? 너는 내 모든 안배에 순종할 것이냐(설령 죽거나 멸망할지라도), 아니면 내 형벌을 피하려고 중도에 도망칠 것이냐? 내가 너를 형벌하는 것 또한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며, 내게 충성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의 형벌은 다음 단계 사역을 펼치기 위함이고, 앞으로의 사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자신의 생명과 생존의 의의를 가치 없는 한 줌의 흙처럼 여기지 말고 현명하게 행동하라고 권하겠다. 앞으로 나의 사역이 대체 어떤 것일지 네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지, 사역을 어떻게 전개할지 네가 알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사역을 체험하는 의의를 알아야 하며, 더욱이 나를 믿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어찌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토록 큰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찌 허물 수 있겠느냐? 내가 시대를 끝내기 위해 온 것은 맞다. 하지만 내가 시대를 열고 사역을 전개하며 더구나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의 사역이 그저 시대를 여는 것이고, 앞으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며, 또 앞으로 시대를 끝내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의 사역은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고, 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혀 가치 없고 무의미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한번 너에게 알려 주겠다. 너는 내 사역을 위해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너 자신을 바쳐야 한다. 나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일찍부터 바랐던 것이며, 나의 복음을 확장하는 것은 더더욱 내가 오랫동안 바라 왔던 것이다. 너는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 낙엽이 뿌리로 돌아갈 때 내가 행한 모든 악행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을 직접 보았고, 내가 한 말도 직접 들었으며, 너희에 대한 나의 태도도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무엇을 위해 너희에게 사역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사실대로 알려 주겠다. 너희는 내가 말세에 하는 정복 사역의 도구이자, 내가 이방으로 확장하는 사역에 쓰이는 도구일 뿐이다. 내가 너희의 불의와 불결함, 대적과 패역을 이용해 말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내 사역을 더 잘 확장하고, 내 이름을 이방으로 전하기 위함이다. 즉,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이름과 나의 행사, 그리고 나의 음성을 이방에 전하여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모든 이방 족속들이 나에게 정복되고 나를 경배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애굽의 땅이 아닌 또 하나의 성지를 만들고자 한다. 내가 사역을 확장하는 것은 사실 나의 정복 사역을 확장하는 것이고, 나의 성지를 확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땅에서 발붙일 곳을 확장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복하는, 이방에 속하는 피조물로 원래 어떤 지위도, 사용 가치도, 쓸모도 없는 존재였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만 내가 거름 더미에서 이런 구더기들을 건져 내가 온 땅을 정복한 표본이자 유일한 ‘참고 자료’로 삼고자 했기에 너희가 다행히도 나를 접촉하고 지금 나와 함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너희의 비천한 지위 때문에 너희를 내 정복 사역의 표본과 모델로 택한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말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며 생활하게 된 것이다. 나는 나의 경영을 위해, 그리고 거름 더미 속의 이 구더기들을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서 말하게 되었고, 나아가 크게 진노하게 되었다. 이는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역사한 것과 다르고, 예수가 유대에서 사역한 것과는 더더욱 다르다. 나는 크나큰 인내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사역을 하며, 진노와 심판을 지니고 이 인간 말종들을 정복하고 있다. 이는 여호와가 자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과는 다르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행한 역사는 음식과 생수를 베풀어 주는 것이었으며, 넘치는 공허와 자비로 그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역은 선민이 아닌, 저주받은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이뤄진다. 그러므로 풍족한 음식도, 갈증을 채워 줄 생수도 없으며, 완벽한 물질적 공급은 더더욱 없다. 오직 부족함이 없는 심판과 저주, 그리고 형벌을 공급할 뿐이다. 거름 더미 속에서 사는 이 구더기들은 전혀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산을 가득 채운 소와 양, 그리고 넘치는 재물과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를 가질 자격이 없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내가 준 소와 양,

그리고 금은보화를 모두 제단에 바쳤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율법으로 요구한 십일조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내려 주었으며, 그들은 율법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얻은 것보다 백배를 더 얻었다. 내가 이스라엘에 채워 준 것은 아브라함이 얻은 것보다 많고, 이삭이 얻은 것보다도 많다.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 족속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내 백성들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할 것이다. 내가 축복하고 보살피는 대상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내 선민들, 즉 내게서 얻은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친 백성들이다. 그들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초태생의 소와 양을 내 거룩한 제단에 바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내 앞에 바쳤다. 심지어는 초태생인 장자까지도 바치며 내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하냐? 내 화를 돋우고, 내게서 얻어 내려 하며, 내게 공물로 바친 사람들의 제물을 흠치고서도 내게 죄를 지은 줄도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가 얻게 되는 것은 전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우는 결과와 징벌뿐일 것이다. 너희는 몇 번이나 내 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나는 타오르는 불길을 내려 수많은 사람이 ‘참혹한 재난을 당하게’ 했으며, 행복한 삶의 터전을 황량한 무덤으로 바꿔 놓았다. 나는 이 ‘구더기들’에게 계속 노할 뿐, 축복해 줄 생각은 조금도 없다. 나는 다만 내 사역을 위해 전례를 깨고 너희를 높여 주었으며, 크나큰 굴욕을 참고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할 뿐이다. 내 아버지의 뜻을 위함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거름 더미에서 뒹구는 구더기들과 한집에 거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모든 작태와 말에 극도의 혐오감을 느낀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너희의 그 ‘불결함’과 ‘패역’에 조금 ‘관심’이 생겼기에 그것은 내가 말을 할 대상의 ‘집대성’이 되었다. 그게 아니었더라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 가운데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 대한 나의 태도는 ‘동정’과 ‘연민’에 불과할 뿐, 사랑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나는 나의 사역을 위해 너희에게 인내할 뿐이다. 다만 내가 ‘불결함’과 ‘패역’을 ‘원재료’로 골랐기에 너희가 나의 행사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나는 절대로 이 구더기들에게 나의 행사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역지로 너희에게 역사할 뿐이지, 이스라엘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꺼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다. 오로지 분노를 지닌 채 어쩔 수 없이 너희들 가운데서 말할 뿐이다. 나의 큰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런 구더기들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진작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이 구더기들과 거름 더미를 모조리 불태워 버렸을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찌 이 악귀들이 내 눈앞에서 보란 듯이 득의양양하게 나를 대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 사역을 아무런 방해 없이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찌 이 구더기 같은 인간들이 함부로 나를 학대하는 것을 용납하겠느냐!

만약 이스라엘의 한 마을에서 백 명이 일어나 이렇게 나를 대적했다면,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를 올렸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모두 갈라진 땅 속으로 집어넣어 멸해 버림으로, 다시는 다른 성의 사람들이 반항하는 일이 없도록 했을 것이다. 나는 맹렬한 불이니 거스르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내가 만든 존재이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반항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내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내 사역과 내 말의 옳고 그름을 분석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나는 창조주이다. 피조물은 마땅히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며, 이치를 따져서도, 나아가 나를 대적해서도 안 된다. 나는 나의 권병으로 내 백성들을 다스리니, 내가 만든 피조물들은 모두 내 권병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날, 너희가 비록 내 앞에서 겁 없이 방자하게 굴고, 너희를 훈계하는 나의 말을 거역하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있지만, 나는 오직 인내로 너희의 패역에 대응할 뿐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구더기들이 거름 더미를 뒤집는다고 해서 크게 화를 냄으로 내 사역에 영향을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내가 심히 증오하고 혐오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를 참고 있다. 이는 내 말이 끝날 때까지, 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안심해라! 나는 이름 없는 구더기와 똑같이 굴지 않을 것이고, 너와 ‘능력’의 고하를 겨루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증오하지만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나를 거역하면, 너는 내 아버지가 내게 허락한, 너에게 형벌을 가하는 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피조물인 구더기가 정녕 창조주를 당해 낼 수 있겠느냐? 가을날, 낙엽이 뿌리로 돌아갈 때, 너는 네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내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너에게는 네 ‘아비’의 유린이 따를 것이다. 나에게서는 내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너에게는 네 ‘아비’의 치욕이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오랜 기간 참아 왔던 형벌로 너와 함께하고, 너는 만년 동안 파괴되어 썩어 버린 그 육체로 나의 형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서 인내를 동반한 말씀 사역을 끝마치지만, 너는 내 말에서 화를 당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매우 기뻐하며 이스라엘에서 역사하겠지만, 너는 슬피 울고 이를 갈면서 진흙 속에서 살고 죽을 것이다. 나는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 더 이상 너와 함께 더러움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원래의 추태를 되찾아 거름 더미 속을 헤집고 다닐 것이다. 나의 사역과 나의 말이 끝나는 날은 나에게 경사로운 날이 되겠지만, 너의 대적과 패역이 끝나는 날은 너에게 통곡하는 날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동정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와 ‘대화’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다시는 나와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의 패역을 증오하겠지만, 너는 내 사랑스러움을 그리워할 것이다. 나는 너를 치겠지만, 너는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나는 기쁘게 너를 떠나겠지만, 너는 내게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너를 보지 않겠지만, 너는 영원히 나를 갈망할 것이다. 내가 너를 증오하는 이유는 지금 네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이고, 네가 나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너에게 형벌을 가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치 않지만, 너는 간절히 기대하며 영원히 슬피 울 것이다. 네가 내게 행한 모든 짓을 통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패역과 대적을 통회하여 바닥에 얼굴을 대고 온전히 내 앞에 엎드려 더는 나를 거역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지라도 영원히 내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네가 스스로 창피를 당하게 할 것이다.

지금 나는 네가 그 방종한 육체로 나를 기만하는 것을 보면서도 경계의 말만 할 뿐, 손을 들어 형벌로써 너를 ‘보살피지는’ 않는다. 너는 네가 내 사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그것 말고는 네가 나를 대적하든, 내 돈을 쓰고 나 여호와의 제물을 먹든, 너희 구더기들끼리 서로 물고 뜯든, 개들처럼 서로 맞서고 공격하든 관심을 갖지 않겠다. 너희가 스스로 자신이 어떤 ‘물건작’인지 알기만 해도 나는 만족한다. 그것 말고는 너희가 서로 간에 충점을 휘두르고 싶어 하든, 설전을 벌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그러한 것들에 간섭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인간 세상의 일은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는 내가 너희들 사이의 분쟁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나는 본래 피조물이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지도 않으므로 인간 세상의 시끄러운 삶과 사람들 사이의 무질서하고 정당하지 못한 관계를 혐오하며, 요란스러운 인간 군상들은 더더욱 혐오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피조물의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남아 있는 불의를 알고 있었으며, 사람 마음속에 존재하는 교활함과 간사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불의를 행하면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마음속에 남아 있는 불의가 내가 창조한 만물의 품성함에 앞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 각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올라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너희는 또한 매우 난폭하여 모든 구더기 속에서 제멋대로 활개 치며 안락한 곳을 찾고, 자기보다 작은 구더기들을 삼키려고 망상한다. 너희의 마음은 음험하고 악랄하기가 창해의 깊은 물 속을 떠도는 유령들보다도 더하며, 거름 더미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위아래의 모든 구더기들을 편안할 틈 없이 방해하고, 서로 살육전을 벌인 후에야 조용해진다. 너희는 자신의 지위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거름 더미 속에서 서로 공격을 일삼으니, 그렇게 싸운들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이나? 너희에게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나를 등지고 서로 아귀다툼을 할 수 있단 말이나? 네 지위가 아무리 높아 봤자 거름 더미 속에 사는 작고 더러운 버리지가 아니냐? 설마 날개라도 돌아

하늘을 나는 흰 비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보잘것없는 너희 버려지들이 나 여호와와의 제단에 있는 제물을 훔쳐 먹었다. 그런 너희가 바닥에 떨어진, 깨진 명성을 주워 이스라엘의 선민이 될 수 있겠느냐? 염치없고 천박한 것들아! 그 제단에 있던 제물은 사람들이 나에게 바친 것으로, 나에게 대한 경외의 ‘마음’을 표시한 것이다. 그것은 원래 내가 지배하고 사용해야 하는 제물이었다. 그런데 네가 어찌 사람들이 내게 바친 작은 산비둘기를 훔쳐 간단 말이나? 너는 유다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너의 밭이 ‘피밭’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물건잡들아! 사람들이 바친 산비둘기가 너, 구더기의 더러운 배를 채우라고 준 것으로 생각했느냐?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것은 기꺼이 원해서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 것은 마땅히 내가 지배해야 하는 것이다. 네가 함부로 내게 바쳐진 공물을 훔쳐 먹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역사하는 이는 나 여호와, 곧 창조주이다. 사람들은 나를 위해 제물을 바쳤다. 너는 그것이 내가 열심히 뛰어다닌 대가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수치심도 없구나! 너는 누구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냐? 어째서 내 제물을 훔쳐 먹는 것이냐? 왜 내 주머니 속의 돈을 훔쳐 가는 것이냐? 너는 ‘가룟 유다의 자손’이 아니냐? 나 여호와와의 제물은 제사장이 누릴 수 있게 주는 것들이다. 네가 제사장이냐? 감히 득의양양하게 나의 제물을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 위에 차려 놓기까지 하다니, 정말 값어치 없는 존재구나! 쓸모없는 천것이구나! 나 여호와와 불같이 너를 깨끗이 불태워 버릴 것이다!

## 육에 속한 자는 누구도 그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없다

오늘 나의 이러한 경고는 너희의 생존을 위한 것이자 나의 사역을 순조롭게 펼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온 우주의 시작 사역을 더 적절하고 완벽하게 행하는 한편, 열국과 열방 사람에게 나의 말과 권병, 위엄, 심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하는 나의 사역은 우주 전체에서 전개되는 사역의 시작이다. 지금을 말세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말세’란 한 시대를 의미하는 대명사임을 알아야 한다. 말세란 율법시대나 은혜시대처럼 한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마지막 때의 몇 년, 몇 달 정도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말세’는 은혜시대나 율법시대와 다르다. 말세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에서 사역한다. 이 사역은 이스라엘 밖의 각 나라와 족속의 사람을 정복하여 내 보좌 앞에 오게 함으로써 전 우주 아래의 나의 영광을 우주 궁창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즉,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인데, 땅의 모든 피조물이 나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할 수 있게 하며, 하늘 위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땅에서 얻은 내 모든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다. 말세에는 정복 사역을 한다. 백성들을 이끌고 땅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땅에서 수천 년간 겪어 온 고난의 삶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사역은 이스라엘에서 했던 사역처럼 수천 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유대에서 몇 년간 사역한 후 두 번째로 성육신하기 전까지 2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과도 같지 않다. 말세의 사람은 단지 말세에 육신으로 다시 나타난 구속주를 접하고, 하나님이 친히 한 사역과 말씀을 받아들였다. 말세는 예수가 유대에서 은혜시대의 사역을 전개했을 때처럼 짧은 기간으로, 2천 년 동안 지속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세는 전체 시대를 끝내고, 6천 년 경륜을 마무리하며, 고난으로 점철된 인류의 인생 여정을 끝내는 때이기 때문이다. 말세는 인류 전체를 다음 시대로 인도하거나 인류의 삶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때가 아니다. 말세가 그런 것이라면 나의 경륜과 사람의 생존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인류가 계속 이대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악마에게 모조리 잡아먹힐 것이고, 나에게 속한 영혼들도 결국에는 악마의 손에 파멸될 것이다. 나의 사역은 6천 년뿐이며, 내가 그 악한 자에게 인류를 지배하도록 허락한 시간 역시 6천 년뿐이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말세에 나는 사탄을 크게 이겨 나의 모든 영광을 되찾아 올 것이며, 내게 속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슬픔에 빠진 영혼들을 고향에서 구해 내고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낼 것이다. 그 후로는 다시 땅에 성육신하지 않을 것이고, 만유를 주재하는 나의 영도 땅에서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만 땅에서 인류를 다시 창조할 것인데, 그들은 거룩한 인류이자 땅에 있는 내 신실한 성읍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세상을 전부 멸하거나 인류를 전부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완전히 정복된, 나를 사랑하는 3분의 1의 사람들을 남겨 이 땅에서 변성하게 하고,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키운 많은 소와 양, 땅의 모든 부요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런 인류는 장차 나와 함께 영존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처럼 더럽기 그지없는 인류가 아니라 내게 얻어진 모든 사람의 집합체이다. 그들은 사탄의 파괴와 방해, 공격을 받지 않는 인류이며, 내가 사탄을 물리친 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생존할 인류이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정복되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말세에 정복되는 자들은 살아남아 영원한 복을 받을 인류이며, 내가 사탄을 물리쳤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전리품이다. 그 ‘전리품’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내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나의 6천 년 경륜의 유일한 결정체이자 커다란 열매이다. 그들은 각 나라와 각 교파, 전 우주 아래의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온 자들로서, 민족도 언어도, 풍속도 피부색도 전부 다르다. 그들은 온 땅의 각 나라 각 교파, 나아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한데 모여 완전한 인류를 이루고, 사탄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집합체를 이룰 것이다. 나의 구원과 정복을 거치지 않은 인류는 모두 바닷속에 조용히 가라앉을 것이며, 내 불길에 영원히 불사름 당할 것이다. 나는 극도로 더러운 옛 인류를 멸할 것이다. 마치 애굽에서 어린양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문 인방에 어린양의 피로 표시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 두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의 소와 양은 전부 멸했던 것처럼 말이다. 나에게 정복된 내 가족 중의 사람 역시 내 어린양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내게 구속함을 받은, 나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냐?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나의 영광이 따르지 않더냐? 내 어린양의 살이 없는 사람들은 벌써 바닷속에 조용히 가라앉지 않았더냐? 오늘날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있다. 지금 나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의 강박함이 내 분노를 쌓고 있다. 너희는 자신의 육체가 받을 고통을 쌓고, 자신의 죄악으로 받을 심판을 쌓으며, 자신의 불의로 받을 내 분노를 더 많이 쌓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그 누가 내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불의를 저지르고도 사람을 형벌하는 내 두 눈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죄악을 저지르고도 나 전능자의 두 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나를 대적하고도 나 전능자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이방 족속의 자손인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에 했던 모든 말을 능가하지만 너희는 그 애굽 백성들보다 더 강박하다. 내가 편안히 사역할 때 너희는 나의 분노를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어찌 나 전능자의 날을 무사히 피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하고 말하며 얼마나 많은 정력과 심혈을 쏟았더냐?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알려 준 것을 너희가 언제 청종한 적이 있더냐? 너희가 나 전능자에게 엎드린 적이 있더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분노를 사는 언행만 일삼는 것이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리도 마음이 강박한 것이냐? 내가 너희를 친 적이 있더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슬프고 애타게만 하느냐? 설마 나 여호와와 분노의 날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냐? 내가 너희의 패역으로 인해 솟구친 분노를 쏟아 낼 때까지 기다리려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은 모두 너희를 위한 것 아니더냐? 하지만 너희는 나 여호와를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 나의 제물을 훔쳐 먹고, 나의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훔쳐 집으로 가져가서는 이리 굴 속에 있는 이리의 자손들에게 먹인다. ‘백성’과 ‘백성’ 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며, 분노의 눈길과 총칼로 서로를 대하고, 나 전능자의 말은 배설물로 가득 찬 변소에 던져 더럽힌다. 너희의 인격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성을 잃고 모두 짐승이 되었구나! 너희의 ‘마음’은 이미 단단한 돌로 변했다. 내 분노의 날이 닥치면, 지금 나 전능자에게 행한 너희의 악행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너희는 이렇게 나를 속이며, 내 말을 청종하기는커녕 더러운 진흙에 던져 버린다. 그렇게 내 뒤에서 행동하면 내 분노의 눈길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나의 제물을 훔쳐 먹고 나의 재물을 탐낼 때 나 여호와가 두 눈으로 보고 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가 내 제물을 훔쳐 먹은 곳이 제물이 바쳐진 제단 앞이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가 어찌 잔머리를 굴리며 나를 기만할 수 있느냐? 나의 분노가 하늘에 사무치는 너희의 죄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나의 진노가 너희의 악행을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오늘 저지르는 악행은 자신의 살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받을 형벌을 쌓는 것이고, 나 전능자에게 형벌받을 짓을 하는 것이다. 너희의 그 악행과 악담이 어찌 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간구하는 것이 어찌 나의 귀에 전해질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가 불의를 저지르도록 길을 열어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나를 거역한 너희의 악행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독사 같은 너희의 입술과 혀를 자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자신의 의를 위해 내게 간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불의로 인해 나의 분노를 쌓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나 전능자의 눈에 너희의 언행은 더럽고, 너희의 불의는 끝없는 형벌을 받을 대상이다. 그런데 내 공의로운 형벌과 심판이 어찌 너희를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나를 대하므로 나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너희가 내 수중에서 달아나고 나 여호와와 형벌과 저주의 날을 피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모든 악한 말들이 이미 내 귀에 전해졌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불의가 이미 내 거룩한 의의 두루마기를 더럽혔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패역이 이미 가득 쌓인 내 분노를 자극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내가 너희 때문에 분노하고 또 인내한 지 오래되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가 내가 거하는 육신을 심하게 망가뜨렸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나는 지금까지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분노가 폭발해 더 이상 너희를 용납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너희는 내가 이미 너희의 악행을 보았음을, 내 아버지가 나의 간청을 들었음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그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사역 중 너희를 위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더냐? 그런데 너희는 어떠하냐? 나 여호와와 사역을 위해 선한 마음을 쓴 자가 있느냐? 내가 어찌 나의 연약함과 받은 고난을 이유로 아버지의 뜻에 충성을 다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알려 주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를 위한 내 헌신이 부족한 것이냐? 나는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 이 모든 고초를 기꺼이 감내하고자 한다. 하지만 내가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가 너희에게 내릴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누린 것이 아직도 부족하더냐?

내 아버지가 오늘날 나를 너희에게 주었거늘, 너희가 누리는 것이 어찌 나의 풍성한 말뿐이겠느냐? 너희의 생명과 너희가 누리는 것이 모두 내 생명으로 바꾸어 온 것임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내 아버지가 나의 생명으로 사탄과 싸우며,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베풀어 백배로 얻게 하고 많은 시험을 면케 하였거늘, 너희는 어찌 모르는 것이냐? 나의 사역 덕에 많은 시험과 불의 형벌을 면케 되었건만, 너희는 어찌 모르는 것이냐? 내 아버지가 나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지금까지 누리게 한 것임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마음이 그렇게 강박한 것이냐?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 놓고,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닥칠 분노의 날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이 강박한 무리가 여호와와 분노를 피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난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너희에게 소리친 적이 있더냐? 너희와 작은 일까지 시시콜콜 따진 적이 있더냐? 또 너희를 이유 없이 부당하게 훈계한 적이 있더냐? 대놓고 질책한 적이 있더냐? 내가 나의 사역을 위해 너희가 모든 시험을 면하도록 아버지께 간청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냐? 내가 나의 권병으로 너희의 육을 친 적이 있더냐? 너희는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냐? 나에게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또 미지근하고, 나를 속이거나 나에게 뭔가를 감추곤 한다. 너희의 입에는 불의한 자의 타액이 가득하다. 너희의 혀가 나의 영을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혀가 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혀로 나 여호와와 행사를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사람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나? 너희처럼 미친한 구더기가 나를 모독하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런 패역의 자식들에게 내가 어찌 나의 영원한 복을 내릴 수 있겠느냐? 너희의 언행은 이미 너희의 실체를 폭로했고, 너희 자신을 정죄했다. 나는 하늘을 펴고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나 외의 어떤 피조물도 함부로 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더욱이 그 어떤 존재도 제멋대로 나의 사역과 경영을 교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않았거늘, 나에게 잔인무도하게 구는 자들을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내 말을 배반하는 사람을 어찌 사해 줄 수 있겠느냐? 나를 거역하는 사람을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사람의 운명이 나 전능자의 손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어찌 너의 불의와 패역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너의 죄악이 어찌 나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나는 그 불의한 자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불의한 자의 예물도 누리지 않는다. 네가 나 여호와에게 충성한다면 어찌 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자기 것인 양 차지할 수 있겠느냐? 어찌 그 독사의 입술과 혀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어찌 이렇게 나의 말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어찌 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을 사탄, 그

악한 자를 위해 힘쓰는 도구로 삼을 수 있겠느냐? 나의 생명은 거룩한 자에게 누리라고 주는 것이거늘, 그 생명을 함부로 가져다가 노리게 취급을 하고 너희끼리 싸울 때 사용하는 도구로 삼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어찌 이렇게 나에게 무자비하며 선인의 도마저 저버릴 수 있단 말이나? 내가 너희의 모든 악행을 이 생명의 말씀에 기록하였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애굽을 형벌하는 내 진노의 날을 너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처럼 계속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그날이 오면 너희는 애굽이 받은 것보다 더 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어찌 내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인내는 본래 너희의 악행을 상대로 예비한 것이고, 너희가 그날에 받을 형벌을 상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인내심이 바닥에 다다른 뒤 내 진노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더냐? 만물이 다 나 전능자의 손에 있지 않더냐? 너희가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나를 거역하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날은 몹시 견디기 힘들 것이다. 너희는 오겠다고 했지만 온 적이 없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 그와 적이 되지 않았더냐? 예수는 일찍이 너희와 벗이 되었건만, 너희는 메시아와 적이 되었다. 너희가 예수와 벗이 됐다고는 하나, 너희의 악행은 이미 가증스러운 자의 그릇에 가득 찼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가 여호와와 매우 친밀하다고는 하나, 너희의 악한 말이 이미 여호와의 귀에 상달되어 그의 분노를 사게 되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그가 어찌 너희와 친밀히 지낼 수 있겠으며, 또 어찌 악행으로 가득 찬 너의 그릇을 불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또, 그가 어찌 너와 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 ‘구주’는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돌아왔다

수천 년 동안, 사람은 줄곧 구세주의 강림을 보기를 소망해 왔다. 구주 예수가 수천 년 동안 그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 왔던 사람들 가운데 흰 구름을 타고 친히 강림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해 온 것이다. 사람은 또한 구세주가 돌아와 사람들과 재회하기를 소망했다. 바로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을 떠난 구주 예수가 다시 돌아와 유대인 가운데서 했던 구속 사역을 또 행하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대신 짊어지며, 심지어 사람의 모든 과오를 대신 짊어지고 죄에서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구주 예수가 한결같이 사랑스럽고 친절하며 존경스러운 구세주가 되어 사람에게 노하지도 않고 사람을 책망하지도 않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대신 짊어지며 심지어 사람을 위해 예전처럼 십자가에서 죽기를 소망했다. 예수가 떠난 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물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까지 그를 그렇게 간절히 그리워하고 갈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시대의 모든 사람은 구주 예수가 기쁨이 넘치는 말세의 어느 날에 흰 구름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여 만민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했다. 물론, 이 또한 오늘날에 구주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망하는 바이다. 온 우주에서 구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홀연히 강림하여 그가 세상에 있을 때 했던 “나는 떠난 그대로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 흰 구름을 타고 하늘 위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유대인의 옷을 입은 채 흰 구름(흰 구름은 예수가 하늘로 돌아갈 때 탄 흰 구름을 가리킴)을 타고 수천 년간 그를 애타게 기다려 온 인류 가운데 강림할 것이라고 여긴다. 또한, 그들에게 나타나 양식을 베풀어 주고 생수가 솟게 하며, 은혜와 자비로 충만한 예수가 사람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생활할 것이라고 여긴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관념적 생각이다. 하지만 구주 예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관념과 완전히 상반되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지 않았고, 흰 구름을 타고 만민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가 이미 강림했지만, 사람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강림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그를 기다리고만 있다. 그가 이미 ‘흰 구름’(여기서 흰 구름은 그의 영광과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모든 성품과 어떠함을 가리킴)을 타고 말세에 온전케 하려는 이기는 자들 가운데 강림한 것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로 가득한 거룩한 구주 예수라 하더라도, 더럽기 그지없고 더러운 귀신들이 떼를 지어 사는 그런 ‘성전’ 안에서는 사역할 수 없음을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사람이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가 어찌 또 불의한 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불의한 자의 옷을 입고 또 그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에게서 받아 내려는 자들 앞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 사람은 구주 예수가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고 속량으로 가득한 속죄 제물이라는 것만 알 뿐, 그가 공의와 위엄, 진노, 심판을 가득 지닌, 권병이 있는 존엄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은 모른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속주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간절히 바라며 심지어 사람의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켰을지라도, 구주 예수는 자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여호와’란 내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택한 이름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저주하며, 사람의 생활을 인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하나님 선민)의 하나님이자, 크나큰 능력을 지닌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임을 의미한다. ‘예수’란 본래 임마누엘을

가리키며,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사람을 속량하는 속죄 제물임을 의미한다. 예수는 은혜시대 사역을 행했고 은혜시대를 대변하지만, 경륜의 일부 사역만 대변할 뿐이다. 다시 말해,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선민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이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족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호와를 경배하였고, 그를 위해 제단에 제물을 드렸으며, 성전 안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이 소망한 것은 여호와의 재현이었다. 오직 예수만이 인류의 구속주이고, 인류를 죄에서 속량한 속죄 제물이다. 다시 말해, 예수란 이름은 은혜시대에서 비롯되었고, 은혜시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또한, 은혜시대의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름이고, 온 인류를 속량하기 위한 고유한 이름이다.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은 구속 사역과 은혜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이고, ‘여호와’란 이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고유한 이름이다. 각 시대, 각 단계 사역마다 내 이름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대표적 의의가 있다. 즉, 각 이름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율법시대를 대표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일컫는 존칭이다. ‘예수’는 은혜시대를 대표하며, 은혜시대에 속량받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이름이다. 사람이 말세에도 구주 예수가 강림하기를 소망하고, 유대인의 모습 그대로 강림하기를 소망한다면, 전체 6천 년 경륜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속시대에 머물 것이다. 또한 말세가 영영 도래하지도 않고, 시대를 끝내지도 못할 것이다. ‘구주 예수’는 단지 인류를 속량하고 구원하는 분이고, 내가 택한 ‘예수’란 이름은 단지 은혜시대의 모든 죄인을 위한 이름이지 온 인류를 끝내기 위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호와, 예수 그리고 메시아는 모두 나의 영을 대표하지만, 이 이름들은 내 경륜 중의 서로 다른 시대를 대표할 뿐, 나의 모든 것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땅의 사람들이 부르는 나의 이름이 나의 모든 성품과 어떠함을 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단지 시대마다 나에 대한 호칭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시대, 즉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면 나의 이름은 또 바뀌게 된다. 여호와라고도 예수라고도 칭하지 않고, 메시아라고는 더욱 칭하지 않는다. 대신 크나큰 능력을 지닌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칭하는데, 이 이름으로 전체 시대를 끝낸다. 나는 여호와라고 칭한 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불린 적도 있다.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 구주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예전에 알던 여호와나 예수가 아니라, 말세에 다시 돌아와 시대를 끝내는 하나님이자 나의 모든 성품과 권병, 존귀, 영광을 가득 지니고 땅끝에서 나타난(원문: 興起) 하나님 자신이다. 사람은 나와 접촉한 적도 없고, 나를 안 적도 나의 성품을 안 적도 없으며,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를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이가 바로 말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났으나 또 사람들 가운데 은밀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생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는 마치 뜨거운 해 같고 불꽃 같으며, 능력이 충만하고, 권병을 가득 지니고 있다. 세상의 온갖 것이 나의 말에 심판받고, 불사름 속에서 정결케 될 것이다. 최후에 만국은 반드시 나의 말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산산이 부서지기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말세의 모든 사람은 내가 바로 돌아온 구세주이고, 온 인류를 정복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된 적이 있지만, 말세에는 또 만물을 불사르는 뜨거운 해와 같은 불꽃이자 만물을 드러내는 공의로운 태양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세에 행하는 사역이다. 내가 이 이름을 택하고 이런 성품을 지닌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뜨거운 해이자 불꽃임을 알게 하고, 유일한 참하나님인 나를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구속주만도 아니라, 천지와 바닷속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인 내 본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말세에 강림한 구세주가 여전히 예수라 불리고 그때처럼 유대에서 태어나 사역한다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만 만들었고 오직 그들만 속량하며 이방과는 무관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말한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다.”라는 말과 모순되지 않겠느냐? 내가 유대를 떠나 이방에서 사역하는 까닭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세에 이방에 나타난 것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인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방 모든 선민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과 애굽 그리고 레바논은 물론,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 족속까지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다만 나는 이스라엘을 내 사역의 발원지로 삼았고, 유대와 갈릴리를 구속 사역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이방을 전체 시대를 끝내는 사역의 근거지로 삼았을 뿐이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두 단계의 사역(율법시대와 은혜시대의 사역)을 행했고, 이스라엘 외의 온 땅에서도 두 단계의 사역(은혜시대와 하나님나라시대의 사역)을 행했다. 또한 이방에서 정복 사역을 함으로써 시대를 끝낼 것이다. 사람이 늘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세에 새 시대를 개척했고 새 사역을 전개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구주 예수의 강림만 하염없이 기다린다면, 나는 그런 자들을 나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며 거짓으로 나를 믿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 자들이 어찌 ‘구주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나의 강림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의 강림이다. 또한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내가 이 더러운 옛 세계를 철저히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시 강림하여 그들을 속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가 온 인류를 다시 속량하여 더럽고 불의한 땅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소망한다. 그런 자들이 어찌 나의 말세 사역을 성취하는 인류가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는 나의 바램을 이룰 수 없고, 나의 사역을 성취할 수도 없다. 사람은 내가 행했던 사역만 앙모하거나 그리워할 뿐, 내가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직 내가 여호와이자 예수라는 것만 알 뿐, 인류를 끝내는 말세의 그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소망하고 아는 것은 그들의 관념 속에 있는 것으로, 단지 사람의 육안에만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행한 사역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대로 행한다면 나의 사역이 언제 끝나겠느냐? 인류는 언제 안식에 들어가겠느냐? 나는 또 어떻게 일곱째 날인 그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나는 나의 계획대로, 나의 근본 취지대로 행하지 사람의 계획대로 행하지 않는다.

##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도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이다**

사람은 내가 땅에서 사역하는 근본 취지, 즉 내가 사역하여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사역의 종점에 다다르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이 오늘날까지 나를 따라오고도 내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헛되이 따라온 것이 아니겠느냐?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는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사역해 왔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내 사역의 항목은 매우 많을지라도 사역의 근본 취지는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람에게 술한 심판과 형벌을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사람을 온전케 한 후 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모든 이방에서 내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했을 때에도 나는 변함없이 내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내가 해야 할 사역을 함으로써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고 있다. 사람이 내 말을 귀찮아할지라도, 내 사역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역을 하고 있다. 내 사역의 근본 취지는 변하지 않고, 나의 원래 계획도 무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심판은 사람이 더 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나의 형벌은 사람이 더 잘 변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하는 사역은 나의 경영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에게 무익한 사역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이스라엘 외의 족속들을 이스라엘처럼 순종하게 만들고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밖에서도 나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경영이고, 이방에서의 나의 사역이다. 오늘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나의 경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의 앞날과 종착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말해도 사람은 여전히 내가 하는 사역에 무관심한 채 오로지 자신의 미래 종착지에만 관심을 둔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어떻게 나의 사역을 확장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의 사역이 확장될 때 내가 너희를 분산시키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친 것처럼 너희를 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복음을 온 땅에 널리 전파하고, 나의 사역을 이방으로 확장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나의 이름을 높이 받들며, 각 나라 각 족속도 모두 나의 거룩한 이름을 칭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마지막인 이 시대에 나의 이름이 이방에서 높임을 받게 하고, 나의 행사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 주며, 또한 나의 행사로 인해 내가 전능자로 불리게 하고,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설령 내가 저주한 족속일지라도 말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임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가장 큰 사역이고, 말세에서의 나의 사역과 계획의 근본 취지이며, 내가 말세에 성취하려는 유일한 사역이다.

수천 년 동안 경영해 온 나의 사역은 말세가 되어야만 사람들 앞에 완전히 드러나 보여질 수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 나는 비로소 내 경영의 모든 비밀을 사람에게 완전히 공개했다. 그리하여 사람은 내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 나의 모든 비밀도 알게 되었다. 나는 사람의 관심사인 사람의 종착지까지도 전부 알려 주었고, 5천 9백 년 넘게 감추어 두었던 나의 비밀을 사람에게 모두 공개했다. 누가 여호와인가? 누가 메시아인가? 누가 예수인가? 너희는 내 사역의 전환점이 이 몇 개의 이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어떻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전하고 칭송해야 하는지, 또 지난날 나의 이름 중 어느 한 이름을 부르짖었던 모든 족속에게 어떻게 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느냐? 나의 사역은 이미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나는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나의 모든 사역을 확장할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사역을 너희에게 행하였기에 너희를 칠 것이다. 마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다윗 집 목자를 쳤듯이 모두 각 족속으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 나는 말세에 열국을 산산조각 내고 열국의 백성을 새 나라와 무리로 다시 분류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미 열국이 나의 불사름으로 경계가 나뉘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나는 뜨거운 해로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고, 사람이 본 적 없는 거룩한 자의 형상으로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 만방에서 다닐 것이다. 마치 나 여호와가 유대 각 족속 가운데에서 다녔던 것처럼 말이다. 그때부터 나는 땅에서 사는 사람의 생활을 인도할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그들 위에 있는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사람의 생활을 인도하는 하늘의 구름 기둥도

볼 것이다. 나는 거룩한 땅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의 공의로운 날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온 땅에서 왕이 될 때이고, 또한 많은 아들들을 인도하여 영광에 들어갈 때이다. 사람은 온 땅 위에 앉드릴 것이고, 나의 장막은 반드시 인간 세상에 굳게 세워질 것이며, 내가 오늘날 하는 사역의 반석 위에 지어질 것이다. 사람 또한 성전 안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한 그 제단은 반드시 나에 의해 부서져 새롭게 세워질 것이며, 처음 난 어린양과 송아지는 반드시 그 거룩한 제단 위에 가득 쌓일 것이다. 나는 반드시 오늘날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지을 것이다. 가증한 사람들로 가득한 오늘날의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내가 지은 성전에는 반드시 나에게 충성하는 종들로 가득할 것이며, 그들은 내 성전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나 나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내가 크게 영광받는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 날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며, 나의 장막이 인간 세상에 임하는 날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성전을 허무는 방식대로 나의 장막을 인간 세상에 임하게 할 것이다. 마치 사람이 나의 강림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열국을 산산이 부순 다음 또 새로이 모을 것이다. 그런 후 나의 성전을 짓고 나의 제단을 세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나의 성전에서 나를 섬기게 하며, 이방에서의 내 사역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고 화관을 쓸 것이며, 나 여호와와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고, 나의 위엄이 그들 위 하늘에서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방에서 하는 나의 사역도 그와 같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방식대로 이방에서도 그렇게 사역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사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이방으로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내 영이 크게 역사하는 때이자, 내가 이방에서 일을 시작하는 때이며, 더욱이 모든 피조물을 분류하는 때이다. 나는 모든 피조물을 부류대로 나누어 나의 사역이 더 빨라지게 하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사역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네게 하는 나의 모든 사역을 더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보며, 나의 사역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너의 모든 힘을 다 쏟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네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의 사역을 그르치지 않고 또한 너의 아름다운 앞날을 그르치지 않도록, 더 이상 서로 다투거나 빼앗지 말고, 더 이상 자신이 빠져나갈 길을 찾지 말며, 더 이상 육적인 안락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 자신을 망치기만 할 뿐 보호할 수 없을 텐데,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느냐? 네가 지금 누리려고 하는 것들은 너의 앞날을 망치는 것들이고, 네가 오늘 참고 견디는 고통은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너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시험에 빠지고, 해가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며, 짙은 안개가 사라질 때는 큰 날의 심판 속에 있을 것이다. 그때는 나의 날이 이미 인류에게 다가왔을 때인데, 네가 어찌 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찌 그 뜨거운 해를 견딜 수 있겠느냐? 내게 있는 풍부함을 인류에게 베풀어 주었을 때, 사람은 그것을 품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 던져 버렸다. 나의 날이 사람에게 임할 때, 사람은 더 이상 나의 풍부함을 발견할 수 없고, 내가 일찍이 사람에게 했던 귀에 거슬리는 충고도 찾을 수 없어 대성통곡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빛 비춤을 잃고 어둠 속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늘 내 입에서 나온 날 선 검만 보았을 뿐, 내 손에 있는 채찍과 사람을 불사르는 불길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계속 내 앞에서 교만하고 방종하며, 계속 내 집에서 나와 싸우면서 사람의 혀로 나의 말에 반박한다. 사람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날까지도 전혀 두려움 없이 나를 적대하고 있다. 너희 입에는 불의한 자의 혀와 이가 있고, 너희 언행은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독사와 같아 서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갇고, 내 앞에서 자신의 지위와 명리를 다투지만, 내가 너희 언행을 은밀히 관찰하고 있고, 너희가 내 눈앞에 오기 전에 내가 이미 너희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았다는 것은 전혀 모른다. 사람은 늘 내 손에서 벗어나려 하고 내 눈의 감찰을 피하려고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사람의 언행을 피한 적이 없다. 오히려 사람의 불의를 형벌하고 사람의 패역을 심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람의 언행이 나의 두 눈에 띄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이 뒤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늘 나의 심판대 앞에 있고, 나의 심판은 지금까지 사람을 떠난 적이 없다. 이는 사람의 패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나의 사역은 사람이 내 영 앞에서 하는 모든 언행을 불살라 정결케 하고, 내가 땅을 떠날 때에도 사람이 내게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게 하며, 나의 거룩한 종이 나를 섬겼던 것처럼 내 사역을 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땅에서 하는 내 사역이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다.

## 율법시대의 사역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사역은 하나님이 땅에서 할 사역의 발원지, 자신이 거할 성지를 인류 가운데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역 범위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처음에 이스라엘 밖에서는 사역하지 않았는데, 사역 범위를 줄이기 위해 적합한 사람을 택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곳이다. 여호와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고, 그곳은 그가 땅에서 사역하는 근거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아의 후손이자 아담의 후손이며, 여호와가 땅에서 사역하는 데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당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의의와 목적, 그리고 절차는 온 땅에서 그의 사역을 펼치기 위함이었으며,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까지 사역을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점에서 면으로 확장하는 방식은 그가 온 우주에서 사역하는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확장하여 온 우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최초의 이스라엘 사람은 노아의 후손이었었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여호와가 준 생기뿐이었다. 물론 의식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사람에 대한 그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으며, 창조주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욱 알지 못했다. 규례나 율례가 있는지,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이행해야 할 본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담의 후손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남편은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건사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여호와가 창조한 인류를 위해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밖에 몰랐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생기와 생명만 가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창조주를 흠족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 그러므로 교활하거나 간사한 마음도 없고, 시기하거나 분쟁한 적도 매우 드물었지만, 창조주인 여호와에 대해서는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인류의 선조는 여호와의 것을 먹고 누릴 줄만 알았지, 여호와를 경외할 줄도, 여호와가 그들이 경배해야 하는 분인 줄도 몰랐다. 이런 자들을 어찌 피조물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여호와는 창조주이다.”, “그가 인류를 창조한 이유는 자신을 나타내고 영화롭게 하며, 대표하게 하기 위함이다.” 등의 말씀이 빈말이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어찌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겠느냐? 어찌 여호와의 영광을 빛내는 존재가 되겠느냐? 그렇다면 사탄, 그 악한 자가 “나는 나의 형상대로 인류를 만들었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트집을 잡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것을 모욕하는 표시가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는 그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인류를 창조한 후,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어떤 지시나 인도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부터 노아의 후손이자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을 본격적으로 인도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사역과 말씀으로 이스라엘 전역 모든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주었다. 나아가 여호와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의 생명을 갖추게 하고, 사람을 흙에서 소생시켜 창조된 인류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불태우고 저주할 수 있고 그의 채찍으로 인류를 다스릴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낮과 밤의 시간에 맞춰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하고 사역함으로써 인류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그저 피조물로 하여금 사람은 본래 여호와가 땅에서 취한 흙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여호와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가 먼저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이유는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과 족속들(사실은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과 족속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갈라져 나온 나라들과 족속들이다. 그들의 조상 역시 아담과 하와이다.)이 이스라엘을 통해 여호와의 복음을 받게 함으로써 온 우주 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여호와가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지 않고, 인류를 창조한 후 그들이 땅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했다면, 육적 본성(여기에서 본성이란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영원히 알지 못한다는 것, 즉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이유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킴)을 지닌 사람으로서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것도, 여호와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후, 그들을 한동안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전 인류는 무(無)로 돌아갔을 것이다. 아니, 인류뿐만 아니라 창조된 천지 만물까지 모두 무로 돌아갔을 것이며, 이 땅은 사탄에게 짓밟혔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가 바라던 ‘이 땅, 그의 창조물 가운데서 설 자리, 즉 성지를 갖는’ 소망은 깨지고 만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후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고, 그들에게 말씀한 이유는 모두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그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이유는 단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세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먼저 사역한 것은 만물을 창조한 것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 그의 경영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인류 창조의 의의를 더 깊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는 노아 이후, 땅의 인류의 삶을 2천 년 동안 이끌어 주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만물의 주인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여호와를 증거하고 순종하고 경외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윗과 여호와의 제사장들처럼 악기를 연주하며 여호와를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호와가 2천 년의 사역을 행하기 전까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며 계속 타락해 갔다. 그리하여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사람은 모두 음란하고 패괴되어 마음에 여호와가 없었으며, 그의 도는 더더욱 담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여호와가 행하려는 사역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식견은커녕 이성조차 없던 그들은 그저 숨만 쉬는 기계 같아, 사람, 하나님, 만물, 생명 등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땅에서 독사처럼 유혹하는 일을 많이 했고, 여호와를 거스르는 말도 수없이 많이 했다. 하지만 그들이

무지했기에 여호와와는 어떤 형벌도,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에 정식으로 노아에게 나타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인도해 주었을 뿐이다. 즉, 여호와와는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날짐승과 길짐승, 그리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율법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끌어 주었는데, 그 기간은 총 2천 5백 년에 달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한 기간이 2천 년이었고,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 밖에서 동시에 사역한 기간이 5백 년이었다. 두 기간을 합쳐 2천 5백 년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신을 섬기려면 성전을 짓고,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하며, 새벽부터 맨발로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이는 그들이 신발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혀 성전 위에서 떨어지는 불에 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여호와의 안배에 순종했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계시도 받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여호와가 말씀한 후에 백성들을 이끌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또한 여호와는 그들에게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아야 하며, 여호와의 때, 즉 여호와의 유월절에 미리 준비해 둔 초태생의 송아지와 어린양을 제단에 바쳐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이를 통해 그들을 단속하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했으며,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가늠했다. 이 밖에도 여호와는 그들을 위해 안식일을 정했다. 자신이 만물을 창조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을 첫날로 정했는데, 그날은 그들이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고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미하는 날이었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는 제사장들을 모두 소집하여 제단 위의 제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게 함으로써 여호와 제단 위의 제물을 누리도록 했다. 또한 여호와는 그들을 복이 있는 자, 자신과 더불어 분깃이 있는 자, 자신의 선민이라 했다(이것 또한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과 맺은 언약이었음).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여호와와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율법시대에 여호와와는 수많은 계명을 정했고 모세를 통해 그를 따라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했다. 그 계명은 여호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으로, 애굽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에게 하는 여호와의 요구였다. 안식일을 지키는지, 부모를 공경하는지, 우상을 숭배하는지 등을 원칙으로 죄와 의로움을 판단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여호와의 불이 임했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었으며, 어떤 이는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것들은 모두 계명을 지켰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일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고, 제사장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돌에 맞아 죽어야 했다. 그것은 모두 여호와가 인정하는 바였다. 여호와가 계명과 율법을 정한 것은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율법으로 갓 난 인류를 통제하는 것은 앞으로 행할 사역의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행한 사역을 근거로 첫 시대를 율법시대라 부르는 것이다. 여호와는 수많은 말씀과 사역을 했지만,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도하기만 했다. 즉, 그 무지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생활할 줄 알며, 여호와의 도를 깨닫도록 이끌어 준 것이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 대부분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도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준행하게 한 것이었다. 이는 패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므로 성품의 변화라든가 생명의 성장 등을 논할 수는 없다. 그는 다만 율법을 통해 사람을 단속하고 통제했을 뿐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여호와는 단지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자 하늘의 하나님이었으며, 구름 기둥이자 불기둥이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하라고 한 것은 오늘날의 사람이 알고 있는 율법과 계명뿐이었는데, 사실 그것은 규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여호와가 행한 사역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이 지음 받은 후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해 사람에게 그런 것을 많이 베풀어 주고 친히 알려 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사람이 땅에 살면서 갖춰야 할 것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으며, 그것을 통해 여호와의 인도를 받은 인류를 그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보다 낮게 하였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준 것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은 단지 사람을 인도해 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를 인정하게 한 것뿐이다. 정복하는 것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그저 인도해 준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가 율법시대에 행한 사역의 전부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행한 사역의 배경이자 실상이며 본질이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을 여호와의 수중에서 다스리는 6천 년 경륜의 시작 사역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6천 년 경륜에 더 많은 사역이 생겨난 것이다.

## 구속시대 사역의 실상

나의 전체 경륜, 즉 6천 년 경륜은 최초의 율법시대, 은혜시대(구속시대), 최후의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 총 세 시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나의 사역 내용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한 것이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사탄과 싸울 때 사탄이 꾸민 간계에 따라 행한 것이다. 이는 사탄을

물리쳐 나의 지혜와 전능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사탄의 간계를 드러내 사탄의 권세하에서 살아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또 이는 나의 지혜와 전능을 나타내고, 추하기 그지없는 사탄의 몰골을 드러내는 동시에, 나아가 피조물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다. 즉, 나는 피조물로 하여금 내가 만물의 주재자임을, 사탄은 인류의 원수이자 변절자이고 악한 자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한편, 선과 악, 진리와 그릇된 이치, 거룩함과 더러움, 위대함과 비열함을 뚜렷이 구분하게 하려 했다. 나는 이 무지한 인류가 나를 증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인류를 패괴시킨 건 ‘내’가 아니며, 오직 창조주인 나 자신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사람에게 누릴 것들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또한 내가 바로 만물의 주재자이며, 사탄은 창조된 후 배반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6천 년 경륜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사역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피조물이 나를 증거하고, 나의 뜻을 깨달으며, 내가 진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6천 년 경륜의 첫 사역을 율법 사역으로 시작했다. 이는 여호와가 백성들을 인도한 사역이었다. 두 번째 단계인 은혜시대에는 유대의 각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예수는 은혜시대의 모든 사역을 대표한다. 그는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또한 은혜시대를 열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 사역을 완성했고, 율법시대를 끝내고 은혜시대를 열었기에 ‘사령관’, ‘속죄 제물’, ‘구속주’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예수와 여호와가 행한 사역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원칙은 동일한 것이다. 여호와는 율법시대를 열어 땅에서 사역할 근거지, 즉 발원지를 세웠으며 율법과 계명도 반포하였다. 이는 여호와가 행한 두 가지 사역으로, 율법시대를 대표한다. 한편 예수가 은혜시대에 행한 사역은 율법을 반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은혜시대를 열면서 2천 년간 지속된 율법시대를 끝냈다. 그는 은혜시대를 열러 온 개척자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니 뭐니 해도 구속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한 사역 또한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새 시대를 연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사역을 완성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떠났다. 그때부터 율법시대가 끝나고, 은혜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의 사역은 그 시대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이뤄졌다. 그는 그의 사역에 따라 인류를 구속하고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겸손, 인내, 사랑, 경건함, 포용, 긍휼 그리고 자비의 성품을 가져왔으며,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온갖 누릴 것들을 베풀어 주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은 평안과 희락이었고, 예수의 관용과 사랑이었으며, 그의 긍휼과 자비였다. 당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 영적인 위로, 예수에 대한 의존감 등 온갖 누릴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그들이 살던 시대와 관련이 있다. 은혜시대에

사람은 이미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있었다. 온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행하고 그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한없는 포용, 인내, 나아가 사람의 죄를 충분히 사해 줄 수 있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했다. 은혜시대의 사람은 죄를 사해 주는 속죄 제물, 즉 예수만 보았을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포용한다는 것만 알았으며, 그들이 본 것 또한 예수의 긍휼과 자비뿐이었다. 이는 다 그들이 은혜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속되기 전에 반드시 예수가 베풀어 주는 수많은 은혜를 누려야 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은혜를 누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가 베풀어 준 포용과 인내를 누림으로써 속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예수의 포용과 인내로 인해 사람은 죄 사함 받을 자격을 얻었고, 그가 베풀어 준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예수가 ‘의인을 구속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러 온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성육신한 예수가 심판과 저주의 성품을 지니고 와서 사람이 범하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영원히 구속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며, 영원히 죄에 속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6천 년 경륜은 율법시대에서 정지되고, 그 상태로 6천 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람의 죄는 갈수록 많아지고 깊어졌을 것이고 따라서 인류를 창조한 의의도 사라졌을 것이다. 사람은 율법하에서만 여호와를 섬기게 되지만 인류의 죄는 최초로 지음 받은 인류의 죄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예수가 인류를 사랑하고 사람의 죄를 사해 줄수록, 사람에게 충분한 긍휼과 자비를 가져다줄수록, 사람은 예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더 생기고, 예수가 비싼 값을 들여 사 온 길 잃은 양이라 일컬어지게 된다. 반면 사탄은 그 사역에 끼어들 수 없다. 예수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품속의 갓난아기를 대하듯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했기에, 노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예수는 그들 가운데서 진노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들의 우매함과 무지함을 보지 않고 그들의 죄를 포용해 주었고 나아가 ‘사람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그의 마음으로 감화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의 포용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성육신한 예수에게는 감정이 없었지만, 늘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공급해 주며, 도와주고 붙들어 주었다. 그는 많은 사역을 행하면서 수없이 고통을 겪었지만 사람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사람의 죄를 한결같이 인내하며 포용해 주었다. 이에 은혜시대 사람들은 그를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라고 친근하게 불렀다. 당시의 모든 사람이 본 예수의 소유와 어떠한 긍휼과 자비였다. 그는 사람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 과오를 잣대로 사람을 대하지도 않았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그는 늘 풍성한 음식을 베풀어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주었다. 사람들에게 그를 믿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진실함과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그는 심지어 썩은 시체를 살리기까지 하였다. 이를 통해 죽은 자도 그의 손에서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처럼 그는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서 묵묵히 참으면서 구속 사역을 행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속죄 제물이 된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자신의 긍휼과 자비, 거룩함을 모두 인류에게 베풀어 준 것이다. 그는 언제나 관용으로 사람을 대하고 보복하지 않았으며,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회개하도록 가르쳤다. 또한 사람에게 인내와 포용과 사랑을 갖고, 그가 걸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형제자매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넘어섰다. 그가 행한 사역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냄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사역은 모두 그의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는 어디를 가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 가난한 자를 풍족하게 하고 앓은뱅이를 걷게 했으며, 눈이 먼 자를 보게 하고 귀가 먼 자를 듣게 했다. 심지어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 즉 죄인을 멀리하지 않고 불러 모아 그들과 동석하며 늘 참아 주었다. 나아가 “목자는 양 백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닐 것이다. 그러다가 찾으면 몹시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했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기를 어미 양이 새끼를 사랑하듯 했다. 우매하고 무지한 그들은 예수의 눈에 모두 죄인이었으며, 사회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는 도리어 남들이 무시하는 그 죄인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겼다. 예수는 그들을 사랑했기에 제단에 바쳐진 어린양처럼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그들의 종이 된 것처럼, 그들에게 마음대로 사용되고 죽임 당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였다. 하지만 그는 높은 곳에 서서 사람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긍휼과 사랑이 아닌, 혐오와 반감으로 대했다. 그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은 그리 많지 않았다. 때때로 훈계하고 질책했을 뿐, 그들 가운데서는 구속 사역을 행하지 않았고 이적과 기사도 행하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그는 그 죄인들을 위해 끝까지 참고 십자가에 달려 온갖 모욕을 받은 후에야 온 인류를 완전히 구속했다. 이것이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이다.

예수가 사람을 구속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계속 죄 속에서 살면서 죄의 자손과 귀신의 후손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온 땅은 사탄이 기거하고 살아가는 곳으로 변했을

것이다. 구속 사역을 행할 때는 반드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했다. 그래야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최종적으로 온전케 되고 완전히 얻어질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그 단계의 사역이 없었다면, 6천 년 경륜도 전개될 수 없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기만 했다면, 사람의 죄는 온전히 사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사역하며 구속 사역의 반만 완수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 있는 육신의 형상이 되었고, 그 악한 자에게 넘겨진 후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고 인류의 운명을 주관했다. 그는 사탄의 손에 넘어간 뒤에야 인류를 속량할 수 있었다. 예수는 세상에서 33년 반 동안 비웃음, 비방과 버림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머리 돌 곳도 안식할 곳도 없이 고난을 겪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로 인해 온전한 자기 자신, 즉 거룩하고 무고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온갖 고난을 다 겪었던 것이다. 집권자들은 그를 희롱하고 채찍질했으며, 병사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말 한 마디 없이 끝까지 참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속했다. 그러고 나서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행한 사역은 은혜시대만 대변할 뿐, 율법시대는 대변하지 못하며 말세 사역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은혜시대에 예수가 행한 사역의 본질이며, 인류가 겪은 두 번째 시대인 구속시대이다.

## 너는 온 인류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한다

6천 년의 전체 사역은 시대가 바뀔 때 따라 변화해 왔다. 사역의 변화는 전 세계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온 인류의 발전 양상에 따라 이뤄지며, 그렇기에 경영 사역도 점차 바뀌는 것이지, 창세가 시작될 때부터 미리 계획된 것은 아니다. 창세 이전 또는 창세 직후에 여호와가 제1단계는 율법 사역, 제2단계는 은혜 사역, 제3단계는 정복 사역을 하고, 모압의 후손 중 일부에게 우선적으로 사역함으로써 우주 전체를 정복하겠다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 그는 창세 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모압 이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롯 전에는 더더욱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사역은 진행 상황을 보아 가며 하는 것이다. 6천 년 경영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창세 전에 ‘인류 발전 연표’ 같은 계획을 미리 세워 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 그의 어떠함을 직접 나타내지, 고심해서 계획하지는 않는다. 물론 여러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 치밀하게 계획하며 사역했다고 할 수는 없다. 예언 역시 현실의 사역에 따라 하는 것이다. 그의 사역은 언제나 가장 현실적인 사역이다. 그는 시대의 발전과 사물의 변화에 따라 가장

현실적인 사역을 하며, 증상에 따라 약을 쓰는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사역한다. 그는 각 단계의 사역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나타낸다. 그는 해당 시대의 사역에 따라 그의 지혜와 권병을 충분히 나타내기에 그 시대에 그가 되찾아 온 사람들은 다 그의 모든 성품을 볼 수 있다. 그는 각 시대에 행하는 사역에 따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해야 할 사역을 하며,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파괴된 정도에 맞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한 예로, 태초에 여호와가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고 아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둘 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는 그들에게 다른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 몸을 가려 주었다. 그 후 아담에게 말씀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후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동산 밖에서 오늘날의 인류처럼 살게 되었다. 태초에 그는 인류를 만들 때, 그가 만든 인류가 뱀에게 유혹당하게 한 뒤에 사람과 뱀을 저주하기로 미리 계획해 놓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 그저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자신이 만든 만물 가운데서 새로운 사역을 했을 뿐이다. 여호와가 땅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역을 한 후,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 여호와는 또 새로운 사역을 하였다. 그것은 그가 만든 인류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후 죄악이 아주 커졌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맞춰 여호와는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 일가를 택해 살아남게 하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사역을 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줄곧 이렇게 발전하면서 점점 더 깊이 파괴되었고, 인류의 발전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다시 말해, 인류의 끝이 다가온 것이다. 태초부터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행한 사역의 실상은 이러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것은 처음부터 다양한 사람을 어떤 한 부류에 속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인류가 발전하면서 점차 부류가 생긴 것이다. 마지막에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인류 가운데서 하는 사역 중 어느 하나도 창세 때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은 없다.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역을 한 것이다. 한 예로,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만든 것은 여자를 유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는 그가 전적으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일로 인해 여호와와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내쫓고 다시는 인류를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전에 내가 “나의 지혜는 사탄의 계략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인류가 얼마나 파괴되었든, 뱀이 어떻게 유혹했든 여호와에게는 자신만의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사역을 해 왔으며, 어느 한 단계도 중복된 사역을 하지 않았다. 사탄은 끊임없이 계략을 쓰고, 인류는 계속해서 사탄에 의해 파괴되며, 여호와 하나님도 부단히 지혜로운 사역을 행한다. 그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역을 멈춘 적이 없다. 인류가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이래로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여 인류를 파괴시킨 그 원수를 물리쳤는데, 이 싸움은 태초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인류가 그의 크나큰 구원을 받는 한편, 그의 지혜와 전능, 권병을 보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의 공의로운 성품, 즉 상선벌악(賞善罰惡)까지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까지 사탄과 싸우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이는 그가 지혜로운 하나님이고 그의 지혜 또한 사탄의 계략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만물을 모두 그의 권병 아래 순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땅의 만물도 모두 그의 발등상 아래에서 살게 하며, 더욱이 온 인류를 침범한 악한 자들이 그의 형벌 가운데서 쓰러지게 한다. 이 모든 사역 성과는 다 그의 지혜로 이룬 것이다. 인류가 있기 전에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지혜를 나타낸 적이 없었다. 하늘과 땅, 우주 전체에 그의 원수가 없었고, 흑암 세력이 만물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사장이 그를 배반한 후 그는 땅에 인류를 만들었고, 또 인류로 인해 본격적으로 사탄, 즉 천사장과 수천 년 동안의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격렬해졌지만 어느 단계든 그의 전능과 지혜가 있었다. 이로써 하늘과 땅의 만물이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보고 나아가 하나님의 실재도 보게 되었다. 그는 오늘날에도 이처럼 실제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역을 하면서 지혜와 전능을 나타내 너희에게 각 단계 사역의 실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게 하며, 더욱이 하나님의 ‘실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게 한다.

지난날, 유다가 예수를 판 일을 두고 어떤 이는 이것 역시 창세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은 그 당시에 성령이 현실 상황에 맞춰 마련한 것이다. 때마침 특하면

돈을 흠쳐 쓰는 유다라는 자가 있었기에 그에게 그 역할을 맡겨 힘을 쓰게 한 것이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예수도 몰랐지만 나중에 유다가 드러나자 비로소 알게 되었다. 만약 그 역할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유다로 정한 것 역시 당시에 성령이 한 일이다. 성령 역사는 진행 상황에 따라 행하고, 때에 맞추어 사역을 계획하며, 그때그때 행한다. 어째서 늘 성령 역사는 현실적이며 언제나 새롭고 가장 신선하다고 말하겠느냐? 사역은 창세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당시에 있어야 할 성과를 거두지만, 그 어떤 단계의 사역도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네가 마음속으로 계획한 것은 성령의 새 사역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의 사역은 사람이 추리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사람이 상상한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 그는 사람에게 현시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때그때 공급한다. 그는 사람의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사역 또한 사람의 현실적인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의 사역이 수천 년 전에 미리 계획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도 너희의 내적 상태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행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 내적 상태를 보고 꼭 알맞은 말씀을 하니, 그것이 바로 때마침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첫 번째 형벌 시대의 사역처럼 말이다. 형벌 시대가 시작된 후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사람에게 어떤 패역한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긍정적인 상태가 나타나고 또 어떤 소극적인 상태가 나타났는지, 어느 정도로 소극적이었고 최악의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것에 맞춰 사역하면서 그것들을 소재로 취해 더 좋은 사역 성과를 거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현재의 상태에 따라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가 행하는 모든 단계의 사역은 사람의 실제 상태에 따라 이뤄진다. 모든 피조물이 그의 손안에 있는데 그가 주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내적 상태에 따라 다음 단계에 해야 할 사역을 그때그때 한 것이지, 아주 오랜 옛날에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사람의 관념이다! 하나님은 당시에 사역을 행하는 한편 성과를 보아 가면서 사역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발전시켰으며, 사역의 성과를 보아 가면서 다음 단계의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람에게 조금씩 새로운 사역을 보여 주었다. 이런 사역은 모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늘에서 이렇게 역사하였고, 또 성육신해서도 이렇게 하였다. 이는 현실 상황에 따라 안배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한 것이다. 모든 사역은 창세 전에 미리 안배해 놓은 것이 아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둔 것도 아니다. 창세 이후 2천 년이 지난 뒤 인류가 그 지경까지 파괴된 것을 본 여호와와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율법시대가 끝난 후에 은혜시대에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물론 그것은 여호와와의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도 당시에 그가 본 상황에 따라 세운 것이지 아담을 만들자마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만 했을 뿐, 여호와와는 율법시대에 그 사역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은혜시대가 시작된 직후에야 그 사역을 시작했다. 바로 요셉의 꿈에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이 성육신하리라고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의 성육신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사람의 상상처럼 하나님이 창세 후에 성육신의 사역을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인류의 발전 정도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또 사탄과 싸우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몸에 임한 것이자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은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사역은 몇 가지 절차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결코 정해진 한도가 없다. 성령이 육신에 와서 사역하는 것도 사역의 성과에 맞춰 결정하며,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는 기간도 이런 것들에 따라 정한다. 모든 단계의 사역은 성령이 직접 나타낸다. 성령 역사 역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보아 가며 하는 것이다.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사역도 마찬가지다. 그는 계획해 가면서 사역했다. 빛과 어둠을 나누어 아침과 저녁이 생기자 마침 하루가 되었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들자 또 마침 하루가 되었으며, 그다음 땅과 바다, 그 속의 만물을 창조하자 또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사람을 만들어 땅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였다. 일곱째 날에는 만물을 다 창조했으므로 안식하였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복을 내려 거룩한 날로 정했다. 거룩한 날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 창조한 후에 비로소 정한 것이다. 또한, 이 사역도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기로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아 가면서 행한 것이다. 사실이 그렇지 않고, 그가 그렇게 말씀하지도,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았다. 그는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지 않았으며, 그때 그가 보기에 좋은 대로 창조했다.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나니 여섯 날이 지났다. 만약 그가 다섯째 날까지 만물을 다 창조했다면 여섯째 날을 거룩한 날로 정했을 것이다. 그저 그날이 여섯째 날이었기에 일곱째 날이 거룩한 날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내적 상태에 따라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영이 사람의 내적 상태를 보아 가면서 말씀하고 사역하며, 영이 모든 것을 감찰하면서 그때그때 사역하는 것이다. 내가 행한 것, 말한 것, 너희에게 더해 주고 베풀어 준 것은 모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은 현실을 떠나지 않으며 다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정해 놓았다면 지나치게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6천 년 계획을 연구해 낸 뒤 사람에게 거역과 대적, 교활과 간사, 육적인 패괴, 사탄의 성품과 안목의 정욕, 사적인 기호가 있도록 미리 정해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패괴시킨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패괴시키도록 정해 놓은 뒤에 사람에게 사역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설마 사탄이 인류를 패괴시키도록 정해 놓았겠느냐? 인류가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가 인류의 삶을 방해하겠느냐? 그렇다면 그가 사탄을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헛수고가 되지 않겠느냐? 인류가 거역하도록 어떻게 미리 정해 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본래 사탄의 방해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사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너희의 생각은 나의 말과 크게 다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너희의 말대로라면 사탄은 배반할 수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인식은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영원히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 또한 영원히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건 한 치 오차도 없는 진실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사장에게 권병의 일부를 주었기 때문에 천사장이 배반한 것이다. 물론 이 일도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사탄이 어떻게 배반했든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전능이 없다. 너희가 사탄은 만능이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사탄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사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말의 본래 뜻이다. 그러므로 사탄과 싸울 때는 한 단계 한 단계 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에 따라 자신의 사역을 정한다. 다시 말해, 시대에 맞춰 사람을 구원하고 그의 전능과 지혜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의 사역도 은혜시대 전에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며, ‘첫째, 사람의 외적 성품을 변화시킨다. 둘째, 사람이 형벌과 시련을 받게 한다. 셋째, 사람이 죽음의 시련을 겪게 한다. 넷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를 체험하고 피조물의 의지를 내보이게 한다. 다섯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한 다음 사람을 온전케 한다.’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미리 정해 놓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시대에 이렇게 계획해 놓지 않았으며, 이 시대에 와서야 계획하기 시작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있다. 사탄은 패괴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고 음성을 발하면서 본질적인 것들을 들추어 밝힌다. 이것이 현재의 사역이며, 또한 일찍이 창세 이래로 이런 원칙에 따라 사역하였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뱀도 만들었는데, 만물 중에서 뱀은 가장 독한 것이었다. 뱀의 몸에 독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독을 통해 뱀을 이용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 죄를 범하게 했고,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아담도 죄를 지었다. 이로써 그들 둘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 당초 여호와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왜 그들을 모두 한 동산에 두었겠느냐? 그가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어째서 뱀을 만들고 또 그것을 에덴동산에 두었겠느냐? 어째서 에덴동산에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겠느냐? 일부러 그들이 먹게 했겠느냐? 여호와가 오자 아담과 하와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자 여호와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독사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결국 뱀을 저주하고 아담과 하와도 저주했다. 그들 둘이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여호와는 알지 못했다. 인류가 패괴되어 사악하고 음란해지고 마음에 악과 불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지경에 이르자 여호와는 인류를 창조한 것을 후회했다. 그 후 여호와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사역을 했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살아남게 되었다. 어떤 일들은 사람의 상상처럼 그렇게 고차원적이거나 초자연적이지 않다. 천사장이 배반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면 어째서 천사장을 만들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사실은 이렇다. 땅이 없었을 때는 하늘에서 천사장이 가장 큰 천사였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다스렸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장에게 준 권병이었다. 하나님 외에는 천사장이 천사 중에서 가장 컸다. 그 후에 인류가 창조되자 천사장은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더 큰 일을 저질렀다. 그가 배반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병을 뛰어넘어 인류를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천사장이 하와를 유혹해 죄를 범하게 한 것은 땅에서 따로 왕국을 세워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천사장이 보니 많은 것들이 자기 말을 따르고 있었다. 천사도, 땅의 사람도 모두 그의 말을 따르고 있었다. 땅의 날짐승과 길짐승, 나무, 숲, 산천 만물을 모두 사람, 즉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들도 천사장의 말을 따르고 있었다. 그때부터 천사장은 하나님의 권병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으며, 나중에는 또 많은 천사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갖가지 더러운 귀신이 되게 했다. 인류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천사장이 패괴시켰기 때문 아니더냐?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류를 패괴시켰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처럼 된 것이다.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은 사람이 상상한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고, 간단하지도 않다. 사탄이 배반한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어째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또 사탄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을 증오하시고 사탄은 또 그분의 원수인데, 어째서 사탄을 만드신 거지? 사탄을 만든 것은 원수를 만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원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필연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사람이 어느 정도 살면 죽어야 하는 것처럼 일이 그 지경까지 전개된 것이다. 그릇된 인간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탄이 당신의 원수인데 어째서 그것을 만드셨습니까? 천사장이 당신을 배반할 줄 모르셨습니까? 당신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다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본성을 모르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배반할 줄 뻔히 알면서도 어째서 그것을 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천사를 이끌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인류를 패괴시킨 탓에 당신의 6천 년 경륜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말이나? 너의 이런 생각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사탄이 사람을 지금 이 지경까지 패괴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탄 때문에 인류를 만드시고, 그 후 그것으로써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거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분의 행사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은 어떤 사역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더더욱 일의 진상과 다르다. 하나님께는 더러움이 없기에 더러움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지금 그가 자신의 행사를 나타내는 것은 단지 원수를 물리쳐 자신이 만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처음에는 그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그에게 속했지만 지금은 그를 증오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마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며, 이 마귀들을 물리침으로써 만물에게 그의 전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지금 땅의 만물과 전 인류는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 속하며,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자신의 행사를 나타냄으로써 사람이 그를 알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그의 원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한다. 이 모든 사역은 그가 나타내는 행사를 통해 이뤄진다. 모든 피조물이 사탄의 권세 아래로 돌아갔으므로 그는 피조물에게 자신의 전능을 나타냄으로써 사탄을 물리치려고 한다. 사탄이 없었다면 그의 행사를 나타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사탄의 방해가 없었다면 그는 인류를 만든 뒤 에덴동산에서 생활하도록 인도했을 것이다. 어째서 사탄이 배반하기 전에는 그가 천사나 천사장에게 자신의 행사를 전혀 나타내지 않은 것일까? 만약 처음부터 천사와 천사장이 그를 알고 그에게 순종했더라면 그런 무의미한 사역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탄과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내면에 패역한 성품만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행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사탄과 싸워야 하기에 자신의 권병과 모든 행사로 사탄을 물리쳐야 했다. 그렇게 사람 가운데서 하는 구원 사역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보여 준 것이다. 오늘날 행하는 사역은 의미 있는 사역이다. 이는 사람이 “당신이 하신 사역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사역들 모두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사탄을 만들어 당신을 배반하고 대적하게 하였고, 또 인류를 만들어 사탄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으면서 어째서 또 인류를 증오하고 사탄을 증오하시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이 당신이 하신 일인데 증오하시다니요!”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정말 모순되네요!”라고 말하는 그릇된 자들이 많다. 진상을 알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다니 너무도 그릇되었구나! 하나님이 일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원망하기만 한다. “당신이 사탄을 만들고 또 사탄을 인간 세상으로 쫓아내셨죠. 그리고는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사탄의 성품을 갖게 했으면서 용서하지 않고 몹시 증오하십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무척 사랑하시더니 지금은 또 인류를 증오하시지요. 당신은 사람을 미워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모순 아닙니까?”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늘의 상황이 그렇고, 천사장은 그렇게 배반했으며, 인류도 그렇게 파괴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너희가 뭐라고 하든 일의 자초지종이 그렇다. 하지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오늘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는 점이다.

천사는 아주 약하고 능력이 없었기에 권병을 주자 교만해졌다. 특히 천사장은 다른 천사보다 높으며, 천사 중의 왕으로 백만 천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여호와 수하에서 천사장의 권병은 다른 천사들보다 높았다. 천사장은 이것저것 하려고 했고, 또 천사를 이끌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다. 하나님은 우주를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했는데 천사장은 자기가 주관한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하늘에 또 세계를 하나 창조하자 천사장은 자기가 주관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에도 내려오려 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쳐서 반공중으로 쫓아냈다. 천사장이 인류를 파괴시킨 뒤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것과 싸웠는데, 바로 6천 년의 시간을 들여 천사장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너희의 상상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가로막으며,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너무나 터무니없다! 사실상, 천사장이 배반한 후에야 그것을 원수라고 불렀다.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 세상에 온 뒤 사람을 짓밟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지경이 된 것이다. 그 후 하나님은 사탄과 약정을 하며 말했다. “너를 물리쳐 내가 만든 사람을 모두 구원할 것이다.” 사탄은 처음에는 굴복하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어쩔 수 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정말 나를 반공중으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반공중으로 쫓아낸 후 상대하지 않았다. 그 후로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했다. 사탄이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력 때문이다. 사탄은 그 권력을 가지고 반공중으로 쫓겨나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사탄을 반공중으로 쫓아냈지만 그것의 권병을 빼앗지는 않았으므로 그것은 계속 인류를 패괴시켰다. 반대로 하나님은 갓 창조되었으나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을 때는 자신의 행사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창세 전에 하늘에 창조해 놓은 세계에서 사람에게 그의 행사를 보여 주었을 뿐이다. 그것으로 하늘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그 세계에서 살도록 이끌었다. 물론 너희는 이런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을 것이다. 훗날 하나님이 또 인류를 만든 뒤 천사장이 인류를 패괴시키기 시작해 땅에 있는 온 인류가 혼란스럽게 되자 그는 비로소 사탄과 싸웠고, 사람은 그제서야 그의 행사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행사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사탄은 반공중으로 쫓겨난 뒤 자기 일을 했고, 하나님도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 사탄과 싸웠으며, 그 싸움이 말세까지 계속되었다. 이제 사탄을 멸해야 할 때가 왔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권병을 주었고, 나중에는 반공중으로 쫓아냈지만, 그것은 굴복하지 않고 땅에서 인류를 패괴시켰다. 반대로 하나님은 땅에서 인류를 경영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경영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은 사람을 패괴시킴으로써 사람의 운명을 끝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 중 어느 단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냐? 어느 단계가 사람을 정결케 하고, 사람이 의를 행하게 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류를 패괴시킨다. 사탄은 줄곧 전 우주 아래에서 사람을 패괴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도 자신의 사역을 하지만 사탄을 상대하지는 않는다. 사탄에게 아무리 권병이 있다 해도 그 권병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신의 권병을 다 내주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어떤 행사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저 사탄에게 권병을 조금 주어 천사들을 다스리게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권병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준 권병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쪽에서 사역을 하면 사탄은 한쪽에서 방해한다. 말세에 이르러 사탄의 방해가 끝나면 하나님의 사역도 끝나고, 하나님이 만들려는 사람도 온전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면에서 사람을 인도하며, 그의 생명은 끝없이 흐르는 생수이다. 사탄이 사람을 심각하게 패괴시켰지만 마지막에는 생명의 생수가 사람을 온전케 하기에 사탄은 끼어들어 역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얻게 된다. 사탄은 지금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승부를 겨루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상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는 반드시 사탄의 모든 흑암 세력과 흑암 권세를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육신으로 하려는 사역이자 성육신한 의의다. 다시 말해, 사탄을 물리치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여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다! 사실,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큰 붉은 용 국가에서 복음이 확장된 후, 즉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사역하기 시작해 사역의 국면을 연 후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다. 성육신은 바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이 또 한 번 성육신하여 사역하기 시작하자 그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해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처음에 사탄은 자신의 지혜도 꽤 많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으려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한 번 성육신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패역을 통해 사람을 폭로하고 심판하며, 이로써 사람을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사역을 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역은 사탄의 사역을 훨씬 초월한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나의 사역은 사탄의 계략 위에 세워져 있어 결국에는 나의 전능이 나타나고 사탄의 무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앞에서 사역하면 사탄은 뒤에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된다. 온몸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내쳐진 뒤에야 크게 깨닫겠지만, 그때는 이미 불 못에 던져져 타 버린 뒤일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 어쩔 도리 없이 완전히 굴복하지 않겠느냐?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현실적인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늘 근심으로 슬퍼하며 사탄과 6천 년 동안 싸우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다시는 인류를 만들지 않고 천사에게 권병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그 후로는 천사가 땅에 와서 일해도 그저 하나님을 따라 한 단계의 사역만 할 뿐,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병을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천사들은 어떻게 일했느냐? 모두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도 천사가 큰 돌을 한쪽으로 옮겨 놓았다. 하나님의 영은 친히 이런 사역을 하지 않는다. 천사는 그저 이런 일을 하며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 권병은 갖지 못했다.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에게

권병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한동안 사역하고 나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전 우주를 초월하겠다! 나는 셋째 하늘에 서겠다! 우리가 왕권을 잡겠다!” 사역을 며칠 하고 나면 교만해져서 땅에서 왕권을 잡으려 하고, 다른 나라를 세우려 하며, 만유를 밟으려 하고, 또 셋째 하늘에 서려고 한다. 너는 그저 쓰임 받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느냐? 근데 어떻게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땅에 와서 외치지 않고 묵묵히 사역하며, 조용히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떠난다. 그는 한 번도 사람처럼 외친 적이 없으며, 실제로 사역한다. 그는 교회당에 가서 “내가 너희를 모두 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외친 적도 없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사역을 하고, 사역을 마치면 떠날 뿐이다. 그러나 종교의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며 또한 높은 강단에 서서 사람을 가르치며 거창한 얘기만 할 뿐 실제적인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교만한 자들이며, 천사장의 후손이다!

지금까지 6천 년에 걸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행사도 많이 나타냈는데, 가장 주된 목적은 사탄을 물리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늘의 만물, 땅 위의 만물, 바닷속의 만물, 더 나아가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보여 준다. 또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그의 모든 행사를 사람에게 보여 주며,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송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그의 지혜를 찬미하게 한다. 땅 위, 하늘, 바닷속의 만물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전능과 모든 행사를 찬미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외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을 물리치고 정복했으며 더욱이 인류를 구원했다는 증거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원수를 물리쳐 승리하고 돌아왔음을 찬미하며, 그를 가리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왕이라고 찬미할 것이다. 사탄을 물리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에 그의 사역이 6천 년 동안 지속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고,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자신의 모든 행사와 모든 영광을 나타낸다. 그는 영광을 얻을 것이고, 모든 천사들이 그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하늘의 사자, 땅의 인류, 땅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가 하는 사역이다. 하늘과 땅의 피조물은 모두 그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는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해 돌아와 인류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일거양득의 사역이다. 결국에는 인류 전체가 그에게 정복될 것이며,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모두 멸망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내면에 많은 것들을 품은 채 제멋대로 굴고, 자신의 정욕과 기호를 따르는데, 이는 모두 거역이요, 대적이다. 사람이

육적인 것과 정욕을 위해, 또 자신의 기호와 이 세상과 사탄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 이는 모두 더러움에 속하며, 대적이고 거역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믿는다. 어떤 이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믿고, 어떤 이는 복을 받기 위해 믿고, 어떤 이는 심오한 비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믿으며, 또 어떤 이는 재물을 탐하여 믿는다. 이는 모두 대적이자 모독이다! 사람의 대적과 거역이란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느냐? 지금 많은 사람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는데, 이는 모두 악한 자가 하는 일이고, 사람의 거역과 대적이며, 사탄이 들러붙고 사탄에게 점령된 것이다. 하나님이 얻는 사람은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지만 지금의 사역을 거쳐 구원받고 정복되었으며, 환난의 고통을 겪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얻어져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지 않고 불의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 이런 사람은 가장 성결한 사람이고, 거룩한 자다. 지금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요구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 너는 틀림없이 도태될 자다. 모든 것은 오늘날을 근거로 한다. 비록 너를 예정하고 택했다고는 하나, 네가 오늘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의 결말이 결정된다. 지금 따라오지 못한다면 너는 도태될 것이다. 지금도 따라오지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큰 이적과 기사를 네 앞에 나타내 주어도 믿지 않는데, 나중에 사역이 끝나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때는 따르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후에는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너의 태도, 인식과 체험에 따라 네가 죄를 지었는지, 의를 행했는지 정하거나 혹은 네가 온전케 될 대상인지, 도태될 대상인지 정할 것이다. 지금 너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여 네 현재의 행위에 따라 너의 결말을 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날의 말씀은 누가 하는 것이냐? 사역은 또 누가 하느냐? 오늘 너를 도태시킬지는 누가 결정하고, 너를 온전케 할지는 또 누가 결정하느냐? 모두 나 자신이 하는 것 아니냐? 말씀도, 사역도 모두 나 자신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저주하고 형벌하고 심판하는 것도 모두 나 자신이 하는 사역이다. 또 나중에 너를 도태시키는 것 역시 나 자신의 사역이자 나 자신의 일이다! 너를 온전케 하는 것도, 네가 복을 누리게 하는 것도 모두 나 자신의 일이자 나 자신의 사역이다. 여호와가 너의 결말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하나님이 너의 결말을 정하는 것이며, 창세 전에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 정하는 것이다. 어떤 그릇된 인간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마 당신의 안목이 부족해 저를 잘못 보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영이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두고 봅시다!” 지난날 예수가 유다를 택하여 제자로 삼았다. 이에 사람은 예수님이 어찌 자신을 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실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처음에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을 마음이 없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은 나중의 일이다. 예수는 그 당시에 유다도 괜찮다고 보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한편, 돈을 맡겨 관리하게 했다. 유다가 돈을 흠쳐 쓰는 자인 줄 알았다면 예수는 그에게 돈을 맡겨 관리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 예수는 유다라는 자가 교활하고 간사하며 형제자매를 속이는 자인 줄 몰랐다. 유다가 예수를 따르고 얼마 후, 형제자매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그가 톡하면 돈주머니에서 돈을 흠쳐 쓰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에게 알려 주니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의 사역을 해야 했기에 그를 팔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유다가 그 역할에 잘 맞았다. 그래서 예수는 “이 가운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인자는 그로 인해 팔려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처음에 예수가 유다를 택한 것은 자신을 팔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유다가 재물을 위해 주인을 파는 인간 말종인 줄 누가 알았겠느냐? 예수는 그 상황에서 유다를 택해 이 사역을 한 것이다. 만일 예수의 열두 제자가 모두 매우 충성스럽고 유다 같은 자가 없었다면 예수는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팔렸을 것이다. 그때 마침 뇌물을 좋아하는 유다가 있었기에 그를 통해 이 사역을 이루었을 뿐이다. 이는 아주 단순한 일이다! 예수가 처음에 사역할 때 이미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일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때에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는 예수가 결정한 것이자 하나님의 영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유다를 택한 것은 예수가 한 일이고, 나중에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성령이 그 상황을 이용해 행한 사역이다. 예수가 유다를 택할 때는 그가 가룟 사람 유다라는 것만 알았을 뿐 자신을 팔 줄은 몰랐다. 너희의 결말 역시 지금 너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또 너희의 생명이 얼마나 자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창세 이래 정해 놓은 것’에 따라 너의 결말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이 모든 사역은 너의 상상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 호칭과 신분에 관하여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지난 사역(구약과 신약)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 즉, 6천 년에 걸친 3단계 사역을 모두 알아야 한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도 네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성경은 무엇이고, 구약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당시 했던 사역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네가 성경의 실상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당시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구약에 관한 것을 많이 이야기했다. 그들이 본 것은

전부 구약이었다. 신약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쓴 것이다. 너희는 복음을 전하려면 주로 성경의 실상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 즉 여호와가 행한 사역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가 행한 사역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다. 그들은 이 두 단계 사역의 실상을 들어 보지 못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일단 현재의 성령 역사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은 이 단계의 사역을 따라올 수 없다. 너희가 추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알고 성령 역사를 아는 것이 가장 높으며, 이 두 가지보다 더 높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네가 먼저 높은 것을 말한다면 그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이러한 성령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했고, 이러한 사역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체험하는 것은 모두 과거의 낡은 것들이다. 어쩌다 성령 역사가 조금 있다고 해도, 그들이 체험하는 것은 현재의 성령 역사가 아니며, 하나님의 지금의 뜻도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낡아 빠진 실행 방식에 따라 실행하며, 거기에는 새로운 빛도, 새로운 것도 전혀 없다.

예수 시대에 성령은 주로 예수에게 역사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되게 여호와를 섬겼고 성령의 역사도 있었다. 다만 그들은 당시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전의 낡은 실행 방식에 따라 여호와께 충성했을 뿐, 그들에게는 새로운 인도가 없었다. 예수가 오면서 새로운 사역을 가지고 왔다. 성전 안에서 섬기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도와 새로운 사역이 없었으며, 성전 안에서의 섬김도 낡은 실행 방식들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성전을 벗어나지 않은 그들에게 새로운 진입이 있을 리 만무했다. 새로운 사역은 예수가 가져왔으며, 또한 예수는 성전 안에서 사역하지 않고 성전 밖에서만 사역했다. 하나님의 사역 범위가 진작에 바뀌어 더는 성전 안에서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은 기존의 상태만 유지할 뿐, 새 사역을 가져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종교 인사들도 예전과 다름없이 성경을 숭배하고 있다. 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는 너에게 성경 글귀를 들이밀 것이다. 또한 술한 근거를 찾아내 너를 어안이 병병하게 만들고 제대로 대꾸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도 또 너에게 죄를 덮어씌우며 어리석은 신자라고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 모르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라며 너를 깔볼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들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왜 당신들에게 구약과 신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동방으로 영광을 가져왔다면, 어째서 이스라엘에서 한 사역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왜 또 모르는 겁니까? 당신들이 모른다는 건 그분이 알려 주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그분이

예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이라면 어째서 이러한 것들을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여호와와 사역을 아시는데 그분은 왜 모릅니까?” 그들은 너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이 이런 것뿐인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는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을 모두 따라왔고,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며, 이미 3단계의 사역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은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과거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한 사역과 어떻게 다릅니까? 다윗도, 예수님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행한 사역이 서로 달랐으나 호칭은 같았어요. 왜 그들의 신분은 다른 겁니까? 요한이 본 것은 이상(異象)이었고, 마찬가지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하려는 말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요한의 신분은 예수님과 다른 거죠?”라고 물을 것이다. 예수가 한 말씀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대변했다. 요한이 본 것은 이상에 속한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대변할 수 없었다. 요한, 베드로, 바울이 많은 말을 했고, 예수 또한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들의 신분에는 왜 차이가 있는 것이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가 대표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역사한 것이었다. 또한, 그의 사역은 새 시대의 사역으로, 누구도 한 적이 없었던 사역이었다. 그는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가 대표한 것은 여호와이자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윗은 어떤 호칭으로 불렸는지에 상관없이 그저 피조물의 신분을 대변하고 예수 또는 여호와와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이적을 보였을지라도, 그저 피조물일 뿐, 하나님의 영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했고, 또한 예수나 여호와가 열어 준 시대 안에서 사역한 것이지, 그 밖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그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구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예언서를 썼으나, 누구도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가 사역하자 하나님의 영은 그가 하나님임을 증거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나? 이제는 너도 알았을 것이다! 과거의 사도며 선지자들은 각종 서신을 쓰고 많은 예언을 했으나, 후세 사람들은 그중 일부만 선택하여 성경에 실었고, 또 일부는 소실되었다. 그들의 말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째서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겠느냐? 또한, 어째서 선택된 것과 선택되지 않은 것이 있겠느냐? 정말 성령의 말씀이라면 사람이 그것을 고를 필요가 있었겠느냐? 예수의 말씀과 사역은 어째서

4복음서에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겠느냐? 그것은 기록한 자의 실수가 아니냐? 어떤 이는 “바울이나 신약의 저자들이 쓴 서신과 행한 사역이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람의 관념이 섞여 있다면, 당신(하나님)이 오늘날 하는 말씀에는 사람의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까? 사람의 관념이 조금도 없는 겁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이 단계의 사역은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선지자들이 한 사역과 완전히 다르다. 신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한 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바울은 때를 맞아 주님 앞에 앞드리게 된 후부터 성령에게 이끌려 사역하게 된 사람이다. 그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므로 그가 교회들에 쓴 편지는 전부 예수의 가르침을 잇는 것이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올 때는 어떤 이름을 받들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대표해 사역한다. 하나님은 와서 곧바로 사역을 하지, 사람처럼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르침을 토대로 사역하지 않는다. 이 단계의 사역은 개인의 체험에 대한 간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가 소유한 것에 따라 사역한다. 예를 들면, 봉사자의 시련, 형벌 시대, 죽음의 시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 등등의 이러한 사역은 전부 과거에 한 적이 없는 사역이자 현시대의 사역이며 사람의 체험이 아니다. 내가 한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사람의 체험이더냐? 전부 직접 영에서 비롯된, 영의 말씀이 아니더냐? 내가 자질이 너무 부족해 명확하게 알지 못할 뿐이다! 내가 말하는 실제적인 생명의 도는 길을 안내하는 것으로, 여태껏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것들이다. 과거에는 누구도 이 길을 체험하지 못했으며, 누구도 이 실재를 알지 못했다.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못했고, 이런 체험을 이야기하지 못했으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말하지 못했다. 이런 내적 상태를 짚어 이런 것들을 드러낸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오늘날 내가 인도하는 이 길은 과거의 누구도 이끌지 못한 길이다. 만약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 새로운 길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바울이나 베드로는 예수가 인도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체험이 없었다. 그들은 예수가 그 길을 개척한 다음에야 예수가 한 말씀과 이끌어 준 길을 토대로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체험을 하고 그런 서신들을 쓸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체험과 하나님의 사역은 다르며,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관념, 사람의 체험으로 얻은 인식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현재 내가 새 길을 이끌고, 새 사역을 하고 있으며, 요한과 여러 선지자들이 한 말이나 행한 사역과 다르다고 누차 이야기한다. 나는 먼저 체험하고 나서 너희에게 말해 주는 식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랬다면 진작에 너희를 망치지 않았겠느냐? 과거의 많은 이들이 한 말도 인식 수준이 매우 높지만, 그들은 소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의 인식을 토대로 말한 것으로, 길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체험, 깨달음,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중에는 사람의 관념도 있고, 사람이 종합해 낸 경험도 있다. 현재 내 사역의 성질은 그들과 완전히 다르다. 나는 다른 이의 인도를 받아 본 적이 없으며,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 또한, 내가 말하고 교제하는 것은 누구와도 다르며, 여태까지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것들이다. 오늘날, 너희 가운데 누가 사역하든 모두 내 말의 기초 위에서 사역한다. 이러한 말씀이나 사역이 없다면 누가 이러한 것(봉사자의 시련, 형벌 시대...)들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인식을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이러한 것들을 간파하지 못하겠단 말이나? 어느 단계의 사역이든, 내 입에서 말이 나오면 너희는 나의 말에 따라 교제를 시작하고, 내가 한 말에 따라 사역하지, 너희 중 어떤 자가 생각해 낸 길이 아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너는 이렇듯 간단명료한 문제를 간파하지 못했던 말이나? 누군가가 생각해 낸 길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사람을 기반으로 생긴 것도 아니라 완전히 새로 개척한 길이다. 심지어 예수의 말씀 중 시대착오적인 것까지 많이 폐하였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천지개벽과도 같은 사역이며, 완전히 새로운 가업을 세우는 것이다. 나의 사역과 말은 모두 새로운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새 사역이 아니란 말이나? 당시 예수의 사역도 이러했다. 그가 한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과는, 바리새인들이 한 것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는 달랐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맞을까?’라며 감히 확정하지 못했다. 예수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가 와서 사람을 가르치며 한 말은 전부 새로운 것이었으며, 구약의 옛 선지자들이 한 말과 달랐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확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너희 중 많은 이는 이 단계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기 전에 모두 과거의 영적인 사람들을 토대로 실행하고 진입하는 길을 갔다. 하지만 오늘날, 내가 하는 사역은 완전히 다르기에 너희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확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네가 과거에 어떤 길을 갔는지, 누구의 ‘밥’을 먹었는지, 누구를 너의 ‘아버지’로 여겼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와서 새 사역으로 사람을 이끄는 이상, 나를 따르는 자는 모두 내가 한 말대로 해야 한다. 네가 어떤 ‘명문가의 자제’든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너는 더 이상 과거의 실행 방식에 따라 실행해서는 안 된다. 네 ‘양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됐고, 너는 마땅히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네가 얻어야 할 몫을 구해야 할 것이다! 네 모든 것은 전부 내 손안에 있으니 너는 네 ‘양아버지’를 너무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너를 완전히 주관하지 못한다. 오늘 하는 사역은 전부 새로운 가업을 세우는 것이다. 오늘 말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의 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네가 이것을 사람의 힘만으로 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너는 구제 불능의 눈먼 자이다!

이사야, 에스겔, 모세, 다윗, 아브라함, 다니엘 등은 이스라엘 선민의 지도자나 선지자였다. 왜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겠느냐? 성령은 왜 그들을 증거하지 않았겠느냐? 예수가 사역하고 말씀하자 성령은 왜 그를 증거했겠느냐? 왜 다른 사람은 증거하지 않았겠느냐? 똑같이 사람이고 육신이며, 모두 주로 불렸다. 그들이 어떤 호칭으로 불렸든 간에 그의 사역은 그의 어떠함과 본질을 대변하고, 그의 어떠함과 본질은 그의 신분을 대변한다. 호칭은 그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 반면 그가 나타낸 것과 살아 낸 것으로 그의 본질을 대변한다. ‘주’로 불리는 것은 구약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으며, 어떻게 불리든 상관없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본질과 원래의 신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어쩌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고, 본래 사람이며, 다른 이를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신분이 없다. 다윗도 열두 지파에서 주로 불리지 않았더냐? 예수 또한 주로 불렸다. 왜 예수만을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이겠느냐? 예레미야도 ‘인자’로 불리지 않았더냐? 예수도 ‘인자’로 불리지 않았더냐? 어쩌서 예수는 하나님을 대표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겠느냐?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더냐? 또한, 그들이 한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더냐? 그런 것이 호칭에 달려 있단 말이나? 예수도 인자로 불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으로, 정사를 메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러 왔다. 바로 이 점이 예수의 신분과 본질이 똑같이 인자로 불렸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오늘날, 너희 중 누가 감히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어쩌서 에스라의 예언서와 옛 선지자들이 쓴 서적들을 없애 버렸겠느냐? 모두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너희는 어쩌서 감히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냐? 너에게 성령의 역사를 선택할 자격이 있느냐? 이밖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야기를 없애 버렸다. 네가 만약 과거에 기록된 그 책들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일부 책들을 없애 버렸겠느냐? 모두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전부 남겨 교회들에게 보내어 형제자매들이 보게 해야 하며, 사람의 생각을 섞어 함부로 취사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바울, 요한 등 사람들의 체험에 개인의 깨달음이 섞여 있다고 해서 그들의 체험과 인식이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아니다. 그저 그들이 개인의 체험과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들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그들은 당시의 현실적인 체험 배경을 토대로 인식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만약 4복음서가 전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어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당시 예수의 사역에 대해 한 말이

다 다르겠느냐? 못 믿겠다면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아라. 베드로가 주를 세 번 부인한 사실이 다 다르고, 각각 ‘특색’이 있다. 식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성육신 하나님도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나 요한의 말에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다면, 그분이 하는 말씀에는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지 않단 말입니까?”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눈멀고 식견이 없는 자들이다! 4복음서를 잘 보아라. 예수가 마친 일, 예수가 한 말씀에 대한 그들의 기록은 그야말로 각기 다 다르고, 각자 자신의 견해가 있다. 만약 저자가 쓴 것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같고 일치해야지, 어째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느냐?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느냐? 너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증거하겠느냐! 너의 그 인식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만약 다른 사람이 너에게 “요한이나 누가의 기록에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는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너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누가, 마태는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가 한 사역을 본 후에 개인의 인식을 말하고, 회고록처럼 예수가 사역한 사실의 일부를 기록했다. 너는 그들의 인식이 전부 성령의 계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경 외에도 영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그들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는데 어째서 그것들은 후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냐? 그들도 성령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아니더냐? 너는 오늘날의 사역이 예수가 행한 사역의 기초 위에 나 자신의 견해를 더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사역을 배경으로 삼아 나의 인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가 당시에 행한 것은 어떤 사역이냐? 내가 오늘날 하는 것은 또 어떤 사역이냐?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전례가 없던 것들이고, 오늘날 가는 길은 모두 옛사람들이 간 적이 없는 길이며, 역대의 사람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길이다. 그것을 오늘날에 열었으니 영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과거에 리더가 되었던 사람들의 사역은 성령 역사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른 이가 닦아 놓은 기초 위에서 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다르다. 예수의 그 단계 사역도 마찬가지로 혼자 새로운 길을 열고, 세상에 와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으며, 사람은 마땅히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수의 사역이 끝난 뒤, 베드로와 바울 등이 예수의 사역을 이어 나가기 시작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한 다음, 그들은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설령 바울이 매우 높은 내용들을 말했다 해도 그것은 예수가 한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내와 사랑, 고난받고, 머리에 수건 쓰는 것, 세례받는 것, 또는 지켜야 할 다른 규례를 전하는 것 등등은 전부 예수가 한 말씀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열지는 못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당시 예수는 말씀하거나 사역할 때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성경의 구약 율법의 사역대로 하지 않았다. 반대로 은혜시대에 해야 할 사역에 따라 했을 뿐이다. 그는 그가 가져온 사역에 따라 행했고, 그의 계획에 따라 행했으며, 그의 직분에 따라 사역했을 뿐,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사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일을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지 않았다. 그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각 단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규례를 지키거나 일부러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교란하지 않았으며, 그의 이전 사역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가 하는 사역의 특이점은 어떤 규례도 지키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선지자도, 예언가도 아닌 ‘실무가’로, 매우 실제적으로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함으로써 그의 새로운 기원을 열고 새 사역을 시작했다. 물론, 예수의 사역으로 구약 선지자들의 말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하는 사역으로도 구약의 옛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다만 오늘은 너와 그 ‘오래된 책력’을 펼쳐 보면서 따지지 않을 뿐이다. 내가 해야 할 사역이 많고, 너희에게 해야 할 말도 많으며, 이러한 사역과 말은 그런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사역은 너희에게 그다지 큰 의미도, 가치도 없고, 너희에게 도움이 되거나 너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새 사역을 할 것이며,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이루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옛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성육신 하나님이 크겠느냐, 아니면 옛 선지자들이 크겠느냐?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을 지배하는 것이냐? 이 말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그 당시 예수도 본격적으로 직분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를 따랐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따금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미하고, 구약 성경을 보았다. 그가 세례를 받자 영이 본격적으로 ‘그의 위에 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의 신분과 그가 이행해야 할 직분을 나타낸 것이다. 그전까지는 마리아 외에 누구도 그의 신분을 알지 못했다. 요한조차 몰랐다. 예수는 29세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끝나자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가 세례를 받은 후부터 성령이 그렇게 그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세례를 받기 전인 29세 전까지는 정상인의 생활을 했다. 식사해야 할 때 식사하고, 잠을 자고, 옷을 입는 등은 변함없었으며,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물론, 그것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의 모습이다. 그에게도

때로는 연약함이 있었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자라며 총명과 지혜도 많아졌다고 한 것처럼 말이다. 이 말은 단지 그가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성을 갖고 있었고, 일반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었으며, 일반인의 성장 과정을 거쳤고, 특이한 면이 전혀 없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가 있었다. 세례를 받은 후 그는 시험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다음에는 직분을 이행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다. 또한, 그에게는 능력과 지혜와 권병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거나 그의 몸에 성령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도 성령은 그의 안에 거하고 있었다. 다만 본격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상인에게는 정상인의 성장 과정이 있는 것이다. 성령은 항상 그의 안에 거하고 있었으며, 그가 강생할 때는 다른 사람과 달리 새벽 별이 나타났다. 또한, 그가 강생하기 전에는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마리아가 남자아이를 낳을 것이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말해주었다. 예수가 세례를 받자 성령도 역사하기 시작했을 뿐이지, 성령이 그때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다고 한 것은 그가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는 예전부터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때가 되지 않았기에 사역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영은 함부로 역사하지 않고 세례의 방식으로 그를 증거했다. 예수가 물속에서 나오자 영은 본격적으로 그에게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직분 이행과 구속 사역을 시작했음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즉, 은혜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든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예수는 세례를 받은 후에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원래의 육신 그대로였다. 다만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그의 신분을 나타냈을 뿐이다. 또한, 그는 권병과 능력으로 가득해졌다. 이것이 바로 예전과 다른 점이었다. 신분이 달라진 것이다. 즉, 지위에 확실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는 사람이 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였다.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들도 성령이 이렇게 증거하자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만약 성령이 증거하기 전에 예수가 엄청난 사역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자신의 증거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가 한 사역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의 신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증거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성육신 하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성령이 증거한 후에도 그가 예전과 다름없이 사역했다면,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증거한 후에는 반드시 성령이 나타내어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며, 하나님의

증거는 틀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또한 그 증거가 정확하다는 것을 실증한다. 성령이 증거하기 전에 한 사역과 이후에 한 사역이 같다면 성육신한 그의 직분은 물론,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도 두드러지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한다. 눈에 띄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성령은 증거한 후에 성령의 증거를 지켜야 하므로 반드시 그에게서 이전과 다르게 지혜와 권병을 나타내야 했다. 물론, 이는 세례의 효과가 아니었다. 세례는 그저 의식에 불과하며, 세례의 방식으로 그가 직분을 이행할 시간을 보여 준 것뿐이다. 이러한 사역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성령은 성령의 증거를 끝까지 책임진다. 예수도 직분을 이행하기 전까지 곳곳에서 설교를 듣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별 큰 사역은 하지 않았다. 그가 직분을 이행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 육신에 거하고 있으면서 때가 되지 않으면 전혀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세례를 받기 전에 사역을 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이 본격적으로 ‘그의 위에 임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에게 사역할 능력과 권병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려는 사역을 할 수 없었으며, 반드시 세례받는 날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며, 그 누구도, 심지어 예수 자신조차도 어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방해할 리가 없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었음을 보여 주고, 하나님의 사역에 법칙이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그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그의 사역에 끼어들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일반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성육신이 초자연적이 아님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하나님 영의 안배에 어긋나지 않게, 순서와 절차에 따라 매우 정상적으로 사역한다. 그의 사역에 권병과 능력이 나타난 것은 단지 세례를 받은 후부터였다. 다시 말해, 성육신했다 해도 초자연적인 행동이나 일반인의 성장 법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예수가 진작부터 스스로의 신분을 알고, 세례받기 전부터 곳곳에서 큰 사역을 하면서 모든 일반인과 달리 비범함을 드러냈다면, 요한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했을뿐더러 하나님의 다음 단계 사역도 전개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는 일에 착오가 생겼음을 말해 주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근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사역은 전부 세례를 받은 이후, 즉 3년 동안 행한 것이다. 성경에는 그가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그가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았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일반인을 대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직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정상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고, 사람들은 별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다. 예수는 29세가 되어서야 자신이 한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초자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가 열두 살에 예배당에 예배하러 갔을 때 마리아가 그를 찾으니 그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데 당연히 조금도 특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의 특이함이 초자연적인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는 그저 다른 유치한 어린아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이다. 그는 겉모습은 사람이었지만, 본질은 특이하고 남달랐다. 하지만 성령이 그에게 역사한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낀 시점은 세례를 받은 이후였다. 그는 33세가 되던 해에 비로소 성령이 그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할 것임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 32세 때는 실정을 조금 알고 있었다. 마태복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그는 자신이 하려는 사역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때가 되자 알게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성령이 그에게 행한 사역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과정이 있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며, 성육신한 인자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째서 그전에는 사역하지 않았겠느냐? 왜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가 이행할 직분을 말해 준 후에야 근심하며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겠느냐? 어째서 그는 요한이 그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준 후에야 비로소 전에 몰랐던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이 모든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이 하는 사역임을 증명한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도달하기까지 전부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기에 영이 직접 역사하는 것과는 달랐다.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은 모두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6천 년 경륜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맞물려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길을 닦는 사람이 없었다면 뒤에 온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뒤에 올 사람이 있었으니 길을 닦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사역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전해 내려오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어질 수 있었다. 길을 여는 자가 없다면 사역은 전개될 수 없고, 하나님은 사역을 계속 앞으로 진행시킬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단계든 어긋나지 않고 전부 순서대로 이어져 하나의

흐름을 이루며, 한 분의 영이 하는 일이다. 하지만 길을 연 자든, 길을 이은 자든, 결코 신분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그렇지 않느냐? 요한은 길을 열었고 예수는 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신분이 요한의 신분보다 낮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와는 예수보다 먼저 역사했다. 그렇다고 여호와가 예수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길을 닦거나 잇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의 본질과 대변하는 신분이다.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려는 이상, 그는 반드시 길을 닦는 사람을 일으켜 사역하게 해야 했다. 요한은 처음에 전도할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라고 외쳤다. 그는 처음부터 이 도를 전했다. 왜 그는 이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말을 한 전후를 따지자면 요한이 먼저 천국의 복음을 말했고, 그다음에 예수가 말했다. 사람의 관념대로라면 요한이 새로운 길을 열었으니, 그가 예수보다 당연히 커야 한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았다. 다만 그를 통해 길을 열고 주의 길을 예비했을 뿐이다. 그는 예수를 위해 길을 닦았지만, 예수의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사람의 사역 또한 전부 성령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구약시대는 여호와가 길을 이끈 시대였다. 여호와의 사역은 구약의 모든 시대를 대변하며,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사역을 대표한다. 모세는 그저 땅에서 그 사역을 지켰을 뿐이다. 그의 사역은 인성 협력에 속한다. 당시 여호와는 음성을 발해 모세를 불렀고,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서 모세를 일으켰으며, 모세가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다. 그것은 여호와가 친히 지시한 일이지, 모세가 스스로 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으로 불릴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율법도 정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여호와가 친히 반포한 것으로, 단지 모세에게 전하게 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도 계명을 정했다. 게다가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새 시대의 계명을 정했다. 어째서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겠느냐? 이는 같은 맥락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모세가 한 사역은 시대를 대변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길을 연 것도 아니었다. 여호와가 앞에서 길을 이끌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한 것이었다. 그는 그저 쓰임 받는 사람에 불과했다. 예수가 왔을 때, 요한은 이미 길을 닦는 단계의 사역을 마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성령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예수는 와서 바로 그 자신의 사역을 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그렇게 많은 예언을 했는데, 어째서 그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겠느냐? 예수는 그렇게 많은 예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왜 하나님 자신이겠느냐? 당시 예수가 했던 사역이 전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아무도 단언할 수 없었고, 또한 전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으며,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한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분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사야의 사역과 예언들도 직접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고, 여호와와 묵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는 그리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말씀도, 매우 많은 예언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높은 도를 전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요한이나 이사야, 다윗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들을 신이라고 부른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다윗 신이나 요한 신이라고 그렇게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오직 예수만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이는 하나님의 증거와 그가 담당한 사역, 그리고 그가 이행한 직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아브라함, 다윗, 여호수아, 다니엘, 이사야, 나아가 요한과 예수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큰 인물들이 행한 사역을 통해 너는 누가 하나님 자신이고, 누가 선지자에 속하고, 누가 사도에 속하는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이고, 누가 하나님 자신인지는 그들이 행한 사역의 본질과 유형에 따라 구분되고 확정된다. 네가 이러한 것들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가 하나님인 이유가 그렇게 많은 말씀과 사역을 하고 더욱이 수많은 이적을 나타냈기 때문이라면, 요한도 그렇게 많은 일과 많은 말을 했고,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못하느냐? 아담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않고 그저 피조물이라고 불리겠느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과 말씀을 하셨다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모세도 그렇게 많은 말을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겠죠?”라고 묻는다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은 왜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셨으면서 요한을 증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한 사역이 컸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컸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요한이 한 사역이 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을 증거하지 않으셨을까요?”라고 반문하여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자신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직접 이끌었다. 이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한 사역이다. 모세에게는 그런 영과 어떠함이 없었고, 그는 그 사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한 일과 예수가 한 일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행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인지, 선지자인지, 사도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지는 사역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너는 의문이 없어질 것이다. 성경의 기록에는

어린양만이 일곱 인을 떼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역대로 수많은 큰 인물들이 성경을 해석했다고 해서 너는 그들을 전부 어린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해석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저 성경 해석가일 뿐, 그들에게는 어린양의 신분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일곱 인을 떼 수 있겠느냐? ‘어린양만이 일곱 인을 떼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일곱 인을 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 사역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며, 하는 김에 곁들여 하는 사역일 뿐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사역을 똑똑히 알고 있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 굳이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6천 년 사역에 굳이 ‘어린양이 성경을 해석하는 시대’를 더해야겠느냐? 그는 새 사역을 하기 위해 왔다. 다만 과거의 사역에 대해 조금 풀어 주어 사람이 6천 년 사역의 실정을 알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구태여 많은 성경 구절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하는 사역이다. 너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곱 인을 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는 예수가 말세에 강림한다는 것만 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강림하겠느냐? 너희처럼 이제 막 속량되어 변화의 과정과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지금의 너같이 고루한 사람을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사실이다. 네가 죄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덕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게 죄와 더러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네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겠느냐? 네 안에는 여전히 더러움이 가득하며, 또한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그러면서도 예수의 강림에 함께하려 하는데, 그런 꿈 같은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에는 한 단계의 과정이 빠졌다. 너는 그저 속량되었을 뿐, 변화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하나님이 친히 사역하여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속량만 될 뿐, 성결해질 수는 없다. 그리되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에서 한 단계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즉,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중요한 한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막 속량된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유업을 곧바로 이어받을 수 없다.

이 단계의 새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 대단한 전도자, 설교자, 성경 해석가, 그리고 소위 영적인 위인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지 모른다! 이 단계의 새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너희가 말하는 것은 전부 낡아 빠진 것들이 아니겠느냐? 보좌에 오르거나 왕의 분량을 예비하는 것, 자신을 버리거나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 인내하거나 모든 일에서 공과를 배우는 것, 겸손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전부 케케묵은 말들의 반복이 아니더냐? 이는 겉만 바꾸는 것일 뿐 속은 그대로이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떡을

떼거나 안수 기도를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외에 무슨 새로운 사역이 있겠느냐? 무슨 발전성이 있겠느냐? 이대로 이끌다 보면 너는 죽어라 규례를 지키거나, 여태까지 해 온 대로만 계속 행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사역이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그것이 전부 고대의 ‘노인’이 물려준 유전이자 유훈임을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말과 행동은 전부 노인들의 유언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더냐? 노인들이 임종 때 남긴 당부가 아니더냐? 너는 너희가 하는 일이 역대의 사도, 선지자, 심지어 만유를 뛰어넘는 일이라 생각하느냐? 이 단계 사역은 시작되자마자, 위트니스 리를 숭상하며 ‘보좌에 앉아 왕 노릇 하기를 추구하던’ 너희의 작업을 제지시키고, 너희의 기를 죽여 놓았으며, 사람이 이 단계의 사역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이 단계의 사역이 없다면 너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구제 불능이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는 낱아 빠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 다행히 현재의 사역이 너희를 끌어왔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너희가 어디로 갔을지 모른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째서 너는 새로운 것을 찾지 않는단 말이나? 어째서 항상 낱아 빠진 것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냐? 그러므로 성령의 현재 역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 지위의 복을 내려놓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모압의 후손은 온전케 될 수 없고 온전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다윗의 자손이라면 분명 온전케 될 희망이 있다고 보지만 모압의 후손이라면 온전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에게 이 사역을 하는 의의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도 너희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여 마음에 두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왜 하필 가장 가치 없는 너희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택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자는 아무도 없다. 설마 이 사역이 잘못되기라도 했느냐? 순간의 경솔한 판단으로 하게 된 것이란 말이나? 어째서 너희가 모압의 자손이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이 아닌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 사역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아무렴 하나님이 생각 없이 사역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경솔하게 일을 하겠느냐? 설마 처음에 너희가 모압의 후손임을 몰랐겠느냐? 너희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줄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관념’은 어디로 갔느냐? 너희의 그 건전한 생각이 균형을 잃었느냐? 너희의 총명함과 지혜는 어디로 갔느냐? 너희가 도량이 넓어서 이런 작은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은 것이냐? 너희의 머리는 앞날이나 운명 같은 것에는 가장

예민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한 다른 일에는 모두 무감각하고 우둔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앞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나? 네가 믿는 것은 너의 아름다운 종착지가 아니냐? 너의 앞날이 아니냐? 너는 지금 생명의 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얻었느냐? 너는 오늘날 모압의 후손에게 사역하는 것이 너희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일부러 너희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일부러 너희가 형벌을 받게 한 다음 너희를 불 못에 던져 넣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앞날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너희를 멸하고 침륜시킬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했느냐? 희망이 없다는 네 말은 너 스스로 규정한 것이 아니냐? 너의 정신적인 작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 너 스스로 규정한 것이 효력이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멸망의 대상이고, 내가 너에게 축복이 있다고 하면 너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저 너를 모압의 후손이라고 말했을 뿐, 멸망할 자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모압의 후손은 저주를 받았으며, 파괴된 인류 중의 한 부류일 뿐이다. 예전에 죄에 대해 말했는데 너희가 모두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냐? 죄인은 모두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람이 아니냐? 죄인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을 대적하면 저주받을 자가 아니냐? 죄인은 모두 멸망당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육에 속한 자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겠느냐? 너희는 자신이 모압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극적이 되지만, 너희도 죄인에 속하는 인류가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왔겠느냐?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해 말하자 너희는 기뻐했고, 큰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복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환난에서 나온 이긴 자가 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자 높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압에 대해 말하자 너희들은 슬렁이기 시작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몹시 괴로워하고 마음이 씁쓸해했으며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했다. 너희는 이 사역을 모압의 후손에게 행하는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높은 지위만을 추구하며, 희망이 없겠다 싶으면 뒷걸음치고, 온전케 되는 것과 훗날의 종착지에 대해 말하면 기뻐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아름다운 종착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지금 이 지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신분과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처음에 온전케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모압의 후손이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그전에 말했던 온전케 되는 길을 부인했다. 너희가 처음부터 줄곧 이 사역을 하는 의의도 모르고 이 사역의 의의에 관심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분량이 너무 작아 아주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자기의 신분이 너무 낮다는 사실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추구하려는 믿음도 사라졌다. 사람은 그저 은혜를 받는 것과 평안 누리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표징으로 삼고, 복받으려는 신념을 하나님을 믿는 근본으로 여길 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성품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아주 적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적합한 종착지와 무궁한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람의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과 아무런 충돌이 없이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사람의 모든 요구를 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라는 성경의 말처럼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 무조건 다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한다. 또 하나님은 항상 인자한 구주 예수이므로 언제 어디서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사람을 심판하지도 훈계하지도 말 것을 요구한다. 사람이 믿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거역하든 순종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또한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빛을 독촉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항 없이 사람에게 ‘빛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곱절로 갚아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있든 없든 그저 사람이 지배하는 대로 따라야 할 뿐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감추어 온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운 성품을 마음대로 ‘사사로이’ 사람에게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은 싫어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람은 하나님에게 시키기만 하고 하나님은 오로지 순종하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람의 종이 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도망치려 하고,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노발대발 화를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퍼붓는다. 너희는 전혀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와 기묘함을 나타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일시적인 안락만 탐할 뿐이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의 태도는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낡은 관점에 머물러 있다.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위엄을 드러내면 싫어한다. 이제 너희는 자신의 분량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보았느냐? 너희는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라. 사실 너희의 낡은 관점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정에 달하지만, 작은 일만 생겨도 음부까지 추락해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나?

마지막 정복 사역을 이스라엘에서 시작한다면 정복 사역은 무의미해진다. 이 나라의 너희들에게 해야 가장 의의 있는 사역이 된다. 너희는 가장 비천하고 또 가장 지위가 낮은

인류다. 너희는 이 사회의 최하층 사람이고, 처음에 하나님을 가장 부인했던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인류이며, 매우 심한 해를 입은 인류다. 이 단계 사역은 그저 정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너희를 선택해 훗날 증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정복의 시작 사역을 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다면 그 후의 정복 사역을 펼치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그 후의 정복 사역은 오늘날 하는 사역의 사실을 가지고 성과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복 사역은 그저 모든 정복 사역의 시작이며, 너희는 정복되는 첫 무리이고 정복될 전 인류의 대표이다. 참된 인식을 가진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이 아주 좋은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패역을 깨닫게 했을 뿐 아니라 너희의 신분도 밝혀 주었다. 그가 말씀하는 목적과 의의는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람이 이런 말씀을 통해 계시를 얻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며, 그가 한 말씀으로 사람의 영을 깨우는 것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줄곧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았다. 이들이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크나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다. 참된 인식을 가진 사람은 모두 이렇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인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후손이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모압의 후손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우리가 모압의 후손인 걸 어찌겠어요? 지난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했으니 어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이렇게 형벌받아도 마땅해요.” 이런 말이 옳으냐? 지금 너희를 심판하고 형벌하고 정죄하지만, 그것은 너희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형벌하는 것 모두 너 자신을 알게 하고 너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며, 더욱이 너의 몸값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공의롭고 그의 성품에 따라 한 것이며, 그의 사역의 필요에 따라 한 것이자 사람을 구원하는 그의 계획에 따라 한 것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네가 만약 자신의 지위가 낮다는 것과 자신이 패괴되었고 패역하다는 것만 알 뿐,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하는 심판과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려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너는 체험할 수 없고 계속 나아갈 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치거나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저주하고 형벌하고 구원하러 온 것이다. 6천 년 경륜이 끝나기 전, 즉 각 부류 사람들의 결말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이 땅에 와서 하는 사역은 모두 구원을 위한 것이며,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온전케 하여 그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복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든, 그것은 모두 사람에게 있는 사탄의 옛 성품을 벗어 버리게 함으로써 즉, 사람이 생명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람은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고,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형벌이나 심판, 저주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하고, 더욱이 위로의 말씀도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무궁한 축복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 감동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구원은 거래적인 구원일 뿐이다. 하나님이 백배로 주는 전제하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이름을 빛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것은 파괴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친히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이 모든 긍휼과 자비를 다 베풀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전부를 사탄에게 넘겨줌으로써 전 인류와 맞바꾸는 것이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지금은 너희를 구원함에 있어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마지막 때이므로 긍휼과 자비가 아닌 형벌과 심판의 방식으로 더 철저하게 인류를 구원한다. 따라서 너희는 형벌, 심판, 무자비한 매질만 받게 된다. 하지만 너희는 그 무자비한 매질 속에 징벌은 전혀 들어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말씀이 아무리 엄할지라도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그저 무정해 보이는 말들뿐이며, 나의 분노가 아무리 클지라도 너희가 받는 것은 여전히 꾸짖는 말일 뿐, 너희를 해치려는 뜻도, 너희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뜻도 전혀 없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냐?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의 공의로운 심판이나 무자비한 연단과 형벌은 모두 구원을 위한 것이고, 지금 각기 부류대로 나누려고 하든 아니면 각 부류의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든, 모든 말씀과 사역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의로운 심판은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고, 무자비한 연단도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며, 엄한 말씀이나 채찍질은 모두 정결케 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구원 방식은 예전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공의로운 심판은 너희의 구원이 되었고, 너희를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었으며, 무자비한 형벌은 너희의 크나큰 구원이 되었다. 이런 형벌과 심판 앞에서 너희가 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너희가 처음부터 줄곧 누려 온 것이 모두 구원이 아니냐? 너희는 성육신 하나님의 육신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능과 지혜를 알았고, 더욱이 매질과 징계도 여러 번 겪었지만 또 지극히 큰 은혜도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느 누구보다 큰 복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생각해 보아라. 만약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징벌하러 왔다면 너희의 날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겠느냐? 죄에 속하는 육적인 너희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겠느냐? 단순히 너희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성육신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었겠느냐? 너희 같은 무명소줄을 징벌하러 한다면 말 한 마디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 굳이 너희를 정죄한 뒤에 멸망시킬 필요가 있었겠느냐? 아직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공흠과 자비의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단 말이나?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단 말이나? 공의로운 성품이 사람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느냐? 사람을 더욱 온전히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한 말이 엄하기는 하지만 사람에게는 모두 구원이다. 나는 말만 했을 뿐 사람의 육체를 징벌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사람이 모두 빛 속에서 살고 빛의 존재를 인식하고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더욱이 이런 말씀이 사람에게 매우 이롭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곧 구원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비록 형벌과 심판의 말을 많이 했지만 너희에게 사실로 닿치지는 않았다. 나는 사역을 하러 온 것이고 또 말을 하러 온 것이다. 말이 비록 엄하기는 하지만 모두 너희의 패괴와 패역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 역시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해 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엄한 것은 사역 성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역해야만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패역한 성품을 벗어 버릴 수 있다. 말씀 사역의 가장 큰 의의는 사람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진리를 실천해 성품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되는 것에 있다. 말씀하는 사역 방식을 사용해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통시킬 수 있고, 말씀만이 진리를 천명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사람이 명확하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하는 데 말씀 사역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다. 그러므로 마지막 단계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모든 진리와 비밀을 사람에게 열어 주어 하나님에게서 참도와 생명을 얻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역하는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도록 하는 것이며,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는 사람을 징벌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는 상선벌악(賞善罰惡)을 하지 않고 각 부류 사람들의 종착지를

드러내지도 않는다.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다 한 후에야 상선벌악의 사역을 하고 각 부류 사람들의 결말을 드러낸다. 징벌받는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반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구원 사역을 하는 기간에 하나님은 구원 가능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최대한 구원한다. 그의 사역 목적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 성품의 변화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는 모두 징벌받을 대상이 된다. 이 단계의 말씀 사역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과 도를 모두 사람들에게 열어 주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를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줌으로 성품 변화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 사역할 뿐 사람이 조금 거역한다고 해서 사람을 징벌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구원 사역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거역한다고 해서 사람을 징벌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모조리 징벌받아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목적은 사람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말씀 사역을 하는 기간에 많은 사람은 거역과 대적, 성육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일일이 징벌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히 파괴된 사람들만 버리는데, 그 육체를 사탄에게 넘겨줄 것이며 어떤 경우는 육체를 없애 버릴 것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계속 따르면서 책망과 훈계를 겪게 될 것인데, 따르는 기간 동안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타락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구원받을 기회를 잃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함에 있어 최대한 너그럽게 대한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온다면, 즉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기회를 줄 것이다.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구원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말로 구원의 여지가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쉽게 징벌하지 않는 것은 구원 가능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인도할 뿐, 형벌의 막대기로 치지는 않는다.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 사역의 목적과 의의이다.

## 하나님을 ‘관념’으로 규정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사역의 근본 취지는 바뀌지 않지만 사역 방식은 부단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더 전반적으로 알게 되고, 사람의 성품도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자, 진리를 모르는 그릇되고 망령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의 사역은 항상 새롭기 때문이다. 그는 옛 사역을 반복하지 않으며, 과거에 한 적 없는 사역을 행한다. 하나님이 중복 사역을 하지 않고 또 사람은 늘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사역으로 오늘날의 사역을 가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시대의 사역을 전개할 때마다 언제나 많은 난관을 겪어야 했다. 사람에게서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고,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보수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면서 규정하기까지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잃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생명도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보다 큰 축복은 더욱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을 얻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고정불변한 것이며, 영원히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을 그저 율법 아래의 하나님,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며, 하나님은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이런 ‘생각’은 그들을 낳은 율법과 죽은 규례에 단단히 못 박아 놓았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단계의 새 사역을 하든 예언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새 사역을 할 때마다 ‘그를 진심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계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고 한다. 가뜩이나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릇된 마음과 스스로를 높이는 패역한 본성까지 지녔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새 사역을 자세히 살피거나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만 기다린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 내가 예수의 사역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도 은혜시대에 여호와의

사역이 시대에 뒤쳐졌다고 했다. 율법시대만 있고 은혜시대가 없었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전 인류를 속량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율법시대만 있었다면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 역사(歷史)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역사(歷史)는 하나님 사역의 정상적인 법칙이 아니냐? 온 우주에서 행한 인류 경영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아니냐?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듯 하나님의 사역도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 역시 계속 바뀌고 있다. 하나님은 한 단계 사역을 6천 년이나 지속하지 않는다.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분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사역을 줄곧 이어 나가며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릇된 사람의 인식이다. 하나님은 한 가지 사역을 계속 지속하지 않는다. 그의 사역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언제나 새롭다. 내가 너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과 사역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사역으로, 그 핵심은 ‘새롭다’와 ‘놀랍다’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다”라는 말 또한 확실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지 사탄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역도 그의 본질처럼 영원불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영원불변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화하며, 하나님의 뜻 또한 부단히 사람에게 나타나고 공개된다. 한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성품이 변화하고, 인식도 변화한다. 그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느냐? 부단히 변화하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사람의 성품도 변화될 수 있는데 내 사역과 내 말의 끊임없는 변화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단 말이나? 반드시 사람에게 제한받아야 한단 말이나? 그것은 억지가 아니겠느냐?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했다. 너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지금 너는 그의 능력을 입었느냐? 능력이란 무엇인지 깨달았느냐? 예수는 말세에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이 바로 말세이다. 너는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어디에 나타나 사역하는지 아느냐?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는 ‘한 남자 아기가 강생할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만 했지 신약시대에 ‘예수’라는 이가 강생할 것이라는 말은 없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겠느냐? 구약에는 그런 단어가 전혀 없는데도 너는 왜 예수를 믿었느냐? 설마 예수를 보기라도 했단 말이나? 아니면 계시라도 받은 것이냐? 하나님이 너를 그 정도로 은혜롭게 대해 주었던 말이나? 너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내렸단 말이나? 너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럼 오늘날의 성육신은 왜 믿지 못하느냐? 어째서 너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성육신했을 리 없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사역할 때 반드시 사람에게 먼저 알려야 하느냐? 반드시 사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느냐? 이사야는 한 남자 아기가 구유에 강생하리라고 말했을 뿐, 마리아를 통해 예수가 태어난다는 예언은 하지 않았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냐? 아무 생각 없이 믿은 것은 아니겠지?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로 바뀌었겠느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왔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왜 바뀌게 되었느냐? 이는 이미 했던 사역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새로운 사역을 하면 안 된단 말이나? 과거의 사역도 바뀌었다. 여호와의 사역은 예수가 이어 갔건만, 예수의 사역은 또 다른 사역으로 이어질 수 없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로 바뀔 수 있으면 예수의 이름도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만 사람의 머리가 너무 단순한 탓에 그렇게 느낄 뿐이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다. 그의 사역이 어떻게 변하든, 그의 이름이 어떻게 변하든, 그의 성품과 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네 식견이 너무 부족한 것이다. 너는 예수라는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예수로 불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이 율법시대도 끝내고 마지막 시대도 끝내는 이름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예수의 은혜가 시대를 끝낼 수 있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네가 이런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너 자신마저 서지 못할 것이다. 반면, 앞으로 네가 종교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그들의 그릇된 논리도 전부 반박할 수 있다면, 이는 네가 이 단계의 사역을 완전히 확신했으며 조금의 의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가 그들의 그릇된 논리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너를 모함하고 비방할 것이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지난날, 유대인들은 모두 구약 성경을 보았으므로 한 남자 아기가 구유에 강생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예수를 핍박했겠느냐? 패역한 본성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겠느냐?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행하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언 속 남자 아기와 같지 않다고 여겼고, 오늘날의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이 성경에 따라 사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본질은 다 같은 것이 아니냐? 너는 성령의 역사라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임이 분명하다면 ‘흐름’이 옳은 것이니 고르거나 선택하지 말고 주저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상대로 식견을 넓히려 하고 여러 가지 의구심을 품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 이상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다면 바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나에 대한 더 많은 근거를 찾아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설사 성경에서 확실한 증거를 더 많이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완전히 내 앞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그런 너는 성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내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내가 나를 알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해주지도 못한다. 성경에는 한 남자 아기가 강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했기에 그 예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다. 그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사람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와 예수는 완전히 다르며,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당시 예수는 은혜시대에 제자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등등 은혜시대의 도만 가르쳤다. 즉, 예수는 은혜시대의 사역을 한 것이다. 예수는 당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는 은혜시대의 사역만 했을 뿐, 말세의 사역은 하지 않았다. 율법시대에 여호와와 구약 율법을 제정하고 왜 은혜시대의 사역은 하지 않았겠느냐? 어쩌서 은혜시대의 사역을 미리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겠느냐? 사람이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겠느냐? 여호와와 한 남자 아기가 강생하여 정사를 뗄 것이라는 예언만 했을 뿐, 은혜시대의 사역을 앞당겨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하는 각 시대의 사역은 다 일정한 범위가 있다. 그는 해당 시대의 사역만 할 뿐, 다음 단계의 사역을 미리 하지는 않는다. 그래야만 각 시대의 대표적인 사역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그 당시 예수는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하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만 말했다. 말세의 사람이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추구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네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찾는다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네가 성경만 받쳐 든다면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느냐? 그 어떤 성경 해석가나 설교자가 오늘날의 사역을 미리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오늘날 너희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너희는 들었느냐? 하나님은

말세에 말씀 사역을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곧 성령이며, 또한 하나님은 성육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이 한 말씀이다. 많은 그릇된 자들은 성령의 말씀이라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사람이 듣게 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실, 성령의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한 말씀을 가리킨다. 성령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시대에도 여호와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여 사역하려면 반드시 성육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사역은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영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여기면서 성령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모두 막연한 신앙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자는 영원히 성령의 역사를 얻지 못한다. 성령이 직접 말씀하고 역사하기만을 바라며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히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

##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흠족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행한 사역에는 두 부분이 있다. 처음 성육신하였을 때, 사람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두 번째 성육신하였을 때도 사람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지기(知己)가 되겠느냐? 또 어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비현실적이고 비실제적인 것을 목숨 걸고 추구한들 부질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너는 누가 하나님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기가 되겠느냐? 그러한 추구는 너무나 막연한 것이 아니냐? 또한 기만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나님의 지기가 된다는 실제 의미는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 영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영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볼 수 있느냐?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지기가 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추구에 무슨 실제적인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은 모두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지기가 되기를 추구하지만, 사실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네 고정 관념 속에만 있는 ‘만유 가운데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은 조금 막연하게 말하면 사탄이고, 조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너 자신이다. 너는 너 자신의 지기가 되기를 추구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지기가 되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모독이 아니냐? 그런 추구에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육신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생명의 영일 뿐이다. 그 영은 형상이 없고, 비물질적이며, 사람이 다가설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다. 비물질적이고 기묘하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영을 사람이 어떻게 지기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이는 웃음거리만 되지 않겠느냐? 이는 성립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그릇된 이론이다. 창조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은 원래 같은 부류가 아닌데 어떻게 서로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실체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피조물이 되지 않는다면, 창조된 사람은 아예 그의 지기가 될 자격도, 그의 지기가 될 방법도 없다. 어쩌면 경건한 신도들의 영혼이 천국에 간 후에 하나님의 지기가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하나님 영의 지기가 될 수 없다. 성육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지기가 되려 한다면, 이런 사람은 명칭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인류’가 아니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을 다할’ 뿐, 보이는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추구하기 쉽고, 대하고 싶은 대로 대할 수 있지만, 보이는 하나님은 추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막연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얻을 수 없다. 막연한 것은 사람이 상상해 낸 것이며, 또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에 온 분이 위대하고 접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그의 뜻을 찾을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그를 알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가 사역만 하고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접촉하지 않거나 그에게 정상 인성이 아예 없다면, 보통 사람은 그에게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너희에게 수없이 많은 사역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와 접촉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정상 인성’을 갖춘 육신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을 지닌’ 이 하나님의 지기가 될 자격이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지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와 함께 생활한 덕분에 차츰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모두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의 지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때문만이 아니라, 성육신한 그의 실체와 정상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할

기회와 ‘참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진리가 아니냐? 너는 아직도 하늘의 하나님의 지기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야만, 즉 성육신해야만 사람이 그의 지기가 될 수 있고 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본래 영이다. 그토록 위대하고 측량하기도 어려운 존재일진대 사람이 어떻게 그의 지기가 될 자격이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임하고 사람과 같은 외형을 갖춘 피조물이 되어야만, 사람은 그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에게 실제로 얻어질 수 있다. 그는 육신으로 말씀하고 사역하면서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환난을 같이 겪는다. 또한 같은 세계에 살면서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모두가 정결케 되고 그의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한다. 사람은 이런 것을 얻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그의 지기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실제적이다. 사람이 그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면, 어떻게 그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공허한 이치가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 왔지만 여전히 막연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 사역의 실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글귀에 얽매인 채 살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세대니, 하나님의 지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쫓대와 모형이니, 베드로의 풍격이니 이런 새로운 용어에 대해 실제로 진입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막연함 속에서 추구하고 글귀 속에서 모색하다 보니 이런 말씀의 실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육신하였기에 육신으로 사역하는 것을 내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있지만 아직 그의 지기가 되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해, 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영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오늘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세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다 공허한 글귀가 아니냐? 너는 영을 볼 수 있고 영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은 모두 빈말이 아니냐? 그런 용어들을 너희가 입으로 내뱉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네가 그런 것을 말한다면 너의 입과 욕망, 그리고 너의 비현실적인 꿈과 너 자신의 관념, 생각만 충족시킬 뿐이다. 네가 현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지기가 사람이니 하나님도 사람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였고, 사람이 된 것이다. 오직 같은 부류만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기라고 칭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영이라면,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그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서 너의 사람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현실을 마주해야지 허무맹랑한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의 의미까지 없어진다. 너의 추구하고 인생은 그저 허망함과 기만 속에서 덧없이 흘러갈 뿐이고, 네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진리와 무관한 그릇된 이치밖에 얻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너를 공허한 상태에 빠지게 할 뿐, 네가 생존하는 의미나 가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렇게 되면 너의 일생은 그 어떤 가치도 의미도 없게 될 것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너는 한평생을 헛되이 보내게 될 텐데, 그런 삶을 어떻게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짐승이 아니냐?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려고 하지만, 보이는 하나님은 추구하지 않고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만 숭배한다면, 이것은 더욱 헛된 추구가 아니냐? 네가 추구하는 바는 결국 잣더미로 변할 텐데, 그런 추구가 너에게 또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 사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들만 사랑한다는 점이다. 그런 것은 신묘하기 그지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우며, 평범한 사람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비현실적인 것일수록 사람은 더 분석하며, 만사를 제쳐 두고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으려는 망상까지 한다. 또한, 그런 비현실적인 것일수록 사람은 더 자세히 생각하고 분석하며, 심지어 치밀하게 구상하기까지 한다. 이와 반대로, 현실적인 것일수록 사람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심지어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다. 오늘날 행하는 나의 현실적인 사역에 대한 너희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현실적인 것일수록 너희는 더 경시하고, 그것을 알아볼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으며, 아예 거들떠보려 하지도 않는다. 너희는 기준이 낮은 이런 현실적 요구를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심지어 가장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념에 사로잡혀 그의 실제와 정상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은 모두 막연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이전의 막연한 하나님은 그토록 굳게 믿었으면서도 오늘날의 실제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은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다른 시대의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냐? 어제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냐? 사람이 숭배하는 하나님은 관념 속에서 탄생한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은 땅에서 탄생한 실제적인 육신이기 때문이 아니냐? 결국, 오늘날의 하나님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사람이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사람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또 난감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난처하게 하고, 또 일부러 자신들의 허물만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그래서 현실에 계시는 하나님, 실제의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성육신 하나님의 원수, 즉 적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냐? 이전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을 때, 너는 단지 종교인이거나 경건한 신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육신한 후, 경건했던 많은 신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적그리스도가 되었다. 어찌 된 일인지 그 원인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현실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진리도 추구하지 않았으며, 공허한 것에만 매달렸다. 이것이 바로 네가 성육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가장 뚜렷한 원인이 아니냐? 성육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믿고 사랑하는 분이 정말 육신에 거하는 이 하나님이 맞느냐? 현실을 가장 중요시하고 ‘유달리’ 정상적이며 생생하게 살아 계신 이 하나님이 맞느냐? 네가 추구하는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늘이냐, 아니면 땅이냐? 관념이냐, 아니면 진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신선이냐? 사실, 진리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고 인류의 최고 인생 격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자 하나님 자신이 직접 행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 격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격언은 종합해 낸 것도 아니고 위인의 명언도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재자가 인류에게 발한 음성이다. 또한 사람이 이것저것 종합해서 생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인생 격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진리 실행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요구’의 본질은 가장 현실적인 진리이지, 그 누구도 이를 수 없는 공허한 이치가 아니다. 네가 추구하는 것에 이치만 넘쳐 나고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면, 너는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자는 진리를 반대하며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일 수 있겠느냐? 실체가 없는 이 사람들은 모두 진리를 배반한 자이자 패역한 천성을 가진 자이다!

네가 어떻게 추구하든, 먼저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역을 이해해야 하고, 그 사역의 의의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말세에 어떤 사역을 가져왔는지, 어떤 성품을 지녔고 사람에게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야 한다. 그가 육신으로 와서 행하는 사역을 전혀 인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뜻을 찾을 것이며, 또 어떻게 그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사실, 하나님의 지기가 되는 것은 복잡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단순하지도 않다. 명확히 알고 실행에 옮긴다면 복잡하지 않겠지만, 명확히 알지 못하면 무척 어렵고, 또한 막연한 것만 추구하기 쉽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서야 할 입장도 없고 자신이 지켜야 할 진리도 모른다면, 토대가 없어 똑바로 서기가 어렵다. 지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애증이 분명치 못한 자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들은 모두 서기 어렵다.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행한 사역과

하나님이 말씀한 원칙을 아는 것이다. 또한 대세를 따르지 말고, 자신이 마땅히 진입해야 할 것에 원칙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깨우쳐 준 원래의 것들을 지켜야 한다. 이는 너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좌로 치우치고 내일은 우로 치우치다가 결국 실제적인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 너의 생명에도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늘 남들을 따라 하기 좋아한다. 남들이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자기도 성령의 역사라고 따라 말하고, 남들이 그것을 악령의 역사라고 하면 자신도 덩달아 의심하거나 악령의 역사라고 한다. 언제나 부화뇌동하고, 조금도 분별할 줄 모르며, 주관이 전혀 없다. 이들은 좇대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자들로, 무지령이나 다름없다! 너는 언제나 남들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어느 날 또 누군가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다 사람이 한 것이다.”라고 하면, 너 역시 꺾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그대로 말할지도 모른다. 실은 성령의 역사인데 사람의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너는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냐? 이는 분별이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 아니냐? 어느 날, 또 어떤 멍청한 자가 뜬금없이 그것을 악령의 역사라고 말하면, 너는 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남의 말에 구애받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너를 방해할 때마다 너는 입장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는데, 이는 너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만 있다고 해서 온전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너에게 체험과 인식이 필요하다. 일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하며, 성령의 역사를 얻어야 한다. 너에게 체험이 있으면 많은 일을 분별할 수 있고, 선과 악, 정의와 사악, 육에 속하는 것과 진리에 속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길을 잃고 헤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실제 분량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너 자신에게 추구의 기준과 목표가 있어야 하고, 참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과연 그것이 참도인지, 하나님의 사역인지를 가늠할 줄도 알아야 한다. 참도를 구하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나? 그것은 바로 그 도에 성령 역사가 있는지, 그 말씀에 진리의 선포가 있는지, 누구를 증거하였는지, 너에게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참도와 거짓 도를 분별하려면 몇 가지 방면의 상식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본질은 사실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믿는 이유도 그 육신이 하나님 영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즉, 그렇게 믿는 것은 역시 영을 믿는 것이다. 영과 육신이 서로 구별되긴 하지만,

그 육신은 영에서 비롯된 것이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믿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이다. 그러므로 참도를 구별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다음으로는 그 도에 진리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진리란 정상적인 인성이 지닌 생명 성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요구한 것, 즉 모든 정상적인 인성(이성, 식견, 지혜, 사람됨의 상식)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 도를 통해 사람이 정상적인 인성 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말씀한 진리가 정상적인 인성의 실재에 따라 요구한 것인지, 그 진리가 현실적이고 실재적인지, 가장 시기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진리가 있다면, 사람을 정상적이고 실재적인 체험으로 이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갈수록 사람은 정상이 되고, 사람의 인성과 이성이 온전해지며, 사람의 육체적 생활과 영 생활이 질서를 갖추고, 사람의 희로애락이 정상이 된다. 이것들이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내용 중 한 가지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사역과 진리의 체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갈수록 가깝게 하는지를 봐야 한다. 이것으로 참도인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도가 초자연적이 아닌 현실적인 것인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이 몇 가지를 갖춘다면 그 도가 참도인지 확신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이후에 체험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를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또 새 시대의 사역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에게 오늘날의 도가 참도임을 확신시켜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오늘날의 사역을 꿰뚫어 보지 못하여 반신반의하지 않도록 말이다. 심지어 많은 이들은 확신하였음에도 여전히 흐리멍덩하게 따르고 있다. 그런 확신은 원칙이 없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조만간 도태될 것이다. 아주 열성적으로 따르는 사람일지라도 확신은 3할에 불과하고 의심은 5할이나 된다. 이것이 바로 토대가 없는 모습이다. 너희는 자질이 너무 부족하고 토대가 지나치게 얇은 탓에 분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사역, 비현실적인 사역은 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에게 파격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 사람의 이성 범위를 벗어나는 사역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의 정상적인 이성의 범위 내에 있고, 정상 인성의 이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의 정상적 필요에 따라 사역한다. 성령의 사역이라면 사람은 물론 인성도 갈수록 정상이 되고,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본질에 대해 갈수록 인식이 생기고, 갈수록 진리를 사모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의 생명은 갈수록 더 성장하고, 사람의 파괴 성품은 갈수록 더 변화된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는 본래의 뜻이다. 만일 그 도가 사람의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성품도 변화시키지 못하며, 더욱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하지 못하며, 심지어 인성이 점점 나빠지고 이성도 점점 비정상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참도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거나 낡은 도일 것이다. 어쨌든 성령의 현실 역사는 아니다. 너희는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어 왔지만, 참도와 거짓 도를 분별하는 원칙과 참도를 찾는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이 일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말에 맞장구만 친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참도를 찾는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이런 자들이 또 어떻게 참도를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중요한 몇 가지만 파악한다면, 어쨌든 미혹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분별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할 것이며, 사람이 체험하는 과정에 갖춰야 할 것이다. 사람이 여태껏 따르면서도 조금도 분별할 줄 모르고, 인성과 이성이 여전히 제자리라면, 이는 사람이 너무 어리석은 것이고, 그 추구가 틀리고 잘못된 것이다. 너는 여태껏 추구하였지만 조금도 분별할 줄 모른다. 네가 참도를 찾았다고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너는 얻었느냐? 분별이 조금이라도 향상되었느냐? 참도의 본질은 무엇이나? 너는 참도 안에 있으면서도 참도를 얻지 못했고, 진리도 전혀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해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한 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패괴 성품의 변화가 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추구한다면 결국 도태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따른 이상 더는 의심하지 말고 자신이 가는 길이 바른길임을 확신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사소한 일 때문에 의심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자, 흐리멍덩하게 따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지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다. 복받기만을 바라고 막연한 것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권고하겠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루빨리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 성육신 하나님의 직분과 사람의 본분의 구별

너희는 하나님 사역의 이상(異象)을 알고 기본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모두 적극적인 측면의 진입이다. 네가 이런 이상과 관련된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역이 어떻게 바뀌든 전반적으로 너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상이 분명해지며, 네가 진입하고자 하는 것과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도 목표가 생긴다면, 너의 체험과 인식은 더 깊어지고 더 구체적이 되며, 큰 방향을 알게 되어 네가 생명에 해를 입거나 해매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각 단계의 사역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사나흘이나 네댓새가 지나도 돌이키지 못하고, 열흘이나 보름이 지나도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일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적극적인 측면의 진입과 실행을 다방면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 또한 사역 이상에도 너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정복 사역의 의의, 앞으로 온전케 되는 길, 환난과 시련을 통해 이루려는 것, 그리고 심판과 형벌의 의의, 성령 역사의 원칙, 온전케 되는 것과 정복되는 것의 원칙이다. 이것은 모두 이상과 관련된 진리에 속한다. 이 밖에 율법시대와 은혜시대, 그리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세 단계 사역이 있다. 또 이후의 증거에 관한 것도 있는데, 이것 역시 이상에 관련된 진리로, 무엇보다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하다. 지금 너희에게는 진입하고 실행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게다가 그것들은 각각 절차와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 이런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네가 아직 진입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진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얕팍해서 기본적인 진리들도 실행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들도 처리하지 못한다.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성품이 패역한 데다 오늘날의 사역에 대한 인식 또한 너무 얕팍하고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전케 되기가 쉽지 않다. 네가 너무나 패역하고, 자기주장이 강해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며, 심지어 가장 분명한 진리마저 실행하지 못한다면, 너 같은 사람은 구제 불능으로, 정복되지 못한 자에 속한다. 너의 진입에 세부적 내용과 목표가 없다면 너의 성장은 느릴 것이고, 너의 진입에 조금도 실체가 없다면 너의 추구는 헛될 것이다. 또한, 진리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너에게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 성장과 성품 변화는 모두 실제에 진입함으로써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세부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진입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많이 체험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깨닫고 진입한다면, 너의 성품은 빨리 변화할 것이다. 지금 너는 실행에 대해서는 그다지 분명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사역 이상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너는 진입할 수가 없다. 반드시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그 후에 진입할 수 있다. 체험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진입하게 된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

태초에 인류를 창조한 후 이스라엘 사람을 사역할 기반으로 삼았고, 이에 모든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가 땅에서 행하는 사역의 근거지가 되었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율법을 정해 직접 사람을 인도하고 목양함으로써 사람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여호와를 정상적으로 경배하게 하는 것이었다. 율법시대의 하나님은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었다. 그는 그저 처음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며 목양하기만

했기에, 그가 말씀한 내용은 단지 율례와 법도, 그리고 사람됨에 대한 상식이었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진리는 아니었다. 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탄에 의해 깊이 패괴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가 행한 율법 사역은 구원 사역의 첫걸음이자 최초의 구원 사역으로, 사람의 생명 성품 변화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그러므로 최초의 구원 사역부터 그가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런 까닭에 그가 사람과 접촉하려면 매개체가 필요했다. 즉, 도구를 통해 사람과 접촉해야 했다. 그리하여 피조물 가운데서 여호와를 대신해 사역하고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인자와 선지자가 생겨났다. ‘인자’란 여호와를 대변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사람으로, 여호와께 ‘인자’라 칭함 받았다. 이 호칭에는 여호와를 대변하여 율법을 반포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다. 또한, 여호와가 보살피고 지키며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 제사장이라는 뜻과 여호와를 직접 섬기는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뜻도 담겨 있다. 그리고 선지자는 전적으로 열방과 모든 족속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는 대언자이자 여호와의 사역을 예언하는 사람이다. 인자든 선지자든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영이 친히 세운 사람들이자 여호와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또한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직접 대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단지 여호와가 세웠기에 사역한 것이지, 성령이 친히 성육신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하나님을 대변하여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율법시대의 선지자와 인자들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아니다. 그러나 은혜시대와 마지막 단계의 사역은 정반대이다.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사역은 모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친히 행하는 것이므로 다시 선지자와 인자를 세워 그의 사역을 대신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사람의 눈에 그들의 사역은 본질과 방식 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기에 사람은 늘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을 선지자나 인자의 사역과 혼동한다. 성육신 하나님은 선지자나 인자와 기본적으로 겉모습이 같은 데다가, 선지자보다 더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양자 간의 차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기에 사역하고 말하는 것이 똑같아도 그 속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 사람은 분별력이 너무 부족해 단순한 문제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더욱 분별하지 못한다. 선지자들과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말과 사역은 모두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고, 피조물로서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성육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사역하는 것은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의 외형이 피조물의 외형이지만, 그의 사역은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본분은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직분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 적용되는 말이다. 이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서로 바뀌 사용할 수 없다. 사람이 사역한다 함은 단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역한다 함은 경영을 하고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도가 성령께 쓰임 받고, 또 많은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사역하고 말한 것은 그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예언이 성육신 하나님이 말한 생명의 도보다 더 대단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의 인성이 성육신 하나님보다 훨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지,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본분은 사람의 기능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육신 하나님이 이행하는 직분은 경영과 관련된 일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말씀하든, 사역하든, 아니면 이적을 나타내든 간에, 결국 그가 행하는 것은 모두 경영 사역 중의 큰 사역이다. 이 사역은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행하는 사역은 단지 하나님의 경영 사역 중 어느 한 단계에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영이 없다면, 즉 성육신 하나님의 직분이 없어진다면 피조물의 본분도 없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사역하고 직분을 이행하는 것은 사람을 경영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창조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결코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의 고유한 본질인 영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영을 하는 것이고, 성육신하여 피조물의 외형을 갖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가 어떤 사역을 하든 모두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사람은 오직 그의 경영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의 인도하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다하게 된다.

사람이 본분을 이행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 원래 있는 것, 즉 사람이 본래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자신의 본분을 다한 것이 된다. 섬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단은 단계적으로 체험하고 심판받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므로 본분을 가로막거나 본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섬기는 과정에서 폐단이 생길까 봐 섬김을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가장 나약한 자다. 사람이 섬기는 과정에서 표현해야 할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본래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며, 속이고 대충 하기까지 한다면, 피조물에게 있어야 할 기능을 잃은 것이다. 그런 자는 이른바 ‘둔재’이자 쓸모없는 폐물이다. 그런 자를 어찌 당당한 피조물이라 칭하겠느냐? 겉보기는 화려하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 자가 아니겠느냐? 만일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하면서도 신성의 어떠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대표하지도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약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고 피조물의 자리에 설 자격도 없다. 또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보호를 받거나 온전케 될 자격은 더더욱 없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임을 잃은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증오하지 않을뿐더러 하나님의 도가 옳지 않다고 제멋대로 떠들어 댔으며, 더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패역한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크게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께 매우 죄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이 행한 것이 옳지 않다고 떠들어 대며 욕한다. 그런 자에게 어찌 온전케 될 자격이 있겠느냐? 그것은 도태되고 징벌받을 징조가 아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죄악이 극에 달한 것이고 백번 죽어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뻔뻔스럽게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고 하나님과 겨룬다. 이런 자에게 무슨 온전케 될 가치가 있겠느냐?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자신의 패역과 패괴를 증오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피조물이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누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자격이 있다. 그런데 너희 대부분은 또 어떠하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의 앞에서 또 어떻게 너희의 본분을 이행하고 있느냐? 성심성의를 다하고 기꺼이 목숨을 바쳤느냐? 너희의 희생은 어떠하냐? 너희가 나에게서 얻은 것이 아직도 적단 말이나? 너희는 분별할 줄 아느냐? 나에 대한 너희의 충성심은 어떠하냐? 나를 섬기는 것은 또 어떠하냐?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고 너희를 위해 행한 것은 또 어떠하냐? 너희는 가늠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의 쥐꼬리만 한 양심으로 가늠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의 언행이 떳떳하냐? 설마 너희의 그 작디작은 희생으로 내가 베풀어 준 모든 것에 떳떳하단 말이나? 너희에 대한 나의 마음은 한결같아서 다른 선택지가 없지만, 너희는 나에게 음흉한 속셈과 판마음을 품고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본분이고 얼마 되지 않는 너희의 기능이다. 그렇지 않느냐? 설마 너희는 자신들이 아예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모른단 말이나? 그렇다면 너희가 어찌 피조물이라 불리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는 자기 자신이 잘 알지 않느냐? 너희는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용과 풍성한 은혜를 얻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은혜는 한 톨의 값어치도 없는 너희 소인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라는 것 없이 기꺼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너희 같은 사람들, 너희 같은 둔재들은 하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다. 오직 고난의 나날과 끝없는 징벌만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충성을 다할 수 없다면 너희의 운명은 곧 고통이고, 나의 말과 사역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면 너희의 결말은 곧 징벌이다. 그 어떤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삶도 너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너희가 누릴 몫 또한 없다. 너희에게 이것은 당연한 결말이며 자업자득이다! 그 어리석고 오만한 자들은 온 힘을 다하고 본분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요구가 당연한 것인 양, 손을 내밀어 은혜를 요구한다. 요구가 무위로 돌아가면 더욱 신의를 저버리는데, 이런 자에게 이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자질이 부족하고 이성 또한 전무하여 경영 사역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본분을 추호도 이행하지 못한다. 너희의 몸값은 이미 바닥을 쳤다. 이토록 은총을 베풀었음에도 너희가 보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극도로 패역한 것이다. 이런 것들로 너희를 족히 정죄할 수 있고, 너희의 나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비열함과 옹졸함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또 무슨 자격으로 다시 손을 내밀어 요구한단 말이냐? 너희가 나의 사역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하며, 나를 굳게 증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의 잘못이고 부족함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도리어 나를 공격하고, 나의 잘못이라고 허튼소리를 하며, 내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원망한다. 이것이 너희의 충성심이나? 너희의 사랑이나? 너희가 이것 말고 또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모든 사역에 있어 어떤 공헌을 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미 지극히 큰 관용을 베푼 것인데도 너희는 뻔뻔스럽게 이유를 따지고, 암암리에 나를 원망한다. 그런 너희에게 인간미가 조금이라도 있느냐? 사람의 본분 이행에 사람의 생각과 관념이 수없이 섞여 있을지라도 너는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사역하다가 불순한 것들이 섞이는 것은 자질의 문제지만,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패역이다. 사람의 본분은 사람이 복을 받거나 화를 입는 것과 무관하다. 본분은 사람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천직이므로 보수나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하고 이유도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본분 이행이라 할 수 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심판받은 후 온전케 되어 누리는 복을 말하고, 화를 입는다는 것은 사람이 형벌과 심판을 거친 후에도 성품 변화를 이루지 못해, 즉 온전케 되지 못해 받는 징벌을 말한다. 그러나 복을 받든 화를 입든 사람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것이다. 너는 복을 받기 위해 본분을 이행해서도 안 되고, 화를 입을 것이 두려워 본분 이행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내가 한마디 하겠다.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패역이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점점 변화하고, 또 그 과정에서 비로소 충성심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네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할수록 더 많은 진리를 얻게 되고,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본분을 진성으로 이행할 뿐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도태될 것이다. 그런 자는 진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본분을 이행하지도 않고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실행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변화되지 않은, 화를 입을 대상이다. 그들이 표현하는 것에는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은혜시대에 예수 또한 적지 않은 말씀과 사역을 했다. 그는 이사야와 어떻게 다르겠느냐? 다니엘과는 어떻게 다르겠느냐? 그는 과연 선지자냐, 아니냐? 왜 그를 그리스도라 하겠느냐?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더냐? 다 같은 사람이고 다 말을 했으며, 게다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모두가 말하고 사역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예언을 했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도 예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이나? 이런 것은 사역의 성격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네가 이런 일을 분별할 때는 그의 육신의 속성이 어떠한지, 그의 말씀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보지 말고 먼저 그가 행한 사역과 그 사역이 사람에게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당시에 선지자가 한 예언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못했다. 이사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받은 묵시는 생명의 도가 아니라 예언에 불과했다. 당시 여호와가 직접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 또한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들은 생명의 도였고, 사람은 그 속에서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첫째, 예수는 생명이므로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었다. 둘째, 예수는 사람의 치우치고 그릇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셋째, 예수는 여호와의 사역을 이어받아 시대를 이을 수 있었다. 넷째, 예수는 사람이 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고, 사람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낡은 시대를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라고도, 그리스도라고도 하며, 이사야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선지자와도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가 행한 사역을 예수의 사역과 대조해 보면, 첫째, 이사야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없었다. 둘째, 이사야는 시대를 열 수 없었다. 그는 여호와의 인도하에서 사역한 것이지 새로운 시대를 열며 사역한 것이 아니다. 셋째, 그가 한 말은 이사야 본인도 도달하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계시한 것이었으며, 다른 사람들 역시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몇 가지로 이사야가 한 말은 단지 예언이자 여호와를 대신해 행한 하나의 사역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야는 여호와를 완전히 대변할 수 없다. 그는 여호와의 종이자 사역 도구였다.

그는 율법시대에만 사역했고 여호와가 역사한 범위 내에서만 사역했을 뿐, 율법시대의 사역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예수가 행한 사역은 다르다. 예수는 여호와와 사역 범위를 뛰어넘어 사역했다. 그는 성육신 하나님의 신분으로 나타나 사역했으며, 십자가의 사역으로 전 인류를 속량했다. 다시 말해, 예수는 여호와가 행하지 않은 새로운 사역을 했다. 이는 바로 시대를 연 것에 속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말씀들을 할 수 있었다. 예수가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경영 사역이고 전 인류와 관련된 사역이지, 사람 몇을 만드는 사역도 아니고 한정된 사람을 인도하는 사역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었는지, 당시에 영이 어떻게 계시했는지, 영이 또 어떻게 사람의 몸에 임하여 역사했는지는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런 사실로는 그가 성육신 하나님임을 증명할 수가 없다. 현실적인 방법은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영이 행한 일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너 또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그가 행한 사역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다. 예수가 행한 사역을 보면, 첫째, 예수는 시대를 열 수 있었다. 둘째, 예수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리켜 줄 수 있었다. 이것으로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고, 최소한 그가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대변할 수 있었다고 확정할 수 있다. 즉, 예수가 행한 사역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은 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사역을 인도하며, 새로운 경지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몇 가지로 예수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대선지자들과 구분할 수 있다.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지식수준이 높은 부류로, 모두 여호와가 인도하던 비범한 사람들이었다. 성육신 하나님이 입은 육신도 식견이 있고 이성이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는 매우 정상적인 인성을 갖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안으로는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인성이 있는지, 그에게 어떤 남다른 인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에게는 초자연적이거나 특별한 점이 조금도 없고, 대단한 지식은 물론, 이론 수준도 대단하지 않다. 그가 말하는 생명과 그가 인도하는 길은 이론이나 지식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삶의 경험이나 가정 교육으로 얻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부 영이 직접 행한 사역, 즉 성육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념이 너무 크고, 특히 사람의 관념에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없고, 정상적이지만 연약한 인성을 지닌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모두 사람의 그릇된 관념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정상인이 아니라면 어찌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 할 수 있겠느냐?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비범한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된 ‘육신’이 아니다. 그가 육신임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성육신한 이상 반드시 정상적인 육신이어야 한다. 이것은 오로지 성육신한 의의를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선지자와 인자는 이와 다르다. 은사를 갖춘 그들은 성령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람이 보기에 그들은 아주 훌륭한 인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 인성을 뛰어넘는 많은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하나님처럼 여겼다. 지금 너희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유사 이래 모든 사람이 가장 헛갈려 한 일이며, 또한 성육신에 관련된 것은 가장 심오한 일이고, 성육신 하나님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나의 이 말은 너희가 기능을 다하는 데에도, 성육신의 비밀을 아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경영과 관련된 일이자 이상과 관련된 일이다. 너희가 이것들을 깨닫는다면 이상, 즉 경영 사역을 알아 가는 데 더욱 이로울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각 부류의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에 대해 깨닫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말들이 너희에게 직접 길을 가리켜 주지는 않지만, 너희가 진입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지금 너희의 삶에는 이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의 진입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 해결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진입할 동력을 잃게 된다. 그렇게 추구해서 어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과거 두 시대의 사역 중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다른 하나는 유대에서 행해졌다. 즉, 두 단계의 사역 모두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모두 최초의 선민에게 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다. 또한, 예수가 유대에서 사역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완성하였기에 유대인의 눈에 예수는 유대인의 구속주이며, 오직 유대인의 왕이지 다른 이들의 왕이 아니었다. 또 그는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을 속량하는 주인이며, 이스라엘에서 그가 속량한 백성은 유대인이었다. 사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재자이자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다. 다만 예전의 두 단계 사역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졌기에 사람들에게 관념이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였고 예수는 성육신하여 유대에서 친히 사역을 전개하였으니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가 애굽 사람이나 인도 사람에게는 사역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관념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의 범위 속에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민에게만 사역해야 하며, 반드시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하나님에게 사역 대상도, 사역 범위도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들은 성육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더 엄히 ‘통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사람의 관념이 아니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였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할 리 있겠느냐?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는 온 세상을 창조하였다. 6천 년 경륜은 온 우주 아래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창조된, 아담의 후손이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피조물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아담의 후손이라는 호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은 모두 피조물이자 아담의 후손이며, 패괴된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다. 이스라엘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인데, 다만 저주받은 피조물도 있고 축복받은 피조물도 있을 따름이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취할 점이 많았다. 처음에 그들에게 사역한 것도 그들이 가장 적게 패괴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에 비해 중국인은 많이 부족하며 뒤처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였고, 두 번째 단계의 사역은 유대에서만 행한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수많은 관념과 규례들이 생겼다. 사실 사람의 관념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이방으로 확장할 수 없다. 그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언서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고 이방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되어 있다. 왜 그렇게 말했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면 사역을 확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할 것이며, 그런 예언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예언을 한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족속과 각 나라, 각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할 것이다. 그는 말한 이상 반드시 행하며, 이는 그의 계획이다. 그는 본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자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역하든 유대 전역에서 사역하든, 그가 한 사역은 전 우주의 사역이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사역이다. 오늘날, 그는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다. 즉, 이방 족속에서 그의 사역을 하지만, 이것 역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다. 이스라엘은 그가 땅에서 펼치는 사역의 거점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그가 이방에서 펼치는 사역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실현된 때가 아니냐? 이방에서 행하는 사역의 시작은 큰 붉은 용의 국가에서 전개되는 이 사역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람의 관념에 특히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사역한다는 것과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사역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가장 비천하고 무가치하며, 처음에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모든 지위와 가치를 잃고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피조물로서 사탄에게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창조주께 버림받는다면 이는 그의 지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압의 후손은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낙후한 국가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지위가 가장 낮은 부류이다. 이들이 과거의 지위가 가장 낮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는 사역은 사람의 관념을 가장 잘 깨뜨리는 사역이며, 6천 년 경륜에 가장 이로운 사역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사역하면 사람의 관념을 가장 잘 깨뜨릴 수 있다. 이로써 시대를 열고, 사람의 모든 관념을 깨뜨리고, 은혜시대의 사역을 끝내는 것이다. 최초의 사역은 유대에서 행해졌고, 이스라엘의 범주에서 진행되었지만, 이방에서는 시대를 여는 사역이 전개된 적이 없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의 사역은 이방 사람들, 나아가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행해진다. 바로 이 점이 사탄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증거이다. 이로써 하나님은 전 우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되었고’, 만물의 주인이 되었으며, 생기 있는 모든 것들의 경배 대상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새 사역을 펼쳤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방에서 새롭게 시작하였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새로운 사역을 펼쳤다. 모압의 후손에게 행한 이러한 사역이야말로 가장 새로운 사역이 아니겠느냐? 만세와 만대 동안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역을 겪어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들어 본 사람도 없거니와 체험해 본 사람은 더더욱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신묘막측함, 위대함과 거룩함이 말세의 이 사역을 통해 명확히 나타났다. 이는 사람의 관념을 깨뜨리는 더 새로운 사역이 아니겠느냐? 혹자는 ‘하나님은 모압을 저주하셨고 모압의 후손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이제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의 개라고 불렀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들은 이방의 개일 뿐만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말이다. 최초에 이들은 이스라엘 범위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으며, 이방으로 쫓겨났으니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시대를 여는 사역을 한 것이다. 이들이 패괴된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무런 선택도, 목적도 없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들에게 행하는 사역 역시 피조물에게 행하는 사역이다. 노아가 피조물이었듯, 노아의 후손 역시 피조물이며, 하늘 아래 육에 속한 자는 모두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지 저주받은 피조물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경영 사역은 저주를 받지 않은 선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피조물에게 사역을 행하기로 한 이상, 반드시 이룬다. 그는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사역하기 때문에 모든 규례에서 벗어나 사역한다. 그 대상이 저주받은 자든, 형벌받은 자든, 축복받은 자든 상관하지 않는다! 유대인도 훌륭하고 이스라엘 선민 역시 괜찮다. 자질이 뛰어나고 인성 또한 좋다. 처음에 여호와와는 그들에게서 사역을 전개해 최초의 사역을 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들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 사역한다면 의미가 없다. 그들 역시 피조물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이 단계 사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정복할 수도 없고 모든 피조물을 설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역의 대상을 큰 붉은 용 국가의 사람들로 바꾼 의의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큰 의의는 시대를 열고 모든 규례와 사람의 온갖 관념을 깨뜨리며, 은혜시대의 사역을 끝내는 데에 있다. 오늘날의 사역을 예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다면, 6천 년 경륜이 끝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이방의 큰 붉은 용 국가에서 그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라는 사역을 완성하였고, 모든 경영 사역을 완전케 하였으며, 모든 경영의 중심 사역을 큰 붉은 용 국가에서 끝냈다. 3단계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즉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 단계의 사역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은 의미 없거나 가치 없는 사역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번 사역은 시대를 열고 예전 두 시대를 끝내는 한편, 사람의 모든 관념과 하나님을 믿는 낡은 방법, 그리고 고루한 인식법을 깨뜨렸다. 하나님은 예전의 두 시대에는 사람의 각기 다른 관념에 따라 사역하였지만, 이번에는 사람의 관념을 철저히 깨뜨리고 이를 통해 사람을 철저히 정복할 것이다. 모압의 후손을 정복함으로써, 그리고 모압의 후손에게 사역함으로써 전 우주의 사람을 정복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사역의 가장 큰 의의이자,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다. 이제 너는 자신의 신분과 가치가 보잘것없음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과 약속을 받았다고 여길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크나큰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라고 여길 것이다. 예전 두 단계의 사역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다. 만약 말세의 사역마저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다면, 모든 피조물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길 것이며, 전체 경륜 또한 결실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두 단계 사역을 했지만, 그 기간에 이방에서

새로운 사역이나 시대를 여는 사역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대를 여는 사역을 먼저 이방, 그것도 모압의 후손에게 행했으며, 이로써 전체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사람에게 관념으로 자리 잡은 모든 인식은 하나님께 깨어져 어느 하나 남지 않을 것이며, 사람의 관념과 낡은 인식법은 정복 사역으로 모조리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규례나 낡은 것이 전혀 없으며, 그의 사역은 아무런 매임도 없이 자유롭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도 옳다. 그가 피조물에게 행하는 사역이라면 너는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 또한, 그가 하는 사역은 모두 의의가 있다. 그는 사람의 선택이나 관념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과 지혜에 따라 사역한다. 그의 사역에 이로우면 그대로 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어림없다! 그는 사역의 의의와 목적에 따라 사역할 대상과 지역을 선택하지, 과거의 규례나 낡은 공식에 따라 사역하지 않는다. 그는 사역의 의의에 따라 사역을 계획하여 궁극적으로 참된 결실을 거두고 소기의 목적을 이룬다. 지금 네가 이런 점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역은 네게서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다.

## 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이 훗날의 종착지나 일시적인 누림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책망도 겪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온전케 되기 위한 것이나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자 상을 받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자신의 직책을 이행하거나 본분을 완수하는 데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천경지위(天經地緯)이자 사람의 천직이므로 살아가는 이상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이처럼, 사람마다 추구하는 목표는 제각각이지만 그 목적과 속셈은 모두 비슷하며, 또한 추구하는 많은 사람이 숭상하는 대상도 대부분 비슷하다.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신자들이 죽었고 또 수많은 신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고 나아가 1, 2천 명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개인의 앞날이나 훗날의 아름다운 소망을 위해 추구했을 뿐,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경건한 신자들이 수도 없이 자기 올무에 걸려 죽었고, 이긴 자는 언급할 가치도 없을 만큼 적다. 사람은 패배한 원인이나 이긴 비결을 지금까지도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열성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이런 비밀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심혈을 다해 추구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들이 가는 길은 앞사람들이

갔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이다. 그러니 어떻게 추구하든 간에 그들이 가는 길은 모두 어둠으로 통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얻는 것은 쓰라린 결과뿐 아니겠느냐? 과거에 성공한 사람을 따라 하는 자들도 최종적으로 복을 받을지 화를 입을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실패한 사람의 전철을 밟으며 추구하는 자들은 어떠하겠느냐? 더더욱 실패하고도 남지 않겠느냐? 그들이 가는 길이 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모두 헛된 길을 가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의 추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결국 거기에는 모두 원인이 있다. 아무렇게나 추구한다고 득실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가장 기본은 마음이 정직하며, 완전히 헌신하고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은 일생을 바쳐 참된 믿음을 얻음으로써 모든 진리를 얻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패한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 것이고, 더욱이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를 위해 본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보고서도 피해 자기 자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늘 실패한 사람이 갔던 길을 따라 추구하기 때문에, 또 늘 하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며 자신의 올무에 빠진다.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데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너무나 숭상하는 데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늘 무턱대고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대한 위인들과 인간 세상의 풍파를 겪은 사람들마저도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벌 속에서 죽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비명에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결말, 즉 그들의 죽음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들의 실패는 더더욱 하늘의 이치로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진리는 인간 세상에서 온 것이지만, 인간 세상의 진리는 그리스도가 전한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진리를 공급할 뿐, 사람이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를 얻는 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본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일이며,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사람의 종착지나 성패를 모두 하나님께 떠맡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 아니라 피조물이 이행해야 하는 본분과 직접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추구하고 종착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들의 결과만 알 뿐, 그들의 성공 비결이나 실패의 원인은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이 추구한 본질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너희의 추구도 대부분 실패할 것이고, 설령 소수의 사람들이 성공할지라도 베드로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추구하는 길이 옳은 길이라면 성공할 희망이 있지만, 네가 진리 추구를 위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너는 영영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또 바울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베드로는 온전케 된 사람이다. 그는 형벌과 심판을 겪은 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이 생겼고 그런 다음에야 완전히 온전케 되었다. 그가 간 길은 온전케 되는 길이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갔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가짐도 옳았기 때문에 온전케 된 것이다. 그가 간 길은 앞사람이 간 적 없는 새 길이었다. 반면 바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을 갔다. 다만 성령이 그를 쓰려고 했고 그의 은사와 모든 장점을 이용해 사역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몇십 년 동안 사역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는 그저 성령께 쓰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가 쓰임 받은 것은 그의 인성이 예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은사 때문이었다. 바울이 예수를 위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그를 쳤기 때문이지, 그가 기꺼이 예수를 위해 사역한 것은 아니었다.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깨우쳐 주고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한 사역은 그의 추구하고 인성을 대변할 수 없다. 바울이 한 사역은 종의 사역을 뜻한다. 즉, 그가 행한 것은 사도의 사역이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르다. 그도 일부 사역을 했고, 비록 바울만큼 큰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사역과는 달리 자신의 진입을 추구하면서 사역했다. 베드로가 한 사역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도의 자리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역했다. 바울도 사역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가 추구한 것은 그저 미래의 소망과 좋은 종착지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사역하면서 연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책망과 훈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자신을 위한 상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사역에는 그 자신의 체험이 없었다. 그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역을 위한 사역을 했다. 그의 사역에는 거래만 있을 뿐 피조물의 본분이나 순종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사역하는 동안 옛 성품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그가 한 사역은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 것일 뿐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바울은 온전케 되는 과정도, 책망을 받는 과정도 없이 바로 사역했다. 그의 마음가짐은 오로지 상을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다. 베드로는 책망과 훈계와 연단을 거친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의 사역 목적과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베드로는 사역은 그리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성품이 많이

변화되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진리와 참된 변화였지, 단순히 사역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바울이 많은 사역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역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였다. 설사 그가 협력했다 할지라도 그의 체험에서 온 것은 아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많지 않은 이유는 단지 성령이 그에게서 그리 큰 역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전케 되는지의 여부는 사역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상을 받고자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며, 더 나아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고자 했다. 겉모습도 다르고 본질도 다르다. 너는 사역의 양만 보고 그들 중에 누가 온전케 된 것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추구했으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었으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이런 각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대로 해냈다.

마지막에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한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한 사역은 온전케 하는 것이었고, 바울에게 한 사역은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들이 추구하는 관점이나 그들의 본성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둘 다 성령 역사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역사를 자신에게 적용하였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기도 했다. 반면 바울은 성령 역사를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만 공급했을 뿐,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리하여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 해 체험하고도 변화가 미미해 거의 천연적인 모습 그대로였으며, 여전히 과거의 바울이었다. 단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 ‘사역’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를 배웠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옛 성품, 즉 승부욕이 강하고 이익만을 꾀하는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역하고도 자신의 패괴 성품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옛 성품도 벗어 버리지 못했다. 이 옛 성품들은 그의 사역에서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바울은 그저 사역의 경험만 좀 늘었을 뿐이었다. 이 약간의 경험으로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고, 생존에 대한 그의 관점과 그가 추구하는 의의를 바꿀 수도 없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오랫동안 사역했고, 예수를 핍박하던 때의 행위를 다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속 인식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을 바치기 위해 사역한 것이 아니라 훗날의 종착지를 위해 마지못해 사역한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부터 그리스도를 고의로 대적한 패역자였으며, 원래부터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했고, 그저 자신의 성격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면서 성령의 뜻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의 본성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것이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령 역사에 버림받은 사람,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적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가 한 사역이나 그가 얼마만큼 바쳤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를 아는지, 진리를 실행했는지, 추구하는 관점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베드로도 예수를 따르면서 타고난 성품을 드러낸 적은 있었지만, 본성을 보자면 그는 처음부터 성령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원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성령께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명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리에 순종했다. 베드로는 비록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시험했지만, 이런 약간의 인성의 연약함은 그의 본성과 무관하며, 훗날 그가 추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또한 그의 시험이 적그리스도의 행위라고 증명할 수도 없다. 인성의 보편적인 연약함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인데, 너는 베드로만 예외적이기를 바라는 것이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는 것은 그가 어리석은 일을 몇 번 했기 때문 아니더냐? 반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숭상하는 것은 바울이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서신을 썼기 때문 아니더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본질을 분명히 알 수 있겠느냐? 진정으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작은 일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말이나? 베드로가 겪은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체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참된 체험이 없음을 증명할 수는 없고, 베드로가 온전케 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가 직접 선택해 수록한 것이 아니라 후세 사람이 편찬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사람의 뜻에 따라 선택된 것 아니겠느냐? 게다가 서신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결말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신의 안목과 취향에 따라 베드로와 바울을 평가하게 되었다. 또 바울은 사역을 아주 많이 하고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다. 사람은 모두 외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더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바울은 몇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숭상받는 대상이었는데, 누가 감히 그의 사역을 가볍게 부정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그저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바울처럼 큰 ‘기여’를 할 수 있었겠느냐? 기여한 것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바울이 먼저 상을 받아야 하고,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대할 때 단지 그의 은사를 빌려 사역했고, 베드로를 대할 때는 온전케 하고자 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수가 그들에게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본성에 따라 온전케 하거나 사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외적으로 기여한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본질과 사람이 원래부터 추구하는 길, 그리고 마음가짐을 본다. 사람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모두 사람의 관념과 안목에 따라 판단한다. 하지만 사람의 최종적인 결말은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처음부터 성공의 길을 가고 올바른 관점으로 추구한다면 너는 베드로처럼 될 것이고, 반대로 실패의 길을 간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바울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어쨌든, 너의 종착지나 성패는 네가 희생한 것이나 치른 대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길이 옳은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은 본질이 다르고 추구한 목표도 다르다. 이런 것들을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온전히 알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본질을 보지만,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사람 내면의 본질을 보지 못하며 내면의 실제 분량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의 성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숭상하지, 베드로를 숭상하지는 않는다. 바울이 쓰임 받아 공개적으로 사역한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바울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베드로의 체험은 사람들이 볼 수 없고 그가 추구한 것은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베드로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베드로는 책망과 연단을 겪어 온전케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겠나이다. 제가 행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기만을 원하나이다. 설사 형벌과 심판을 받을지라도 기꺼이 원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사역과 말, 모든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체험할수록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졌다. 반면 바울은 표면적으로만 사역했다. 비록 그도 공을 들이긴 했지만 그것은 사역을 잘해서 상을 받기 위함이었다. 만약 그가 자신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사역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마음속 진실한 사랑과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이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바울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사역하는 것에 치중하고 외적인 사역과 기여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정상인의 체험에 없는 도리적인 것을 중시했다. 그는 깊은 곳의 변화와 진실한 사랑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베드로의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참된 인식을 갖기 위함이었으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실제적으로 살아 내기 위함이었다. 바울의 사역은 예수에게 받은 사명을 위한 것이자 자신이 얻고자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자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했다. 그의 사역은 전적으로 형벌과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드로는 순결한 사랑을 추구했고,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추구했다. 베드로는 여러 해 동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 역시 순결했다. 여러 해 연단을 겪으며 예수와 생명에 대한 그의 인식도 높아졌다. 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자발적인 사랑이었다. 그는 보수를 바라지 않았고 그 어떤 이득도 바라지 않았다. 반면 바울은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 그가 사역하고 열심히 뛰어다닌 것은 마지막에 월계관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최고의 면류관이지 가장 순결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자발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추구했으며, 본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에 붙들려 어쩔 수 없이 추구했다. 그러므로 바울의 추구는 그가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임을 증명할 수 없다. 베드로야말로 본분을 이행한,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기여하면 상을 받아야 하고 또 크게 기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관점을 보면 그 본질은 거래의 성질을 띤 것이지, 자발적으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즉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사람에게 사람의 원래 본분을 회복하고 원래 지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람은 피조물이므로 선을 넘어 하나님께 그 어떤 요구도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바울과 베드로의 종착지는 그들이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되었다.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이 사역했는지,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가 아니라 그들이 원래 추구한 것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길이 가장 옳은 길이며, 옛 성품을 변화시켜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인 것이다. 성공의 길이란 피조물이 원래의 본분과 모습을 되찾는 길, 즉 회복의 길이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한 모든 사역의 근본 취지이다. 사람의 추구에 여전히 자신의 사치스러운 요구와 불합리한 소망이 섞여 있고 성품 변화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회복의 사역과 서로 어긋나며 틀림없이 성령이 행한 사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추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추구가 또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바울이 한 사역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가 마음속 깊이 얼마나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은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그가 행한 사역만 보고 그가 확실히 성령께 쓰임 받았다는 것만 알 수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훌륭하고 그가 행한 사역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단지 개인의 체험만을 중시했다. 가끔 사역을 해도 사람을 많이 얻지 못했으며, 몇 통 안 되는 서신도 이름나지 않았다. 하지만 베드로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가 알 수 있었겠느냐?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했고, 사역이 있기만 하면 가서 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사역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추구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흡족게 하지 못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지 못하면 통회했으며, 그 후에 적합한 길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기 위해 힘써 노력했다. 그는 생활 속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려고 했으며, 자신의 옛 성품을 조금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진리에 깊이 들어가려고 했다. 반면, 바울은 외적인 명예와 지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추구했을 뿐 생명 진입에서 깊이를 더하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실체가 아니라 도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그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해 겨우 그 정도 사역했을 뿐이고 교회에 기여한 바도 별로 크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간증이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어떠했느냐?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너는 아느냐?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느냐? 베드로가 사역을 한 것은 또 무엇을 위함이었느냐? 베드로가 비록 사역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너는 아느냐? 바울이 한 사역은 교회에 공급하고 교회를 붙들어 주는 것이었으며, 베드로가 체험한 것은 생명 성품의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네가 그들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고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한 사람은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있었고, 한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없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섬긴 까닭에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숭상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형상을 가졌다. 한 사람은 성결해지기를 추구했고, 한 사람은 성결해지기를

추구하지 않았다. 더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순결한 사랑은 전혀 없었다. 한 사람은 진정한 인성이 있었고, 한 사람은 진정한 인성이 없었다. 한 사람은 피조물의 이성이 있었고, 한 사람은 피조물의 이성이 없었다. 이것이 바울과 베드로의 본질적인 차이다. 베드로가 간 길은 성공의 길, 즉 정상 인성을 회복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회복하는 길이었다. 베드로는 성공한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바울이 간 길은 실패의 길이었다. 바울은 겉으로만 순종하고 헌신할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진리가 없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흠족게 하고자 했으며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에 순종하고자 했다. 그는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연단과 환난, 궁핍한 생활 역시 받아들였으며,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것 아니겠느냐?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한 것 아니겠느냐? 형벌이든 심판이든 환난이든 너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피조물이 도달해야 하는 경지이자, 사랑 안에 있는 순결한 요소이다. 사람이 이런 경지에 도달한다면 그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창조주의 마음을 흠족게 할 수 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는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죄받을 것이다. 너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진리를 실행하는 것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창조주를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할뿐더러 창조주께 순종하지도 않고 창조주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너는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창조주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에 큰 책임감을 갖고 있었으며, 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서신 13권은 은혜시대를 2천 년 동안 유지했고요. 4복음서를 제외하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의 13권 서신인데, 누가 그와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쓴 계시록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지만, 바울이 쓴 서신은 모두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는 교회에 유익한 사역을 했지요. 다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기여도를 따지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람의 본성을 기준으로 한다. 바울은 생명을 추구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그는 결코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본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세부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면과 연약한 면, 피조물의 패괴 성품에 대해 모두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성품의 변화를 위한 실행의 길도 있었다. 그는 이론만 있고 실체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변화한 사람은 구원받은 새사람이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합격이다. 반대로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천연적인 모습 그대로인 옛 사람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가 아무리 큰 사역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너 자신의 추구하고 비교해 보면, 네가 베드로 같은 사람인지 바울 같은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네가 추구함에 있어 여전히 진리가 없고, 지금까지도 바울처럼 교만하고 거칠게 굴며 허풍을 늘어놓는다면 너는 패배한 인간쓰레기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네가 베드로처럼 추구하고자 한다면, 즉 베드로처럼 실행하고 진실하게 변화하고자 하며, 교만하게도 방자하게도 굴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너는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일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본질과 패괴를 알지 못했고 자신의 패역은 더욱 알지 못했다. 그는 예전에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비열한 행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크게 통회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조금 해명했을 뿐이다. 그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온전히 굽히지 않았다. 비록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엎드리기는 했지만, 자신을 마음속 깊이 성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역하는 것에만 만족했다. 바울은 자신을 알아 가는 것과 자신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입에만 달고 있는 진리로 만족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을 달래는 것에 만족했으며, 예수의 제자들을 더 이상 핍박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에 만족했다. 그가 추구한 목표는 그저 훗날의 면류관과 일시적인 사역이고, 풍성한 은혜였을 뿐, 충분한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지난날 깨닫지 못한 진리에 더 깊이 진입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의 인식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형벌과 심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본성과 본질에 대해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외적인 행위에만 치중하고 변화가 아닌 인식에만 힘썼다. 그가 사역을 한 것은 전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가 그에게 나타난 결과였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의지를 가졌던 것이 아니고, 옛 성품이 책망받은 후에 사역을 한 것도 아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하든 그의 옛 성품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그가 지난날에 지은 죄를 속량하지 못하고 그저 당시의 교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이렇게 옛 성품이 고쳐지지 않은 사람, 즉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더욱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예수께 열납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랑과 경외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진리를 찾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성육신의 비밀을 찾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그저 궤변에 능하고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나 진리가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굽히기 싫어한 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과 상반되거나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 혹은 진리를 질투했으며, 위대한 형상을 지니고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인재들을 좋아했다. 그는 진리만을 사랑하고 참도를 찾는 가난한 사람들과 왕래하기를 싫어했고, 도리만 말하고 지식이 풍부한 종교계 고위층 인사들과 접촉하기를 좋아했다. 그가 좋아했던 것은 성령의 새 역사가 아니었고, 그가 중요시했던 것도 성령의 새 역사 동향이 아니었다. 그는 일반적인 진리보다 높은 규례와 도리를 좋아했다. 그의 선천적인 본질과 그가 추구한 모든 것을 놓고 보면,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전혀 없고, 하나님 집의 충실한 종이라고 불릴 자격은 더더욱 없다. 그에게는 가식적인 것이 너무 많고 패역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예수의 종이라고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의 문에 들어설 자격이 전혀 없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한 것은 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한 적이 있지만 가식적이고 불의를 행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를 악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불의를 행한 자라고 하면 딱 맞을 것이다. 그가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의 양을 놓고 논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가 한 사역의 질과 본질을 두고 논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의 경위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사역을 잘하고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주님의 부담을 생각한다. 아무도 나만큼 주님의 부담을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나만큼 깊이 회개하지 못했다. 나는 큰 빛 비춤을 받았고, 큰 빛을 보았으니 누구보다도 깊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바울의 생각이었다. 그는 해야 할 사역을 끝낸 후 이렇게 말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야 할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가 싸우고 사역하고 달려온 것은 전적으로 의의 면류관을 위한 것이었지, 적극적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바울이 사역을 대충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역은 그저 자신의 과오를 만회하고 더 이상 양심에 참소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하루빨리 사역을 끝내고,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싸워야 할 싸움을 다 마쳐 자신이 소망하는 의의 면류관을 빨리 얻게 되기만을 바랐다. 그가 바라는 것은 자신의 체험과 참된 인식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사역을 끝내 예수를 만났을 때 사역한 것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었다. 그는 사역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사역으로 거래함으로써 훗날의 면류관과 맞바꾸려고 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진리도 하나님도 아닌 오로지 면류관이었다. 이런 것을 어찌 제대로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의 속셈, 그가 한 사역, 그가 치른 대가, 그의 모든 희생은 자신의 아름다운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사사로운

소망에 따라 사역했다. 그가 모든 사역에서 치른 대가는 기꺼이 원해서 치른 것이 아니라 그저 거래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렀던 것이다. 그렇게 치른 대가가 또 몇 푼의 가치가 있겠느냐? 누가 또 그 깨끗하지 못한 대가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런 대가에 흥미를 갖겠느냐? 그의 사역에는 내일에 대한 몽상과 아름다운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길은 전혀 없었다. 그에게는 가식적인 자비가 너무나 많았고, 그의 사역은 생명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고상한 척하며 거래를 한 것이었다. 그런 사역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람의 원래 본분을 회복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추구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설사 고통받고 화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자 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추구다. 바울이 추구한 것에는 자신의 육체, 자신의 관념, 자신의 타산과 의도가 섞여 있었다. 그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 전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자 구한 사람도 아니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대로 따르고자 했다. 비록 베드로가 한 사역이 크지는 않지만, 그가 추구한 마음가짐과 걸어온 길은 옳은 것이었다. 그는 사람을 많이 얻지는 못했지만 진리의 도를 추구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까닭에 그가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설령 네가 지금은 사역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대로 모두 따를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어떤 환난과 연단도 모두 겪을 수 있어야 하고, 연약하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생명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추구하는 관점이 옳바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한다. 네가 많은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도 너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해도, 정작 너 자신은 변화가 없고 조금의 간증도, 참된 체험도 없으며, 죽기 전까지도 네가 하는 일에 간증이 전혀 없다면, 이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겠느냐?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겠느냐? 성령이 당시에는 너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때 사용하는 것은 네가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네가 변화를 추구한다면 쓰임 받는 과정에서 점차 온전케 될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네가 얻어지는 것까지 성령이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네가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너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가 추구하는 관점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 자신의 문제로, 이는 너 자신이 진리를 실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체험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의 진입이 가장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로는 없어도 고생은 했으니 최소한 제가 천국에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먹게는 해 주셔야죠.”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나라에는 더러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더러운 사람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네가 오랫동안 많은 사역을 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더럽기 짝이 없다면, 네가 내 나라에 들어가려는 것은 하늘의 이치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그 어떤 이에게도 특혜를 준 적이 없다. 이것은 아무도 깰 수 없는 하늘의 규칙이다! 너는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 오늘날 내가 온전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베드로 같은 부류의 사람이고, 자신의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만이 온전케 될 수 있다. 만약 네가 자신의 생명 성품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상만 받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다!

베드로와 바울이 지닌 본질의 차이를 통해, 너는 마땅히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패괴 성품을 벗어 버려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자 해야 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상, 너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고, 개인적인 선택과 요구가 없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해야 한다. 너는 지음 받은 사람인 이상 너를 지은 창조주께 순종해야 한다. 너는 원래부터 너 자신을 주관할 수 없고, 너의 운명을 지배할 본능도 없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이상 성결해지고 변화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너는 피조물인 이상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분수를 알아야 하며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교조적인 것으로 너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네가 본분을 이행하는 경로이자,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의 본질을 비교해 보면 네가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이 간 길 중 하나는 온전케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도태되는 길이다. 그들 두 사람은 두 갈래 길을 대표한다. 비록 그 두 사람 모두 성령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었으며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각자 맺은 열매는 전혀 달랐다. 한 사람은 참된 성과가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참된 성과가 없었다. 그 두 사람의 본질과 행한 사역, 겉으로 드러난 것과 마지막 결말을 통해, 너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그 두 사람이 간 길은 가장 분명한 두 갈래 길이다.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은 각각 두 갈래 길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을 전형적인 예로 삼은 것이다. 바울의 체험에서 핵심은 무엇이나? 그는 왜 얻지 못했느냐? 베드로의 체험에서 핵심은 무엇이나? 그는 어떻게 체험해서 온전케 되었느냐? 이 두 사람이 각각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비교해 보면, 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온전케 되고 어떤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없는지, 온전케 되는 사람의 성품은 어떠한고 온전케 될 수 없는 사람의 성품은 또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는 베드로와 바울의 체험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순종하게 한다. 그는 만유를 주관하여 만유가 모두 자신의 수중에 있게 한다. 동물, 식물, 인류, 산천, 호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그의 권세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하늘의 만물이든 땅의 만물이든 모두 그의 권세 아래로 돌아올 것이며, 선택의 여지 없이 모두 그의 지배에 순종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규정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병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여 만물이 다 질서를 갖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뉘며 각각 자기 위치에 있게 한다.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으며 모두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를 위해 이바지한다.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음 받은 사람도 반드시 사람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든 만물의 관리자든 관계없이, 또 사람이 만물 가운데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작디작은 사람일 뿐이다. 그저 작디작은 사람이고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 피조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고,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의 이익과 소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옳은 추구 방식이다. 네가 추구하는 것이 진리이고 실행하는 것이 진리이며 얻은 것이 성품의 변화라면, 너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네가 추구하는 것이 육적인 복이고, 실행하는 것이 자신의 관념 속 진리이며, 성품에 어떤 변화도 없고 육신의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은 채 여전히 막연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면, 네가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너를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네가 실패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온전케 될지, 도태될지는 너 자신의 추구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

사람의 사역에서 성령의 역사는 얼마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사람의 체험은 얼마만 한 부분을 차지하느냐?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원칙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사람의 사역이란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거나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의 사역을 가리킨다. 즉, 사람의 뜻에서 나온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범위 안에 있는 사도나 일꾼, 또는 일반 형제자매들의 사역을 일컫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의 사역’은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범위와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성령 역사의 원칙이자 범위이지만, 성육신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의 원칙 및 범위와는 다르다. 사람의 사역에는 사람의 본질과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원칙이 있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든, 쓰임 받는 사람의 사역이든 모두 성령의 사역이다. 하나님 자신의 본질은 원래 영이기 때문에 영은 성령이라고도, 일곱 배 강화된 영이라고도 하며, 어쨌든 모두 하나님의 영이다. 단지 시대가 다름에 따라 하나님의 영에 대한 호칭이 다를 뿐, 그 본질은 여전히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원래부터 성령의 사역이며,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 또한 성령의 사역에 속한다.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는 사역 역시 성령의 사역이다. 다만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완전한 발현으로, 조금의 오차도 없지만, 쓰임 받는 사람의 사역은 성령의 직접적인 발현이 아니고, 완전한 발현은 더더욱 아니며, 사람에게 속하는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 성령은 역사 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어떤 조건의 제약도 받지 않으며,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르게 역사한다. 이러한 역사는 모두 각기 다른 사역의 본질을 나타내며, 시대별, 국가별로 행하는 사역도 다르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는 방식과 원칙은 매우 다양하지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든 모두 서로 다른 본질을 갖는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는 역사는 모두 원칙이 있으며, 역사할 대상의 본질을 대변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적합한 범위와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게서 행해지는 사역은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과 다르고, 자질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도 서로 다르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게서 행해지는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게서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과 같은 사역을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대상에 따라 행해지는 사역이 서로 다르며, 다양한 사람의 내적 상태와 본성에 따라 그가 역사하는 원칙도 다르다. 성령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본질에 따라 역사하지,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본질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지 않고, 본디

갖고 있는 자질을 뛰어넘어 역사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에게 하는 사역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대상의 본질을 보여 준다. 사람의 고유한 본질은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질은 한계가 있다. 성령은 사람을 쓰거나 사람에게 역사할 때, 사람의 유한한 자질에 따라 역사하여 사람에게 얻는 것이 있도록 한다. 성령은 쓰임 받는 사람에게 역사할 때,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과 고유한 자질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한다. 고유한 자질을 모두 발휘함으로써 사역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 즉, 그는 사람에게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해 사역함으로써 사역 성과를 내는 것이다. 반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게서 하는 사역은 직접 영의 사역을 발현하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사유가 섞여 있지 않다. 이는 사람의 은사나 체험, 선천적 조건으로는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의 다양한 역사는 모두 사람에게 유익하며,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뤄진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온전케 될 수 있는 데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온전케 될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온전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되기도 힘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도 결국엔 도태되고 만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온전케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길은 온전케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그저 성령의 일방적인 역사만 있을 뿐, 사람의 주관적인 협력도, 올바른 추구도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뤄지는 성령의 역사는 온전케 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역사가 된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직접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 다만 사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 그 사역을 발현할 뿐이다. 즉,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발현됨으로써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각양각색의 사람을 통해, 그리고 서로 다른 조건을 통해 이뤄지고 온전케 된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시대 전체의 사역과 그 시대 사람의 진입을 대변하지만, 사람의 구체적인 진입과 관련된 사역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통해 이뤄지며, 성육신 하나님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 자신의 직분은 성육신이 하는 사역이며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통해 온전케 되지, 어느 한 사람이 완전히 이를 수 있는 것도, 전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회들을 이끄는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으며, 이끄는 사역의 일부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 쓰임 받는 사람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부분의 사역 중에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시대 전체를 인솔하는 것이다. 쓰임 받는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 있는 뒤에 보내심을 받거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솔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그 자신의 모든 사역을 수호하기 위한 것, 즉 모든 경영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자 그의 증거를 수호하는 동시에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 부분의 사역이야말로 성령의 완전한 사역이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 없다면, 모든 경영 사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전 인류와 관계된 사역이자 시대 전체를 대변하는 사역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성령 역사의 모든 동향과 추세를 대변한다. 반면, 사도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 있는 이후에 이어지는 것으로, 시대를 이끌지 못하며,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성령 역사의 동향을 대변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을 할 뿐이며, 경영 사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은 경영 사역의 내용이지만, 사람이 하는 사역은 단지 쓰임 받는 사람이 이행하는 본분이며 경영 사역과는 무관하다. 신분, 그리고 행하는 사역이 대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하나님 자신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의 본질적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또한,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진 대상에게 이뤄지는 성령의 역사에도 경중의 차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역사의 원칙과 범위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그 사람의 체험과 인성을 대변한다. 사람이 공급하는 것과 사람이 하는 사역은 그 사람을 대변하며, 사람의 사역에는 사람의 깨달음, 사람의 추리, 사람의 논리는 물론이고, 풍부한 상상력까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사람의 체험은 사람의 사역을 더 잘 대변한다. 사람이 어떤 것을 체험하면 그 사람의 사역에 그런 성분이 묻어나기에 사람의 사역은 사람의 체험을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소극적인 상태에서 체험을 했다면, 그가 교제하는 말의 대부분은 소극적인 성분이다. 그가 그동안 긍정적으로 체험하고 특별히 긍정적인 면에서 길이 있다면, 그의 교제는 다른 사람을 고무시킬 것이고, 사람은 그에게서 긍정적인 부분의 공급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 사역하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되었다면, 그가 교제하는 말에도 늘 소극적인 성분이 들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제는 사람을 가라앉게 하며, 사람들은 그의 교제가 끝난 후 자기도 모르게 침울한 기분이 들게 된다. 따르는 사람의 상태는 이끄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사역하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은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흔히 사람의 내적 상태에 따라 변한다. 성령은 사람의 체험에 맞춰 역사하고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사람의 정상적인 체험 과정에 따라 요구한다. 다시 말해, 사람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사람은 자신이 본 것과 체험한 것을 교제하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토대로 자신이 보고 체험한 것을 나타낸다. 그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사역이나 말씀이 끝난 후, 마땅히 실행해야 할 것과 진입해야 할 것을 찾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역은

사람의 진입과 실행을 대변한다. 물론, 이러한 사역에는 사람의 경험과 교훈, 또는 일부  
 생각들이 섞여 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든, 사람을 통해 역사하든 아니면 성육신을 통해  
 역사하든, 모두 사역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모두 사람의 고유한 어떠함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다. 성령은 아무 까닭  
 없이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성령은 아무 근거 없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의 성품이나, 넓은 관념, 넓은  
 사상이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모두 사람이 보고 체험한 것이며, 사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도리나 관념이라고 해도 전부 사람의 사유로 닿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크기에 상관없이 사람이 체험한 것, 본 것,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구상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은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으로,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사람의 사유로 이를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전 인류를 이끄는 그의 사역을 선포하는데, 이는 사람의 세부적인  
 체험과 무관하며, 그 자신의 경영과 연관된다.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사람의 체험이고,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이다. 이 어떠함은 곧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으로,  
 사람이 갓출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체험은 하나님이 나타낸 어떠함을 토대로 보고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인식한 것을 모두 사람의 어떠함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의 고유한  
 성품과 자질을 토대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사람의 어떠함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체험하고 본 것을 교제할 수 있다. 체험하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나 사람의 사유로  
 닿지 못하는 것, 즉 사람의 내면에 없는 것은 교제할 수 없다. 만약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상상이나 도리일 것이다. 요컨대 그런 말에는 실체가 조금도  
 없다. 가령 네가 사회의 일을 겪어 본 적이 없다면 너는 복잡한 사회관계를 제대로 교제할  
 수 없다. 또한, 너에게 가정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가정사를 교제할 때 너는 그가 말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의 교제나 사역은 그 사람 내면의 어떠함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을 교제할 때, 너에게  
 체험이 없으면 너는 상대방의 인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고, 더욱이 상대방의 인식을 백  
 프로 확신할 수도 없다. 그가 교제하는 것은 네가 한 번도 체험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네가 사고를 통해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저 그의 인식을 통해  
 앞으로의 형벌과 심판의 길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길 역시 너에게 이론적인  
 인식으로만 남을 뿐 너의 앎을 대체할 수 없으며, 너의 체험은 더더욱 대체할 수 없다.  
 어쩌면 너는 상대방의 인식을 들으면서 확실히 옳다고 여겼을지도 모르나, 막상 체험하게  
 되면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너는 상대방의 인식을

들었을 당시에는 그중의 일부를 근본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념을 갖고 마지못해 받아들였을지도 모르나, 막상 체험하게 되면 너에게 관념을 갖게 한 그 인식이 오히려 너의 실행에 길이 되어 주고, 또한 실행할수록 그 말의 실제 가치와 의의를 더 잘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너는 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네가 체험한 일에 대해 네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인식을 말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인식이 진실하고 실제적인지, 어떤 사람의 인식이 이론적이고 무가치한지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말하는 인식이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보려면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실제 체험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너의 체험 속에 진리가 있다면 너의 인식은 실제적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너는 체험을 통해 분별력과 식견을 키우고, 인식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와 상식을 늘릴 수도 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 인식은 아무리 높아도 그저 도리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은 육적인 일에는 아주 지혜로울지 몰라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분별력이 없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일에 있어 트이지 못한 사람이며,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가 어떤 측면의 인식을 말하든 그것이 네 어떠함이라면 곧 네가 직접 체험한 것이고 너의 진실된 인식이다. 언제나 도리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와 실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들의 어떠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도리 역시 고심을 거듭해 생각해 낸 것이고, 그들의 머리로 심사숙고한 끝에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단, 그것은 그저 도리이자 사람이 상상해 낸 것일 뿐이다! 다양한 사람의 체험은 각자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대변한다.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인식을 말할 수 없으며, 각종 영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말할 수 없다.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떠함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람은 영적인 것과 진리를 인식하려면 반드시 실제 체험이 필요하다. 너는 인성 생활의 상식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은 또 어떠하겠느냐? 교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 사람에게 생명 공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실제 체험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며,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 또한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만이 일꾼이나 사도가 되어 교회들을 이끌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작은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 뿐, 이끄는 자가 될 수 없으며,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도는 더더욱 될 수 없다. 사도의 역할은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싸우는 것도 아닌, 생명을 돌보고 사람의 성품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명과 중임을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지, 아무나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역은 생명의 어떠함이 있는, 즉 진리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만 맡을 수 있는 것으로, 포기할 수 있고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체험이 없고 책망과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사역을 할 수 없다. 체험이 없는 사람, 즉 실재가 없는 사람은 실재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에게는 이 측면의 어떠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인솔하는 사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진리가 없을 경우 도태될 대상이 된다. 네가 얘기하는 깨달음은 너라는 사람이 어떤 고난의 삶을 체험했는지, 어떤 일에서 형벌을 받고 심판을 체험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이는 시련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에서 연단을 받았고, 어떤 일에서 연약했다면, 그 일에 체험이 있고, 또 그 일에서 길이 생긴 것이다. 예컨대, 어떤 이가 결혼에서 좌절을 겪었다면, 그는 대부분 다음과 같이 교제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해 드려야 하며, 제 일생과 결혼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사람 내면의 모든 것과 어떠함은 교제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말의 속도나 성량 등 체험과 무관한 일은 사람의 소유와 어떠함을 대변하지 못한다. 그저 사람의 성격이나 본성의 좋고 나쁨에 대해 말해 줄 수 있을 뿐, 사람의 체험 유무와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는 없다. 말의 표현 능력이나 기교, 속도는 훈련이 가능한 일이기에 사람의 체험을 대신할 수 없다. 너는 네 체험을 교제할 때 네가 마음으로 중시하는 것과 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어떠함을 대변하지만,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이를 수 없다.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이 체험한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접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나의 어떠함이다. 어떤 이는 내가 교제하는 것이 내가 체험한 것이라고만 인정할 뿐, 영의 직접적인 발현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은 당연히 내가 체험한 것이고, 6천 년 경영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태초에 인류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체험했는데 어찌 말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꿰뚫고 있고 벌써 다 살펴보았는데, 어찌 제대로 말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고 있으므로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다. 사람은 모두 내게서 나왔고, 또한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내가 한 사역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 그 사역은 내 육신이 한 것이 아니지만 영의 직접적인 발현이고, 나의 소유와 어떠함이다. 그러기에 나는 발현할 자격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사역을 할 자격도 있다.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사람이 체험하고 본 것이며, 사람 혼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의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이러한 일들만 나눌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말은 영의 직접적인 발현으로, 영이 이미 행했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육신이 체험한 것도, 본 것도 아니지만, 나타내는 것은 여전히 그의 어떠함이다. 육신의 본질이 영이고, 나타내는 것은 영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설령 육신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영이 이미 행한 사역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후에 육신의 발현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하는 사역을 보게 한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사람들이 마땅히 진입해야 할 것과 깨달아야 할 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끌어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은 붙들어 주는 사역이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인류를 위해 새로운 활로와 시대를 열고, 평범한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밝혀 그의 성품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가 하는 것은 전 인류를 이끄는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은 전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며,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람에게 무익한 사역은 조금도 없다. 진리의 깊이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어떻게 행하든 사람에게는 전부 유익하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반드시 그와 협력하는 사람을 통해 그의 사역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야만 성령이 하려는 사역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한다면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사역하면 많은 불순물이 섞이게 마련이고, 이는 성령의 원래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진리도 어느 정도 달라지게 된다. 따르는 사람들이 얻는 것도 성령의 원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사람의 체험, 또는 사람의 인식이 결합된 것이다. 따르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얻는 부분은 정확한 것이고, 얻는 사람의 체험과 인식은 사역하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가 있고, 그들이 그 깨우침과 인도를 기반으로 체험하며, 그 체험 과정에서 사람의 생각과 경험, 인성의 어떠함이 결합되어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식이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진리를 체험한 후에 실행하는 길이다. 사람마다 체험이 서로 다르므로 이 실행의 길도 완전히 같을 수 없으며, 체험한 일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똑같이 성령의 깨우침이지만, 깨우침을 받은 사람에 따라 깨우침에 대한 인식과 실행이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실행할 때 오차가 작고, 어떤 사람은 오차가 크며,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틀리게 실행한다. 사람마다 이해 능력이 서로 다른 데다가 고유한 자질 또한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한 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진리를 듣고 저렇게 이해하며, 어떤 사람은 치우치는 면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리의 참뜻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해한 대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이는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가 하는 사역이 바로 그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가 이끄는 사람도 진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진다. 설령 그릇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소수일 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진리를 그릇되게 이해하는 자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의심할 여지 없이 치우치고 그릇된 것이다. 그런 자들은 모두 그릇된 자들이다. 철두철미하게 그릇된 자들이다. 따르는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인식 정도는 대체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에게 달렸다. 물론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는 오차가 없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사역하는 사람은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고 완전히 믿을 만하다고도 할 수 없다. 사역하는 사람이 진리 실행에 길이 있고, 또한 그 길이 매우 실제적이라면, 따르는 사람도 실행의 길을 갖게 된다. 만약 사역하는 사람이 진리 실행에 길이 없고 그저 이론만 있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실체가 전혀 없게 된다. 따르는 사람의 자질과 본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사역하는 사람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따르는 사람의 진리에 대한 이해 정도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모두 사역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이는 일부분 사람에게만 적용됨). 사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그를 따르는 사람도 그 사람처럼 된다. 사역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모두 자신의 어떠함이며, 또한 조금도 남기지 않고 나타낸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달성하길 원하거나 혹은 그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은 사역할 때 자신이 행한 것에 근거해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예 해낼 수 없는데도 말이다.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것은 진입의 방해물이 된다.

책망 훈계와 심판 형벌을 겪은 사람의 사역에는 편차가 훨씬 적고, 사역할 때 나타내는 내용도 훨씬 정확하다. 반면, 천성대로 사역하는 사람의 오차는 상당히 큰 편이다.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이 사역하면서 나타내는 것에는 천성적인 것이 너무 많아 성령의 사역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자질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책망과 훈계, 심판을 겪어야만 하나님이 맡겨 준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심판을 겪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진리의 원칙에 부합할 수 없고, 행하는 것이라고는 전부 천성적인 것과 인위적인 호의에 불과하다. 책망 훈계와 심판을 겪은 사람이 사역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할 때보다 훨씬 정확하다. 심판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은 육적인 것과 사람의 사유일 뿐이고, 거기에는 사람의 총명과 선천적인 재능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 아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의 선천적인 자질에 끌려 그의 앞으로 가게 된다. 그가 나타내는 것에는 사람의 깨달음과 체험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본뜻과 어긋나고 오차도 너무 크다. 그런 사람이 사역을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판과 형벌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 준 사역을 할 자격이 없다.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일꾼이 하는 사역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깊이 진입하게 할 수 있다. 그가 하는 사역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게다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며, 규례의 제약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고, 또한 생명이 점차 성장하고 진리에 더 깊이 진입하게 할 수 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꾼이 하는 사역은 이와 크게 다르다. 그는 어리석게 사역을 하며 사람을 규례 속으로 인도할 뿐이다. 그는 사람에 따라 요구를 달리하지도 않고, 사람의 실제 필요에 맞춰 사역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역에는 규례와 이론이 너무 많아 사람을 실제 속으로 이끌 수 없으며, 생명이 성장하는 정상적인 실행 속으로 이끌 수도 없다. 그저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규례를 지키게 할 뿐이다. 이러한 인도는 사람을 치우치게 만든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너를 어떻게 인도할지가 결정되며, 그는 너를 그의 소유와 어떠함 안으로 이끌 수 있다. 따르는 사람이 이끄는 사람의 자격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가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사역의 효과가 어떠한지, 따르는 사람이 얻은 것이 진리의 원칙에 맞는지, 사람의 변화에 적합한 실행의 길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너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역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어리석게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람의 진입에 관련된 일이다. 네가 누구의 인도에 길이 있고, 누구의 인도에 길이 없는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쉽게 미혹된다. 이것들은 모두 너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사역에는 천성적인 것이 너무 많고, 사람의 뜻도 너무 많이 섞여 있다. 그의 어떠함은 천성적인 것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듬어지면서 얻게 된 생명도, 변화를 거치며 갖게 된 실재도 아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겠느냐? 사람의 원래의 생명은 사람의 선천적인 총명이나 재능을 말한다. 이런 총명이나 재능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요구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온전케 되지 않고, 패괴 성품이 책망과 훈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진리와 거리가 매우 멀며, 사람의 상상과 단편적인 체험 등 막연한 것들이 섞여 있다. 또한, 그가 어떻게 하든 사람들은 총체적인 목표가 없고, 모든 사람의 진입에 적합한 진리가 없으며,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의 대부분이 어려운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뜻으로 행하는 사역이다. 사람의 패괴 성품, 사람의 사유와 관념은 사람의 온몸에 두루 퍼져 있고, 사람은 천성적으로 진리를 실행하는 본능이 없으며, 진리를 직접 깨닫는 본능도 없다. 거기에 패괴 성품까지 더해졌으니 그런 천성적인 사람이 사역을 하면 전부 방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온전케 된 사람은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한 체험이 있고, 사람의 패괴 성품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사역하는 과정에서 막연하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의 불순물도 점점 줄어들며, 그의 사역과 섬김은 하나님이 요구한 기준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리하여 그가 하는 사역은 진리의 실재에 진입하고 현실적이 된다. 사람

두뇌의 사유는 성령의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사람에게서는 풍부한 상상력과 합리적인 논리력, 그리고 노련한 처세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교정되지 않는다면 전부 사역을 가로막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역은 가장 정확한 수준에 이를 수 없으며, 특히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의 사역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범위가 있고 제한적이다. 한 사람은 특정 단계의 사역만 할 수 있을 뿐,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사역은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을 규례로 이끌게 된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특정 시기, 또는 특정 단계에만 적용될 뿐이다. 사람의 체험에는 모두 범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사람이 실행하는 길과 깨달은 진리는 모두 특정 범위에 적용되며, 사람이 가는 길이 완전히 성령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은 성령의 깨우침을 받을 수만 있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정상 인성의 범위 안에 있으며, 정상 인성의 두뇌 사유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진리 실재를 살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범위 안에서 체험한 것이다. 그들은 다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정상 인성의 삶 속에서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지, 정상 인성의 삶을 벗어나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 인성의 삶을 유지하는 기초 위에서 성령이 깨우쳐 주는 진리를 체험하며, 게다가 그 진리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고, 그 깊이도 사람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그들이 가는 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정상 인성의 삶이자, 성령의 깨우침이 있는 정상인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 성령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상 인성의 체험을 보면, 추구하는 사람이 다름에 따라 성령이 하는 사역도 각기 다르다. 또한, 사람이 체험하는 환경과 범위가 서로 다르고, 사람의 생각과 사유가 섞이기 때문에 사람의 체험에는 서로 다른 정도의 불순물이 섞이게 된다. 어떤 진리에 대한 인식은 각자 개인의 조건 차이에 따라 다르다. 그들이 인식하는 진리의 참뜻은 완전하지 않으며, 단지 어느 한 측면, 또는 여러 측면에 국한된다. 사람이 체험하는 진리의 범위 역시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똑같은 진리라고 해도 사람마다 인식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기에 성령의 뜻을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다고 해도, 또 사람의 체험이 성령이 하려는 온전케 하는 사역에 매우 근접한다고 해도 사람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긴 사역만 할 수 있으며, 그저 성령의 깨우침으로 얻은 인식과 자신이 직접 체험해서 얻은 진리만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성령의 대변인이 될 자격도, 조건도 없으며, 사람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자격 또한 없다. 사람에게서는 사람으로서의 사역 원칙이 있고, 사람은 모두 서로 다른 체험과 조건을 갖고 있다. 사람의

사역에는 성령의 깨우침으로 얻은 모든 체험이 포함되며, 이 체험은 사람의 어떠한 대변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의 어떠한이나 성령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는 길을 성령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역과 체험은 완전한 성령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흔히 규례에 빠지고, 사역 방식도 제한된 범위 안에 한정되기 쉬워 사람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인도할 수 없다. 따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살며, 체험 방식 또한 제한된 범위 안에 있다. 사람의 체험은 모두 한계가 있고, 사역 방식도 몇 가지로 한정되며, 성령의 사역이나 하나님 자신이 행하는 사역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람의 체험은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어떻게 행하든 규례가 없고, 하나의 방식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떤 규례도 없이 자유롭다.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따른 사람이라도 그의 사역 방식에서 어떤 법칙도 도출해 낼 수 없다. 비록 그의 사역에는 원칙이 많지만,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새로운 발전이 있으며, 게다가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시기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사역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몇 가지 인도를 할 수 있어 사람이 언제나 새로운 진입을 하고, 늘 새로운 변화를 얻게 한다. 그의 사역은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너는 그가 사역하는 법칙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따르는 사람들이 규례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은 언제나 사람의 관념을 피해 가고, 사람의 관념을 일축한다. 진심으로 그를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만이 성품의 변화를 얻을 수 있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으며, 어떤 규례의 제약이나 종교 관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람은 사역할 때, 자신의 체험과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해 사람에게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의 기준은 특정 범위에 국한되며, 실행 방법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따르는 사람까지 어느샌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살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규례나 의식이 형성된다. 만약 직접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지도 않고, 심판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사역을 맡긴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종교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합격한 리더라면 반드시 심판을 겪고 온전케 됨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심판을 겪지 않은 사람은 설령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도, 막연하고 실체가 없는 것만 나타내게 되며, 오랜 시간 인도하다 보면 사람을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규례 속으로 이끌게 된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의 육과 사유에 부합하지 않고, 사람의 관념에 반하며, 막연한 종교적 색채가 섞여 있지 않다. 그의 사역 성과는 그에 의해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고, 사람의 사유로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의 머리에서 비롯된 사역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계의 목사나

지도자들은 은사와 직함으로 사역을 하며, 오랫동안 그들을 따른 사람들도 그들의 은사에 전념되고 그들의 어떠함에 물든다. 그들은 사람의 은사와 재능, 그리고 지식을 중시하며, 초자연적인 것들과 심오하고 비현실적인 수많은 도리(물론 이 심오한 도리는 전부 사람이 이를 수 없는 것들임)도 중시한다. 그들은 사람의 성품 변화를 중시하지 않는 반면, 설교 능력과 사역 능력 육성, 그리고 지식과 풍부한 종교적 도리 함양을 중시한다. 또한, 사람의 성품 변화가 어떠한지, 사람이 깨달은 진리가 어떠한지는 중시하지 않으며,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와 비정상적인 상태는 더구나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의 관념을 일축하지도, 들추어내지도 않으며, 더욱이 사람의 부족한 점과 패괴 성품을 책망하지도 않는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대부분이 은사로 섬기고, 종교적 관념과 신학 이론만 퍼뜨리며, 현실과 동떨어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실 그들이 하는 사역의 본질은 인재 양성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신학교를 졸업한 수재로 양성하여 사역을 하도록 하고, 인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6천 년 사역에서 너는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느냐? 사람이 하는 사역은 규례와 격식이 많고, 사람의 생각은 너무 교조적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타내는 것도 사람의 체험 범위 안에서 얻은 인식과 체득에 불과하다. 사람은 이러한 것들 외에 다른 것은 나타내지 못한다. 사람의 체험이나 인식은 선천적인 은사나 사람의 본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직접적인 목양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은 이러한 목양을 받아들일 기관(器官)만 가지고 있을 뿐, 신성의 어떠함을 직접 나타낼 수 있는 기관은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은 원천이 될 수 없으며, 그저 원천 수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사람의 본능이자,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기관과 사람의 본능을 잃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잃고,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잃은 것이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서 인식과 체험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잃은 것이다. 즉, 피조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을 잃은 것이자 피조물로서의 존엄성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신성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본능이다. 육신으로 나타내든, 영이 직접 나타내든 그것은 하나님의 직분인 것이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과정에서, 혹은 사역이 끝난 후에 사람이 자신의 체험이나 인식을 말하는 것(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자 본분이고, 사람이 마땅히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는 많은 규례가 있을지라도,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함에 있어 조금도 여지를 두지 말고 성심성의를 다해야 한다.

사람은 여러 해를 사역하면 그동안의 사역 경험과 지혜, 법칙을 종합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사역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사역하는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성령이 언제 사역하고 언제 사역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책임감이 있다면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알 것이며, 성령이 사역하는 정상적인 상태와 사람의 생명이 자라는 정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오랜 기간의 사역으로 성령 사역에 대해 인식을 갖게 된 사람이다. 오랜 기간 사역을 해 온 사람은 매우 노련하게 말을 하고 당황해하지 않는다. 설령 할 말이 없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노련하게 사역하는 사람이다. 오랜 기간 사역하고 경험과 교훈을 많이 얻은 사람의 내면에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사역한 데에 따른 폐단이다. 사람이 처음 사역할 때는 사람의 교훈이나 경험이 섞이지 않고, 특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다. 하지만 점차 사역을 해 나가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찾을 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의 정곡을 찌를 수 있는지 등 사역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상식을 알게 된다. 시간이 오래되면 이러한 사역의 지혜와 상식에 대해 거의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게 되며, 사역할 때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역사 방식을 바꿀 경우에도 여전히 과거에 사역하던 상식과 법칙을 고수하며, 새로운 사역 동향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오랜 기간 사역한 데다가, 성령의 함께함과 인도로 인해 사람의 사역 경험과 교훈은 점점 더 풍부해지며, 이러한 것들로 사람의 내적 상태에 오만함이 섞이지 않은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사역에 상당히 만족하고, 자신이 얻은 성령 역사의 상식에 대해서도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얻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들로 그는 스스로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다. 마치 자신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반면 다른 사람은 이런 특별 대우를 누릴 자격이 없으며, 오직 것처럼 오래 사역하고 꽤 사용 가치가 높은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것들은 그가 성령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설령 그가 새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어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고루한 관념이 다스림을 받고 옛 성품이 심판을 거친 후에야 천천히 바로잡힐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는 그쯤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낡은 관념과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말씀이나 사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의 가장 곤란한 부분이며,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성령 역사에 대해 알 수 있고, 성령 역사의 동향을 종합할 수 있으며, 사역 경험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과거의

사역과 대조해 새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고 자격 있는 사역자이다. 사람은 보통 오래 사역하고도 사역의 경험을 종합하지 못하거나, 사역의 경험과 지혜를 종합한 후 그것이 새로운 사역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되어 과거와 현재의 사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도, 바르게 대하지도 못한다. 사람은 정말이지 다루기 어려운 존재다! 너희 중 많은 이가 이리하다. 성령의 역사를 오래 체험한 사람은 새 사역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언제나 관념으로 가득 차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반면, 이제 막 사역하기 시작한 사람은 또 사역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여 가장 간단한 일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 너희는 정말 다루기 힘들다! 경험이 조금 있는 자들은 자기가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거만하고 우쭐대며, 어린 사람들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정작 자신은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할뿐더러 오랜 세월 모으고 간직한 관념을 내려놓지도 못한다. 어리고 무지한 자들은 성령의 새 사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고 열정이 꽤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일을 맞닥뜨리면 판단력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열정은 있으나 너무 우매하며, 성령 역사에 대해 갖고 있는 약간의 인식은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하고 그저 사용 가치가 전혀 없는 도리가 될 뿐이다. 너희 같은 사람은 너무나 많다. 쓰기에 적합한 자는 몇 명이나 되겠느냐?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는 자는 몇 명이나 되겠느냐? 너희는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꽤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 아직도 관념을 다 내려놓지 못했고, 여전히 성경에서 찾으려 하며, 막연하게 믿거나 관념 속에서 방황한다. 오늘날의 실제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지하게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모두 과거의 관념 속에서 오늘날의 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너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는 너희가 드러내지 않은 수많은 관념이 잠복해 있으며, 다만 너희가 온 힘을 다해 감추고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너희는 진심으로 새 사역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며, 자신의 낡은 관념을 내려놓을 생각도 없다. 너희에게는 처세 철학이 너무 많고 너무 무거우며, 낡은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고 새로운 사역에 마지못해 대응한다. 너희의 마음은 너무나 음험해서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새 사역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 너희 같은 폐물들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전 우주로 확장하는 사역을 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작태가 너희의 성품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분명 도태될 대상이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너는 사람의 사역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사람의 사역에는 사람의 체험 성분이 많고,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다. 하나님도 사역할 때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지만, 그의 어떠함은

사람의 어떠함과 같지 않다. 사람의 어떠함은 사람의 체험과 생애(사람이 평생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는 어떤 처세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대변한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나타내는 어떠함은 서로 다르다. 네가 사회 경험을 갖고 있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모두 네가 나타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에서는 그의 사회적 이력을 볼 수 없다. 그는 사람의 본질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을 모두 들춰낼 수 있고, 사람의 파괴 성품과 패역 행위는 더욱 잘 들춰낼 수 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지 않지만 일반인의 본성과 세상 사람의 모든 파괴를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어떠함이다. 그는 세상살이를 해 보지 않았지만, 세상살이에 관련된 작은 것까지 잘 알고 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영의 역사를 알 수 있으며, 현재나 과거의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여기에는 처세 철학이 아닌, 지혜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기묘함이 담겨 있다. 이것은 그의 어떠함으로, 사람에게 공개되기도 하고, 숨겨져 있기도 하다. 그가 나타내는 것은 비범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영의 고유한 속성과 어떠함이다. 그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천하의 일을 알고 있다. 그는 지식도, 식견도 없는 ‘유인원’들을 접했지만 지식보다 뛰어나고 위인보다 고매한 말씀을 선포한다. 또 인성이 없고 인성의 규칙과 인성 생활을 모르는 어리석고 무감각한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인류에게 정상 인성으로 살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동시에 인류의 비열하고 천박한 인성을 들춰낸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어떠함이며, 육에 속하는 그 어떤 사람의 어떠함보다도 높다. 그는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불결한 사회생활을 체험하지 않고서도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파괴된 인류의 본질을 남김없이 들춰낼 수 있다. 불결한 사회생활은 그의 육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의 사역과 말씀은 사람의 패역을 들춰내기만 할 뿐, 사람에게 처세 경험이나 교훈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때, 사회 조사도, 사람의 가정 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 그가 사람을 들춰내고 심판하는 것은 그의 육신이 체험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패역을 알고 인류의 파괴를 증오했기에 사람의 불의를 들춰내는 것이다. 그가 하는 사역은 다 사람에게 그의 성품을 공개하고, 그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사역은 그 자신만이 할 수 있으며, 육에 속한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가 한 사역을 놓고 보면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를 피조된 인간으로 분류할 수도 없으며, 또한 그의 어떠함을 놓고 봐도 그를 피조된 인간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래서 비인류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으로 분류한다. 사람의

이런 행동이 이치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육신의 체험을 대변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사역은 그 사람의 체험을 대변한다.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직접 진리를 선포하지만, 사람은 진리를 체험한 후에야 그에 상응하는 체험을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규례가 없고, 시간과 지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그의 어떠한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의 사역은 다 자유롭게 이뤄진다. 사람은 조건과 배경이 없이는 사역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진리에 대한 체험도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 자신의 사역인지, 사람의 사역인지는 대조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의 사역이 없고 사람의 사역만 있다면, 너는 사람의 말이 고차원적이어서 아무도 해낼 수 없고, 말투나 일 처리 원칙, 사역할 때의 능숙함과 진중함도 아무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만 알 뿐이다. 너희는 자질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우러러본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서는 그의 대단한 인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우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 정상적이며 실제적이지만, 그것은 또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사람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사람의 사역을 보면, 그 사람의 체험이나 상상력, 추리력이 아주 높고 인성이 특히 좋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람을 탄복하게 할 수는 있어도 경외와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지는 못한다. 사람은 사역 능력이 있고 체험이 깊으며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며 탄복하지만, 어찌 됐든 경외하지는 않는다. 그저 감탄하고 부러워할 뿐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사람이 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것임을 인지하며 신선함과 놀라움을 느낀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측량할 수 없고 지혜로우며 또 놀랍다는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그가 하는 사역의 비밀이 사람의 사유로 닿을 수 없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사람은 다만 그의 요구에 다다르고 그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 그를 뛰어넘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의 사역은 사람의 사유나 상상을 초월하고,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스스로도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지만, 그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새로운 길을 열어 사람을 더 새롭고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했으며, 그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진전과 시작을 얻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것은 탄복이 아니다. 탄복뿐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경외와 사랑이며, 하나님의 기묘함을 느끼고, 그가 하는 사역과 말씀을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한 사람은 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오묘한 느낌을

받곤 한다. 충분히 깊게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의 지혜로움과 기묘함을 느낄 수 있다. 그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무궁무진한 힘이 생겨난다. 두려움이나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추앙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깊이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형벌과 심판을 체험한 사람은 또 그의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을 느낀다. 그의 사역을 아무리 많이 체험한 사람이라도 그를 측량하지 못한다. 진실로 그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두 그의 사역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으며, 사람의 관념을 일축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한 탄복이나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실한 경외와 순종이다. 이렇게 많은 사역에서 진실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전부 그에게 탄복을 넘어선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그의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통해 그의 성품을 보았으며, 그로 인해 그에게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경외심과 순종을 자아낸다. 그의 어떠한 성품이 피조물과 같지 않고, 피조물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피조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경외와 순종을 받을 자격이 있고, 사람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을 체험하고, 또 그에 대해 진실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다 경외심을 갖게 된다. 그에 대한 관념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즉 그를 아예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일말의 경외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른다고는 하나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천성이 패역한 자들이다. 그의 이러한 사역이 이루려는 성과는 바로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에게 경외심을 갖고, 그를 경배하며, 조건 없이 그의 권세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역으로 이루려는 최종 성과이다. 이러한 사역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여태까지의 패역에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분명 도태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그저 탄복하거나 경원시하는 것에 그치고, 사랑이 조금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온전케 될 조건이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에게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인정은 더더욱 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심판을 겪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자는 본성을 고치지 못하는, 극도로 악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모두 도태되고 징벌받을 대상이며, 또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과 똑같이 징벌을 받게 된다. 그들이 받는 고통은 심지어 불의를 행한 사람이 받는 고통보다 더 크다.

### 3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총 세 단계로 나뉜다. 이 세 단계의 사역에는 창세 사역이 포함되지 않으며, 율법시대의 사역과 은혜시대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사역만 포함된다. 창세 사역은 온 인류를 탄생시키는 사역이지 구원하는 사역이 아니며, 인류의 구원과 무관하다. 창세 때의 인류는 사탄에 의해 패괴되지 않았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행할 필요가 없었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인류가 사탄에 의해 패괴된 뒤에야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 또한 인류가 패괴된 뒤에야 시작된 것이다. 즉, ‘경영’은 구원 사역의 시작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지, 창세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은 아니다. 경영 사역은 인류가 패괴 성품을 갖게 된 후 비로소 생겨났다. 그러므로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에는 세 부분만 포함되며, 네 단계나 네 시대가 존재할 수는 없다. 이야말로 정확한 설명이다.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 경영 사역은 이미 모두 끝났다. 경영 사역이 끝났다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이미 완전히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인류는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없다면 경영 사역은 물론, 3단계 사역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인류가 타락한 데다가 구원이 시급한 상태였기에 여호와와 창세 사역을 끝내고 율법시대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로써 비로소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 즉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인류를 경영한다’는 말은 막 창조된(패괴되지 않은) 사람이 땅에서 살도록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를 구원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패괴된 인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 경영’에 내포된 뜻이다. 창세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은 창세 사역을 제외한 3단계 사역만 포함한다.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에 대해 알려면 반드시 3단계 사역의 역사(歷史)를 알아야 한다. 이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피조물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인류가 패괴된 기원을 알고, 나아가 인류가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몇몇 규례만을 지키며 하나님의 환심을 살 생각만 할 뿐,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지, 인류가 패괴된 기원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피조물로서 부족한 부분이다. 실행할 수 있는 일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경영 사역의 큰 범주 안에 있는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면 너는 너무 교조적이다. 3단계 사역은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의 실상이자 온 세상에 임한 복음이며, 온 인류의 가장 큰 비밀이자 복음 전파의 근거이다. 네가 외곬으로 너의 생명과 관련된 간단한 진리만 알고자 하고, 이 가장 큰 이상(異象)과

비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 너의 생명은 빛 좋은 개살구와 다름이 없지 않겠느냐?

사람이 실행만 중시할 뿐,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를 썩히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실행해야 할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리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언젠가 네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공의롭고 위대하시며 지고지상하신 분이다. 그 어떤 위인도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라며 중요하지 않은, 입에 발린 소리나 하면서 중요하고 실질적인 말은 전혀 꺼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며, 또한 진리를 명확하게 교제하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의 내면에 부족한 것도 공급해 줄 수 없다면, 이는 본분을 잘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너는 먼저 진리와 깨달아야 할 이상을 갖춰야 한다. 네가 하나님 사역에 관련된 각 부분의 이상과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인식을 갖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도, 공의로운 심판이나 연단이 임해도 가장 큰 이상을 기반으로 하여 알맞게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든 그 근본 취지와 사역의 중심, 사람을 향한 뜻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의 말씀이 아무리 엄하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그가 사역하는 원칙과 사람을 구원하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를 드러내는 기간이 아니라면, 또 마지막 사역이나 전체 경륜을 끝내는 사역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가는 기간이라면,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는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너희 믿음의 토대여야 한다. 3단계 사역의 근본 취지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다시 말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인류를 완전히 구원하는 것이다. 3단계 사역은 각 단계마다 목적과 의의가 서로 다르지만 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의 일부이다. 그것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므로 각기 다른 구원 사역을 행한 것이다. 네가 3단계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면 각 단계 사역의 의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을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가장 큰 이상은 곧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의 토대가 된다. 너는 일부 간단한 실행이나 심오한 진리만 추구해서는 안 되며, 실행과 이상을 결합해야 한다. 실행 부분의 진리도 갖추고 이상 부분에 대한 인식도 갖춰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전면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다.

3단계 사역은 전체 경영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이 모두 3단계 사역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3단계 사역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는 방식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역하는 지혜도 모르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다양한 방식과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3단계 사역은 인류 구원 사역을 오롯이 나타내므로 3단계 사역을 모르면 성령이 역사하는 다양한 방식과 원칙도 알 수 없다. 한 단계 사역에서 남겨진 규례만을 고수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규례에 국한하는 자들이자 막연한 신앙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3단계 사역만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원의 전 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사탄을 물리치고 인류를 얻은 증거이자 하나님이 승리한 증거이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발현이다. 3단계 사역 중 한 단계의 사역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성품의 일부만 알 뿐이다. 그나마 알고 있는 그 한 단계도 사람의 관념 속에서 규례로 변질되어 하나님을 규정하기 쉽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일부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체하고, 거기에 자신의 상상까지 가득 뒤섞어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한, 지혜와 사역의 원칙을 유한한 범위에 단단히 국한시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번 그리한 것은 영원히 그러할 것이며, 영세까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직 3단계 사역을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최소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인의 하나님이나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한 단계 사역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얕은 그야말로 백사장의 모래 한 알과도 같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원로 종교가들이 왜 하나님을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하나님을 한 범주 안에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 아니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지식과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가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들은 체험이 알파하면서도 천성이 교만하고 방종하여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고 성령의 징계를 등한시한다. 또 자신의 미약하기 짝이 없는 낡은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입증’하고, 스스로 학식이 높다고 믿으며 온 세상을 주름잡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린다. 그런 자는 모두 성령께 혐오받아 버림받는 자이자 새 시대에 도태되는 자임을 어찌 알지 못한단 말이나?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알파한 지식으로 경망을 떠는 소인배들 아니냐? 얼마 되지 않는 성경 지식으로 세상의 ‘학술계’를 휘어잡으려 하고, 겨우 사람이나 가르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돌려세우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무르려는 야심을 품으며, 좁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6천 년 사역의 풍모를 한눈에 다 꿰뚫어 보려고 한다. 그런 자에게 무슨 이성이 있다고 하겠느냐!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역을 쉽사리 평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을

좀 말할 뿐 함부로 단정 짓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분수를 모르며, 또한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 실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론만 멋대로 떠벌릴 뿐이다. 이런 사람은 가장 무가치한 자이다. 성령의 역사를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모두 경박한 자들이다! 이들은 성령의 새 역사를 마주하고도 신중하게 대하기는커녕 함부로 지껄이고 멋대로 평가하며, 자기 성미대로 성령 역사의 정확성을 부인하고, 모욕적인 말과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오만불손한 자들은 모두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하고, 천성이 거만하며 방자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자는 언젠가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용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한다. 그러니 그런 악당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사함 받지 못할, 영원히 지옥에 멸할 대상이다. 그 오만하고 방종한 자들은 또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을 내건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더 쉽게 거스른다. 천성적으로 방종하고 복종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은 모두 그런 길을 가지 않더냐? 모두가 이렇게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지 않더냐? 오늘날 3단계 사역의 중요성을 알라고 하는 것에 대해 너희는 이해해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은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 타고 쫓구경하듯 한다면 나의 심혈이 헛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모두 자신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언변이 뛰어나고, 이치적인 문제는 거침없이 대답하는 많은 사람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한다. 너희는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언행이 경망스러우며, 옛 성품을 고치지 않는다. 자신의 추구 방법을 바꿔 더 높은 진리를 얻으려 하지는 않고 대부분 그저 되는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런 자가 어찌 끝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저럭 때우면서 길 끝까지 간들 너희에게 또 어떤 유익한 점이 있겠느냐? 일찌감치 생각을 바꿔 진심으로 추구하든 하루빨리 물러나든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시간을 끌어 봤자 밥이나 빌어먹는 기생충이 될 뿐이다. 너희는 그 저속하고 비열한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냐?

3단계 사역은 하나님이 행한 모든 사역과 인류 구원의 실제 기록이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한 3단계 사역을 알아야 하며, 한 단계도 빠트려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앎은 사람이 스스로 지어내거나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며, 성령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결과는 더더욱 아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얻은 앎이자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을 체험한 후에야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앎이다. 이런 앎은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개인의 체험과 관계되는 일이다. 이 3단계

사역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지만 이 구원 사역에는 또 여러 가지 사역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발견하기 가장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이다. 시대가 나뉘고, 사역이 달라지고, 사역의 장소와 대상이 바뀌는 등등은 모두 3단계 사역에 포함된다. 특히 성령 역사의 방식 차이,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 이름, 신분 또는 다른 변화들은 모두 3단계 사역 안에 있다. 한 단계의 사역은 그저 한 부분만 대변하고 한 범주에만 국한되기에 시대의 구분은 물론, 사역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다른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3단계 사역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체 사역이다. 사람은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아 간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헛소리이자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그런 얇은 사람을 설득할 수도, 정복할 수도 없으며, 실정에 맞지도 않고 진리도 아니다. 설령 네가 아는 것이 많고 게다가 다른 이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얇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얇을 칭찬하기는커녕 그를 모독한 죄를 물어 보응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얇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네 언변이 뛰어나 청산유수 같은 말로 죽은 것을 산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고, 산 것을 죽은 것이 되게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얇을 얘기할 때면 너는 바로 문외한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칭찬할 수 있는 분도, 네가 마음대로 폄하할 수 있는 분도 아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라도 칭찬할 수 있지만, 적당한 단어로 하나님의 ‘크나큰 은덕’을 함부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실패자의 깨달음이다. 수많은 언어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한바탕 묘사할지라도 그 묘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언어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체험이 풍부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설명하는 진리의 1%밖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얇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실제에 있는 것이지, 언어의 교묘함이나 단어의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이 공과는 인류의 그 어떤 자연 과학을 배우는 것보다 높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지, 재능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을 개구쟁이 어린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어쩌면 너는 가정이나 사업 또는 결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을 수도 있지만, 진리와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이 공과에서는 백지상태로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 진리 실행은 큰 난제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너희의 애로 사항이자, 모든 인류의 애로

사항이다. ‘하나님을 아는’ 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사람 가운데 합당한 기준에 달한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도대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류의 난제이자 가장 큰 수수께끼로서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또 답하기를 원치 않는 문제이다. 인류 중 지금까지 이 일을 연구하여 성과를 거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3단계 사역’의 수수께끼가 인류에게 공개되고 나면 하나님을 아는 인재들이 잇달아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게다가 지금 그 사역에 착수하고 있다. 나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러한 인재가 더 많이 나와 3단계 사역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란다. 다시 말해, 그들이 3단계 사역을 증거하는 창시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그런 인재, 즉 성육신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온전케 된 사람이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애석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어쨌든 나는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천고에 없었던 사역이고, 인류 발전의 역사에서도 없었던 위업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창시인이 된다면, 그것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영광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바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피조물 아니겠느냐? 이 사역을 이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이 되면 성과를 거둘 것이다. 성별이나 국적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광을 받는 사람이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권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사역이자 이후의 사역이고, 6천 년 사역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려는 최고의 사역이며, 또한 각 부류의 사람을 드러내는 사역의 방식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사역을 통해 각 부류 사람들의 등급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약속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기(知己)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지기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기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든 다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기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다. 환난이든 연단이든 심판이든 모두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마지막에 거두어야 할 유일한 성과이다. 3단계 사역을 모두 공개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 하나님을 더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모든 사역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행한 사역은 사람이 알아야 할 이상(異象)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3단계 사역은 하나님 경영의 전부이자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가장 큰 이상이다. 사람이 이 가장 큰 이상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아 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어려우며, 또한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사람에게 이상이 없다면 오늘날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상이 사람을 오늘날까지 지켜 주었고, 이상은 사람에게 최대의 보호막이 되었다. 너희는 앞으로도 더욱 깊이 알아 가야 한다. 3단계 사역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의 지혜로운 사역의 본질을 알아야만 그것이 너희의 진실한 분량이 된다. 마지막 이 단계 사역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앞 두 단계 사역과 합쳐져 하나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3단계 사역 중 한 단계 사역만으로는 구원 사역을 전부 완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 이 단계 사역으로 사람을 철저히 구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앞 두 단계의 사역 없이 마지막 단계 사역만으로 인류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3단계 사역 중 어느 단계의 사역도 단 하나만 가져와서 온 인류가 유일하게 알아야 할 이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구원 사역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진 사역이지, 그중의 어느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원 사역이 하루라도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로 끝날 수 없다. 하나님의 어떠함과 성품, 지혜는 모든 구원 사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미리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구원 사역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 성품과 어떠함의 일부를 발현하는 것이지, 매 단계에 곧바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3단계 사역이 완성되어야 구원 사역이 모두 끝나는 이상, 사람이 하나님의 전부를 알아 가는 것 역시 3단계 사역을 떠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 단계 사역에서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 사역에서 발현된 성품에 불과하므로 그 전이나 그 후에 발현된 성품과 어떠함은 대변하지 못한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한 시기나 한 장소에서 되도록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인류의 발전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 사역은 한 단계씩 하는 것이지 한 단계에서 바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닌 모든 지혜의 결정체는 어느 한 단계가 아닌 3단계 사역에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과 지혜는 3단계 사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단계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고, 하나님 사역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3단계 사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모든 성품을 알아야 한다. 이 어떠함은 온 인류에게 실로 중요하기 그지없다. 사람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런 사람은 불상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은 모두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3단계의 구원 사역을 행한 이상, 사람은 이 3단계의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춘 것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개한 것이라면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자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 3단계 사역 중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이전 단계 사역을 바탕으로 행한 것이지, 구원 사역 이외의 다른 사역을 따로 행한 것은 아니다. 시대나 사역의 내용이 크게 다를지라도 사역의 핵심은 변함없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구원 사역을 점차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각 단계 사역은 모두 이전 단계의 사역을 폐하지 않은 기초에서 계속 이어진다. 이로써 하나님은 늘 새로운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드러낸 적 없는 성품을 계속 나타내고, 언제나 그의 새로운 사역과 어떠함을 공개한다. 원로 종교가들이 극력 대적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그가 해야 할 더 새로운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늘 바뀌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의 반대에 부딪힌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시대, 사역 대상도 언제나 바뀐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이전에 행한 적이 없던 사역을 행하며, 심지어는 사람이 보기에 이전과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사역도 행한다. 사람은 모두 한 가지 사역과 한 가지 실행만 받아들일 뿐, 그것과 대립되거나 그것보다 더 높은 사역이나 실행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성령은 언제나 새로운 사역을 한다. 그로 인해 새로운 사역에 대적하는 종교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들이 ‘전문가’가 된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늘 새롭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 원칙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은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인지, 하나님 자신이 행한 사역인지, 사람에게는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많은 사람이 과거의 견해와 맞으면 받아들이고, 과거의 사역과 다른 점이 있으면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태도를 고수한다. 지금까지 너희의 원칙은 다 이런 것 아니었느냐? 구원 사역의 3단계 사역은 너희에게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앞 두 단계의 사역을 그야말로 알 필요가 없는 짐으로 여기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알리지 말고 속히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많은 사람이 앞 두 단계 사역을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긴다. 이것이 너희의 관점이다. 지금 너희는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언젠가는 내가 행한 사역의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의미 없는 사역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3단계 사역을 모두 너희에게 공포한 이상, 그것은 분명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 3단계 사역이 전체 경영의 핵심인 이상, 반드시 전 우주 아래의 모든 사람이 다 눈여겨보게 될 것이며, 언젠가 너희 모두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하거나 자신의 관념으로 오늘날의 사역을 판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 원칙을 모르기 때문이며, 또한 성령의 역사를 너무 건성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관념과 태생적인 교만, 그리고 너무도 패역한 천성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감히 공개적으로 성령 역사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며, 또 성령의 새 역사가 있는 사도들을 훈계하고 이래라저래라 불손하게 말하니, 참으로 저급한 인성이요, 이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자들은 언젠가 성령 역사에 의해 버려지고 지옥의 불에 불살라질 대상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며 지휘할 생각까지 하는데, 이렇게 비이성적인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은 모두 찾고 구하며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제멋대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줄어든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쉽게 대적한다. 너의 관념과 옛 성품, 인성, 품성, 도덕 사상은 모두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밀천’이다.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품성이 악랄하며 인성이 저급한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다. 관념에 심각하게 사로잡힌 자와 성품이 독선적인 자는 성육신 하나님의 원수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네가 관념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관념은 영원히 하나님과 적대될 것이며,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어긋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앎은 낡은 관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기지만, 낡은 앎이 꼭 낡은 관념인 것은 아니다. 관념이란 사람이 혼자 상상하는,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낡은 앎이 옛 시대에서도 이미 뒤쳐진 데다 사람이 새로운 사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그런 앎은 관념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런 앎을 정확하게 대할 수 있고,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 가 새것과 옛것을 결합할 수 있다면, 그 낡은 앎은 오히려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새 시대로 들어가는 밑바탕이 된다.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이 공과에서 너는 수많은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을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할지, 어떻게 관념과 옛 성품을 벗어 버리고 새 사역의 모든 안배에 순종해야 할지,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다시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이 공과에 진입한다면, 너의 앎은 갈수록 깊어질 것이다. 네가 3단계 사역, 그러니까 전체 경륜의 사역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앞 두 단계의 사역을 현재에 연결 지어 한 분의 하나님이 행한 사역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너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될 것이다.

3단계 사역은 하나님 한 분이 행한 것으로, 최대의 이상이자 하나님을 알아 가는 유일한 길이다. 3단계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오로지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3단계 사역은 시대도, 장소도 다르고, 행한 사역도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이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이상 가운데 가장 큰 이상이다. 사람이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각 종교 각 교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며, 어떤 것이 성령 역사고 어떤 것이 성령 역사가 아닌지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번 단계의 사역이 앞 두 단계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것인지 더더욱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따르면서도 이 길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는 길인지, 말씀이 육신 된 것이 사실인지 걱정한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런 사실들을 분별하기 위한 실마리가 별로 없다. 따르는 사람이 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 그 도는 그런 사람에게 일부 효과만 낼 뿐, 100%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 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이 3단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세 단계의 사역을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했음을 깨닫는다면 사역의 내용은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인 이상, 분명 어떤 오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이 한 일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임을 확신한다면, 사람의 관념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소한 것이 된다. 이상에 대해 불분명하기에,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주라는 것만 알 뿐, 오늘날의 성육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에,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에 미련을 둔 채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수많은 관념을 갖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오늘날의 사역을 진지하게 대하지 못한다. 사람은 볼 수 없는 앞 두 단계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념도 없다. 그것은 사람이 앞 두 단계 사역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또 직접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볼 수 없기에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상상하든 입증할 수 있는 사실도, 바로잡아 줄 이도 없었다. 사람이 자신의 성향대로 대담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지라도 입증할 사실이 없었기에 그 상상은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실’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머릿속으로 자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을 뿐, 실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신앙을 갖고 있다면 백 사람이면 백 가지 신앙을 갖고 있다. 사람에게 이런 신앙이 생겨난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단지 귀로만 들었을 뿐

눈으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이며, 전설과 이야기로만 들었지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1년 믿은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한평생 믿은 사람 역시 관념 속에서 믿고 있는 것이다.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 신앙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사람은 모두 자신은 이미 낡은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지에 들어갔다고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두 관념이자 떠도는 소문이라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사람은 모두 자신의 관념이 정확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여겼지만, 오늘날 이 사역을 마주하면서 오랫동안 지녀 온 관념을 분출하게 되었다. 지난날의 상상과 생각이 이번 사역의 장애물이 되었건만 사람은 모두 이 관념들을 내려놓기 어려워하고, 이전의 생각들을 뒤엎기도 힘들어한다. 오늘날까지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은 한 걸음씩 진행되는 이 사역에 대해 관념이 점점 심해져 성육신 하나님과 풀기 어려운 원한을 맺게 되었다. 그 원한의 근원이 바로 사람의 관념과 상상이다. ‘사실’은 사람이 멋대로 펼치는 상상을 용납하지 않으며 사람이 제멋대로 뒤집으려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지 않는다. 반면 사람은 관념과 상상 때문에 존재하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으며, 사실의 정확성과 진실성은 무시한 채 한결같이 자신의 관념만 분출하고 상상의 나라만 펼친다. 이렇게 사람의 관념과 상상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오늘날의 모든 사역과 원수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한 단계는 고사하고 조금도 뒤엎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은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너는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고, 심지어 여호와와 예수 사역의 정수를 모아 편찬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와 예수가 행한 사역의 사실들을 뒤엎지는 못한다. 이것은 원칙이자 행정 법령이다. 너희는 모두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이번 단계 사역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지만 앞 두 단계의 사역은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앞 두 단계의 사역은 절대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역 원칙은 모두 똑같고, 그의 사역은 어쨌든 다 실제적이며, 어느 시대의 사역에서든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무리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오늘날 이 단계 사역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는 분명 이전에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3단계 사역을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으로 여기고, 또 자신의 관념을 버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다. 전체 경영이 끝날 때 하나님은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다. 사람은 창조주의 손에서 창조되었으므로 마지막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3단계 사역의 종결이다.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행한 앞 두 단계의 사역과 말세의 사역은 곧 전 우주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이므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이다. 사람은 많은 사역을 체험하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전 우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3단계 사역을 받아들일 것이다. 네가 어느 한 단계 사역만 알 뿐, 나머지 두 단계 사역과 과거의 하나님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전체 경륜의 모든 실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 뿐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 깊게 알든 얕게 알든, 결국 마지막에는 너희가 모두 깨닫고 철저히 인정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체 사역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이 참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며, 모든 사교가 사라져 더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어째서 늘 3단계 사역을 언급하겠느냐? 시대의 변천과 사회의 발전, 자연의 변모는 모두 이 3단계 사역의 변화에 따라 바뀐 것이다. 인류는 하나님이 행한 사역에 따라 바뀔 뿐,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다. 3단계 사역을 언급하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과 각 종교 각 교파, 각계의 인사들이 다 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네가 어느 교파에 속하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순종할 것이다. 이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교주도 행하지 못한다. 세상이 몇 개의 큰 종교로 나뉘는다고는 하나 종교마다 교주와 통솔자가 있고, 따르는 사람 또한 지구상의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 국가에도 여러 종교가 존재한다. 대국이든 소국이든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지만, 세계 각지의 종교 종류가 얼마나 되든 결국 전 우주의 모든 사람은 한 분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종교의 교주나 통솔자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인류를 이끄는 이는 어느 교주나 통솔자가 아니라 천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이는 사실이다. 세상에는 몇몇 큰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가 얼마나 크든 모두 창조주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며, 그 어떤 종교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인류의 발전과 사회의 교체, 자연 과학의 발전은 다 창조주의 안배를 떠날 수 없다. 이 사역들은 어느 한 교주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주는 어느 종교의 통솔자일 뿐, 하나님을 대표하지도,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를 대표하지도 못한다. 교주는 그 교파의 모든 인사를 통솔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솔할 수는 없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교주는 통솔자일 뿐이므로 하나님(창조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만물은 창조주의 수중에 있기에 마지막에는 모두 창조주의 수중으로 돌아올 것이고, 인류는 본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기에 어느 교파든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 가운데 지극히 높은 분이므로 피조물 중의 최고 통치자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인류를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할 수 없고, 누구도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눌 수 없다.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하여 각기 부류대로 나뉘었으니 마지막에도 그가 자신의 사역을 행하여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한 3단계 사역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한 것이고, 또한 한 분의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3단계 사역의 사실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인도한 사실이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단계 사역이 끝나면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고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전 우주 위아래에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며 다른 종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을 창조할 수 없는 자는 세상을 끝낼 수 없고, 세상을 창조한 이는 틀림없이 세상을 끝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를 끝낼 수도 없으면서 다른 이에게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쌓으라고만 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도, 인류의 주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이처럼 큰 사역을 하지 못한다. 이 사역을 행하는 이는 오직 한 분뿐이며, 이 사역을 행할 수 없는 자는 분명 하나님이 아닌 원수이다. 사교(邪教)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다. 모든 사역은 다 이 참하나님 한 분이 행하고, 온 우주도 다 이 하나님 한 분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든 중국에서 사역하든, 영으로 사역하든 육신으로 사역하든, 모두 그 자신이 행한 것이며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다. 그는 전 인류의 하나님이기에 그 어떤 조건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이상이다.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사역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사역하는 모든 의미까지 깨달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 아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인류의 역사(歷史)와 하나님의 모든 사역도 모르며, 더욱이 인류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누가 전 인류를 다스리는지도 모른다면, 본분 이행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하나님은 인류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왔고, 땅에서 사람을 창조한 이래로 사람을 떠난 적이 없다.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사람을 인도하며 한시도 사람과 떨어진 적이 없으나,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일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인도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한다. 피조물인 내가 자신의 역사(歷史)를 모르고,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누가 이끌어 주었는지도 모르며, 하나님이 행한 사역도 모른다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모른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오늘날 창조주가 또 친히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면서 그의 지혜와 전능, 구원과 기묘함을 보여 주었는데도 결국 내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 아니겠느냐? 사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도태될 대상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알지 못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는 모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거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3단계 사역이 모두 끝날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들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인성과 이성을 갖춘 사람들이고, 3단계의 구원 사역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는 마지막에 이루려는 사역이다. 그들은 6천 년 경영 사역의 결정체이자 최후에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병을 지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마지막에 살아남을 자들이다. 너희 모두가 이 사람들 중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절반 혹은 몇 명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는 너희의 의지와 추구에 달려 있다.

## **폐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그의 사역 대상이 사탄의 영도 아니고, 육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며, 사탄에 의해 폐괴되고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육체가 폐괴되었기에 하나님이 육에 속한 사람을 자신의 사역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더욱이 사람이 폐괴된 대상이기에 하나님이 어느 단계의 구원 사역을 하든 사람을 자신의 유일한 사역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은 육체를 지닌 평범한 존재로 육에 속하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사람과 같은 속성을 가진 육신이 되어 사역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육에 속하는 데다가 죄를 이기는 능력과 육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이 되어 사역해야 한다.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과 신분이 사람의 본질, 신분과는 크게 다르지만 그의 겉모습은 사람과 같다. 그는 정상인의 외모를 지녔고 정상 인성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에게서 정상인과 다른 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는 이 정상적인 외모와 정상 인성만으로도 충분히 정상 인성 안에서 행하는 신성의 사역을 할 수 있다. 그의 육신은 그가 정상 인성 안에서 행하는 사역에 이롭고,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에 이롭다. 또 그의 정상 인성은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구원 사역에 더욱 이롭다. 비록 그의 정상 인성이 사람들 가운데서 적잖은 풍파를 일으키겠지만 그것은 그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데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요컨대, 그가 정상적인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은 사람에게 크나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이 그의 정상 인성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의 사역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이 성과가 정상 인성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은 사람이 그의 정상 인성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의 10배, 수십 배를 훨씬 넘는 것을 얻게 한다. 그런 관념들은 결국 그가 행하는 사역에 모두 파묻히고, 사역이 거두는 성과, 즉 그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그에 대한 관념보다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가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은 상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다. 그의 육신은 육에 속한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외형은 같아도 본질은 전혀 다르다. 사람은 그의 육신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수많은 관념을 갖게 되었지만, 그의 육신은 또 사람이 수많은 인식을 얻게 할 수 있다. 심지어 그의 육신은 그와 외형이 비슷한 그 어떤 사람이든 정복할 수 있다. 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외형을 가진 하나님이기에 누구도 그를 완전히 측량할 수 없고 완전히 알 수도 없다. 사람들은 모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러르고 환영한다. 만일 하나님이 그저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일 뿐이라면 사람은 아주 쉽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또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상상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의 즐거움과 유쾌함을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형상을 마음대로 골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자신에게 가장 바라는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모두가 자신만이 ‘하나님’에게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은 이방의 개이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막연함과 도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추구하며, 대동소이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각자 상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를 뿐, 그 본질은 모두 같다.

사람은 모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것은 ‘인권의 자유’로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사람이 믿는 대상은 모두 자신의 하나님이지 남의 하나님이 아니며, 사람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사유 재산을 갖고 있다. 이 재산이 사람에게는 보배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오히려 가장 비천하고 가치 없는 것이다. 사람의 이 사유 재산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뚜렷하게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사역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있는, 형상이 있는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영이 아니라 사람이 접촉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육신이다. 하지만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부분 형상은 없지만 자유로운 형상이 있는, 육신이 아닌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대다수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 사람에게 관념이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 때문이 아니고 사람의 패역 때문도 아니라, 사람의 이 사유 재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이 재산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믿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막연한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도 아니고 더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아닌, 사람 스스로 상상한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성육신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이유는 전적으로 파괴된 사람의 필요 때문이다. 이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 모든 대가와 고통은 인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득실과 보답이라는 말이 없다. 그가 얻는 것은 그가 나중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가 인류를 위해 행한 모든 것과 지불한 모든 대가는 더 많은 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인류를 위한 것이다. 육신으로 사역하면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많지만 결국에는 영이 직접 사역하는 것보다 성과가 훨씬 더 크다. 육신으로 사역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영과 같은 위대한 신분을 가질 수 없고, 영과 같은 비범한 행사가 있을 수도 없으며, 영과 같은 권병은 더더욱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육신이 하는 사역의 본질은 영이 직접 하는 사역의 본질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육신 자체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 영의 사용 가치는 육신의 사용 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영의 사역은 우주 전체로 널리 퍼질 수 있고 산천 호수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육신의 사역은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형상이 있는 육신은 사람의 이해와 신뢰를 더 잘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의 실제 행사에 대해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영의 사역은 매우 신비로워서 평범한 사람은 예측하기 어렵고, 눈으로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그저 터무니없이 상상할 뿐이다. 반면 육신의 사역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일뿐더러

풍부한 지혜가 있으며, 평범한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다. 모두가 하나님이 사역하는 지혜를 직접 깨달을 수 있어 풍부한 상상을 펼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육신으로 하는 하나님 사역의 정확성이자 실제적인 가치이다. 영은 단지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만 할 수 있다. 영의 깨우침, 영의 감동, 영의 인도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영의 이러한 사역들은 사고력을 가진 사람에게 명확한 뜻을 알려 줄 수 없고, 말로 분명하게 가리켜 줄 수 없으며, 그저 감동이나 대략적으로 비슷한 뜻만 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이와 전혀 다르다. 육신으로 사역하면 정확한 말씀의 인도, 명확한 뜻, 그리고 명확한 요구와 목표가 있으므로 사람이 모색할 필요도 없고 상상할 필요도 없으며 더욱이 추측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명확성으로, 영의 사역과는 크게 다르다. 영의 사역은 일부 제한적인 범위에만 적합할 뿐, 육신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다. 육신이 사역하면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정확한 목표와 사람이 얻는 인식의 실제 가치는 영의 사역이 지니는 정확성이나 실제 가치를 크게 뛰어넘는다. 파괴된 사람에게는 정확한 말씀과 명확한 추구 목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역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다. 현실적으로 사역하고 제때 인도해야만 사람의 기호에 맞출 수 있고, 실제적으로 사역해야만 사람을 파괴되고 타락한 성품에서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오직 성육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파괴되고 타락한 옛 성품에서 구원할 수 있다. 영은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이지만, 이런 사역은 오직 육신으로만 할 수 있다. 오직 영이 단독으로 역사한다면 사역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육신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해도, 이 육신이 자신의 사역을 끝낼 때면 그와 적대 관계였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증인이 될 것이며, 그에게 정복된 증인이 되고, 그와 합하여 헤어지기 힘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육신이 사람의 생존 의의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 사람의 생명 성장에 있어 육신이 가진 실제 가치를 알게 되고, 더욱이 이 육신이 사람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하나님의 신분이나 지위와 크게 다르고, 사람이 보기에 그의 실제 신분에도 걸맞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지니지 않고 본래 신분도 없는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본래의 의의와 가치다. 하지만 사람은 이 의의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한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육신을 내려다본다. 사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든 육신의 실제 의의와 가치는 영의 실제 의의와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물론 이것은 파괴된

인류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다.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사역이 그저 감동이나 묵시를 줄 뿐이고, 또 신묘막측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신기한 느낌과 위대하고 비범하며 모든 사람이 우러르면서도 닿을 수 없고 이를 수 없는 느낌을 줄 뿐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영은 그저 아득히 멀리서 서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 마치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영원히 서로 갈아질 수 없는 것 같으며, 꼭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영에 대한 사람의 착각에 불과하다. 이런 착각은 그저 영과 사람이 같은 부류가 아니고 영과 사람이 절대로 같은 세계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또 영은 사람이 가진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이 아니다. 영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신의 사역은 사람에게 실제적인 추구 목표와 명확한 말씀을 주고, 실제적이고 정상적이라는 느낌과 자신을 낮추고 평범하다는 느낌을 준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사람에게는 접촉하기가 상당히 쉽다. 사람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므로 아득히 멀리서 서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 육신은 사람에게 아득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는 이 육신이 사람과 같은 세계에 있기 때문이다.

육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성품을 변화시키려면 추구할 목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실제 행사와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오로지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할 수 있고,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해야 할 필요성으로, 모든 패괴된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들을 없애야 하고, 사람에게 패괴 성품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먼저 이런 패괴 성품을 알게 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이 이 사역을 한다면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말로 들추어내고 벗겨 버리고 나아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에게 깊이 뿌리박힌 것을 없앨 수 없다. 오직 실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대신하여 사람이 차츰 깨닫게 해야만 원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람이 지난날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즉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영의 직접적인 인도 때문이 아니고, 나아가 누군가의 가르침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성육신 하나님 덕분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모습과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성육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는 사람의 관념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부각해야만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관념이 모두 드러난다. 성육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지 않는다면 사람의 관념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제적인 것으로 부각하지 않으면 막연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역은 누구도 말로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말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을 뿐,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풍부해도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여 그의 형상과 어떠함을 모두 알려야만 사람이 그를 더 실제적으로 알 수 있고,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의 영 또한 이런 사역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하나님은 패괴된 사람을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이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할 수 있다. 이 육신은 사람이자 하나님이고, 정상 인성을 갖춘 사람이자 완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또한 영과 크게 다르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이는 여전히 성육신 하나님 자신이고 또 영이자 육신이다. 호칭이 어떠한든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 육신은 서로 떨어질 수 없고, 육신이 하는 사역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영의 신분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신분으로 사역할 뿐이다. 영이 직접 해야 하는 사역이면 성육신할 필요가 없고, 육신이 해야 하는 사역은 영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육신의 방식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은 사역에 필요한 것이고, 또 패괴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세 단계 사역 중 오직 한 단계 사역만 영이 직접 한 것이고, 나머지 두 단계 사역은 모두 영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 한 것이다. 영이 행한 율법시대의 사역은 사람의 패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과도 관련이 없었다. 반면 육신이 행한 은혜시대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사역은 모두 사람의 패괴 성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육신이 행한 사역은 구원 사역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역이다. 그러므로 패괴된 인류에게는 성육신 하나님의 구원과 성육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 더욱 필요하다. 인류에게는 성육신 하나님의 목양, 붙들, 양육, 심판, 형벌이 필요하고, 성육신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구원(원문: 救贖)이 필요하다. 오로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지기(知己)가 될 수 있고,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성육신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할 대상은 사람이지만 사탄이 아니며,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지 마귀가 아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멸할 대상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다. 하지만 사람의 육체가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으므로 반드시 먼저 사람의 육체를 구원해야 한다. 사람의 육체는 가장 심하게 파괴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파괴된 육체는 아주 완고하고, 육체의 파괴 성품은 다루기도 변화시키기도 가장 어렵다. 사탄은 사람의 육체를 찾아와 방해하며, 사람의 육체를 이용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다. 그렇게 해서 사람도 사탄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먼저 사람을 정복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육신으로 와서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하고 사탄과 싸운다. 그 목적은 파괴된 인류를 구원하며 그를 거역한 사탄을 물리치고 멸하는 것이다. 사람을 정복하는 사역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한편 파괴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일거양득의 사역이다.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고, 육신으로 말씀하고, 육신으로 모든 사역을 담당하는 것은 사람과 더 잘 접촉하고 사람을 더 잘 정복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성육신은 말세에 하는 사역을 육신으로 끝내고, 모든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며, 그의 경영 전체를 끝내고, 그가 육신으로 하는 모든 사역을 끝낸다. 땅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끝나면 그는 철저히 승리하게 된다. 육신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이 인류를 철저히 정복하고 얻으면 하나님의 모든 경영이 끝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끝나고 사탄을 철저히 물리치면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것이므로 사탄에게는 더 이상 사람을 파괴시킬 기회가 없다. 첫 번째 성육신의 사역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고 사하는 것이었고, 지금의 사역은 정복하여 사람을 철저히 얻는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이것은 육신이 하는 사역이자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이다. 3단계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육신이 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한 사역이었다. 3단계 사역의 마무리 사역은 영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중간 단계의 구속 사역 역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한 사역이었다. 전체 경영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핵심 사역은 파괴된 사람을 철저히 정복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원래 갖고 있던 경외심을 되찾게 하고 정상인의 생활, 즉 정상적인 피조물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며 경영 사역의 핵심이다. 이 세 단계 구원 사역 중 1단계인 율법시대의 사역은 경영 사역의 핵심과 큰 차이가 있다. 율법시대의 사역은 구원 사역의 겉모습만 조금 갖추었을 뿐이며,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사역은 시작하지 않았다. 1단계 사역을 영이 직접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 알았을 뿐 더 많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율법시대의 사역은 사람의 성품 변화와 거의 관련이 없고, 사람을 어떻게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는지에 대한 사역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패괴 성품과 관련되지 않는, 극히 간단한 사역만 완성한 것이다. 그 단계의 사역은 경영의 핵심과 그리 큰 관계가 없었고, 본격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과도 그리 큰 관련이 없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친히 사역할 필요가 없었다. 영이 하는 사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측량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무서워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므로 직접 구원 사역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직접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역시 영의 사역을 사람과 가까운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평범한 정상인이 되어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영의 사역을 대신해야 한다. 이 사역 방식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다. 이 세 단계 사역 중 두 단계 사역은 육신이 행한 것이며, 또 이 두 단계 사역은 경영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두 번의 성육신은 서로 보충하며 완전케 한다. 첫 번째 성육신은 두 번째 성육신을 위해 기초를 다졌다. 두 차례 성육신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단계 사역을 성육신의 신분으로 행한 것은 전체 경영 사역에서 이 두 단계 사역이 실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의 성육신 사역이 없었다면 전체 경영 사역이 정체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도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사역의 중요성은 인류의 필요성, 인류의 타락 상황, 사탄의 거역과 사역을 방해하는 정도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는 사역자의 사역 성질과 사역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사역의 중요도를 놓고 볼 때, 사역 방식을 택함에 있어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역하는 것, 성육신하여 사역하는 것, 또는 사람을 통해 사역하는 것의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 가운데서 제일 먼저 탈락된 것은 ‘사람을 통해 사역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는 사역의 성질, 영과 육신이 하는 사역의 성질에 근거해 최종적으로 육신이 사역하는 것이 영이 직접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이로울 뿐만 아니라 장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영이 사역할지, 육신이 사역할지를 결정할 때의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각 단계의 사역은 터무니없는 상상도 아니고,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도 아니라, 모두 의의가 있고 근거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지혜가 깃들여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의 실상이다. 특히 성육신하여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중대한 사역을 하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어떠함은 그가

사역할 때의 일거수일투족, 마음과 생각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떠함이다. 사람은 이런 세밀한 마음과 생각을 상상하기 어렵고 믿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깨닫기도 어렵다. 사람이 사역할 때는 대체적인 원칙이 있다. 사람에게에는 이것도 이미 상당히 만족스럽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비하면 실로 격차가 크다. 하나님의 행사는 위대하고 그의 사역 규모 역시 매우 거대하지만, 이런 사역들의 이면에는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세세하고 정밀한 계획과 안배가 많이 들어 있다. 그가 하는 각 단계 사역에는 원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언어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사람에게에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영의 사역이든, 성육신의 사역이든 모두 하나님의 사역 계획이 있다. 그는 근거 없이 사역하지 않고 무의미한 사역도 하지 않는다. 영이 직접 사역하는 데에는 그의 목적이 있고, 사람이 되어(그의 외형을 바꾸어) 사역하는 데에는 더더욱 그의 뜻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쉽게 신분을 바꿀 리 있겠느냐? 그가 어떻게 그리 쉽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이 될 리 있겠느냐?

육신이 하는 사역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은 사역을 근거로 말한 것이다. 마지막에 사역을 끝내는 것은 영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어느 날 땅에 와서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친히 전 인류를 심판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시킬지 모르니 누구도 빠질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단계의 성육신 사역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통과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심판 사역이라 말할 수 없다. 모든 인류의 패괴는 다 같지 않느냐? 사람의 본질은 다 같지 않느냐?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작은 결점이 아니라 인류의 패괴된 본질, 사탄이 패괴시킨 사람의 본질,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업이다. 심판 사역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오롯이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전 인류에 대한 심판 사역을 대표한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일부 사람에게 친히 하는 사역으로 전 인류의 사역을 대변하며, 그런 다음 점차 확장한다. 심판 사역도 이리하다. 어느 한 부류의 사람이나 일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불의, 예를 들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등을 심판하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본질이며, 이 심판 사역이 바로 말세의 정복 사역이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이 바로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말세의 희고 큰 보좌 앞의 심판 사역이다. 지금 성육신한 하나님이 하는 사역 역시 희고 큰 보좌 앞의 심판이다.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이 바로 말세에 전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 육신과 육신의 사역, 말씀, 모든 성품이 그의 전부다. 비록 육신이 하는

사역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직접적으로 우주 전체에 미치지 못하지만 심판 사역의 본질은 모두 직접 전 인류를 심판하는 것이다. 단지 중국 선민만을 위해서, 또 몇 사람만을 위해서 심판 사역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사역하는 동안 사역의 범위가 우주 전체까지 미칠 수 없다 해도, 그가 하는 사역은 우주 전체의 사역을 대표한다. 또한 그가 육신의 사역 범위 안에서 하는 사역을 끝내면 이 사역을 즉시 전 우주 각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다. 마치 예수가 부활해 승천한 후 복음이 전 우주 각 지역으로 전파된 것처럼 말이다. 영의 사역이든 육신의 사역이든 모두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행하지만, 우주 전체를 대변한다. 말세의 사역은 성육신의 신분으로 나타나 하는 사역이다. 그 육신의 하나님이 바로 희고 큰 보좌 앞에서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가 영이든 육신이든, 결국 심판 사역을 하는 이는 말세에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겉모습이나 다른 여러 가지 면에 근거해 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에 근거해 정한 것이다. 사람이 이에 대해 관념을 갖고 있더라도 성육신한 하나님이 전 인류를 심판하고 정복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사실은 결국 사실이다. 누구도 “사역은 하나님이 한 것이지만 육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육신의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역이 다 끝난 이상, 이 사역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람을 심판하는 사역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성육신이 이미 전체 경영 사역을 모두 끝냈으므로 네 번째 단계의 사역이 있을 리가 없다. 사탄의 영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육에 속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 사역은 영계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다. 사람 육체의 파괴를 심판하는 사역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해야만 가장 적합하고,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만이 가장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심판한다면 여러 면에서 빈틈없이 할 수 없고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영은 사람과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없고, 더욱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더 또렷하게 보여 줄 수도 없다. 오직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인류의 파괴를 심판해야만 사탄을 철저히 물리칠 수 있다. 똑같이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불의를 직접 심판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본래 거룩하고 남다르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지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진리와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반면, 진리와 공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영은 본래 육체를 지닌 존재보다 위대하며, 하나님의 영은 본래 거룩하고 육체를 능가한다. 영이 직접 이 사역을 하면 사람의 모든 패역을 심판할 수 없고, 사람의 모든 불의를 드러낼 수도 없다.

심판 사역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념을 통해 행하는 것인데, 사람은 본래 영에 대해 관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사람의 불의를 더 잘 드러낼 수는 없고, 더욱이 사람의 불의를 확실히 들추어낼 수도 없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원수이다. 그는 그에 대한 사람의 관념과 대적을 심판함으로써 인류의 패역을 모두 들추어낸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영이 하는 사역보다 더 뚜렷한 성과를 낸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를 심판하는 사역은 영이 직접 하지 않고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다가 순종하고, 핍박하다가 받아들이고, 관념을 갖고 있다가 알게 되고, 저버리다가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 성과다. 사람은 모두 그의 심판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만 차츰 그를 알게 된다. 또 대적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정복되고, 그의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된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영의 신분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하는 사역은 가장 큰 사역이자 가장 심오한 사역이다. 세 단계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두 단계 성육신 사역에 있다. 성육신하여 사역할 때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 사람이 매우 심하게 패괴된 데다, 특히 말세에 이 사람들에게 하는 사역이 더욱 힘들고 외부 환경이 열악하며 각 부류 사람들의 자질도 몹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역이 끝날 때는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고, 그 성과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육신으로 사역한 성과로, 이 성과는 영이 하는 사역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세 단계 사역은 육신 중에서 끝나며, 또 반드시 성육신 하나님이 끝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역은 모두 육신으로 해야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반드시 육신이 친히 해야 한다. 모든 인류가 육신의 하나님은 사람과 무관한 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 이 육신은 인류 전체의 운명, 그리고 생존과 관계된다.

하나님이 어느 단계의 사역을 하든 모두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고, 그가 하는 사역은 모두 인류 전체를 마주한 것이다. 설령 육신으로 하는 사역일지라도 전 인류를 마주한다. 그는 전 인류의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과 비피조물의 하나님이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범위도, 사역하는 대상도 제한적이지만, 그가 매번 성육신하여 사역할 때마다 택한 사역 대상은 모두 지극히 큰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단순하고 평범한’ 한 무리 사람을 택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무리를 택해 사역 대상으로 삼는다. 이 한 무리 사람들은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선택된 자들이고, 오로지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을 위해 예비된 자들이며, 또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다. 사역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근거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다. 사역 대상은 반드시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인류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대인은 인류 전체를 대표해 예수가 친히 행한 구속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중국인은 인류 전체를 대표해 성육신 하나님이 친히 행하는 정복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유대인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근거가 있고, 중국인이 인류 전체를 대표해 하나님이 친히 행하는 정복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근거가 있다. 유대인 가운데서 구속 사역을 하면 구속의 의의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고, 중국인 가운데서 정복 사역을 하면 정복 사역의 완벽함과 성공적인 결과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육신으로 사역하고 말씀하는 것이 보기에는 그저 일부 소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일부 소수 사람들 가운데서 우주 전체의 사역을 하고 인류 전체를 향해 말씀하는 것이다.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끝나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한 사역을 널리 확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가장 큰 장점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말씀과 당부를 남길 수 있고, 인류에 대한 그의 정확한 뜻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그가 육신으로 한 모든 사역과 전 인류에 대한 그의 뜻을 더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전해 줄 수 있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니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진정으로 실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소망을 실현하게 되었다. 성육신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호와의 뒷모습만 보여 주던’ 시대를 끝내고, 인류가 막연한 하나님을 믿던 시대도 끝냈다. 특히 마지막으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 전체를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아름다운 시대로 인도했다. 율법과 규례의 시대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하나님,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경륜 사역을 펼치고 인류의 비밀과 종착지를 보여 주는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고 경영 사역을 끝내는 하나님, 수천 년간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인류에게 공개하여 막연한 시대를 완전히 끝낸 것이다. 또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던 시대와 사탄을 섬기던 시대를 끝내고, 전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완전히 인도해 들어갔다. 이런 사역은 모두 육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대신하여 사역함으로써 거둔 성과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을 해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는 있는 듯 없는 듯한 것을 찾지 않게 되고, 다시는 막연한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한 사역을 확장할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가 육신으로 했던 모든 사역을 각 종교, 각 교파에 전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전 인류에게 전할 것이다. 또 그의 복음을 얻은 모든 사람은 그가 사역한 사실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것으로, 뜬소문이 아닌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모두 그가 사역을 확장한 증거이자 사역을 확장하는 수단이다. 만일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의 복음이 모든 지역과 나라에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없고 단지 사람의 상상만 있다면 영원히 우주 전체를 정복하는 사역을 할 수 없다. 영은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다. 영으로 사역하면 사람에게 더 많은 증거와 사역한 사실을 남길 수 없으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고, 영원히 막연하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만 믿을 것이다. 또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상상하는 것은 어쨌든 헛된 것이므로 결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그 자신의 사역은 사람이 연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 와서 친히 사역해야만 하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땅에 옮겨 올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성육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다. 지금 이 정도까지 사역을 행하여 이미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정도까지 한 것도 이미 큰 노력으로 얻어 낸 성과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전체 경영 사역 가운데 90%를 완성했다. 이 육신은 그의 모든 사역을 더 좋은 시작으로 인도했다. 이 육신은 그의 모든 사역을 총결 짓고 널리 알렸으며, 마지막으로 완전히 보완했다. 이제 다시는 성육신 하나님이 와서 네 번째 단계의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 번째로 성육신하는 이 놀라운 사역이 있지도 않을 것이다.

육신으로 하는 각 단계의 사역은 사람처럼 어느 한 시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 시대 사역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성육신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전부 끝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육신으로 하는 그의 사역은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는 기간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대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전체 시대에 하는 사역은 육신에 거하는 동안 모두 끝낸 다음 여러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뿐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의 직분을 다한 후,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가 앞으로 할 사역을 맡긴다. 그래야만 그의 전체 시대 사역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사역이 전 우주 각 지역으로 확장되었을 때 비로소 성육신의 전체 시대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성육신의 사역은 새 시대를 여는 사역이며, 그의 사역을 잇는 것은 그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모두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직분 안에 있는 사역이며, 절대로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낡은 시대를 끝낼 수 없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없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단지 본분 내에 있는 것, 즉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일 뿐이다.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해 사역할

수는 없다. 오직 성육신 하나님만이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완수할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누구도 그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다. 물론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성육신의 사역에 대한 것이다. 이번에 성육신하여 먼저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한 단계의 사역을 한 후, 다시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사역을 더 많이 할 것인데, 그 목적은 사람을 정복하는 데 있다. 성육신 자체가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데다가 그가 한 더 많은 사역 역시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더욱 예사롭지 않아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수많은 관념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정복 사역을 한다. 사람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 그가 직분을 다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그의 권세 아래에 복종할 것이다. 이 사실은 중국인 가운데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류 전체가 정복되는 과정도 이와 같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성과 역시 전 인류에게서 나타날 성과를 미리 보여 준다. 심지어 그가 앞으로 할 사역은 이 사람들에게서 하는 사역보다 점점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다. 육신의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기세가 대단하지도 않고 보일 듯 말 듯 희미하지도 않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이며,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누구에게도 감추지 않고 누구도 속이지 않는다. 사람이 보는 것은 모두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것이고, 사람이 얻는 것도 모두 실제적인 인식과 진리다. 사역이 끝날 때 사람은 그를 새롭게 알게 될 것이고,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관념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그가 중국인에게서 거둔 사역 성과일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인류 전체를 정복하는 사역의 성과를 뜻한다. 이 육신, 이 육신의 사역, 이 육신의 모든 것은 전 인류를 정복하는 사역에 가장 이롭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의 사역에 이롭고 앞으로도 그의 사역에 이롭다. 이 육신은 인류 전체를 정복하고, 또 인류 전체를 얻는다. 그의 사역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역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제한적인 범위만을 대표한다. 하나님은 사역을 할 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해 말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이다. 또 결말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결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말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는 인류 전체를 상대로 사역하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이미 인류 전체를 각기 부류대로 나누었고, 인류 전체를 심판했으며, 인류 전체를 위해 적합한 종착지를 예비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중국에서만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우주 전체의 사역을 모두 해결했다. 그는 인류 전체의 사역이 다 확장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씩 말하거나 하나씩 안배할 수 없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지금은 이후의 사역을 충분히 앞당겨 완성할 수 있다. 사역하는 이는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는 무한한 범위의 사역을

유한한 범위에서 행한 후, 사람에게 그들이 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게 한다. 이것이 그의 사역 원칙이다. 그는 사람과 한 시기만 함께 생활할 뿐, 전체 시대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사람과 함께할 수는 없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후의 사역을 미리 예언할 수 있다. 이후에는 그 말씀에 따라 인류 전체를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고, 그의 말씀에 따라 인류 전체가 그의 사역 속으로 한 단계씩 진입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영이 아닌 말씀이 시대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반드시 육신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역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설령 사역하더라도 별로 큰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하는 사역이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대변하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하며, 하나님이 하는 사역에 권병과 지혜가 가득한지, 그가 하는 사역이 가장 가치 있고 의의 있는 사역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가 사역을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며, 또한 만물 가운데서 그 자신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사역은 반드시 커다란 의의가 있어야 한다. 사람의 육체는 사탄에 의해 파괴되고, 가장 심하게 기만당했다. 육체는 극심한 해를 입은 대상이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사역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구원의 대상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사탄도 사람의 육체를 이용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사탄과의 싸움은 사실 사람을 정복하는 사역이며, 사람은 또 구원받는 대상이다. 따라서 성육신으로 사역할 필요성이 크다. 사탄이 사람의 육체를 파괴시켜 사람은 사탄의 화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물리칠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우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모두 땅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어 사탄과 싸워야 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사역이다.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는 것도 사실은 육신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영계에서의 그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는 영계에서의 사역을 모두 땅에 실체화했다. 그가 정복하는 대상은 그를 거역하는 사람이고, 그가 물리치는 대상은 그를 적대시하는 사탄의 화신(물론 이 역시 사람)이며, 또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대상 역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피조물의 외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했다. 사탄과 실제적인 싸움을 할 수 있고, 그를 거역할뿐더러 그와 같은 외형을 가진 사람을 정복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외형을 갖고 있는, 사탄에게 해를 입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의 원수는 사람이고, 정복할 대상도 사람이며, 구원할 대상 역시 창조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사역이 훨씬 편해져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정복할 수 있고 더욱이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다. 비록 ‘육신’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일지라도 평범한 육신이 아니고 인성만 있는 육신도 아니며,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진 육신이다. 이것이 그와

사람의 다른 점이며, 하나님의 신분을 상징하는 표지이다. 이런 육신만이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할 수 있고,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이행할 수 있으며,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을 철저히 완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은 영원히 공백 상태일 것이고, 영원히 허점일 것이다. 설령 하나님이 사탄의 영과 싸울 수 있고 이긴다고 해도 파괴된 사람의 옛 성품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그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에 진실로 복종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영원히 인류를 정복할 수 없고 인류 전체를 얻을 수 없다. 땅의 사역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경영은 끝날 수 없고, 인류 전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러한 경영 사역은 영원히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에 따라 사라질 것이다. 그의 육신은 권병을 지니지 않았지만 그가 한 사역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그가 행하는 사역의 필연적인 흐름이다. 권병을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 자신이다. 육신이 아무리 정상적이고 평범해도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할 수 있다. 이 육신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육신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본질이 그 누구와도 다르기 때문이고, 그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신분이 그 누구와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이 육신이 인류에게 더없이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이면서 더욱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평범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땅에서 그와 함께 생활하는 파괴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육신 하나님은 인류에게 있어 그 어떤 가치 있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잘 증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보다 더욱 완전하게 인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평범하고 정상적이지만 그가 인류에게 기여한 것과 인류의 생존에 대해 갖는 의의를 논한다면 아주 보배롭다. 이 육신의 실제 가치와 의의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육신은 비록 사탄을 직접 멸할 수 없지만 그는 사역의 방식으로 인류를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쳐 철저히 그의 권세 아래에 굴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였기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사탄을 직접 멸하지 않고 성육신하여 사역하면서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인류를 정복한다. 그러면 피조물 가운데서 그 자신을 더 잘 증거할 수 있고, 파괴된 사람을 더 잘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탄을 멸하는 것보다 더 좋은 증거가 되며 설득력도 더 강하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주를 알아 가는 데 더 도움이 되고, 피조물 가운데서 그 자신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다.

##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질

하나님은 처음 성육신했을 때 땅에서 33년 반 동안 생활했으나, 직분을 이행한 것은 3년 반에 불과했다. 그는 사역을 행할 때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모두 정상 인성을 지니고 있었고, 정상 인성으로 33년 반을 살았으며, 마지막 3년 반 동안에는 언제나 성육신 하나님의 신분으로 나타났다. 그는 직분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정상 인성으로 나타났으며, 신성의 모습은 조금도 없었다. 단지 본격적으로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후에야 신성이 드러났을 뿐이다. 29년 동안 행한 사역과 모든 생활은 그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자 인자이며, 육신이었음을 증명한다. 그는 29세 이후부터 정식으로 직분을 이행했기 때문이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일컫는다. 즉,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들 가운데서 육신의 형상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육신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육신, 그것도 정상 인성을 갖춘 육신이 필요하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함의는 육신으로 사역하고 육신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 육신이 되고 사람이 된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삶과 사역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직분을 이행하기 전의 삶이다. 일반인의 가정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며,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윤리와 법칙, 정상적인 필요(의식주 등), 정상적인 연약함과 정상인의 희로애락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신성이 아닌 완전히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면서 정상인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후의 삶이다. 이때도 여전히 정상 인성의 외형을 지닌 평범한 인성으로 살며, 겉모습에는 조금도 초자연적인 부분이 없지만,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 살아간다. 이때의 정상 인성은 오로지 신성의 사역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정상 인성이 이미 직분을 이행할 수 있는 인성으로 성숙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의 삶은 정상 인성으로 직분을 이행하는 삶이자,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의 삶이다. 첫 번째 단계의 삶이 완전히 평범한 인성으로 사는 삶인 이유는 그때의 인성이 신성의 모든 사역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으며, 인성이 성숙해질 때까지, 즉 직분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인성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그가 이행해야 할 직분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신인 이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의 삶은 그저 정상 인성의 삶에 불과하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의 삶은 인성으로 사역을 충분히 담당하고 직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삶이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나님이 직분을 이행하는 기간의 삶은 바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의 삶이다. 만약 성육신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직분을 이행하고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만 행한다면, 육신의 본질은 없어진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의 인성은 육신의 본질을 위해 존재하고, 인성이 없는 육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성이 없는 사람은 비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 육신의 인성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고유한 속성이 되었다. 만약 누군가가 “성육신 하나님께는 신성만 있고 인성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독이다. 이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성육신의 원칙과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는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인성의 외형을 지닌 신성으로 살며 사역한다. 다만, 이때의 인성은 오로지 신성이 정상 육신에서 사역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역사하는 것은 인성 안에 있는 신성이다. 즉, 신성으로 사역하는 것이지 인성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신성은 인성에 가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인성이 아닌 완전한 신성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단, 역사하는 것은 육신이며, 이 육신을 사람이라고도,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되고, 사람의 외형과 본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을 지닌 사람이기에 창조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외형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인성을 지닌 모든 사람 가운데 오직 그만이 성육신한 하나님 자신이며, 그 외에는 모두 창조된 인류인 것이다. 똑같이 인성을 갖추고 있지만, 창조된 사람은 인성 말고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은 다르다. 그의 육신에는 인성 말고도 무엇보다 중요한 신성이 있다. 인성은 육신의 외관으로 알아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도 있지만, 신성은 쉽게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는다. 신성은 인성이 있는 전제하에 나타나며, 사람의 상상처럼 그렇게 비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장 측량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냐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했음에도 너희 대다수는 이에 대해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했다고 하면 그의 본질은 인성과 신성의 결합체이다. 이 결합체를 하나님 자신이자 땅의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땅에서 예수의 삶은 어디까지나 육신의 정상적인 삶이었다. 그는 육신의 정상 인성으로 살았다. 그가 직분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사역하고 말씀하는 권병,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병 등 비범한 일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29세가 되기 전, 그러니까 직분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그가 단지 정상 육신일 뿐이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정상 육신인 데다가 직분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저 그를 정상적인 일반 사람으로 봤을 뿐이다. 당시 일부 사람들이 그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다. 사람이 보기에 그는 일반인의 아들이었으며, 전혀 하나님이 입은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직분을 이행할 때 많은 이적을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는 다 그가 정상 인성의 외형을 지닌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다. 그의 정상 인성과 그가 행한 사역, 이 두 가지는 모두 첫 번째 성육신의 의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하나님이 참으로 육신에 임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었음을 실증하기 위해서였다. 사역을 하기 전까지 정상 인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범한 육신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것은 그가 사역을 시작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거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전부 정상 인성의 육신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적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육신이 하나님의 권병을 지니고 있고, 그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기 때문이다. 그런 권병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렇다고 그가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가 이행해야 할 직분 중의 사역이었고, 인성으로 가려진 신성의 발현이었다. 그는 어떻게 이적을 보이든, 어떻게 권병을 나타내든, 여전히 정상 인성으로 살았고, 여전히 정상 육신이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부활하기 전까지 계속 정상적인 육신으로 살았다.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고,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모두 그의 직분이었고, 정상적인 육신으로 행한 것이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무엇을 하든 정상 인성의 육신을 벗어나지 않았다. 비록 그가 하나님 자신이고, 또 그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었기에 의식주가 필요했고, 정상 인성으로서의 필요한 것이 있었으며, 정상인의 이성과 사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정상인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이 정상인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정상 인성을 지닌 육신이지 비범한 육신이 아님을 증명한다. 그가 행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으로 완성해야 할 사역, 첫 번째 성육신으로 이행해야 할 직분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육신의 의의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한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성으로 신성의 사역을 하며, 이를 통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육신 된 것, 즉 하나님이 육신 된 것이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곧 영이 하는 사역이다. 영이 하는 사역은 육신을 통해 실체화되고, 육신을 통해 발현된다. 하나님이 거하는 육신 외에는 누구도 성육신 하나님의 직분을 대신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정상 인성만이 신성 사역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이 처음 성육신했을 때 29세 이전까지 정상 인성이 없고, 태어나자마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세상의 모든

일을 꿰뚫어 보며, 말을 떼자마자 천상의 말씀을 하고, 사람의 생각과 품고 있는 마음을 모두 알 수 있었다면, 이런 사람은 정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육신은 육신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성육신의 의의와 본질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에게 정상 인성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임을 증명한다. 그가 정상인의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더더욱 그의 육신이 정상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그의 사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육신’된 존재임을 충분히 보여 준다. 하나님은 사역의 필요로 인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해, 그 단계의 사역은 반드시 육신, 즉 정상 인성을 통해 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의 전제 조건이며, 두 차례에 걸친 성육신의 실상이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적을 보였고, 땅에서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정상 인성의 모습이 조금도 없었으며, 그에게는 정상 인성의 필요나 연약함도, 사람의 희로애락도, 사람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의식주도 없었으며, 또한 사람의 상상처럼 초자연적인 두뇌와 비범한 인성만 지녔을 뿐 정상인의 두뇌 사유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라면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도, 정상 인성의 삶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오직 정상인이나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정상 인성이 갖춰야 할 사유와 정상 인성의 삶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상상하는 것은 전부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관념이며, 그런 관념은 하나님 사역의 원뜻에 위배된다.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가 있어야 정상적인 이성과 인성이 유지될 수 있고, 정상 인성이 있어야 육신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며, 육신의 정상적인 기능이 있어야 육신의 모든 생활이 정상적이 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육신으로 사역해야 성육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께 오직 육신의 외형만 있고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가 없다면, 그 육신은 인성과 이성을 지니지 않았으며, 합격한 인성은 더더욱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인성이 없는 그런 육신으로 성육신이 이행해야 할 직분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겠느냐?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는 사람의 모든 생활을 유지시켜 준다. 하지만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가 없게 된다면 그 사람은 비인간인 것이다. 다시 말해, 두뇌의 사유가 없는 사람은 정신병자이며, 인성 없이 신성만 있는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 어떻게 정상 인성이 없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께 인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상인이 하는 모든 활동은 두뇌의 정상적 사유에 의해 유지된다. 만약 두뇌의 정상적 사유가 없다면 사람의 활동은 규칙이 깨질 것이며, 심지어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윤리까지 잃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성육신 하나님께 두뇌의 정상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육신은 자격 미달이다. 즉,

정상적인 육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두뇌의 사유가 없는 이런 육신은 전혀 신성 사역을 담당할 수 없으며, 정상 육신으로 해야 하는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사람들과 함께 땅에서 생활하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성육신의 의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본질도 잃게 된다. 성육신 하나님의 인성은 육신 안에 있는 신성의 정상적인 사역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며,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는 정상 인성과 육신의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시켜 준다.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는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그 육신에 정상 인성의 사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육신으로 사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육신으로 해야 할 사역을 영원히 완성할 수 없다. 성육신 하나님은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를 지니고 있지만, 그의 사역에는 사람의 사유가 섞여 있지 않다. 그는 정상 사유를 지닌 인성으로 사역하고, 사유를 지닌 인성의 전제하에서 사역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를 발휘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거하고 있는 육신의 사유가 얼마나 고차원적이든, 그의 사역에는 논리학도, 사고학도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의 사역은 육신의 사유를 통해 상상해 낸 것이 아니라 신성의 사역을 인성으로 직접 나타낸 것이다. 그의 사역은 전부 그가 이행해야 할 직분이지, 그가 머리로 생각해서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십자가에 달린 것은 머리로 상정한 것이 아니며, 두뇌의 사유를 지닌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복 사역도 마찬가지로 성육신 하나님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직분이다. 하지만 이 사역은 전부 사람의 뜻이 아닌 신성이 해야 하는 일로, 육에 속하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나님은 반드시 두뇌의 정상적인 사유와 정상 인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가 정상 사유를 지닌 인성으로 사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의 본질이자,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이다.

예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단지 정상 인성으로 살았다. 사람은 그가 하나님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성육신 하나님임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은 그저 그를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다. 이 지극히 평범한 정상 인성은 하나님이 육신 되었음을 실증하고, 은혜시대는 영이 아닌 성육신 하나님이 사역한 시대임을 실증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육신으로 실체화했으며, 하나님이 성육신한 시대에는 육신이 영의 모든 사역을 한다는 것을 실증했다. 정상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정상 인성과 정상적인 이성, 정상적인 사유를 가진 육신으로 실체화한 것이다. ‘실체화’란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영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 정상 인성을 지닌 육신에 거하면서 그 육신을 통해 신성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체화’, 즉 말씀이 육신 된 것이다. 처음 성육신하였을 때는 사람을 위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했다. 그가 하는 사역이 속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 사람에게 금홍과 관용을 베풀어야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의 사역은 바로 사람을 위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 그 사역은 그가 사람을 죄와 더러움에서 구원할 것임을 예시했다. 은혜시대이기에 그는 사람의 병을 고쳐 주어야 했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다. 이러한 이적과 기사는 은혜시대 은혜의 상징이다. 은혜시대에는 주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 또는 물질적인 축복이 은혜시대의 상징이자 예수를 믿는 상징이 되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은혜시대에 예수가 지닌 육신의 본능이었다. 영이 육신으로 실체화하여 행한 사역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시종 육신에 거하면서 그런 사역을 행했으며 육신을 초월하지는 않았다. 어떤 식으로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든 여전히 정상 인성을 지니고, 인성의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 성육신의 시대에 육신이 영의 모든 사역을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어떻게 사역하든 전부 육신으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행한 사역 때문에 사람은 그의 육신이 육신의 본질을 완전히 지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의 육신이 이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아주 가끔 육신을 초월하는 사역을 할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모두 그가 직분을 이행한 후에 나타난 일이다. 그가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것이나 산 위에서 형상을 바꾼 것이 그 일례다. 그러므로 예수의 몸으로 성육신한 의의가 완전해지지 않았고, 일부만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육신의 모든 삶이 지극히 정상이었으나, 사역을 시작한 후로는 육신의 외형만 유지했다. 그가 하는 사역은 신성의 발현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상적인 기능을 뛰어넘었다. 어쨌든 하나님은 육신인 만큼 육에 속하는 사람과 같지 않았다. 물론 그도 평상시에는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집에 사는 등 정상적인 의식주 활동을 했고, 정상인의 이성과 두뇌 사유를 지니고 있었다. 사람이 보기에 그는 여전히 정상인이었으나, 그가 행한 사역은 아주 초자연적인 것이었다. 사실, 그는 어떤 사역이든 평범한 정상 인성으로 했다. 또한 그가 사역하는 때일수록 그의 이성은 더욱 정상적이었고, 그의 생각은 더욱 맑고 또렷했으며, 모든 정상인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었다. 이러한 이성과 생각도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다. 신성의 사역은 가장 정상적인 이성과 가장 맑고 또렷한 생각을 지닌 육신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육신으로 신성의 사역을 발현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예수는 33년 반 동안 세상에 있었다. 그는 33년 반 동안 시종일관 정상 인성을 유지했다. 다만 그가 3년 반 동안 행한 직분 사역 때문에 사람은 그가 매우 비범하고,

그전보다 훨씬 초자연적이라고 느꼈을 뿐이다. 사실, 예수는 직분을 이행하기 전이나 후나 정상 인성에 변함이 없었으며, 항상 똑같은 인성을 유지했다. 다만 직분을 이행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육신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성육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본래 갖고 있던 정상 인성을 유지한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육신으로 살아야 하고, 정상 인성의 육신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직분을 이행하든 안 하든, 인성은 육신의 근본이므로 그의 육신이 지닌 정상 인성은 없어서는 안 된다. 직분을 시작하기 전, 예수의 육신은 완전하고 정상적이었으며, 정상인의 모든 활동을 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서 초자연적인 면이나 이적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 그는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다만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추구했을 뿐이다. 이는 그의 가장 정상적인 인성의 모습이었다. 그는 직분을 이행하기 전까지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그의 신분은 물론, 그의 육신의 남다른 점도 알아채지 못했다. 당시 그는 어떤 이적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 자신의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정상 인성의 외형을 지니고 정상 인성의 이성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행하며, 평범한 인간, 즉 육에 속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정상 인성이 없다고 여겼으며, 그를 완전하고 정상적인 육신이 아닌 불완전한 육신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행한 사역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정상 인성이 없는 육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이 성육신의 의의를 알지 못해서 생긴 것으로,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은 신성 사역이고, 그 사역은 정상 인성의 육신으로 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에 거하며, 인성을 통해 사역하면서 정상 인성이 가려졌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 성육신했을 때 성육신의 사역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다. 다만 육신이 해야 할 첫 단계의 사역만 마쳤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의 사역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다시 한번 육신으로 돌아와서 육신의 모든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살아 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도를 가장 정상적이고 평범한 육신으로 나타냄으로써 육신으로 끝내지 못한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입은 육신은 첫 번째의 육신과 본질 면에서 같지만, 첫 번째 육신보다 더 실제적이고 정상적이다. 이로 인해 두 번째의 성육신이 받는 고난은 첫 번째 성육신 때보다 더 크다. 그러나 그 고난은 육신의 직분으로 인해 생긴 것이지, 파괴된 인간이 받아야 할 고난과는 다르다. 또한, 그 고난은 육신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가장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으로 직분을 이행하기에 그 육신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육신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일수록 직분을 이행할 때 겪는 고난은 더 커진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극히 평범한 육신으로 발현되기에 초자연적인 모습이 조금도 없다. 육신이 정상적인 데다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겪는 고난은 초자연적인 면을 가진 육신이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 그 고난은 모두 육신이 실제적이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두 번의 성육신이 직분을 이행하면서 겪는 고난을 통해 성육신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사역을 담당하는 육신이 정상적일수록 겪는 고난이 더 크고, 사역을 담당하는 육신이 실제적일수록 사람의 관념은 더욱 심해지며, 감당해야 할 위험도 커진다. 그러나 실제적인 육신일수록, 그리고 정상인의 완전한 이성과 요구를 지닌 육신일수록 하나님이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을 더 잘 담당할 수 있다. 예수는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신으로 속죄 제물이 되었다. 즉, 정상 인성을 지닌 육신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구원한 것이다. 두 번째의 성육신은 완전한 육신으로 정복 사역을 하며, 사탄을 물리친다. 완전히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만이 완전한 정복 사역을 할 수 있고,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면과 정상적인 면을 통해 이루는 성과이지, 초자연적인 이적과 계시를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이행해야 하는 직분은 말씀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한다. 즉, 영이 육신으로 실체화하여 행하는 사역은 말씀을 하는 것이며, 육신의 기본 사역 또한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고, 드러내며, 온전케 하고, 도태시키는 목적을 이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정복 사역을 통해 철저히 완전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속죄 사역은 성육신의 초기 사역에 불과하며, 정복 사역을 하는 육신이야말로 성육신의 모든 사역을 보완한다. 성별을 봐도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로,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해졌으며, 이로써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떤 관념도 가지지 않게 된다. 즉, 하나님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으며,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에는 성별의 구분이 없다. 그는 남자를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으며, 그에게는 성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계 사역에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성과를 얻는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며, 또 다른 이유는 이번 성육신의 사역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본능은 말씀하고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가 정상 인성으로 하는 사역은 이적을 보이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두 번째로 입은 육신은 첫 번째의 육신보다 훨씬 정상적이고, 또한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번 성육신이 예수의 성육신과 다르며, 성육신이기는 하나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이다. 예수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따라다녔다. 이번 성육신에게서는 사람의 병을 고쳐 준다거나 귀신을 쫓는다거나 물 위를 걷는다거나 40일 동안 금식하는 등의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이적과 기사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예수가 했던 것과 같은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입은 육신의 본질이 예수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직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망가뜨리지도, 방해하지도 않는다. 실제적인 말씀으로 정복하기에 이적으로 사람을 탄복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성육신의 사역을 완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네가 볼 수 있는, 육신의 하나님은 완전한 육신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면도 지니고 있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병도 앓고 의식주 활동도 하는 완벽한 육신이다. 만약 이번 성육신도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누군가에게 죽으라 명해 그 사람이 바로 쓰러진다면 어떻게 정복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사역을 이방으로 확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을 위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혜시대의 사역이자 구속 사역의 첫걸음이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원했기에 더 이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 말세에 예수와 동일한 ‘하나님’이 와서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같아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이 입은 육신이다. 한 번 이룬 것은 영원히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육신의 사역은 첫 번째 성육신이 행한 사역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정복 사역을 평범하고 정상적인 육신으로 실체화한다. 그는 사람을 위해 병을 고쳐 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으며, 그저 육신으로 말씀하고 사람을 정복한다. 이런 육신만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며,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을 완전케 할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고난을 받거나 직분을 이행하는 것은 모두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다. 이는 마지막 성육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두 번까지일 뿐, 세 번째는 없다.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로, 두 번째는 여자로 성육신하여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육신의 형상을 완전케 하였다. 게다가 두 번의 성육신 사역은 이미 육신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끝냈다. 첫 번째 성육신이 정상 인성을 지니고 있었던

이유는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단계에도 정상 인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의의는 첫 번째와 다르며, 첫 번째보다 훨씬 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가 행하는 사역의 의의 또한 더 깊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이유는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 단계의 사역을 철저히 끝내면 성육신의 모든 의의, 즉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철저히 끝나므로 더 이상 육신이 해야 할 사역은 없다. 다시 말해, 앞으로 하나님은 다시는 육신으로 와서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고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성육신의 사역을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면 절대로 쉽게 육신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가 육신으로 와서 사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육신이자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인류를 속량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다! 사탄은 인류를 패괴시키기 위해 역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한다. 사탄은 사람을 무저갱에 밀어 넣고, 하나님은 사람을 무저갱에서 구원한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게 한다.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역은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 성과를 얻는다. 이 육신의 본질은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며, 정상 인성을 갖춘 육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없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성과를 얻을 수 없고, 육신에 정상 인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 또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에는 반드시 정상 인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육신의 원 뜻과 어긋나게 된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그 단계 사역이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지 못했다고 하겠느냐? 그것은 말씀이 완전히 육신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행한 사역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 중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구속 사역만 했을 뿐, 사람을 완전히 얻는 사역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두 번째로 성육신한 것이다. 이번 단계 사역도 평범한 육신으로 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한다. 그에게는 비범한 인성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완전한 사람, 완전한 육신으로 사역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비범한 면이 조금도 없는 육신이자,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이적을 나타내지도, 권능을 행하지도 않으며, 예배당에서 종교의 실상을 폭로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사람이 보기에 두 번째 성육신이 하는 사역은 첫 번째 성육신이 한 사역과 완전히 다르며, 심지어는 똑같은 점이 하나도 없다. 또한 이번 단계에서는 첫 단계의 사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로 하는 사역은 첫 번째에 한 사역과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근원이 하나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의 근원이 하나인지 아닌지는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육신의 외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3단계 사역에서 총 두 번 성육신하였다. 또한 두 번의 성육신 사역은 모두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것으로, 두 번의 성육신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이 두 육신의 근원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다. 물론, 이는 사람의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고, 사람의 사유로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본질은 원래부터 하나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의 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의 성육신의 근원이 하나인지를 알아보려면 육신의 출생 연대나 출생지, 혹은 육신의 다른 조건들을 볼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낸 신성 사역을 봐야 한다. 두 번째의 성육신 사역에서는 예수가 행한 사역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마다 이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길을 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성육신한 이유는 첫 번째 육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긴 인상을 더 깊게 하거나 공고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육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긴 형상을 보완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이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규례를 깨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잘못된 형상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자신이 행한 어느 한 단계의 사역도 사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게 할 수는 없다. 일부만 알 수 있을 뿐, 완전히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성품을 다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불완전하다.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남김없이 다 표현할 수 없을진대, 단 한 단계의 사역으로 어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겠느냐? 육신의 사역은 정상 인성에 가려져 있기에 사람은 오로지 신성의 말씀을 통해 그를 알 수 있을 뿐, 육신의 외형을 보고서는 그를 알 수 없다. 육신을 입고 온 그는 서로 다른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그의 사역이 단계마다 다르다는 점을 알게 한다. 그래야 사람은 육신으로 하는 그의 사역을 일정 범위에 규정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두 번에 걸친 성육신의 사역이 서로 다르지만, 육신의 본질은 같고 사역의 근원은 동일하다. 다만 두 번의 성육신은 서로 다른 두 단계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고, 두 시대에 나타났을 뿐이다. 하지만 어찌 됐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본질은 같고 그들의 근원도 같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은 모두 사람을 떠날 수 없다. 사역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다. 사람의 삶과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전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므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인류의 이익은 물론, 사탄의 간계까지 겨냥한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사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역시 고의적으로 사람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전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과 하나님의 생각(하나님의 뜻)은 모두 사람이 알아야 할 ‘이상(異象)’이 되었다. 이런 이상도 다 하나님의 경영이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이다. 반면 하나님이 사역하면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사람의 ‘실행’이라고 한다. ‘이상’이란 하나님 자신의 사역, 또는 사람에 대한 그의 뜻과 그가 사역하는 목적, 의의를 말한다. ‘이상’은 또한 ‘경영’의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영’은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 즉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역은 모두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가는 근거이자 길이며, 게다가 사람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치나 사소한 일만 중시하고 그의 사역에 대한 인식을 등한시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거니와 그의 뜻에 맞게 행할 수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상은 모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사역의 목적과 의의를 말한다. ‘실행’이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 요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차츰차츰 심화되고 높아진다. 예를 들어, 사람은 율법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했고, 은혜시대에는 십자가를 져야 했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는 그와 다르다. 사람에 대한 요구는 율법시대와 은혜시대보다 더 높아졌다. 이상이 높아지면서 사람에 대한 요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명확해지며, 실제적으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이상 역시 갈수록 실제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많은 실제적인 이상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게 되는 데 이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에도 더욱 도움이 된다.

하나님나라시대에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더 현실적이고, 사람의 본질과 성품 변화에 더 초점을 둔다. 이런 사역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나라시대에 사역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이전의 어느 때보다 자신을 더 많이 공개한다. 즉, 사람이 알아야 할 이상이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이 전례 없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나라시대의 사람이 알게 되는 이상은 전체 경영 사역에서 가장 높은 이상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전례 없는 경지에 이르러 사람이 알게 된 이상도 가장 높은 이상이 되었고, 그에 따라 사람의 실행도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더 높아졌다. 사람의 실행은 이상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이상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또한 사람에게 대한 요구가 완전해짐을 뜻한다. 하나님의 모든 경영이 멈추면 그에 따라 사람의 실행도 멈추게 된다.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전의 규례를 지킬 수밖에 없거나 아예 행할 길이 없어진다. 새로운 이상이 없으면 사람에게 새로운 실행도 없고, 완전한 이상이 없으면 사람에게 완벽한 실행도 없다. 이상이 높아지지 않으면 사람의 실행도 높아지지 않는다. 사람의 실행은 하나님의 발걸음에 따라 바뀐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식과 체험 역시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바뀐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은 즉시 그의 진노 속에서 죽게 된다. 사람에게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다. 오늘날 사람의 인식이 얼마나 높아지고, 체험이 얼마나 깊어졌든 하나님의 사역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과 사람의 실행은 이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역에는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이상이 있고, 그에 따라 사람에게 적합한 요구를 제시한다. 그런 이상을 기반으로 삼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예 실행하지도, 끝까지 따르지도 못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도 없다. 사람이 지닌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인도를 떠날 수는 없다. 또 사람이 제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많이 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찌 되었든 사람의 실행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새 이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실행이 없다. 그들의 실행이 진리와 무관한 까닭은 모두 규례와 죽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새 이상이 전혀 없고, 따라서 새 시대의 실행도 없다. 그들은 이상을 잃었고, 또한 성령 역사와 진리를 잃은 것이다. 진리가 없는 자는 모두 그릇됨의 후손이자 사탄의 화신이다. 어떤 인물이든 하나님 사역의 이상이 없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함께함을 잃어서도 안 된다. 사람이 일단 이상을 잃으면 즉시 음부로 떨어져 흑암 속에서 살게 된다.

이상이 없는 사람은 흐리멍덩하게 따르는 자이고, 성령 역사가 없는 자이며, 지옥에서 사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건 자이다. 성령 역사와 성육신 하나님, 그리고 전체 경영의 3단계 사역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모두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진리가 없는 자는 모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기꺼이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상을 기반으로 삼은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이다. 그 협력이 바로 사람이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異象)에는 수많은 실행의 길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 역시 다 이상에 들어 있고, 사람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역 역시 다 이상에 들어 있다. 예전에는 각 지역에서 특별 예배를 하거나 대예배를 하면, 한 부분의 실행 길만 강조했다. 그런 실행은 모두 은혜시대에 실행해야 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별로 깊은 관계가 없다. 은혜시대의 이상은 기껏해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뿐, 그 외에 더 큰 이상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구속한 사역밖에 없었으므로 은혜시대에는 사람에게 알려 줄 이상이 더는 없었다. 그리하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것 외에 단순하고도 초라한 실행만 조금 있었을 뿐이다. 이는 오늘날과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가져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말할 수 없었고, 사람이 진입해야 할 가장 적합한 실행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그저 포용과 인내를 바탕으로 단순한 세부 내용들만 조금 더해졌을 뿐, 그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은 동일한 시대에 더 새로운 사역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요구 역시 포용하고 인내하거나 십자가를 지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실행 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높은 이상이 더는 없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더 많은 이상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행하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요구 역시 유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쉽고 단순한 실행만 조금 했을 뿐, 어떻게 해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오늘날 더 많은 이상을 말하는 까닭은 오늘날에 더 많은 사역, 율법시대와 은혜시대보다 몇 배 많은 사역을 행했으며, 사람에 대한 요구 또한 이전 시대보다 몇 배나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 사역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 사역들의 의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이 사역들에 필생의 정력을 쏟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복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실행의 길만 말한다면 사람을 정복할 수 없고, 이상에 대해서만 말하고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사람을 정복할 수 없다. 실행의 길만 말하면 사람의 정곡을 찌를 수 없고, 사람의 관념을 없앨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철저히 정복할 수도 없다. 사람을 정복하는 도구는 주로 이상이다. 그러나 이상 외에 실행의 길이 조금도 없다면 사람은 따라갈 수 없고, 나아가 진입할 수도 없다.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이상 속에 실행이 있고, 실행 외에 또 이상이 있다. 사람의 생명과 성품의 변화 정도는 모두 이상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의 노력에만 기댄다면 변화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상이란 하나님 자신의 사역과 그의 경영을 말하고, 실행이란 사람이 실행할 길과 생존의 길을 가리킨다. 전체 경영에서 이상과 실행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다. 이상을 없애거나 이상만 말하고 실행은 말하지 않는다면, 또는 사람의 실행은 없애고 이상만 있다면 그것은 경영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본분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마저도 부인하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없이 사람에게 실행만 요구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을 알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역은 더더욱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뜻도 모르면서 무작정 막연하게 실행하기만 한다면, 사람은 영원토록 온전히 합당한 자격을 갖춘 피조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부분의 내용은 모두 필수적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 즉 이상만 있고 사람의 협력과 실행이 없다면 그것은 경영이라 하지 않는다. 또 사람의 실행과 진입만 있다면, 사람이 진입하는 길이 가장 높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의 진입은 반드시 사역과 이상에 따라 차츰차츰 바뀌어야지 마음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실행의 원칙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범위가 있다. 이 원칙들은 모두 사역의 이상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에 경영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이다.

경영 사역은 인류 때문에 생겨났다. 즉, 인류가 있어서 생긴 것이지, 인류가 있기 전이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생긴 것이 아니다. 모든 사역에서 사람에게 이로운 실행이 없다면, 즉 하나님이 파괴된 인류에게 적합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그가 행하는 사역에 사람에게 적합한 실행의 길이 전혀 없다면) 그 사역을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모든 사역에서 파괴된 인류에게 어떻게 실행하라고 요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능이나 지혜를 조금도 나타내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높은 요구를 하든,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오래 생활하든, 사람은 그의 성품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사역을 더더욱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경영’이라는 이 사역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에게 얻어진 모든

사람이 그의 인도를 받으며 행하는 모든 사역을 뜻한다. 이런 사역을 ‘경영’이라고 총칭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그와 협력하는 것을 통칭하여 ‘경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상’이라고 하고, 사람의 협력은 ‘실행’이라고 한다. 하나님 사역이 높아질수록(이상이 높아질수록) 그의 성품은 사람에게 더 많이 공개되고, 사람의 관념과는 더 부합하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실행과 협력 또한 더 높아진다. 또 사람에게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관념에 더 부합하지 않고, 그에 따라 사람에게 대한 시련의 정도와 사람이 달성해야 하는 요구 기준도 더 높아진다. 사역이 끝날 때면 모든 이상이 완벽해지고, 사람의 실행에 대한 요구 역시 모두 완전무결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때가 바로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때이다.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이미 사람에게 모두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상이 최고조에 이를 때는 사역도 그에 따라 막바지에 이르고, 사람의 실행 역시 절정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실행은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경영 또한 사람의 실행과 협력을 통해야만 완전히 나타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존재이고, 전체 경영 사역의 사역 대상이며, 또한 전체 경영의 산물이다. 하나님 자신의 사역만 있고 사람의 협력이 없다면, 그의 전체 사역의 결정체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경영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 하나님은 사역을 하는 것 외에도 적합한 사역 대상을 택해 그의 사역을 나타내고, 그의 전능하고 지혜로운 사역을 실증해야만 그의 경영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모든 사역으로 사탄을 철저히 물리치는 목적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 사역에서 사람은 필수 불가결한 일부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경영이 성과를 거두고 최종 목적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사람을 제외하고는 생명을 가진 그 어떤 생물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사람을 경영 사역의 진정한 결정체로 만들려면, 반드시 파괴된 인류의 모든 패역을 벗겨 버려야 한다. 그러려면 시기에 따라 사람에게 적합한 실행을 요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에 상응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에 경영 사역의 결정체가 된 한 무리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은 하나님 혼자 행해서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사역에 적합한, 생기 있는 사람을 통해 그의 사역을 이뤄야 한다. 하나님은 먼저 이들에게 사역한 후, 다시 이들을 통해 그 사역을 나타내고, 그의 이러한 증거가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역하는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홀로 사역하여 사탄을 물리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서 직접 자신을 증거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할 수 없다. 반드시 사람에게 행한 사역으로 사람을 모두 정복해야만 피조물 가운데서 자신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만 계속 사역하고 사람이 협력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협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 또한 영원히 사람에게 알려질 수 없다. 그것은 경영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한 채 혼자 노력하고 추구하고 애쓰는다면, 그것은 짓궂은 장난을 하는 것이다. 성령 역사가 없다면 사람이 하는 일은 곧 사탄이 하는 짓이고, 모두 거역하는 것이자 악을 행하는 것이다. 파괴된 사람이 행하는 것은 모두 사탄을 연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사탄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말씀은 이상과 실행이라는 두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이상을 바탕으로 실행과 순종의 길을 찾아야 하며, 관념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와 협력하고 그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바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그의 전능을 깨달으며 그의 성품을 알기를 원한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바로 경영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바로 경영이며, 이것은 가장 큰 경영이다.

이상(異象)과 관련된 것은 주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가리키지만, 실행과 관련된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이 완성하고, 사람의 실행은 사람 스스로 해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고,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은 그 자신의 직분이므로 사람과 관계가 없다. 그 사역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고, 더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려는 사역을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람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 헌신하는 것일지라도, 사탄에게 넘겨져 굳게 서야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다 사람이 해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을 전부 끝내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모두 사람에게 지시하고 나면, 나머지 사역은 사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은 직분 내의 사역만 할 뿐, 그 외의 사역은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길을 가리켜 주고 길을 여는 사역만 행할 뿐, 길을 닦는 사역은 행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사람이 하나님도 사람처럼 진리와 관련해 고통받거나 연단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패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모든 인도에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생활하든, 사람이 해내야 하는 것은 사람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사람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 사람은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완전히 순종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이성이다. 하나님 자신이 행해야 할 사역을 다 하고 나면 사람은 조금씩 체험해야 한다. 전체 경영이 끝나는 마지막 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지 못한다면 징벌을 받아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패역한 탓이지, 하나님이 사역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징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본분조차 다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서 고생하는 것 아니겠느냐? 죽음을 자초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 놓고 또 무슨 훗날과 앞날을 바라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를 위한 것이고, 사람의 협력은 하나님의 경영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다 한 다음에는 사람이 전력을 다해 실행하고 협력해야 한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하고 충성을 바쳐야지, 관념을 계속 늘려 가거나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데, 사람은 왜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데, 사람은 왜 조금도 협력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사역하는데, 사람은 왜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 자신의 본분을 조금도 이행하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사역했음에도 너희는 보고도 행하지 않고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자는 모두 침륜될 대상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사람은 왜 지금까지도 착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는 사역이 첫째이고, 자신의 경영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첫째이다. 이런 것은 너희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 한 말은 이미 너희의 본질을 뿔속까지 짚어 냈고, 사역은 이미 전례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 도의 진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관망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행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하나님이 먹고 입는 것에 신경 쓰며, 관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자는 모두 스스로 번뇌를 자초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자가 어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겠느냐? 어찌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겠느냐? 자신의 충성과 본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행적’에만 관심을 두니 정말 가증스럽기 그지없는 자들이다! 사람이 깨달아야 할 것을 모두 깨닫고 실행해야 할 것을 모두 실행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모두 사람의 본분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행해야 할 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징벌받게 될 것이다. 눈에 뵈 만큼 대적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적대시하는 자이고,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대적하는 태도를 지닌 자이다. 성령 역사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한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이다.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이고,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의 사역과 경영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그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하며, 자신의 경영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길을 가리켜 주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 준다. 하나님의 경영과 사람의 실행은 한 단계의 사역으로, 동시에 행하는 것이다. 경영을 언급하면 사람의 성품 변화와 관련되고, 사람이 해야 하는 것과 사람의 성품 변화를 언급하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람의 실행이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뀌고, 또 그의 사역이 언제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전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실행이 규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역과 인도를 잃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의 실행이 늘 바뀌지도 않고 깊어지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실행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실행이자 비진리의 실행임을 의미한다. 사람에게 행할 길이 전혀 없다면, 그들은 벌써 사탄의 손아귀에 떨어져 통제를 받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악령에게 통제받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실행이 깊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 또한 발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의 진입 또한 정체되는데, 이것은 필연적이다. 전체 사역에서 사람이 계속 여호와의 율법만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역 역시 진전될 수 없고, 더욱이 전체 시대가 끝날 수도 없다. 사람이 계속 십자가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행동하고 인내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 역시 계속 발전할 수 없다. 6천 년 경영은 율법이나 십자가만 지키면서 인내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서는 전혀 끝나지 않는다. 전체 경영 사역은 하나님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옴으로써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을 아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에게서 끝난다. 이것이야말로 사역의 필연적인 추세이다. 왜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의 실행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실행하는 것이 지금의 사역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은혜시대에는 그들이 실행한 것도 옳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사역이 바뀌면서 그들의 실행은 점점 시대에 뒤떨어졌다. 새 사역과 새 빛으로 말미암아 뒤쳐지게 된 것이다. 성령 역사는 기존 사역을 바탕으로 몇

단계나 더 심화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존 상태에 그대로 머무른 채 낡은 방식과 빛을 고수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3년 혹은 5년 내에도 아주 큰 변화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2천 년이란 시간에는 더욱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사람에게 새로운 빛과 실행이 없는 것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의 실수이다. 예전에 성령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낡은 방식을 고수한다고 해서 새 사역의 존재가 부인될 수는 없다. 성령 역사는 언제나 앞을 향해 발전한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차츰 심화되고 변화해야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성령 역사를 모르는 자들만이 기존의 사역에 정체되어 성령의 새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패역한 자들만이 성령 역사를 얻지 못한다. 사람이 성령의 새 역사를 따라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 실행은 분명히 지금의 사역과 동떨어진 것이고, 또한 틀림없이 지금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더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굳건한 증인이 될 수도 없다. 전체 경영 사역 역시 그런 무리에게서는 끝날 수 없다. 지난날 여호와와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과 십자가를 위해 고난받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들이 행한 것은 모두 헛되고 쓸데없는 것이다. 성령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현실적이고, 옛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사역을 따르지 못하는 자와 오늘날의 실행과 동떨어진 자는 모두 성령 역사를 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적하는 자이다. 그들이 이전의 빛을 지키고 있다 해서 성령 역사를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행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이전의 실행과 현재 실행의 구별에 대해 말하고, 이전의 그 시대에 어떻게 실행했고 현재 이 시대에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말하겠느냐? 늘 이런 실행의 구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성령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요구하는 실행 또한 계속 달라진다. 사람이 어떤 상태에 멈추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과 빛에 닿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자들은 늘 자신의 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던 사역을 이미 오래전에 중단했으므로 그들에게는 성령 역사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사역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옮겼고, 그들에게서 자신의 새 사역을 이루려고 한다.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옛 사역만 지키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그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새 사역을 행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새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경영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경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사람의 실행 또한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역하고 있고, 사람 역시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기에 이 둘의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대업이 이루어졌다는 표시이자 전체 경영의 최종 결과이다.

각 단계마다 하나님은 사역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한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는 모두 성령의 함께함과 징계가 있지만,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자는 전부 사탄의 지배를 받으므로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새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요구한 진리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징계를 받게 되며 심한 경우 성령께 버림받게 된다. 성령의 새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성령의 흐름 속에서 살면서 성령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다. 기꺼이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깨우침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의 징계가 있고 심지어 징벌도 임한다. 어떤 사람이든 성령의 흐름 속에 있기로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새 사역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진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기꺼이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의 축복을 받지만, 그를 거역하고 그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징벌을 받게 된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새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새 사역을 받아들인 이상, 하나님과 상응하는 협력을 해야지,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패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이다. 그러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르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자들이니 성령의 징계나 책망 같은 것은 아예 말할 것도 못 된다. 그들은 온종일 자신의 육체와 머릿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머리로 분석하고 연구해 낸 이치지, 성령의 새 역사에서 비롯된 요구도, 더욱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함이 전혀 없으며, 축복이나 보호 같은 것은 더더욱 논할 수 없다. 그들의 언행은 대부분 지난날 성령 역사에서 비롯된 요구를 지키는 것으로, 이치이지 진리가 아니다. 그런 이치와 규례들은 그들의 집합체가 종교일 뿐, 선민이나 하나님의 사역 대상이 아님을 충분히 보여 준다. 그들 모든 사람의 집합체는 종교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교회라고 칭할 수는 없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새 역사가 없고, 그들의 모든 행위에서는 종교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며, 그들의 삶은 전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함께함과 역사가 없으며, 더욱이 성령의 징계나 깨우침을 받을 자격도 없다. 그들은 모두 생명이 없는 시체이고, 영성(靈性)이 없는 구더기이다. 그들은 사람의 거역과 대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사람의 온갖 악행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지금의 뜻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무지한 소인배들이고, ‘신자’로 불릴 자격이 없는 인간 말종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행하든 하나님의 경영과는 관계가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도 없다. 그들의 언행은 너무나 역겹고 초라하여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것은 성령의 새 사역과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행하든 성령은 징계하지도, 깨우쳐 주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두 성령에게 버림받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욕을 좇아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사역할 때 고의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거슬러 역행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못하는 것만 해도 이미 크나큰 패역인데, 하물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역행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악행을 언급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몹시도 저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는 것 같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전혀 관련이 없고 자신의 증거와도 관련이 없다고 본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행하든 하나님과는 무관하고, 하나님의 이름과도 관련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현재 사역과도 관련이 없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를 모욕하고, 사탄을 드러내면서 그 진노의 날을 위해 악행을 쌓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경영을 가로막지 못한 자들과 하나님의 새 사역과 무관한 자들이라면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행하든 그에 걸맞은 어떤 보응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진노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진작 많은 일들에 관여했어야 하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영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노의 날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자들이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종교인들은 성령의 함께함과 역사가 없는 데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멸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제멋대로 날뛰게 가만히 두시는 것입니까?” 사탄을 나타내고 욕을 드러내는 자들은 모두 무지한 소인배들이고, 그릇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알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들을 철저히 정복하고 나면 악을 행한 자들은 모두 보응을 받을 것이며, 아무도 그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사람을 징벌하는 때가 아니라 정복 사역을 하는 기간이다. 하나님의 경영을 망치는 짓을 저지른 일부에 대해서만 그들이 한 짓의 경중에 따라 합당한 징벌을 내릴 뿐이다. 인류를 경영하는 기간에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성령에게 버림받은 자들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으므로 그들의 실행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관련되는 사람은 오직 새 사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뿐이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받아들이는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대상이 있다. 사탄과 관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증거할 자격이 전혀 없고, 나아가 하나님과 협력할 자격도 없다.

각 단계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동시에 사람 또한 이를 증거해야 한다. 각 단계의 사역은 전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다.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지만, 사역의 대상과 온전케 하는 대상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성과를 거둘지는 사람이 그를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한 모든 요구이며, 사탄 앞에서 해야 하는 증거이다. 그 증거는 또한 하나님의 사역 성과를 실증한다. 전체 경영은 세 단계로 나뉜다. 하나님은 단계별로 사람에게 합당한 요구를 하는데, 시대가 달라지고 발전함에 따라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갈수록 높아진다. 그리하여 경영 사역도 점차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이 사실을 알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졌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증거 역시 더 높아졌다.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협력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는다. 사람의 협력은 바로 사람이 해야 하는 증거이고, 사람이 해야 할 증거는 바로 사람의 실행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이 상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진실한 증거가 있을지는 사람의 협력, 증거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사역이 끝날 때, 즉 전체 경영이 모두 끝날 때, 사람은 더 높은 수준으로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이 종결될 때, 사람의 실행과 진입 또한 절정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과거에는 사람에게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고 인내하며 겸손해질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 요구는 사람이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단계의 요구는 전체 경영에서 사람에게 단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사역은 단계별로 더 깊어졌고, 사람에 대한 요구도 단계별로 더 높아졌다. 전체 경영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사람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 인류는 사탄의 권세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며, 나아가 사역이 완전히 끝날 때는 전 인류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된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사람이 성품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 또한 없어지면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다시는 거역하지도, 대적하지도 않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은 더 조화로워질 것이다. 그 협력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의 경영이 모두 끝난 후의 삶이며,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사탄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짝 따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어둠 속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따르지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모든 사역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이상, 단계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짝 따라야 하고,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참도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다. 글귀나 이치만을 고집스레 지키는 자는 모두 성령 역사에 의해 도태될 자이다. 하나님은 시기마다 새 사역을 전개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시기마다 새로운 시작이 생긴다. 사람은 단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 혹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진리들을 지킨다면, 영원히 성령 역사를 따라갈 수도, 얻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든 아무 의심도 없이 바짝 따라간다면, 사람이 어찌 성령에 의해 도태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든 성령 역사임을 확신하고, 아무 걱정 없이 성령 역사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요구대로 한다면, 사람이 어찌 징벌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으며 그의 발걸음도 멈춘 적이 없다. 하나님은 경영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는 늘 바쁘게 보내며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성령 역사를 조금 얻으면 영구불변한 것으로 삼고, 인식이 조금 생기면 하나님의 더 새로운 사역을 ‘쫓아’ 앞으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 보면 하나님을 특정한 조각상으로 규정하기 바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이 본 그 형상대로일 것이고, 예전에 어땠으면 이후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라고 여긴다. 알팍한 인식이 조금 생기면 우쭐거리면서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을 제멋대로 퍼뜨리기 시작한다. 한 단계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고 나면 누군가 하나님의 새 사역을 아무리 전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성령의 새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고, 지나치게 옛것을 고수하며 새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여기지만, 또 절대다수의 사람이 ‘여호와만 믿으면서 예수를 저버리는’ 역할과 ‘메시야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예수라 칭하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사람이 모두 한 단계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였음에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는 모두 사람의 패역이 초래한 것 아니냐? 오늘날의 새 사역에 뒤처진 세계 각지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요행을 바라며 하나님이 그들 각자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셋째 하늘로 올려 주어야 하는지, 예수가 어떻게 흰 구름을 타고 와서 그들을 맞아 줄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다. 더욱이 예수가 정말 흰 구름을 타고 그들이 상상하는 그날에 올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도 없다. 그들은 저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하나님이 과연 다양한 교파에 속한 하나하나의 ‘작은 무리’를 끌어 올려 줄지 그들 자신조차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말하지도 못하면서 하루하루 손꼽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어린양의 발걸음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만이 최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으면서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얻었다고 여기는 그 ‘똑똑한 자’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나타남을 볼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계속 발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아무런 까닭 없이 중단시킨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 즉 ‘하나님께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면서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끌어 올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편단심으로 충성’할지라도 그들의 언행은 여전히 너무도 역겹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에 대적하고, 간계를 부리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길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성령 역사도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옛 사역만 고수하는 자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새 시대에 버림받으며, 징벌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가련한 자들 아니겠느냐? 또 많은 사람은 낡은 율법을 버리고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양심’만 따질 뿐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앞날을 망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사역할 때는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자신이 행한 사역일지라도 미련을 두지 않으며, 부인할 것은 부인하고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킨다. 그런데 사람이 오히려 경영 사역의 일부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적대시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그릇됨 아니겠느냐? 사람의 무지함 아니겠느냐? 복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마지막 복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자들은 모두 율법에 절대적으로 충성한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에 충성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자가 된다. 지금은 율법시대가 아니라 하나님나라시대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역을 과거의 사역과 함께 논해서는 안 되고, 과거의 사역을 오늘날의 사역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었고 사람의 실행 또한 바뀌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십자가에 대한 사람의 충성심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

하나님나라시대에는 사람을 완전히 온전케 할 것이다. 사람은 정복 사역 후에 연단과

환난으로 들어가게 된다. 환난 속에서 이겨 내고 굳게 서는 자는 최종적으로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그들이 곧 이긴 자이다.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요구는 바로 그 연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연단은 마지막 사역이고, 전체 경영 사역이 끝나기 전에 받게 되는 마지막 연단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그 마지막 검증과 마지막 연단을 받아야 한다. 환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역사도, 하나님의 인도도 없지만, 진정으로 정복된 자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모두 굳게 설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인간성이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이긴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든 이상을 잃지 않으며, 변함없이 진리를 실행하면서 증거를 잃지도 않는다. 그들이 바로 마지막에 대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혼란을 틈타 묻어가려는 자들은 지금은 그럭저럭 버티며 빌붙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도 마지막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마지막 검증을 피할 수 없다. 이 환난은 이기는 자에게는 크나큰 연단이지만, 혼란을 틈타 묻어가려는 자에게는 철저히 도태되는 사역이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주든 하나님에 대한 충정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일단 하나님의 사역이 자기 육에 불리해지면 즉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간다. 이런 자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굳게 설 수 없는 자들이고, 복만 받으려 할 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자신을 바칠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이런 부류의 소인배들은 사역이 끝날 때 모두 ‘쫓겨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금도 인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인간성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들은 편안한 환경에 있거나 취할 이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고분고분 순종하지만, 일단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거나 결국 깨지게 되면 즉시 일어나 반항한다. 심지어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던 ‘착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험상궂은 망나니로 돌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난날의 은인을 철천지원수로 대하기도 한다.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악마들을 경계 밖으로 몰아내지 않는다면 마음속의 우환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은 정복 사역이 끝난다고 해서 대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복 사역이 일단락되었더라도 사람을 정결케 하는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람을 완전히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두 온전케 하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위선자들을 모두 제거해야 비로소 사역이 종결된다. 마지막 단계의 사역에서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없는 자는 완전히 도태되는 자이다. 도태되는 자는 모두 마귀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지금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도 남아 있을 사람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에서 ‘따른다’에 내포된 뜻은 환난 속에서도 굳게

선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지금은 따르는 것을 상당히 쉬운 일로 여기지만, 사역이 끝날 무렵이면 따르는 것에 내포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정복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따르고 있다고 해서 네가 온전케 되는 대상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시련을 이겨 내지 못하는 자, 환난 속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절대 서지 못한다. 그들은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는 모두 공사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떤 시련도 이겨 낼 수 없다. 그들은 조만간에 모두 쫓겨나겠지만, 이기는 자는 하나님나라에 남을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인지는 공사의 검증, 즉 시련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함부로 내버리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은 진심으로 탄복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일과 인정하지 않는 사역은 하지도 않는다. 믿음이 참된지 거짓된지는 모두 사실로 입증된다. 이는 사람이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밀은 가라지가 될 수 없고, 가라지는 밀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모두 하나님나라에 남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섭섭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긴 자는 각자의 기능과 증거한 것에 따라 하나님나라에서 제사장이 되거나 따르는 사람이 된다. 환난 속에서 이긴 자는 하나님나라의 제사장 그룹에 속할 것이다. 제사장 그룹이 형성될 때는 전 우주의 복음 사역이 모두 끝날 때이다. 그때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제사장 그룹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으며, 나머지는 아들들과 백성들이다. 이는 아무렇게나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을 근거로 구분하는 것이다. 일단 사람의 지위가 정해지면 하나님의 사역도 멈춘다. 사람이 모두 각기 부류대로 나뉘어 원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업이 이루어졌다는 표시이자, 하나님이 사역하고 사람이 실행한 최종 결과이며, 하나님 사역의 이상과 사람의 협력이 낳은 결정체이다. 마지막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안식하고, 하나님도 처소로 돌아가 안식할 것이다. 이것이 6천 년 동안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한 최종 성과이다.

##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며, 이 육신은 육에 속한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다.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육에 속하지 않은, 영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으며, 그의 신성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그의 정상 인성은 육신으로 하는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신성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성이든 신성이든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영이자 신성이기에 그의 본질이 곧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다. 그 본질이 그의 사역을 방해할 리 없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망치는 일도, 자신의 뜻에 위배되는 말도 할 리가 없다. 그렇기에 성육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경영을 방해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 점이다. 성령 역사의 본질은 인류 구원과 하나님 자신의 경영을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역 역시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그의 본질을 육신에 실체화하여 육신이 충분히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육신한 기간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영의 모든 사역을 대신하고, 성육신 기간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핵심으로 하며, 다른 어떤 시대의 사역도 섞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육신의 신분으로 사역하며, 육신으로 온 이상 육신에서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영이든 그리스도든 어쨌든 모두 하나님 자신이므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고 직분을 다한다.

하나님의 본질은 그 자체로 권병을 지니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권병에서 나온 모든 것에 순종할 수도 있다. 영의 사역과 육신의 사역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만물에 대한 권병을 지니고,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육신 역시 권병을 지니고 있지만,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이를 수 없고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권병이지만, 그의 육신은 그의 권병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에 내포된 의미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교란하지 않으며, 모순되는 사역은 더욱 하지 않는다. 영과 육신이 하는 사역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이든 육신이든 모두 같은 뜻을 이루려 하며, 같은 사역을 경영하기 때문이다. 비록 영과 육신이 서로 아무 상관 없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고는 하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 모두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패역의 성분이 없으며,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다. 그는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의 발현이자 모든 사랑의 발현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일을 할 수는 없다.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하지, 다른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독선적이거나 자만하는 성분이 없고, 오만 방자하거나 교활한 성분도 없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다. 사탄은 모든 추함과 악함의 근원이다. 사람이 사탄과 같은 속성을 갖게 된 이유는 사탄에 의해 패괴되고 가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탄에 의해 패괴되지 않았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속성만 있을 뿐, 사탄의 속성은 없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생활할 때 사역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의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져도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며 거역하는 일은 더더욱 저지르지 않는다. 육신이 고통받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는 예수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과 같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선택이 있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자신의 선택이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나 그는 똑같이 육신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준 사명을 완수한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본질만 있을 뿐 하나님의 본질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지도 못한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직접 담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경영을 자신의 당연한 본분으로 삼아 이행할 수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다. 이 두 가지 속성은 공존할 수 없으므로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는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앞날을 위함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의 제약을 받는다. 비록 그가 육신에 거하고 있으나 그의 인성이 육에 속한 사람의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에게는 특정한 성격이 있으며, 그 성격 역시 신성의 제약을 받는다. 신성에는 연약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연약함이란 그의 인성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연약함은 신성을 어느 정도 제약하지만 무한정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와 기한이 있다. 신성의 사역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인성이 어떠한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전적으로 신성의 지배를 받는다. 인성의 정상 생활 이외에도 인성의 모든 활동은 신성의 영향을 받고, 신성에 좌우된다. 그리스도가 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의 사역과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이 인성은 비록 처세에 미숙하지만 신성의 정상 사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성이 패괴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직접적으로 신성에 지배되며, 그에게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인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인성은 신성이 지배하고 사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성이며, 신성의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고 신성의 사역에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인성이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사역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육신을 입은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드릴 수 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으며, 그의 신분은 하나님 자신의 신분이다. 그는 그저 하나의 피조물로 이 땅에 왔기에 피조물의 외형, 전에 없었던 인성을 갖게 되었을 뿐이다.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 이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이요, 사람이 따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신분이 하나님 자신임에도 그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육신의 위치에서 행하는 일이므로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는 표현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역시 그의 어떠함이다.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그는 이미 그렇게 행하였다. 그는 절대로 자신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어떠함이기 때문이다. 그가 어떻게 사역하든 하나님을 거역할 리 없고, 그가 사람에게 어떻게 요구하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리 없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경영을 위한 것이다.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보다도 높으므로 그는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권병을 갖고 있다. 그 권병은 신성이자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어떠함이다. 그 성품과 어떠함으로 그의 신분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그의 인성이 아무리 정상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 자신의 신분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가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 그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흔히 그리스도의 정상 인성을 그리스도의 결점으로 간주한다. 그리스도가 아무리 신성의 어떠함을 나타내도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또한 그리스도가 순종하고 자신을 낮출수록 어리석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욱 경시한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멸시하면서 위대한 형상을 한 ‘위인’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숭배하기도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까닭은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정상 인성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인성에 가려져 있지 않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비범한 인성을 지니고 있다면, 아마 누구도 그를 거역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늘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인성도, 피조물의 속성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리스도는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사역하지만, 그가 땅에 온 목적은 사람에게 그가 입은 육신의 형상을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를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을 인도하여 새 시대로 진입시키려 온 것이다. 그리스도가 입은 육신의 역할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을 위한 것이지, 사람에게 육신의 본질을 완벽히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하든 육신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으며, 모두 정상 인성을 지닌 육신으로 한다. 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모습을 모두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한 육신이 행하는 사역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초자연적이거나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 자신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행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행사를 대대적으로 퍼뜨리지는 않는다. 그저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 육신에 거할 뿐이다. 그리스도 이외에 그를 사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성이 없다.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거짓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 어떤 육신이 그리스도인지 판별할 수 있다. 거짓 그리스도일수록 자신을 드러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거짓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없다. 또한 그리스도에게는 거짓 그리스도의 성분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육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지, 사람에게 그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는 사역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고, 그가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의 본질을 증명한다. 그의 본질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그의 신분은 그가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과 본질로 결정된다. 그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지니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행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는 영과는 다른 육신이며, 영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외형을 지닌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정상적이고 연약하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든 그의 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성육신 하나님에게는 정상 인성과 정상 인성의 연약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성의 기묘함과 측량 불가능함, 그리고 육신의 모든 행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확실히 지니고 있으며, 조금도 공허하거나 초자연적이지 않다. 그가 이 땅에 온 주요 목적은 사역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상 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성의 위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인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인성이 그의 본질은 아니다. 그의 본질은 신성이다. 그러므로 그는 땅에서 직분을 행하기 시작할 때 신성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의 인성은 그저 육신의 정상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신성이 육신에서 정상적으로 사역하게 할 뿐이고, 사역을 지배하는 것은 오롯이 신성이다. 그가 사역을 완성하면 자신의 직분을 다한 것이다.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의

모든 사역이며, 사람은 사역을 통해 그를 알게 된다. 그는 사역하는 과정에서 신성의 어떠함을 완전히 나타낸다. 거기에는 인성의 성품이 들어 있지 않고, 사유나 사람의 어떠함 또한 들어 있지 않다. 그의 모든 직분이 끝날 때, 그는 자신이 나타내고자 했던 성품을 완벽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의 사역은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며, 그의 성품 역시 아주 자유롭게 나타난다. 머리로 지배하거나 생각을 통해 가공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환경이 열악하거나 조건이 여의치 않아도 그는 적절한 때에 그의 성품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다. 그러므로 그를 대적하거나 그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나타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절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이유로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모두 아주 어리석지만, 무엇이 사람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알고 있다. 단지 많은 사람이 본인의 속셈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신성은 분명 존재하며, 사람은 육안으로 직접 그의 사역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이 그의 본질을 결정한다. 그는 진심을 다해 자신의 어깨에 놓인 사명을 완성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 이는 모두 그의 본질로 결정된다.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역시 그의 본질로 결정된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가 드러내는 것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모방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우거나 수년간 양육받은 결과도 아니며, 그가 스스로 배우거나 꾸민 것도 아니다. 사람은 그의 사역과 말씀을 부정하고, 그의 인성과 그가 지닌 정상 인성의 모든 생활을 부정한다. 하지만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사실 역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의 형상은 사람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그의 말에는 비범한 분위기가 풍기지 않으며, 그의 사역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천지를 개벽하거나 세상을 뒤흔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분명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이다. 그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를 쉽게 믿지 못하지만 이는 분명 존재하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가 직분을 완전히 다하고 나면, 사람은 그의 사역을 통해 그의 성품과

어떠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을 종합해 보면, 그는 육에 속한 사람과 같은 육신이 아닌, ‘말씀’으로 된 ‘육신’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땅에서 행하는 사역은 단계마다 대표적인 의의가 있지만, 각 단계의 현실적인 사역을 체험한 사람은 그가 사역하는 의의를 밝히 알지 못한다. 특히 두 번째 성육신이 행한 몇 단계의 사역은 더욱 간파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거나 보기만 했을 뿐, 정작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그의 사역에 관해 어떠한 관념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또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역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사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겉모습과 그의 정상 인성이 사람의 기호에 맞지 않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떠난 후에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상 인성을 접하지 못한 채 그저 그의 사역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그들이 그저 외형만 볼 뿐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으로 그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눈을 감고 그리스도의 겉모습을 보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인성은 논하지 않고 신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그의 사역이나 말씀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관념이 이전에 비해 받은 줄어들 것이다. 심지어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다 해결될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 단계에서 사람이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관념이 쌓여 있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마친 뒤에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그가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기간에도 그를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가 직분을 다한 후에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사람이 그의 말씀을 하나둘씩 체험하는 걸 본다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쓰러지지’ 않겠느냐? 사람은 단지 그가 땅에서 사역하는 것만 허락하며, 이것만 해도 이미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가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일찌감치 그를 땅에서 내쫓아 버렸을 것이다. 그러니 그가 사역을 완성한 이후라면 어떻겠느냐? 그를 처형하고 무참히 괴롭혀 죽이지 않겠느냐? 만약 그가 그리스도라 불리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 가운데서 사역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그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으로 사역하지 않고 정상인의 신분으로 사역한다면 사람은 그의 말 한마디, 일말의 사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신분을 지니고 사역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신분 없이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갖게 된다.

사람은 그의 ‘지위’나 ‘높은 신분’에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 없이 사역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신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예 사역할 기회도 없을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있어도 사람은 그가 자신들 가운데서 순조롭게 사역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으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분 없이 사역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낮지만 사람은 여전히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그의 지위이지 그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느 날 그리스도가 ‘2선으로 물러난다면’, 사람이 과연 그를 하루라도 더 살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땅에 살면서 그가 친히 행한 사역이 몇 년 후 어떤 결실을 볼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그가 하루라도 더 머무르는 것을 사람이 용납하지 않으니 어찌하겠느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그의 직분을 다하도록 허락한 것만으로도 이미 큰 관용을 베풀고 체면을 봐준 것이다. 그에게 직접 정복된 자들이 그의 체면을 봐줄지라도 사역을 마칠 때까지 머무르도록 허용할 뿐이다. 그 이후에는 잠시도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도 이러한데 그리스도에게 정복되지 않은 자들은 어찌하겠느냐? 사람이 성육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그가 정상 인성의 외형을 가진 그리스도이기 때문 아니겠느냐? 만약 그에게 신성만 있고 정상 인성은 없다면 사람의 어려움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의 본질이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의 신성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그가 지닌 정상 인성의 외형에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사람 가운데서 사람과 동고동락’하는 이 ‘사역’을 그만두어야 한다. 사람이 그의 존재를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사람은 지금의 사역이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훗날 인류가 어떤 종착지에 들어갈지는 알지 못한다. 피조물로서 너희는 마땅히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야 하며, 내가 가라고 알려 주는 대로 가야 한다. 너는 자기 자신을 다룰 수도 주관할 수도 없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면서 미리 사람에게 어떤 결말이나 아름다운 종착지를 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끌어 자신을 따르게 하는 식으로 사람과

거래를 한다면, 그것은 정복이라고 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을 만든다고도 할 수 없다. 어떤  
 결말로 사람을 통제하여 마음을 얻는 것은 결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을 수 없다. 이는 종착지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훗날의 결말과 마지막 종착지, 그리고 좋은 미래 등이다. 사람을 정복하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주거나 사람을 정복하기도 전에 먼저 적당한 종착지를  
 주어 추구하게 한다면, 사람을 정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복  
 사역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정복 사역은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빼앗고, 사람의 패역 성품을 심판하고 형벌함으로써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사람과  
 거래를 함으로써, 즉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므로써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미래를 빼앗아 충성심을 살펴봄으로써 성과를 낸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정복 사역의 본질이다. 만약 처음부터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준 후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행한다면, 사람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에게 무조건 순종하거나 경배하도록 할  
 수 없다. 사람은 맹목적으로 어리석게 순종하거나 무언가를 받아 내려고만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정복  
 사역은 사람을 얻지도,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며, 이런 피조물은 조건만 내세울  
 뿐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 이는 정복이 아니라 공홀과 복을 베푸는 것이다.  
 사람에게 존재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언제나 운명과 앞날을 마음에 둔 채 그것을 우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앞날을 위해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사심과 탐욕,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을 정복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처음 사람을 정복할 때는 반드시  
 먼저 사람의 야심과 가장 치명적인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인생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생존의 의미를 바꿔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결해진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이  
 정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결코 정복만을 위한 정복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한 정복이고, 그의 영광을 위한 정복이며, 사람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주기 위한 정복이다. 오직 정복만을 위한 정복이라면 정복 사역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을 정복하기만 한 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사람의 생사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는 인류를 경영하는 것도,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사람을  
 정복한 뒤에 그들을 얻고 마지막에 인류의 아름다운 종착지로 인도하는 것만이 모든 구원

사역의 중심이며,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의 달성이다. 즉, 사람을 인류의 아름다운 종착지로 인도해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피조물이 응당 가져야 할 미래이자 창조주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사역을 한다면 너무 제한적이어서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만 온전케 할 수 있을 뿐, 영원한 종착지로 이끌어 갈 수는 없다. 사람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으며, 사람의 미래와 훗날의 종착지를 보장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이 하는 사역과 다르다. 그는 사람을 창조한 이상 사람을 인도할 것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상 철저히 구원해 완전히 얻을 것이다. 또한 사람을 인도하는 이상 적합한 종착지로 이끌어 갈 것이고, 사람을 창조하고 경영하는 이상 사람의 운명과 앞날을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창조주가 하는 사역이다. 정복 사역은 사람의 미래를 없앴으로써 이뤄지지만, 마지막이 되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은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에 사람은 종착지를 얻을 수 있고 운명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적합한 종착지란 하나님이 과거에 없애 버린 사람의 미래와 소망이 아니다. 이것은 별개의 개념이다. 사람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육적인 사치스러운 욕망이지, 사람이 가져야 할 종착지가 아니다. 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한 종착지는 사람이 정결케 된 다음에 받아야 할 축복과 약속이다. 이는 하나님이 창세 후에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으로, 사람의 선택이나 관념, 상상, 욕이 섞여 있지 않다. 또한, 이 종착지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한 것이 아닌, 모든 인류의 안식의 땅이다. 그러므로 이 종착지는 인류에게 가장 적합한 종착지이다.

창조주는 피조물을 주관한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하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가 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그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그가 사역하는 목적이 이뤄진다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나는 왜 너를 모압의 후손이나 큰 붉은 용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선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으며, 오직 피조물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느냐? 사람의 원래 호칭과 신분이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사역의 시대와 단계의 차이로 서로 다른 호칭이 생겨났을 뿐, 사실 사람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피조물이다. 모든 피조물은 — 가장 파괴된 자든 가장 성결한 자든 — 다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복 사역을 하면서 앞날과 운명, 종착지로 너를 통제하지 않으며, 사실 그런 사역을 할 필요도 없다. 정복 사역의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창조주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의 운명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너는 너 자신을 주관할 수 없다. 자신을 위해 아무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바쁘게 지낼지라도 사람은 스스로를 주관하지 못한다. 네가 너 자신의 미래를 알고 네 운명을 주관할 수 있다면, 너를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요컨대,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든 모두 인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 역시 모두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인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달, 해, 별을 창조했고, 사람을 위해 동물과 식물을 지었으며, 사람을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사람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형벌하고 심판하든 그것은 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설사 사람의 육적인 소망을 빼앗는다 해도 그것 역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며,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사람의 종착지가 모두 창조주의 손안에 있거늘, 사람이 어찌 스스로를 주관할 수 있겠느냐?

정복 사역이 끝나면 인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된다. 물론 그때도 여전히 땅에서 살겠지만 그 삶은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다. 그때의 삶은 온 인류가 정복된 후에 얻는 삶이자 인류가 땅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인류가 새롭고 아름다운, 또 다른 경지로 들어갔음을 뜻하며, 하나님과 사람이 땅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삶의 전제는 반드시 사람이 모두 정결케 되고 정복된 후 창조주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복 사역은 인류가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이라고 한다. 인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훗날 땅에서 맞이할 삶이자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사람이 동경하는 삶이자 유사 이래 누구도 누리지 못한 삶이다. 또한 이것은 6천 년 경영 사역의 최종적인 성과이자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 사역이 끝나고 사람이 완전히 정복되면, 즉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면 인류는 이후의 종착지에 들어가게 된다. 사람이 연단을 겪고 나면 죄성이 없어지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어떤 적대 세력도 소란을 피우거나 사람의 육을 공격하지 못하기에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성결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다. 흑암의 적대 세력을 결박해 놓아야만 사람이 어딜 가든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되어야 사람의 패역과 대적도 사라진다. 사탄이 결박당하기만 하면 사람은 좋아진다. 지금은 사탄이 땅의 곳곳에서 교란하고 있고, 모든 경영 사역도 아직 끝나지 않아 이런 상태지만, 사탄을 물리치면 사람은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얻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나오면 공의로운 해를 볼 수 있다. 정상인이 누려야 할 삶을 전부 회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먹고 입을 줄 알며,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것 등등 정상인이 갖추어야 할 것들을 전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처음 인류가 창조된 후,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은 그런 정상적인 삶이 있어야 했다. 마땅히 먹고 입는 땅에서의

정상인의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인류가 타락한 후 그런 삶은 물거품이 되었고, 나아가 오늘날의 사람들은 감히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사실 사람이 동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런 종착지가 없다면 인류는 끝없이 땅에서 타락한 삶을 살 것이다. 또한 그 아름다운 삶이 없다면, 사탄의 운명도, 사탄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시대도 끝났다고 할 수 없다. 반드시 사람을 흑암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탄을 물리친 증거이다. 이렇게 사탄의 방해 없이 하나님은 인류를 주관하고 인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통제해야만 사탄을 물리쳤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대부분 아직도 더럽고 고통스러운 환난의 삶을 사는데, 이러면 사탄을 물리쳤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은 여전히 고해와 인생의 고통,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앎도 보잘것없다. 사람의 모든 고통은 사탄이 초래한 것이고, 인생의 모든 고난 또한 사탄이 가져온 것이다. 사탄이 결박되어야 사람이 고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탄을 결박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얻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사람을 전리품으로 삼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정상인의 삶이 없을 때, 그리고 사탄이 결박되지 않았을 때의 목표이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거나 크게 쓰임 받기를 추구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역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사람이 오늘날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정상인의 삶이 있기 전의 목표로, 그 주된 목적은 정결함을 얻고 진리를 행하여 창조주를 경배하는 데 있다. 이 땅에서 정상인의 삶, 고통과 환난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추구 목표이다. 이 추구 목표를 통해 진리를 행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한다. 사람을 온전케 하고 얻는 것은 목표이고,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그저 과정일 뿐이다. 장차 모든 인류가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가면 그때는 더 이상 이기는 자나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저 모든 피조물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지금 사람에게 그런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단지 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더 실제적으로 추구하도록 범위를 정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막연하게 영생에 들어가기를 추구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더 가련하지 않느냐? 목표도 원칙도 없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구하면 결국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고, 언제나처럼 사탄의 권세하에 살면서 벗어나지 못할 텐데, 굳이 그렇게 목표도 없이 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인류가 영원한 종착지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창조주를 경배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므로 더 이상 어떤 목표도 추구하지 않게 되며, 더욱이 사탄의 포위 공격을 당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각자의 본분을 이행하고, 형벌과 심판이 없더라도 말은바 본분을 이행할 것이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신분과 지위로 불리게 된다. 말은 역할만 다를 뿐 더 이상 높고 낮음의 구분은 없다. 그렇지만 사람은 인류에게 적합한 종착지에서 질서 있게 살며,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 각자의 본분을 이행할 것이다. 이런 인류가 바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인류이다. 그때 사람이 얻게 될 삶은 하나님이 빚 비추고 보살펴 주고 보호해 주는 삶이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살고, 인류는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이며, 인류 전체가 정상 궤도에 들어설 것이다. 6천 년 경륜을 통해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면, 즉 하나님이 땅에서 창조한 인류가 원래 모습을 되찾으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이뤄진다. 처음 인류는 사탄에 의해 패괴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사탄에 의해 패괴된 후에는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렸다. 이에 하나님은 경영 사역을 시작했고,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다. 6천 년 경영 사역이 끝나면 비로소 땅에서의 인류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인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사람을 만든 목적과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땅에 인류의 정상적인 삶이 있으면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 모든 사람이 성결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면서 사람에게 추구하라고 준 목표로, 이 목표는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친다. 또한, 너에게 이기는 자, 온전케 된 자, 쓰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너의 증거로 사탄을 수치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땅에서 정상인의 삶을 살고 성결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고자 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모두 똑같은 피조물 아니겠느냐?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된 자가 되라는 것은 다 사탄과 사람의 더러움을 겨냥해 하는 말이다. 이긴 자라면 사탄과 적대 세력을 이긴 사람 아니겠느냐? 온전케 되었다면 너의 무엇이 온전케 되었겠느냐?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 역시 더러운 것들과 사탄을 두고 한 말이지, 결코 하나님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오늘날 너에게 온전케 되거나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할 때 네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훗날

인류가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때는 그것을 추구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각 부류 사람들의 결말이 모두 드러나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때는 사람의 패역으로 사람을 드러내고 징벌할 뿐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느니, 누구는 이긴 자고 누구는 온전케 된 자느니, 누구는 장자고 누구는 아들이니 등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 피조물로서 다 땅에서 살 것이며, 다 하나님과 함께 땅에서 살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체험하는 기간, 싸움이 끝나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 완전히 얻어지지 못한 기간이다. 지금은 바로 과도기이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이기는 자 또는 백성이 되기를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듯 지위의 구별이 있지만, 그때가 되면 이런 구별은 사라진다. 이긴 사람은 모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인류로, 지위도 같고 이 땅에서 평등한 삶을 살게 된다. 즉, 모두가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로 너와 다른 이들이 받는 것이 똑같다는 말이다. 사역의 시대와 대상이 다르기에 너희에게서 사역하면 너희가 이기는 자로 온전케 될 자격을 가질 것이요, 외국에서 사역한다면 그들이 맨 처음으로 정복되고 온전케 되는 무리가 될 자격을 가질 것이다. 지금은 외국에서 사역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기는 자가 온전케 될 자격이 없고, 맨 처음으로 정복되어 온전케 되는 무리가 될 수도 없다. 사역 대상과 시대, 범위가 다르기에 첫 무리, 즉 이기는 자가 있으며, 온전케 되는 두 번째 무리도 있는 것이다. 맨 처음으로 온전케 되는 무리가 나오면 본보기가 되는 표본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무리의 사람들이 온전케 된다. 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지위의 구별 없이 모두가 똑같다. 온전케 된 순서만 다를 뿐 지위는 동일하다. 장차 모든 사람이 온전케 되고 온 우주의 사역이 끝나면 사람은 지위 고하의 차이 없이 평등해질 것이다. 지금은 너희에게 사역하여 너희를 이긴 자로 만들고 있지만, 만약 영국에서 사역한다면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처음으로 이긴 무리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 사역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일 뿐이다. 만약 너희에게 사역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똑같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무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저 사역의 순서에 따른 차이일 뿐이며, 첫 번째니 두 번째니 하는 말은 지위의 높낮이가 아닌 온전케 되는 순서에 불과하다. 어째서 너희에게 더 일찍 알려 주지 않고 이제 와서 이 말을 하겠느냐? 과정이 없으면 사람은 극단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많은 사람이 지난날 예수가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한 말에 빠져 늘 흰옷을 입고 들림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너무 일찍 하면 안 되는 말들이 많다. 너무 일찍 말하면 사람이 극단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분량이 너무도 작아서 이런 말들을 밝히 알지 못한다.

인류가 땅에서 진정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사탄의 모든 세력이 결박되면, 땅에서 사는

사람의 삶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아주 편해질 것이다. 지금은 인간관계니 사회관계니 복잡한 가정 관계니 등으로 사람이 너무나 번거롭고 고통스럽다! 그 속에서 사니 너무 괴로운 것이다! 사람이 정복되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온 우주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두 정복된 후, 그러니까 사탄이 패배되면, 또한 사탄, 즉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면, 사람은 땅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육적인 관계도, 육체의 복잡한 일들도 없어진다면 사람의 삶은 훨씬 편해질 것이다. 사람의 육적인 관계는 너무나 복잡하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네가 형제자매와 동등한 관계이고, 가족들과도 동등한 관계라면 아무런 고민도 없을 것이다. 누구를 걱정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고 살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면 사람의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천사와 같다. 물론 여전히 육체이지만, 천사와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마지막 약속,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에게 베푸는 약속이다. 사람은 지금 형벌과 심판을 체험하고 있다. 너는 이런 체험이 모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느냐?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헛되이 할 수 있겠느냐? 예전에 나는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하는 것은 사람을 무저갱에 넣는 것이라고 했다. 즉, 사람의 운명과 앞날을 거두어 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러 사람을 무저갱에 밀어 넣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패역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며, 모두가 성결해지면 전부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제거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제거하여 사람이 힘 있게 증거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설령 사람 내면에 원래 있던 것들이 완전히 정결케 되지 않고 조금 남아 있을지라도 사탄을 물리치고 나면 방해도 함께 사라진다. 그때 사람은 완전히 정결케 될 것이다. 사람은 그런 삶을 체험한 적이 없다. 사탄을 물리치면 모든 것, 사람 내면의 보잘것없는 사소한 일까지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은 모두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복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너희를 온전케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친다. 너희가 힘 있게 증거하면 그것은 사탄을 물리쳤다는 표징이 된다. 먼저 사람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완전히 온전케 하는 이유는 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탄을 물리치는 동시에 온 인류가 이 공허한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주 전체의 사역이든 중국에서 하는 사역이든 그 목적은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해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 있다. 성육신 하나님, 그 정상적인 육신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하의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정복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전체 경영 사역의 핵심은 사탄을 물리쳐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다. 어째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늘 너희에게 증거하라고 하겠느냐? 누구에게 증거하라는 것이겠느냐? 사탄 아니겠느냐? 이 증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사역의 결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증거하는 것은 사탄을 물리치는 사역과 관계된다. 사탄과 싸우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증거하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을 물리치려 하기에 사람을 구원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 사탄 앞에서 증거하라고 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며 사탄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자 사탄을 물리치는 도구라고 한다. 따라서 전체 경영 사역의 핵심은 사람이며, 사탄은 그저 멸해 버릴 대상이요, 원수에 불과하다. 어찌면 너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너의 성품이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하게 된 것이다. 그 증거는 사람이 아닌 사탄을 상대로 한다. 사람은 증거를 누릴 자격이 없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싸우는 대상은 사탄이고, 사람은 그저 구원받는 대상에 불과하다. 사람은 사탄의 파괴 성품을 갖고 있고, 또 이 사역을 꿰뚫어 볼 수 없는데, 그것은 모두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것이다. 지금의 주된 목표는 사탄을 물리치는 것, 다시 말해, 인류를 완전히 정복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최후의 증거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네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겠지만, 사실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다. 사람은 어떻게든 이루어진 사역을 보려고 하지만 나는 보여 주지 않고 이루어졌다. 사탄이 굴복했고, 완전히 패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지혜와 능력, 권병으로 사탄과 싸워 이겼다.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 비록 사람에게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이 없고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나는 이미 사탄을 물리쳤다. 이 모든 사역은 사탄을 겨냥해 말한 것이고, 사탄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미 성공한 일이다. 이는 모든 사역의 한 가지 실상이다.

사탄을 물리치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정복되고 나면 사람은 이 모든 사역이 구원을 위한 것이며, 그 방식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람을 빼앗아 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6천 년 경영 사역은 율법시대, 은혜시대, 그리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 이 3단계로 나뉜다. 이 3단계 사역은 모두 인류, 즉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과 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구원 사역이

3단계로 나뉘고 사탄과의 싸움도 3단계로 나뉘며, 이 두 부분의 사역은 동시에 진행된다. 사실, 사탄과의 싸움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한 단계 사역으로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사탄과의 싸움도 단계와 시기를 나누어 진행되며, 인류의 필요와 사탄에 의해 파괴된 정도에 따라 사탄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싸움’이라고 하면 사람은 두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 간에 벌어지는 전쟁을 상상한다. 이것은 그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구상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은 바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은 3단계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사탄과의 싸움은 3단계로 나뉘며, 이를 통해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게 된다. 하지만 사탄과 싸우는 모든 사역의 실상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며,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등의 몇 단계 사역을 통해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탄과의 싸움은 사탄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만들고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다. 즉, 사람의 파괴 성품을 변화시켜 사탄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사탄을 물리치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을 철저히 구원하고 나면 수치당한 사탄을 단단히 결박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의 본질은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사탄과의 싸움은 대부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사람을 정복하는 최종 단계 사역은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사역, 즉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사역이다. 사람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탄의 화신을 정복하여 창조주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사탄을 저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철저히 구원받게 된다. 그러므로 정복 사역은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사역이자 사탄을 물리치는 마지막 단계의 경영이다. 이 단계의 사역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수도, 사탄을 완전히 물리칠 수도 없으며, 인류는 영원히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도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 경영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과 파괴로 사람은 사탄에게 속박당해 악한 자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사탄은 경영 사역에서 물리칠 대상이 되었다. 사탄이 사람을 점령했고, 사람은 또 전체 경영의 밑천이기에 사람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와야 한다. 즉, 사탄에게 사로잡혀 간 사람을 다시 빼앗아 와야 한다. 그러려면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켜 본래

이성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로잡혀 간 사람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 사람이 사탄의 권세와 결박에서 벗어나면 사탄은 수치를 당한다. 결국 사람을 빼앗아 오고, 사탄은 패하게 된다. 사람은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남으로써 모든 싸움의 전리품이 되겠지만, 사탄은 싸움이 끝난 후에 징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사역도 끝을 맺게 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사탄을 물리치는 것뿐, 피조물에 대해서는 어떤 악감정도 없다. 형벌이든 심판이든 그의 모든 사역은 사탄을 겨냥해 하는 것이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으로, 목표는 단 하나, ‘사탄과 끝까지 싸운다! 꼭 사탄을 이기고야 말 것이다! 사탄을 이길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모든 사역은 사탄을 겨냥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 통제되어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과 싸워 끝을 내지 않으면 사탄은 사람들을 풀어 주지 않으며, 사람들은 하나님께 얻어지지 못한다. 사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사탄을 물리치지도, 사탄과 싸워 이기지도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6천 년 경륜 중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율법의 사역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은혜시대의 사역, 즉 십자가의 사역을 했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류를 정복하는 사역을 한 것이다. 이 사역들은 모두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킨 정도에 따라 한 것이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어느 단계 사역이든 다 사탄을 물리치는 데 목적이 있다. 6천 년 경영 사역의 본질은 큰 붉은 용과 싸우는 것이고,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은 사탄을 물리치는 사역이자 사탄과 싸우는 사역이다. 6천 년 동안 싸우면서, 즉 6천 년 동안 사역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람을 한 경지로 인도하는 것이다. 사탄이 패하면 사람은 완전한 해방을 얻는다. 지금의 사역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을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며, 그 어떤 규제에도 속박받지 않고 그 무엇에도 얽매이거나 통제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사역 추세이다. 모든 사역은 너희의 분량과 필요에 맞춰 진행된다. 다시 말해, 너희가 닿을 수 있는 만큼 공급하지, 건목수생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역은 너희의 실제 필요에 맞춰 진행된다. 각 단계의 사역은 다 사람의 실제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하며,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사실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초래한 것이다. 사탄이 사람을 교란하고 패괴시켜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은 피해자이자 기만당한 자이다. 사탄을 물리치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볼 수 있고, 창조주도 피조물을 보며 친히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있어야 할 삶이다. 그러므로 주 사역은 역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라 하겠다. 사탄을

물리치면 무슨 일이든 다 해결된다.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온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은 너도 알 것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너희를 괴롭히고 이것저것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온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에게 보여 주거나 너희의 시야를 넓혀 주고, 그가 말한 비밀과 그가 떴 일곱 인에 대해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육신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사탄과 싸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이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그가 친히 사역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친히 사람 앞에 나타나고 사람에게 보게 하는데, 이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이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보게 하고 막연하거나 공허한 존재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도, 자신을 낮출 수도 있음을 알게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그렇게 단순할 리 있겠느냐? 사탄이 패괴시킨 것은 사람의 육이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 또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을 입고 와서 사탄과 싸우고 친히 사람을 목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역에 이롭다. 하나님은 두 번 성육신했는데, 그 두 차례 입은 육신은 모두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자 사람을 더 잘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탄과 싸우는 대상은 하나님의 영이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든, 어쨌든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천사는 사탄과 싸울 수 없고,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은 더더욱 사탄과 싸울 수 없다. 천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며, 사람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만들고 인간 세상에 임하여 사람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해야 한다. 즉, 육신을 입고, 그의 원래 신분을 지니고 그가 해야 할 사역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와서 친히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사역하거나 사람이 사역한다면 이 싸움은 영원히 성과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끝을 맺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와서 친히 사탄과 싸워야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며, 사탄도 수치를 당하고 더 이상 틈탈 기회나 수작 부릴 방법이 없게 된다.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영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더더욱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하는 사역은 모두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며, 사람의 패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 싸움에 ‘참여’한다면 그저 참패하여 낭패를 당할 뿐, 사람의 패괴 성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패역한 인류를 정복할 수도 없다. 그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낡은 사역을 하거나 사탄을 물리치는 것과 관련 없는 사역을 조금 할 수 있을 뿐이다. 무엇

때문에 그런 헛수고를 하겠느냐? 사람을 얻지 못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사역은 더더욱 할 수 없다면 그 사역에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할 수 있으며,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사람은 결코 천지개벽의 사역을 할 수 없고, 사탄과 싸우는 사역은 더더욱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창조주를 만족케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칠 수밖에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때마다, 즉 새 시대의 사역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사역을 행하며, 이를 통해 시대 전체를 이끌고 온 인류를 위해 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시대가 새롭게 바뀔 때마다 사탄과의 싸움이 새로 시작되며, 이로써 인류도 더 새롭고 아름다운 경지, 하나님이 친히 이끄는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지만,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은 모든 싸움이 끝난 후의 열매이기도 하다. 사탄은 만물을 부패시킨 존재이고, 모든 싸움의 패장이자 싸움이 끝난 후에 벌을 받는 대상이다. 하나님, 사람, 사탄, 이 셋 중에서 오직 사탄만이 버림받을 대상이지만, 사탄에게 얻어져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징벌받는 대상이 된다. 앞서 말한 셋 중에서 만물의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한편,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다가 하나님께 되찾아진 뒤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악한 자를 심판하는 대상이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고 사탄은 반드시 패배하겠지만, 사람은 이기는 자도 있고 실패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긴 자에 속하고, 패배하는 사람은 패배자에 속한다. 이것이 바로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것으로, 모든 사역의 종결이자 근본 취지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경륜의 주된 핵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주된 이유도 이 핵심과 이 사역을 위함이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첫 번째 성육신도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하나님은 친히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첫 번째 싸움의 사역, 즉 인류를 속량하는 사역을 완성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단계도 하나님이 친히 사역한다. 성육신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친히 말씀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다른 사역도 곁들여 하겠지만, 그가 친히 이 사역을 하는 주목적은 역시 사탄을 물리치고, 모든 인류를 정복하여 얻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나님의 이 사역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만약 그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감춘다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실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만 사역을 한다면 성육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지 않아도 그의 낮춤과 감춤, 위대함과 거룩함을 사람에게 직접 계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사람을

구원하거나 온전케 하지 못하며, 더욱이 사탄을 물리치지도 못한다. 단순히 영과 영의 싸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사역은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으며, 사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그르칠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깊은 의의를 지닌다. 그것은 그저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사람의 시야를 넓혀 감동과 격려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라면 어떤 의의도 없다. 내가 이런 인식밖에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성육신한 진정한 의의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전체 경륜의 사역을 모두 친히 행한다. 세상을 창조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친히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인류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다. 온 인류를 구속한 두 번째 단계도 하나님이 친히 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끝을 맺는 사역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더더욱 그가 친히 해야 한다. 모든 인류를 속량하고, 정복하고, 얻고, 온전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신분을 대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도 없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인류를 얻기 위해, 또 인류가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한다. 모든 경륜과 사역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행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은 그저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 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인식은 아무런 가치도, 의의도 없다. 그것은 너무나도 얕박한 인식이다!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친히 행해야만 이 사역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이 한다면 그를 대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 첫 번째 성육신은 속량을 위한 것, 즉 인류를 죄에서 속량해 정결케 하고 죄를 사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정복 사역 역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친히 행한다.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 예언뿐이라면 예언가,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시켜도 그만이다. 예언만 한다면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사역, 사람의 생명을 만드는 사역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해야 하고, 성육신하여 친히 행해야 한다. 말씀의 시대에 예언만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사역할 필요 없이 이사야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 시키면 된다. 그러나 이 단계의 사역은 예언에 그치지 않으며, 말씀 사역으로 인류를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사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해야 한다. 율법시대에 여호와와 일부 사역만을 행한 후, 선지자를 통해 약간의 말씀과 사역을 했다. 사람이 그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언가는 하나님을 대신해 예언을 말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당시의 사역은 직접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의 죄와

무관했으며, 사람에게 올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그래서 여호와와 성육신하여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직접 모세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하려는 말씀과 행하려는 일을 하게 하고,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게 했다. 첫 단계 사역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으로,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탄과 본격적으로 싸운 것은 첫 번째 성육신 때부터 지금까지이다. 첫 번째의 싸움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직접 사람의 생명을 만들게 되면서부터 사람을 되찾아 오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역은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사탄과 싸우는 사역이다. 여호와가 처음에 행한 사역은 그저 인류가 땅에서 살도록 인도한 것으로, 사역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그 어떤 싸움이나 큰 사역과도 관계가 없었지만, 훗날 싸울 사역을 위한 기반 다지기였다. 두 번째 단계인 은혜시대의 사역은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생명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해야 했고, 반드시 직접 성육신해야 했다. 그 단계의 사역은 성육신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직접 사탄과 대결하는 사역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그 사역을 대신하여 하게 하면 사탄과 마주했을 때 사탄이 굴복하지 않으므로 물리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또한 사람의 생명이자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신분과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사역하여 사탄을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사람에게 맡겨 직접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도 사람은 하지 못한다. 예언만으로는 사람을 정복할 수 없으므로 성육신을 통해 사탄을 물리치고 철저히 굴복시켜야 한다.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사람을 완전히 정복한 후 얻으면, 이 단계 사역은 끝이 난다. 즉, 대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경영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특히 시대를 이끄는 사역과 새로운 사역을 여는 일은 더더욱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해야 한다. 사람에게 계시와 예언을 주는 것 등은 사람이 대신하여 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하려는 사역, 사탄과 직접 싸우는 사역은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다. 사탄과 싸우지 않은 첫 단계 사역에서 여호와와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전했고, 또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사탄과 싸우는 두 번째 단계 사역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성육신하여 육신을 입고 사역했다. 사탄과의 싸움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성육신과도 관련된다. 다시 말해, 사탄과의 싸움은 사람에게 시킬 수 없으며, 사람은 싸워 봤자 사탄을 물리치지 못한다. 사람이 아직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데 어떻게 사탄과 싸울 힘이 있겠느냐? 사람은

본래 중립적인 존재로, 사탄 쪽으로 기울면 사탄에 속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면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니 이런 싸움의 사역을 사람이 대신하여 하게 한다면 할 수 있겠느냐? 그랬다면 진작에 목숨을 잃지 않았겠느냐? 이미 오래전에 황천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여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없기에 사탄과 싸우면 사탄을 물리치지 못한다. 사람이 일부 사역을 할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을 구슬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대신하여 할 수는 없다. 사람이 어떻게 사탄과 싸울 수 있겠느냐? 싸우기도 전에 사탄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사탄과 싸울 수 있다. 사람은 그것을 기초로 따르고 순종해야만 하나님께 얻어져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은 지혜와 능력,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에 한계가 있기에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 사람은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며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사람의 총명과 지혜가 사탄의 계락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탄과 싸울 수 있겠느냐?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모두 온전케 될 기회가 있다. 장차 너희 모두 그 종착지에 들어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온전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아름다운 경지로 들어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너 자신의 일이다.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사람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정직하게 역할을 다하는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본분에 충실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 특히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으나 실행하지 않는 자들은 온전케 될 수 없다.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될 것이다. 조금 우매해도 괜찮다.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될 수 있으니, 이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측면으로 추구하기를 원하는 한, 온전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중 그 누구도 버리거나 도태시키고 싶지 않다.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를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자신을 도태시키는 것이다. 내가 분발하지 않는다면, 즉 게으름을 피우거나 본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충성하지 않는다면, 혹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늘 자기 멋대로 하며, 나쁜 짓을 저지르고, 명예와 이익을 다투며,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맺는다면 너는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사람에게 동정받을 가치도 없다! 나는 너희가 모두 온전케 되길 바란다. 아니, 최소한 정복이라도 되어 이 단계 사역이 순조롭게 완성되길 바란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온전케 되어 마지막에 하나님께 얻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정결케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희보고 뒤떨어졌다고 한 것도, 자질이 부족하다고 한 것도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너희를 버린다거나 너희에게 희망을 잃었다는 뜻은 아니며, 너희를

구원하기 싫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오늘날 내가 온 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사역, 즉 구원을 이어 가는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누구에게나 온전케 될 기회는 있다. 원하고 추구하기만 하면 모두 성과를 얻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 자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훌륭하면 훌륭한 대로 그에 맞춰 너에게 요구한다. 네가 무지하고 글을 모르면 그런 조건에 맞춰 요구할 것이며, 네가 글을 알면 그 기준에 맞춰 요구할 것이다. 또 네가 나이가 많으면 나이에 맞게 요구하고, 네가 접대할 수 있다면 그 상황에 맞춰 요구할 것이다. 네가 접대는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돌보거나 다른 업무적인 사역을 하는 등 한 부분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 역할에 맞춰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너는 오직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네가 이르러야 할 세 가지로, 최고의 실천이다.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이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몇 가지이다. 여기에 이른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우선 진심으로 추구하고 능동적으로 향상하려고 노력해야지, 이 일을 소극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누구나 온전케 될 기회가 있고 온전케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이 말에 책임을 질 것이다. 하지만 네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 이 세 가지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도태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따라오기를, 모든 사람에게 성령 역사와 성령의 깨우침이 있기를, 또 모든 사람이 끝까지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너희 모두가 이행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본분을 이행할 때, 너희는 모두 온전케 될 것이며 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사탄과 싸워 이기고 약속을 받을 사람들이며, 장차 살아남아 아름다운 종착지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다.

##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은 안식 가운데 있었다. 그때 땅에는 인류도 만물도 없었으며, 하나님은 그 어떤 사역도 행하지 않았다. 인류가 생겨나고 또 파괴된 뒤에야 하나님은 경영 사역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안식하지 않고 인류 가운데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하나님은 인류의 파괴로 인해 안식을 잃었고, 또 천사장의 배반으로 인해 안식을 잃었다. 사탄을 물리치지 않고 파괴된 인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없다. 하나님이 다시 안식에 들어갈 때, 사람 역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안식에 들어간 삶이란 전쟁도 더러움도 없고 불의도 남아 있지 않은 삶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탄(적대 세력)의 방해도 사탄의 파괴도 없으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의 침범도 없이 만물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어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늘과 땅 모두 평온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안식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갈 때 땅에는 더 이상 불의한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적대 세력의 침범도 없을 것이다. 인류 또한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 더 이상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인류가 아니라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다시 구원받은 인류가 될 것이다. 인류가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안식을 잃은 것이지 처음부터 안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식에 들어간다고 해서 만물의 활동과 만사의 발전이 멈추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거나 사람이 더 이상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바로 사탄이 파멸되고, 사탄과 한통속인 악인들이 모두 징벌받아 멸절되며,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더 이상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행하지 않음을 뜻하고, 인류가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전 인류가 하나님의 빛과 축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사탄에 의해 파괴되는 일도, 불의한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인류가 구원받고 사탄이 멸망하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끝나 더 이상 사람에게 사역하지 않고, 사람 또한 더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바쁜 나날을 보내지 않을 것이고, 사람 또한 더 이상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사람도 저마다의 자리로 돌아가니, 이것이 바로 전체 경영이 끝난 뒤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을 종착지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착지가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있다. 하나님은 안식하면서도 전 인류가 땅에서 살아가도록 계속 인도할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늘의 유일한 참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서 살지 않고, 사람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종착지에서 살지는 못한다.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경지에서 살지 못하며, 각자의 생활 방식이 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인도하는 분이고, 인류는 하나님 경영 사역의 결정체이자 인도받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본질과 같지 않다. ‘안식’의 본뜻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하나님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 더는 땅에서 살지 않고, 더는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과 동고동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사람이 진정한 피조물이 되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편,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더는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대적하지도 않고, 처음 아담과 하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간 하나님과 사람의 삶과 종착지이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사탄이 패배하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다.

그러니 경영 사역을 끝낸 하나님과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 또한 필연적 흐름이다. 사람이 안식하는 곳은 땅이고, 하나님이 안식하는 곳은 하늘이다. 사람은 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 살아남은 인류를 인도하며 안식을 취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이고 사람은 여전히 육신이며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하나님은 안식하는 중에 사람 가운데 와서 나타날 것이고, 사람은 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 인도되어 천상을 둘러보고 천상에서의 삶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면, 사탄은 물론이고 악인들까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땅에서 하나님을 핍박했던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의 원수들은 말세에 일어난 재난으로 파멸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 악한 자들이 철저히 멸망한 뒤에 사람에게 대한 사탄의 방해가 없어야 인류가 철저히 구원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 또한 완전히 끝난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만물의 결말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역과 인류의 발전이 끝나간다는 의미이다. 즉,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인류의 발전은 이미 끝에 이르렀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어 오던 생육도 끝이 났다는 말이다. 또한 사탄에 의해 파괴된 현 인류는 더 이상 계속 발전할 수 없음도 뜻한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파괴된 존재가 아니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의해 파괴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오면 에덴동산에서 내쫓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일단락을 짓게 된다. 그 후의 인류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겠지만, 그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인류가 아니라 구원받고 정결케 된 인류일 것이다. 그들은 심판과 형벌을 받은 인류이자 거룩한 인류이므로 처음의 인류와는 같지 않고, 태초의 아담과 하와와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사탄에게 파괴된 모든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이고, 마지막에 심판과 형벌을 받으며 굳게 선 인류이며, 파괴된 인류 가운데서 살아남은 마지막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오직 이 무리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최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말세에 심판과 형벌을 하는 사역, 즉 정결케 하는 마지막 사역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최후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정결케 되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거친 후에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다. 마지막에 얻어지는 그들은 최후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형벌과 심판 사역은 본질이 인류를 정결케 하고 마지막 안식의 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전 인류는 각기 부류대로 나뉘 수도,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사역은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정결케 하는

사역만이 인류의 불의를 정결케 할 수 있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만이 인류의 패역한 것들을 모두 드러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원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낼 수 있다. 사역이 끝나면 살아남는 사람들은 모두 정결케 되어 더 높은 경지에 들어갈 것이며, 땅에서 제2의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것이다. 다시 말해, 안식의 날을 맞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다. 반면, 살아남지 못하는 자들은 형벌과 심판을 거쳐 본모습이 철저히 드러난 후 모두 멸망하여 사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땅에서 생존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의 인류 중에는 이 부류의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안식처에 들어갈 자격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안식의 날을 맞이할 자격도 없다.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 징벌받을 대상이자 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속받은 바 있고 심판과 형벌도 받았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힘을 쓴 적도 있지만, 마지막 날이 이르면 자신의 악과 패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채 도태되고 멸망하여 더 이상 이후의 세상과 인류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든 육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악을 행했거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거룩한 인류가 안식에 들어갈 때 모두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 악을 행한 영혼과 악을 행한 사람들, 의인의 영혼과 의를 행한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결국 악한 자는 멸망하고 의인은 모두 살아남을 것이다. 사람이든 영혼이든 구원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마지막 시대의 사역만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는지에 근거해 결정된다. 지난 시대의 사람이 악을 행했고 또 구제 불능이었다면 틀림없이 징벌받을 대상이고, 이 시대에서 악을 행하고 또 구제 불능이라면, 그 역시 반드시 징벌받을 대상이다. 각 부류의 사람을 구분할 때는 시대가 아닌 선과 악에 근거한다. 사람을 선과 악으로 구분했다고 해서 곧바로 징벌하거나 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 상선벌악(賞善罰惡)의 사역은 말세 정복 사역이 끝난 뒤 행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선과 악으로 사람을 구분해 왔다. 단지 사역이 끝난 후에 의인에게 상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줄 뿐이다. 바로 마지막에 사역이 끝날 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한 다음 바로 상선벌악의 사역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후에 행하는 것이다. 최후의 상선벌악 사역은 오직 전 인류를 철저히 정결케 하여 온전하고 거룩한 인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단계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서 전체 경영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 악한 자를 멸하지 않고 남겨 둔다면, 전 인류는 계속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또한 더 아름다운 경지로 전 인류를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끝난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사역이 끝날 때 전 인류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편히 안식하며 지낼 수 있다.

사람은 여전히 육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며, 육적인 즐거움과 세상, 재물,

그리고 파괴된 성품을 버리지 못한 채 대부분 건성으로 추구하고 있다.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꿰뚫어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더더욱 믿지 못한다. 육적인 것이 너무 많은 그들은 심하게 파괴되어 진리를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육신 또한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 즉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는 모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진리는 고사하고 인성이나 이성조차 갖추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미덥지 못한 존재로 보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은 가장 미쁜 존재, 가장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존재로 여긴다. 그들이 찾는 것은 자극이지, 실제적인 진리나 인생의 참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아니다. 그들의 욕망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단지 스스로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지, 진리를 찾고 구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악을 행하는 자 아니겠느냐? 그들은 더없이 자신만만해하며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같이 ‘좋은 사람들’을 멸하리라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충성’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는 건 물론, 큰 상까지 내려 줄 것이라고 여긴다.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이 어그러지면 그 즉시 하나님께 반격을 개시하거나 노발대발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소인배’들이지 진리를 추구하는 ‘정인군자’가 아니다. 이런 부류가 바로 소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악한 자들이다. 진리를 찾고 구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믿지 못하며, 이후 인류에게 닥칠 결말에 대해서는 더욱 꿰뚫어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앞으로 인류가 맞이할 종착지는 물론이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사역과 말씀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를지라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진리를 찾고 구하지 않으며, 내가 요구하는 진리도 실행하지 않는다. 자신이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바로 멸망을 맞이할 대상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펴이나 똑똑하다고, 자신은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또 자신의 악행을 진리로 삼으며 귀하게 여긴다. 이런 악인은 모두 자신만만해서 진리를 이치로 삼고 자신의 악행을 오히려 진리로 여기니, 결국에는 자신의 쫓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진리를 얻기가 더 힘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된다. 이런 자들은 모두 징벌받을 대상이다.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류의 사람이 징벌을 받을지

아니면 상을 받을지는 그들이 진리를 찾고 구하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봉사한 적은 있지만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모두 진리가 없는 자들이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악을 행한 자들은 의심할 바 없이 징별받을 대상이고, 또한 그 악행에 따라 징별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고 순종하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을뿐더러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정복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육신에 거하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다면, 그렇게 ‘막연하게 믿는 자들’은 필히 멸망을 맞이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입으로는 성육신 하나님을 인정하나 그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처럼 말이다. 그들은 결국 다 도태되고 멸망될 대상이다. 또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말하면서 그가 선포한 진리도 먹고 마시지만,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더더욱 멸망될 대상이다. 그들은 사역이 끝난 뒤에 안식 가운데 남지 못할 것이며, 그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도 안식 가운데 남지 못할 것이다. 마귀의 부류에 속하는 자들은 모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은 찾아볼 수도 없다. 이런 부류는 모두 멸망될 대상이다. 너에게 진리가 있는지,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등은 너의 본질에 의한 것이지, 결코 외모나 우발적인 언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멸망 여부는 다 그들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그들이 행한 일과 진리를 추구하면서 드러낸 본질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똑같이 사역하면서 똑같이 많은 일을 했더라도 인성의 본질이 선하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대상이고, 인성의 본질이 악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멸망될 대상이다. 인류의 종착지를 염두에 둔 하나님의 사역이나 말씀은 모두 그 본질에 따라 적절하게 행해지므로 한 치의 오류도 털끝만큼의 실수도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사람이 하는 일에만 사람의 감정이나 뜻이 섞이는 법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어떤 피조물도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지금 많은 사람이 훗날 인류의 종착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한 말을 믿지도 않는다. 믿지 않거나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마귀이다!

지금 추구하지 않는 자와 추구하는 자는 종착지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다. 진리를 알고 실행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 속하지만, 참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마귀이자 원수이며, 천사장의 후예이자 멸망될 대상이다. 막연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신자 또한 마귀 아니겠느냐? 사람의 양심이 올바른지라도 참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두 마귀이고, 그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참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멸망될 대상이다. 세상을 버리려 하지 않고, 부모나 육적인 즐거움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자 멸망될 대상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전부가 마귀로서 훗날 더더욱 멸망될 대상이다. 믿으면서도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모두 멸망될 대상이다. 살아남는 사람은 전부 연단의 고통을 겪고 굳게 선 사람이고, 진정으로 시련을 겪은 사람이다. 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모두 원수이다. 즉, 이 흐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사탄은 누구이고 마귀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원수는 또 누구더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 아니더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아니냐?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나 진리가 없는 자들 아니더냐? 복만 받으려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 아니더냐? 네가 오늘날에도 이 마귀들과 손잡고 그들을 양심과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아니겠느냐? 마귀와 한통속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날에 이르렀는데도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사랑과 긍휼만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이런 부류가 맞이하는 결말은 더욱 비참할 것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이다. 네가 원수에게도 양심과 사랑을 베푼다면 정의감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증오하고 반대하는 자와 내가 오히려 마음이 통해 그들을 사랑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대한다면 패역 아니겠느냐? 고의로 대적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자에게 진리가 있겠느냐? 원수를 양심으로 대하고 또 마귀를 사랑으로 대하며 사탄에게도 긍휼을 베풀려고 한다면, 고의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만 믿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성육신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입으로는 성육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이며, 멸망될 대상이다. 사람이 다른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에 근거하기에 선행을 하면 의인, 악행을 하면 악인이라고 본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가늠하는 기준은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근거한다. 행위의 좋고 나쁨과 말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러지 않는 자는 원수이자 악인이다. 선행으로 훗날 아름다운 종착지를 얻으려 하는 자도 있고, 듣기 좋은 말로 장차 아름다운 종착지를 사려는 사람도 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보거나 말을 듣고서 그의 결말을 정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 기회에 속임수를 써서 일시적인 은혜를 받고자 한다. 남아서 이후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고난의 날을 겪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한 사람들이다. 봉사할 기회를 이용해 진리 실행을 면해 보려는 자들은 전부 살아남지 못할 자들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안배할 때는 적합한 기준에 따르지, 언행이나 한 시기의 행위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의 모든 악행에 관용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한동안 헌신했다고 해서 죽음을 면케 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은 보응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악행을 숨김으로써 멸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이 진실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한다면, 복을 받든 화를 입든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영원히 충성할 것이다. 복을 받을 희망이 보일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성심을 잃어버리는 자, 즉 한동안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봉사한 적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멸망될 대상이다. 요컨대 악인은 영원까지 살아남을 수 없고,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의인이야말로 안식의 주인이다. 인류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사람은 정상 인성을 갖고 살게 되므로 저마다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할 것이다. 사람은 패역과 패괴 성품을 완전히 벗어 버린 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일도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나라의 삶이며, 또한 안식하는 삶이다.

전혀 믿지 않는 자녀나 친족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다 사심이 너무 많고 선심을 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녀나 친족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상관 않고 오직 사랑만을 강조한다. 아내나 부모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는 사람도 있는데, 성령의 동의나 역사 여부 등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해 ‘인재를 영입한다’. 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 불신파들이 마지못해 따를지라도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와 시련, 성육신 하나님의 온전케 함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름만 걸어 놓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성령은 함께하지 않았다. 그들의 조건과 실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들은 만들어질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 역시 그들에게 지나치게 공을 들일 마음이 없으므로 어떤 깨우침이나 인도 없이 그저 그들 마음대로 따르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마지막에 결말을 드러낼 뿐이다. 사람의 열의와 뜻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므로 성령의 역사를 이뤄지게 할 수 없다. 어찌 됐든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 사람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겠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나? 자녀는 무엇을

위해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부모는 또 무엇을 위해 자녀를 사랑하느냐? 사람의 본심은 어디에 있느냐? 모두 자신의 타산과 욕심을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느냐? 진정 하나님의 경륜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에 있느냐? 피조물의 본분 이행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없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멸망의 대상이다. 사람이 아무리 그들을 사랑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지 못한다. 사람의 열의와 사랑은 사람의 뜻을 상징할 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지도 못한다. 사람이 이름만 걸고 있는 자들과 거짓으로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최고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다 한들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도, 성령의 역사도 얻을 수 없다. 진심으로 따르다면 자질이 떨어져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자질이 아무리 좋아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자는 구원받을 여지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때때로 설교를 듣거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할지라도 최후의 안식에서 살아남지는 못한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추구하는지 여부는 사람들의 평가와 그에 대한 주변인들의 관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함께하는지, 일정 기간 성령 역사로 인해 그의 성품이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등에 달려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품이 점점 변화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 대한 인식 또한 갈수록 순수해질 것이다. 따른 시간이 길든 짧든, 변화가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면 성령의 역사 또한 없는 것이다. 이런 자는 힘을 쓰더라도 복을 받으려는 속셈을 품고 있다. 가끔 힘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성품의 변화를 대신하지는 못하므로 결국에는 멸망의 대상이다. 하나님나라에는 힘쓰는 자가 필요하지 않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온전케 된 사람을 보살피는 일 또한 없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주를 믿으면 온 가족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은 은혜시대에나 적용되는 것일 뿐, 사람의 종착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지 은혜시대 그 단계에만 적용될 뿐이다. 이 말의 함의는 그저 사람이 누릴 평안과 물질적 축복을 겨냥해 말한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이 주를 믿는다고 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아니고, 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온 가족이 덩달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아니다. 사람이 복을 받거나 화를 입는 것은 모두 자신의 본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자신의 공통적 본질에 근거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나라에는 아예 이런 견해나 규정이 없다. 누군가 마지막에 살아남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했기 때문이고, 살아남아 안식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적합한 종착지가 있다. 그 종착지는 본인의 본질에 근거해 정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녀의 악행을 부모에게 더할 수 없고, 자녀의 의를 부모가 공유할 수도 없다. 또한 부모의 악행을 자녀에게 더할 수도 없고, 부모의 의를 자녀가 공유할 수도 없다. 저마다 자신의 죄를 감당하고 각자의 복을 누릴 뿐, 그 누구도 다른 이를 대신하지 못한다. 이것이 공의이다. 사람은 부모가 복을 받으면 자녀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악을 행하면 부모도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람의 생각이자 일 처리 방법일 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의 본질에 따라 합당한 결말을 맞이한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징벌받을 수 없다. 이것은 절대적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를 대신해 의를 행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도 부모를 대신해 의를 행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라는 말의 참뜻이다. 그 누구도 자녀를 넘치게 사랑한다고 해서 악을 행한 자녀를 데리고 안식에 들어갈 수는 없다. 또한 그 누구도 자신이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의 아내(또는 남편)를 데리고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은 행정 규정이므로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디까지나 악을 행하는 자이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살아남을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에 멸망될 대상이다. 거룩한 자는 거룩할 뿐 더럽지 않다. 더러운 자는 더러울 뿐 거룩한 부분이 전혀 없다. 설령 악을 행하는 자의 자녀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의인의 부모가 악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악인은 다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다 살아남을 것이다.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부모는 서로 맞지 않는 두 부류로서 본래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혈육의 정이 있겠지만, 안식에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혈육의 정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분을 이행하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는 본래 원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는 본래 적대되며,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멸망하는 자는 서로 합할 수 없는 두 부류의 피조물이다. 본분을 이행하는 피조물은 영원토록 살아남겠지만, 그러지 않는 피조물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네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너의 본분을 이행하기 위함이나?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본분을 이행하기 위함이나? 믿지 않는 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본분을 이행하기 위함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관점은 정말 올바른 것이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냐?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멸망의 대상이다. 지금 사람과 사람 간에는 육적인 관계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만, 나중에는 전부 깨질 것이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본래 합하지 않고 서로 적대된다. 안식을 얻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패역한 자들이 모두 멸망하면 땅에는 더 이상 가정이 존재하지 않을 텐데, 부모가 어디에 있고 자녀가 어디에 있으며, 부부 관계는 또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육적인 관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본래 합할 수 없으므로 단절될 것이다!

본디 인류에게는 가정이 없었다. 남자와 여자, 두 부류의 사람만 있었을 뿐 국가도, 나아가 가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패괴로 말미암아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가족 집단을 이루다가 국가와 민족으로 발전했으며, 이 국가와 민족은 또 하나하나의 작은 가정으로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각 부류의 사람은 언어와 경계(境界)에 따라 서로 다른 종족에 귀속되었다. 사실, 세상에 종족이 아무리 많더라도 인류의 조상은 결국 하나이다. 처음에 사람은 오직 남자와 여자의 두 부류만 있었다. 하지만 사역의 진전과 역사(歷史)의 발전, 지형의 변화로 인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조금씩 더 많은 부류로 파생됐다. 요컨대 인류의 종족이 얼마나 많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어느 종족의 사람이든 모두 피조물이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손으로 빚은 것은 아니지만 모두 하나님이 친히 만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며, 어느 부류든 다 피조물에 속한다. 창조된 인류이기에 그들에게 상응하는 종착지가 있으며, 그 종착지는 인류를 안배하는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다시 말해, 악을 행하는 자도 의를 행하는 자도 결국은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피조물은 마지막에 멸망될 대상이고, 의를 행하는 피조물은 살아남을 대상이다. 이는 두 부류의 피조물에 대한 가장 적합한 안배이다. 악을 행하는 자가 패역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지음 받았지만 사탄에 의해 사로잡혀 구제불능이 된 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지음 받았지만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다가 구원받게 된 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피조물로, 그들은 구제불능의 피조물이자 사탄에게 철저히 사로잡힌 피조물이다. 악을 행하는 자 역시 사람이고 극도로 패괴되고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똑같은 피조물로서 의를 행하는 사람 또한 패괴된 자이지만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움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 패괴된 성품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며, 궁극적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사탄에 의해 패괴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아니다. 사역이 끝나면 멸망하는 피조물도 있고, 살아남는 피조물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경영 사역의 필연적인 추세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 살아남을 수 없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틀림없이 살아남을 것이다.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인 만큼, 어떤 자는 남겨지고 어떤 자는 도태될 것이다. 이것은 각 부류의 사람이 맞이하는 서로 다른 결말로써 피조물에 대한 가장 적합한 안배이다. 인류에 대한 마지막 안배는 가정과 민족, 그리고 국경을 부수고 나누는 것이다. 사람은 어쨌든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피조물이기에 가정의 구분도, 국경의 구분도 없다. 요컨대 악을 행하는 피조물은 멸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은 살아남는다. 그리하여 나중에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과 국가는 물론, 민족까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인류가 바로 가장 거룩한 인류이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은 까닭은 사람이 땅에서 만물을 관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사람은 본래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땅에서 생존하고 땅의 만물을 관리하는 것은 여호와가 사람을 지은 이유였다. 처음에 사람은 파괴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괴된 사람은 더 이상 만물의 관리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은 사람의 이러한 역할과 처음에 지녔던 이성, 그리고 순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안식 중에 있는 인류의 모습이 바로 구원 사역의 성과를 보여 주는 증거라 하겠다. 더 이상 에덴동산의 삶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 단지 더 이상 파괴된 인류가 아니라 파괴되었다가 구원받은 인류일 뿐이다. 구원받은 이 인류는 마지막(사역이 끝난 뒤를 가리킴)에 안식에 들어갈 것이며, 마찬가지로 징벌의 대상들 또한 마지막이 되면 철저히 결말이 드러나 사역이 끝난 후에 멸망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역이 끝나면 악을 행한 자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드러난다는 뜻이다. 각 부류의 사람(악을 행하는 자든 구원을 얻는 자든)을 드러내는 이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서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도태되면 살아남은 사람 또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지, 먼저 한 무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한 뒤에 악인들을 한곳에 두었다가 조금씩 심판하거나 징벌하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 악인이 멸망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때 전 우주의 사역이 끝난다. 복을 받고 화를 입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 복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고, 화를 입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한다. 이 두 단계 사역은 동시에 완성된다. 거역하는 자가 있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악행으로 화를 입는 것이 드러난다. 악을 행하는 자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사역의 절차이다. 이 상선벌악의 사역을 행하지 않으면 피조물은 영원히 각자의 종착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류가 안식에 들어간 후 악을 행한 자가 모두 멸망하면, 전 인류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되고, 각 부류의 사람은 모두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뉜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안식이자 인류 발전의 필연적 추세이다.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야 비로소 마지막 대업이 이루어지고 사역이 끝나게 된다. 이 사역이 전 인류의 부패한 육적인 삶을 끝내고 파괴된 인류의 삶을 끝내면, 인류는 그때부터 새로운 경지에 들어갈 것이다. 사람은 육신에서 살겠지만, 그 삶의 본질은 파괴된 인류의 삶과 크게 다르고, 생존의 의의 또한 파괴된 인류의 생존 의의와 다르다. 이는 새로운 사람의 삶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인류의 삶이자 인성과 이성을 회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정복된 뒤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이 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검증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들로서, 그들의 삶은 가장 의의 있는 삶이다.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 사탄 앞에서 증거한,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멸망하는 자들은 모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들을 멸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걸맞은 종착지이다. 사람이 장차 아름다운 경지에 들어가면 사람이 상상하는 부부 관계나 부녀 관계, 모자 관계 등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은 모두 각기 부류대로 나뉘고 가정도 깨졌을 것이다. 사탄은 철저히 패배하여 더 이상 인류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에게도 더 이상 사탄의 파괴 성품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패역한 자들은 모두 멸망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살아남기에 온 가족이 살아남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육적인 관계가 있겠느냐? 그때면 과거의 육적인 삶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육적인 관계가 있겠느냐? 사탄의 파괴 성품이 없으면 사람의 삶 역시 더는 이전의 낡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일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잃고 자녀는 부모를 잃을 것이며, 남편은 아내를 잃고 아내는 남편을 잃을 것이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육적인 관계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면 육적인 관계는 없어진다. 그런 인류야말로 공의와 거룩함이 있는 인류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류이다.

하나님은 창조한 인류를 땅에 두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였으며, 또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류를 정복하고 철저히 구원하며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역, 즉 사람의 원래 형상과 모습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행한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땅에서의 권병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의 권병을 회복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피조물로서의 기능을 잃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가 되었다. 사람이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기에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서 사역할 수 없었고, 피조물의 경외는 더더욱 받지 못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을 경배하며 사탄을 마음속 우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잃게 되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지은 의의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의의를 되찾으려면 반드시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고, 파괴 성품을 없애야 한다. 또한 사람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되찾아 오려면 필히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을 조금씩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마지막에 패역한 자식들을 철저히 멸하는 까닭도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잘 경배하고 땅에서 더욱 잘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지은 이상 사람이 그를 경배하게 할 것이고, 사람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이상 불순물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히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권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그를 경배하고 순종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의 원수가 모두 그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남기며,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가 세우려는 나라는 그 자신의 나라이며, 그가 원하는 인류는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며 그의 영광을 가진 인류이다. 파괴된 인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가 사람을 지은 의의는 사라지고,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가졌던 권병은 없어질 것이며, 땅에는 더 이상 그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을 거역한 원수들을 멸하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한 영광을 얻을 수 없고,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인류 가운데의 패역자들을 철저히 멸하고 온전케 된 자들을 모두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그의 사역이 완성되고 그의 대업이 이루어졌다는 표징이다. 인류가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고, 각자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며, 자신의 본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땅에서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얻고 그를 경배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 또한 하나님이 땅에서 영원히 승리하고 그를 적대하던 자들이 영원히 멸망하면, 그는 처음에 사람과 만물을 지은 뜻을 회복하고, 땅에서 가졌던 권병과 만물 가운데서 가졌던 권병, 그리고 원수 가운데서 가졌던 권병도 회복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표징이다. 그때부터 인류는 안식에 들어가 정상 궤도의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 또한 사람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땅의 더러움과 패역, 애곡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그리고 그가 지은 만물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 네가 예수의 영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을 새롭게 바꾼 후이다

너는 예수를 보고 싶으냐? 예수와 함께 지내고 싶으냐?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듣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너는 예비를 잘했느냐? 너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냐? 나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예수의 재림을 좋은 방식으로 맞이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가 재림할 때 정말로 그를 알아볼 수 있을지, 정말로 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지, 정말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모두 예수가 재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전심으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순간이 오기를 주시하고 있는 너희 모두의 진심은 자랑할 만하고, 너희의 믿음은 실로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막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예수의 재림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 같으냐? 너희는 흰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묻겠다. 흰 구름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임하겠느냐? 예수가 너희들 가운데 먼저 임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가 예수에게 매우 진실하고 충성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 그의 성품을 알고 있느냐? 그와 함께 지낸 적이 있느냐? 너희는 그에 대해 대체 얼마나 알고 있느냐? 혹자는 내 말이 곤혹스럽다고 여기며 말할 것이다.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봤어요. 그런 제가 예수님을 모르다니요? 그분의 성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즐겨 입는 옷의 색깔도 저는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니,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네가 이런 문제로 고집을 부리지 않았으면 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의 문제들을 교제해 보자. 첫째, 너는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이론인지 아느냐? 둘째, 너는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아느냐? 셋째, 너는 무엇이 상상이고 무엇이 실상인지 아느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사실 예수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예수의 그 어떤 말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너희는 누구나 다 성경의 기록과 다른 사람이 전해 준 말로 인해 예수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수를 본 적이 없고, 예수와 함께 지낸 적은 더더욱 없다. 심지어 예수와 잠깐 함께한 적도 없으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이론이 아니겠느냐? 전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이는 예수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고,

어떤 이는 예수가 살았던 곳을 직접 방문해 보았으며, 또 어떤 이는 예수가 입었던 옷을 만져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론이지 실체가 아니다. 예수가 먹었던 음식을 내가 직접 맛보았다 할지라도 말이다. 어쨌든 너는 예수를 본 적이 없고, 그의 육신과 함께 지낸 적도 없다. 그렇기에 내가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영원히 실체가 없는 텅 빈 이론이다. 어쩌면 너는 내 말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묻겠다. 네가 가장 추앙하는 작가가 있다. 너는 그와 함께 지내본 적도 없는데 그의 작품을 많이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의 성격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의 생활 방식을 알 수 있겠느냐? 그의 희로애락을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추앙하는 사람조차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예수에 대한 너의 얕은 상상과 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진리도, 실상도 아니다. 악취를 풍기고 육적인 것으로 가득하다. 네가 아는 것이 이러한데, 무슨 자격으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한단 말이나? 예수는 환상과 육적인 관념으로 가득한 사람을 만나 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된단 말이나?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인 근본 원인을 알고 싶으냐? 바리새인의 본질을 알고 싶으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만 믿었을 뿐 생명 진리는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의 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하고 무지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메시아를 볼 수 있겠느냐? 그들이 예수를 대적인 이유는 성령 역사의 방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가 말한 진리의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더욱이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본 적도, 메시아와 함께 지낸 적도 없기에 메시아란 이름만을 헛되이 지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의 본질을 대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그 바리새인들의 본질은 완고하고, 교만하며,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그들의 원칙은 ‘당신이 전하는 도가 아무리 대단하고, 당신의 권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메시아로 불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관점 아니냐? 다시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예수를 털끝만큼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을 너무도 쉽게 저지르지 않겠느냐? 너는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느냐? 정말 너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 보증할 수 있느냐? 너는 성령의 역사를 따를 줄 아느냐? 네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적할지 않을지 모른다면, 나는 네가 이미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대적하고, 저버리고, 비방하는 짓을 저지를 수 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저버리고 모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예수의 재림을 사탄의 미혹으로 여길 수도 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다시 돌아온 예수를 정죄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두렵지 않느냐?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훼손하고, 예수가 선포한 말씀을 경멸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너희가 이처럼 미망에 빠져 있는데 예수에게서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처럼 고집부리며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육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가 ‘흰 뭉게구름’을 타고 강림하기만을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분명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며, 분명 멸망할 부류이다. 너희는 오로지 예수에게서 오는 은혜를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릴 생각만 할 뿐, 예수가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청종한 적이 없다. 또 예수가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 선포한 진리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너희는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온 이 사실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죄짓기를 반복하고 입술로 죄를 자복하는 너희의 성심이냐? 너희는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온 예수께 무엇을 제물로 바치겠느냐? 너희가 자신을 높이면서 오랫동안 사역한 자산이냐? 너희는 무엇으로 재림한 예수가 너희를 신임하도록 하겠느냐? 어떤 진리에도 순종하지 않는 너희의 그 교만한 본성이냐?

너희들의 충성은 입술에만 머물고, 너희들의 앎은 머릿속 관념에만 머물며, 너희들의 수고는 하늘나라의 복을 위한 것이다. 그럼 너희의 믿음은 또 어떠하냐? 지금까지도 너희는 이 진리들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또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어떻게 성령 역사에 진입하는지,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미혹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 중 한 마디라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정죄하기만 한다. 너의 겸손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순종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충성은 또 어디에 있느냐? 진리를 찾는 너의 태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 멸망될 부류이며, 육신으로 돌아온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 지옥의 자손, 천사장의 후손, 영원히 멸망될 부류이다. 어찌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이른바 성도라고 하는 모든 이에게 말해 주겠다.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예수를 너희 육안으로 직접 보게 될 때는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그때 네 마음은 몹시 흥분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느냐?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네가 지옥으로 떨어져 징벌을 받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났다고 선고될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벌악(賞善罰惡)할 때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 진리만 선포되었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적을 좇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여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창조주의 품속에 안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라는 신념을 고집하는 자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예수만을 믿고,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생명의 참도를 전하는 예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가 공개적으로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올 때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교만하며 자신을 과신하는데, 그런 인간 말종들이 어찌 예수에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죄받는 기호가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충고하겠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고 함부로 단정 짓지 마라. 또한 제멋대로 건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리를 듣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고, 진리를 듣고도 멋대로 단정 짓거나 정죄하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른 이를 저주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 너희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리의 도를 듣고 생명의 말씀을 본 후, 그 말씀 중에서 단 만분의 일이라도 너의 생각과 일치하고 성경과 일치한다고 여겨진다면, 너는 그 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말씀에서 계속 찾고 구하여라. 나는 또 네게 자신을 과신하거나 높이 여기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을 권한다.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에 더 큰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고 자꾸 생각해 보면, 너는 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과연 진리가 맞는지, 생명이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혹자는 몇 마디 보지도 않고 “이것은 성령의 깨우침에 불과해.”라고 하거나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라며 맹목적으로 정죄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자는 그야말로 너무나 무지하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과 지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적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다시 시작할 것을 권한다! 너희는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맹목적으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 미혹될 것이 두려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 번 살펴보고도 이런 말씀이 진리도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너는 결국 징벌받을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였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경솔하게 굴지도, 덤병대지도 말라. 하나님 믿는 일을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지도 말라. 자신의 종착지와 앞날, 자신의 생명을 생각해야지, 스스로를 우롱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말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의 참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예수와 함께하길 원한다. 예수를 만나거나 예수와 함께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형제자매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예수를 만나기 전, 다시 말해 성육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 너희는 예수의 모습이 어떨지, 말씀은 어떤 식으로 할지, 생활 방식이 어떨지 등 생각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정말로 만났을 때 너희의 생각은 곧바로 바뀔 것이다. 어째서 그럴까? 알고 싶으냐? 사람의 사유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본질은 더더욱 사람이 바꿀 수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신선이나 성인(聖人)으로 여기지만, 누구도 그리스도를 신적 본질을 지닌 일반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만을 고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나? 지금까지도 너희는 자신의 믿음과 충성심이 그리스도를 뵈기에 충분하다고 여기는데, 나는 너희에게 실제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갖추라고 충고하고 싶다! 과거와 현재에 그리스도와 접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바리새인의 역할을 하여 실패했고, 이후에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너희들이 실패한 까닭은 무엇이나? 그것은 너희의 관념 속에 사람들이 양모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바람과 다르다. 그리스도는 위대하기는커녕 아주 보잘것없으며, 사람인 데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행동이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하고, 그와 거리낌 없이 지내며, 그에게 막말을 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진정한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린다. 너희는 이미 온 그리스도를 보통 사람으로 대하고 그의 말씀을 보통 사람의 말로 여기므로 그리스도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빛 속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만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리스도와 만나기 전에 너는 자신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자라 여기며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많은 길을 열심히 뛰어다녔고 많은 사역을 행하여 많은 결실을 맺었으므로 자신이 나중에 꼭 면류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사람의 패괴 성품과 패역, 대적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때 드러나는 패역과 대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나라하다는 사실을 아느냐? 그리스도가 인자이며 정상 인성을 지닌 인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불경스레 대하고, 하나님께서 육신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패역이 남김없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임함으로 인류의 패역이 모두 파헤쳐졌고, 그리스도의 임함으로 인류의 본성이 다 부각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맹수를 굴 밖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너는 감히 자신이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감히 자신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감히 자신이 패역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떤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환경을 마련할 때마다 아무 불평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다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맡긴 일을 건성으로 대한 적 없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완수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럼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할 때 그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느냐? 그런 날은 또 얼마나 오래갈까? 하루? 이틀? 한 시간? 두 시간? 너희의 믿음은 가상하나 너희의 의지력은 결코 강하지 않다.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게 될 때는 너의 독선과 자만이 언행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뒤를 이어 너의 사치스러운 욕망과 불복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결국 교만함이 나날이 심해져 물과 불처럼 그리스도와 상극이 될 때면, 너의 본성이 전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의 관념은 감출 수 없게 되고, 너의 불평도 자연스럽게 ‘표출’되면서 너의 그 비열한 인성이 전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너는 여전히 자신의 패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그리스도는 너무 냉혹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더 나은 그리스도가 있으면 완전히 순종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패역에 이유가 있다고 여기며,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렇게 거역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그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었음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한사코 그리스도에게 너의 뜻에 따라 사역하길 강조하며, 한 가지 일이라도 너의 뜻에 따라 하지 않으면 그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여긴다. 너희 중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와 힘겨루기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는 이는 대체 누구이냐? 너희는 어떻게 추구했느냐?

너희는 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자신을 너무 높이 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있지만 나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한다. 인간의 본성은 악과 교만, 패역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본성이 너를 망치고, 네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네가 형제(자매)와 접할 때에는 너를 어찌하다고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접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너의 관념이 수시로 뿌리를 내리고, 너의 교만함이 수시로 썩어 트고, 너의 패역이 수시로 무화과를 맺을 것이다. 너의 그런 인성으로 어찌 그리스도를 접한단 말이나? 너는 진정 그를 언제나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느냐? 너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체가 있느냐? 너희는 마음속의 위대한 하나님을 여호와로 여겨 경배하고, 보이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대하니 이성이 너무도 없고, 인간성 또한 몹시 저열하다! 너희는 가끔 기쁠 때에만 그를 끌어와 하나님으로 여겨 경배할 뿐, 영원히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당이라고 한다.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보답을 받는데, 그리스도는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사역하면서도 사람들의 사랑과 순종, 보상도 받지 못한다. 이는 마음이 미어지고 눈물이 날 일이 아니겠느냐?

어쩌면 네가 하나님을 여러 해 믿으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악담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를 접했을 때 정직한 말과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음험하고 악랄한 사람이라고 한다. 네가 친지와 친구, 아내(남편)와 자녀, 부모에게 매우 자상하고 충실하며, 여태껏 다른 이를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면, 너의 모든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거나 부모와 가족을 세심하게 돌본다 하더라도 나는 네가 여전히 악인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간계가 많은 악인이라고 할 것이다. 네가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 좋은 일을 좀 했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다고 여기지 말라. 너는 선심을 쓰는 것으로 교묘하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좋은 일을 좀 했다고 순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모두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인성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그런 믿음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분량이 너무 작아서 그리스도를 만날 자격조차 없기 때문이다. 네가 패역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책망이나 심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하나님께 적대적이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존재이므로 만약 파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언행 하나하나에서 파괴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접할 때 곳곳에서 패역을 드러내어 부지중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기만하고, 저버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처지가 더욱 위험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징벌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접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니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자가 하나님께 충실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접하는 것이 물론 어렵지만 이는 모두 사람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접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자신을 아는 진리에 공을 들이면 좋겠다. 하나님이 왜 너희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너희의 성품을 혐오할까? 왜 너희의 언사를 증오할까? 너희는 충성심이 좀 있으면 뽐내고 공헌을 좀 하면 보답을 바란다. 또 조금 순종하면 타인을 업신여기고 보잘것없는 사역을 좀 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을 대접하고는 돈과 물질을 요구하고 칭찬해 달라고 하며, 동전 두 닢을 내놓고는 아까워하고, 동전 열 닢을 내놓고는 축복해 달라고 하며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한다. 너희의 이런 인성은 정말 입에 담기 민망하고 듣기조차 거북하다. 너희의 언행에 자랑스러울 것이 뭐가 있단 말이나? 본분을 이행하는 자나 이행하지 않는 자, 인도하는 자나 따르는 자,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 헌금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 전도하는 자나 받는 자 등등의 모든 사람이 자기 자랑만 하는데 우습지 않느냐?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을 자랑하는데, 너희들의 이성이 자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지 않는단 말이나? 이런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단 말이나? 너희는 이런 자신이 걱정스럽지 않느냐? 너희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너희의 믿음이 우습지 않느냐? 너희의 믿음이 터무니없지 않느냐? 너는 너의 미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네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나는 땅에서 많은 사람을 찾아 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였다. 따르는 사람 중에는 제사장이 되는 사람도 있고, 리더나 아들이 되는 사람도 있고, 백성이나 봉사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나에 대한 사람의 충성심에 따라 사람을 각 부류로 나눈다. 모든 사람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었을 때, 즉 각 부류 사람들의 본성이 죄다 드러날 때, 나는 그들을 각각 있어야 할 부류에 속하게 하고 가장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내 목적을

이를 것이다. 또한 나는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불러 모아 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 모두가 내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게 하는 한편, 사람을 부류대로 나눈다. 그런 뒤 그들이 행한 대로 상벌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역하는 절차이다.

현재 나는 땅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으며, 사람은 나의 사역을 체험하고 나의 말을 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모든 진리를 베풀어 내게서 생명을 얻게 하고, 이에 행할 길을 얻게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생명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 오랜 사역 속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버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사람이 나를 진실로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은 입으로만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뿐, 내 입에서 나온 진리는 수긍하지 않고 내가 요구한 진리는 더욱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인정할 뿐,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만 인정할 뿐 하나님의 본질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열정 때문에 사람을 혐오한다. 사람은 듣기 좋은 말로 나를 기만하기만 할 뿐, 진심으로 나를 경배하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의 말은 독사의 유혹을 품고 있으며, 극히 교만하여 천사장의 ‘소리’ 같다. 너희의 행실은 썩어 빠졌고, 너희의 사치스러운 욕망과 탐욕스러운 속셈은 듣기조차 민망하다. 너희는 모두 내 집의 좀 벌레, 내가 혐오하여 내치는 대상이 되었다. 너희는 전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가 땅에서 권세 잡는 장관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같이 극도로 패괴되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따를 자격이 있겠느냐?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전례 없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자격이 있겠느냐?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입에는 나를 기만하는 말과 더러운 말, 그리고 나를 배반하는 말과 교만한 말로 가득하다. 너희는 진실한 말로 나에게 간절히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거룩한 말도, 나의 말을 체험하여 나에게 순종하는 말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너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너희의 마음속은 욕망과 돈으로 가득 찼고, 너희 머리는 물질로 가득 찼다. 너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내게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지, 내게 얻은 돈과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있으며, 더 많은 축복이 임하여 더 많고 좋은 물질을 누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매 순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게서 온 진리도 아니라, 너희의 남편(아내)과 아들딸, 그리고 너희가 먹고 입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더 잘 즐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것을 즐길 수 있는지 등이다. 너희가 자신의 배를 가득 채운다고 해도 여전히 시체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겉으로 아주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도 생기 없는 산송장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머리가

세도록 고생하면서도 내 사역을 위해서는 털끝 하나 바치려고 하지 않는다. 또 너희는 자신의 육체와 아들딸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며 고생하고 머리를 쥐어짜지만 내 마음을 생각하며 조급해하고 근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너희는 내게서 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나는 사역할 때 급하게 서두르는 법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따르든 나는 내 절차와 계획대로 사역한다. 그렇기에 너희가 이처럼 나를 거역하더라도 나는 나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예정해 놓은 사람들을 전부 내 집으로 불러 모아 내가 하는 말을 듣는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뒤에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한 내 말에 등 돌리고, 내게 청종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으며, 나를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은 죄다 한쪽에 두어 최후의 징벌을 기다리게 할 것이다. 사람은 모두 패괴 성품으로 살고 있고,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리고 진리로 나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리어 패괴와 패역과 기만의 수법으로 나의 신임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하는 것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모두 극도로 패괴된 사람이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진리를 믿고 인정하며 실행하는 일부의 사람들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더 많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에 대조해 볼 때, 너희는 자신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결말은 어떠한 것 같으냐?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너는 델 만한 이유도 많을 것이고, 사랑도 아주 클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란 티 없이 순수한 감정이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느끼고 헤아리는 것이다. ‘사랑’에는 조건도 간격도 거리도 없다. ‘사랑’에는 의심도 추측도 없고 기만도 간교도 없다. ‘사랑’에는 거래도 어떠한 불순물도 없다. 너에게 사랑이 있다면 기만도 원망도 하지 않을 것이고, 배반도 거역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무엇을 얻고자, 얼마큼 얻고자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너에게 사랑이 있다면 기꺼이 바치고, 고난을 감내할 것이다. 또한 나와 마음을 합할 것이며, 나를 위해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다. 너의 가정과 앞날, 청춘과 결혼까지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기만이고 배반이다! 너에게는 어떤 사랑이 있느냐? 참된 사랑이나, 거짓된

사랑이냐? 너는 얼마나 포기하였느냐? 얼마나 바쳤느냐? 내가 너에게서 얻은 사랑은 얼마나 될 것 같느냐? 너는 알고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는 악과 배반, 기만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너희의 사랑에는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위해 충분히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나에게 대한 사랑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의 언행은 늘 패역과 기만을 띠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나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나를 저버린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나를 믿지 못한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나의 존재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나의 신분에 걸맞게 나를 대하지 않고 늘 나를 난처하게 한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매사에 나를 속이고 기만한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섬기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사사건건 내게 반기를 든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바친 것은 많지만 정작 내가 요구한 것들은 단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세히 따져 보면, 너희에게서는 나를 사랑하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했고 이토록 많은 말씀을 공급했는데, 너희가 얻은 것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권고하고자 한다. 내가 불러 모은 이는 패괴된 사람이고, 내가 택한 이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땅히 자신의 언행을 경계하고 속마음과 생각을 성찰하여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 마지막 때에 온 힘을 다해 너희의 사랑을 내 앞에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진노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 너는 마땅히 그리스도와 합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나는 인간 세상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면서 그동안 많은 말을 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말이자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합하게 하기 위한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땅에서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을 많이 얻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나는 사람들이 내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내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나를 경배하도록 하는 데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하도록 하는 데 있다. 패괴된 사람은 모두 사탄의 울무에서 살아가고, 자신의 욕, 그리고 사욕으로 살아가며, 내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내 마음에

합했다고 자칭하는 자들은 모두 막연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거룩하다 칭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도는 나와 상반된다. 그들의 말에는 교만함과 자신감이 가득 배어 있다. 그들은 본래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이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에서 나의 종적을 찾으며, 내키는 대로 ‘적합한’ 구절을 찾아 하염없이 읊조리는가 하면, ‘경전’으로 삼아 외우기까지 한다. 그들은 내 마음에 합하는 방법을 모르고, 무엇이 나와 적대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성경’만 읽을 뿐이다. 그들은 아예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막연한 하나님을 성경에 국한시키고, 여유가 생길 때면 꺼내어 보곤 한다. 그들은 성경의 범위 안에서 내 존재를 믿는다. 그들은 ‘성경’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성경’도 없다며 ‘나’와 ‘성경’을 동일시한다. 그들은 내 존재와 내 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은 매우 각별하다. 심지어 적지 않은 이들이 성경의 예언이 없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글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성경 장절로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가늠하고, 나를 정죄하기까지 한다. 그들이 찾는 것은 성경 글귀에 부합하는 길이지, 내 마음에 합하는 길이나 진리와 합하는 길이 아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다 나의 사역이 아니라 여기니, 이런 자들은 바리새인의 충실한 자손들 아니겠느냐?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 그들은 당시 예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할 것인지는 찾지도 않으면서 율법 구절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대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에게 구약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과 메시야가 아니라는 죄명을 씌워 죄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다. 그들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진리와 합하는 길을 찾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그들은 성경의 글귀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내 뜻과 내 사역의 절차와 방식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글귀를 고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성경을 지키는 종들이었다. 그들은 성경의 이익과 존엄성, 그리고 성경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인자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단지 성경을 옹호하고, 또 성경의 글귀가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앞날을 망칠지라도, 속죄 제물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 성경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런 그들을 성경 글귀의 앞잡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람은 어떠하냐? 사람은 천국에 가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 밖으로 내몰려 하였다. 또한 성경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리의 도래를 완전히 말살하려 하였으며, 성경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두 번째 육신으로 돌아온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으려고 하였다.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악독하고, 그 본성이 나를 이토록 적대시하는데 어찌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사람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아도 나의 존재를 모르고, 나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어도 여전히 나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 나의 진노가 사람에게 닥칠 때면 나의 존재를 더욱 부인한다. 사람은 저마다 글귀와 어우러지고 성경과 합하기를 구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 앞에 와서 진리와 합하는 길을 찾지는 않는다. 사람은 모두 천상에 있는 나를 앙망하고, 천상에 있는 내 존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는 개의치 않는다.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가 너무도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내 눈에는 오직 성경 글귀에 합하기만을 구하고, 막연한 하나님과 합하기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비천해 보인다.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은 죽은 글귀와 자신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물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지배를 받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비천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 나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나를 거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나를 적대시하는 자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 또한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를 거역하는 자는 더더욱 나를 적대시하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악한 자의 손에 넘겨 악한 자에 의해 파괴되게 하고, 그들의 악행이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악한 자에게 넘겨주어 집어삼키게 할 것이다. 나는 나를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지, 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는 무관심하다는 의미이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를 배반한 악인이자 원수로, 굳이 그 원수를 내 집에서 ‘떠받들’ 리가 없다.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내 집에서 나를 섬기겠지만,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은 나의 징벌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의 글귀에만 신경 쓸 뿐, 진리와 내 발걸음을 찾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은 모두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나를 성경에 국한시키고, 성경 안의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 대한 크나큰 모독인데 그들이 어찌 내 앞에 올 수 있겠느냐?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나의 행사와 나의 뜻, 진리가 아니라 글귀,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글귀이다. 이런 자들이 어찌 내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많은 말을 하고 내 뜻과 내 성품까지 나타내었건만, 사람은 여전히 나를 알지도, 믿지도 못한다. 혹은 나에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성경만 따르며 사는 사람,

율법만 따르며 사는 사람, 십자가에만 기대어 사는 사람, 규례만 따르며 사는 사람, 오늘날 나의 사역을 따르며 사는 사람, 이들 가운데 그 누가 내 마음에 합하겠느냐? 너희는 복받거나 상받을 공리만 하였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와 적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너희가 너무나 실망스럽다. 너희에게 셀 수 없을 만큼 베풀어 주었지만, 내가 너희에게서 얻은 것은 너무나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기만과 교만, 너희의 탐욕과 사치스러운 욕망, 너희의 배반과 불복종,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무성의하게 대하고 속이며 욕되게 한다. 또한 기만하고, 사기 치며, 나의 제물을 강탈한다. 이런 악행들이 어떻게 내 징벌을 피해 갈 수 있겠느냐? 이 악행들은 너희가 나를 적대시하며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너희는 저마다 내 마음에 합하는 부분이 아주 많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이 확실한 증거는 또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란 말이나? 너희는 나에게 진심을 다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충성한다고 여긴다. 또한 너희는 자신들이 더없이 착하고, 동정심도 넘쳐난다고 여기며, 나에게 셀 수 없이 많이 바쳤고, 나를 위해 행한 것도 충분히 많다고 여긴다. 하지만 너희는 그런 생각들을 자신의 행위와 대조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말해주겠다. 너희는 교만으로 가득 찼고, 너무나 탐욕스러우며, 건성으로 하는 일이 많다. 게다가 나를 속이는 데 탁월하고, 비열한 속셈과 수단이 너무 많다. 너희는 충성심과 진심이 한없이 부족하고, 양심은 더욱 없으며, 마음씨 또한 너무나 악독하여 어떤 사람도 그냥 두지 않는다. 심지어 나에게도 예외는 없다. 너희는 자녀와 남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를 문전 박대 한다. 너희의 가정과 자녀, 지위와 앞날, 그리고 누리는 데에만 관심을 둘 뿐, 나에게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너희가 말을 할 때, 일을 할 때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날이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너희는 자녀와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를 생각하지, 나를 떠올리지는 않는다. 본분을 이행할 때도 네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신변 안전, 그리고 너의 가족이다. 네가 행한 일 중에 나를 위한 것이 있었느냐? 언제 나를 생각한 적이 있었느냐? 나와 내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한 적이 있었느냐? 내 마음에 합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 나에게 충성하였느냐? 실제로 나에게 순종하였느냐? 복을 얻으려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느냐? 너희는 모두 나를 건성으로 대하며 기만하고 있다. 또한 진리를 우롱하고, 진리의 존재를 덮어 감추며, 진리의 본질을 배반하고 있다. 나를 이토록 적대시켰으니,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막연한 하나님과 합하며, 막연한 신앙만을 추구하지,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합하지 않는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악인과 똑같은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자가 어떤 보응을 받든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고, 또 천국에 가려는 너희의 꿈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고 수없이 고통을 겪었지만, 내가 인류에게 베풀어 주는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최종에 너희는 오직 나만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오직 나만이 인류를 아름다운 종착지로 인도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네가 하나님을 믿은 지 한두 해만은 아닐 것이다. 그 세월 동안 너는 많은 고난을 겪었을 수도 있고, 고난 대신에 많은 은혜를 입었을 수도 있다. 또는 고난도 은혜도 받지 않고 아주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 됐든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보았으면 한다. 그 전에,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일러두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상이 대중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자신을 말씀에서 제외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한다. 어쨌든 이제 우리의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진정한 함의를 깨달아야 한다.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의 함의는 모두 너희의 긍정적인 진입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오늘은 그때와 달리, 너희의 믿음에 대한 본질을 분석하려 한다. 물론 이것은 부정적인 면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자신의 진면목을 영원히 알지 못한 채, 스스로가 경건하고 충성스럽다며 끝없이 과시할 것이다. 내가 너희 마음속 깊은 곳의 추한 모습을 들추어내지 않는다면, 너희는 저마다 면류관을 제 머리에 씌우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것이라는 의미다. 너희는 오만 방자한 본성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었으며,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대적하였다. 또한 너희의 그 추악한 물골이 드러나면서 너희의 속셈과 생각, 사치스러운 욕망과 탐욕스러운 두 눈도 빛 속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말끝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한평생 몸 바치겠다고 외치고, 그가 일찍이 말씀했던 진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 끊임없이 되뇌다.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 바로 너희의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믿음’이다. 예로부터 사람에게 대한 내 요구는 매우 엄격했다. 네 충성심에 다른 속셈이나 조건이 있다면, 나는 너의 그 소위 충성심을 차라리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이 저의를 지닌 채 나를 기만하고, 조건을 내밀며 뭔가 얻어 내려는 것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나에게 변함없이 충실하고, 무슨 일을 하든 오직 ‘믿음’을 위해, 그리고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감언이설로 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을 미워한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진심으로 대했으므로 너희 또한 나를 참된 믿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믿음’이란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왜 구태여 이러한 고난을 받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묻겠다.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왜 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조금도 없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임을 인정하면서 왜 그를 멸시하느냐? 왜 그에게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왜 그를 공개적으로 판단하느냐? 왜 늘 그의 행적을 캐느냐? 왜 그의 안배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일을 할 때 그의 말씀을 준칙으로 삼지 않느냐? 왜 그의 제물을 강탈하고 흠치느냐? 왜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말하느냐? 왜 그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 옳고 그름을 평가하느냐? 왜 그를 뒤에서 모독하느냐? 이런 것들이 너희의 ‘믿음’이냐?

너희의 언행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분이 드러나고, 너희가 일을 행하는 동기와 목표에는 ‘불신’의 성분이 가득하다. 심지어 너희의 눈빛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이 섞여 있다. 너희는 일분일초도 불신을 버린 적이 없었기에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배반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피가 온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길에 새긴 발자국이 참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착실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너희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한 말씀을 반신반의할 뿐 곧장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그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 늘 관념에 사로잡히는 것도 그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그의 말씀도 늘 꺾등으로 흘려보낸다. 또한 편견으로 인해 그가 행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관념을 내려놓기 어려워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너희 마음속에 섞여 있는 불신의 요소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르면서 아직 뒤쳐진 적이 없긴 하지만, 너희의 마음속에는 패역의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 있다. 그 패역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에 끼어 있는 불순물이다. 어쩌면 너희는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말을 보고 자신의 속셈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멸망할 존재가 분명하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사람은 그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지만, 그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 억지로 따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세력이나 재물은 좋아하지만 심판은 물론, 진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세력파라고 한다. 그들은 세상에서 세력이 있는 교파만을 골라 찾아다니고, 신학교를 나온 목사와 강사만을 찾는다. 그들은 설령 진리의 도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반신반의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지 못한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주시하는 사람은 대단한 목사와 강사일 뿐, 그리스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밖에 없다. 그들은 이렇게 작디작은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정복할 수 있고, 이렇게 불품없는 한 사람이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믿지 않는다. 또한 먼지와 거름으로 뒤범벅된 이 변변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이라면 천지가 뒤집힐 일, 그야말로 배꼽 잡고 웃을 일이라고 여긴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택해 온전케 한다면, 저 대단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관점에는 불신의 요소가 섞여 있다. 어찌 불신뿐이겠는가? 그들은 진정 이치로는 깨우칠 수 없는 짐승들이다. 그들은 지위와 명망, 세력, 그리고 거대한 단체와 파벌만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끄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진리와 생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배반자들이다.

너는 높디높은 지위를 가진 저 거짓 목자들을 숭상하지, 그리스도의 낮춤을 양모하지는 않는다. 또한 세상과 야합하는 저 음탕한 자들을 좋아하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과 지혜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너는 제물을 약탈하고 주색에 빠져 사는 저 시체들에 감탄할 뿐, 머리 돌 곳 없는 그리스도의 고통은 비웃기만 한다. 또한 제멋대로 행하는 저 적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길 원하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너에게 공급하는 것이 육체와 글귀, 그리고 통제뿐일지라도 말이다. 지금도 너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에게 향해 있고, 그들의 명예와 지위, 세력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이유로 너에게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다. 너의 마음속에는 높고 큰 형상이 우뚝 솟아 있다. 너는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잊지 못하고, 권세를 지닌 그들의 말과 두 손도 잊지 못한다. 너희 마음속의 그들은 영원히 지고지상한 영웅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네 마음속의 그는 영원히 초라하고 경외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는 지극히 평범하고, 권세도 거의 없으며, 너무도 위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진리를 중시하지 않는 자들을 불신파, 진리의 배반자라 한다. 이런 자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에게 칭찬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너는 자신에게서 얼마나 많은 불신의 요소를 찾아냈느냐?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는 요소를 얼마나 많이 찾아냈느냐? 네가 진리의 도를

선택한 이상, 모든 심혈을 쏟아붓고, 망설이지도 흔들리지도 말 것을 권고한다.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속하지, 세상과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속하지는 않는다.

너희에게는 아직도 적지 않은 불신의 요소가 남아 있으니 한번 진지하게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답을 얻을 것이다. 네가 올바른 답을 얻는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만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반하며 그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날이 오면, 너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진실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의 마음에서 의심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나 되지만, 믿음은 30%에 불과하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일을 행하고 말을 할 때마다 그에 대한 관념과 편견이 생길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만 앙모하고 두려워하지, 땅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이 또한 너희의 불신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과거에 사역했던 하나님만 그리워하지,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마주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영원히 섞여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불신의 요소와 해부해야 할 불순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 불순물은 너희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는 표시이자 너희가 그리스도를 저버렸다는 표식이다.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낙인이자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아 갈 때 눈을 가린 수건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얻어지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자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며,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칭찬받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너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의 모든 것에 이로울 것이다!

## 그리스도는 진리로 심판의 사역을 한다

말세의 사역은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사역이자 하나님 경륜이 끝나는 사역이다. 때는 이미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사람, 즉 끝까지 그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 자신의 시대로 데리고 들어간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의 행위를 살피거나 사람의 생활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패역을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보좌 앞에 온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날에 이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정결케 할 대상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받아들이는 개개인은 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 ‘심판’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말세에 그의 보좌 앞에 온 사람들에게 행하는 심판이다. 어떤 사람은 말세가 오면 하나님이 흰 탁자 보를 씌운 큰 탁자를 하늘에 설치하고 커다란 보좌에 앉아, 땅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든 개개인의 죄상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이 하늘나라로 갈지 아니면 유향불 못으로 떨어질지를 정할 것이라는 등등의 초자연적인 상상을 할지도 모른다. 사람이 어떻게 상상하든지 하나님 사역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사람의 상상은 단지 사유에서 비롯된 구상이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며, 사람이 듣고 본 것을 긁어모아 종합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상상하든 그것은 단지 그림에 불과할 뿐, 하나님 사역의 계획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다 사탄에 의해 파괴된 존재인데,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아주 기이하게 상상한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직접 행하는 심판 사역이라면 틀림없이 규모가 아주 방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분명 하늘에까지 울려 퍼지고 땅을 뒤흔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일 수 있겠냐고 생각한다. 또한 심판 사역이라면 하나님은 사역할 때 틀림없이 매우 위엄 있고 위풍당당할 것이며, 심판받는 자들은 분명 대성통곡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의 장면은 틀림없이 매우 장관이고 가슴 뛰게 할 것이라는 등등 여러 가지 상상을 한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지나치게 환상적으로 상상한다. 하지만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심판 사역을 시작했을 때 너는 여전히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단잠에 빠져 있었고, 네가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바꾼 때이다. 그때 어찌면 너는 막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정한 징벌 사역은 깊이 잠든 너를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때서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일찌감치 끝났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좋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혐오스럽고도 역겨운 화제들은 더 이상 논하지 말자. 무엇이 심판인지 이야기해 보자! ‘심판’이라는 말을 언급하면, 너는 여호와가 만방에 알린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말씀이 떠오를 것이다. 그런 말씀들은 비록 엄하긴 해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다만 그때의 서로 다른 상황, 즉 서로 다른 배경에서 하나님이 한 말씀일 뿐이다. 그런 말씀들은 말세의 그리스도가 사람을

심판하는 말씀과는 다르다. 말세의 그리스도는 다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며 사람의 언행을 분석한다. 그런 말씀에는 다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정상 인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 등등이 있다. 이런 말씀은 다 사람의 본질과 패괴 성품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폭로하는 말씀들은 사람이 원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는 점을 더더욱 겨냥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은 두세 마디 말로 사람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폭로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폭로와 책망, 훈계는 일반적인 언어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어야 심판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심판이어야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탄복하고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고 패역의 진상에 대해 알게 된다. 심판 사역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된다. 또한 사람의 패괴된 본질과 근원을 알게 되고,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역 성과는 심판 사역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사실, 심판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길과 생명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 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이다. 만약 네가 이런 진리를 중시하지 않고 항상 회피하려고만 하며, 이런 진리 밖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으려고 한다면, 나는 너를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하겠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심판에서 도피하는 사람이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도망가는 꼭두각시, 배신자라고 하겠다. 하나님은 그의 눈앞에서 도망가는 반역자들을 어느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이런 사람은 더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고 정결케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나중의 일이다.

심판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라 당연히 하나님이 친히 해야 한다. 이 사역은 사람이 대체할 수 없다. 심판은 진리로 인류를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성육신의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이 사역을 한다. 말하자면, 말세의 그리스도는 진리로 만방의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를 만방의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을 언짢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심판 사역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이 흔히 사람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고 사람의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 둔다. 사람은 땅에 있는 구더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 지고지상한 분이고, 사람의 머리는 썩은 물웅덩이 같아서 구더기만 만들어 낼 뿐이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휘하는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하나님 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 어느 쪽일지는 내가 말해 주지 않아도 뻔한 사실이다. 각자 자신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기를 권한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대단하냐? 다른 사람은 진리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대세의 흐름이다. 하나님은 너의 ‘공로’ 때문에 심판 사역을 두 번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너는 크게 후회할 것이다. 만약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하늘의 크고 흰 보좌가 너를 ‘심판’하기를 기다려 보아라! 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저버리고 부인했지만 예수가 인류를 속량한 일이 우주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룬 사실이 아니더냐? 네가 아직도 예수가 너를 맞이해 하늘나라로 데려가기를 기다린다면, 나는 너를 고집불통에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하겠다. 예수는 진리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너 같은 거짓 신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가차 없이 너를 불 못에 던져 만년 동안 불태울 것이다.

너는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이해했느냐? 만일 이해했다면 고분고분 심판받기를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이끌려 그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없을 것이다. 심판받기만 하고 끝까지 정결케 되지 못하는 자들, 즉 심판 사역에서 도망간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혐오받고 버림받을 것이다. 그들의 죄상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무겁고 더 많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하나님의 반역자이기 때문이다. 봉사할 자격조차 없는 그들은 더 무거운 징벌, 게다가 영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입으로는 그에게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를 배반하는 어떠한 변절자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징벌받는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의 발현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고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심판 기간 동안 많은 악행을 쌓은 사람을 악령이 득실거리는 곳에 두어 악령이 마음대로 그 육체를 훼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육체에서는 시체 냄새가 진동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다. 하나님은 충성하지 않은 거짓 신자와 거짓 사도 그리고 거짓 일꾼들의 각종 죄상을 일일이 그들의 기록 책에 적어 두었다가 적합한 때에 그들을 더러운 귀신들 속에 던질 것이다.

더러운 귀신들이 마음대로 그들의 온몸을 더럽혀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고 다시는 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동안 봉사했지만 끝까지 충성하지 않고 외식한 자들을 악인들 가운데 두어, 악인들과 한 패거리인 오합지졸이 되게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그들을 멸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적이 없거나 작은 힘도 바친 적이 없는 자들을 한쪽에 내버려 두고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시대를 바꿀 때 모두 멸해 버릴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땅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고 마지못해 건성으로 대한 자들은 백성들을 위해 힘을 쓴 사람들 속에 넣어 둘 것이다. 이들 중 적은 수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대부분은 봉사조차 제대로 못 한 자들과 함께 멸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와 한마음 한뜻이 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들들 그리고 그가 제사장으로 예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어갈 것이다. 이들은 다 하나님이 사역해서 얻은 결정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눈 부류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방인의 행렬에 들게 된다. 그들의 결말이 어떨지는 너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 어떤 길을 택할지는 너희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기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 성품은 누구에게나 무정하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큰 일을 하였다는 것을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며, 해가 바뀌고 날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많은 사역을 하였다. 그는 인간 세상에 왔다가 다시 떠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많은 세대를 지나왔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가 해야 할 사역과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많은 사역을 하였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오늘날 하는 사역이 과거의 사역보다 많고, 사역의 규모도 더 방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큰 일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는 각 항목의 사역은 사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큰일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라야 매우 큰 일이나? 물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다 매우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오늘날 하고 있는 일을 매우 큰 일이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매우 큰 일을 하였다면, 거기에는 분명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비밀이 많이 있을 것이니,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자.

예수는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그의 존재를 전혀 용납지 않는 시대에 강생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막지 못하였으며, 그는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인간 세상에서 33년 동안 생활하였다.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그는 인간 세상의 쓰라림을 체험하였고, 또한 비참한 생활도 맛보았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전 인류를 속량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그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는 모든 죄인을 속량하였고, 마지막에는 부활한 몸으로 그의 안식처로 돌아갔다. 오늘날 하나님의 새 사역이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은 속량한 사람들을 그의 집으로 데려와 새 구원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번의 구원 사역은 전보다 더욱 철저하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여 사람이 스스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육신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이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방식으로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번 사역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친히 역사하면서 사역을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새 사역에 진입하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큰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을 통해 하거나 예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는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것이 별로 큰 일도 아니고 사람을 기뻐 환호하게 할 수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그저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 주겠다.

이번에 온 하나님은 영체가 아닌 아주 평범한 몸으로 사역한다. 그 몸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몸이며, 또한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돌아온 몸이고, 아주 평범한 육신이다. 너는 그에게서 남다른 점을 찾을 수 없으나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었던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 보잘것없는 육신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진리의 말씀의 화신이고, 하나님이 하는 말세 사역의 담당자이며,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 알게 하는 존재다. 너는 하늘의 하나님이 몹시 보고 싶지 않았더냐? 너는 하늘의 하나님을 몹시 알고 싶지 않았더냐? 너는 인류의 종착지를 몹시 보고 싶지 않았더냐? 그는 지금껏 아무도 알려 주지 못했던 이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려 줄 것이고, 또한 네가 깨닫지 못한 진리도 알려 줄 것이다. 그는 너를 하나님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대문이자 너를 새 시대로 이끄는 인도자다. 이런 평범한 육신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 많이 깃들여 있다. 그의 행사는 네가 분명하게 측량할 수 없지만, 그가 행하는 사역의 모든 목표를 통해 너는

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육신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세의 뜻을 대변하고, 말세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너는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불꽃 같은 그의 두 눈을 볼 수 없으며, 그의 철장(鐵杖)의 다스림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너는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류를 긍휼히 여기고 있음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도 엿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말세 사역을 통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사람과 다름없는 하나님, 눈과 코가 달린 하나님,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천지가 크게 변하고,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혼돈에 빠지며, 인류가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 살게 될 것임을 보게 할 것이다. 또 말세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진작에 모든 사람을 지옥에 멸했을 것이고, 이 육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원한 죄수이자 영원한 시체임을 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육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온 인류는 큰 재난을 피하기 어렵고, 말세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는 더 무거운 징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이 평범한 육신이 강생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것이고, 이 육신이 존재(원문: 存活)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너희는 진리를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너희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또한 이 육신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옛 시대를 벌써 끝냈을 것이다. 이러한데도 너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 평범한 사람이 너희에게 이렇게 유익한데도 너희는 왜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네가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분명하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할지도 모르겠다면, 너는 어째서 이 평범한 사람이 정말로 너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매우 큰 사역을 하였는지 네 운을 시험해 보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알려 줄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것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아 일가족 여덟 식구와 각종 날짐승과 길짐승만 남기고 큰 홍수로 모든 사람을 멸해 버렸다. 하지만 말세에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모든 사람을 남겨 둔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심히 파괴된 시대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 파괴된 인류인 것은 똑같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은 하나님이 모두 멸해 버렸다. 하나님을 극도로 상심케 한 지경에 이른 것은 똑같지만 말세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내하였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너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너희가 정말 모르겠다면, 내가 알려 주겠다. 하나님이 말세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말세의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보다 덜 파괴되었거나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더욱이 말세의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하나님이 멸하기 아쉬워서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세에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할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친히 이 사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이 한 무리의 사람들 중 일부를 골라 구원의 대상이자 경륜의 결정체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음 시대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하든지, 하나님이 치른 모든 대가는 말세의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예비한 것이다. 너희에게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육신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육신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존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 모든 복은 이 평범한 사람으로 인해 얻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만국이 모두 이 평범한 사람에게 경배하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순종할 것이다. 그가 가져온 진리와 생명과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하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였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소통시키고, 또 그가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평범한 사람이 네가 믿고 양모할 만한 가치가 없단 말이냐? 이런 평범한 육신이 그리스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단 말이냐? 이런 평범한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발현이 될 수 없단 말이냐? 사람에게 재난을 면케 해 준 이러한 사람이 너희가 사랑하고 붙들 만한 가치가 없단 말이냐? 만약 너희가, 그가 입으로 선포한 진리를 저버리고 또 그가 너희들 가운데에 거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너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세 사역은 다 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 한다. 그는 너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하여 언급할 가치조차 없겠느냐? 그의 진리가 너희로 하여금 마음으로나 입으로 탄복케 하기에 부족하냐? 그의 행사가 너희로 하여금 눈으로 탄복케 할 수 없느냐? 아니면 그가 이끄는 길이 너희가 걸어갈 가치가 없느냐? 과연 어떤 것이 너희에게 그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고, 그를 저버리고 피하게 하느냐? 진리를 선포하고 공급하는 이도 이 사람이고, 너희가 행할 길을 주는 이도 이 사람이다. 너희는 아직도 이러한 진리에서 하나님이 사역한 발자취를 찾을 수 없단 말이냐? 예수의 사역이 없었다면, 인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육신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온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영원히 새 시대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평범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면,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볼 기회도, 자격도 없었을 것이다. 너희는 다 진작에 멸망되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였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 어쨌든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역시 이것이다. 말씀이 육신 된 이 평범한 사람이 너희에게 지극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매우 큰 일이다.

## 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줄 수 있다

생명의 도는 아무나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자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창세 이후 하나님은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는 사역,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수없이 행하였으며,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술평한 대가를 치렀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이자 사람을 부활시키는 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매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시시각각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과 생존하는 근본이 되었으며, 또 사람이 생존해 나가는 데 풍부한 자원이 되어 주었다. 그는 사람을 소생시켜 모두가 굳건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도록 했다. 사람은 그의 힘과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는 그의 생명력에 의지해 한 세대 한 세대 이어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힘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사람들을 지탱해 주고 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치른 적 없는 대가를 치렀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모든 힘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힘을 초월할 수 있다. 그의 생명은 영원하고 그의 힘은 비범하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적대 세력도 그의 생명력을 압도하지 못한다. 그의 생명력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며, 눈부신 빛으로 반짝인다. 천지가 크게 변해도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만물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존재한다. 하나님은 만물이 생존하는 원천이자 만물이 의지해 살아가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하늘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으며, 땅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원천으로 숨 쉬고 있다. 생기를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재를 벗어날 수 없고, 활력을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병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인물이든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지금 너는 생명을 간절히 원할 수도 있고, 진리를 몹시 얻고 싶을 수도 있다. 어쨌든 너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할 것이다. 네가 의지할 수 있고, 네게 영생을 부여하는 하나님을 말이다. 하지만 영생을 얻고 싶다면 먼저 영생이 어디에서 오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방금 나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도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이라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도라면 하나님 자신이 곧 영생의 도이다. 그렇다면 너는 먼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일단 이 두 문제를 나눠 교제해 보도록 하자.

네가 진정으로 영생의 도를 얻고자 하고 또 그것을 갈급하게 찾고 있다면 우선 나의 질문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마도 너는 “하나님은 당연히 하늘에 계시지요. 설마 당신 집에 계시겠습니까?”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은 당연히 만물 가운데 있다거나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다거나 영계에 있다고 대답할 수도 있다. 나는 그 대답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 같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대답은 완전히 옳은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거짓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증오하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사람과 도태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일부 사람의 마음속에만 거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대상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대상인 만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생의 도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거짓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증오하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 도태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생명의 도를 얻지 못한 자들이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다. 반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영생의 도를 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대상이다. 지금 너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사람의 곁, 영계, 그리고 만물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위에도 있다. 그러므로 말세가 도래함에 따라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도 새로운 경지로 들어섰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재하는 동시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며, 나아가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래야만 인류에게 생명의 도를 전해 줄 수 있고 사람을 생명의 도로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땅에 임하여 인간 세상에서 사는 것은 사람이 생명의 도를 얻게 하기 위함이고, 사람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행하는 자신의 경영에 보조를 맞추게 하기 위해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 진리는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이치만 인정한다면, 너는 영원히 생명도, 진리의 도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곧 생명이고 진리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는 공존한다. 진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도 얻지 못한다. 진리로 인도해 주고 붙들어 주고 공급해 주는 일이 없다면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글귀와 이치, 그리고 죽음뿐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존재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과 함께 공존한다. 진리의 근원을 찾지 못한다면 너는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너에게는 분명 진리가 없을 것이며, 너의 온몸은 상상과 관념을 제외하면 너의 육체, 즉 구린내가 진동하는 육체에 불과할 것이다. 명심해라. 책의 글귀는 생명으로 삼을 수 없고, 역사적 기록은 진리로 삼아 섬길 수 없으며, 과거의 규례는 하나님이 현실에서 한 말씀의 실제 기록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땅에 임하여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한 말씀만이 진리이자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사역 방식이다. 하나님이 지난 시대에 했던 말씀의 기록을 오늘날에도 고수한다면 너는 고고학자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너에게는 역사·문화재 전문가라는 호칭이 가장 어울릴 것이다. 너는 늘 하나님이 과거에 사역할 때 남겨 둔 흔적만 믿고, 하나님이 지난날 인간 세상에서 사역할 때 남겨 둔 그림자만 믿으며, 하나님이 오래전 하나님을 따르던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 준 도만 믿을 뿐, 하나님이 현재 사역하는 방향이나 현재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현재 선포한 진리의 도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매우 비현실적인 공상가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글귀만 고수하고 있다면 너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썩어 문드러진 나무와 다름없다. 너는 너무나 고집스럽게 낡은 것을 지키고 너무나 완고하며 너무나 딱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란 성육신 하나님의 호칭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진리를 베풀어 주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사람이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으면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가짜다. 그리스도란 땅에서의 하나님의 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서 사역을 펼치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완성할 특유한 육신이다. 그 육신은 아무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육신은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육신인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은 언젠가 모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본질은 조금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짜와 가짜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답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네가 진실로 생명의 도를 찾고자 한다면 너는 먼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와서 생명의 도를 베풀어 주는 사역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말세에 인간 세상에 와서 생명의 도를 베풀어 주고 있음을 시인해야 한다.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에 말이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영원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길이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길이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에 들어설 자격도 없다. 이는 네가 역사(歷史)의 꼭두각시이자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 규례와 글귀, 역사의 명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구한 생명의 도를 얻지 못한다. 그들이 얻은 것은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고여 있던 더러운 물이기 때문이다.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시체이고 사탄의 노리개이며 지옥의 자식이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네가 역사(歷史)를 답습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며 현상 유지에 그칠 뿐, 현 상태를 변화시켜 역사를 도태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솟구치는 파도처럼, 요동치는 천둥소리처럼 거침없이 나아가거늘, 네가 죽을 때까지 앉아서 요행만을 바라며 기다린다면 어찌 너를 어린양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어찌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누렇게 바랜 지 오래인 네 책의 글귀가 어찌 너를 다른 시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을 어찌 찾아 줄 수 있겠으며, 또 어찌 너를 하늘나라로 데려다줄 수 있겠느냐?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그저 잠시 위안을 주는 글귀에 불과하다. 네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인생을 알려 주는 현묘한 이치도 아니고 너를 온전케 하는 길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그저 네 혀를 충실하게 해 주는 구절일 뿐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너는 반성하지 않는단 말이나? 그 속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나?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너 스스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느냐?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 꿈에서 깨어나라.

너는 현재 사역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 사람을 구원하는 말세 사역을 하는 이가 누구인지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진리도 생명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가져다준 생명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말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영원히 혐오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나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해야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공급을 거부한 채 복받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그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역은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사역이며, 새 시대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네가 인정하지 않고 정죄하거나 모독하거나 핍박을 가한다면, 반드시 영원히 불태워질 것이며,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이 그리스도는 성령의 발현이자 하나님의 발현이며,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이다. 그러므로 말세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이다. 명심해라. 네가 말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저버린다면 아무도 너 대신 그 대가를 치러 주지 못할 것이다.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기회가 더는 없을 것이고, 나아가 만회하고자 해도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대적하고 저버린 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결과를 알고 있느냐? 너는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하노니, 진리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사실을 외면한 채 함부로 말하지도 말라.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너를 소생시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할 수 없다.

## 너는 종착지를 위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해야 한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많은 사역을 했고, 물론 이런저런 말들도 했다. 하지만 늘 나의 말과 사역이 내가 말세에 사역하는 목적을 완전히 실현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말세에 행하는 사역은 어떤 사람들이나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거나 일이 바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은 나의 성품을 통해 나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발걸음을 옮겨 나의 새로운 계획과 마지막 사역에 들어감으로써 내 사역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자 한다. 그리하여 나를 본 모든 사람이 내가 살아 있음에 가슴을 치며 끝없이 통곡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인간 세상에 인류의 마지막 날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내 모든 성품을 인류에게 널리 알려 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모두 ‘마음껏 감상하게’ 하고, 내가 정말로 인간 세상에, 만물이 번식하는 땅에 왔음을 보여 줄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며, 인류를 창조한 후 처음 하는 ‘고백’이다. 나는 너희 모두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 나의 채찍이 다시 한번 인류에게, 나를 적대시하는 모든 인류에게 다가왔으니 말이다.

나는 하늘과 함께 내가 하려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인파 속을 헤치며 나아가기도 하고, 하늘과 땅 사이를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 적도 없다. 그래서 나의 계획은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너희의 감각 기관이 너무 무감각한 탓에 내 사역의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도 언젠가는 내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나는 너희와 함께 생활하고, 너희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 나는 인류가 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고, 더욱이 이런 가슴 아픈 일에서 더 많은 실례를 들어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다만 너희가 자신이 행한 일을 모두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대조해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너희들 중 누구에게도 누명을 씌우고 싶지 않다. 나는 언제나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광명정대하게 일하기 때문이다. 물론 너희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를, 하늘과 땅,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가 유일하게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다. 하늘에 사무치는 큰 죄를 짓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고, 좋은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많다. 또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원래보다 더 심해져 지금껏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던 추악한 몰골을 철저히 드러내 놓고 나의 성품을 시험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의 행위도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 나는 어떤 소식을 파악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하며 흥미 있는 일들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원래 계획대로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사역을 한다. 1분 1초의 어긋남도 없이 아주 쉽고 간결하게 한다. 그러나 나는 매 단계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 중 일부를 내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아첨하는 모습을 몹시 혐오하고, 가식적인 노예의 면상도 극도로 증오하기 때문이다. 고의든 아니든 내가

억제워하는 자들은 당연히 나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내가 혐오하는 자들을 모두 내게서 멀리 내칠 것이다. 물론 나의 집에 계속 남아 있는 악인들도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람을 징별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나는 혐오스러운 자들을 나의 집에서 급히 몰아내지는 않는다. 내게는 나 자신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가 사람을 만드는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말을 확정할 때이다. 나는 모든 사람의 말과 행위, 그리고 그가 따라온 과정과 원래 지니고 있는 속성, 혹은 그의 최종적인 태도를 하나하나 나의 기록부에 적어 놓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내 손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모두 나의 배정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것이다. 나는 사람의 종착지를 정할 때, 그의 나이나 관록, 또는 그가 겪은 고난의 양을 보지 않는다. 그가 얼마나 가련한지에 따라 종착지를 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에게 진리가 있는지 여부만 볼 뿐, 그 외에 다른 선택 기준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징별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징별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징별받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 저지른 갖가지 악행으로 인해 짓값을 치르는 것이다. 나의 계획은 시종일관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말하는 대상이 점점 줄어들고, 진정으로 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 뿐이다. 하지만 나는 내 계획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며, 반대로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계속 변하고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나에게 빌붙어 아부하던 모든 사람이 내게 냉담해져 결국에는 나를 문밖으로 쫓아내게 될 수도 있다고 말이다. 너희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미온적이던 데서 반감과 혐오로 바뀌어 결국에는 너희를 징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징별하는 날이 되면 나는 여전히 너희를 볼 수 있지만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 속에서 사는 것이 무료하고 답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생활 환경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너희의 악한 말에 상처받지 않고 더럽기 짝이 없는 너희의 행위를 멀리함으로써 너희가 계속 나를 속이거나 건성으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기 전까지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권할 것이다.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고, 모두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모두에게 이로운 일과 자신의 종착지에 도움 되는 일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 자신이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에게 공활을 베푼다. 악인들이 받는 징별 또한 내 공의로운 성품의 증거이자, 나아가 내 진노의 증거가 된다. 재난이 닥칠 때, 나를 대적인 모든 자는 기근에 빠지고 전염병에 걸려 슬피 울 것이며, 오랜 세월 나를 따랐지만 온갖 악을 저지른 자들 역시 죄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천만년 이래

보기 드문 재난 속에 떨어져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면서 나에게 일편단심 충성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쁘게 손뼉 치며 나의 큰 능력을 찬양할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쾌한 마음으로 내가 인간 세상에 한 번도 베푼 적 없는 즐거움 속에서 살 것이다. 나는 사람의 선행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악행을 극도로 증오하기 때문이다. 나는 인류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면서 나와 한마음 한뜻인 사람들을 얻기를 기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와 한마음 한뜻이 아니었던 자들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으로 미워하며 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걸 보며 통쾌해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오늘, 마침내 나의 날이 왔으니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마지막 사역은 사람을 징벌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착지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모든 사람이 나의 행사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옳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내 성품의 발현임을 보게 할 것이다. 인류를 창조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대자연이 한 것은 더욱 아니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내’가 한 것이다.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재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도 다시는 아름다운 해와 달과 푸르른 세상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인류는 음산하고 차디찬 암흑의 밤과 저항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원문: 救贖)이자 희망이며, 나아가 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의지처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라도 나를 잃으면 인류는 즉시 정체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오직 멸망의 재앙을 당하고 온갖 유령에게 짓밟힐 것이다. 나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사역을 행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조금의 선행으로 나에게 보답하는 것뿐이다.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을지라도 나는 인간 세상에서의 여정을 끝내고 다음 단계에 전개할 사역을 행할 것이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바쁘게 일한 결과가 이미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선행이다. 요컨대, 나는 너희가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나를 만족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엄습할 재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재난은 내가 일으키며 또 당연히 내가 지배한다. 너희가 내 앞에서 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재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모든 행위가 온전히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다 공허하고, 두려움이나 강인함만 드러낼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는 평가만 내린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너희 개개인의 모든 행위와 태도이다. 그것으로 너희의 결말을 정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밝혀 둘 것이 있다. 환난

가운데서 나에 대한 충성심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나의 긍휼은 여기까지이고, 또 나는 나를 배반했던 자를 좋아하지 않으며 친구의 이익을 팔아먹은 자와 왕래하는 것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성품이다.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다.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누구든 내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나의 관용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나?

지금 너희가 보내는 매일매일은 아주 중요한데, 너희의 종착지와 운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날들이다. 그러므로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살아가는 때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시간을 확보해 최대의 수확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아마 너희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영문을 모를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에게 기대한 것이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기에 나로서는 너희 개개인의 행동거지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너희 모두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지난날 구원을 갈구하던 목소리와 진리를 추구하고 광명을 바라던 마음의 소리도 이제는 끝에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내게 최종적으로 보답하는 모습, 또한 내가 전혀 기대한 적이 없었던 모습이다. 너희에게 너무도 실망했기에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너희는 이대로 순순히 수긍하고 싶지도, 진실을 직면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진지하게 물어야겠다. 지난 몇 해 동안 너희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너희의 마음은 대체 누구에게 충성했느냐? 내 질문이 너무 느닷없다고,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고 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희에 대해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기에 너희에게 끊임없이 질타를 가하고, 갇은 고난도 감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것이라곤 너희들의 외면과 참을 수 없어 하며 마지못해하는 모습이였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하는 걸 내가 전혀 모를 거란 말이나? 만일 그렇게 여겼다면 이는 나를 진심으로 선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증한다. 그러니 나는 너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 너희 모두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똑똑하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게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마음이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 너희 모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자신이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문제의 답을 찾도록 도와주겠다!

기억을 가진 자라면, 사람은 모두 자신을 위해 살며 자신에게 충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답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 저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며 각자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들에 충성하지 전적으로 자신에게만 충성하지는 않는다. 각자가 주위 사람과 일, 사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스스로에게 충성하는 것을 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너희의 충성심을 폭로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랜 세월 나는 너희 가운데 내게 ‘충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따르는 지 그렇게 오래되었으면서도 너희는 나에게 ‘충성한’ 적이 없었다.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들을 싸고돌며, 한순간도 버리는 법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에 꿰뚫어 담아두고 있기까지 했다. 나를 따르면서 심지어 내 말을 듣고 있을 때조차도 너희는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너희의 ‘애완동물’에 충성하고 너희의 ‘애완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다소 바쳤다고는 하나, 그것이 너희의 전부를 뜻하지도 않고,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충성함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열렬히 좋아하는 일에 몸담고 있다. 어떤 자는 자녀에게, 어떤 자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자는 금전이나 업무에, 어떤 자는 직속상관이나 지위에, 어떤 자는 여자에게 충성한다. 너희는 자신이 충성하는 것들 때문에 피곤해하거나 번뇌한 적이 없다. 자신이 충성하는 것들을 더 많이, 더 쉽게 가질 수 있기를 더욱더 갈구하였고 또 이를 포기한 적도 없다. 여태까지 너희는 나와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열중하는 모든 것의 끝자리에 놓아두었는데 그것도 마지못해 마지막 자리에 놓아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자는 그 끝자리마저도 자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충성하고 싶어질 것들을 위해 남겨 두었다. 그들 마음속에는 나에게 대한 것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너희는 어쩌면 내 요구가 너무 지나치고 너희를 억울하게 한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워할 때 너희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충성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었느냐? 그때 너희는 이로 인해 괴로워했느냐?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수고의 대가를 받을 때 진리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낙심했었느냐? 너희는 나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느냐? 자녀를 위해서는 온갖 지혜를 짜내며 애쓰면서도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며 여전히 자녀에게 정성과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여기는데, 내게는 어떠하였느냐? 너희는 지금껏

늘 나를 건성으로 대했다. 단지 기억만 할 뿐 마음속 깊이 오래도록 간직하지 않았다.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기울인 심혈을 느낀 적도 이해한 적도 없이 단지 조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런 ‘충성’은 내가 오래도록 기대해 온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증오해 온 것이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너희는 여전히 아주 조금만 인정할 뿐 완전히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너희가 ‘자신만만하여’ 언제나 내 말을 가려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면 내게는 그 자신감을 상대할 방법이 있다. 또한, 나는 내 말이 사실을 전혀 왜곡하지 않은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 각자 앞에 돈을 얼마 놓아두고서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해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 가운데 많은 자가 진리를 버리고 돈을 선택할 것이다. 그보다 좀 나은 자는 돈을 버리고 마지못해 진리를 선택할 것이고, 그 두 부류 중간에 있는 자는 한 손으로는 돈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진리를 붙들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의 참모습이 어떠할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자신이 충성스럽게 대하는 모든 것과 진리 사이에서 너희는 모두 이런 선택을 할 것이고, 너희 태도 또한 이럴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많은 자가 옳고 그름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았느냐? 가정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화목과 파탄, 부와 빈곤, 지위와 평범함, 지지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과 같은 모든 정(正)과 반(反), 흑과 백의 싸움에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너희 스스로 모를 리 없지 않느냐? 가정의 화목과 파탄 사이에서 전자를 선택하는 데에 조금의 망설임이 없었고, 금전과 본분 사이에서 또 전자를 선택했는데, 이를 뉘우치고 바른길로 돌아서려는 의지조차 없었다. 사치와 빈곤 사이에서도 전자를, 자녀, 아내, 남편과 나 사이에서도 전자를, 관념과 진리 사이에서도 전자를 선택하였다. 나는 너희의 온갖 악행에 너무나 놀랐고, 너희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다.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누그러지지 않을 줄은 생각도 못 했다. 오랜 세월 심혈을 기울여 얻은 결과가 나를 포기하고 속수무책으로 구는 너희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나의 모든 날들을 이미 너희 앞에 펼쳐 보였기 때문에 너희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지금도 어둡고 사악한 것을 추구하며 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준다면 너희는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그래도 전자를 택하겠느냐? 나에게 여전히 실망과 고통스러운 슬픔을 안겨 주겠느냐? 너희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그렇게도 작을까? 어떻게 해야 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지 여전히 모르겠느냐? 지금 이 순간,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가셔하는 것이냐? 내 날은 이미 너희 앞에 펼쳐졌고, 너희 앞에 놓인 것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번 출발점은 이전 새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옛 사역의 마무리이자 마지막 장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겠다. 나는 너희 모두 이 시작점이 예사롭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머지않은 어느 날, 너희는 이 시작점의 진정한 함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시작점을 지나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하자! 하지만 정의와 불의에 맞닥뜨리면 너희는 언제나 불의를 선택하기에 나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다 너희의 과거이다. 나 또한 너희의 과거를 모조리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리 쉽지가 않다. 하지만 나에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미래로 과거를 대체함으로써 너희 과거의 어두운 모습을 사라지게 하여 오늘날 참모습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그러자면 어쩔 수 없이 너희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한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봐야 하지 않겠느냐?

## 종착지에 관하여

너희는 종착지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매우 진지하게 대하고, 개개인 모두가 종착지에 관한 일에 특별히 민감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해서라도 좋은 종착지를 얻고 싶어 한다. 나는 너희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으니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다. 너희는 그저 자신의 육체가 재난에 빠지지 않고, 더욱이 자신이 이후에 영원한 징벌에 떨어지지 않으며,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안락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종착지를 언급하면 특히 관심을 기울이며, 자칫 부주의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에 따르는 보응을 받게 될까 봐 매우 두려워한다. 게다가 너희는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서라면 굶질거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능구렁이 같던 자들도 종착지를 위해 갑자기 매우 성실해지고 온순해지는데, 그 성실한 모습은 실로 소름이 끼칠 정도다. 어찌 됐든, 너희의 마음은 다 ‘정직’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이든, 기만이든, 충성심이든 너희 마음속 비밀을 하나도 숨김없이 내게 털어놓았으니 말이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내게 솔직하게 ‘고백’했고, 당연히 나 역시 그러한 것들을 피하지 않았다. 내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익숙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최후의 종착지를 위해서라면 불바다라도 뛰어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머리카락 한 올 바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너무 교조주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너무 충성심 없이 대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간단히 설명을 하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진리와 생명, 사람됨의 원칙이 아니고, 내가 심혈을 기울인 사역은 더더욱 아니며, 너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재물, 지위, 가정, 혼인 등등)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과 사역에 대해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두 글자로 너희의 믿음을 개괄하겠다. 그것은 바로 ‘건성’이다. 너희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달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충성하고 상대적으로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지극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많지 않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데 성공한 것은 그 자신의 행한 바 때문이고,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 역시 사람의 행위로 초래된 것이지, 결코 다른 요인의 영향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어떤 일도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해낼 것이고, 매우 진지하게 대할 것이며, 심지어 그 어떤 오차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너희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위해 부단히 기울이는 노력이다. 심지어 너희는 자신의 혈육 중 누구도 속이지 않으면서 나의 육신을 속이는 짓도 해낼 수 있다. 이것이 너희의 일관된 행위이자 처세 원칙이다. 너희는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서, 아름답고 이상적인 종착지를 위해서 여전히 거짓된 모습으로 나를 속이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의 충성심이 일시적인 것이고, 성실함도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있다. 너희의 의지와 대가도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것 아니더냐? 너희는 오로지 마지막 한 번의 노력으로 있는 힘을 다해 아름다운 종착지를 쟁취할 생각만 한다. 너희의 목적은 교환하는 것일 뿐, 진리에 부응하는 것도, 더욱이 나의 대가에 보답하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머리를 써서 얻으려고만 할 뿐 노력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본심 아니더냐? 스스로를 위장하지 마라. 더욱이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 식음을 잊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머리를 쥐어짜지도 마라. 결국 너희의 결말은 정해진 것 아니겠느냐? 너희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각자의 본분을 잘 이행하되, 어떠한 대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말했듯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른 그 누구도 홀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념은 간직할 만하며 또한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내가 너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 대해 영원히 안심할 수 없고, 너희를 영원히 싫어할 것이다. 너희가 양심에 따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나의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평생의 정력을 바친다면, 내 마음이 항상 너희로 인해 기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에 대해 완전히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내가 바라는 것들 가운데 초라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 애석할 따름이다. 그러니

너희가 무슨 낯으로 나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종착지와 운명은 둘 다 너희에게 매우 중요하며, 또한 너희와 매우 중대한 관계가 있다. 너희는 경솔하게 일을 하면 종착지가 없어지고 자신의 운명을 망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이 종착지를 위해 바친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다면 그런 노력은 허상과 기만일 뿐 진심이 아니며, 만약 그렇다면 종착지를 위해 노력을 바친 자는 결국 마지막 실패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너희는 생각해 보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모두 기만 때문이다. 말했듯이, 나는 사람이 나에게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아부하거나 열성적으로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정직한 사람이 나의 진리와 기대를 마주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이 나의 마음을 극진히 보살피고 나아가 나를 위해 전부를 바치는 것을 더 좋아하며, 그렇게 해야 나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 너희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들은 또 얼마나 있느냐? 설마 너희가 종착지를 위해 행한 온갖 추태를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나는 적극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그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며 충성을 다하려는 의욕은 더더욱 꺾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과 내면 깊은 곳의 더러운 영혼을 일깨워 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저 너희가 진심을 바쳐 나의 말과 마주하길 바라는 데 있다. 나는 사람이 나를 기만하는 것을 제일 혐오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마지막 단계 사역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또한 모두 일편단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길 바랄 뿐이다. 물론 나는 또 너희 모두가 좋은 종착지를 갖게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나에게도 바라는 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최선의 선택을 하여 너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충성심이자 마지막 충성심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다. 유일한 충성심도 없는 자라면 틀림없이 사탄이 아끼는 자일 테니, 나도 더 이상 남겨 두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 그의 부모가 돌보도록 하겠다. 내가 하는 사역은 모두 너희에게 큰 도움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서 얻고 싶은 것은 정직하게 발전하려는 마음이지만 지금까지 나는 아무런 수확도 없이 여전히 빈손이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어느 날 내가 여전히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면 너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될까? 계속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계속 이렇게 평온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무진 애를 써서 농사를 지었으나 낱알 한 알 거두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느냐? 희망을 가득 품었지만 불쾌한 기분으로 헤어지게 된 자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격노한 자가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적대시되고 기만당한 자의

불타는 복수심을 아느냐? 너희가 사람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태도로 사람에게 보응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 모두가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길 바란다. 다만 속임수 없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실망할 것이다. 이러한 실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를 우롱한 것 아니겠느냐? 종착지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종착지를 망치는 자는 가장 구제 불능이다. 그런 자가 곤경에 처해 허둥댄들 그 누가 가없이 여기겠느냐? 어쨌든 나는 너희를 축복하여 모두에게 적합하고 아름다운 종착지가 있기를 바라며, 더욱이 너희 모두가 재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 훈언 3칙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이치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무지와 그릇됨, 패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제일 기본적인 진리조차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결말을 정하기 전에 너희에게 어떤 일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일들은 너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너희는 내 말이 특정인이나 특정 부류를 위한 것이 아닌, 전 인류에게 선포하는 진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진리의 관점에서 나의 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성의를 다하고 한결같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와 내가 말한 모든 진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한 모든 말을 멸시하는 태도로 대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삶 속에서 진리와 무관한 일들을 너무도 많이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사악하고 추한 것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리를 짓밟거나 하나님 집의 곳곳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며, 진리의 종이 되라고 특별히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훈언이다.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너희는 자신의 운명을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스스로를 하나님 집의 일원이라고 시인한 만큼 어디서나 하나님을 안심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흡족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일을 처리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진리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집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너희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는 신실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한 일은 사람이

흠잡을 수도, 의심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지 않고, 다 털어놓으며, 사실을 숨기지 않고, 위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정직하다는 것은 일을 하거나 말을 함에 있어 무언가를 보태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 매우 쉬워 보이지만 너희에게는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정직한 말을 하거나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나는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너무도 ‘영악’하고,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의 생각을 헤아리는 것에 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의 사역도 한결 쉬워졌다. 너희는 저마다 판마음을 품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좋다! 나는 너희 한 명 한 명을 모두 재난 속에 두어 불의 ‘가르침’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너희는 ‘확고부동’하게 내 말을 믿을 것이다. 결국, 나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간교하구나!’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울 것이다. 그때 너희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지금처럼 거들먹거리고 득의양양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처럼 ‘짐작할 수 없는’ 모습은 더욱 아닐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착실하게 굴며 매우 ‘얌전’하지만, 영 앞에서는 매우 흥포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자들을 정직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겠느냐? 만약 네가 위선자이고 ‘사교’에 매우 능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일 것이다. 만약 네가 말에 변명이 많고 쓸데없이 설명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진리를 행하려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네게 밝히기 힘든 사적인 일이 많다면, 자신의 비밀, 즉 자신의 어려운 점을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광명의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너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며, 흑암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일 것이다. 만약 네가 진리의 도를 찾는 것을 좋아한다면 늘 빛 속에서 사는 사람일 것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 집에서 봉사자가 되기를 바라며, 토색하지 않고 묵묵히 근면 성실하게 공헌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충성된 성도라 할 것이다. 너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정직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가 솔직하다면, 너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면,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쳐 굳게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족게 하려고만 할 뿐 자신을 위하거나 무언가를 달라고 할 줄 모를 만큼 정직하다면, 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빛 속에서 윤택함을 얻고 하나님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라고 할 것이다. 너는 자신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진정한 충성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은 이력이 있는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심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네게는 아직도 패역과 기만, 탐욕, 원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적이 없고, 빛 속에서 살아 본 적도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떨지, 그 핵심은 그 사람에게 정직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순수한 영혼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정직하지 않고 마음이 악독하며, 더러운 영혼의 소유자라면, 너는 징벌을 받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말로는 자신이 정직하다고 하나 진리에 부합하는 일을 한 적도 없고 진실한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러고도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기다린단 말이나? 그리고도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겨지길 원한단 말이나? 그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겠느냐? 네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만한다면, 너같이 깨끗지 않은 자를 하나님의 집에서 용납하겠느냐?

세 번째로 알려 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생애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이는 짓을 했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도 있다. 많은 것이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일이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운명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은 그런 일이 어떤 것이냐고 물을 것이다. 너희는 본성이 오만 방자하며 사실 앞에서 복종하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너희가 반성한 후에 차차 알려 주겠다. 그래도 행정 법령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라고 권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입을 단속하지 못하고 함부로 지껄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어 어둠 속에 떨어질 것이며, 성령의 함께함과 빛을 잃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일을 할 때 원칙이 없기 때문에, 네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된다. 너의 말과 행동에는 원칙이 없지만, 하나님의 행사와 말씀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가 보응을 받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득죄했기 때문이다.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거슬렀다면 너는 분명히 지옥의 자식일 것이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몇 번 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알고 있느냐? 하나님 눈에 너는 이미 속죄 제물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네가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거스른 것이 한 번이 아닌 데다가 회개하려는 태도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벌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얼마간 하긴 했어도, 나중에 책망과 인도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패괴를 발견하고 실제의 정상 궤도에 들어서 지금까지 착실히 행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마지막에 살아남을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은 정직한 자다. 네가 정직한 데다가 원칙 있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너의 ‘믿음’은 합격일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거스르기 쉽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알지 못할뿐더러 하나님 말씀에 내포된 뜻은 더욱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좋은 마음이 종종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심한 자는 하나님 집의 문밖으로 쫓겨나 하나님을 따를 기회를 잃고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의 집과는 무관하게 된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집의 사역을 무지한 호의로 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진노를 유발한 사람들이다. 사람은 다 양반 나리를 받들던 수작을 하나님 집에서도 부리며 자기 뜻대로 휘두를 망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양이 아니라 사자 같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처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이다. 너는 수많은 진리를 깨달아야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 갈 수 있다. 그러한 앎은 글귀나 도리가 아니라 너와 하나님이 서로의 마음을 알게 해 주는 보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너의 앎에 실체가 결여되고 진리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열심히 가득한 너의 섬김은 하나님의 혐오와 증오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훈언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다 너희에게 가장 결여된 것이다. 내가 지금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내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이며, 사람의 결말을 정하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부질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며, 쓸모없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지도 않다. 무슨 꿈꿉이속인지 알 수 없는 자들을 이끌 생각은 더더욱 없다. 어느 날, 너희는 내 말에 담긴 고심과 인류에 대한 공헌을 이해할지도 모른다. 혹은 어느 날, 도리를 깨달아 스스로의 결말을 규정할지도 모른다.

## 과오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수없이 경고했고, 너희를 정복하기 위한 진리 또한 많이 베풀었다. 오늘날 너희는 스스로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풍요로워졌다고 느끼고, 사람됨의 도리도 많이 깨달았으며, 신실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상식도 많이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여러 해에 걸쳐 거둔 성과이다. 나는 너희의 성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오랫동안 나에게 저질렀던 온갖 패역과 배반 역시 부인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겠다. 너희 가운데 성인(聖人)이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예외 없이 모두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너희의 과오와 패역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니 내가 너희 앞에서 항상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나 또한 너희와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으나 너희의 미래와 종착지를 위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잔소리하겠다. 너희가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 바란다. 또한, 나의 모든 말을 다 그대로 믿고, 내 말에서 나의 깊은 뜻을 깨닫기를 바란다. 의심하지도 말고, 내 말을 손 가는 대로 집었다 함부로 버리지도 말라. 이는 내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내 말을 판단하지 말고, 내 말을 오만불손한 태도로 대하지도 말라. 내가 늘 너희를 시험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이 정확하지 않다고도 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내가 참아 줄 수 없다. 너희는 나와 내 말을 대할 때 항상 그렇게 걱정이 태산이고 보고도 못 본 척한다. 따라서 나는 너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엄숙히 고하겠다. 내 말을 철학과 연결 짓지 말고, 사기꾼의 거짓말과 연결 짓지도 말라. 또한, 업신여기는 눈빛으로 나의 말을 대하지 말라.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해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인자하게 너희에게 말을 해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앞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차근차근 타이틀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지난날의 아름다운 순간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혹은 대성통곡할 수도 있다. 모두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도 있고, 혹은 진리와 생명의 공급이 전혀 없는 캄캄한 밤 속에서 살 수도 있다. 한 가닥의 희망도 없이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도 있고, 혹은 빠져리게 뉘우치다 못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다.... 너희 중 누구도 이런 가능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너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고 사악한 세상에 한데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과 영, 혼, 육에는 생명과 진리와 완전 무관한 것들이 가득 뒤섞여 있다. 게다가 그런 것들은 생명, 진리와 어긋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도 너희가 광명의 길을 얻는 것이다. 나의 유일한 바람은 너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자신의 종착지만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오히려 자신의 행위와 과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 온 사람은 모두 아름다운 종착지에 이르길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는 행운이 갑작스레 찾아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의 한 자리에 무사히 안착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늘에서 떨어질 행운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천국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너희는 모두 자신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지막 날에 닥칠 재난과 악한 자를 별하는 전능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일을 원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걸작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 파괴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지나친 욕망과 복을 받으려는 절박한 마음을 버리도록 할 것이다. 너희의 과오가 아주 많고, 패역의 사실이 커커이 쌓여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너희가 그리는 행복한 미래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만약 네가 아무 제한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단잠을 자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편이 좋겠다. 너의 꿈은 한낱 공허한 꿈에 불과하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너를 위해 선례를 깨뜨릴 리가 없다. 꿈을 이룰 생각밖에 없다면, 영원히 꿈을 꾸지 말고 진리와 사실을 직시하여라. 이것이 너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다. 그럼 그 방법은 어떤 구체적인 단계로 이루어질까?

첫째, 너의 모든 과오를 성찰하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너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반성하고 살피라.

이는 손쉽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오와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예외이다. 이런 사람은 아예 ‘생각’이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직하며, 행정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고, 자신의 과오를 쉽게 찾아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이 조건은 충족시키기 쉽지만 너희에 대한 나의 유일한 요구 사항은 아니다. 어쨌거나 나의 요구를 몰래 비웃지 말고, 이 요구를 무시하거나 알아보지 말기를 바란다. 무심하게 대하지 말고 진지하게 대하여라.

둘째, 너의 과오와 패역 하나하나를 그에 상응하는 진리를 찾아 해결하여라. 진리를 실행하여 너의 과오, 패역한 생각과 행동을 대체하여라.

셋째, 꾀를 부리지 않는 착실한 사람이 되어라. 간사한 사람이 되지 말라(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임).

네가 이 세 가지를 모두 해냈다면 몹시 운이 좋은 것이다. 그런 네가 바로 꿈을 이루고 행운을 얻은 사람이다. 너희가 하찮게 보이는 이 세 가지 요구를 진지하게 대할 수도 있고, 무책임하게 대할 수도 있다. 여하튼 나의 목적은 너희의 꿈과 이상(理想)을 실현시키는 것이지 너희를 비웃는 것도, 놀리는 것도 아니다.

나의 요구는 몹시 간단하나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준 일은 1+1=2처럼 단순하지 않다. 너희가 입으로만 떠들거나, 장광설이나 공리공론을 늘어놓는다면, 너희의 청사진과 기대는 영원히 백지상태로 남을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헛수고한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나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자들 모두에게 ‘상’ 대신 ‘벌’만 내리고, 동정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어쨌거나 오랫동안 나를 따르느라 노고는 있으니 봉사자가 되어 하나님 집에서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너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너희가 줄곧 손해를 보지 않고 실속만 차리겠다는 원칙을 지켜 왔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정식으로 알려 주겠다. 네가 고생 끝에 큰 공을 세웠든, 대단한 관록을 가지게 되었든, 나의 곁을 따랐든, 명망이 자자하든, 태도가 나아졌든 관계없이, 네가 나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영원히 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너희가 서둘러 온갖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지우고 나의 요구를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모든 사람을 잿더미로 만들어 나의 사역을 끝낼 것이다. 그러면 기껏해야 나의 오랜 사역과 고난이 무(無)로 돌아갈 뿐이다. 나는 나의 원수와 사악한 기운을 풍기며 사탄의 본모습을 가진 자들을 나의 나라, 다음 시대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상당히 많다. 너희가 적절한 처신을 하고, 품행이 바르고, 충심으로 본분을 이행하기 바란다. 또한 진리와 인성을 갖추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너희의 부족함, 패괴, 패역 때문에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너희와 매번 나눈 대화로 너희의 관심을 충분히 끌지 못했다면 내가 말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떨지는 너희도 잘 알 것이다. 나는 보통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무언가를 행할 것이다. 누군가는 혀가 썩어 떨어져 나갈 것이고, 누군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누군가는 실성하여 온갖 추태를 부릴 것이고, 누군가는 내가 빚은 고통을 잔뜩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흐뭇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줄곧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보응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네가 나와 맞서고자 하고 나를 판단하려 한다면, 나 또한 네 입을 썩게 만들 것이다. 그럼 나도 더할 나위 없이 통쾌할 것이다. 어쨌거나 네가 한 일은 진리가 아니고 생명과도 무관하지만, 내가 행한 일은 모두 진리이며 또한 내가 일을 하는 원칙과 내가 정한 행정 법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덕을 많이 쌓고, 악을 적게 행하며, 여유가 있을 때 나의 요구에 공을 들이기를 바란다. 그럼 나는 기쁘기 그지없을 것이다. 너희가 육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들이는 노력의 천분의 일이라도 진리에 기울인다면(바친다고도 할 수 있음) 자주 과오를 범함으로 입이 썩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 아니냐?

과오가 많을수록 네가 좋은 종착지에 이를 기회는 줄어든다. 반대로 과오가 적을수록 하나님께 칭찬받을 기회는 늘어난다. 내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과오를 범하면, 용서받을 기회를 너 스스로 완전히 날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의 종착지는 위가

아닌 아래가 될 것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과감하게 잘못을 범하여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보아라. 네가 성실하게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과오를 용서받을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거역하는 횡수도 분명 점점 줄어든 것이다. 네가 진리를 실행하기 몹시 꺼리는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과오가 분명 늘어날 것이고, 거역하는 횡수도 늘어날 것이다. 극에 달할 때는 바로 네가 철저히 멸망되는 순간이고, 또한 복을 받고자 하는 너의 아름다운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다. 자신의 과오를 미성숙하거나 우매한 사람의 실수로만 간주하지 말라. 네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자질이 부족하여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말로 변명하지 말라. 더욱이 너의 모든 과오를 단순히 잘 몰라서 한 행동으로 간주하지 말라. 만약 네가 스스로를 잘 용서하고 스스로에게 너그럽게 대한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진리를 얻지 못하는 나약한 자라고 할 것이다. 또한 너의 과오가 끊임없이 너를 얽매어 영원히 진리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사탄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게끔 할 것이다. 나의 충고는 변함없다. 즉, 종착지에만 신경 쓰고 너의 숨겨진 과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과오를 중시해야 한다. 종착지만 생각하면서 너의 모든 과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너희가 많은 일을 해내기를 바란다. 하지만 너희의 행위와 삶이 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너희에게 나의 뜻을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 너희는 분별력이나 감상 능력이 너무 부족한 탓에 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당장 너희에게 나의 성품과 본질을 알려 주려고 한다. 이전에 네가 얼마나 알았든, 또 이런 문제에 대해 알려고 했든 아니든 너희에게 상세히 알려 줄 생각이다. 언급된 이 문제가 너희에게 그리 낯설지는 않겠지만, 너희는 이 속에 담긴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뜻에 그리 익숙하지도 않다. 많은 이들이 어렵듯이 조금 알 뿐, 깊이 이해하지는 못한다. 너희가 진리를 더 잘 실행하려면, 즉 내 말을 더 잘 실행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다. 그게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여전히 아주 막연하고 위선적이며, 또한 종교적인 색채로 가득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할 수 없고, 무심하게 넘기거나 얼버무리고, 더욱이 구제 불능일 정도로 모독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파고들어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 보면, 너희는 내가 반포한 행정 법령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쉽게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노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는 행정 법령을 범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동시에 행정 법령 자체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행정 법령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행정 법령 속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하는 말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므로 너희는 신중히 대해야 하고, 더욱이 나의 말을 많이 묵상해야 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말에 대해 들이는 노력이 너무 적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이 끝만 번드르르한 말뿐이라 한다. 지금까지 너희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에서 힘써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는 참으로 너희를 위해 애쓴 나의 마음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니 너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너희의 삶 속에 진리가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이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으니 내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에게나 아주 추상적인 문제이고, 또 누구에게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인 까닭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의 성격과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도 자신의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것 역시 사람의 희로애락과는 다르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과 소유가 있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드러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신분을 대변한다. 그런 어떠함과 소유, 본질, 신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 위로, 증오도 있고, 더욱이 인류에 대한 철저한 이해도 있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에는 명랑함, 활발함 혹은 무감각함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은 만물 생명을 다스리는 주재자가 갖고 있는 성품이자 창조주가 갖고 있는 성품이다. 그의 성품은 존귀함과 권세를 대변하고, 고상함과 위대함을 대변하며, 더욱이 지고지상함을 대변한다. 그의 성품은 권병의 상징이자 모든 정의와 아름다움, 선함의 상징이며, 더욱이 모든 적대 세력과 흑암이 압도하거나 침해할 수 없음을 상징하고, 또 그 어떤 피조물도 거스를 수 없음(또한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음)을 상징한다. 그의 성품은 최고 권력을 상징하며,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도 그의 사역과 성품을 방해할 수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없다. 사람의 성격은 동물보다 조금 우월함을 상징할 뿐 사람 자체는 권병도 없고, 자주적이지도

못하며, 자아를 초월하는 능력도 없다. 그저 나약하게 모든 사람, 일, 사물의 지배를 받는 본질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존재와 탄생, 광명의 존재와 탄생에 기뻐하고, 흑암과 사악이 멸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그 자신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광명과 아름다운 삶 때문에 기뻐한다. 그의 ‘희(喜)’는 정의로운 것으로,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존재를 상징하고, 더욱이 상서로움의 상징이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사물의 존재와 교란이 그의 인류를 침해하는 것 때문에 노하고, 사악과 흑암의 존재, 그리고 진리를 몰아내는 일의 존재 때문에 노하며, 더욱이 아름답고 선한 사물에 대항하는 사물의 존재 때문에 노한다. 그의 ‘노(怒)’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상징하고, 더욱이 그가 본래부터 거룩함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그가 기대했던 인류가 흑암 속에 떨어지고 그가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이 그의 뜻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그가 사랑하는 인류 전체가 광명 속에서 살지 못하는 사실에 슬퍼한다. 또 그는 무고한 인류 때문에 슬퍼하고, 정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며, 선량하지만 주관이 없는 사람 때문에 슬퍼한다. 그의 ‘애(哀)’는 그의 선량함과 긍휼의 상징이자 아름다움과 인자함의 상징이다. 그는 원수를 물리치고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얻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물론, 모든 적대 세력을 몰아내고 멸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또 그는 인류가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얻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그의 ‘낙(樂)’은 사람의 희열과 달리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즐거움이며, 이는 희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다. 그의 ‘낙’은 인류가 앞으로 고난받지 않음을 상징하고, 또 인류가 광명의 세계로 들어감을 상징한다. 반면 인류의 희로애락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의나 광명, 아름다운 사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리는 은혜를 위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인류의 희로애락은 이기적이다. 그것은 어두운 세계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나란히 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고지상하고 존귀하며, 사람은 영원히 미천하고 한 톨의 가치도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를 위해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지만, 사람은 모두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요구하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의 생존을 위해 힘써 일하지만, 사람은 결코 정의와 광명을 위해 무언가를 바치지 않는다. 설령 사람이 잠시 노력한다 해도 작은 일에도 견디지 못한다. 사람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원히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심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정의와 아름다움, 선함의 시작이고, 사람은 모든 추함과 사악함의 계승자요, 발현자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롭고 아름다운 본질을 영원히 바꿀 리 없지만,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정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나의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으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틀림없이 큰 수확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헤아리기가 몹시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대략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는 일을 많이 하여 내게 보여 주길 바란다. 그러면 나도 마음을 놓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일을 할 때는 그의 말씀에 따르며, 매사에 그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불경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미래에 대한 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다. 또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일을 착실하게 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는 행정 법령을 거스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나는 왜 그분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내 생각에 이런 말씀은 성령의 깨우침에 불과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인성은 나보다 뛰어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등의 판단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 나는 네가 죄를 많이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권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영영 사함 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는 네가 노여움을 산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을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그의 육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네가 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이 하는 모든 일은 그가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을 수호하고,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이 점을 간과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일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으므로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별로 너를 훈계할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너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본질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그와 동시에 더 높고 아름다운 경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 자신의 추악한 영혼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더욱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너의 행위는 점점 적어지고,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가까워지며 나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점차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아름다운 경지로 들어감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너희가 모두 자신의 운명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하려는 마음이 있겠느냐?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너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 법령을 범하는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기 위한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다. 너희가 늘 행정 법령을 범한다면, 너희 중에 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 나의 사역이 모두 헛수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는 것 외에도, 걸음을 신중히 내디디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 대한 나의 더 높은 요구이니 너희 모두가 신중하게 고려하고, 진지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느 날 너희의 행위가 나를 노기충천하게 한다면, 너희를 대신해 벌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로지 너희 스스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땅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너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다. 사람은 항상 높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시종일관 하늘의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 한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충성심과 진심은 너희 자신에 대한 충성심과 진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충성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너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더더욱 부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경배하는 하나님, 너희가 양모하는 막연한 하나님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충성심을 지닌 이유는 너희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보기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 하나님은 말로만 인정할 뿐이다.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말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거리는 한없이 멀고, 막연한 하나님과는 눈앞에 있는 듯 가깝다는 의미이다. ‘크지 않다’라 함은 오늘날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별 대단한 ‘능력’도 없는 사람, 그리 위대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작지 않다’라 함은 이 사람이 비바람을 불러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불러 경천동지할 사역을 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너희가 땅 위의 그리스도에게 충실히 복종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너희는 그를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바꿔 말해, 너희가 진정으로 믿는 존재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막연한 하나님이요,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는 너희가 밤낮으로 그리면서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하나님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믿음은 미미하기 짝이 없고, 그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믿음이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랑이란 마음속으로 연모하고 앙망하면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믿음에 대해 말하면 너희는 어떻게 그를 믿고 있느냐? 사랑에 대해 말하면 너희는 또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의 성품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의 본질은 더더욱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를 믿은 것이냐? 너희가 그를 믿는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그를 사랑한 것이냐? 너희가 그를 사랑하는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오늘날까지 나를 따라왔다.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너희도 적지 않은 ‘피로’의 고난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천성과 취향에 대해 더없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너희와 일일이 상대하는 것은 몹시도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나는 너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너희는 정작 나에 대해 조금도 아는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어떤 이의 꾀에 빠졌다는 말을 듣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확실히, 너희는 나의 성품을 모르고, 나의 마음은 더더욱 읽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에 대한 너희의 오해는 설상가상으로 커지고 있고, 너희의 믿음은 여전히 어리석기만 하다.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보다는 나에게 잘 보이려 하고 아첨을 한다는 게 낫겠다. 너희의 목적은 아주 단순하다. 누구든 자신에게 상을 주는 사람을 따르고, 큰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는 사람을 믿을 뿐, 그가 하나님이건 아니건, 어떤 하나님이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매우 많으며, 이런 상태 또한 아주 심하다. 어느 날, 너희 중 그리스도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그를 믿는 자가 몇이나 될지 테스트해 본다면, 아마 내 기대에 부합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다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는 거리가 매우 먼데,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본질은 무엇이나? 너희가 하나님이라 이르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너희는 나와 점점 더 멀어지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또 무엇이나? 너희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의 그런 믿음의 결과는 어떨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현재 너희 앞에 놓인 문제들은 아주 많지만, 너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너희 자신만 손해를 볼 뿐이다. 나는 너희가 문제를 깨닫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너희 자신의 몫이다.

나는 타인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고,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매우 좋아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보살피는데, 내 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네가 매우 간사한 사람이라면 너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추측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너의 믿음 역시 의심의 토대 위에 세워졌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나는 영원히 인정할 수 없다. 참된 믿음이 없다면 참된 사랑은 더욱 논할 것도 못 된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제멋대로 추측하기까지 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누구보다 간사한 사람일 것이다. 너는 ‘하나님도 사람처럼 죄 사함을 못 받지는 않을까, 사람처럼 속이 좁지는 않을까, 사람처럼 불공평하고 불합리하지 않을까, 사람처럼 정의감이 없지 않을까, 사람처럼 수단이 악랄하고, 음험하고 간교하지 않을까, 사람처럼 사악함과 흑암을 좋아하지는 않을까....’라고 의심을 한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한 믿음은 그야말로 죄업을 쌓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내가 비위를 잘 맞추고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환대를 받지도, 발을 붙이지도 못할 것이라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오랜 기간 동안 너희가 얻은 인식이더냐? 이것이 바로 너희가 얻은 수확이더냐? 너희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오해에 그치지 않는다.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고 하늘을 능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그런 믿음이 너희가 내게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너희가 나를 더욱 적대하게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의 사역을 통해 너희도 수많은 진리를 보고 접했다. 그러나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이 전부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 중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너희는 하나같이 자신이 진리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위해 고난받은 자가 몇이나 되느냐?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는 불의뿐이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나 다 똑같이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까지도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선한 마음과 인자한 사랑이 없다고 여긴다. 나아가 고상한 품성이나 인자하고 자비로운 본성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런 성인(聖人)은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은 어둠과 사악이 권력을 잡고 있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아름다운 소망의 정신적 존재이자 사람이 만들어 낸 전설 속 인물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너희 마음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매우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또한 너무도 위대하여 경배하고 앙망할 가치가 있는 분이지만,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대역이자 도구일 뿐이다. 너희는 이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과 절대 동등한 분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여긴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얘기할 때면 그것은 전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람의 본성과 패괴에 대해 논할 때면 땅에 있는 이 하나님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여긴다. 하늘의

하나님은 영원히 위대한 반면, 땅의 하나님은 영원히 하찮고 연약하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은 사사로운 감정 없이 언제나 공의로운 반면, 땅의 하나님은 전혀 공평하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사사로운 마음뿐이라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은 전혀 교활하지 않고 영원히 신실한 반면, 땅의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은 사람을 지극히 아끼는 데 반해 땅의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보살핌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상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그릇된 인식은 너희 마음에 이미 오랫동안 자리해 왔으며, 너희는 앞으로도 이 잘못된 인식을 유지할지도 모른다. 너희는 불의한 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을 바라본다. 또한 악인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그의 신분과 본질을 평가한다. 너희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전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지금껏 면류관을 쓴 하늘의 위대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보잘것없어 눈에 띄지 않는 이 하나님은 ‘시중’조차 든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죄행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을 매우 숭배하고, 위대한 형상을 아주 숭상하며, 비범한 말재주를 가진 사람을 무척 존경한다. 너희 두 손에 재물을 가득 채워 주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고, 무엇이든 너희 뜻에 딱 맞는 하나님을 그리워한다. 네가 유일하게 숭배하지 않는 대상은 바로 이 위대하지 않은 하나님이며, 유일하게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도 높이 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유일하게 원치 않는 것은 이렇게 지금껏 너에게 한 톨도 주지 않은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 또한, 네가 그리워할 수 없는 대상은 바로 이 사랑스럽지 않은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은 너의 시야를 넓혀 주지도, 너에게 보물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주지도 못하며, 네가 원하는 것을 이뤄 주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는 왜 그를 따르느냐? 너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의 행위는 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다. 내 생각엔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닐 것이다!

너희는 몹시 하나님의 기쁨을 사고 싶어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이나? 너희는 그의 말씀만 받아들일 뿐, 그의 책망과 훈계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더욱이 그의 모든 안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완전히 믿지도 못한다. 이것은 또 어찌 된 일이나? 결국 너희의 믿음은 영원히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속이 텅 빈 달걀과 같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에게 가져다준 것은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뜯구름과도 같은 기대와 희망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그 기대와 희망을 위한 것이지 진리와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그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비굴하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만 하는 것으로, 아예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한 믿음에서 어떻게 병아리가 나오겠느냐? 다시 말해, 그러한 믿음이 어떻게 결실을 맺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이용해 너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면서 땅의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그런 관점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착실하게 땅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을 인정하며, 땅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는 인정할 적이 없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한다 해도 결국에는 악한 자를 징벌하는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바로 악한 자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 한 번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순종한 적이 없는 악한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또한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된다. 너는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에게는 제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느냐? 틀렸다! 네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해도 그것은 전부 공허한 외침이며 거짓일 뿐이다. 땅의 하나님은 사람이 진리를 얻고 더 깊은 인식을 얻는 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그 뒤에 사실을 파악하여 악한 자를 징벌하는 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너는 알아들었느냐? 체험했느냐? 나는 너희가 하루빨리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닫기만을 바란다. 즉, 하나님을 알려면 하늘의 하나님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땅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중을 분간하지 못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 하나님의 마음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소원하다면, 나는 네가 분명 하나님의 성품을 자주 거슬렀을 것이며, 너의 결말은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오랜 세월 나와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과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기는커녕 나쁜 습관이 몸에 배고, 교만이 배가될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오해가 가중되어 심지어 나를 너의 소꿉친구로 여긴다면, 너는 이미 겉만 병든 것이 아니라 골수까지 병들었으니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라! 더 이상 내게 찾아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간구할 필요도 없다. 너는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죽을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네 목숨을 거두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닌, 상당히 심각한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어 왜 진작 알려 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하지 말라. 여전히 말했던 대로다. 네가 그리스도, 땅의 이 하나님을 보통 사람처럼 취급하고 함께 지낸다면,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이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너는 황천길로 갈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 모두에게 하는 유일한 충고다.

## 매우 심각한 문제 — 배반 1

나의 사역은 곧 끝날 것이다. 함께 지냈던 오랜 시간은 떠올리기도 싫은 옛일이 되었다. 나는 끊임없이 나의 말을 되풀이하고, 쉼 없이 나의 새 사역을 진전시켰다. 물론 나의 충고는 내가 사역할 때마다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다. 충고가 없으면 너희는 모두 잘못된 길에 들어설 것이며, 더구나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이제 사역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끝나가는 시점에 나는 다시금 충고와 같은 일, 다시 말해 너희가 귀를 기울이도록 충고와 같은 말들을 하고자 한다. 나는 오로지 너희가 나의 심혈을 헛되지 않게 하고, 나아가 나의 고심을 이해하며, 나의 말을 사람됨의 근간으로 삼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그것이 너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든 아니든,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든 받아들이기 힘겨운 것이든, 모두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제멋대로이고 무관심한 성품과 태도가 나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할 것이고, 더구나 나의 미움까지 사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말을 천만 번 이상 되풀이해서 읽고, 더 나아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너희에 대한 나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그렇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모두 주지육림의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으며, 나의 말로 마음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에 나는 사람의 진면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바로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배반할 수 있으며, 나의 말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이미 사람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라는 말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에게 얼마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서의 ‘인정’이 표면상의 동의에 불과할 뿐, 참된 앎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철저히 분석하지도 못한다. 그 때문에 너희가 항상 나의 말에 반신반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로써 너희에게 존재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즉 ‘배반’에 대해 설명하겠다. 여기에서 언급한 ‘배반’이란 말에 대해서는 너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을 배반하는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를 배반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반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딸은 어머니를 배반한다. 좋은 주인을 배반하고 친구는 서로 배반한다. 가족끼리 서로 배반하고 판매자가 구매자를 배반한다. 이런 것들이 다 배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례이다. 요컨대 ‘배반’은 맹세를 깨고, 도덕규범을 위반하며, 세상의 윤리를 저버린, 인간성을 상실한 행위이다. 한 사람으로서 타인을 배반한 적이 있는지를 기억하든 못 하든, 혹은 타인을 배반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든 없든, 결국 너희는 세상에 태어난 이상 진리에 위배되는 일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너는 부모나 친구를 배반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으며, 더구나 나를 배반하고 내가 증오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즉, 배반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진리와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근원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배반은 사람의 천성으로, 이 천성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을 가로막는 천적이다.

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행위는 배반이고, 나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행위는 배반이며, 나를 속이고 거짓말로 나를 기만하는 행위는 배반이다. 관념으로 가득하고 또한 이를 사방에 퍼트리는 것은 배반이고, 나의 증거와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배반이며, 마음속으로는 나를 멀리하면서 웃는 얼굴로 배웅하는 행위는 배반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 너희가 으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너희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배반하는 일을 애들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고, 더욱이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도 없다.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사역해도 너희가 이럴진대, 언젠가 신경 써 주는 이가 없는 날이 오면 산을 차지하고 왕 노릇을 하는 마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 너희가 하늘이 무너져 내릴 정도의 큰 화를 부른다면 그 뒷수습은 또 누가 하겠느냐? 너희는 몇몇 배반 행위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일 뿐, 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꺼내어 너희의 체면을 구기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도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전형적인 배반의 표본이다.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생명이자 사람이 의존하고 있는 생존 원리로, 사람 스스로는 이를 바꿀 수 없다. 배반의 본성처럼 말이다. 네가 가족이나 친구를 배반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네 생명의 일부이자 너의 타고난 천성임을 증명한다.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좋아한다면 ‘도둑질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생명의 일부인 것이다. 다만 남의 물건을 훔칠 때도 있고 훔치지 않을 때도 있을 뿐이다. 도둑질을 했든 안 했든, 이는 그가 한 도둑질이 일종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의 생명의 일부, 즉 그의 본성임을 증명한다. 혹자는 그것이 그의 본성이라면 왜 좋은 물건을 보고도 훔치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그가 도둑질하지 않은 이유는 무척 많다. 예를 들어, 물건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가져갈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손을 쓸 만한 적절한 타이밍이 없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 물건이 너무 고가여서 물샷틈없는 감시가 이루어졌거나, 그가 그 좋은 물건에 구미가 당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물건을 어떤 용도로 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도둑질이 그의 머릿속에 잠시 스쳐 지나간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반대로 그것은 바꾸기 힘든 본성의 일부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한 번의 도둑질에 만족하지 않으며, 좋은 물건이나 적당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남의 물건을 가로채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은 어쩌다 주워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다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 진면목은 당연히 사람의 본성이다. 네가 말을 빙 돌려 하는 사람이라면 네 본성은 교활할 것이다. 네가 매우 간사한 본성을 지녔다면 일을 아주 매끄럽게 처리하고 손쉽게 사람들을 기만할 것이다. 네가 악랄한 본성을 가졌다면 너의 말이 듣기에는 그럴싸해도 너의 행동은 네 악랄한 수단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네가 게으른 본성을 가졌다면 너의 말은 모두 건성과 게으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들일 것이다. 네 행동은 매우 굼뜰 것이며 또한 상황을 모면하고 진실을 감추는 데 능할 것이다. 네가 이해심이 많은 본성을 지녔다면 너의 말은 아주 합리적일 것이며 네 행동 또한 진리에 부합할 것이다. 네가 누구에게나 매우 충성하는 본성을 가졌다면 너의 말은 분명 진정성이 넘칠 것이며, 또한 착실하게 일을 하여 주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호색하거나 금전을 탐하는 본성을 가졌다면 네 마음은 항상 그런 것으로 가득할 것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 사람들이 너를 항상 기억하고 역겨워하게 될 것이다. 말했듯이, 네가 배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일을 피해 가기는 어렵다. 너희 모두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자신에게 배반의 본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요행을 바라지 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몹시 역겨운 일이다. 나는 매번 특정인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를 상대로 말을 한다. 네가 어떤 일에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일에서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될 수는 없다. 결혼에 실패하여 진리 추구에 대한 믿음을 잃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 파탄으로 나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는 의무를 저버린 사람도 있다. 또 일시적인 쾌락과 짜릿함을 즐기고자 나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절벽에서 구름지연정 광명 속에서 살면서 성령 역사가 주는 기쁨과 위안을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돈 욕심을 채우고자 친구의 만류도 뿌리치고 지금도 여전히 길을 헤매며 올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도 있다. 나의 보호만을 바라며 내 이름 아래 잠시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삶에 대한 미련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억지로 내게 조금 봉헌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부도덕하고 비인격적인 행위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배반하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나? 물론 나는 사람의 배반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자연스레 드러난 것임을 알고 있다. 나를 배반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배반하는 일을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으며, 오히려 전전긍긍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이런 배반을 어떻게 만회할지, 오늘날의 상황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생각하고 있느냐?

## 매우 심각한 문제 — 배반 2

사람의 본성과 나의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사람의 파괴된 본성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되었으며, 사람의 본성은 사탄에 의해 가공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사탄의 사악함과 추함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진리의 세상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도 아니며, 광명 속에서 생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본성에 선천적으로 진리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질을 가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진리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본성이 바로 내가 말하려는 문제, 즉 배반이다. 배반은 모든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며, 이 문제는 사람에게만 존재할 뿐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혹자는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신 겁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사람의 생존은 영혼의 반복적인 환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즉, 모든 사람은 영혼이 환생할 때 육의 생명을 갖게 된다. 그 생명은 육의 탄생과 함께 시작하여 육체의 최후, 즉 영혼이 빠져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며, 사람의 영혼은 왔다 가고, 갔다 오는 것을 반복한다. 이렇게 전 인류의 생존이 유지되는 것이다. 육의 생명은 곧 사람의 영혼이 지닌 생명으로, 사람의 영혼은 사람 육의 존재를 지탱한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의 생명은 영혼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육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육이 아닌 영혼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어떻게 사탄에게 유혹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파괴되었는지는 오직 사람의 영혼만이 알 뿐, 사람의 육은 이를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인류는 자신도 모르게 갈수록 불결해지고, 사악해지며, 어둠에 빠지게 된다. 또한, 나와서 거리가 점차 벌어지고, 점점 더 암담한 날을 보내게 된다. 사람의 영혼이 사탄의 손아귀에 묶여 있으므로 사람의 육도 당연히 사탄에게 점령당해 있다. 이런 육, 이런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탄을 반공증으로 내친 이유는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인류라고

다르겠느냐? 이것이 바로 배반이 사람의 본성인 이유이다. 나는 너희가 이 이치를 깨달았으니 그리스도의 본질도 어느 정도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육신이다. 하나님의 영은 지고지상하고 전능하며 거룩하고 공의롭다. 그러므로 그의 육신 역시 마찬가지로 지고지상하고 전능하며 거룩하고 공의롭다. 이 같은 육신은 오로지 공의로운 일, 인류에게 유익한 일, 거룩하고 빛나며 위대한 일만 할 수 있다. 진리와 도의에 어긋나는 일을 할 리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배반하는 일을 할 리는 더더욱 없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므로 그의 육신 또한 사탄에 의해 패괴될 수 없으며, 그것은 사람과는 다른 본질을 가진 육신이다. 사탄이 패괴시키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며, 게다가 사탄은 하나님 자신의 육신을 패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과 그리스도가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사람만 사탄에게 점령되고, 이용당하고, 해를 입는 것이다. 반면 그리스도는 절대 사탄에게 패괴되지 않는다. 사탄은 영원히 가장 높은 곳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는 나를 배반하는 존재는 오직 사탄에게 패괴된 인류뿐이며,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사탄에게 패괴된 영혼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만이 구별되어 사탄의 진영에서 구원받고 오늘의 하나님나라로 인도되었다. 이들은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육에 뿌리박혀 있다. 즉, 너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본성은 예전 그대로이며, 너희가 나를 배반할 가능성은 여전히 백 퍼센트이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사역하는 것 또한 너희의 본성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는 모두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애를 쓰고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바로 너희 모두가 나를 배반하고 다시 사탄의 권세 아래로, 사탄의 진영으로 돌아가 예전의 삶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때 너희는 지금처럼 인간미와 사람의 면모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심각한 경우 멸망에 이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고 중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앞에 놓인 문제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일깨우는 이유는 첫째, 나의 사역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둘째, 너희 모두가 빛이 있는 날들 속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내가 헛수고를 하는지 아닌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사역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네 영혼이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네 육은 평온한 날을 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 육을 지킨다면 네 영혼 역시 분명 나의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몹시 혐오한다면 네 영혼과

육은 즉시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의 상태가 어떨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어느 날, 나의 말이 너희에게서 물거품이 된다면 나는 노여움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너희를 사탄에게 넘겨 갑절의 고통을 받게 하거나 너희같이 구제 불능인 인간들을 친히 벌할 것이다. 너희는 나에 대한 배반의 마음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나를 배반하는 요소가 얼마나 더 있는지 하루빨리 성찰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답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너희 모두 나를 무성의하게 대해선 안 될 것이다. 나는 사람과 장난을 치는 법이 없다. 나는 말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옮긴다. 너희 모두 나의 말을 공상 과학 소설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참답게 대하길 바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실제 행동이지 상상이 아니다. 이제 모두 나의 질문에 답하여라.

1. 네가 정말로 봉사자라면 어떠한 속임수나 부정적인 요소 없이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겠느냐?
2. 내가 너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도 내게 머무르며 한평생 봉사할 수 있겠느냐?
3. 네가 많은 힘을 보탬에도 내가 여전히 너를 차갑게 대한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 묵묵히 일할 수 있겠느냐?
4. 네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바쳤는데 내가 너의 요구를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나에게 믿음을 잃고 실망하거나 나아가 원망과 욕을 퍼부을 수도 있겠느냐?
5. 네가 줄곧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를 사랑해 왔다고 하자. 그런데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궁색한 삶을 살며, 가족과 친구에게 버림받거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때도 나에 대한 너의 충성과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6. 네 마음속의 상상과 내가 행한 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너는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가겠느냐?
7.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나를 따르는 자로 남을 수 있겠느냐?
8. 네가 나의 사역 목적과 의의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때도 제멋대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9. 내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한 말과 사역을 귀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10. 나를 충실하게 따르는 자가 되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 한평생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11. 나를 위해 앞으로 너 자신의 생존의 길을 고려하거나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위의 질문은 너희에 대한 나의 마지막 요구이니 모두가 답해 주기 바란다. 네가 위의 질문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 해당된다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위의 요구 사항 중 단 하나도 충족시킬 수 없다면 너는 분명 지옥으로 떨어질 부류일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분명 나의 마음에 합할 수 없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둘 수 있겠느냐? 대부분의 상황에서 나를 배반할 수 있는 자들의 경우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따로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나를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배반했든

다 기억할 것이며,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겨 두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들의 악행을 응징할 것이다. 위에서 내가 요구한 것들은 전부 너희가 성찰해 봐야 할 문제에 해당한다. 나를 대충 속여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나는 머지않은 미래에 나의 요구와 너희가 나에게 한 답변을 대조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에게 더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간곡한 충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의 권병을 행사하여 남길 사람은 남기고, 상을 내려야 할 사람에게는 상을 내릴 것이며, 사탄에게 넘겨야 할 사람은 넘기고, 중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중벌을 받게 하며,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은 멸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의 날을 방해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말을 믿느냐? 인과응보를 믿느냐? 내가 나를 기만하고 배반한 모든 악인을 징벌할 것임을 믿느냐? 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천천히 오기를 바라느냐? 너는 징벌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징벌받는 한이 있어도 나와 맞서고자 하는 사람이냐? 그날이 올 때, 네가 웃음과 환호 소리 속에 살고 있을지, 아니면 슬피 울고 이를 갈며 보내게 될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너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고 싶으냐? 내가 나를 백 퍼센트 믿는지, 아니면 백 퍼센트 의심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의 모든 행동이 너 자신에게 어떤 결과와 결말을 가져올지 신중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나의 말이 하나씩 이루어지길 바라느냐, 아니면 나의 말이 하나씩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느냐? 내가 서둘러 떠나 나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너는 스스로의 언행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내가 떠나는 것도, 나의 말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네 믿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너 자신이 왜 나를 따르는지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냐? 단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 복을 받거나 앞으로 닥칠 재난을 피하기 위함이라면 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이냐? 왜 스스로에게 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묻지 않는 것이냐? 또 왜 너 자신에게 앞으로 복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는 것이냐?

## 너희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숙고해야 한다

너희 삶 속에서의 온갖 행위를 살펴보면, 너희에게 매일 한 편의 말씀에 공급해 주어야 할 것 같다. 너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인식과 받아들이는 능력도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실생활 속의 너희는 진리도 없고, 양심과 이성도 없는 분위기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너희에게는 생존의 밑천은 물론, 나와 진리를 아는 토대도 없다. 너희의 믿음은 그저 막연한 믿음이나 지극히 교조적인 인식,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 위에 세워져

있을 뿐이다. 나는 날마다 너희의 행위에서 너희의 속셈과 악한 열매를 살피고 있지만, 내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는 그 제단 위에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과 영을 올려놓은 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도 이런 인류에게 내 모든 말을 값없이 부어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내 마음에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사역과 구원하지 못한 인류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나의 구원을 받고, 나의 말로 베풀어 주는 진리를 얻길 바란다. 또한 언젠가 네가 두 눈을 감을 때면, 먹구름이 가득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음침한 세계가 아니라, 향기가 그윽하고 생수가 솟아 흐르는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각 사람이 날마다 행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눈을 피해 갈 수 없으며, 이는 또한 자신의 앞날을 위해 예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거쳐 가야 할 길이며, 내가 각 사람을 위해 예정해 놓은 것이다. 아무도 이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전례를 깨뜨릴 수도 없다. 나는 많은 말을 했고, 더욱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역을 했다. 나는 매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원래 본성과 심해지는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많은 사람이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 이 정상 궤도는 각 부류의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설정한 것이다. 나는 일찍이 각 부류의 사람을 모두 서로 다른 환경 속에 두었고, 그들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원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어느 누가 속박하지도, 유혹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유로웠고, 드러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다. 유독 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말이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죽지 않는’ 결말을 얻기 위해 나의 말을 억지로 읽어 볼 뿐 그대로 실천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내 말의 인도와 공급을 받지 못하는 날들을 견디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내 말을 늘 받들고 있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인생의 비밀과 인류의 종착지, 그리고 사람됨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되었다. 인류는 내 말 앞에서 이런 상태에 머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길 뿐, 내 말을 생존의 토대로 삼으라고 강요하는 어떤 사역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양심도, 생존할 가치도 없는 자들은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과감하게 내 말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한다. 그들은 진리는 물론, 내게서 비롯된 모든 것을 싫어하기 시작하였고, 내 집에 머무는 것은 더욱 싫어하였다. 그들이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저 종착지를 위하여, 그리고 징벌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내 집에 머무를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바뀐 적이 없었고, 그들의 행위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복을 받으려는 그들의 욕망을 더욱 부채질했고, 단번에 영구히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려는 생각, 심지어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욕망을 더욱 부추겼다. 이렇게 나의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랄수록, 그들은 진리가 장애물과 걸림돌이 된다고 여긴다. 그들은 단숨에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며, 더욱이 내 집에서 굶신거리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경영에 협력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음 시대에 멸망되지 않는 일원이 되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속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는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진리를 실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또한 자신이 심하게 패괴되었다고 여기지 않으면서도 처음부터 내 집에 머무르며 ‘종’이 된 이유이다. 그들은 ‘인내심’ 있게 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내 사역 방식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든, 어떤 대가를 치렀든 그들이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옛 시대를 폐하는 그날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마음뿐이며, 내 능력과 권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바꾸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서두른 적이 없다. 그들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며, 내가 증오하는 것을 소망하고 내가 혐오하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들은 이 사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증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게다가 또 내가 그것을 멸해 버릴까 봐 몹시 두려워한다. 그들에게는 모순되는 마음이 있다. 내가 혐오하는 이 세상을 좋아하면서도 내가 이 세상을 하루빨리 멸하기를 ‘바라는’ 그것이다. 그들이 참도를 떠나기 전에 운 좋게 재난을 피할 수 있고, 한순간에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이 모두가 바로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내게서 온 모든 것을 싫어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복을 잃지 않으려고 한동안 ‘순한 백성’이 될지도 모르지만, 복을 받으려는 다급한 심리와 멸망되어 불 못에 던져질까 봐 두려워하는 속마음은 지금껏 감추지 못했다. 나의 날이 임박할수록 그들의 욕망은 더욱 강렬해지고, 재난이 커질수록 그들은 더욱 안절부절못하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내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오랫동안 바라 마지않던 복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몰라 한다. 나의 손이 일을 시작하면, 그들은 바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해 선봉이 되려고 한다. 행여 내 눈에 띄지 못할까 봐 두려워 대오의 가장 앞쪽으로 나설 궁리만 하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말들을 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진리와 무관하며, 그들의 행위가 내 계획을 파괴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 비록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할지라도, 고통을 감내하려는 의지와 속내가 아주 진실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나와 무관하다. 나는 그들의 행위가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느낀 적이 전혀

없거니와 그들이 내 제단에 무엇이라도 올려놓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내 면전에서 행한 것이다.

본래 나는 너희에게 더 많은 진리를 공급해 주려고 했지만, 진리를 대하는 너희의 태도가 너무도 차가워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 심혈을 헛되이 낭비하고 싶지 않으며, 사람들이 내 말을 가지고 곳곳에서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모독하는 상황을 보고 싶지도 않다. 너희의 갖가지 태도 때문에, 또한 너희의 인성 때문에 나는 그저 작은 부분,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말만 공급하여 인류 가운데서 행하는 시범적인 사역으로 삼을 뿐이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나는 내가 한 결정과 계획이 다 너희의 필요에 부합한 것임을 참으로 실증했고, 더욱이 인류를 대하는 내 태도도 옳았음을 실증했다. 너희가 오랜 세월 내 면전에서 행한 행위로 나는 지금껏 얻지 못했던 답을 찾았다. 그 답의 질문은 바로 ‘사람은 진리와 참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쏟은 심혈로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의 본질이 실증되었다. 또한 사람이 내 면전에서 행한 모든 행위로 진리를 증오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의 본질도 실증되었다. 나는 언제나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나를 따르는 각 사람은 언제나 내게서 비롯된 말을 깨닫지 못하며, 심지어 내게서 비롯된 ‘제안’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이다. 내 태도가 진실했고 내 말이 부드러웠을지라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욱 없었다. 저마다 자기가 처음 생각한 대로 내가 맡긴 일을 하면서 나의 뜻을 찾지 않고, 나아가 나의 요구도 묻지 않는다. 그들은 다 나를 거역하면서도 충성을 다해 섬긴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며, 자신이 실천하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서 나의 진리는 부인되고 버림받는 것이 되었다. 또한 나는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이라 인정하지만 진리, 길, 생명은 아니라고 여기는 제3의 존재가 되었다. 아무도 이런 이치를 모른다. 내 말은 영원불변한 진리이며, 나는 사람의 생명 공급자이자 인류의 유일한 인도자다. 또한 내 말의 가치와 의의는 인류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의 본질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설령 이 세상에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 말의 가치와 인류에 대한 도움은 그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거역하고 반박하거나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태도는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시간과 사실이 나를 증거하여, 내 말이 곧 진리이자 길이자 생명이며, 내가 한 모든 말은 옳은 것이고,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실증할 것이다. 나는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즉, 나의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사람, 나의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나의 말에서 목표를 찾지 못하는 사람, 나의 말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말에 정죄받을 사람이고, 더욱이 내 구원의 은혜를 잃은 사람으로, 내 채찍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2003년 4월 16일

## 하나님은 사람 생명의 근원이다

너는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는 순간부터 너의 직책을 이행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네가 맡은 역할을 이행하고, 너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너의 배경이나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든 하늘의 지배와 안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이 같은 일은 오직 한 분, 즉 만물을 주재하는 이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가 생겨난 후로 계속 이 일을 해 왔으며, 이 우주를 경영하고 만물의 변화 법칙과 운행 궤도를 다스려 왔다. 사람은 만물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하나님의 감미로움과 비와 이슬의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또한, 만물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으며, 사람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존재는 생명이 있든 없든 전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며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이다.

밤이 살며시 찾아올 때,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은 밤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떻게 왔는지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두운 밤이 살그머니 달아날 때 사람은 낮을 맞이한다. 사람의 마음은 낮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밤을 몰아냈는지 알지 못할뿐더러 느끼지도 못한다.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낮과 밤의 변화와 교체는 한 번, 또 한 번 인류를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시대 배경으로 이끌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각 시기 사역과 각 시대 계획도 이루었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이처럼 다양한 시기를 지나왔으나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운명을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는 현재와 과거의 사람들이 모두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 은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탄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나타남을 자발적으로 찾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도 없다. 도리어 자신을 갉아먹는 사탄과 악한 자에게 몸을 맡겨 이 세상과 사악한 인류의 생존 법칙에 적응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영이 사탄에게 바치는 공물, 사탄의 먹이로 변해 버렸고, 더 나아가 사탄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 사탄의 당연한 놀이터로 전락한 것이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도리뿐만 아니라 생존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의 약속은 점점 퇴색되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거나 상대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의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율법과 법도에 맞서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과 영은 무감각해졌다.... 하나님은 처음에 만든 사람을 잃게 되었고, 사람 역시 본래의 뿌리를 잃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슬픔이다.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람이 주인공이자 피해자인 비극을 연출해 왔다. 그러나 아무도 이 비극의 감독이 도대체 누구인지 대답하지 못한다.

광활한 이 세상에는 상전벽해의 변화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재하는 그분 말고는 아무도 이 인류를 인도하거나 이끌 수 없다. 또한 그분 말고는 이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를 수고하고 예비하는 그 어떤 ‘능력자’도 없으며, 인류가 불공평한 세상에서 벗어나 광명의 종착지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은 인류의 앞날을 위해 탄식하고, 인류의 타락에 마음 아파하며, 인류가 몰락과 절망의 길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사실에 슬퍼한다.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자를 찾아간 인류가 어디로 가게 될지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노를 느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찾는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살피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를 떠나 자신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은총과 보살핌을 외면하고, 그의 진리를 회피하면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게 자신을 팔아넘기고자 한다. 계속 이렇게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어느 누가 또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권면하는 것은 그의 손에 전례 없는 재난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사람의 육과 영혼이 감내하기 어려운 재난으로, 사람의 육뿐 아니라 영혼까지 징벌을 받게 된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의 일깨움과 권면이 무위로 그칠 때 그가 얼마나 노할지 알아야 한다. 이는 그 어떤 피조물도 경험하거나 들어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재난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 한 차례만 인류를 창조하고, 단 한 차례만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번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이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가 부여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생명체를 세상에 데려왔다. 그리하여 사람은 부모와 가족이 생기면서 외로움에서 벗어났다. 사람은 이 물질적인 세상을 본 후부터 하나님이 정한 운명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생명체 하나하나를 밀받침해 주어 ‘어른으로 성장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부모의 길러 준 은혜라고, 사람의 생명의 본능을 밀거름으로 하여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가 자신의 ‘생명’을 부여했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르며, 생명의 본능이 어떻게 기적을 일구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저 음식이 생명 연장의 근본이고, 의지력이 사람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며, 머릿속의 신념이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밑천이라고 알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을 이렇게 헛되이 허비하고 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아무런 가망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계획한 사역을 할 뿐이다. 그의 바람은 언젠가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 불현듯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베풀면서 치른 대가와 사람이 마음을 되돌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사람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속되는지, 이 모든 비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만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받고도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준 상처와 충격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다. 사람은 생명이 가져다준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하나님 역시 ‘당연하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망각되고, 갈취당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그렇게도 중요할까?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사람이란 생명체가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생명체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인류를 증오한다고 해서 자신의 계획을 망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 입으로 불어넣은 숨결을 위해 모든 고통을 참고 있다. 이는 사람의 육이 아닌 생명을 위함이고, 사람의 육이 아닌 그가 불어넣은 생명을 되찾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모두 생과 사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이 생사윤회의

과정을 겪게 된다. 살아 있는 사람은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은 사람은 또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생명체를 위해 안배한 생명의 여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여정과 윤회를 통해 사람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하려 한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생명은 끊임없이 지속되며, 육,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생명의 비밀이자 생명이 본래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많은 이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땅의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그의 생명을 되찾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모든 것에게 공급하고, 자신의 큰 능력과 권병으로 이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 가고 있다. 이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 주려 한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생명이 가진 위대함과 능력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러했으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내가 알려 주고자 하는 두 번째 비밀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의 형태와 구조에 어떤 차이가 있든, 어떤 생명체든,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궤적을 이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나는 사람이 다음의 사실을 깨닫길 바랄 뿐이다. 하나님의 보살핌, 보호, 공급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싸워도 얻어야 할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와 생명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의 가치를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이에 다시 한 번 강조하니, 하나님이 네 생명의 근원임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베푸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처음에 주었던 것까지 거두어 가는 것은 물론, 자신이 심혈을 기울인 만큼 사람에게 곱절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2003년 5월 26일

## 전능자의 탄식

네 마음에는 크나큰 비밀이 존재한다. 그러나 네가 빛이 비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왔기에 여태껏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너는 마음과 영을 악한 자에게 빼앗겼다. 너의 두 눈은 어둠에 가려져 하늘의 태양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지 못하며, 너의 두 귀는 거짓된 말에 막혀 여호와의 천둥 같은 음성과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물소리를 듣지 못한다. 너는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것과 전능자가 너에게 베푸는 모든 것을 잃고 끝없는 고통의 바다에 빠져 스스로를 구원할 힘도 없고, 살아서 돌아갈 희망도 없다. 그저 발버둥 치며 달리고 달릴 뿐.... 그 순간부터 너는 악한 자에게 시달릴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전능자의 축복과 공급에서 떨어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다. 천만번 불러도 너의 마음과 영을 깨울 수가 없다. 너는 악한 자의 손에서 깊이 잠들었고, 그의 꼬임으로 끝없는 나락에 떨어져 방향과 이정표를 잃어버렸다. 그때부터 너는 원래의 순진무구함을 잃고, 전능자의 보살핌을 피하기 시작했다. 악한 자가 너의 마음속에서 네 모든 것을 조종하며 너의 생명이 되어 너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그를 마음속의 하나님으로 삼아 섬기고 숭배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생사를 같이하기로 약속했다. 너는 자신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또 너는 전능자가 낯설게 느껴지고, 그의 근원과 그가 네게 행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그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을 적대시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한다. 전능자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너는 악한 자와 동행해 왔고, 수천 년 동안 그자와 함께 풍파를 겪으며 네 생명의 근원이었던 하나님께 같이 ‘맞섰다’. 그러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이 파멸에 이르렀음은 더더욱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을 잊고 자신의 근원을 망각한 채 오늘날까지 그 악한 자에게 잔인하게 짓밟혀 왔다. 마음과 영이 마비되고 부패한 너는 더 이상 세상의 번뇌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전능자의 존재 여부는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너는 오래전부터 악한 자를 친아버지로 여기고, 그를 떠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네 마음속 ‘비밀’이다.

동이 틀 무렵 동쪽에서 샛별 하나가 반짝였다. 지금껏 없었던 그 별은 고요한 별하늘을 밝게 비추고, 꺼져 있던 사람들 마음속의 등불을 환히 밝혔다. 그 등불은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 주었고, 너와 그를 밝게 비추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그 칠야 속에서 깊이 잠들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며, 새 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네 아버지가 너에게 “얘야, 일어나지 말거라. 아직 때가 이르잖니. 날씨도 몹시

추우니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나갔다가는 칼과 창에 눈이 찢린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너는 네 아버지만 옳다고 믿고, 그가 너보다 연장자이며 진심으로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기에 그의 당부에만 귀를 기울인다. 이 같은 당부와 사랑으로 인해 너는 세상에 광명이 존재한다는 전설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진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며, 전능자의 구원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현실에 안주할 뿐, 더 이상 광명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전설 속 전능자가 강림하는지를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이 소생하거나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인류의 내일과 미래는 네 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너는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잃지는 않을까, 가야 할 먼 길의 ‘방향’을 잃지는 않을까 심히 두려워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그와 함께 고난을 견디려고 한다. 막막한 세상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로 이 세상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너 같은 이들을 줄줄이 길러 냈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을 잇따라 키워 냈다. 또한, 왜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무감각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대거 배출했다. 깊은 해를 입은 인류를 하나하나 살펴본 전능자는 고통으로 울부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고, 상처를 입은 인간의 뻔뻔한 모습을 보았으며, 구원을 잃은 인류의 무력함과 두려움을 느꼈다. 인류는 전능자의 보살핌을 뿌리치고 제 갈 길을 가며, 그의 감찰을 피하면서 오히려 원수와 함께 심해의 쓴맛을 맛보고자 했다. 전능자의 탄식은 더 이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의 두 손은 더 이상 비참한 인류를 어루만지려 하지 않는다. 수없이 되찾고 수없이 잃어버리며 그는 그렇게 사역을 반복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지치고 싫증이 난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더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은 이 모든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전능자의 오고 감, 그의 슬픔과 실망 또한 알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전능자의 생각 속에서, 눈 아래에서 아주 빨리 변하고 있다. 인류가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는 것이 갑작스레 등장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것이 부지불식간에 사라지기도 한다. 아무도 전능자의 행적을 헤아릴 수 없고, 전능자의 생명력이 얼마나 비범하고 위대한지 느끼지 못한다. 그는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에 비범하고, 인류에게 버려지고도 그들을 구원하는 분이기에 위대하다. 그는 생과 사의 의미는 물론, 창조된 인류에게 어떠한 생존 법칙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다. 그는 인류가 생존하는 근거이며, 인류를 다시 부활시키는 구속자이다. 그는 자신의 사역과 계획을 위해 기쁨을 슬픔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다.

전능자의 생명 공급에서 벗어난 인류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면서 또 죽음을 두려워한다. 인류는 의지하고 도움받을 데가 없음에도 여전히 눈을 감고 싶어 하지 않고, 영혼의 지각이 없는 육을 간신히 지탱하며 이 세상에서 되는데로 살아간다. 너는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그 역시 그렇게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간다. ‘오직 전설 속의 거룩한 자만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그의 강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는 이 신념은 무감각한 사람에게는 쉽사리 실현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은 계속 그렇게 바라고 있다. 전능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도 전혀 지각이 없는 사람을 혐오한다.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사람에게서 오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찾으려 한다. 너의 마음과 영을 찾아 네게 물과 음식을 공급함으로써 너를 깨우고, 네가 더 이상 목마름과 굶주림을 겪지 않게 하려 한다. 더없이 피곤할 때도, 이 세상이 처량하다고 조금 느껴질 때도 방황하거나 울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키며 바라보는 그이가 네가 언제 돌아오든 너를 안아 줄 것이다. 그는 너의 곁을 지키며 네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문득 기억을 되찾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네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언제부터인가 방향을 잃고 길에서 쓰러졌다는 것, 언제부터인가 네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 또 전능자가 그곳에서 네가 돌아오기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깨닫는 그날을 말이다. 그는 답이 없는 응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마음과 영을 위해 그가 곁을 지켜 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이 지킴은 무기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끝이 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오늘날 너의 마음과 영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2003년 5월 28일

##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6천 년 경륜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하나님나라의 문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찾는 모든 이를 향해 열려 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너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자취를 찾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타남은 얼마나 바라고 바라던 일인가! 하나님의 자취는 또 얼마나 찾기 어려운가!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을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다. 아마 너희들은 이 문제에 관해 수차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겠는가? 하나님의 자취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그 답을 찾았는가?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자취는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틀에 박힌 대답이야 누구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무엇을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고,

또 무엇을 하나님의 자취라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와 사역하는 것을 뜻한다. 즉, 그만의 신분으로, 그만의 성품으로, 그리고 그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람들 가운데에 강림하여 시대를 열고 시대를 끝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식도, 징조도 아니요, 한 폭의 그림이나 이적, 큰 이상(異象)도 아니며, 종교적 과정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은 누구나 만질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실제 사실이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기간의 사역을 위한 것도 아니며, 그의 경륜의 한 단계 사역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다 의의가 있고, 그의 경륜과 관계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타나는 것’이란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고 깨우칠 때 ‘나타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매번 나타날 때마다 큰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은 그 어떤 시대에 했던 사역과도 다르다. 그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기존의 시대를 끝내는 사역이며, 인류를 구원하는, 더 새롭고 높은 한 단계 사역이자 인류를 새 시대로 인도하는 사역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의 의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취는 어떻게 찾아야 하겠는가? 사실 이 문제를 설명하기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자취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은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정작 해 보려면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날지 모르며,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려 하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야 하는지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충동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혹은 영적인 인물이 있는 곳이나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의 옳고 그름에 관한 논의는 잠시 접어 두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취를 찾으려는 것이지 영적 인물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며, 유명 인사를 따르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취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새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자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행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곳에 진리, 길,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취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을 간과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진리를 얻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취를 찾았다 생각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난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얼마나 심각한 실수인가! 하나님은 사람의 관념대로 나타날 리도 없고, 사람의 요구에 따라 나타날 리는 더더욱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과 계획, 그리고 자신의 목표와 방식에 따라 사역을 한다. 그는 어떤 사역을 하든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고, 사람의 의견을 구할 필요도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알릴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이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관념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을 너의 범주 안에 한정하거나 너의 관념 속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대신 하나님의 자취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사람은 모두 진리가 아니며 또 진리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찾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네가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신의 국적에서 벗어나고 자아를 초월하여 피조물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취를 특정한 범주에 한정 짓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특정 국가나 민족에게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의 깊은 의의와 하나님의 나타남이 갖는 중요성을 사람의 관념과 사유로 어찌 가늠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너에게 국적과 민족의 관념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그는 어떤 국가나 민족의 사유 재산이 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형식이나 국가, 민족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가 계획한 사역을 한다. 어찌면 그 형식은 네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또, 너는 이 형식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국가와 민족이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와 민족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의 지혜가 있다. 그는 그의 큰 능력으로, 그리고 그의 진리와 성품으로 그와 한마음 한뜻인 사람들을 얻었으며,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고 핍박받으면서도 그를 끝까지 따르는, 그가 온전케 하려는 정복된 사람들을 얻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특정 형식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것은 그가 계획해 놓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이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유대에서 성육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 없고, 예수의 형상으로 성육신할 리 없다고

여겼다. 그들의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근거가 되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제멋대로 떠들어 대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정죄한다. 그들은 ‘그럴 리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남을 또 한 번 자신의 상상 속에 한정 지었다. 그리하여 나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는 미친 듯이 웃어 대는 것을 보았다. 그 ‘웃음’이 바로 유대인들의 정죄나 모독과 같은 것 아니겠는가? 너희는 진리 앞에서 경건하지 않으며,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는다. 그저 덮어놓고 연구하며 무심히 기다릴 뿐이다. 그러한 연구와 기다림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조차 분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 진리가 선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볼 자격이 있다. 너의 고정 관념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평온히 하고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 보아라.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네가 그의 뜻을 깨닫고 그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럴 리 없다’는 논리를 내려놓아라!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더 가능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사유와 고정 관념의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일일수록 찾아야 할 진리가 있는 법이고, 사람의 고정 관념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일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법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든 하나님이며, 나타나는 지역이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취가 어디에 있든 그의 성품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자취가 어디에 있든 그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예수가 이스라엘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유럽·미주 사람들의 하나님이자, 우주 위아래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타났음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자!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의 말씀과 나타남은 공존하며, 그의 성품과 자취는 언제나 인류에게 공개되어 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나는 너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음을 보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새 시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그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

## 하나님은 전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

인류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주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준 사명과 인류의 정의로운 사업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준 사명을 위해 순교한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준 하나님을 마주할 면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했고 이 인류를 지었으며, 나아가 고대 그리스 문화와 인류 문명까지 만들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인류를 위로하고 있고, 또 밤낮으로 보살피고 있다. 인류의 발전과 진보는 하나님의 주재와 떼어 놓을 수 없고, 인류의 역사와 미래는 하나님의 배치를 벗어날 수 없다.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배치 아래에 있음을 믿을 것이다. 모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인류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인류가 좋은 운명을 원한다면, 또한 국가가 좋은 국운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류의 운명과 종착지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짓던 시대를 돌아보자. 인류는 심히 패괴하여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잃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잃고, 하나님의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아가 음란이 일상이 되며 차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타락했다. 그런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이 베풀어 준 모든 것을 뿌리쳤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면서 이성과 인간성을 잃을 정도로 타락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죽음을 향해 나아갔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불러오게 되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악을 멀리하였기에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들을 수 있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탁대로 방주를 만들어 각종 생물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자 하나님은 마침내 세상을 멸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세상을 멸할 당시, 그 재앙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일가 8명뿐이었다. 노아는 여호와를 경배하며 악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보자.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악을 멀리하는 의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인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고, 이 마지막 시대의 인류를 너그러이 용서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준 사명을 잊지 않고 그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순종하며 대적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다. 네가 어떤 세력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지위와 명성이 대단할지라도, 지식과 재물이 많고, 지지자들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 하나님이 맡겨 주는 일을 한다면, 네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인류 가운데서 가장 정의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위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한다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지어 증오하는 일이 될 것이다. 네가 대통령이든 과학자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네 관직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네 능력과 지식에 의지해 개인적인 일을 한다면, 너는 영원한 실패자가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네가 정의로운 일을 한다거나 인류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네가 인류의 지식과 힘을 이용해 하나님의 보호를 힘써 밀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하는 일을 한다고 말할 것이다. 또한 그는 네가 인류를 어둠과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축복을 잃은 흑암 속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인류에게 사회 과학이 생긴 이래, 과학과 지식은 인류의 마음을 차지했으며, 나아가 인류를 지배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유리한 여건을 잃게 되었고, 인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사라졌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인류의 내적 세계는 어둡고 절망적이며 공허하다. 뒤이어 사회 과학자, 역사학자, 정치가들이 일어나 사회 과학론, 인류 진화론 등을 발표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진리에 어긋나는 관점을 인류의 머리와 마음에 채워 넣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만유 창조를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반대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다. 또한 갈수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사역의 기록과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나 전설로 대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엄과 위대함은 희미해졌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한다는 믿음도 아득해졌다. 사람은 더 이상 인류의 존망이나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인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허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날 어디에서 사역하는지, 인류의 종착지를 어떻게 주재하고 계획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어느덧 인류의 문명은 이렇게 기대와 멀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겠다고 생각할 정도다. 지난날 문명이 발전했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조차 이런 원망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기에 통치자나 사회학자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 인류의 문명을 유지하려 해도 소용이 없다.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없으므로 인류 마음속의 공허함을 메우지 못하고, 어떤 사회적 담론도 공허의 질곡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과학, 지식, 자유, 민주, 즐거움, 안락으로 사람이 얻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하다. 인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불가피하게 계속 죄를 짓고, 사회의 불공평을 원망한다. 또한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인류의 탐구하려는 갈망과 욕망이 멈추지는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에, 인류의 무의미한 희생과 탐구는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고뇌를 안겨 줄 뿐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불안에 떨며 인류의 미래와 앞길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과학과 지식을 두려워하고, 공허함을 더욱 두려워하기에 이르렀다. 네가 이 세상의 자유 국가에 있든, 인권이 없는 국가에 있든 너는 인류의 운명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네가 통치자이든, 통치를 받는 자이든 너는 인류의 운명, 비밀, 종착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떨쳐 버릴 수 없고, 영문 모를 공허함을 떨쳐 버릴 수도 없다. 사회학자는 인류의 이러한 공통적 현상을 가리켜 사회 현상이라 말하지만,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인은 한 명도 없다. 결국 사람은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사람도 대신하지 못한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정한 사회뿐만이 아니다.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공급이 필요하다.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 공급과 구원을 얻어야만 필요와 탐구욕, 그리고 심적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보살핌을 얻지 못하는 국가와 민족은 몰락과 흑암으로 나아갈 것이고, 중국에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될 것이다.

너의 국가는 지금 변영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네가 네 국민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면, 그 국가는 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국가의 문명은 점점 더 짓밟힐 것이다. 머지않아 그 국가의 국민은 일어나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늘을 욕할 것이다.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한 국가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강대한 국가를 일으켜 하나님께 저주받은 국가를 상대하게 하고, 지구상에서 그런 국가가 사라지게 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변영과 존망은 그 국가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국민들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경배하는 길로 이끄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하나님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국가를 특별히 우대하고 그런 국가를 결집해 세계에서 비교적 정의로운 진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무신론 국가, 참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국가는 자연히 정의 진영의 대립 세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서 사역할 곳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의의 권세를 행사하는 국가를 얻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국가를 제재하고 단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지 못했다. 이는 인류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고 하나님을 잊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는 그저 정의를 행사하거나 비정의를 배격하는 국가만 남아 있다. 이 정도로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미칠 수 없었다. 하나님께 국민을 통치하도록 맡기는 통치자도 없고, 국민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당도 없기에 하나님은 모든 국가와 민족, 집권당의 마음속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잃었다. 세상에 일부 정의 세력이 있다고는 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통치는 미약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정치 무대는 혼란스럽고 취약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는 것은 태양을 잃는 것과 같다. 통치자가 국민을 위해 아무리 성실히 일하며 공헌한다 한들, 인류가 정의로운 대회를 수없이 개최한다 한들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인류의 운명도 바꿀 수 없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모두가 화목하게 공존하는 국가가 좋은 국가이자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국가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없는 국가는 그의 눈에 멸해야 할 국가일 뿐이다. 사람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정상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의 운명은 매우 비참할 것이고, 그 국가는 종착지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나 모든 국가와 민족의 운명,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 인류의 운명과 하나님의 계획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어떤 사람도, 어떤 국가와 민족도 하나님의 주재를 벗어나지 못한다. 인류의 운명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한다.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경배하는 인류를 번영시킬 것이고, 그를 대적하고 저버리는 인류를 쇠퇴시키고 멸망시킬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던 장면을 돌이켜 보아라. 그리고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니느웨 성의 백성이 어떻게 베풀을 입고 채 위에 앉아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2천 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의 결말을 돌이켜 보아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세계 각국으로 도망갔다. 많은 사람이 살육당하고 온 민족이 유례없는 망국의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저버렸기에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통치자가 국가와 민족에게 안긴 쓰라린 결과이자 재앙이었다.

오늘날 하나님은 또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그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의 첫 사역 장소는

독재자들이 집결되어 있는, 무신론의 견고한 보루, 중국이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무리의 사람을 얻었으나 그동안 중국 집권당의 집요한 추적으로 모진 고난을 겪어 머리 돌 곳도, 몸을 기탁할 곳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사역, 즉 음성을 발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 중국처럼 하나님을 원수로 보는 국가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멈춘 적이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과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하나님은 최대한 인류의 모든 구성원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어떤 국가도,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역을 저지하고, 그의 말씀에 대적하며, 그의 계획을 방해하고 망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자를 지옥에 처넣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국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국가를 멸망시킬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민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나는 모든 민족과 국가, 모든 업계의 사람에게 전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인류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며 지고하신 유일한 경배 대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후예가 여호와와의 약속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산 것과 같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도록 말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거침없는 거센 파도와 같아서 아무도 그를 만류할 수 없고,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오직 귀 기울여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찾으며 갈망하는 자만이 그의 발걸음을 따르고 그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의 재앙과 응분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이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어 온 자신의 생애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각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진정으로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한 사역과 너의 모든 행위에 대해 내린 정의를 정말 알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며, 너의 운명을 주재하고,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에 대해 너는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너는 그가 날마다 너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일을 하는 그의 원칙과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공급하며, 어떤 방식으로 너를 이끄는지 아느냐? 그가 너에게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고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가 어떤 태도로 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대하는지 아느냐? 네가 그에게 사랑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느냐? 그의 희로애락의 이유와 그 뒤에 있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의 본질을 아느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이러한 문제들은 네가 이해한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이 아니더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체험과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푼 적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적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속에서 사람의 패역과 사탄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깨우침으로 새로운 인생관을 갖기 시작했느냐?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시련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구원을 느꼈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너는 한 번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한 적도, 하나님을 이해한 적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너는 틀림없이 순종과 헤아림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최소한 너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한 적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린 적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겪은 적이 없다면, 너는 분명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고, 사람의 패역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모를 것이다. 네가 지금껏 진실로 올바른 인생관을 가진 적이 없고, 올바른 인생 목표도 없으며, 여전히 향후 인생길에 대해 막막해하고 방황하며 심지어 주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너는 분명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받은 적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서 진정으로 공급(원문: 供應與補給)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네가 아직 하나님이 주는 시련을 겪지 못했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너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대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것이며, 사람을 경영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더더욱 모를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어떤 체험도 하지 못하고 깨달음도 얻지 못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실제 내용이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역시 전무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리가 없음은 뻔한 일이다.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은 모두 인류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때, 실천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목적과 근원, 배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알고 체득하게 된다. 사람에게 있어 이것들은 모두 진리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기 위해 반드시 체험하고 깨닫고 얻어야 하는 것들이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깨닫고 얻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차츰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또 서로 다른 정도의 인식을 갖게 된다. 이 이해와 인식은 상상해 내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고 실증한 것이다. 사람에게 이런 깨달음과 체험, 느낌, 실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내용이 생기게 된다. 이때의 인식이야말로 실제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 느낌과 실증을 통해 하나님을 진실로 이해하고 알아 가는 이 과정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귄다. 사람은 이러한 사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본질에 대해 알고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점차 알고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실제로 확신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게 되며,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본질적으로 확정하고 알게 된다. 사람은 이러한 사귄 속에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더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지 않고, 더는 자기 멋대로 추측하지 않으며, 더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더는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항변은 갈수록 적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반발심과 패역 또한 점점 줄어든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헤아림과 순종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점점 실제에 가까워지고 깊어진다. 사람은 이러한 사귄을 통해 진리의 공급과 생명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얻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귄 속에서 성품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되며, 동시에 피조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게 된다. 이러한 사귄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은 더 이상 백지도, 구두 약속도 아니며, 맹목적인 추종과 숭배도 아니다. 이러한 사귄이 있어야만 사람은 생명이 나날이 자라고, 성품도 점차 변화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이 막연한 신앙에서 점차 참된 순종과 헤아림, 나아가 참된 경외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 또한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에서 점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사귄이 있어야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며 인식하게 된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론과 글귀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원점에 머물러

있고, 전설과 봉건 미신의 색채를 띤 전통적인 참배의 기초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원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며,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에 대한 확신을 제외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막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할진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진정한 경외심은 또 얼마나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확신하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과 경외를 대체하지 못한다. 네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얼마나 누렸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을 대체하지 못한다. 또한, 네가 얼마나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봉헌하고 헌신하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을 대체하지 못한다. 어찌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숙독하고 막힘없이 술술 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사람은 아무리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르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귄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체험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텅 빈 공백이나 끝없는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설령 네가 한때 하나님과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적이 있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 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은 여전히 비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너의 경외 또한 공허한 구호나 이상(理想)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을 마음에 새기며 귀한 보물로 여긴다. 또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도움을 준다. 그들은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또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온전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이 폭로한 말씀에 자신을 비취 본 적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숭상과 신임을 편취하고, 개인적인 경영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취하고 도둑질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기회를 이용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망상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를 찾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신을 돕고 공급하지 못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생기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 더 깊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추측이 점점 더 심해졌으며, 하나님에 대한 상상은 갈수록 과장되어 갔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이론적 공급과 인도하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식은 죽 먹기인 것처럼, 그들의 인생 목표와 사명을 찾은 것처럼, 새 삶을 얻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랑하게 외우는 과정에서 진리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길을 찾은 듯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듯했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고심을 끊임없이 깨닫고 있는 듯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경영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도 알게 된 듯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확신한 듯했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더욱 깨달은 듯했으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비범함을 더욱 느낀 듯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면적인 인식에 심취되어 있으면서, 마치 그들의 믿음이 증가하고, 고난받겠다는 다짐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 듯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기 전에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생각은 다 그들의 일방적인 상상과 추측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검증도 견뎌 내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것과 분량은 하나님이 준 시련과 검증을 전혀 감당해 내지 못한다. 그들의 의지는 모래 위에 지어진 공중누각에 불과하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상상해 낸 성과에 불과하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공을 들인’ 이 사람들은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순종인지, 무엇이 참된 헤아림이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인지 전혀 모른다. 그들은 이론, 상상, 지식, 은사, 전통과 미신, 심지어 사람의 도덕관까지 모두 가져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밀천과 무기, 심지어 토대로 삼는다. 그러면서 또 그러한 밀천과 무기를 하나님을 알아 가는 비법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는 검증과 시련, 형벌과 심판을 맞이하고 대처하는 비법으로 삼는다. 결국 그들이 얻는 것은 여전히 종교적 색채와 봉건 미신, 전설과 기괴함, 비밀스러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에 대한 정론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정의는 하늘과 하느님(원문: 老天爺)만 믿는 사람들과 짝어 낸 듯 똑같다. 반면에, 하나님의 실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등 진실한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들의 인식과 어긋나고, 그 어떤 관계도 연관도 없으며, 심지어 완전히 상반된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공급과 자양’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 진정한 원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알고 지낸 적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접하고’ 사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경배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대하는 이러한 관점과 태도로 인해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갈 수 없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은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임을 뜻하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의 공급을 누린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고 공양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 본질적으로 같은 정의를 내렸다면,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얻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 원인을 따져 보면, 그는 하나님 말씀의 실재에 전혀 진입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속의 실재와 진리,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그와 아무 관계도 없다. 다시 말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 아무리 공을 들인다 한들 쓸모없다. 그가 추구하는 것이 글귀이므로 그가 얻는 것도 또한 필연적으로 글귀이다. 하나님이 한 말씀은 겉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쉽든 심오하든, 전부 사람의 생명 진입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진리이며, 사람의 심령과 육체가 생존해 나가기 위한 생수의 근원이다.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일상적인 처세 법칙과 신조를 공급하며,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과 목표, 방향을 공급한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진리를 공급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해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진리를 공급한다. 그는 사람이 살아 나가기 위한 보장이자 일용할 양식이며, 사람을 굳세어지고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견고한 방패이다. 그에게는 창조된 인류를 정상 인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진리의 실재가 가득하고, 인류를 패괴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탄의 울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진리가 가득하며, 창조된 인류에 대한 창조주의 간곡한 가르침과 권면, 격려와 위로가 가득하다. 그는 사람이 모든 긍정적인 사물을 알도록 인도하고 깨우치는 길잡이 등불이자, 사람이 모든 정의와 아름답고 선한 것을 구현하고 가질 수 있게 하는 보장이며,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을 가늠하는 준척이자, 사람을 구원과 광명의 길로 이끄는 등대이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실재 체험 속에서만 비로소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정상 인성이란 무엇인지, 의미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피조물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이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참된 믿음과 경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천지 만물의 주재자가 누구인지, 만물을 주재하는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만물을 주재하고 인도하며 공급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만물을 주재하는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나타나며 사역하는지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경험과 체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참된 인식과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확실한 산송장이고 의심할 나위 없는 겉껍데기로, 창조주와 관련된 모든 인식은 그와 어떤 관계도 없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런 사람은 지금껏 하나님을 믿거나 따른 적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도, 더 나아가 진정한 피조물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진정한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창조주가 누구인지, 사람이 왜 창조되었는지, 피조물의 직책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창조주의 뜻과 마음의 소리와 요구를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헤아려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창조주의 도를 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어떻게 악에서 떠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하는 것도, 숨고 멀리하고 숭상하고 미신하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 양모하고 숭경하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조건도 불평도 없이 경배하고 보답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면 진정한 양모도, 신뢰도, 이해도, 헤아림도, 순종도 없으며, 단지 두려움과 불안, 의심, 오해, 회피, 그리고 멀리함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면 진정한 헌신과 보답도 없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면 진정한 경배와 복종도 없으며, 맹목적으로 숭상하고 미신할 뿐이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악한 일을 멀리할 수도 없다. 반면, 사람이 종사하는 모든 활동과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대적, 비방과 논단으로 가득할 것이며, 또한 진리를 위배하고 하나님 말씀의 참뜻에 어긋난 악행으로 가득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면, 진실로 따르고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진실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려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해야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해야 조건도, 불평도 없이 보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보답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알 수 있고, 창조주의 신분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창조주를 알아야 진정으로 경배하고 복종할 수 있으며, 진실로 창조주께 경배하고 복종해야 진정 악행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떠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전 과정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의 모든 내용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매우 밀접하면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으며, 이 둘의 관계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악에서 떠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해 하나님의 채찍질과 징계, 형벌과 심판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마주해야 하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사람, 일, 사물과 각종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려면 반드시 먼저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 고통을 감내하려는 의지, 악한 일을 멀리하려는 결심과 용기, 그리고 참된 피조물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너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네 마음은 점점 더 순결해질 것이다. 또한, 너의 인생과 삶의 가치는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과 함께 점점 더 의미를 갖게 되고, 점점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너는 창조주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창조주가 너를 피해 숨거나 얼굴을 가린 적이 없고, 너에게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더 이상 네가 밤낮으로 그러도 느낄 수 없었던 그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분명히 너의 곁을 지키고 있고,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으며, 네 운명을 주관하고 있다. 그는 아득한 하늘 끝이나 구름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서 너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다. 그는 너의 모든 것이자 너의 유일한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은 너에게 사모의 마음이 들게 하고, 그리워하게 하며, 가까이하게 하고, 양모하게 하며, 잃을까 두려워하게 하고, 더는 포기하려고도 거역하려고도 하지 않게 하며, 멀리 떠나거나 숨으려고도 하지 않게 한다. 너는 오직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가 네게 준 모든 것에 보답하고 그의 권세 아래에 돌아와 복종하기만을 원하게 된다. 너는 더 이상 너에 대한 그의 인도와 공급, 보살핌과 보호를 거절하지 않고, 너에 대한 그의 주재와 안배에 저항하지 않게 된다. 너는 오로지 그의 곁을 따르고 그와 함께하기를 바라며, 그를 너의 유일한 생명이자 유일한 주,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게 된다.

2014년 8월 18일

##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섬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늘 연약하기도 하고 강인하기도 했으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고,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했다. 또 예수의 재림과 그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실 때 재난을 가져오고 상선벌악(賞善罰惡)하리라. 주를 따르고, 주의 재림을 맞이한 자들은 모두 들림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라는 계시록의 예언대로 되기를 고대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다행히 주님의 강림을 볼 수 있는 말세에 태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박해를 받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 모든 기대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에 더 노력을 기울였다. 어쩌면 내년, 아니면 내일,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더 가까운 때 주께서 홀연히 강림하여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실지도 모르니 말이다. 우리는 첫 순위로 주님의 나타남을 보고, 들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남에게 뒤질세라 앞다투었다. 우리는 도래할 그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다. 어떤 이는 일을 그만뒀고, 어떤 이는 가정을 버렸으며, 어떤 이는 결혼을 포기했고, 심지어 어떤 이는 모든 적금을 바쳤다. 이 얼마나 사심 없는 봉헌인가! 이런 진심과 충성심은 역대의 성도들에게도 없었을 것이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흠을 베풀 자에게 공흠을 베푸시니, 우리의 이러한 봉헌과 헌신을 모두 기억하실 거라고 믿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주님께 상달되었으니, 우리의 봉헌에 대한 상을 내리실 것이라 믿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누구도 앗아 갈 수 없는 복과 약속을 주실 것이라 믿었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계획하며 자신의 봉헌과 헌신이 공중으로 들림 받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자 밑천이라고 확신했다. 그뿐만 아니라 망설임 없이 스스로를 미래의 보좌 위에 앉혀 놓고는, 만국 만민을 다스리거나 왕권을 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예상 범주 안에 있는 일이라고 여겼다.

우리는 예수와 적대하는 모든 이를 경멸했다. 그들의 결말은 멸망일 것이다. 그들이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지 않은 것을 어떡하겠는가? 물론, 때로는 예수를 본받아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했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포용하고 용서해야 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은 성경에 따랐다.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신념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님은 성경 안에 계시니, 성경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원칙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었으며,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맞기를, 주님께 열납되기를 바랐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손만 뻗으면 복을 잡을 수 있는데, 뭘들 포기하지 못하겠는가?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고 있었다. 우리는 거름 더미에서 건져 올려진 극소수의 궁핍한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들림 받는 꿈, 복받는 꿈, 만국을 다스리는 꿈을 꾸고 있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패괴는 남김없이 드러났고, 우리의 욕망과 탐욕은 정죄를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듯이 일어났다. 그 누구도 우리의 기대가 정말 옳은지, 나아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정확한지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람이 대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찾을 방법도, 탐구할 방법도 몰랐으며 알아볼 생각조차 없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을지, 축복받을 수 있을지,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있을지,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지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고 따른 이유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우리의 죄는 이미 사함 받았다. 우리는 회개도 했고 쏜잔도 마셨으며 십자가도 졌다. 우리의 대가가 주님께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충분한 기쁨을 예비하지 않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미련한 처녀가 되고 싶지 않았고, 버려짐을 당하는 이가 되고 싶지도 않았기에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게 보호해 달라고 더 자주 기도했다. 성경에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3~24)라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이러한 구절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달달 외웠으며, 그것을 지극히 귀중한 보물로, 생명으로 여겼고, 구원받거나 들림 받을 수 있는 증거 등으로 여졌다.

수천 년 동안, 살아 있던 사람들은 기대와 꿈을 갖고 떠났지만, 그들이 천국에 갔는지 여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죽은 자는 또다시 돌아왔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잊은 채, 여전히 앞사람들의 가르침과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루 또 하루, 한 해 또 한 해가 흘렀지만, 우리의 예수,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열납하시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결과를 기대하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것을 추측할 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도, 말씀을 하신 적도 없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이적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자기 멋대로 판단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졌고, 우리의 사유 방식으로 우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 익숙해졌으며, 우리의 지식과 관념, 도덕관과 윤리관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대신하는 데에 익숙해졌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데에 익숙해졌으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요구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는 데에 익숙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규례를 지키는 데에 익숙해져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데에 익숙해졌다. 우리는 이렇듯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그의 성품이 어떤지, 그의 소유와 어떠함은 무엇인지, 그의 형상은 어떤지, 그가 오셨을 때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인지 등은 모두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가 있고, 우리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가 어떤 분이라고 상상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좋아하며, 우리의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겼다. 우리는 세상만사를 하찮게 여기고, 만유를 발아래 두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자이기 때문에 천산만수(千山萬水)도, 그 어떤 역경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더라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으며 열두 가지 실과가 열리는데 달마다 열리며 그 나무의 잎은 만민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라 성안에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리라 더 이상 밤이 없으며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 없도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취 주심이라 그들은 영원토록 왕이 되어 살리라”(계 22:1~5, 중국어성경 직역)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기쁨과 만족으로 넘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님의 택하심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현세에 백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게 하시니, 지금 저희의 목숨을 거둔다고 하셔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속히 오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를 봐서,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버린 저희를 봐서, 한시도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적도 없지만, 그의 사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모든 땅을 감찰하고, 만유를 주관하며, 사람의 모든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는 계획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의 경영을 펼치고 계셨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류에게 다가와 손쓸 틈도 없이 빠르게 우주에 그의 심판대를 세웠고, 곧이어 그의 보좌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 이 얼마나 위엄 있는 장면인가! 또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가! 그 영은 비둘기같이, 또 포효하는 사자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는 지혜요, 공의요, 위엄이며, 권병을 지니고 자비와 긍휼을 가득 안고 조용히 우리들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의 강림을 알아차린 사람도, 맞이한 사람도 없었으며, 그가 장차 할 모든 일을 아는 이는 더더욱 없었다. 사람의 삶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사람은 평소와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평소와 똑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하나님 또한 따르는 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 평범한 신자로, 보통 사람처럼 우리들 가운데서 생활하셨다. 그에게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목표가 있었으며, 일반인에게는 없는 신성이 있었다. 아무도 그의 신성을 알아채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본질이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지내면서 그 어떤 구속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다. 우리 눈에 그는 그저 보잘것없는 신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그의 눈에 보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그의 앞에 남김없이 드러났다. 아무도 그의 존재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하는 기능에 대해 상상하지 않았으며, 또 아무도 그의 신분에 어떤 의구심조차 품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좇는 바를 계속할 뿐이었다. 마치 그와는 어떤 관계도 없는 듯이....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성령이 그를 ‘통해’ 한 편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했으며, 기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였다.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든,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모두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다음의 음성은 나를 통해서, 혹은 너를 통해서, 그것도 아니면 그를 통해서 선포될 수도 있지만 누가 되었든 모두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다. 하지만 그게 누구든 우리는 그 사람을 우러러보아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일 리가 없으며, 우리 또한 절대로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택할 리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하신데, 어찌 보잘것없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토록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임무를 담당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분명 흰 구름을 타고 만민에게 보여 주실 것이니,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런데 주님이 어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숨어 계시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숨어 계시는 그 평범한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새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는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지도, 자신이 온 이유를 확실히 말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그의 계획과 단계에 따라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하실 뿐이었다. 그의 말씀은 갈수록 찾아졌다. 위로, 권면, 일깨움, 경고에서 책망과 징계에 이르기까지,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에서 격하고 위엄 있는 말투에 이르기까지 모두 갑절로 긍휼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두려움에 가슴이 떨리기도 했다. 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전부 꿰뚫었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찢어 아파게 했으며,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게 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들림 받을 수 있는 걸까?’라고 마음속으로 따져 보았다. 훗날의 종착지와 미래의 운명 등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이미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사역하고 계신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가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장차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맡기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다. 우리는 그에게서 끊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예수의 은총에만 감사할 뿐, 신성을 지닌 이 평범한 사람이 느낄 심정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는 인류의 저버림을 느끼지 못하는 듯, 사람의 미숙함과 무지함을 언제까지나 용서할 수 있는 듯, 그에 대한 사람의 무례한 태도를 영원히 받아 줄 수 있는 듯,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 육신에 거하면서 사역을 하고 마음의 소리를 선포하셨다.

우리는 어느새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끌려 하나님 사역의 절차 속으로 한 단계씩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채찍질, 그리고 죽음의 시험을 겪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위엄 있는 성품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누렸으며,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과 지혜를 깨달았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도 보았다. 우리는 이 평범한 사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며, 또한 사람의 본성과 본질도 알았고,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길을 보았다. 그의 말씀은 우리를 ‘죽게’ 하는 동시에 ‘부활’시켰고, 우리를 위로하는 동시에 가책과 죄책감을 배로 느끼게 했으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끝없는 고통을 안겨 주기도 했다. 우리는 때로 그의 손안에 있는 어린양마냥 그의 뜻대로 처분되었고, 때로는 그의 눈동자처럼 그의 사랑을 받았으며, 또 때로는 그의 원수처럼 그의 눈앞에서 그의 분노에 의해 잿더미로 변했다. 우리는 그가 구원하는 인류이고, 그의 눈에 구더기로 보이는 존재이자, 또 그가 주야장천으로 찾는 길 잃은 양이었다.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들어 세우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깨우치셨다. 또 그는 우리를 징계하거나 책망하고, 심지어 우리를 저주하기도 하셨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걱정하고 돌보고 지켜 주었으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대가를 쏟아부으셨다. 우리는 이 작고 평범한 육신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종착지도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영심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방해하여 우리는 이 사람을 선뜻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가 우리에게 수많은 만나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주님의 지위’는 그런 것들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특별한 신분과 지위를 존중했다. 그가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가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오래전부터 우리들 가운데서 사역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다양한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깨우치고, 마음의 소리를 전하셨다. 생명력을 가진 그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를 주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깨닫게 하였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 끌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의 어조와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그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심혈을 쏟아부었고, 우리 때문에 침식을 잊었으며, 우리 때문에 울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셨다. 또한 우리를 위해 병으로 신음하고, 우리의 종착지와 구원을 위해 굴욕을 견뎠으며, 또 우리의 무감각과 패역 때문에 마음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셨다. 이러한 소유와 어떠함은 평범한 사람에게 없는 것이자, 파괴된 사람은 절대 갖출 수도, 이를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에게 없는 관용과 인내심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이도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지 못하며, 어떤 이도 인류의 패역과 파괴를 심판하지 못하고, 어떤 이도 하늘의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거나 사역할 수 없었다. 또한, 그 말고는 어떤 이도 하나님의 권병과 지혜와 존엄을 갖추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은 그에게서 남김없이 발현되었다.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거나 빛을 가져다줄 수 없었다.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은 비밀을 밝힐 수 없었고,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우리를 사탄의 속박과 파괴 성품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와 하나님의 당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기원을 열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사역을 가져왔으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망 속에서 보내던 우리의 삶을 끝내셨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게 하였고, 우리를 정복했으며,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각이 생겼고, 우리의 영도 소생한 듯했다.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들 가운데서 살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가 아닌가? 이분!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분이 바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광명을 보게 했으며, 우리의 마음이 더는 방랑하지 않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았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에게 완전히 정복되었고, 더 이상 그의 신분을 의심하지도, 그의 사역과 말씀에 맞서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의 앞에 오롯이 엎드려 이생에 하나님의 발자취만 따르리라 다짐하였고, 그에게 온전케 되고 그의 은총과 사랑에 보답하기만을 바라게 되었다. 또한 그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그의 사역에 협력하며, 온 힘을 다해 그가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만을 바라게 되었다.

하나님께 정복되는 과정은 격투 시합과 같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급소를 찢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였다. 그는 우리의 관념과 상상, 패괴 성품을 드러내셨다. 일언일행, 일거수일투족부터 모든 생각까지, 우리의 본성과 본질은 그의 말씀을 통해 드러났으며, 이에 우리는 겁에 질려 전전긍긍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몰라 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속셈, 목적,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던 패괴 성품까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우리는 만신창이가 된 기분이 들었고, 철저히 인정했다. 그는 그를 대적한 우리를 심판하고, 그를 모독하고 정죄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림으로써, 그의 눈에 우리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사탄임을 느끼게 해 주셨다. 우리의 희망은 깨졌고, 우리는 더 이상 그에게 감히 그 어떤 지나친 요구나 꾀함도 생각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우리의 꿈은 하룻밤 사이에 깡그리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실이었다.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균형을 잃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계속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고, 우리는 한 번도 예수와 ‘만나거나 알고 지내지’ 못한 것 같았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미망에 빠지고 방황했다.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했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건잡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우리는 그것을 쏟아 내려고 시도했고, 또 다른 출구를 찾아보려 했으며, 더더욱 우리의 구주 예수를 계속 기다려 보고,

그에게 속마음을 하소연하고자 했다. 때로 우리의 겉모습은 자연스럽고 의연해 보였으나 마음은 전례 없는 실의에 빠져 있었다. 때로 우리의 겉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 보였지만, 마음은 폭풍우가 치듯 몹시 괴로웠다. 그의 심판과 형벌은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을 앗아 갔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품지 못하게 되었고,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라는 것도 믿고 싶지 않았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그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으며, 심지어 그것을 넘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그의 심판과 형벌로 우리는 난생처음 이렇게 심한 좌절과 굴욕을 맛보았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진정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비천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느끼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인해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교만함과 자만심을 깨닫게 되었으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일 선상에 설 수도, 함께 논할 수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이 패괴 성품으로 살지 않고, 한시바삐 이러한 본성과 본질에서 벗어나, 더는 그의 증오와 역겨움을 불러오지 않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인해 우리는 그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더 이상 그의 지배와 안배에 거역하지 않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주었고, 우리는 기꺼이 그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정복 사역에서 나오게 되었다. 지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게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셨다! 그는 사탄을 이기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다!

우리는 이렇게 사탄의 패괴 성품을 가진,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운 궁핍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죄했었지만, 하나님께 정복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고, 영생의 도를 얻었다. 우리는 이 세상 끝에 있더라도, 그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떠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샘물처럼 끊이지 않고 흘러 너와 나에게, 그에게, 또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베풀다.

하나님의 사역은 해와 달이 바뀌듯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며, 너와 나에게, 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이뤄지고 있다.

2010년 3월 23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복음 사이트

<https://kr.kingdomsalvation.org>



복음 사이트 방문



App 다운로드

**YouTube:** <https://l.kingdomsalvation.org/kr/video>

**Facebook:** <https://l.kingdomsalvation.org/kr/facebook>

**Email:** [contact.kr@kingdomsalvation.org](mailto:contact.kr@kingdomsalvation.org)